무주군지를 발간하며



무주는 우리 나라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무주는 백제와 신라로 나뉘어져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하였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 전후 비로소 한 국가에 속하게 되었고, 이후 각기 다른 행정구역으로 있다가 조선 태종 14년(1414)에 이르러 비로소 단일 행정구역에 속하게 되면서 '무주' 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모든 3권으로 나뉘어 발간되는 『무주군지』 의 첫번째에 해당되는 상권은 무주의 자연 인문환경 역사 그리고 정치와 행정에 관한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상과 함께 새로운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이 무주에 관한 역사서이자 교양서로 군민은 물론 무주를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독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낌없는 충고를 바랍니다.

『무주군지』 를 펴내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찬위원님들과 집필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5월

무주군지편찬위원회 위원장

김 세 웅

무 주 군 수



장엄하고 유구한 역사에서 빚어진 무주의 힘

무주의 변천사를 한 눈에 이해하고, 선현들의 얼과 삶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무주군지』 발간을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주군지』는 장엄하고 유규한 역사에서 빚어진 무주의 힘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도와 법령에 관한 사항에서부터 선현들의 일상적 삶에 이르기까지 연대기적으로 기술된 『무주군지』는 군민에게 무주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재정립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무주는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 전라 경상 충청 3도의 문화를 아우르며 발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무주는 그 찬란한 역사를 배경 삼아 국민통합의 시대적 소명과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군지』는 무엇이 원칙이고 중심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에 대하여 역사를 통해 답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주군민은 『무주군지』를 통해 무주에 대한 역사인식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소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무주군민에게 사랑받는 역사서로서 현재를 반추해 볼 수 있는 삶의 거울이자, 미래를 열어가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않고 『무주군지』가 증보될 수 있도록 남다른 소명과 노력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찬위원과 집필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주군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3년 5월

무주군의회 의장 김 원 수

해 제

이 책은 1968년 편찬된 『무주군사』, 20여 년 후인 1990년 발간된 무주군지』의 증보판이다. 불과 10여 년만에 증보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1990년대는 우리 나라 정치사에 큰 획을 긋는 '지방자치시대' 가 실현되었고, 20세기를 마감하는 새로운 세기, 즉 새 천년을 여는 2000년대가 시작되었으므로 지난 시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열어 가는 디딤돌로 삼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반영한 『무주군지』 편찬을 처음 계획한 것은 1999년이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멈짓거리다 군지편찬을 보다 체계적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2001년 전문 인력을 채용,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러 작은 결실을 맺게 되었다.

『무주군지』는 모두 3권 [상권(지리 역사 정치 행정), 중권(문화유산 민속 마을 인물), 하권(산업경제 교육 사회 문화 종교 명승 관광)]으로 나누어 편찬하는데 우선적으로 상권을 먼저 발간하게 되었다.

『무주군지』 발간을 위해 '무주군지편찬위원회' 를 구성 운영하였고, 전문성과 체계성 그리고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편찬소위원회' 를 운영하였다. 편찬소위원회에서는 편찬위원회에서 위임해 준 목차 및 집필진 선정 등 세부적인 내용을 토의 결정하였다.

책을 편찬할 때마다 늘 그렇듯이, 준비할 때의 다짐은 잊혀지고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뭔지 모르게 부족하다는 점만이 남는 아쉬움은 이번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발간 이후의 질책은 고스란히 편찬위원회의 몫으로 하고,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주군지편찬위원회 박 성 수

무주의 상징



무주군기



무주군 상징마크

자연과 인간을 주제로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미래를 추구하는 무주군민을 반딧불이의 형상화를 통해 표현하였다.



마스코트 반딧불이



군의 꽃/철쭉

낙엽 활엽 관목으로 나무는 회갈색, 잎은 도란형으로 녹색, 꽃은 연한 홍색을 띠고 화관 윗부분에 적갈색 반점이 있다. 5월부터 계곡에서 피기 시작하여 덕유산 정상까지 분포하며 6월까지 군락으로 장관을 이룬다. 정열적인 화합의지와 활기찬 번영을 상징한다.



군의 새/원앙

우리 고장에 서식하는 텃새로 저수지나 하천 등지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사랑' 을 상징하는 새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사랑으로 화합하는 군민을 상징한다.



군의 나무/주목(朱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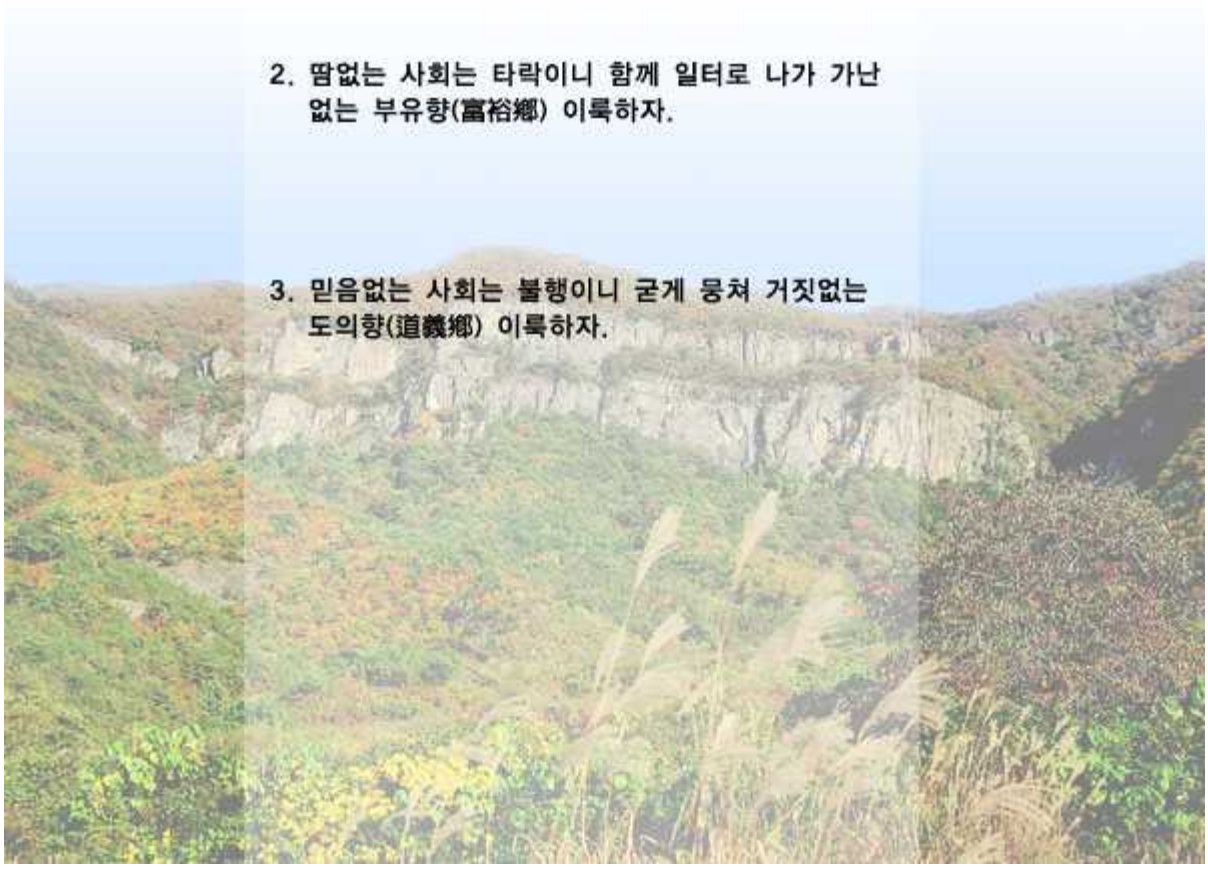
고산성 생엽 교목이며 수간은 적색으로 윤기가 흐른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이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주목은 꿋꿋하고 끈질긴 군민성과 미래지향적인 이상을 상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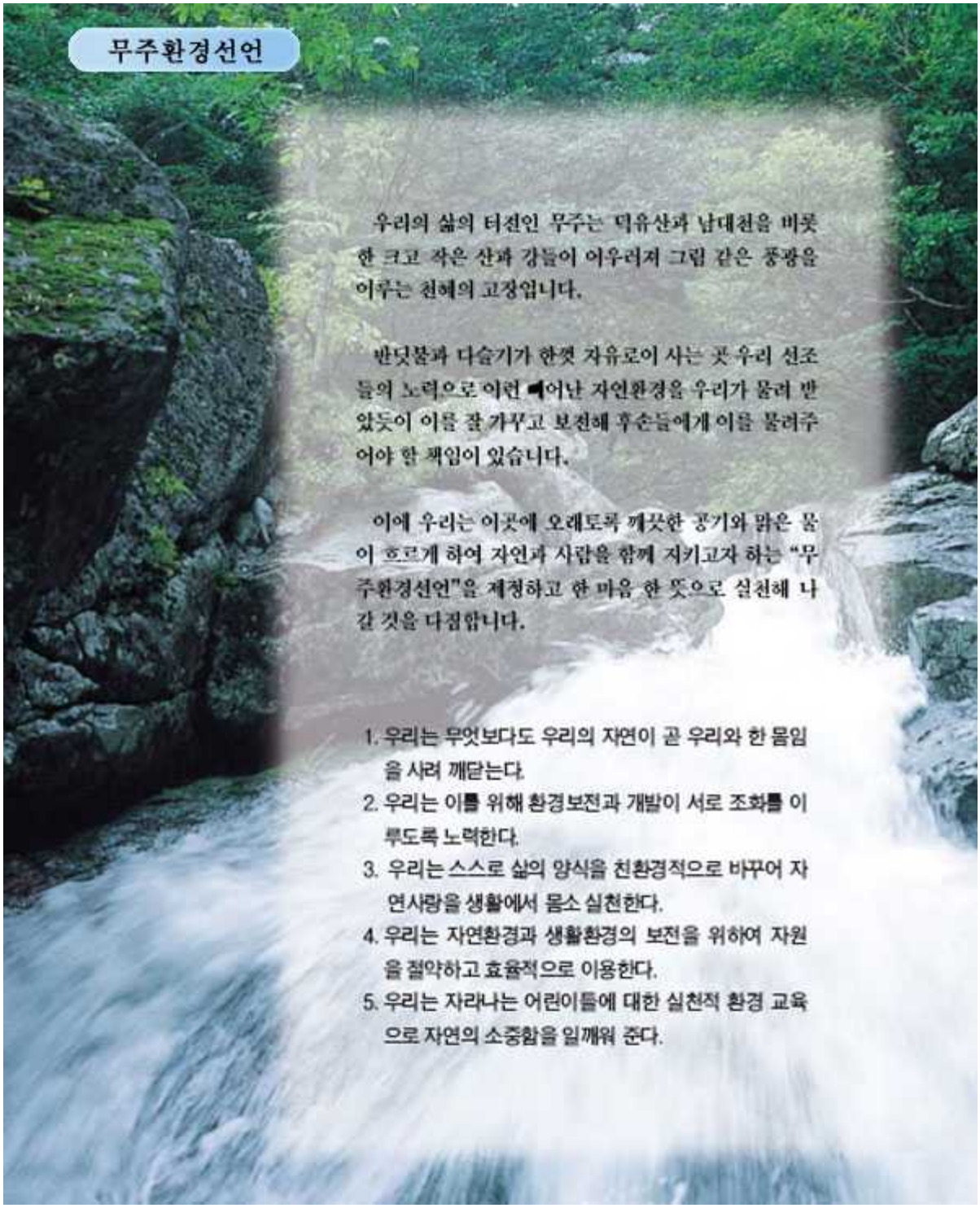
우리 군민은 사랑(愛)과 땀(汗)과 믿음(信)으로써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하자.

1. 사랑없는 사회는 암흑이니 서로 손잡고 싸움없는 평화향(平和鄕) 이룩하자.

2. 땀없는 사회는 타락이니 함께 일터로 나가 가난없는 부유향(富裕鄕) 이룩하자.

3. 믿음없는 사회는 불행이니 굳게 뭉쳐 거짓없는 도의향(道義鄕) 이룩하자.





무주환경선언

우리의 삶의 터전인 무주는 덕유산과 남대천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산과 강들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광을 이루는 천혜의 고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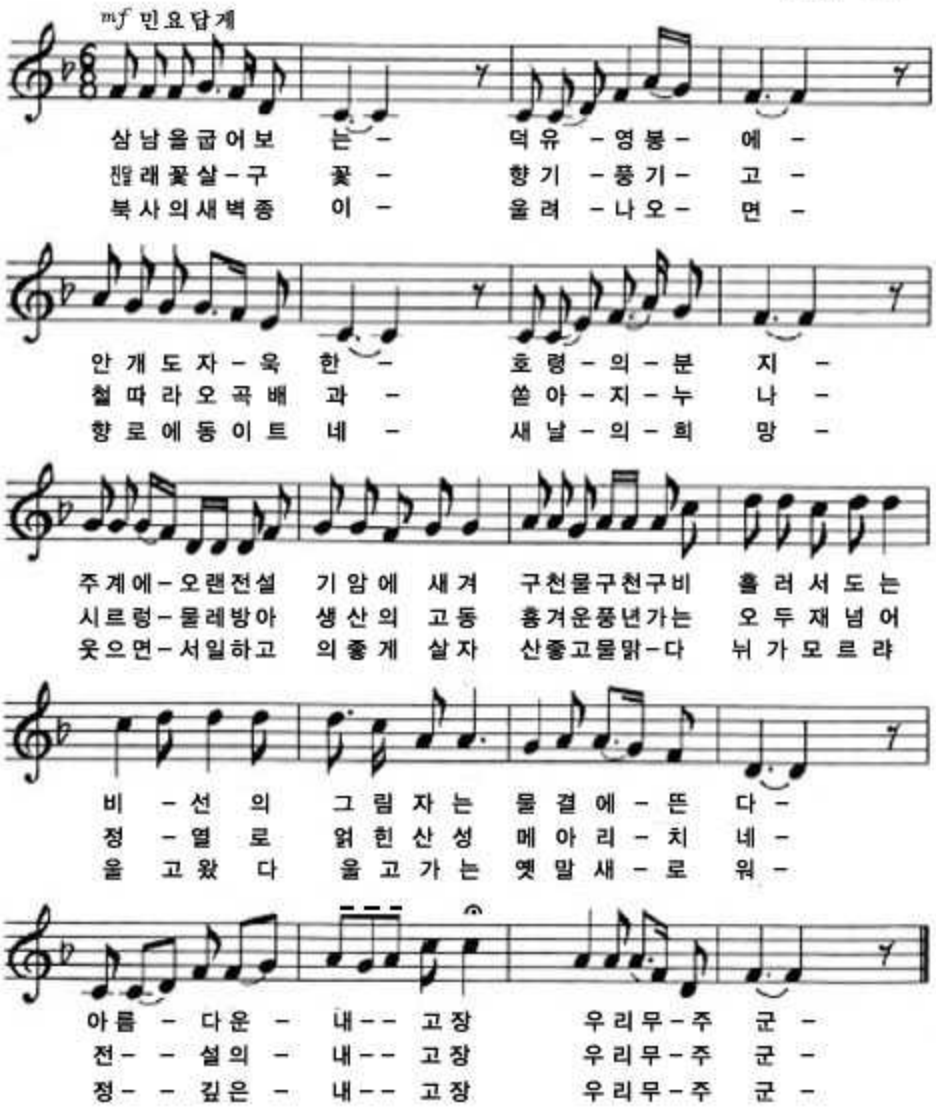
반딧불과 다슬기가 한껏 자유로이 사는 곳 우리 선조들의 노력으로 이런 빼어난 자연환경을 우리가 물려 받았듯이 이를 잘 가꾸고 보전해 후손들에게 이를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곳에 오래도록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게 하여 자연과 사람을 함께 지키고자 하는 "무주환경선언"을 제정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1.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연이 곧 우리와 한 몸임을 사려 깨닫는다.
2. 우리는 이를 위해 환경보전과 개발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3. 우리는 스스로 삶의 양식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어 자연사랑을 생활에서 몸소 실천한다.
4. 우리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5. 우리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실천적 환경 교육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준다.

무주군민의 노래

김기동 작사
강병규 작곡



무주군 행정구역



행정구역	
읍	1
면	5
법 정 리	48
행 정 리	149
반	515
자연마을	267
면 적	631.70



안국사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267호)



적상산성(사적 제146호)



무주구상화강편마암(천연기념물 제249호)



무주 설천면의 반송(천연기념물 제291호)



무주 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천연기념물 제322호)



무주 한풍루(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



안국사 극락전(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2호)



매월당 부도(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3호)



문효공 영정(전라북도 유형문화재81호)



정경부인 영정(전라북도 유형문화재81호)



적상산성 호국사비(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85호)



백련사 정관당 부도(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02호)



연안이씨 이유길 가전 고문서 중 교지(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31호)



북고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83호)



북고사 신중탱화(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87호)



안국사 목조아미타삼존불(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01호)



구천동 주목군총(전라북도 기념물 제27호)



칠연의총(전라북도 기념물 제27호)



마산동굴(전라북도 기념물 제41호)



백련사 금강계단(전라북도 기념물 제42호)



백련사지에 복원된 백련사(전라북도 기념물 제62호)



원통사지에 복원된 원통보전(전라북도 기념물 제67호)



무주 서벽정(전라북도 기념물 제80호)



적상산사고지 유구에 복원된 실록각과 선원각(전라북도 기념물 제88호)



무주향고 대성전(전라북도 기념물 제103호)



벽산서원(전라북도 기념물 제160호)



분양서원(전라북도 기념물 제161호)

茂朱郡誌

（中）

『일러두기』

1. 편찬 방침

가.≪무주군지≫는 통권으로 하던 것을 3권으로 분책하였다. 이는 통권의 방대함을 줄이고 주제별로 나누어 편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원고 집필은 해당 분야의 전문학자로 구성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도모하였다.
다.목차의 구성과 내용의 전개는 체계적인 편차와 현장자료의 보완을 통해 무주군의 특성이 최대한 표현되도록 하였다.
라.역사적인 사실과 사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실적인 서술을 우선함으로써 사실 위주의 역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2. 표기 방법

가.한글 전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고유명사나 특수용어 등 필요한 경우는 한자 및 원어를 병기하였다.
나.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을 섞어 표기하였다.
다.각종 부호 사용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랐다.
라.인물에 대한 경칭은 생략하였다.

3. 교열 및 감수

가.교열 및 감수는 모두 4차에 걸쳐 진행하였다.
나.1차는 편찬위원회 전문위원이 하고, 2차는 집필진, 3차는 무주군 지역내 인사와 편찬 위원회, 4차는 별도 교정자를 선임하여 추진하였다.
다.전문학자들이 집필한 관계로 표현 체제 등 차이점이 발생, 편집·교열·교정과정에서 수정 보완하여 사실적 표현과 체제의 통일에 노력하였다.

<무주군지 편찬위원회 위원>

위 원 장 : 김세웅(무주군수)
부위원장 : 김경석(무주문화원장)
(전임 성대휴, 前무주문화원장)
위 원 : 박성수(국제평화대학교 총장)
서재균(前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
황일태(前 전북저널 편집국장)
유재두(무주향토사연구회장)
박희명(前 무주교육장)
김재환(前 무주군의회 의장)
이규정(대한불교 조계종 안국사 주지)
백낙근(前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오세득(무주반딧불제전위원회 부위원장)
박석용(前무주군 내무과장)
양선모(무주구천동관광연합회장)
전기순(무주읍진흥회장)
신경수(前환경신문 무주군 주재기자)
신운호(무주문화원 이사)
문기득(무주군체육회 이사)
백성기(대한바이애슬론연맹 부회장)
이태랑(향토사학자)
맹갑상(무주군 문화관광과장)
간 사 : 천영평(무주군청 문화관광과장)(전임:맹갑상)
서 기 : 윤명채(무주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전임:김창종, 오종석)
전문위원 : 박대길(무주군 전문계약직)

<중권 집필 위원>

제1편 문화유산

제1장 문화재
제2장 무주군의 문화재
　　김병남(팬아시아페이퍼 박물관 학예연구사)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2편 민속

제1장 전통문화
제1절 무주군의 생활
제2절 의생활
제3절 식생활
　　무주향토사연구회 (무주문화원)
제4절 무주의 가옥과 주거생활
　　홍승재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제5절 세시풍속
　　무주향토사연구회 (무주문화원)
제6절 민속놀이
　　이종진 (전주문화원 사무국장)
제7절 민요
　　유자영
제8절 마을신앙
　　이상훈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제9절 민간의료
무주향토사연구회 (무주문화원)
제10절 무주의 풍수
이상훈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제2장 무주의 전설과 시가
서재균 (前 전북도민일보 편집국장)
제3장 무주의언어

제3편 읍·면·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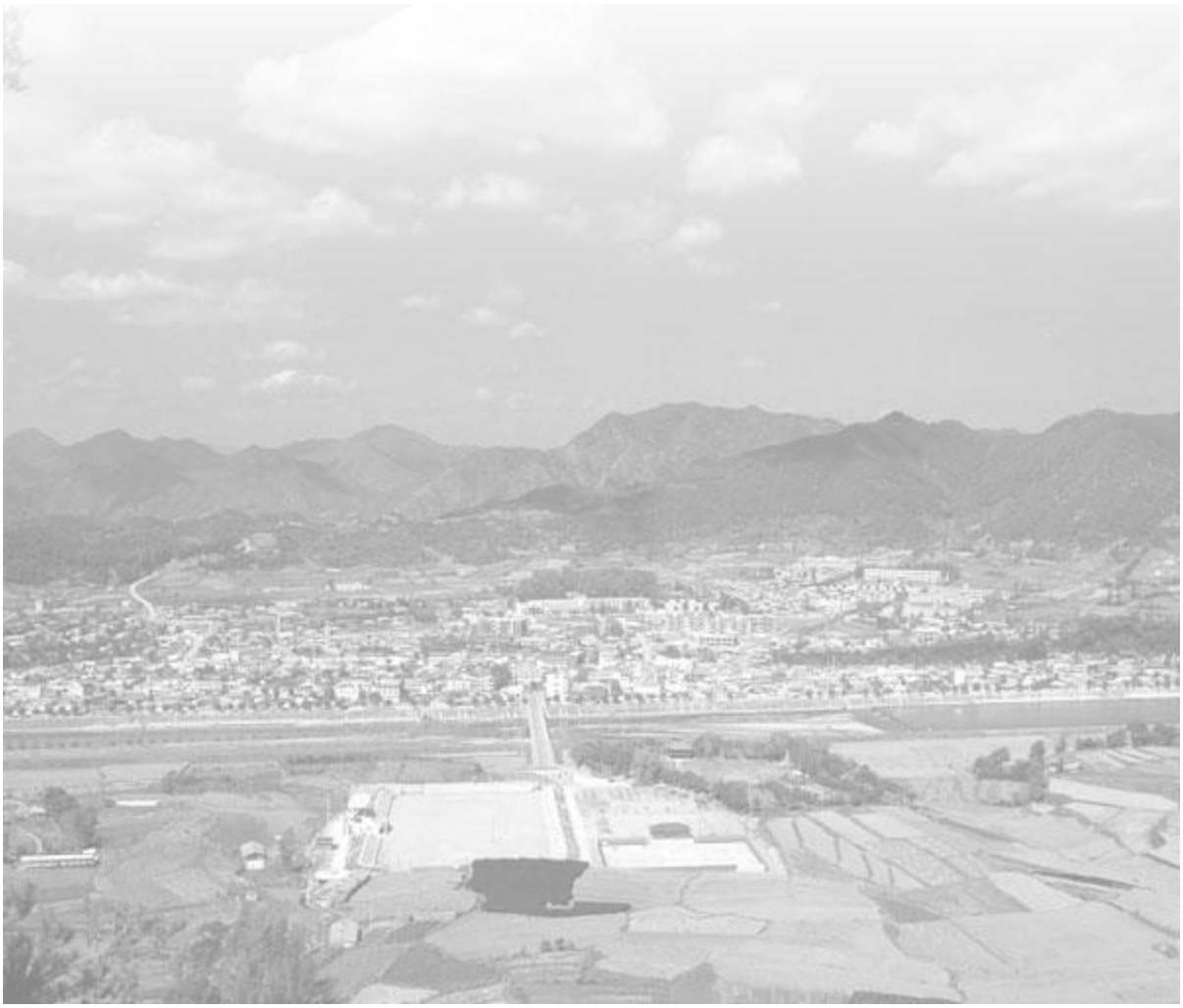
제1장 읍·면·마을 변천 개요
최범호 (전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제2장 읍·면·마을사
박노석 (전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제3장 무주의 성씨
허인욱 (고려대학교 사학과)

제4편 무주의 역사 인물

하태규(전북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교수)



제1편 문화유산



제1편 문화유산

제1장 문화재

제1절 개관

1. 문화재의 정의

문화재(文化財·cultural properties)는 일반적으로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포괄하는 총칭[1]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한다.

2. 분류

1995년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는 유형에 따라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분류된다.

1) 유형별 분류

(1) 유형문화재

건조물·전적(典籍)·서적(書蹟)·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2000. 1. 12 개정).

고자료(考古資料)를 말한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와 보물, 시·도 지정 지방유형문화재가 이에 속한다.

(2) 무형문화재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無形)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지방무형문화재가 이에 속한다.

(3) 기념물

조개더미·고분·성지·궁지·요지(窯址)·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명승지로써 예술적·관상적(觀想的) 가치가 큰 것, 그리고 동물·식물·광물·동굴로써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기념물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등과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 기념물로 구별할 수 있다.

(4) 민속자료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및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구가옥(舊家屋) 등으로 민족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민속자료와 시·도에서 지정하는 시·도 민속자료가 이에 속한다.

2) 지정별 분류

(1) 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재청장(文化財廳長)이 직접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되는 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가 이에 속한다.

(2) 비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법 및 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하여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로 크게

동산문화재와 매장문화재로 나누어진다. 비지정 문화재라 해서 중요도나 보존가치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정 가능성은 상존한다.

3) 지정주체별 분류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문화재로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등으로 구분된다.

① 국보(國寶·national treasure)

보물로 지정될 가치가 있는 것 중에 제작연대가 오래 되고 시대를 대표하거나, 유례가 드물고 우수하며 특이하거나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는 것을 지정한다.

국보는 관보(官報)에 고시(告示)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보의 지정번호는 가치의 높고 낮음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지정된 순서를 말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무주군에는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가 한 점도 없다.

② 보물(寶物)

목조건축·석조건축·전적(典籍)·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고고자료(考古資料)·무구(武具) 등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중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지정한 문화재이다.

국보와 보물의 차이점은 국보는 보물의 가치가 있는 것 중에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가장 으뜸인 것으로, 제작연대가 오래되고 시대를 대표하거나 가장 우수하며 특이한 것으로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있는 문화재이다.

한편 국보처럼 시대를 대표하거나 특이한 것이 아니더라도 또 역사적 인물과 관련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지정의 수준에 이르면 보물이 된다. 그래서 보물의 수는 국보보다 많고 동형의 것들이 많다. 무주군에는 '안국사 영산회괘불탱'(제1267호)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③ 사적(史蹟)

기념물 가운데 유사(有史) 이전에 형성된 조개더미·집터·절터·성곽(城廓)·성터·옛전쟁터·궁(宮)·다리·서원·고분(古墳)·원지(苑池)·도요지(陶窯址) 등 역사의 현장이거나, 산업·군사·교통·교육의 유적으로써 역사적·학술적인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한다.

사적은 주로 터가 중심이 되며 토지의 면적이 표시되는데, 국보와 보물은 미술사의 대상이 되는 우수한 솜씨나 예술적 가치를 지정 보호하는 반면, 사적은 역사적 현장의 사실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이 큰 차이점이다. 무주군에 있는 사적은 적상산성(제146호)이다.

④ 명승(名勝)

기념물 가운데 경관이 빼어나거나 특색이 있는 곳으로 기념물이 될 만한 국가 지정문화재이다. 일단 명승지로 지정이 되면 그 구역 내에서는 현상 변경은 물론 동식물·광물까지도 법률로 보호를 받는다.

⑤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natural monument)

기념물 가운데 한국 특유의 동·식물 및 그들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자생지로 중요한 것, 학술적으로 중요한 지형·지질·광물·동굴, 과학적 또는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는 중요한 자연현상을 말한다.

무주의 천연기념물은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제322호), '무주구상화강편마암'(제247호), '무주 설천면의 반송'(제291호)이 있다.

⑥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무형문화재 중 역사·학술·예술적 가치가 크고 향토색이 현저한 것을 지정하는데, 연극 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 및 놀이, 기타 의식·무예·음식제조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말한다.

무형문화재의 인멸을 막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하여 전수회관(傳授會館)을 세워 기·예능의 전수에 힘쓰고, 전시 발표 및 공연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무주군에는 중요무형문화재가 없다.

⑦ 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

선조들의 생활문화 유산으로서 그 자취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일컫는데, 의식주·생업·신앙·세시풍속 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기타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민속자료'라 규정하고, 민속자료 중에서 중요한 것을 국가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한다.

(2) 시·도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로 유형별 문화재의 분류와 동일하게 4종류로 나뉘며, 지정 시·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지정' 앞에 시·도의 명칭을 붙인다.

(3) 문화재 자료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문화재 자료로 지정한다.

제2장 무주군의 문화재

제1절 국가지정 문화재

1. 보물

1) 안국사 영산회괘불탱(靈山會掛佛幀)

○ 지정번호 : 보물 제1267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산 184-1(안국사 경내)
○ 시　　대 : 조선 영조
○ 분　　류 : 불화
○ 수　　량 : 1폭
○ 규　　모 : 전장 10.75m×7.50m
○ 지정년월일 : 1997. 8. 8

석가가 설법하는 장면을 그린 영산회괘불이다. 괘불이란 절에서 큰 법회나 의식을 행하기 위해 법당 앞뜰에 걸어놓고 불공을 드리는 대형 불교그림을 가리킨다.

이 괘불은 석가모니가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영산회상도로 길이 10.75m, 폭 7.01m나 되는 대형불화이며 재질은 마본(麻本)이다.

중앙에 크게 묘사된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며 좌측에는 극락도사



영산회괴불탱화

아미타불과 협시인 관음대세지보살, 우측에는 증청묘법 다보여래와 협시인 문수보현대보살을 횡렬로 배치하였다. 본존인 석가모니불은 둥글고 큼직한 얼굴에 우람한 신체, 유난히 길게 늘어진 팔 등 상체에 비하여 하체가 짧아 단구적인 무게감을 주고 있다. 특히 녹색으로 구분된 분소의(分所衣)는 기본적으로 편단우견 착의법이나 오른쪽 어깨를 덮은 착의법을 걸치고 있으며, 방형의 구획선과 대의의 가장자리는 운문과 화문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좌우측에 묘사된 존상들은 채운(彩雲)을 배경으로 천상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본존 두광 좌우에 묘사된 공양물을 받쳐 든 천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불화는 녹색과 밝은 홍색을 중심으로 회색, 황색, 분홍 등 중간 색조가 은은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연화문, 모란, 변형된 여러 가지 꽃무늬와 도안화된 문양들이 조화를 이루며 영축산에서의 설법을 아름답게 이끌고 있다. 대의를 분소의(分所衣)처럼 구분한 것은 이 괘불 이외에도 의겸이 참여한 내소사 괘불, 개암사 괘불 등에도 보이며, 이 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화엄사 괘불, 다보사 괘불 등 18세기 괘불탱에 많이 보이는 특징이다.

안국사 괘불은 영조 4년(1728)에 조성되었는데, 그 후 1792년, 1809년, 1939년 등 조성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중수되었다. 이 괘불을 그린 화사는 1750년 전후 경남 고성 운흥사를 중심으로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활약한 의겸(義謙)이다. 그는 내소사 괘불(1700년), 안정사 괘불(1702년), 운흥사 괘불(1749년), 청곡사 괘불(1722년) 등 대형 괘불 등에 참여한 당대 저명한 불화승이다.

안국사 괘불은 매년 석가탄신일과 가뭄 등 천재지변이 있을 때마다 내어 걸고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하였는데,

주상전하(主上殿下) 만세만세 성수만세(萬歲萬歲 聖壽萬歲)
주비전하(主妃殿下) 제년제년 성수제년(齊年齊年 聖壽齊年)
세자저하(世子低下) 천추천추 성수천추(千秋千秋 聖壽千秋)

라는 발원문이 있다.

이 고장 불자들은 매년 초파일이면 안국사에 찾아가 괘불을 걸어놓고 소원성취를 비는 불공을 드렸다.

2. 사적

1) 적상산성(赤裳山城)

○ 지정번호 : 사적 제146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 119-1번지(국유)외
○ 분　　류 : 성지(성곽)
○ 규　　모 : 전장 8.143m(214,976㎡)
○ 시　　대 : 삼국시대(추정)
○ 지정년월일 : 1965. 7. 10


적상산성

적상산성은 적상면(赤裳面)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창리·포내리·괴목리·사천리 등 4개 리에 걸쳐 있는 적상산 위의 분지를 에워싸고 있는 절벽을 이용해서 석성(石城)을 쌓은 대표적인 산성이다.

적상산성의 축성 시기에 관해서는 고려 말 또는 조선초기로 정리되어 왔다. 그것은 고려 말 최영(崔瑩)의 축성 건의와 조선초기 성곽 정리 등에서 연유된다. 그러나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승람≫ 등의 옛 문헌에 따르면, 최소한 고려 중엽 거란의 제2차 침입(1010년) 이전에 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시대적 정황과 축성 방식 등을 볼 때 백제에서 축성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백제 멸망 후 통일신라와 고려 초기까지 방치되었으나, 고려 중기 이후 거란과 왜구의 침입에 따라 인근의 여러 고을 백성이 이 곳에 의지하여 보전하였던 것이다.

차츰 잊혀져 가던 적상산성의 중요성은 임진왜란으로 인한 방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광해군 때 북방의 후금이 강성해짐에 따라 조선왕조실록의 보존문제가 논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즉, 묘향산에 보관 중이던 실록

과 선원록의 보다 안전한 보관을 위해 새로운 장소가 물색 되었는데, 적지로 적상산성이 거론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광해군 6년(1614), 적상산성 안에 실록각이 창건되었고, 광해군 10년(1618)에는 새로 편찬된 선조실록이 처음으로 봉안되었다. 따라서 산성의 수비를 위한 기구(機構)가 생겼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 등이 이루어졌다.

그 뒤 1632년(인조 10)까지 시행된 후속조치를 확인할 수 있는 문헌이 바로 ≪무주현적상산성조진성책(茂朱縣赤裳山城條陳成冊)≫(이하 진성책)이다. 인조 10년(1632) 무주현감 김수창(金壽昌)이 조정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진성책은 산성의 규모와 4대문 현황, 성내 사방도리, 가사완파형지, 군량비축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진성책에 의한 성내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성 둘레 : 5,525파(把) 30여 리

◇ 4대문(四大門)

북문(北門) : 일명 무주문(茂朱門)이라 하며, 2층 3간인데, 모두 기울어 형태가 없다.

서문(西門) : 일명 용담문(龍潭門)이라 부르며, 2층 3간인데 기울어 형태가 없다.

남문(南門) : 일명 장수문(長水門)으로 부르며, 1간인데 기울어 형태가 없다.

동문(東門) : 2층 1간인데, 기울어 형태가 없다.

◇ 가사형지(家舍形止)

사각(史閣) 9간, 포쇄청(曝碼廳) 2간, 북문보(北門堡) 3간, 동남서군보(東南西軍堡) 각 3간, 사각 동편 승사(僧舍) 6간, 사각 서편 승사(僧舍) 3간, 창고(倉庫) 8간, 군량봉상청(軍糧捧上廳) 3간, 보경사(寶境寺) 8간, 보경사 승사(僧舍) 6간, 군기가(軍器家) 3간, 객사(客舍) 6간, 객사좌우협실(客舍左右俠室) 각 3간, 참봉가(參奉家) 3간.

◇ 수성제도(守城制度)

별장(別將) 1, 참봉(參奉) 2, 승장(僧將) 1, 수복(守僕) 12, 군병(軍兵) 84, 승병(僧兵) 28.

◇ 군량(軍糧) : 쌀, 콩, 벼

◇ 군기(軍器)

흑각궁(黑角弓), 상각궁(常角弓), 편전(片箭), 장전(長箭), 정철조총(正鐵鳥銃), 유조총(鍮鳥銃), 연철환(鉛鐵丸), 화약(火藥)

그 후 인조 12년(1634) 묘향산에 보관 중이던 실록이 이안(移安)되었다. 그런데 1636년(인조 14) 발발한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인해 사고를 비롯한 산성의 방어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고, 3년 후인 1639년(인조 17) 비변사(備邊司)에서 무주를 비롯한 인근 7읍[2]을 적상산성에 영속시켜 산성을 수축할 것과 각성(覺性)대사를 도총섭(都摠攝)으로 삼아 성중에 상주시킬 것을 계청하니, 임금이 이에 따랐다.

이처럼 산성 수축과 정비 등을 마친 뒤, 1641년(인조 19) 사각 옆에 선원각(璿源閣)을 건립하고, 선원록(璿源錄)을 봉안함으로써 명실공히 사고로써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 뒤, 1645년(인조 23) 승병들의 숙소 문제로 호국사(護國寺)가 창건되었고, 1674년(현종 15)에는 무주현이 무주도호부(茂朱都護府)로 승격되면서 현감이 도호부사겸수성장(都護府使兼守城將)으로 위상이 높아졌으며, 1703년(숙종 29)에는 토포사(討捕使)까지 겸임하게 되어 실질적인 독진관(獨鎭管)이 되었다.

이처럼 적상산성은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의 국경지대에 축성되어 한 때 방치되기도 하였으나, 고려시대에는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인근 백성의 피난처가 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조선왕조실록을 지키는 요지가 되었다.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사고가 폐지되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현재는 성벽 일부의 보존과 함께 유지가 남아 있으며 적상산성 안에는 안국사가 이건되어 있고, 사고가 복원되었으며, 양수발전소 상부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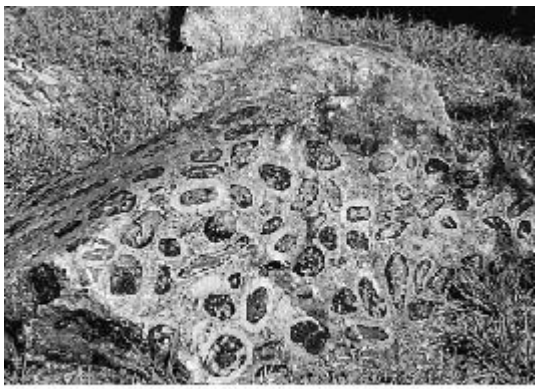
3. 천연기념물

1) 무주구상화강편마암(茂朱球狀花崗片麻岩)

○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249호

2) 금산·용담·진안·장수·운봉·진산.

○ 위　　치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왕정마을
○ 분　　류 : 화강편마암
○ 보호구역 : 3,385㎡
○ 지정년월일 : 1974. 9. 6


무주구상화강편마암

무주구상화강편마암처럼 구상구조를 가진 암석은 세계적으로 희귀할 뿐 아니라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산출되는 구상암석은 상주 운평리 구상화강암(천연기념물 제69호)과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천연기념물 제267호) 등 3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무주구상화강편마암은 일제 강점기 때인 1928년, 영국인 지질학자 홀머스(A. Holmas)가 처음으로 발견하고 이름을 지었다. 지역에서는 암석의 무늬가 마치 호랑이 무늬와 같다고 하여 '호랑이바위'라고도 부르는데, 집에 갖다 놓으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있다.

구상암석(球狀岩石, orbicular rock)은 화성암 또는 변성암에 있어서 핵(核, core)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위에 광물조성과 조직을 달리하는 동심원상의 각(殼, shell)을 가진 구상체(球狀體, orbicular)를 가진 암석이다.

구상체는 그 형태가 구형 또는 타원체형가 보통이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불규칙한 형태를 보여주며, 크기는 직경이 수 ㎝에서 수십 ㎝에 이른다. 구상암석에 있어서 구상체의 밀도는 일정하지 않으며, 노두의 면적이 200~300㎡를 넘지 않는다.

구상체는 중심에 있는 핵과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각으로 구성되며, 각의 수에 따라 단각 구상암석과 다각 구상암석이다. 또한 각의 수와 폭에 의하여 다양한 구조를 보여준다.

구상암석은 세계적으로 산출이 희귀하여 지금까지 110여 곳에서 보고되어 있을 뿐이다. 구상구조를 보여주는 암석 중 가장 흔한 것이 화강암, 화강편마암, 섬록암, 반려암 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섬록암, 반려암, 화강편마암, 유문암, 응회암, 안산암, 호온

펠스 등에서 구상구조가 발견된다. 구상암석은 마그마기원 및 변성기원에 의하여 생성된다.

무주구상화강편마암이 분포한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호상 흑운모 편마암과 화강암질 편마암, 백악기의 석영반암, 화강반암 및 맥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구상구조를 가진 구상화강편마암은 화강암질 편마암내에서 국부적으로 산출되고 있다.

무주구상화강편마암은 함전기석 화강편마암 바탕에 대체로 타원체 모양을 가진 장경 6㎝ 내외의 구상체를 함유하고 있으며, 구상체들이 다소 방향성을 띠고 있어서 변성작용을 받았음을 지시한다. 때로는 구상체의 형태가 길쭉한 것 또는 불규칙한 것도 있다.

구상체는 핵과 핵을 둘러싸고 있는 다소 불규칙한 형태의 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도 그 형태가 다양하여 둥근 모양, 불규칙한 모양, 불규칙한 톱니모양 등 다양하며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있다. 핵에는 유색핵과 무색핵이 있으며, 유색핵은 주로 흑운모, 견운모, 녹니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색핵은 장석, 규선석, 견운모, 백운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때로는 편암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각 역시 무색각과 유색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색각은 주로 견운모화된 장석,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색각은 주로 흑운모, 녹니석, 백운모로 구성되어 있다. 무색각과 유색각이 교호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구상체의 제일 바깥각이 유색각으로 된 것도 있고, 무색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어떤 구상체는 전체가 유색광물로 구성되고 그 내부에 무색 팻치가 있는 것도 있다.

구상체 바깥의 바탕은 주로 석영, 미사장석, 사장석, 흑운모, 백운모, 녹니석으로 구성되며, 간혹 전기석이 함유된다. 부분적으로 페그마타이트질인 경우도 있다.

무주구상화강편마암은 퇴적암이 광역변성작용을 받아 우백질 화강암질 편마암으로 변성되는 과정에 특정 부분이 유통상태로 되어 그 중에 들어있던 각종 포유물(운모편암, 전기성 등)을 중심으로 하여 장석, 흑운모, 녹니석 등이 모여 핵을 형성하였고, 그 주위에서 석영, 장석이 정출되었으며, 다시 흑운모와 같은 유색광물이 모여 각을 형성하였다. 흑운모는 후에 녹니석으로 심하게 변질되었으며, 장석 또한 견운모와 녹니석으로 변질되었다. 때로 유색각의 바깥에서는 석영, 장석으로 구성된 우백질 각이 형성되었다.

2) 무주 설천면의 반송(盤松)

○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291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보안마을 뒷산
○ 분　　류 : 소나무
○ 보호구역 : 248㎡
○ 수　　량 : 소나무 1주
○ 수　　령 : 약 200년
○ 지정년월일 : 1982. 11. 4

소나무과에 딸린 소나무 품종이며 학명은 Pinus densiflora for multicauls Uyeki라 한다. 상록이엽침엽교목(常綠二葉針葉喬木)으로 자웅일가(雌雄一家)이며, 구과(毬果)는 꽃이 핀 이듬해에 맺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적송(赤松) 또는 육송(陸松)이라고 한다.

반송의 높이는 17m이고, 가슴둘레 5,3m, 수관의 너비는 동서 14,3m, 남북으로 16,4m인데, 수령은 약 200년 정도로 추정된다. 땅위 50㎝ 부근에서 5개의 큰 가지가 분지(分枝)되었고, 지상 2m 높이에서는 가지가 여러 개로 갈라져 고르게 뻗고 자라서 부채꼴의 우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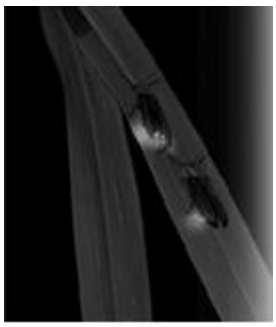

무주 설천면의 반송(盤松)

1983년 겨울, 동해(凍害)로 인해 육중한 가지가 찢어지는 외상을 입었는데, 이듬해 지상 1,5m와 4m 높이에 쇠고리로 서로 묶어 중량에 의해 가지가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외과수술을 하였다.

나무는 보안마을에 횡천면(橫川面, 현재의 설천면)의 치소(治所)가 있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심었다고도 하는데, 다른 한편 오래 전 마을에 살던 이주식(李柱植)이라는 사람이 근처에서 자라던 것을 현 위치로 옮겨 심었다고도 한다. 지역에서는 구천동을 상징하는 나무라 하여 구천송(九千松)이라 부르기도 한다.

3) 무주 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 지정번호 : 천연기념물 제322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 수한마을 앞 계곡
무풍면 금평리(88올림픽 숲)임야 444번지 외 34필지
무주읍 가옥리 가림마을(뒷산) 1061번지 외 30필지
○ 분　　류 : 곤충
○ 보호구역 : 130,838㎡
○ 지정년월일 : (당초) 1982. 11. 4 (변경) 2002. 1. 30


반딧불이

본래 '무주 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는 충북 영동군과 전북 무주군을 가르며 흐르는 설천면 청량리 원청량 앞 남대천 신계(莘溪)를 깃점으로 소천리 평지마을에서 동북쪽으로 꼬부라진 대불천(大佛川) 중간 지점인 나림마을 앞 개울까지였고, 명칭도 '무주 설천면 일원의 반딧불과 그 먹이(다슬기) 서식지'였다. 현재 이 지역은 반딧불이 자연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자연생태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딧불이 생태공원'을 조성 중에 있고, 생태공원 내에는 곤충박물관 건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보호구역이 변경된 것은 기존 보호구역내의 반딧불이 서식여건의 변화로 밀도가 낮아진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학계에서 수년간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구역을 해제하고, 2002년 2월 1일 새로운 지정구역으로 변경고시하면서 명칭도 '무주 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로 바뀌었다.

우리나라에서 곤충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2종(種)이다. 그 중 장수하늘소(Callipgon relictus)는 종(種)이 지정되었고, 반딧불이는 1982년 11월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다슬기) 서식지가 지정되었으나, 위에서 설명한대로 변경되었다. 새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가림마을은 파파리 반딧불이가, 수한마을에는

애반딧불이, 무풍의 88올림픽 숲에서는 늦반딧불이가 다량 출연한다.

반딧불이는 발광생물로 생물학상 대단히 중요할 뿐 아니라 날아다니는 발광곤충으로 국민의 정서생활에 유익하다. 특히 형설(螢雪)의 공(功), 즉 진(晋)나라 차윤(車胤)이 반딧불 밑에서, 또 손강(孫康)이 눈빛으로 글을 읽고 입신(立身)했다는 고사(故事) 등으로 청소년의 교육상 큰 가치가 있다. 또한 어른에게는 유년시절에 반딧불을 가지고 놀았던 잊지 못할 추억을 가지고 있어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어릴 적 추억과 꿈을 일깨우는 곤충이다.

반딧불이의 일생은 1년여 동안 알->유충(애벌레)->번데기->성충의 4단계 순으로 변해가는 '탈바꿈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변태과정은 정확하게 이행되고 순환한다. 발생 시기는 기후의 영향에 의해 시기가 조금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으며, 인공 사육시 그 조절도 가능하다.

번데기에서 나온 성충은 2~3일 후 짝짓기를 하고 4~5일 후 야간에 이끼 위에 300~500개의 알을 낳는다. 알의 크기는 0.5~0.6㎜이고, 모양은 원형으로 알에서도 발광을 하며, 20℃에서 20~30일만에 부화한다.

유충은 이듬해 4월까지 260여일 동안 탈피 과정을 거친다. 크기는 부화 후 1.0~1.5㎜로 낮에는 돌밑에서 생활하다 밤에는 다슬기를 먹이로 수중생활을 하면서 15~20㎜까지 자란다. 유충은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땅 위로 올라오는데 비가 오는 야간에 주로 이동한다.

유충이 땅 위로 올라와 50여일 동안 번데기 집을 짓게 되는데, 땅속 진입 후 40여일 경 유충의 등이 갈라지면서 흰색의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된 5일째는 눈이, 8일 경에는 날개의 색이 검어지며, 10일 경에는 날개가 생겨날 수 있다.

제2절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

1. 유형문화재

1) 무주 한풍루(寒風樓)

○ 지정번호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9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193-2번지
○ 보호구역 : 790㎡
○ 수　　량 : 건물 1동
○ 지정년월일 : 1973. 6. 23



한풍루(寒風樓)

한풍루는 2층 누각으로 1층은 정면 3간 측면 4간이며, 2층은 정면 3간 측면 2간으로 연건평 154,9㎡, 이익공(二翼工) 팔작(八作)지붕이다.

본래 무주의 관아 앞 천변(현 무주우체국 자리)에 위치했는데, 언제 누구에 의해 처음 건립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세조 11년(1465) 전라관찰사를 역임한 성임(成任)이 한풍루를 다녀간 뒤 남긴 시(詩)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에 건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종 25년(1530)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한풍루(寒風樓) 재객관전(在客館前)'이라 기록되어 있다.

한풍루에는 수많은 명사와 묵객들이 찾아와 아름다운 경관을 글로 남기며 풍류를 즐겼는데, 조선초기의 학자로 시문에 능했던 성임,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낸 유순(柳洵), 선조 때 시문에 뛰어난 백호(白湖) 임제(林悌), 인조 때 명신 청구(淸滾) 임담, 전라관찰사 목성선(睦性善) 등의 글이 한풍루지에 실려 있다. 특히 임제는 한풍루를 호남지방의 삼한(三寒 : 남원 광한루, 전주 한벽루, 무주 한풍루) 중 으뜸으로 꼽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한풍루는 임진왜란 중 불에 타버렸다. 그 후 왜란이 종결되던 선조 32년(1599) 백호 임제의 동생인 현감 임환(林嶢)에 의해 복원이 착수되었는데, 그는 복원을 마무리하기도 전에 전임되어 후임 남복시(南復始)에 의해 복원되었다. 그 후 인조 24년(1646) 보수, 숙종 4년(1678) 단청, 영조 5년(1729)과 정조 7년(1783) 중수되었다.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 후 불교포교당으로, 무주보통학교 공작실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뒤에 안국사 이철허(李澈虛) 주지가 불하받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유지가 곤란해지자 일본인 나까야마(中山)에게 저당잡히게 되었다. 그 뒤 일본인 우수이이또(簿井 誠)가 매입하게 되는데, 그는 1936년 충북 영동군 양산 사람 이명주(李命周)에게 다시 팔았다. 이에 따라 한풍루는 뜯기게 되었고, 목재는 영동군 양산면 가곡리 금강변으로 옮겨졌으며, 한풍루 대신 금호루(錦湖樓)라는 현액이 걸리게 되었다.

그 후 1960년대 들어 무주면 읍내리에 거주하던 한기문(韓基文) 옹의 끈질긴 복구운동에 따라 '한풍루복구추진위원회'(위원장 金南實)가 결성되었고, 위원회는 1971년 3월 24일 목재를 100만원에 매입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5일 본래 위치했던 곳의 맞은 편인 당산리 남산자락 언덕에 복원하였다.

2) 안국사 극락전(極樂殿)

○ 지정번호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2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 184-1번지
○ 보호구역 : 18.275㎡
○ 수　　량 : 건물 1동
○ 지정년월일 : 1974. 9. 27

안국사는 본래 보경사(寶境寺) 또는 산성사(山城寺) 등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무주양수발전소 상부댐 건설공사로 인해 수몰됨에 따라 1992년 8월, 건물을 해체하고 현재의 위치인 옛 호국사지(護國寺址)로 옮겨 복원되었다.

본전인 극락전을 중심으로 한 안국사는 고려 충열왕 3년(1277) 월인화상(月印和尙)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하는데, 한편으론 조선초기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왕명을 받아

세웠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둘 다 사적(史的)인 근거는 없다. 다만 고종 2년(1865) 사찰을 중수하고 남긴 안국사중수기(安國寺重修記)에 따르면, "옛날 풍수지리학자의 건의에 따라 산성을 쌓고 승병을 모아 지키게 했는데, 안국사는 곧 승병이 거처할 영사(營舍)로 지은 사찰"이라고 한다.


안국사 극락전(極樂殿)

극락보전에 대한 기록은 중수현판에 보이는데, 1988년 발간된 ≪무주지역지표조사보고서≫에는 보이지만 현재 그 존재를 알 수 없다. 이 현판에 보이는 극락보전에 대한 내용은 년호(年號)에 대한 정확한 언급 없이 간지(干支)로만 '辛卯年 二月에서 七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건물의 건립에 관한 기록을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광해군 5년(1613)에 중축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어 당시 극락전이 지어졌을 가능성도 크다.

정면과 측면이 모두 삼간(三間)으로 이주법(移柱法)을 사용하여 후불벽을 구성하였고, 고주는 대들보를 받치고 있는 등 전형적인 조선 후기 평면과 가구이다. 정면의 협칸은 두 짝의 문을 단 이분합이고 어간(御間)은 사분합을 달아 일반적인 불전의 입면을 구성하고 있다. 마루는 우물마루이며 동귀틀이 자연의 곡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정감이 있다.

공포대 구성에 있어서도 첨차 조정이 필요 없는 등 간격의 공포배열로 공포가 4면에 모두 배치되어 있으므로, 창건된 후 중수의 과정을 거치면서 팔작지붕이 맞배지붕으로 고쳐졌을 가능성이 있다. 공포는 외3출목, 내4출목으로 초(草)가지와 안초공 등의 조각수법에서 사용된 부재의 강건함이나 건물의 비례에서 느껴지는 장중함은 이 건물이 수작(秀作)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외부의 단청은 금단(錦丹)으로 채색되었는데, 뒤편 한쪽 모서리는 어떤 이유인지 단청을 하다 멈춘 자리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대사(鶴大師)에 관한 전설이 전한다.

3) 매월당 부도(梅月堂浮屠)

○ 지정번호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43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 107번지
○ 보호구역 : (전고) 1.6m
○ 수　　량 : 1기
○ 시　　대 : 1784년(정조 8)
○ 크　　기 : 높이 2.8m
○ 분　　류 : 부도
○ 지정년월일 : 1974. 9. 27

구천동에 소재한 백련사 일주문 옆 부도군(浮屠群)에 있는 매월당(梅月堂) 설흔법사(雪欣法師)의 승탑(僧塔)이다. 정조 8년(1784)에 세운 석종형탑으로 대석의 높이가 0.3m, 둘레 3.9m의 원형으로 상두면(上頭面)에 복연(伏蓮)을 둘러 연화대좌로 조형했고, 그 위의 탑신은 전형적인 종형으로 높이 1.6m, 둘레 2.8m이다.


매월당 부도

탑신의 상륜부(相輪部)에 보륜(寶輪)을 두른 후 그 윗부분에 유두형(乳頭形) 보주(寶珠)를 조각했는데, 보주의 상두면에 연화문(蓮花紋)을 양각해 놓았고, 보륜 아래 탑견(塔肩)에도 화려한 연화문을 둘러 세련미를 주고 있다.

탑신에는 '매월당 설흔지탑'이라는 탑명(塔銘)이 있고, 그 옆에 '건융갑진삼월일(乾隆甲辰三月 日) 생질(甥姪) 임선행(林善行) 건(建)이라고 각자되어 있다. 따라서 부도는 매월당이라는 호를 가진 설흔 스님의 부도로 정조 8년(1784) 3월, 그의 조카 임선행에 의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적상산 안국사의 극락전 후불탱화(後佛幀畵) 하단을 보면,[3] 매월당 설흔은 영조 48년(1772) 안국사 후불탱화 조성에 참여하였고, 그 뒤 12년 뒤인 정조 8년(1784) 구천동 백련사에서 입적(入寂)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

3) 건융삼십칠년유월 일(乾隆三十七年六月 日) 미타회조성(彌陀會造成) 봉안우(奉安于) 적상산 안국사(赤裳山 安國寺) '증명(證明) 매월당(梅月堂) 설흔보체(雪欣保體). 어곡당(魚谷堂) 민식(敏式)

그런데 사람들은 부도에 각자된 간지는 보지 못하고, 매월당이라는 탑명만을 보고 생육신(生六臣) 중의 하나인 매월당 김시습(金時習)으로 오인(誤認)하기도 하였다. 이는 김시습의 법명 설잠(雪岑)과 설흔의 혼동이 가중되어 더욱 그런 오해를 낳았던 것이다.

4) 문효공(文孝公)과 정경부인(貞敬夫人) 영정(影幀)

○ 지정번호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81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167번지
○ 규　　모 : 가로 0.87m×세로 1.38m
○ 수　　량 : 각 1점
○ 시　　대 : 조선
○ 분　　류 : 초상화
○ 지정년월일 : 1977. 12. 31



정경부인 영정



문효공

무풍면 현내리 소재, 백산서원(柏山書院) 타진사(妥眞祠)에 봉안된 영정(影幀)으로 조선 세종 때의 명신(名臣) 하연(河演. 1376～1453)과 그의 부인 성산이씨(星山李氏)의 초상화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를 보면, 하연의 셋째 아들 연서(連壻) 하우명(河友明)이 세종 10년(1428) 직접 견본(絹本)을 배접(褙接)한 화폭에 채색하여 그린 것

으로 전하는데, 효성이 극진했던 하우명은 모친상을 치르고 난 3년 뒤 영당(影堂)을 짓고,[4] 그 때 부모의 영정을 그린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백산서원 타진사에 영정이 모셔진 것은 순조 21년(1821) 백산영당(柏山影堂)을 건립하고, 고종 6년(1869) 철폐된 후 타진사를 세울 때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5] 영정 중 성산이씨의 초상은 백산서원 외에도 경남 합천(陜川)의 타진당(妥眞堂)과 충북 청원(淸原)의 우록영당(友鹿影堂)에도 1본씩 봉안되어 있다. 어떤 경로인지 모르나 일본(日本) 천리대(天理大) 도서관에 가로 35㎝, 세로 50.1㎝ 크기의 견본으로 채색된 정경부인의 초상화 부본(副本)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본래 영정은 아들인 하우명이 수사(手寫)해 두었는데, 사후에 하연의 묘 근처에 영당을 지어 함께 봉안하였고, 후에 합천 야로(冶爐)로 옮겼다고 한다. 그 후 인조 18년(1640) 영남관찰사로 있던 하연의 외가(外家)쪽 후손인 구봉서(具鳳瑞)가 합천 타진당의 유상(遺像)을 봉심(奉審)하였는데, 영정의 채색이 너무 심하게 벗겨져 고쳐 그렸다고 한다. 본래 영정은 1본 뿐이었는데, 백산서원에 모셔진 영정을 화첩본(畵帖本)으로 삼아 후손들이 옮겨 그려 나누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정경부인 영정은 조선초기 여인상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인들의 복식(服飾)에 관한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여자용 모자는 정상이 뚫리고 좌우 귀를 덮은 모양이 조바위(여자가 쓰는 방한모의 한 가지)의 전신(前身)으로 여겨지며, 앞의 장식은 점차 술로 변화되었다고 본다. 화법은 얼굴을 구근(鉤勤) 위주로 하여 이목구비(耳目口鼻)를 발췌하듯 그렸으며, 의습(衣襲) 처리에서는 음영(陰影)이 전혀 표현되지 않는 점 등을 볼 수 있어 조선초기의 화풍을 느낄 수 있다.

영정의 주인공 하연(1376~1453)은 본관이 진주(晋州)로 자(字)는 연량(淵亮), 호는 경재(敬齋)[6]이며 시호(諡號)는 문효(文孝)이다. 태조 5년(1396) 문과에 급제한 후 세종 4년(1422) 전라관찰사 역임 후 대사헌과 대제학 등을 거쳐 세종 27년(1445) 우의정, 29년(1447) 좌의정, 31년(1449) 영의정을 역임함으로써 삼정승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하연은 성품이 강직하고 단아했으며, 문장과 필력이 출륭하여 시율에도 능했다고 한다. 그의 사후 위패와 진영(眞影)이 문종사당(文宗祠堂)에 모셔졌으며, 순조 21년

4)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인천도호부(仁川都護府) 인물조(人物條).
5) 적성지(赤城誌) 원우조(院宇條)

(1821) 타진사의 액호(額號)가 하사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이 곳에 영당을 세우고, 매년 춘추로 유림과 후손들에 의해 향사(享祀)되고 있다.

5) 적상산성 호국사비(護國寺碑)

○ 지정번호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85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산 184번지
○ 규　　모 : 비의 전체 높이는 178cm, 비신 101×59.7×17cm
○ 수　　량 : 1기
○ 시　　대 : 인조 23년(1645)
○ 지정년월일 : 1979. 12. 27


적상산성 호국사비(유형문화재 제85호)

적상산성 내 안국사 경내 남쪽 축대 아래 있는 호국사비에는 인조 21년(1643) 이조판서겸 대제학인 이식(李植)이 왕명으로 사고를 순찰하고, 정축란 이후 문란해진 사고의 관리와 성내의 방비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왕에게 진상(秦上)하여 1645년 호국사를 창건하게 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는 마모(磨耗)가 심해 글씨를 거의 알아볼 수 없고, 고종 35년(1898) 간행된 적성지(赤城誌) 고적조(古迹條)에 비문의 전문이 게재되어 있다.

대리석으로 만든 비는 이면비(二面碑)로 전체 높이는 1.78m이다. 직사각형 모양을 한 비석의 받침돌로 사면에 안상(眼像)을 배치하고, 좌우에 구름모양의 무늬를 조각했으며, 중앙에는 4개의 여의두문(如意頭紋)을 조각하여 돌출시켰으며, 상두면은 복연(伏蓮)을 새겨서 장식하였다. 농대는 높이 27㎝, 정면폭 82㎝, 측면폭 47㎝이다.

농대 위의 비신(碑身)은 상단에 '적상산성호국사비(赤裳山城護國寺碑)'라는 두전

6) 경재집(敬齋集)

(頭篆)이 각자되어 있고, 아래로 본문을 새겼는데, 높이 1m, 폭 59㎝, 두께 17㎝이다. 그 뒷면에는 '순치 2년 10월 일 건(順治二年 十月 日建)'이라 새겼다. 비신 위에 올려놓은 이수(賂首)[7]는 4면에 용트림을 조형한 반룡(蟠龍)[8]을 조각해 놓았다. 이수의 높이는 51㎝, 폭 82㎝, 두께 37㎝이다.

비문은 적상산성과 관계되는 기록들, 사고지 설치, 사고지 방비의 허술함, 호국사 창건 경위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호국사 창건비용은 전라감사의 봉급에서 충당하고, 승장(僧將)이 사역(使役)을 맡았으며, 무주현감(茂朱縣監)이 물자의 조달과 감독을 맡았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호국사는 본래 적상산성 안에 있는 사고(史庫)의 수호를 위한 승병들의 숙소로 1910년 경술국치로 사고가 폐지될 때까지 나라의 국사(國史)를 보존한 호국의 도량이었는데, 1949년 여순사건의 병화(兵火)로 소실되는 불행을 당하였다.

6) 백련사 정관당부도(靜觀堂浮屠)

○ 지정번호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02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936-1번지(백련사 경내)
○ 규　　모 : 전고 2m
○ 수　　량 : 1기
○ 시　　대 : 조선시대
○ 분　　류 : 부도
○ 지정년월일 : 1982. 8. 30

백련사 경내 천왕문 아래 있으며, 청허하(淸虛下) 정관문파(靜觀門派)의 종조(宗祖)이며 서산대사의 제자인 정관당(靜觀堂) 곽일선선사(一禪禪師. 1533～1608)의 승탑이다.

탑의 대석은 높이 0.3m, 둘레 3.8m크기의 원형(圓形)으로 상두면(上頭面)에 복연(伏蓮)을 두른 연화대좌(蓮華臺座)로 조형했으며, 그 위의 탑신은 높이 1.8m, 둘레 2.3m 규모의 석종형이다. 그러나 다른 부도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양식과는 달리 상륜부(相

7) 궁전의 섬돌이나 비(碑) 머리·인장(印章)·종정(鐘鼎) 따위에, 뿔 없는 용이 서린 모양을 새긴 형상. 이두(頭).
8) 아직 하늘에 오르지 못하고 땅에 서리고 있는 용.

輪部) 위에 보륜(寶輪)과 보주(寶珠)를 생략하고, 최상단 끝 부분을 마치 팽이처럼 뾰족하게 돌출시켜 놓았다. 원형 기단에 종 모양의 탑신을 갖춘 전형적인 조선시대 승탑이다.

탑신의 아래에 '정관당일선탑'이라는 탑명이 있고, 대석의 상두면에 '만력삽십칠년건(萬曆三十七年建)'이라는 간지가 각자 되어 있어 광해 1년(1609)에 건립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정관당 일선선사의 성은 곽(郭)씨로 본관은 연산(連山)이다. 모친이 어느 스님에게서 쌍구슬을 받는 태몽을 꾸고 태어났다고 한다. 나이 16세 때인 명종 3년(1548) 출가, 선운(禪雲)에게서 머리를 깎고 법화경(法華經)을 배운 후, 서산대사(西山大師) 즉 청허당(淸虛堂) 휴정대사(休靜大師)의 강석(講席)에 참학(參學)하여 심인(心印)을 받음으로써 사명당(四溟堂) 유정(惟政)을 비롯하여 편양당(鞭羊堂) 언기(彦機), 소요당(逍遙堂) 태능(太能)과 함께 서산대사의 4대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 뒤 임성당(任性堂) 충언(沖彦)에게 법을 전해 청허하 정관문파의 법통을 세우고, 호연당(浩然堂) 태호(太浩), 무염당(無染堂) 계훈(戒訓), 운곡당(雲谷堂) 충휘(沖徽) 등 많은 제자를 배출하면서 선풍을 전하였다.[9]



백련사 정관당 부도

선조 41년(1608) 가을 구천동 백련암(白蓮菴)에서 열반(涅槃)에 들고, 이듬해 부도를 남겼다. 정관당의 세수(歲壽)는 76세이며, 법랍(法臘)은 61년이었다.

7) 연안이씨(延安李氏) 이유길(李有吉) 가전(家傳) 고문서(古文書)

○ 지정번호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31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598번지(이목마을 홍문안 집)
○ 수　　량 : 3종 25점
○ 지정년월일 : 1989. 1. 9

9) 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

안성면 장기리 이목마을에 사는 이유길의 후손 이호룡(李浩龍)이 보관하고 있으며, 조선 선조 30년(1597)부터 순조 32년(1832) 사이의 연안이씨 가전 고문서이다.

이유길은 선조 30년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휘하에서 공을 세웠고, 광해 11년(1619) 건주위(建州衛) 정벌에 출정했다가 장열하게 전사하였다. 이유길가전 고문서는 이유길을 비롯한 그 후손 5대(代)에 걸친 교지(敎旨)와 완문(完文), 예조입안(禮曹立案) 등 3종(種) 25점의 고문서이다. 이유길에 대한 행적은 충의편에서 소개하였음으로, 여기에서는 고문서 목록을 소개한다.



연안이씨 이유길 가전 고문서

◇ 이유길과 배위(配位)에 관한 교지 10매
◇ 이유길의 아들 이우인(李友仁)과 배위에 관한 교지 2매
◇ 이유길의 손자 이석고(李碩考)와 배위에 관한 교지 3매
◇ 이유길의 증손 이휘국(李徽國)과 배위에 관한 교지 3매
◇ 이유길의 고손 이현술(李顯述)과 배위에 관한 교지 3매
◇ 이유길에 관한 예조입안(禮曹立案) 문서 1매
◇ 이유길의 봉제사(奉祭祀)에 내린 완문 3매

제수받은 자	년 대	내 용	규 모
李有吉	1597년(선조 30)	兵曹副尉司洗馬	91㎝×70㎝
李有吉	1681년(광해 10)	通政大夫永柔縣令兼	
平壤鎭官兵馬節制副尉	91㎝×70㎝		
李友仁	1657년(효종 7)	通政大夫吏曹參議	95㎝×73㎝
李友仁 妻	1657년(효종 7)	淑夫人	95㎝×73㎝
李碩考	1679년(숙종 5)	吏曹參判	95㎝×72㎝
李徽國 母(鄭氏)	1679년(숙종 5)	貞夫人	95㎝×72㎝
李徽國 母(玄氏)	1679년(숙종 5)	貞夫人	96㎝×73㎝
李有吉	1681년(숙종 7)	嘉善大夫兵曹參判	90㎝×67㎝
李有吉 妻(李氏)	1681년(숙종 7)	典從夫職	73㎝×53㎝
李有吉	1681년(숙종 7)	嘉善大夫兵曹判書兼	
同知義禁府事	96㎝×68㎝		
李有吉 妻(李氏)	1681년(숙종 7)	貞夫人	96㎝×68㎝
李徽國	1713년(숙종 39)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93㎝×71㎝
李徽國 妻(金氏)	1713년(숙종 39)	貞夫人	93㎝×71㎝
李徽國 妻(安山金氏)	1713년(숙종 39)	貞夫人	93㎝×71㎝
李顯述	1759년(영조 35)	通德郎	93㎝×70㎝
李顯述	1771년(영조 47)	通訓大夫司憲府持平	94㎝×72㎝
李顯述 妻(永山金氏)	1771년(영조 47)	淑人	94㎝×71㎝
李有吉	1828년(순조 28)	禮曹立案	94㎝×73㎝
李有吉	1829년(순조 29)	領議政	103㎝×77㎝
李有吉 處(李氏)	1829년(순조 29)	貞敬夫人	103㎝×77㎝
李有吉	1859년(철종 10)	忠毅公(黃牌)	54㎝×44㎝
李有吉	1859년(철종 10)	忠毅公(紅牌)	108㎝×74㎝
李有吉 奉祀孫	1750년(영조 26)	完文	101㎝×52㎝
李有吉 奉祀孫	1831년(순조 31)	完文成給通告	74㎝×53㎝
李有吉 奉祀孫	1832년(순조 32)	完文	100㎝×54㎝

8) 북고사(北固寺) 목조아미타여래좌상(木造阿彌陀如來坐像)

○ 지정번호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83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520번지
○ 규　　모 : 높이 73㎝×폭 54㎝
○ 수　　량 : 1구(軀)
○ 지정년월일 : 2000. 11. 17

북고사는 무주읍의 진산(鎭山)인 향로산(香爐山)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북고사 극락전 본존불(本尊佛)로 모시고 있는 아미타여래좌불은 순치 14년 즉, 효종 8년(1657) 5월, 그 당시 금산군에 속하던 덕유산 운수암(雲岫菴)에서 조성된 목불(木佛)이다.

효종 8년(1657) 조성불사(造成佛事)한 북고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주상전하(主上殿下) 천수만세(天壽萬歲), 국태민안(國泰民安) 법륜상전(法輪常轉)'을 발원하며, 지선(智禪)법사의 증명하에 화원승(畵員僧) 승일(勝一)·처영(處英)·도잠(道岑) 등 세 비구 스님에 의해 조성되었다. 이는 조성 당시 복장물(服藏物)과 함께 부처님 몸 속에 넣어둔 '극락교주(極樂敎主) 미타존상 조성기(彌陀尊像造成記)에 기록되어 있다.



북고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아미타불은 목조대좌(臺座) 위에 통견(通肩) 착의법에 결가부좌(結跏趺坐)를 했으며, 손 모습은 아미타구품인(阿彌陀九品印) 가운데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짓고, 머리의 보발(寶髮)은 누발(螺髮)로 장식하고, 두정(頭頂)에 육계(肉鉗)가 표현되어 있다. 불상은 현재 극락전 주존불로 모셔져 있으며,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좁아진 어깨에 비해 상대적으로 머리가 다소 커보이나 전체적으로 넓은 무릎 폭과 알맞은 신체비례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굽어보듯 숙이고 있는 머리에는 큼직한 중간계주와 정상계주가 있고, 얼굴은 둥글넓적하며, 콧날은 오뚝하고 콧등은 칼로 빗은 듯 처리하였으며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고 있다. 신체 전면에 걸친 유연한 곡선처리 및

신체 각 부분의 사실적 묘사, 자연스러운 옷 주름 표현 등으로 사실성과 함께 세련미가 엿보인다.

불상은 전체적으로 좁아진 어깨와 숙인 머리, 오뚝한 콧날과 둥글넓적한 원만상의 얼굴, 자연스러우면서도 세련된 곡선이 돋보이는 신체 묘사와 옷주름 표현, 그리고 안정감 있는 불신의 비례 등 17세기 불상의 전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어 조선 후기 무주지역의 불상연구에 중요 자료이다. 전체높이는 73cm이다.

조성 후 2차례 개금중수(改金重修)[10]가 있었고, 최근에는 1984년 윤 10월, 개금불사가 있었다.

9) 북고사(北固寺) 신중탱화(神衆幀畵)

○ 지정번호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87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520번지
○ 규　　모 : 가로 125㎝×세로 130㎝
○ 수　　량 : 1점
○ 지정년월일 : 2000. 11. 17

현재 극락전 좌측(향우측) 불단 위 유리장 안에 모셔져 있는 신중탱화로, 제석과 천룡을 함께 그린 제석(帝釋)·천룡탱화(天龍幀畵)이다.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화면 상단에 수미산 꼭대기의 하늘인 도리천(克利天)을 주관하는 제석과 범천(梵天)을 나란히 그리고, 그 좌우로는 왕관을 쓴 하늘의 왕들과 신중, 동자, 동녀 등을 묘사하였다. 중단에는 머리에 위로 치켜 올라가는 형태의 날개 깃 장식의 투구를 쓰고 팔에 칼

10)최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의 성보조사 일환으로 이루어진 복장품 조사시 본 불상에 대한 <조성발원문(造成發願文)>과 <개금중수기(改金重修記)>, 대불정수릉엄신주다라니(大佛頂首楞嚴神呪多羅尼), 서천취총경(西天取總經), 동제사리합(銅製舍利盒) 등이 발견되었다. <조성발원문>을 보면 이 불상은 "순치 14년인 1657년 화원(畵員) 승일·처영·도잠 등이 조성하여 전라도 금산군 동령 덕유산 운수암(雲岫菴)에 봉안"했으며, <개금중수기>에 의하면 첫 번째는 "건륭원년인 1736년 3월 21일 개금중수를 위해 불상을 무주 적상산 안국사(安國寺; 普月殿)로 이운한 뒤 뒷날(3월 22일) 일을 시작하여 같은 달 26일 개안과 점안을 함으로써 일을 마치고, 다음 날(3월 27일) 경월사(鏡月寺)로 되옮겨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소화 3년인 1928년 4월 2일 개금을 시작하여 4월 6일 점안 하고 4월 8일 회향한 뒤 전북 무주군 무주면 읍내리 북산 향로봉 북고사(北固寺)에 봉안" 되었으며, 세 번째는 "불기 2528년(1984년) 10월 지금의 북고사에서 개금"했음을 알 수 있다.[손영문, 무주의 불교]

을 받친 채 합장 자세를 취하고 있는 천룡(하늘 군대의 장수)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하단에는 천룡의 권속들로서 무기를 든 무장한 모습의 신장(神將)들을 배열하여 조선시대 후기 이후 신중탱화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신중(神衆)이란 불법(佛法)을 수호한다는 화엄신장(華嚴神將)을 가리킨다. 활달하고 유려한 필치의 인물은 얼굴의 형태가 긴 네모꼴로 뺨이 약간 통통해졌으며, 색채는 적·녹색 위주로 두껍게 채색하여 다소 묵중함을 느끼게 한다.

견본배접한 화폭에 채색하여 그린 것으로 하단 중앙부분에 기록해 놓은 화기(畵記)를 보면 "道光十二年辛卯三月日新造成神衆幀畵回安于本寺龍華殿 … 畵員 莊旬 允寬 護憓 敏訓…男子得願"라 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그림은 1831년에 새로 조성하여 용화전에 봉안했으며, 그 때 증명법사는 취봉(鷲峯), 화원은 장순·윤관·호묵·민훈이었고, 그 당시 대시주(大施主)였던 전계인(田啓仁)의 처 김씨(金氏)가 남아(男兒)를 낳기 위해 조성하였음을 짐작케 한다.

인물의 형태나 구도, 색채에 있어 19세기 전반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조성연대와 화원, 조성연유를 알려주는 화기가 뚜렷하게 남아 있어 19세기 불화연구에 소중한 자료이다.



북고사 신중탱화

10) 안국사 목조아미타삼존불(木造阿彌陀三尊佛)

○ 지정번호 :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01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산 184-1 안국사 극락전
○ 규　　모 : 본존불 : 높이 67㎝, 무릎 폭 43.5㎝, 어깨 폭 30㎝
　　좌협시 : 높이 63㎝, 무릎 폭 35.5㎝, 어깨 폭 26㎝
　　우협시 : 높이 61㎝, 무릎 폭 36.5㎝, 어깨 폭 24㎝
○ 지정년월일 : 2003. 12. 26

안국사 극락전 내에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관음보살과 세지보살이 협시하고 있는데, 불상의 크기가 그다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조형성은 매우 뛰어나다. 불상 조성기가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조성연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약간 구부정한 자세에 굵고 짧아진 목, 납작한 턱과 각진 얼굴, 오뚝한 코와 근엄하면서도 엷은 미소를 머금은 얼굴 표정, 자연스럽게 처리된 옷주름, 사실적 표현의 손 등 17세기 후반 불상양식을 보이고 있다.



안국사 목조아미타삼존불

아미타여래좌상은 목이 짧고 움추린 듯한 어깨에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턱이 짧아지고 각이 져 딱딱해 보이는 얼굴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입 꼬리를 살짝 치켜올려 엷은 미소가 번져 나는 듯 하다. 오뚝한 코에 적당한 크기의 귀를 가졌으며, 목에는 삼도가 뚜렷하다. 법의는 통견의(通肩衣)로 왼쪽 팔에서부터 흘러내린 소매자락은 대퇴부 쪽에서 발가락을 덮고 있다. 자연스러운 옷주름과 사실적 표현의 손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는 원만하다. 높이 67㎝, 무릎 폭 43.5㎝, 어깨 폭 30㎝ 내외이다.

좌협시인 관세음보살상의 옷주름은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처리되었으며, 손 역시 사실감이 돋보인다. 머리는 관을 쓸 수 있도록 턱을 두어 짧은 상투처럼 머리를 묶어 올렸으며, 보관 아래쪽으로만 머리칼을 표현하였는데, 귓바퀴를 한번 감아 내려 어깨 위로 흘러 내리게 하였다. 높이 63㎝, 무릎 폭 35.5㎝, 어깨 폭 26㎝이다.

우협시인 대세지보살상의 손 모양은 관세음보살상과 대칭적이고 불의형(佛衣形)법의를 착용하였으며, 턱이 보다 납작해지고 허리가 좀 더 구부정한 것만 다를 뿐 얼굴 형태 및 표정, 사실적인 손, 자연스러운 옷주름 등 조각 양식의 특징이 관세음보살상과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높이 61㎝, 무릎 폭 36.5㎝, 어깨 폭 24㎝이다.

2. 기념물(記念物)

1) 구천동 주목군총(朱木群叢)

○ 지정번호 : 전라북도 기념물 제2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 109번지 일원
○ 수　　량 : 약 1,000주
○ 지정년월일 : 1971. 12. 2


구천동 주목군청

덕유산 정상 향적봉 부근에 군총을 이루고 있으며, 주목과(朱木科)에 딸린 상록침엽교목(常綠針葉喬木)으로 학명은 Taxus cuspidata Sied Zuce이다. 주목, 적백송(赤柏松), 수송(水松) 등으로 불리는 우리나라 자생수목이다.

나무 껍질은 윤기가 흐르는 적갈색이고, 잎은 선형(線形)으로 끝이 뾰족하며, 길이는 1.5㎝~2.5㎝이고 너비는 2~3m 정도 되는데, 나선상(螺旋狀)으로 착생하여 2~3년 만에 떨어진다. 잎의 표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엷은 황록색인데 담황색의 줄이 있고, 가운데의 중륵(中肋)은 양쪽으로 도르라 져 있다. 꽃은 암·수 한 그루로 4월에 피고 9~10월에 이르면 도란형(倒卵形)의 붉은 종의(種衣) 속에 열매가 맺는다. 종의는 종자를 완전하게 둘러싸지 못하여 종자의 윗부분을 드러내고 있다.

덕유산의 주목은 해발 1,200m 이상 8부 능선에 약 1천주가 밀집되어 있고, 수령은 약 300~500년생으로 추산되고 있다. 고산식물이면서 음수(陰樹)인 주목은 원추형의 수형을 이루고, 조밀하게 달린 짙푸른 녹색잎과 가을이면 붉게 매달린 열매가 매력적이어서 관상수로 인기가 높다. 또한 목재는 색깔과 결이 고와 고급 가구재나 조각재로 많이 쓰이며, 옛날에는 마패(馬牌)를 만드는데 사용하였다고 한다. 잎은 마취(麻醉), 통경(痛經), 이뇨제(利尿劑) 등 약용으로 쓰인다.

옛적에는 주목을 향목(香木) 또는 적목(赤木)이라 불렀는데, 갈천(葛川) 임훈(林薰)이 명종 7년(1552) 덕유산을 오른 후 남긴 '향적봉기(香積峰記)'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향림이 즐비하게 있으므로 산봉우리 이름을 향적봉이라 하였다"[11]고 하며, "향목은 미륵불이 세상에 와서 살게 되면 그 때야 비로소 향기가 난다"[12]고 하였다.

2) 칠연의총(七淵義塚)

○ 지정번호 : 전라북도 기념물 제27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산 6번지(국유)
　　전북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답 173번지(군유)
○ 규　　모 : 6,540㎡
○ 수　　량 : 분묘 1기
○ 지정년월일 : 1976. 4. 3


칠연의총

칠연의총은 안성면 공정리 통안마을의 속칭 송정골에 위치한 구한말 의병들의 무덤이다. 이 곳에 묻힌 의병들의 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150여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의병장은 신명선(申明善. 또는 明先)이다.

신명선(미상～1908)은 무주 출신 시위대 군인으로 1907년 정미7조약(한일신협약)이 체결되고 이어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당하게 되자, 덕유산을 거점으로 동지를 규합하고 스스로 의병장이 되었다. 그의 의병진에는 황이만·황덕화·문봉호·홍병철·정석마 등 무주 출신들이 있었다고 한다.

신명선 부대는 1907년 겨울, 김동신 의병대, 이석용 의병대와 연합하여 진안과 임실·순창 등지에서 격전을 치루었고, 1908년에는 무주 적상면 배골 접전 모퉁이에서

11)…香積庵西有香林櫛立峯之得名 …
12)…必待彌勒往世此香乃發云 …

일본군 수비대를 격퇴한데 이어 정월 대보름에는 문태서의 호남의병대와 합세하여 부남면 고창곡 옥녀봉 골짜기에서 일본군 수비대 43명을 사살하고 총기 50자루를 노획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이후 진안·거창·함양 등지에서 격전을 치르면서 장수를 거쳐 칠연계곡으로 진군하다가 통안리 함지 방앗간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하였다.

1908년 4월 10일에는 문태서 부대와 함께 장수를 습격하였고, 동월 13일에는 안성에서 진안수비대와 교전을 벌였다. 그러나 토벌대의 추격을 받아 무주의 칠연계곡에서 유진(留陣) 중 일본군의 기습을 받아 의병 150여명이 모두 이곳에서 옥쇄(玉碎)하였는데, 시신마저 수습하지 못하였다. 신명선의 이 때 나이는 30세 전후였으며, 연설에 능하고 체구는 거구였다고 한다.

그 뒤 생존 의병인 문봉호(文奉鎬)가 인근 주민의 도움을 받아 유해(遺骸)를 수습하여 송정골에 안치하였고, 1969년 지역의 향토예비군에 의해 흩어진 유해를 다시 수습, 성분(成墳)하고 묘역을 정비한 후 백의총(百義愼)이라 불렀는데,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칠연의총'이라 하였다. 2003년 12월 11일 '칠연의총 성역화' 사업을 통해 다시 정비되었다.

3) 마산동굴(馬山洞窟)

○ 지정번호 : 전라북도 기념물 제41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산 78번지
○ 규　　모 : 전장 192㎡
○ 지정년월일 : 1979. 12. 27

마산동굴은 적상면 사산리 마산마을 남쪽, 속칭 놋쇠솥계곡에 자리한 석회동굴로 전라북도에서는 익산시 천호석회동굴 다음으로 발견되었다. 동굴의 입구가 좁아 허리를 굽혀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고, 내부는 40°쯤 되는 경사와 낮은 천정으로 보행이 자유롭지 못한데, 16m쯤 내려가면 천정이 6m쯤 높아지고 너비도 2~3m쯤 되는 곳에 이른다.

동굴에서는 종유석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방향은 북동에서 남서방향을 지시한다. 바닥은 석회암의 풍화로 생성된 적색점토(赤色粘土. Terra rossa)가 퇴적되어 있고, 바닥의 한편에는 모래와 자갈이 매몰되어 있다. 이것은 지표에서 지표수와 함께 흘러 들어온 것이다.

마산동굴은 9개의 지굴(支窟)이 있는데, 굴곡이 심하고 매우 좁아서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지굴의 방향은 그물 모양의 망상(網狀)이어서 불규칙한데, 길이를 모두 합하면 총연장 190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산동굴

동굴의 가장 아래는 통풍이 잘 되지 않아 호흡장애를 느낄 정도이며, 소리를 지르면 울림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어디선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한편 동굴에는 오소리 등이 살았던 흔적이 있고, 자주·검정색 박쥐가 여러 마리 서식하였다.

마산동굴이 위치한 사천리 일대의 지질은 이른바 소백산 편마암(片麻巖) 복합체지층(複合體地層)으로 선캄브리아기에 형성된 지층이다. 원래 근원암은 해저(海底)에서 퇴적한 해성퇴적암(海成堆積巖)이었는데, 수 차례의 지각변동과 광역변성(廣域變成) 작용을 받으면서 융기(隆起)운동을 거듭, 오늘의 편마암류로 변성한 것이다. 즉, 오랜 세월 풍화침식을 받으면서 소규모로 개재(介在)하는 석회암층을 지하수가 낙식(落飾)하여 동굴을 형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마산동굴의 역사는 아직 종류석 성장의 유년기에 해당되나 석회암의 분포상태와 품의, 지질구조 등을 고려할 때 건조화 하면서 공동(空洞)발달이 멈추는 느낌을 주고 있다.

동굴 내에는 몇 개소의 동굴경관이 발달하고 있었으나, 지방기념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훼손되어 1988년 현재 동굴퇴적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3)]

4) 백련사 금강계단(金剛戒壇)

○ 지정번호 : 전라북도 기념물 제42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산 107번지
○ 규　　모 : 높이 2.0m
○ 크　　기 : 길이 17m, 너비 5m

13) 마산동굴에 관한 기록은 [(사)한국동굴학회·건국대학교 부설 환경과학연구소, ≪무주 마산동굴 관광개발조사 학술보고서≫, 무주군. 1988. 12,]을 참조하였다.

○ 분　　류 : 석단
○ 지정년월일 : 1979. 12. 27


백련사 금강계단

금강계단은 사찰에서 금강보계(金剛寶戒)로 일컫는 불사리(佛舍利)[14]를 설해 놓고 수계의식(授戒儀式)[15]을 행하는 곳으로 백련사 금강계단은 대웅전에서 덕유산 정상으로 오르는 뒷산에 위치한다. 길이 17m 폭 5m 넓이의 바닥에 자연석을 깔아 단(壇)을 설치하고, 단의 중앙지점에 높이 2.1m 둘레 4m의 우람한 석종형 탑 1기를 세워놓고 그 전면에 직경 1m 높이 0.3m 크기의 원반형 좌대 1기가 안치되어 있다.

계단(戒壇)의 중앙에 안치된 계탑은 보편적인 석종형 탑(石鐘形塔)으로 볼 수 있으나, 둘레가 4m나 되는 대형으로 자연석 기단을 대석(臺石)으로 삼고 그 위에 탑신(塔身)을 올려놓았는데, 탑신부(塔身部)와 상륜부(相輪部)를 따로 조형한 것이 아니고 일석(一石)으로 조각되었다.

탑신에는 탑명 등의 명문(銘文)은 없으나, 상륜부는 여의두문(如意頭紋)을 양각(陽刻)하여 보륜으로 돌렸고, 그 상단에 유두형(乳頭形) 보주(寶珠)를 조각하여 장식하였다. 또한 계탑 전면에 있는 원반형 좌대는 상두면(上頭面) 가장자리에 음각된 선이 원을 이루고, 네 군데 모서리는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듯한 삼각점(三角點)의 흠이 있다.

금강계단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신라 선덕여왕 5년(636) 자장율사(慈藏律師)는 왕명을 받아 당나라에 들어가 청량산(淸凉山) 문수보살(文殊菩薩)에게서 법(法)을 받고, 인도에서 전해온 석가여래(釋迦如來)의 진신사리(眞身舍利)와 비라금점가사(毘羅金點袈裟) 등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그 후 선덕여왕 15년(646) 자장율사는 왕과 함께 양산의 영취산(靈鷲山, 일명 鷲棲山) 아래에 있는 구룡연(九龍淵)에서 용을 위한 설법을 마친 다음 연못을 메우고, 그

14)석가모니의 유골. 불골. 사리.
15)불문(佛門)에서 입문한 모든 불자에게 계법(戒法)을 일러 주는 의식.

자리에 통도사(通度寺)를 세웠는데, 그 때 당나라에서 모시고 온 사리(舍利)를 봉안하기 위한 탑을 세우고 사래(四來)를 계도(啓導)하기 시작하였다. 이 탑을 일컬어 금강계단이라 부른다. 이를 계기로 훗날 전국의 명산 대찰(大刹)에 이와 같은 계단(戒壇)을 만들어 놓고, 불자들의 계율의식을 거행하는 예가 생겼다고 한다.

한 때 무주 구천동에는 14개의 사찰이 있어 수많은 불제자가 안거(安居)함으로써 금강계단을 두고 참선 수도하던 불도에게 계율의식을 행했을 것으로 여겨지나, 이에 관한 기록이 없어 어느 시대 조성되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고려시대 구천동사를 창건한 대원대도대사(大院大都大師)의 부도라고 전해지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한편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이 탑의 주변을 일곱 번 이상 돌면, 누구나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한다.[16)]

5) 백련사지(白蓮寺址)

○ 지정번호 : 전라북도 기념물 제62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936-1번지
○ 종　　파 : 대한불교조계종
○ 규　　모 : (전면적) 14,582㎡
○ 지정년월일 : 1982. 8. 30

1960년대 초반 이후 복원되거나 신축되어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의 말사인 백련사가 자리하고 있는 백련사지는 덕유산 구천동 계곡 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백련사(암)에 대한 창건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부터 사찰이 존재했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구전(口傳)을 통해 통일신라 때 창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신라 신문왕 때(681～692) 하얀 연꽃이 솟아 나온 곳에 백련선사(白蓮禪師)가 절을 짓고 백련암(白蓮菴)이라 했다는 설과 흥덕왕



백련사지

5년(830) 무량국사(無梁國師)가 창건했다는 설이다.

그렇지만 옛적에 구천동에는 구천동사(九千洞寺), 백련사(白蓮社), 백련암(白蓮菴) 등으로 불리는 사찰이 있었다.[17] 이와 함께 백련사지는 옛부터 고승대덕(高僧大德)들이 도를 닦고 선풍을 일으킨 성지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불교의 맥을 이은 벽송당(碧松堂) 지암(智巖)대사에게서 법통을 이어받은 부용당(芙蓉堂) 영관(靈觀)선사, 부용당의 불제자로 청허당(淸虛堂) 휴정(休靜)대사와 함께 선문의 거봉 이었던 부휴당(浮休堂) 선수(善修)대사, 부휴당의 법제자 벽암당(碧巖堂) 각성(覺性)대사 등이 있었다. 또한 서산대사의 사대제자 중 한 사람인 정관당(靜觀堂) 일선(一禪)선사와 그의 법제자 임성당(任性堂) 충언(沖彦)선사 등 모두가 덕유산 또는 구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백련사는 광무 4년(1900) 이하섭(李夏燮) 군수 때 중수되었는데,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면서 사세(寺勢)가 기울기 시작하였고, 일제 강점기 때에는 덕유산 일대가 북해도제국대학(北海道帝國大學)의 소유림이 되어 사찰이 심하게 변형되었으며, 한국전쟁 때에는 병화에 타버리는 불행까지 겹쳐 흔적만 남았다. 그런데 1960년대 초반, 사지(寺址)에 초막으로 지은 인법당(因法堂) 1동을 건립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선수대사가 옛가람을 재현하였다. 1967년에는 무주 읍내에 있는 무주부 관아(官衙) 내 동헌(內東軒) 건물을 옮겨 요사(寮舍)로 사용하였는데, 그 무렵 백련암으로 불리던 이름이 백련사로 바뀌었다.

백련사지내에는 매월당 부도(梅月堂浮屠 : 전북유형문화재 제43호), 백련사 계단(戒壇 : 전북지방기념물 제42호), 정관당 부도(靜觀堂浮屠 : 전북유형문화재 제102호)등의 문화재가 있다.

6) 원통사지(圓通寺址)

○ 지정번호 : 전라북도 기념물 제67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번지
○ 시　　대 : 삼국시대

---

16)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EnCyber).

17)조선 현종 13년(1672) 명재(明齋) 윤증(尹拯)이 쓴 <유려산행기(遊廬山行記)>, 영조 40년(1764) 전주 송광사(松廣寺)에서 간행한 <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 영조 41년(1675)에 발간된 <무주부읍지(茂朱府邑誌), 고종 35년(1898) 간행된 <적성지(赤城誌)>.

○ 종　　파 : 대한불교조계종
○ 규　　모 : (전면적) 8,643㎡
○ 분　　류 : 사지
○ 지정년월일 : 1983. 8. 24


원통사

원통사지는 덕유산 남쪽 기슭에 있는 절터이다. 원통사중창비문(圓通寺重創碑文)[18]에 따르면, 신라 때 창건된 고찰(古刹)임을 알 수 있으나 정확한 창건 시기와 당시의 규모는 알 수 없다. 다만 조선 숙종 때 탄언(坦彦)·도영(道英)·혜옥(惠玉)·일학(一學) 등이 법당과 종각을 중창하고 불상을 중수 했으며 동종을 주조하는 등 대불사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보다 앞선 시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원통사(元通寺·圓通寺)가 덕유산에 있다'고 하여, 중종 25년(1530) 이전에 존재했던 사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원통사는 광무 11년(1907) 법당의 후불탱화(後佛幀畵)를 비롯하여 신중(神衆), 칠성(七星)탱화를 조성하였다. 그 때는 광무 9년(1905)에 강제로 체결된 이른바 '을사조약' 이후 의병장 김동신(金東臣)·문태서(文泰瑞)·신명선(申明善)·박춘실(朴春實) 등이 구국항쟁의 대열에서 원통사를 근거지로 항일투쟁을 벌이던 시기였다. 그 후 원통사는 1949년 일어난 여·순사건의 여파로 전소(全燒)되는 불행을 당했고, 소실된 도량을 복구할 겨를도 없이 한국전쟁을 겪게 되었다.

그 당시 원통사 주지인 범인(梵仁)선사는 아랫마을인 명천(明川)에 임시로 불당을 마련하고 불법을 전하였고, 1957년부터 재건에 착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뒤 1976년 주지로 부임한 배재열(裵在烈) 스님이 복원 계획을 세우던 중, 1982년 범인선사의 둘째 아들이자 삼보법회(三寶法會) 회장인 황경석(黃慶石) 거사가 찾아와 사재를 들여 중창불사(重創佛事)를 시작한 지 3년만인 1985년 옛 가람을 되찾게 되었다.

18)숙종 24년(1698), 昔在羅代之人矩山川之 …

한편 원통사는 삼국시대의 고찰(古刹)일 뿐 아니라 사찰 위, 즉 원통사 대웅전 뒷산 중턱에 운대암(雲垈庵)이라는 암자가 있었다고 한다.[19)]

7) 서벽정(棲碧亭)

○ 지정번호 : 전라북도 기념물 제80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2109번지
○ 규　　모 : (전면적) 367㎡
○ 크　　기 : 정면 4칸, 측면 3칸
○ 분　　류 : 누(정), 각
○ 시　　대 : 조선시대
○ 지정년월일 : 1992. 6. 20

조선 말기에 건축된 전통 건조물로 한말의 우국지사(憂國之士)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 1836～1907)이 낙향하여 머물며 영·호남의 선비들과 시국을 논하고, 후진을 양성하던 곳이다.

송병선의 자는 화옥(華屋)이며 본관은 은진(恩津)으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9세손이다. 학문과 절제있는 행동으로 천거받아 좨주(祭酒)에 기용된 뒤 서연관(書筵 官)·경연관(經筵官)·지평(持平)을 거쳐 대사헌(大司憲)에 이르렀으나 취임하지는 않았다. 그는 ≪벽사설(闢邪說)≫을 지어 양학(洋學)을 배척하고, 일본과의 개국통상을 반대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시정개혁과 일본에 대한 경계를 건의하여 왕의 동의를 얻었다. 뒤에 다시 대궐에서 왕에게 상소하려다가 경무사(警務使) 윤철규(尹喆圭)에게 속아 일본 헌병대에 의해 고향으로 이송 당하자 망국의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음독 자결하였다



서벽정

19)≪적성지≫(天), 在一安德裕山麓是三韓古刹上有雲垈 庵府南五十里.

고종에게서 의정(議政)에 추증되고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받았으며,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단장(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 되었다. 저서로는 ≪무계만집≫이 있고, 문집으로 ≪연재집≫이 간행되었다.

서벽정은 당시의 세태를 비관하고 은둔 생활을 하던 그가 고종 23년(1886년) 친구의 소개로 무주 구천동을 찾아왔다가 아름다움에 반해 수성대(水城臺)에 건립하고 머물던 정자이다. 구조는 막돌로 쌓은 석축 기단 위에 주춧돌을 놓고 세운 정면 4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의 주심포집이다. 정면 좌우측 1칸씩은 누각처럼 바닥을 기둥 가운데에 올려 앉혔는데, 좌측은 높고 우측은 낮다. 전체적으로 단아한 사대부의 재실 모습을 지녔다.

한때 화재로 소실되었던 것을 고종 28년(1891)에 재건하였으며, 한국전쟁 때에는 북한군의 숙영지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20] 고종 광무(光武) 원년(1897)에 무주군수 조병유(趙秉瑜)가 주자(朱子)와 송시열의 초상을 봉안하였다.

8) 적상산 사고지(史庫址) 유구(遺構)

○ 지정번호 : 전라북도 기념물 제88호
○ 위　　치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산 117-5번지
○ 규　　모 : (전면적) 6,083㎡
○ 시　　대 : 조선시대
○ 지정년월일 : 1995. 6. 20
○ 분　　류 : 기타 문화재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 족보인 선원록을 보존하기 위해 설치된 적상산 사고지 유구이다. 우리나라의 사고(史庫)는 고려 말기 이후 역대왕조의 실록을 보관하던 곳으로 선원전(璿源殿)과 실록전(實錄殿)을 두었다.

고려는 초기부터 사관을 두고 국사편찬에 힘을 기울였으나 거듭된 전란으로 대부분 없어졌고, 조선 초기 ≪고려사≫ 편찬 후에는 종적조차 찾을 길이 없게 되었다. 조선은 임진왜란(壬辰倭亂) 이전까지는 내사고인 춘추관과 외사고인 충주·성주·전주 사고의 4곳을 두었으나,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가 불에 타버렸다.

---

20)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EnCyber).



복원된 실록각



적상산 사고지 유구

그때 전주사고의 실록은 내장산, 해주 등을 거쳐 평안도로 옮겨 난을 피함으로써 임진왜란 중 멸실되지 않은 유일한 사고본으로 남게 되었다. 그 후 실록을 다시 편찬하였는데, 인쇄된 실록은 전주사고본을 저본으로 정본 3부와 교정본 1부 등 모두 5부로 만들었으며, 전화(戰禍)를 피할 수 있도록 깊은 산중이나 섬 지방에 사고를 설치하였다.

원본인 전주사고본은 강화의 마니산에 두었다가 정족산사고로 옮겨졌으며, 새로 인쇄한 정본 가운데 1본은 예전처럼 서울의 춘추관에 두고 나머지는 태백산사고와 묘향산사고에 보관하였다. 그리고 교정본은 오대산사고에 보관하였다.

그 시기 묘향산사고가 있는 북방에서는 후금(後金)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었다. 이에 대비하여 묘향산사고의 실록을 옮기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1610년(광해군 2) 조정에서는 사관(史官)을 보내 적상산의 지형을 살피게 하고 산성을 수축하였다.

그 뒤 1614년(광해군 6) 천혜의 요새로 이름난 적상산에 실록전을 창건하고, 1618년(광해 10) ≪선조실록≫을 봉안하였으며, 1634년(인조 12)에는 묘향산에 보관하던 실록을 적상산사고로 이안하였다. 또한 1641년(인조 19)에는 선원전을 세우고 동년 11월 왕실의 족보인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을 봉안함으로써 적상산사고는 완전한 사고가 되었다.

적상산 사고의 설치는 무주현이 무주도호부로 승격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사고의 수호와 수호군의 식량을 조달하고, 포쇄(曝曬)차 내려오는 사관(史官)이하 관리의 접대, 사고지 점검을 목적으로 한 전라감영의 순시 등으로 인해 무주현민의 경제적 부담이 극에 달하자, 지역민이 상소를 올리고 중앙정부의 관리가 동조하여 무주현을 도

호부로 승격시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정황과 함께 실록과 선원록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었다. 병자호란 때에는 도총섭에 임명된 벽암대사 각성(覺性)이 산성에 왔다가 전란 소식을 듣고 승병을 모집하여 전투에 참여하고자 했으며,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승장(僧將) 상훈(尙訓)이 실록 등을 안렴대 아래 석실(石室)로 옮겨 보관한 적이 있다. 이 때의 사정을 알려 주는 편액(扁額) '석실비장(石室秘藏)'이 현재 안국사에 소장되어 있다.

적상산사고는 보관이 충실한 관계로 산실(散失)된 마니산본의 보충을 위해 등서(謄書)되었으며,[21] 포쇄와 봉안에 대한 기록인 형지안(形止案)과 사고와 선원각의 보수 등을 기록한 <적상산성선사양각역비명세서(赤裳山城璿史兩閣役費明細書)> 등이 전한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때 적상산사고에 비장되어 있던 실록을 왕실 규장각으로 옮겨감으로써 사고는 폐지되었으며, 건물은 안국사의 불구(佛具)를 옮겨와 법당으로 사용되었다. 후에 선원전 건물은 안국사 경내로 옮겨져 천불전(千佛寶殿)으로 사용되었으며, 실록전과 그 밖의 부속 건물은 모두 훼철되고 주초석만 남게 되었다.

방치되다시피 흩어졌던 유구는 1980년대 후반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한 양수발전소 건설에 따른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나[22] 댐 건설에 따라 수몰되었고, 본래 있던 유구의 위치보다 위쪽에 선사양각이 복원되었다.

발굴 당시 사고지의 건물 배치는 실록전지를 중심으로 남쪽에 선원각을 배치하고, 실록전의 동쪽에는 삼문과 계단을 시설하였으며, 삼문에서부터 실록전과 선원전의 후편을 감싸는 담장이 시설되어 있었는데, 선·사양각 사이는 다시 담장을 두어 구획하고 있었다.

---

21)≪적상산성실록등교동고록기(赤裳山城實錄謄校同苦錄記)≫.

22)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한국전력공사, ≪무주적상댐 수몰지구 발굴조사보고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989.

3. 문화재 자료

1) 무주향교(茂朱鄕校) 대성전(大成殿)

○ 지정번호 :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03호
○ 소 재 지 :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64-1
○ 시　　대 : 조선시대
○ 분　　류 : 향교
○ 지정연도 : 1984. 4. 1


무주향교

향교는 현유(賢儒)의 위패를 봉안하고 지방민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무주향교는 1398년(태조 7) 현사(縣舍)의 북쪽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오지만, 확실한 기록은 없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처음 건립된 향교에 호랑이가 나타나 해를 입히자, 1692년(숙종 18) 그 당시 무주부사 김몽신이 향로산 서쪽으로 이전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지대가 습해 60여 년 동안 10여 차례나 수선을 해야만 하였다. 1830년(순조 30) 부사 이헌승이 이건에 착수하여 순조 34년(1834) 이광승 부사에 의해 만 4년여 만에 준공을 보았다. 그 후에도 1876년(고종 13) 이응우(李膺愚) 부사에 의해 대성전을 비롯한 양무(兩廡)와 양재(兩齋)를 전면 중수하였고, 1884년(고종 21) 조준호(趙駿鎬) 부사가 명륜당과 홍문을, 그리고 1897년(고종 34) 조병유(趙秉瑜) 군수에 의해 대성전이 중수 되었다. 조선시대 향교는 교육 기관의 역할을 했으나, 갑오개혁 이후에는 신학제 실시로 교육의 기능이 사라졌다.

무주향교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이고, 정면 5칸 측면 2칸의 명륜당이 있다. 그밖에 동무·서무, 동재·서재, 외삼문, 내삼문, 전사재, 교직사 등이 있다.

대성전에는 5성,[23] 6현,[24] 10철[25]을 모셨고, 동무[26]·서무[27]에는 우리나라의 18현을 모셨으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동재와 서재를 두어 중설위(中說位)의 품격을 유지하였다.

향교는 조선초기부터 전국의 고을마다 설치하고, 공자를 제사하는 대성전 즉, 문선왕묘(文宣王廟)를 중심으로 하여 명륜당이라는 강당을 두고 학생들로 하여금 선현(先賢)을 경모(敬慕)하는 마을을 기르게 하면서 선비를 양성한 곳인데, 고종 31년 과거제도가 폐지되면서 학교의 역할은 상실되었고, 문묘(文廟)만을 향사(享祀)하게 되었다.

2) 백산서원(栢山書院)

○ 지정번호 :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60호
○ 소 재 지 : 무주군 무풍면 현내리 167
○ 시　　대 : 조선시대
○ 면　　적 : 1,025㎡
○ 분　　류 : 서원
○ 지정연도 : 2000. 6. 23

무풍면 현내리 북리마을에 위치하며 진양하씨(晉陽河氏) 문중 5명의 위패를 모신 서원이다. 조선 세종 때 삼정승을 두루 거친 문효공(文孝公) 하연(河演)을 비롯하여 사양재(四養齋) 하위국(河衛國)과 네 아들인 하징도(河徵道)·하정도(河呈道)·하형도(河亨道)·하현도(河顯道) 등을 배향하고 있다.

진양하씨 문중에서 1821년(순조 21) 문효공과 정경부인 성산이씨의 영정을 모시기 위해 영당(影堂)을 세우고 백산영당(柏山影堂)이라 이름하였다. 그리고 문중 자제들과 이 고장 선비들이 학문을 닦는 서재(書齋)의 역할을 해 왔다. 정부에서는 타진사

---

23)공자·안자·증자·자사·맹자.
24)주희·정명도·정이천·소강절·장횡거·주자.
25)민손·염경·염웅·재여·단목사·염구·중유·언언·복상·전손사.
26)설총·안향·김굉필·조광조·이황·이이·김장생·김집·송준길.
27)최치원·정몽주·정여창·이언적·김인후·성혼·조헌·송시열·박세채.

(妥眞祠)라 사액(賜額)하였다.

그런데, 1869년(고종 6)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헐리게 되었다. 그 후 1908년(순종 2) 건물을 복원하면서 그 뒤편에 새로운 사당(祠堂)을 세우고, 문효공과 정경부인의 영정을 위패와 함께 봉안하였다. 그 뒤 매년 봄 가을(해마다 3월과 9월 상정[28]에 유림에 의해 향사(享祀)되었고, 이전에 영당으로 사용되던 건물은 백산재(柏山齋)라 편액(扁額)하고 후진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그 후 일제 강점기였던 갑인(1914)년 타진사 서편에 백산사(柏山祠)를 세우고, 이 고장에 들어와 정착하며 자손들이 세거(世居)토록 한 사양재(四養齋) 하위국(河衛國)과 학문과 효행이 높았던 그의 아들 네분의 위패를 함께 모시고, 백산서원의 현판을 걸었다.

경내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된 백산사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으로 된 타진사, 정면 4칸 측면 1칸의 우진각 지붕으로 된 강당과 내삼문, 고직사(雇舍)[29]가 있다. 타진사에는 문효공과 정경부인 영정과 ≪하연문집(河演文集)≫(3책)을 비롯한 50여 종의 문헌이 소장되어 있다.



백산서원

3) 분양서원(汾陽書院)

○ 지정번호 :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161호
○ 소 재 지 :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366-2 (지일마을)
○ 시　　대 : 1940년대
○ 면　　적 : 6,899㎡
○ 분　　류 : 서원
○ 지정연도 : 2000. 6. 23

28) 上丁 : 첫 번째 丁日.

본래 달성서씨 문중에서 자제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서당[풍성당(豊城堂)]이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인 1943년 건물을 중수하고 사당[숭모사(崇慕祠)]을 건립한 후 문중의 선대(先代)인 남은(南隱) 서섭(徐涉)과 취정(翠亭) 서효재(徐孝載)을 배향하고 매년 향사(享祀)하였다. 그 뒤 1971년 사당 앞에 서재(書齋)인 분양정사(汾陽精舍)를 세우면서 분양서원이라는 현판을 걸었다.

경내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건물인 숭모사와 정면 4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건물인 강당 외에 분양정사묘정비·내삼문·외삼문·고직사(守直舍) 등이 있다.



분양서원

29)제구 등을 간수해 두는 곳으로, 제향 때에는 제수 등을 준비해 둠.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1절 선사유적

1. 유적(遺蹟)과 유물(遺物)

1) 지석묘(支石墓)

1982년 적상면 사천리 신대마을 앞 농경지에서 소유주가 논을 갈다가 논 가장자리에서 우연히 돌검(磨製石劍)과 돌화살촉(磨製石鏃)을 발견하게 되어 발굴조사를 하게 되었다.[1] 그 결과 무주에서는 처음으로 선사(청동기)시대 유적이 확인되었고, 무주의 역사 역시 청동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유적조사보고서≫제14집(1983. 5. 10) 참조.

이외에 적상면 사천리 길왕마을 어귀와 마을 앞으로 흐르는 적상천변에 10여 기의 거석(巨石)이 무리를 이루고 있고, 무주읍 당산리 유속마을 앞에서 1기가 보였으나 개답 공사로 흔적을 잃고 말았다.[2]



지석묘(적상면 사천리 신대마을 앞)

1) 전영래, ≪문화재지≫, 전라북도, 1990, 96쪽.
2) 무주군, ≪향토문화재지≫, 무주군, 1994, 90쪽.

그리고 2003년에는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천면 소천리 887-25번지(평지마을) 백남규씨 댁에서 지석묘 2기가 확인되었다. 지석묘군은 남방식 지석표로 추정되는데, 무주 설천지역의 선사시대 문화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3)]

2) 선돌(立石)

안성면 장기리 이목마을 도로변 논가에 서 있었는데, 도로확장 사업으로 이동되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본래 이러한 선돌이 7기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1900년 초반에는 2기, 현재는 1기가 남아 있다.

선돌은 지석묘와 함께 거석문화(巨石文化)의 일종으로 청동기시대와 조선시대 축조되었다. 따라서 장기리 선돌은 청동기시대 아니면 조선시대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식 학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축조연대와 성격은 알 수 없다.[4)]



선돌(안성면 장기리 하이목 마을 도로변)

3) 출토 유물

(1) 석검

1976년 안성면 덕산리 상산마을 김재희(金在熙)가 발견한 이후 1980년 부남면 대소리에서 한창희(韓昌熙)씨가, 1982년에는 적상면 사천리에서 지석묘와 함께 발견되었고, 1983년에는 무주읍 오산리 밤속골에서 박종찬(朴宗贊)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그 당시 모두 전주시립박물관에 보관되었다.[5)] 이에 관한 내용은 ≪무주군지≫(1990년 간행)와 ≪향토문화재지≫ 참조.

---

3) 전북대학교 박물관·무주군, 무주 남대천2공구 수해복구공사 부지내 《文化遺蹟地表調査結果報告書》, 2003,

4) 김승옥, <선사시대> ≪무주군지≫(상), 무주군지편찬위원회, 2003, 177쪽.

5) 무주군지편찬위원회, ≪무주군지≫, 무주군, 1990, 899쪽.

(2) 무풍면 현내리 출토 토기(土器)

무풍면 현내리 산 39번지에서 현내리 주민이 산을 개간하다가 토기를 발견하고 무풍초등학교에 기증하였다. 1988년 현재 무풍초등학교에 기증되어 있는 토기는 모두 12점이었다. 출토된 연대는 확실치 않으나 근래(近來)의 것으로 추정된다. [≪무주지방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전주대학교박물관, 1988.]

(3) 무주읍 가옥리 출토 유물

1988년 2월 무주읍 가옥리 753-6번지의 밭에서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병 2점과 청자접시 1점이 출토되었다. 무주군 문화공보실에서 이들 유물을 정식으로 신고 받아 등록하고, 그 당시 전주시립박물관에 기탁하여 보관중이다. [≪무주지방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전주대학교박물관, 1988.]

(4) 안성면 공진리 출토 유물

어느 농부가 1988년 6월 안성면 진도리 189번지 밭의 배수로를 설치하는 도중, 지하 1.5m 지점에서 청자병 1점과 청자접시 1점이 출토되어 무주군 문화공보실에 신고되었다. 뒤에 전주시립박물관에 기탁되어 보관되었다. [≪무주지방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전주대학교박물관, 1988.]

(5) 적상면 길왕리 출토 유물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건설구간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6]에 의하면, 적상면 길왕리에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저부 4점이 출토되었다. 그러나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특별한 유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무문토기 저부가 출토되고 주변에 지석묘가 분포한 것으로 보아, 청동기인들이 거주했고 이들이 남긴 유적과 유물이 인근에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7]

---

6) 전북대학교 박물관·군산대학교 박물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무주-장계 구간) 건설공사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2000.

7) 김승옥, 위의 책, 177~178쪽.

(6) 설천면 청량리 출토 유물

2001년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 일대에 '반딧불이 환경 테마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8] 그 결과 고려시대 및 삼국시대 유물들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청동기시대의 마제석촉 1점이 수습되었다. 발견된 마제석촉은 유경식석촉의 편으로서 지표조사를 통해 수습되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 유적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제석촉이 발견된 지점은 남대천변의 저평한 충적대지이기 때문에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7) 설천면 소천리 출토 유물

무주군 역사이래 가장 처참한 피해를 불러 온 2002년 여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를 하면서 2003년 5월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남대천 일원 및 호안 사업부지(무주 남대천 2공구 수해복구공사 부지)의 총연장 길이 약 3㎞에 대한 문화유적지표조사가 진행되었다. 이 조사에서는 무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편이 발견되었고, 이와 함께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편, 그리고 고려시대의 경질토기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9]

제2절 향토유적

1. 궁지(宮址)

1) 명례궁(明禮宮)

명례궁은 조선 후기 무풍면 현내리에 건립되었던 별궁(別宮)이다. 별궁은 조선시대 유사시 사용하기 위하여 전국 요지에 건립한 행궁(行宮) 중의 하나이다. 무풍의 명례궁

8) 김승옥·이민석, 2001, ≪무주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예정지구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전북대학교박물관·(주)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9) 전북대학교 박물관·무주군, 무주 남대천2공구 수해복구공사 부지내 ≪文化遺蹟地表調査結果報告書≫, 2003,

은 구한말(舊韓末) 궁내대신을 지내며 을사오적(乙巳五賊)의 하나로 지목받은 민병석(閔丙奭)이 건립하여 명성황후(明成皇后) 민비(閔妃)에게 상납하였다.


명례궁터(무풍면 현내리 소재)

민병석은 무풍지역을 무릉도원(武陵桃源)의 땅이요, 십승지지(十勝之地)의 하나인 난세(亂世)의 피난지로 여기고 99간을 건축하였다. 재원은 무주부의 공물(貢物)을 대납한데서 나온 이익금으로 결국 무주인의 세금으로 건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민병석은 고종 27년(1890) 공사에 착공하여 그 당시 무주부사 서완순(徐完淳)의 협력을 받아 준공하고, 토지 300두락(斗落)을 부속시키고 후에 쌀 1,500석(石)을 비축한 다음 명성황후에게 상납하였다.

명성황후는 이를 받아들여 초대 감관(監官)으로 제원찰방(濟原察訪)을 겸하고 있던 구씨 성의 승지(承旨)를 임명하였다. 뒤에 민병형(閔丙馨)이 부임하였는데, 그는 회덕 군수로 전임되었다. 세 번째로 구일모(具日模)가 부임하였는데,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고종 32년(1895) 일본 낭인들에게 명성황후가 시해 당하는 등 구한말의 위기감이 절정에 이르고, 마침내 광무 9년(1905) 이른바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면서 무풍의 명례궁은 다시 민병석의 개인 소유가 되었다.

그 후 무풍에 거주하는 하인환(河寅煥)이라는 사람이 10여 년간 관리하였는데, 이장우(李章雨)에게 매각되었다고 한다.[10] 해방 후 토지(土地)는 금융조회(金融組會)의 소유가 되고, 건물은 강순열(姜順烈)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데 건축목재 일부는 대덕산(大德山) 정각(亭閣)으로, 일부는 양산면(楊山面) 지서(支署) 건물로 팔려가고, 일부는 헐려서 현재는 한간도 남지 않은 공터가 되었다.[11]

대문을 여러 개 들어가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당시는 개인의 살림집으로 여러 호가 살았는데, 일제 강점기 때 보존·관리하려는 사람이 없어 결국은 사라지고 말았다.

---

10)명성황후 사후(死後) 민병석 개인 소유가 되었고, 민병석은 1940년까지 생존했으므로 상당 기간 민병석 소유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지인에게 매각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11)건축목재는 해체 후 다시 그대로 재건하거나 변형하여 다시 건립할 수 있었으므로, 목재만 따로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사례가 많았다.

2. 역(驛)·원(院)·진지(津址)·봉수(烽燧)·교량(橋梁)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를 통해 무주군에 설치·운영되었던 역·원·진을 보면, 역원조(驛院條)에 소천역(所川驛), 무제원(茂梯院), 승장원(勝長院), 소이원(召爾院)이 있고, 산천조(山川條)에는 소이진(召爾津)만 기록되어 있다. 또한 ≪무주부읍지(茂朱府邑誌)≫ 역원조(驛院條)에는 소천역(所川驛)과 유등원(柳等院)이 기록되어 있다.[12)]

1) 역(驛)

조선왕조는 도로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국 도로 요처에 역을 설치하고 역제를 운영하였다. 조선시대의 역제는 대체로 고려시대의 그것을 이어 받아 정비되었다. 중앙 집권적인 군현제도를 강력하게 추구하던 조선왕조는 역이 지니는 중추 신경적인 기능을 중요시 하였고, 지방에 대한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역의 기능을 십분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체제에 유의하였다.

조선시대 역로행정(驛路行政)을 총괄하는 기구는 중앙의 병조였고, 그 아래에 승여사(乘輿寺)를 두었고, 승여사의 관할 하에 있는 전국의 각 역에 역승(驛丞)을 두었는데, 초기에는 종9품의 역승 외에 종6품의 찰방(察訪)을 함께 두기도 하였다.

그 뒤 제도상의 변화가 있었는데, 중종 30년(1535) 찰방체제로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역승은 서리(書吏) 중에서, 찰방은 3품 이하의 조관(朝官) 또는 무예를 겸비한 인물 중에서 임명하였는데, 임기는 30삭(朔)이었다. 찰방의 임무는 본역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진상·공물 등의 수납을 감독하거나 역호(驛戶)를 관리 규찰하는 것이었다.

역의 운영을 보면, 초기에는 역승이, 후에는 찰방이 감독 규찰하고 있던 각 역에는 역장(驛長)·역리(驛吏)·역정(驛丁)·역졸(驛卒)·일수(日守)·노비(奴婢)·보인(保人)·솔인(率人) 등이 있었다. 역장은 큰 역에 두었는데 역승이나 찰방이 겸임하였다. 역리는 대체로 작은 역에 배치되는데, 본래 양인신분이었으나 임무가 천역(賤役)이어서 천시되었다.

한편 각 역에는 소정의 역마(驛馬)가 구비되어 있었다. 교통수단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던 역은 관원의 출장, 또는 공물의 운송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마

12)역·원·진에 대한 설명은 최완기, <역·원제의 정비> ≪한국사≫24, 국사편찬위원회, 500~521쪽 참조.

와 수레를 항시 준비해야 했다. 역에 비치된 말을 사용할 때에는 마패(馬牌)라는 증명이 필요하였다. 마패에는 발행 연월일과 발행처인 상서원인(尙瑞院印)이 새겨지고, 뒷면에 마필의 수를 나타내는 말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전국에는 찰방 23, 역승 18, 41개 역도(驛道)에 537개 역이 분속되어 있는데, 무주군의 소천(所川)역은 용담(龍潭)의 달계(達溪)역, 진안(鎭安)의 단령(丹嶺)역, 고산(高山)의 옥포(玉包)역과 함께 찰방도(察訪道)인 제원도(濟原道)에 속하였다.

소천역 : 무주현에서 동으로 45리[13]인 설천면 소천리에 있었다. 소천역에는 역리(驛吏) 60인, 노(奴) 5인, 비(婢) 4인이 있었고, 말(馬) 10필(상등 1, 중등 9)이 있었다. 그리고 둔전(屯田)으로 역졸복전(驛卒復田) 120결(結), 공수위전(公須位田) 5결(結) 7부(負) 7속(束), 마위전(馬位田) 48결(結) 31부 9속이었다. 금산(錦山)의 제원찰방(濟原察訪)에 속하였으며, 경상도와 통하는 역이었다.

2) 원(院)

원(院)은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에게 숙식(宿食)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요한 길목에 설치된 편의 시설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원과 더불어 각 고을에 빈객을 접대하기 위하여 관(館)을 두기도 하였다. 원은 역(驛)과 같은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역과 원을 합해 역원(驛院)이라고 하였다.

원은 역과 마찬가지로 교통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 조선시대에는 대개 30리에 하나씩 두었으나, 지형조건에 따라 원 사이의 평지에서는 다소 멀고, 산악지대에서는 가까웠다.

원의 경영을 책임 맡은 원주(院主)에게는 원주전(院主錢)이 지급되었다. 그런데 원은 사용자가 제한되어 있었고,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시행착오가 많았다. 특히 원을 운영하는 비용은 본래 관아에서 초료(草料)라고 하여 지급받았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16세기를 전후해서는 공무여행자의 숙식을 각 고을의 객사, 또는 역에서 맡거나 민간업자가 위탁 받아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원이 제구실을 못

---

13)在縣東四十五里. 현 설천면 소천리 소재지. 참고로 소천역이 속했던 전라좌도(全羅左道)에는 말 274필, 역졸 1,797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하게 되면서 민간에서 사사로이 개설한 점(店)이 이용되었다. 점은 대개 원터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원의 이름이 점의 이름으로 바뀐 곳이 많았다. 여행자가 점에서 숙식할 때는 방화전(房火錢)이라 하여 숙식비를 내야 했다. 이들 점은 조선 후기에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교통이 빈번해지면서 주점(酒店)·주막(酒幕)으로 부르던 거릿집으로 발전하였다. 원은 교통상의 요지만이 아니라 깊은 산속이나 험한 길가에도 설치되었는데, 이는 교통의 편의 제공 외에도 빈민구제의 역할을 위해서였다.

조선시대 원의 분포를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살펴보면, 1,310개소가 있었는데, 전라도에는 245개소가 있었고, 무주에는 무제(茂梯)·승장(勝長)·소이(召爾) 3개소가 있었고, 금산군에 속했던 기평(岐平)이 있었다.

무제원 : 무주현에서 동으로 64리[14]인 무풍면 현내리 원촌에 있었다. 경상도 거창과 지례로 통한다. ≪여지승람≫을 보면, 오래 전부터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경상도와 인접하여 동으로는 지례(知禮)의 두의곡역(頭衣谷驛)과 통하고, 남쪽은 거창의 성초역(省草驛)과 통하여 옛적부터 삼남대로(三南大路)라 불렸다. 서쪽으로는 설천의 소천역과 기곡의 승장원으로 연결되며, 무주읍으로 통한다.

소이원 : 무주현에서 서쪽으로 14리[15]인 무주읍 대차리 서면에 있었다. 금산으로 가는 나루가 있었고, 망풍루(望豊樓)가 있었다. 서면마을은 본래 무주부 서면의 소재지였으며, 서호(西湖) 또는 대촌(大村)으로 불렸다. 소이원은 금강 상류 소이진(召爾津)과 같이 곳에 위치하며, 서쪽의 기평원을 지나 제원찰방역이나 금산으로 연결된다. 또한 남쪽은 삼유리 가는 길에 있는 방이리의 유등원과 연결된다.

승장원 : 무주현에서 동으로 35리[16]인 설천면 기곡리에 있었다. 무주관아(茂朱官衙)와 무풍원과의 중간거리에 있었다.

유등원 : 무주부에서 남쪽으로 45리[17]인 적상면 방이리 고방(高芳)에 있었다. 소이원을 통해 금산으로 통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기록이 없으나 영조 때 편찬

---

14)在縣東六十四里.
15)在縣西十四里. 그러나 무주부읍지나 적성지에는 기록이 없다.
16)在縣東三十五里.
17)在府南四十五里.

된 ≪무주부읍지≫에는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여지승람≫에 기재된 무제원이나 승장원 그리고 소이원과 그 당시 금산군에 속했던 기평원은 이미 폐지되었고, 유등원만이 남아 있었다고 하겠다. 현재 적상면 삼유리로 구획되어 있는 상유마을에는 조선후기 학행(學行)과 덕행(德行)을 겸비한 문화유씨(文化柳氏) 가문이 세거하였는데, 이들은 무주지방의 명문가였다고 한다. 이로 인해 문사(文士)와 묵객(墨客)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무주관아에 들린 중앙의 관료와 지방 관리들의 왕래가 잦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마을로 가는 길목에 원을 설치하고 행인들의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한다. 원의 명칭도 유씨의 유자와 연관하여 유등원이라 하였다고 한다.

기평원 : 금산에서 무주 경계 30리인 부남면 가당리 가정(가정자) 마을에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금산군에서 무주군으로 편입되었으며, 가정자라는 말만 전할 뿐 흔적을 잃었다. 옛 부리현(富利縣)을 지나 제원찰방역(濟原察訪驛)으로 연결된다.

3) 진(津)

오늘날과 같이 교통시설과 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는 다리(橋梁)보다는 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넜다. 그리고 강을 건너는 양쪽 지점에는 나루터가 생겼다.

나루는 그 규모에 따라 도(渡)와 진(津)으로 구분된다. 진도(津渡)의 설치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제도적으로 이루어졌고, 조선시대에도 거의 그대로 운용되었다. 이에 따라 진도는 국가뿐 아니라 서민의 교통시설로 중요시되어 확장·설치되었다. 그런데 진도가 국가적 관리체계 속에 편입되고, 이를 통해 인구 동태의 파악과 위험인물의 단속 등을 기찰하게 되면서 도(渡)의 책임자로 별감(別監)을 파견하게 되었는데, 뒤에 도승(渡丞)으로 지위가 바뀌었다.

진도에는 도승을 보좌하여 진리(津吏)가 사무를 처리하였으나, 실제 나룻배를 건네주는 것은 뱃사공, 즉 진부(津夫)들이었다. 이들은 부역의 일환으로 도강 작업에 강제로 동원되었으나 사회적·경제적 대우가 좋은 편은 아니었다. 이들은 도강 뿐 아니라 왕실에 소요되는 생선을 잡아 바치는 등 잡역에도 동원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가급적 역을 피하여 유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이진 : 무주현에서 서쪽으로 14리[18]인 무주읍 대차리 서면에 있었다. 금산과 경계를 이루던 곳에 있는 나루로 금산대로(錦山大路)와 통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무주현 비고(備考)에 따르면, "나루의 하류에는 15개소의 여울이 있는데, 모두 급한 물결이 험준하게 흘러서 돌고 돌며 굽이친다. 험한 벼랑이 궁벽하고 오뚝하여 기괴한 형상은 다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금산군 산천조(山川條)에서는 "군의 동남쪽 48리에 있으며, 그 근원은 넷이다. 하나는 진안 마이산(馬耳山)에서 나오고, 하나는 용담 주줄산(珠韜山)에서 나오며, 하나는 무주 상산(裳山)과 대덕산(大德山) 등에서 나오고, 하나는 장수에서 나온다. (금산)군의 동남쪽에서 합쳐져 소이진이 되고, (금산)군의 동쪽으로 흘러 지대진(只大津)이 되며, 북쪽으로 흘러 충청도 옥천(沃川)에서 호진(虎津)이 된다."고 하면서 "무주와 경계를 이루는 이 나루는 겨울에는 다리로 건너고 여름에는 배로 건넌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이진은 우기에는 나루로 배를 띄웠고, 물이 적은 겨울에는 다리를 놓아 건넜음을 알 수 있다.

무주군과 금산군의 경계를 이루던 소이진은 금산의 제원찰방역에 속한 소천역이 연결된 도로였으며, 더욱이 적상산사고로 연결되는 나루였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관(史官)의 행렬과 공무상 찾아오는 관리들의 행차가 잦았던 곳이다. 특히 소이진에는 일반 여행자들을 위해서 소이원까지 설치해 놓은 무주지역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에 이 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고, 대촌(大村)을 이루어 지명이 되었던 것이다.

일제 강점기 때에는 무주와 금산간을 왕래하는 자동차를 배에 싣고 도강(渡江)하기도 했는데, 1939년 6월 용포리의 늘목에 용포교가 가설되면서 소이진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4) 봉수(烽燧)와 교량(橋梁)

봉수는 군사 목적으로 설치하였고, 법으로 제정된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다. 우리나라의 봉수제도는 전국에 걸쳐 5개소의 직봉(直烽)으로 서울로 연결되었다. 즉, 함경북도 북단에 위치한 경흥(慶興), 경상남도 동남단의 동래(東萊), 평안북도 강계(江界)와 평안북도 서북단의 의주(義州), 그리고 전라남도 동남부의 순천(順天)에서 신호를 올리

18)在縣西十四里.

면 중간에 있는 각 고을의 간봉(間烽)에서 응하여 남산의 봉수대를 통해 조정에 전달된 것이다.

노산봉수대(爐山烽燧臺) : 무주지역의 봉수에 대한 기록을 문헌에서는 찾기 어려운데, 1960년 발행된 ≪전라북도지(全羅北道誌)≫에서 찾을 수 있다. 순천을 기점으로 하는 제5거(炬)의 중간 육로에 포함된 것이다.

… 순창 추산(追山) -> 남원 백공산(百工山) -> 임실 용요산(龍繞山) -> 장수 영취산(靈鷲山) -> 진안 부귀산(富貴山) -> 무주 노산(爐山) -> 금산 진악산(進樂山) -> 진산 태봉산(胎峯山)

위의 경로를 보면, 무주군의 노산은 진안에서 보낸 신호를 받아 금산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 전라좌도에 해당되는 내륙통과의 직봉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산은 현재 무주읍의 진산(鎭山)인 향로산(香爐山)으로 산의 정상에는 지금도 봉화터라고 하는 유구(遺構)가 전하고 있으며, ≪적성지≫는 "읍의 주산인 향노산 정상에 기우단(祈雨壇)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른 한편 ≪문헌비고(文獻備考)≫를 보면, 동래 깃점 제2거 직봉 중 무주군과 인접한 지역의 경로가 있다. 즉, 거창 거말흘산(巨末訖山)에서 지례 구산(龜山)을 거쳐 금산 고성산(高城山)으로 가는데, 황간 소이산(所伊山)과 영동 박달라산(朴達羅山) 그리고 옥천의 환산(環山)으로 진행된 것이다. 즉, 경상도를 거쳐 충청도를 통과하는 직봉이 무주군과 인접한 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므로 남쪽에서 발생하는 위급상황을 바로 감지하고 대처하였다고 보인다.

이 외에 무주군에는 적상면 삼가리와 안성면 진도리의 경계를 이루는 봉화산(奉花山, 봉화봉)이 있고, 무풍면 철목리와 설천면 두길리의 경계를 이루는 일명 '봉우뚝'으로 부르는 봉화봉(烽火峯)이 있다. 이 산들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봉화대가 있었던 곳으로 전한다.

남교(南橋) :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무주부읍지≫의 교량조(橋梁條)에서는 "남교재부전(南橋在府前)"이라 하여 남교가 관아의 앞에 위치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

다. 관아의 앞이라 함은 현재의 무주군청 정면의 남대천(적천)을 가리킨다.[19)]

그런데 ≪적성지≫에는 남교는 보이지 않고 "운교재부동상류(雲橋在府東上流), 남대천교 재부남하류(南大川橋在府南下流)"이라 하여 운교는 관아의 동쪽 상류에 있고, 남대천교는 관아의 남쪽 하류에 가설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교가 없어지고 운교와 남대천교가 가설된 것인지, 아니면 남교의 이름이 운교 또는 남대천교로 바뀌고 추가로 교량 하나를 더 가설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처음에는 교량이 하나였는데 뒤에 하나가 추가되어 두 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남교라는 명칭을 언제부터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지 또는 없어졌는지 확인할 길 없다.

대천교(大川橋) : 대천교에 대해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대천교는 적천 위에 있다'라 하였고, ≪적성지≫에는 '남대천교는 부의 남쪽 하류에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무주읍의 아래 지역에 해당하는 무주대교가 있는 곳에 대천교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천교는 조선 후기에 가설되었는데, 적천(赤川)의 폭이 넓어 대천교라 이름하였다. 그런데 후에 적천이 남대천(南大川)으로 바뀌게 되면서 남대천교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대천교는 나무다리였는데, 1934년(소화 9) 기존의 다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콘크리트 교량을 가설한 후 무주대교(茂朱大橋)라 이르게 되면서 잊혀지게 되었다.

≪적성지≫에서는 이외 교량으로 하장교(下長橋),[20)] 이문교(里門橋),[21)] 설천교(雪天橋),[22)] 광고교(廣古橋),[23)] 장평교(長坪橋),[24)] 불방교(佛坊橋),[25)] 철목교(哲目橋)[26)] 등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

19)남교에 대해서는 조선 초기 학자 성임(成任)의 시(詩)와 유순(柳洵)의 글에서 찾을 수 있다.
20)在府東十里.
21)在府東二十里.
22)在府東四十里.
23)在府東二十里.
24)在府東五十里.
25)在府東五十五里.
26)在府東六十里.

3. 사원(寺院) 및 사지(寺址)

1) 사원(寺院)

(1) 관음사(觀音寺)

설천면 소천리 1224번지 백운산 기슭에 있다. 1938년 포교당으로 시작하여 지역민에게 불법을 전해 왔는데, 1940년 석쌍동(石雙童) 스님이 부임해 오면서 사찰(寺刹)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사찰은 관세음보살을 본존불(本尊佛)로 모시고 좌우에 신중단(神衆壇)과 칠성단(七星壇)을 둔 법보전(法寶殿) 옆에 선방(禪房)인 목우실(牧牛室)과 요사가 배치되어 있다.

(2) 백련사(白蓮寺)

설천면 삼공리 936-1번지, 덕유산 구천동에 위치하고 있다. 사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지정문화재편에서 기술하였으므로 생략한다.

(3) 북고사(北固寺)

무주읍 향로산(香爐山)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구전(口傳)에 따르면, 고려 말 공민왕 때 창건되었다고 하며, 조선 초기 태조에게서 적상산(赤裳山)에 축성건사(築城建寺)하라는 명을 받고 무주에 온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지역의 지세(地勢)를 살펴보고 나서 '남쪽은 적상산이 있어 견고하나 북쪽의 산세는 너무 허하다' 하며, 이 곳에 탑(塔)을 세우고 절을 짓게 하면서 북고사라 이름했다고 한다.

문헌에 드러난 북고사는 '향로산에 있고 부에서 북쪽으로 5리에 있으며, 옛적 이름은 경월사이고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된 고찰이다'[27]고 한다.



북고사

27)北固寺 在香爐山 府北五里 舊名慶月寺 距今約七百年前古刹.≪赤城誌≫(天) 寺刹條.1898.

현재의 북고사는 극락전을 중심으로 뒤편에 산왕당(山王堂)과 칠성당(七星堂)이 배치되어 있고, 극락전 서편에는 석탑(石塔)과 요사(寮舍)가 있다.

북고사의 법당인 극락전은 일제 강점기 때 일본식 양식으로 개축되어 인법당(因法堂)으로 사용되었는데, 1978년 관주(觀住. 속명 鄭順德) 주지 스님이 이를 해체하고 본래의 모습을 찾아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이익공(二翼工) 형식으로 복원하였고, 1993년 행정당국의 지원을 받아 새로 중축(重築)하였다.

극락전에는 아미타좌불(阿彌陀座佛)을 주불(主佛)로 모시고, 법당의 좌우 벽에는 독성단(獨聖壇)과 신중단(神衆壇)을 두었다.

(4) 안국사(安國寺) : 하권 제5편 제2장 불교 편에서 자세히 언급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5) 원통사(圓通寺) : 하권 제5편 제2장 불교 편에서 자세히 언급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6) 인월암(印月庵)

설천면 삼공리 산 105번지, 덕유산 구천동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덕유산 구천동 계곡 중에서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인월담(印月潭)에서 찰봉약수(七峰藥水)터 중간지점에 있다.

신라 때 인월화상이 절을 짓고 수도하던 터라고 전하는데, 법당은 인법당(印法堂)으로 약사여래보살(藥師如來菩薩)을 본존불(本尊佛)로 모시고 있다.



인월암 옛 사진

(7) 향산사(香山寺) : 하권 제5편 제2장 불교 편에서 자세히 언급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2) 문헌에 나타난 사지(寺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
◇ 고경사(高境寺) : 적상산 서동(西洞)에 있다.
◇ 불화사(佛華寺) : 덕유산에 있었다.[28)]
◇ 산성사(山城寺) : 적상산성 성내(城內)에 있었다.
◇ 불두사(佛頭寺) : 백운산(白雲山)에 있다.
◇ 호국사(護國寺) : 적상산성 성내(城內)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비고(新增東國輿地勝覽備考)≫
◇ 산성사(山城寺) : 적상산성 성내(城內)에 있었다.

≪적상산성조진성책(赤裳山城條陳成冊)≫(1632년)
◇ 보경사(寶鏡寺) : 적상산에 있었다.
◇ 삼일암(三日庵) : 적상산에 있었다.

≪적성지(赤城誌)≫(1898년)
◇ 상원사(上元寺) : 적상산성 성내(城內)에 있었다.
안국사(적상산), 호국사, 상원사, 북고사, 구천동사, 원통사, 백운암, 청량사(淸凉寺. 덕유산 북록). 운대암(雲臺庵. 덕유산 원통사 뒷편)

≪무주부읍지(茂朱府邑誌)≫
◇ 중원사(中元寺) : 적상산성 성내(城內)에 있었다.

≪여지도서(輿地圖書)≫(1760)
◇ 호국사(護國寺) : 적상산성 성내(城內)에 있었다.
북고사, 구천사, 원통사, 청량사, 상원사, 중원사, 호국사

28)錦山郡編.

≪갈천집(葛川集≫<덕유산향적봉기(德裕山香積峰記)>(임훈. 1552년)
삼수암(三水庵. 덕유산), 장유암(杖由庵. 덕유산), 탁곡암(卓谷庵. 덕유산), 하향적암(下香積庵. 덕유산), 향적암(香積庵. 덕유산), 천암, 계조굴

<유광려산행기(遊匡廬山行記)>(尹拯. 1672년)
소암·남암(南庵. 덕유산)·백운암(白雲庵. 덕유산)·북암(北庵. 덕유산)·원적사(圓寂寺. 덕유산)·향적암·백련암·계수굴

4. 성지(城址)

1) 노고성(老姑城)

충북 영동군과 충남 금산군의 경계를 이루는 삼도(三道)의 분기점인 무주읍 내도리 산의(山義)마을 서북쪽 산 정상에 위치한다. 그런데, 성터에 남아 있는 유구(遺構)를 보면, 둘레가 협소하고 규모가 작아 산성(山城)으로 보기에는 너무 빈약하다.
전설(傳說)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 마을 젊은이들이 의병으로 출전하게 되자, 마을의 노모(老母)들이 싸움터에 나간 아들들의 무운(武運)을 빌기 위해 치마폭에 돌을 날라다가 단(檀)을 쌓고 기원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너비 20m와 높이 5m로 쌓은 것이 마치 성(城)과 같다고 하여 노고성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노고성이란 명칭과 이에 관한 전설로 보아 마을주민이 노고할머니에게 제사를 지내던 노고단(老姑檀)으로 추정된다.
한국전쟁 때에는 격전의 현장이 되기도 하였다. 유엔군과 국군의 반격으로 후퇴하던 인민군 패잔병과 빨치산부대원 약 120여명이 이 곳에 은신하였는데, 이를 토벌하기 위한 경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다.

2) 무풍 고성지(古城址)

신라 무산현(茂山縣)의 읍성(邑城)으로 현재 무풍면 현내리 거문들 마을 일대이다. 무산성은 신라의 서쪽 변방으로 백제의 적천현(현 무주읍 지역)과 인접하며 국경을

이루는 요충지였다. 삼국통일 이후에는 무풍현(茂豊縣)으로 개칭되었다.

고려 때 무풍현은 강남도(江南道)에 편제되어 주계현과 같은 행정구역에 속하게 되는데, 이는 그 동안 신라의 영남권에서 백제의 호남권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고려 명종 때에는 무풍현의 감무(監務)가 주계현감을 겸하기도 하였다.


무풍고성지

그런데 조선 태종 14년(1414) 무풍과 주계를 병합하여 '무주'현을 두고 치소(治所)를 주계지역에 둠에 따라 성의 존재 가치가 약해지면서 점차 퇴락될 뿐 아니라 덩달아 민가(民家)가 들어서면서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축성(築城)에 사용된 돌은 대부분 민가의 담장으로 사용되거나 흩어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지금은 성곽의 위치마저 알 수 없게 되었다.

무풍고성(茂豊古城)은 백제 의자왕 때, 그 당시 신라 땅이었던 무산과 감물(甘勿)[29], 동잠(桐岑)[30]을 포위하고 공격하자 신라에서 김유신을 보내 전투를 치르게 했던 곳이기도 하다.[31] 또한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32]과 ≪문헌비고(文獻備考)≫[33] 등의 옛 문헌에도 무풍고성에 대한 기록이 있다.

3) 주계(朱溪) 고성지(古城址)

주계 고성지는 백제 적천현(赤川縣)의 읍성(邑城)으로 지금의 무주읍 읍내리와 대차리의 경계지역인 속칭 성안(城內)이라 부르는 곳에 위치하였다. 즉 현재 무주읍의 진산인 향로산(香爐山)에서 서남으로 흘러내린 능선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동헌(東軒)터로 보이는 축대와 둘레 약 1㎞정도 되는 성곽이 보존되어 있다. 성의 동문지(東門址)로 보이는 동쪽과 북쪽은 토성혼성(土城混城)으로 축조되었고, 그 이외는 모두

29)현재의 함안(咸安)지역.
30)현재의 김천(金泉)지역.
31)삼국사기(三國史記), 신라 진덕왕(眞德王)
32)茂豊古城 在今治東六十里有古城 石築周五百三十一尺 高五尺 有倉庫.
33)茂豊古城 在東六十里 石築周五百三十一尺 高五尺 今廢.

석성(石城)으로 축조되었다. 성의 남쪽과 북쪽은 급경사를 이루며, 남쪽은 약 50m의 단애(斷崖)로 그 밑에는 무주읍내를 관류하는 남대천이 강선대(降仙台)를 향해 흐른다.



주계고성지

비록 폐성(廢城)되었으나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인위적인 훼손 없이 잘 보존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 무주에서 금산으로 가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면서 동·서를 뚫고 관통하면서 동문과 서문이 헐리어 흔적을 잃게 되었다. 그 후 고성지는 청주한씨(淸州韓氏)의 종중(宗中) 소유가 되었다. 이 지역 주변에서는 밭을 갈다가 토기나 칼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으나 보존된 것은 없고, 동헌 터라 전해오는 곳에는 축대와 샘터로 여겨지는 것이 있었으며, 주위에는 깨진 기왓장이 즐비했다고 한다.

주계 고성지에 대한 문헌기록은 ≪적성지(赤城誌)≫(地)에 실려 있다.[34] 이에 따르면, 주계성은 백제 때 축성되었고, 무풍의 무산성과 더불어 대치(국경)상태를 이루었으며, 조선 태종 14년에 무산성을 병합하여 치소가 되었다. 그 뒤 중종 때 이르러 현재의 읍내로 치소가 이전됨에 따라 성은 폐허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주계성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였다. 백제 때에는 적천(赤川), 통일신라 때에는 단천(丹川)이었는데, 신라 말기에는 후백제와 신라의 격전장이 되기도 하였다. 고려 때 주계(朱溪)로 개칭되었고, 조선 태종 14년(1414)에 이르러 주계와 무풍이 통합되면서 무풍의 '무'와 주계의 '주'를 따서 '무주'가 되었다.

---

34)百濟時築造 而與茂豊之茂山城同時對立 而竝峙 至李朝三代太宗王十四年 倂合茂山城 仍爲治所 至中宗移于現邑基 故城爲廢墟.

5. 고적(古蹟)

1) 나제통문(羅濟通門)


라제통문

나제통문은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가 국경을 이루던 곳으로 추정되는 설천면의 소천리(所川里)와 두길리(斗吉里)가 경계를 이루는 석연산(石泯山)에 위치한 암굴(岩窟)이다.

본래 석견산은 설천과 무풍을 오가던 사람들이 넘어 다니던 고갯길이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무주에서 김천이나 거창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굴을 뚫고 다리를 놓았다. 처음에는 '설천굴(雪天窟)'이라 불렀는데, 구천동 일대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옛적에 백제와 신라의 국경지대를 이루었다는 역사적 유래에 비추어 '나제통문' 또는 '라제통문'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지역 일대가 백제와 신라의 국경지대였다는 추정은 다음과 같다. 백제의 적천과 신라의 무산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문헌을 통해 확인되는데 비해, 구체적으로 어디를 경계로 하여 백제와 신라의 국경선이 존재했느냐는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고증(考證)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석견산을 사이에 두고 동쪽과 서쪽의 풍습과 언어의 차이, 즉 동쪽의 옛 신라지역은 경상도권(慶尙道圈) 언어를 사용하고 서쪽의 백제지역은 충청 또는 전라도권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놓고 볼 때, 이 곳이 백제와 신라의 국경지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35)]

2) 대곡소(大谷所)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향(鄕)·소(所)·부곡(部曲)이라는 명칭의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 그 중 소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금·은·동·철·실(絲)·종이(紙)·

35)최낙철, ≪무주군사≫, 무주군, 1967. 35쪽 참조. "往昔新羅百濟國境 山而日治時鑿山通道 至今車輪馬蹄連絡不絶"≪적성지(赤城誌)≫

도기(陶器)·먹(墨) 등을 만들기 위해 두었던 특수기관으로 군(郡)·현(縣)의 아래에 속하였다.

대곡소는 본래 지금의 금산군인 진례현(進禮縣)이나 금계군(錦溪郡)에 속했던 행정구역이었다. 그 당시 대곡소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나, 이 지역에는 옛적부터 종이를 생산하는 지소담·지소골 등의 지명이 전해지고 있으며, 주변의 마을 중에는 대소(大所)·도소(島所)·율소(栗所)·목소(木所) 등 소를 붙인 이름이 많다.

대곡을 순 우리말로 하면 한실, 즉 큰 골짜기 또는 큰 마을이라는 뜻이다. 이를 한문으로 표기하면 대곡이 된다. 지금도 부남면 장안리에는 대곡이라 부르는 마을이 있고, 마을 중에는 상대곡이라는 뜻을 가진 상대(上大), 아랫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하대곡(下大谷)으로 불리다가 하대(下大)로 표기하게 된 하대가 있다.

대곡소가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폐지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금산군편(錦山郡編) 고적조(古蹟條)[36]에 기록되어 있고, ≪금산읍지(錦山邑誌)≫의 고지도(古地圖)에 금산군 12방(坊) 중 대곡에 부남방(富南坊)이라 표기하고 있어 대곡소가 후에 부남이라는 지명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남면의 소재지를 대곡이라 하고 이외 평당(平堂)·대티(大峙)·대소(大所)·도소(島所) 등으로 나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옛적에 대곡소가 설치되었던 부남면은 일제 강점기 때인 1914년 금산군에서 무주군에 편입되면서 면소재지를 대소로 옮겨 오늘에 이르고 있다.

3) 안성소(安城所)

현재의 안성면 사전리와 진도리 일부를 제외한 전역은 국가의 특수행정구역인 소가 설치되었던 곳이다.

안성에서 어떤 물건을 생산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문헌을 보면 이 지역의 깊은 산중에는 봉밀(蜂蜜)·철(鐵)·석점(石蟾)·해송자(海松子)·송점(松蟾)·복령(茯苓) 등이 생산되었다. 수림이 울창한 덕유산 아래에 취락을 이룬 이 곳은 옛적부터 약초(藥草)나 버섯류가 많은 지역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현재도 송이버섯과 복령·

36)大谷所 在南六十里.

잣·석이버섯 등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안성소는 이러한 토산품을 채취하여 진상(進上)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안성은 조선 중기까지 금산군에 속하였는데, 현종(顯宗) 15년(1674) 무주가 도호부로 승격될 때 지금의 구천동지역인 횡천면(橫川面)과 함께 무주군에 편입되었다.

4) 횡천소(橫川所)

횡천소는 조선 중기까지 금산군에 속했는데, 1674년 무주현이 도호부로 승격될 때, 안성과 함께 무주군에 편입되었다. 그 당시 횡천면은 현재의 설천면 두길리·심곡리·삼공리 전역과 무풍면의 삼거리와 덕지리 일대에 걸친 방대한 영역이었다. 그런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덕지리와 삼거리가 무풍면으로 편입되고, 나머지 지역은 설천면으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횡천소는 한 때 오지(奧地)의 대명사였던 무주구천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무주구천동은 덕유산 깊은 골짜기에 위치하여 죄인들의 귀양지로 알려지기도 하였으나 피난보길지(避難保吉地)로 덕유산 아래 모든 골짜기는 피난지(避難地)가 아닌 곳이 없다[37]고 한다.

횡천이 언제 소가 되었고, 어떤 물건을 생산했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이 지역은 옛적부터 철(鐵)이 많이 나는 곳이었음으로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동국여지승람≫ 금산군편의 토산조(土産條)를 보면, '철출횡천(鐵出橫川)'이라 하여 횡천소가 곧 철소(鐵所)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

37)無不避難地.

제3절 전적(典籍)·고문서(古文書)

1. 전적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으면서 출판하지 못한 필사본, 간행물 중 무주군과 관련이 깊거나 무주군 출신 또는 연고가 있는 인물이 집필한 것들을 망라하였다.

1990년 발간된 ≪무주군지≫를 근간으로 하였는데, 내용이 최근에 해당되는 자료는 생략하였다. 여기 수록된 사료 이외에 귀중한 자료가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기회에 수록될 것으로 기대한다. 편의상 가나다순으로 소개한다.

◇ 경산유고(耕山遺稿)

이용우(李用雨. 1875~1963)의 시문집(詩文集)으로 석판본(石板本) 10권(卷) 4책(冊)이다. 이용우의 자(字)는 몽필(夢弼), 호는 경산, 본은 경주이다.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안성에서 살았다.

유고는 송재성(宋在晟)의 서(序)와 신종빈(愼宗濱)의 발(跋)을 붙여 1971년 간행되었다. 내용은 시(詩), 소(疏), 서(書), 잡저(雜著), 서(序)·기(記)·발(跋)·잠(箴)·명(銘), 상량문(上梁文)·제문(祭文)·축문(祝文)·경장(慶狀), 행장(行狀)·묘표(墓表)·전(傳), 부록(附錄)으로 되어 있다.

◇ 관수대시고(觀水臺詩稿)

석포(石圃) 이현교(李賢敎)와 석정(石汀) 이근교(李根敎) 형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쓴 시(詩)를 모은 시문집으로 석판본 1책이다.

관수대는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금척마을에 있는 명소(名所)로 참봉(參奉) 이현교와 동몽교관(童蒙敎官) 이근교 형제가 소요(逍遙)하던 곳이다. 후손들이 이 곳에서 가르침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자(刻字)하였다.

시집은 이들 형제와 그들의 교우(交友), 후손들의 시문을 모아 1986년 하천수(河千秀)의 서와 이시억(李時億)의 발을 붙여 간행하였다.

내용은 관수대원운(觀水臺原韻), 차운(次韻), 화운(和韻), 화갑운(華甲韻)으로 되어 있다.

◇ 경주이씨향사공파금석록(慶州李氏香沙公派金石錄)

필사본(筆寫本) 12권 1책으로 무주군 안성면에 거주하는 경주이씨 향사공파의 행장, 묘갈명(墓碣銘), 묘표, 유고서발(遺稿序跋) 등을 기록한 책이다.

◇ 대동기문전(大東奇聞傳)(상·하)

석판본 상·하 2권 1책으로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에 거주하는 박재우(朴在雨)가 대동기문을 한글로 번역하여 김영한(金漢)의 구서(舊序)를 붙여 1986년 간행하였다. 내용은 조선시대 태조부터 고종까지의 기문(奇聞)을 모은 기록이다.

◇ 무주한풍루지(茂朱寒風樓誌)

연활자본(鉛活字本) 1책이다. 한풍루는 일제 강점기 때 한동안 훼철되는 수난을 겪었는데, 복원하면서 하천수와 김남관(金南寬)이 서를 붙여 1973년 무주향교(茂朱鄕校)에서 간행하였다.

내용은 기존의 시(詩)와 중수상량문(重修上梁文), 복원 후의 상량문, 중건기(重建記), 낙성시(落成詩) 등으로 되어 있다.

◇ 백야유사(柏冶遺事)

백야 장필무(張弼武. 1510~1574)의 유사(遺事)를 순조(純祖) 때 간행한 인쇄본(印刷本)으로 1권 1책이다.

장필무는 중종 38년(1543) 무과(武科)에 급제한 후 종사관(從事官)으로 북경을 다녀왔고, 은성판관(隱城判官), 함경도병마절도사(咸境道兵馬節度使), 경상좌도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를 역임했으며, 후에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추증(追贈)되었다.

장필무는 무주읍 당산리에 살았고, 그의 장자(長子) 장의현(張義賢)[38]는 뒤에 적상면 괴목리로 이주했으며, 차자(次子) 장지현(張知賢)은 임진왜란 때 추풍령전투에서 장열하게 순사(殉死)하였다. 3부자(父子) 모두 안성면에 있는 죽계서원(竹溪書院)에 배향(配享)되었다.

내용은 백야의 행장과 실적(實蹟), 그리고 장자 장의현의 실적이 추록(追錄)되었다.

38)무과에 급제하여 해남현감(海南縣監), 부녕부사(富寧府使), 장흥부사 조방장(長興府使 助防將), 경기도수군절도사(京畿道水軍節度使) 등을 지냈다.

◇ 사서문답(四書問答)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 1607～1684)가 지은 것을 1906년 간행한 인쇄본으로 4권 4책이다.

본래 출생지가 충남 금산군 금성면인 이유태는 후에 무주군으로 이거(移居)하여 안성면 장기리 중산마을 삼미촌(三味村)에 거주하였다. 책의 내용은 논어, 맹자, 중용, 대학에 관한 문답이다.

◇ 삼암선생유고(三巖先生遺稿)

자(字) 덕후(德厚), 호(號) 각재(殼齋)·삼암(三巖), 본관이 밀양(密陽)인 박이겸(朴以謙. 1553～1613)의 시문집으로 목활자본(木活字本) 2권 2책이다.

박이겸은 주부(主簿) 도원(桃源) 박인정(朴仁挺)의 후손으로 옥천(沃川)에서 태어나 한강(寒岡) 정술(鄭述)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만년(晩年)에는 장수(長水)와 남원 등지에서 살았는데 무주에 후손들이 살고 있다.

유고는 후손 박래만(朴來萬)의 서를 붙여 1921년 간행되었는데, 내용은 시(詩), 추서(追敍), 행적(行蹟), 서(序), 발문(跋文), 부록 등이다.

◇ 설계수록(雪溪隨錄)

자 근보(近甫), 호 설계(雪溪), 본관이 밀양인 박치원(朴致遠. 1732～1783)의 유고(遺稿)를 고종 23년(1886) 간행한 필사본(筆寫本) 27권 11책이다.

박치원은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에서 박세건(朴世健)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독학(獨學)하였고 오랫동안 토실(土室)에 기거(起居)하면서 유가(儒家)의 경전(經典)과 성리서(性理書)를 모두 섭렵하였을 뿐 아니라 도가(道家)나 불가(佛家) 또한 의술(醫術)에 이르기까지 두루 탐독한 은사(隱士)로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가 서(序)를 쓴 책은 주례(周禮) 춘추(春秋), 의례, 예기, 주역, 가례, 율여신서(律呂新書),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 홍범(洪範), 황극내편(皇極內篇), 황제소간(皇帝素間), 팔진도해설(八陣圖解說), 시(詩), 찬(贊), 축문, 제문, 서(書), 잡식(雜識) 등을 수록하고 있다.

◇ 연서수연시집(淵西壽筵詩集)

연서(淵西) 김영구(金永龜. 1870～1931)의 수연시집으로 석판본 1책이다. 자(字)가 낙선(洛善), 호가 연서이고 본관이 광산(光山)인 김영구는 충목공(忠穆公) 김여석(金礪石)의 후손으로 유은재(裕隱齋) 김계현(金啓鉉)의 아들이다.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 살았는데, 연재 송병선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지역에 유풍(儒風)을 전했으며, 송병선의 추기문(追記文)을 받아 선조(先祖) 충목공의 신도비(神道碑)를 세웠다.

1989년 손자 김용경(金容慶)의 서(序)를 붙여 간행한 책의 내용은 본인의 수조유감자서(寞朝有感自序)와 생조술회(生朝述懷)를 머리에 붙이고, 자손, 친지, 교우 등에 의한 수연시(壽宴詩)를 모아 편간하였다.

◇ 우당유고(愚堂遺稿)

강지형(姜芝馨. 1844～1909)의 시문집으로 목활자본 5권 2책이다. 강지형의 자는 덕찬(德燦), 호는 우당이며, 본관은 진주(晋州)이다. 통계(通溪) 강준중(姜准仲)의 후손으로 단성(丹城)에서 출생하였으나 무주군 안성면에서 살았다.

연재 송병선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학행(學行)이 높았는데, 유고는 송철만(宋哲萬)의 서(書)와 최동식(崔東植)의 발(跋)을 붙여 1935년 간행되었다.

내용은 시(詩)·사서(詞書), 잡저(雜著), 서(序)·기(記)·발(跋)·잠(箴)·송(頌)·제문(祭文)·행장(行狀)·전(傳), 부록(附錄) 등으로 되어 있다.

◇ 유산집(柳山集)

유도(柳燾. 1807～1894)의 문집(文集)으로 유산전집(柳山前集)39), 유산후집(柳山後集), 유산만고(柳山晩稿)40) 등이며, 필사본이다.

유도는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에 살던 유최영(柳最榮)의 아들로 호는 유산이며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조선 헌종(憲宗) 때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여 돈녕부동지사(敦寧府同知事)를 지냈고, 학문이 높아 많은 학자들과 교유(交遊)하였다. 향리(鄕里)인 삼유리에 주연정사(朱淵精舍)를 세우고 많은 문하생을 배출하였다.

---

39)6권 목록 7책.

40)21권 목록 22책의 시문집(詩文集).

◇ 육영재실기(育英齋實記)

필사본 1책으로 일제 강점기 때,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에서 후진 양성을 위해 설립한 육영재(書堂)와 이를 운영하기 위해 조직한 영창계(永昌契)에 관한 실기이다.

1983년 신기훈(申基勳)의 서(序)와 신화진(申華鎭)의 발(跋)을 붙여 발간하였다. 내용은 간축사적(建築事蹟), 재산(財産), 축문(祝文), 기(記), 운(韻) 등과 부록(附錄)이 실려 있다.

◇ 의병대장문태서전(義兵大將文泰瑞傳)

저자(著者) 김철수(金喆洙. 1900~1975)가 1962년 서(序)와 편집후기(編輯後記)를 붙여 간행한 석판본 1책으로, 구한말 때 덕유산에서 구국항일전쟁(救國抗日戰爭)을 전개한 문태서의 행적기(行蹟記)이다.

김철수는 호가 조봉(照峯)으로 본관은 광산이며 충목공 김여석의 후예이고, 무주군 안성면 사전리에서 생장(生長)하였다.

◇ 적성지[赤城誌(人)]

석판본 1책으로 저자 김철수가 1957년 인사말을 붙여 간행한 것으로 조선말기 이후 1956년 사이의 무주군정(茂朱郡政)과 각급 기관, 제도 등을 편집하였다.



적성지(天·地)

◇ 적성지[赤城誌(地)]

석판본 2권 1책으로 무주읍지(茂朱邑誌)인 적성지(天)의 속편(續篇)이다. 1957년 김진원(金鎭元), 김현모(金現模), 조덕상(趙德相), 이종화(李鍾華), 하헌석(河憲奭)의 서(序)와 김철수의 속간취지서(續刊趣旨書), 하천수의 발(跋)을 붙여 무주향교 명륜당(明倫堂) 간행본으로 출판하였다.

◇ 적성지[赤城誌(天)]

석인본 5권 1책으로 무주읍지이다. 고종 34년(1897)에 쓴 연재 송병선의 적성지구서(赤城誌舊序)와 고종 35년(1898) 무주군수 민술호(閔述鎬)와 도정(都正) 하재만(河在

晩)이 쓴 서(序)를 붙이고, 같은 해 도정 박상호(朴祥浩)가 쓴 발(跋)을 붙여 명륜당 신간(新刊)으로 편찬하였다.

내용을 보면 1권은 연혁, 군명(郡名), 강계(疆界), 방리(坊里), 결총(結總), 진공(進貢), 전대동(田大同), 선무(選武), 봉름(俸廩), 장시(場市), 교량(橋梁), 제언(堤堰), 형승(形勝), 풍속, 산천, 토산, 성씨, 단묘(壇廟), 공청(公廳), 창고, 역원(驛院), 사찰, 아사(衙舍), 누정(樓亭) 등이다. 2권은 원우(院宇)와 시술재(時術齋)이고, 3권은 관안(官案), 문과(文科), 음사(蔭仕), 무과(武科), 생진(生進) 등이다. 4권은 인물, 우거(寓居), 학행(學行), 충신, 효자, 열녀, 열부, 유일(遺逸) 등이다. 5권은 책판(冊版), 정대(亭臺), 암지(巖池)가 수록되어 있다.

◇ 정관재집(靜觀齋集)

관일당(貫一堂, 또는 靜觀齋) 박문건(朴文健. 1770～1809)의 시문집으로 연활자본(鉛活字本) 4권 1책이다. 박문건의 자(字)는 이환(而煥), 본관이 밀양으로 기우재(寄寓齋) 박세항(朴世項)의 후손 박중엽(朴重燁)의 아들이다. 진주에서 출생하여 말년에 무주로 이거하였고, 학행으로 이름이 높았다.

문집은 이돈우(李敦宇)의 서(序)와 박성양(朴性陽), 증손(曾孫) 박병현(朴秉鉉), 성구용(成九鏞)의 발(跋)을 붙여 1967년 간행되었다.

내용은 시(詩)·잠(箴)·명(銘)·제문(祭文), 잡저(雜著)·주역연의(周易衍義) 상·하경(上下經), 부록(附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박문건의 장자(長子) 첨추공(僉樞公) 박재희(朴載熙)에 대한 행장(行狀)과 수지(壽志)·제문(祭文), 증손(曾孫) 박한상(朴漢庠)의 서유적후(書遺蹟後)가 수록되어 있다.

◇ 초려집(草廬集)

초려 이유태(李惟泰. 1607~1684)의 시문집으로 인쇄본 26권 14책이다. 자(字)는 태지(泰之), 시호(諡號)는 문경(文敬), 본관은 경주로 본래 금산(錦山)에서 출생하였으나 무주로 이거하여 안성면에서 살았고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이유태는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문하로 문장에 능통하였고, 관계에 나가 세자사부(世子師傅), 공조참의(工曹參議), 이조참의(吏曹參議), 대사헌(大司憲) 등에 올랐다.

고종 2년(1865) 간행된 이 책은 소(疏), 서계(書啓)·헌의(獻議)·등대(登對, 예변(禮辨), 의례문해(疑醴問解), 시(詩), 서(書), 제문(祭文), 묘지(墓誌)·묘상(墓喪), 잡저(雜著)·축문(祝文)·납폐문(納幣文)·경의문답(經義問答)·역설(易說·서(書)·예설문목(禮說文目)·초출년보(抄出年譜)·제공유고(諸公遺稿) 등이고, 마지막으로 행장(行狀)이 수록되어 있다.

◇ 화은유고(華隱遺稿)

화은 유인성(柳寅誠. 1867~1938)의 시문집으로 석인본 2권 1책이다. 유인성의 자는 길중(吉中),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그는 둔재(遁齋) 유연(柳漣)의 후손으로 무주읍 당산리에서 생장하였고, 연재 송병선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학행으로 이름이 높았다.

유고는 하천수의 서(序)와 저자(著者)의 아들 유근춘(柳根春)의 발(跋)을 붙여 1968년 간행되었다. 내용은 시(詩)·서(書)·기(記)·잡저(雜著), 그리고 부록으로 수운(壽韻) 등이 수록되어 있다.

2. 고문서(古文書)

그간 무주군에서 발굴된 고문서는 각 문중의 선대와 관련된 교지(敎旨), 첩(帖), 소지(所志), 입안(立案), 완문(完文) 등이며, 오늘날 호적(戶籍)이라 할 수 있는 호구단자(戶口單子)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1988년 전주대학교 박물관·전라북도·무주군에서 공동으로 조사한 <전북지방문화재조사보고서 제1집> ≪무주지방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그간 보고된 고문서에 대해서는 도표로 소개하고, 그 이후 발굴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유길 가전 고문서 중 황교지(黃敎旨)

교지(敎旨)

제수 받은 자	내 용	년 대	소장자
金庚戌	通政大夫	雍正 6년(1728	金承培
金命八	嘉善大夫行龍蚊衛護軍	道光 4년(1824)	
金爾恒	武科 兵科 及第(副司果)	康熙 19년(1680)	
金廷爀	武科 兵科 及第(閑良)	康熙 61년(1722)	
金懿圭	武科 兵科 及第(副司果)	道光 9년(1829)	김수태
金永植	隆正三品 通政大夫	光武 6년(1902)	
金顯泰	九品 從仕郎(忠義)	光武 9년(1905)	
孫永淡	武科 兵科 及第(火砲)	同治(1852～1874)	
孫永淡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孫晩琦의 父)	光緖 11년(1885)	
淑人朴氏	贈貞大夫	光緖 11년(1885)	
孫晩琦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	光緖 11년(1885)	
孫晩琦	嘉善大夫行龍蚊衛護軍兼五衛將	光緖 11년(1885)	
淑夫人張氏	封貞夫人(孫晩琦妻)	光緖 11년(1885)	손영섭
孫泰宇	贈通政大夫司僕寺正(孫晩琦의 曾祖)	光緖 11년(1885)	
孺人申氏	贈淑夫人(孫泰宇 妻)	光緖 11년(1885)	
孫判義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손만기 조부)	光緖 11년(1885)	
孺人金氏	贈淑夫人(孫判義妻)	光緖 11년(1885)	
孫萬吉	武科 兵科 及第(閑良)	光緖 19년(1893)	
孫應俊	折衝將軍行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	光緖 20년(1894)	
權 杓	武科 兵科 及第(閑良)	光緖 11년(1885)	
權 杓	宣略將軍行龍蚊衛副司果	光緖 15년(1889)	權鎬俊
權 杓	晋州鎭營草溪兵馬節制使	光緖 18년(1892)	
權 杓	通政大夫行草溪郡守	光緖 18년(1892)	
羅斗元	通政大夫	乾隆 28년(1763)	
羅斗元	折衝將軍行龍蚊衛副護軍	乾隆 38년(1773)	
羅斗元	嘉善大夫行龍蚊衛護軍	乾隆 39년(1774)	
羅致慶	折衝將軍行龍蚊衛副護軍	咸豊 10년(1860)	
羅致慶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景福宮衛將	咸豊 11년(1861)	
孺人姜氏	贈貞夫人(羅致慶 妻)	咸豊 11년(1861)	
羅德樞	贈通訓大夫軍資監正(羅致慶 曾祖)	咸豊 11년(1861)	羅賢採
孺人金氏	贈宣人(羅德樞 妻)	咸豊 11년(1861)	
羅明郁	贈通政大夫工曹參議(羅致慶 祖父)	咸豊 11년(1861)	
孺人程氏	贈淑夫人(羅明郁 妻)	咸豊 11년(1861)	
羅應圭	贈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漢城府右尹五衛都摠府副總管(羅致慶 父)	咸豊 11년(1861)	
孺人金氏	贈貞夫人(羅應圭 妻)	咸豊 11년(1861)	
羅禮文	折衝將軍行龍蚊衛副護軍	光緖 12년(1886)	
柳景堤	贈童蒙敎官朝奉大夫	光緖 14년(1888)	유지훤
孺人李氏	贈令人(柳景堤 妻)	光緖 14년(1888)	
朴 森	贈童蒙敎官朝奉大夫	光緖 17년(1891)	朴棟用

宋心元	生員三等入格	道光 15년(1835)	송인종
朴定鉉	正三品 通政大夫	光武 7년(1903)	박병윤
朴紀洪	正三品 通政大夫	光武 7년(1903)	
朱弼鐸	陸 正三品 通政大夫	光武 7년(1903)	
密陽朴氏	贈淑夫人加資事奉勅	光武 7년(1903)	朱圭植
?	顯陵參奉敍判任官八等	光武 8년(1904)	
黃鼎鎬	折衝將軍行龍蚊衛副護軍	光緒 19년(1893)	
黃鼎鎬	通訓大夫司憲府監察	光緒 19년(1893)	
黃鼎鎬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	光緒 19년(1893)	
海平吉氏	封淑夫人(黃鼎鎬 妻)	光緒 19년(1893)	
黃道哲	贈通訓大夫司僕寺正(黃鼎鎬 曾祖)	光緒 19년(1893)	
淸州韓氏	贈淑夫人(黃道哲 妻)	光緒 19년(1893)	황경서
黃德顯	贈通訓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 (黃鼎鎬 祖父)	光緒 19년(1893)	
玄風郭氏	贈淑夫人(黃德顯 妻)	光緒 19년(1893)	
黃左榮	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黃鼎鎬 父)	光緒 19년(1893)	
潘南朴氏	贈貞夫人(黃在榮 妻)	光緒 19년(1893)	

傳令

제수 받은 자	내 용	년 대	소장자
金宗鉉	赤裳鎭東伍旗鼓官差定卽爲擧行(閑良)	憲宗乙巳(1845)	
金宗鉉	赤裳鎭東伍左司把摠差定卽爲擧行(閑良)	憲宗戊申(1848)	金承培
金宗鉉	中軍差定卽爲擧行(把摠)	憲宗乙酉(1849)	

帖

제수 받은 자	내 용	년 대	소장자
金庚戌	北漢軍需補用次本司啓請通政帖臺長茂朱居金庚戌處 價錢拾伍兩持上出給後考施行向事(備邊司)	英祖 乙酉(1729)	
金彭孫	江華璇源閣參奉差定(璿源錄廳)	嘉慶 14년(1809)	
金錫喆	江華璇源閣參奉差定(璿源錄廳)	嘉慶 14년(1809)	
金惡只	勤武軍官差定(茂朱府使)	嘉慶 22년(1817)	
金宗仁	赤裳鎭東伍旗牌官差定(赤裳鎭守城將)	道光 5년(1825)	金承培
金宗允	赤裳鎭東伍前哨官差定(赤裳鎭守城將)	道光 13년(1833)	
金宗允	赤裳鎭東伍左司把摠差定(赤裳鎭守城將)	道光 14년(1834)	
金宗鉉	裳谷面初里有司差定(茂朱府使)	憲宗 乙酉(1849)	
金宗鉉	裳谷面執綱差定(茂朱府使)	哲宗 壬子(1852)	
金宗鉉	裳谷面東伍中部千總差定(赤裳鎭守城將)	咸豊 4년(1854)	
羅以孫	通政帖小帖咸給(觀察使)	道光 26년(1846)	羅賢採
羅致慶	折衝小帖差定(觀察使)	咸豊 11년(1861)	

◇ 2003년도 발굴 고문서[41)]

2003년도에 추진된 무주군 사료조사는 9명의 소장자에게서 178건 235매가 조사되었는데, 호구단자(戶口單子)가 7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지(敎旨)나 차정첩(差定帖) 등이 67건이다. 그 외 상서(上書), 전령(傳令), 효열부단자(孝烈婦單子) 등이 있는데, 구한말(舊韓末) 산송(山訟)과 관련하여 진행된 내용이 있고, 임오(壬午)년(1762) 8월에 작성된 무주도호부(茂朱都護府)의 '관노비관안(官奴婢官案)' 등이 발굴·조사되었다.



무주도호부 관노비관안

김종호 소장 구한말 재판 문건은 1853년부터 시작된 산송 관련 문건의 연속으로 191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있었던 소유권확인소(所有權確認訴)와 이에 관한 답변서(答辯書), 궐석판결(闕席判決), 화해조정신청서(和解調整申請書) 등이 일련의 과정으로 엮여져 있다. 그리고 1910년 8월 측량하고 동년 10월에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민유산야약도(民有山野略圖) 5장이 조사되었다. 여기에는 정확한 주소와 함께 측량자(測量者·李用錫)가 명기되어 있어, 근대 측량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기식 소장의 관노비관안은 '壬午年 八月 日 官奴婢官案'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어느 소속 관안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용 중에 '산성(山城)'과 '본부(本府)' 등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산성이 있는 부(府)의 관안임이 틀림없는데, 원래 소장자 경주이씨(慶州李氏)가 무주군 무주읍에 세거(世居)에 온 사실에 비추어 보아 무주도호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아 틀림이 없을 듯 하다. 그리고 시기는 명부의 숫자와 내용 등을 볼 때 관노비제도가 극도로 혼란을 겪는 1762년 경으로 추정된다.

김옥배 소장 문건에는 적상산사고와 관련된 전령과 첩 등이 9건 조사되었는데, 이를 통해 적상산사고와 관련된 적상진(赤裳鎭) 운영에 현지인의 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1) 2003년도 발굴 고문서는, 국사편찬위원회 무주지역 사료조사위원인 김경석(무주문화원장), 유재두(무주향토사연구회장), 박대길(무주군지편찬위원회 전문위원) 등 3인이 전라북도 동북부 지역 사료조사를 하면서 발굴·수집·정리한 내용이다. 필자는 박대길 전문위원에게서 조사현황을 건네받았는데, 여기에 전재한다.

이동신 소장 문건에서는 동학농민전쟁 당시 임명된 수성군(守城軍)의 도통령(都統領) 이현교에 대한 사실 확인과 이후의 공적에 대한 지역민의 상서(上書)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김진표 소장 문건에서는 파괴된 효행적(孝行蹟) 관련 유적의 복구를 위한 지역민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선원각 참봉으로 차정된 김석철

○ 무주군 고문서 발굴·조사·정리 현황

구분	소장자	주 소	내 용	비 고
1	김종호	부남면 대유리 대티	산송 관련 문건, 교지, 호구단자 등	49건 69매
2	김진표	무풍면 증산리 사동	소지 및 첩보 등	6건 6매
3	김병순	부남면 장안리 하대곡	교지	12건 12매
4	김옥배	무주읍 읍내리	교지, 전령, 첩, 입안, 완문, 호구단자 등	44건 44매
5	김수태	안성면 장기리 신촌	교지, 칙령 등	6건 6매
6	박영근	부남면 대유리 대티	호구단자	19건 19매
7	이동신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교지, 상서, 호구단자 등	9건 9매
8	이호룡	안성면 장기리 홍문안	교지	30건 30매
9	주홍규	무주읍 읍내리	효열부단자, 찬양문	2건 21매
10	주기식	부남면 대유리 대티	무주부관안(노비문서)	1건 19매
		합		178건 235매

소장자 : 김종호(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대티)

분류	자료명	수량	크기	발급	수급	연호	연대	내 용
고문서	敎旨 (加資)	1매	57.9×45.6		김봉윤	광서 12	1886	81세의 김봉윤을 통정대부로 임명.
”	加資 (空名帖)	1매	43.3×43.3			광무 7	1903	陞正三品通政大夫者
”	戶口 單子	1매	33.1×38.4	금산군수		건륭 39	1774	부남면 대치리 朴老卽의 호구
”	”	”	43.7×77	”		건륭 54	1789	부남면 대치리 獨女 金姓
”	”	”	49.5×80	”		건륭 57	1792	부남면 대치리 金德采(35)
”	”	”	48.9×75.6	”		건륭 60	1795	부남면 대치리 金德采(38)
”	”	”	50×70	”		가경 3	1798	부남면 대치리 哨官 金德采(41)
”	”	”	49.3×73.5	”		가경 6	1801	부남면 대치리 哨官 金德采(44)
”	”	”	49×80.7	”		가경 9	1804	부남면 대치리 哨官 金德采(47)
”	”	”	69.3×107	”		가경 12	1807	부남면 대치리 哨官 金德采(49)

소장자 : 김종호(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대티)

분류	자료명	수량	크기	발급	수급	연호	연대	내 용
고문서	戶口單子	1매	48.6×40.3	錦山郡守	김덕채	가경 15	1810	부남면 대치리 哨官 金德彩(53)
”	”	”	48×81.2	”	김덕채	가경 18	1813	부남면 대치리 哨官 金德彩(56)
”		”	48×79	”	김덕채	가경 21	1816	부남면 대치리 哨官 金德彩(59)
”	”	”	46.3×80.5	”	김덕채	가경 24	1819	부남면 대치리 哨官 金德彩(62)
”	”	”	46×81	”	김덕채	도광 2	1822	부남면 대치리 金德彩(65)
”	”	”	49.5×81	”	김덕채	도광 5	1825	부남면 대치리 金德彩(67)
”	”	”	35.5×47.7	”	김덕채	도광 8	1828	부남면 대치리 金德彩(71)
”	”	”	52.7×85	”	김덕채	도광 11	1831	부남면 대치리 金德彩(74)
”	”	”	47.3×80	”	김수록	도광 13	1833	부남면 대치리 軍器保 金守祿(45)
”	”	”	63×47.5	”	김수록	도광 17	1387	부남면 대치리 軍器保 金守祿(48)

소장자 : 김종호(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대티)

분류	자료명	수량	크기	발급	수급	연호	연대	내 용
고문서	호구단자	1매	59×47	금산군수	김수록	도광	1840	부남면 대치리 軍器保 金守祿(52)
”	”	”	61×73	”	김수록	도광	1844	부남면 대치리 軍器保 金守祿(55)
”	”	”	59.6×79.5	”	김유록	도광	1846	부남면 대치리 驛保 金由祿(40)
”	”	”	59.6×79.5	”	김수록	도광	1846	부남면 대치리 軍器保 金守祿(58)
”	”	”	60×51	”	김수록	도광	1849	부남면 대치리 軍器保 金守祿(61)
”	”	”	62×50.2	”	김수록	함풍	1851	부남면 대치리 軍器保 金守祿(64)
”	”	”	52×88	”	김수록	함풍	1855	부남면 대치리 軍器保 金守祿(69)
”	”	”	46×67	”	김소사	함풍	1858	부남면 율소리 金召史(55)
”	”	”	52.3×70.5	”	김소사	함풍	1861	부남면 율소리 金召史(58)
”	”	”	48.7×79	”	김복윤	동치 3월	1864	부남면 율소리 選武 金福允(?)
”	”	”	46.5×74.3	”	김복윤	동치 5월		부남면 율소리 選武 金福允(?)
”	”	”	46.3×74	”	김복윤			부남면 율소리 選武 金福允(41)
”	”	”	46×70	”	김복윤	광서(?)		부남면 율소리 選武 金福允(47)

소장자 : 김종호(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대티)

분류	자료명	수량	크기	발급	수급	연호	연대	내 용
고문서	加資 (空名帖)	1매	43.3×43.3			광무 7	1903	陞正三品 通政大夫者
〃	敎旨 (加資)	1매	57.9×45.6		김봉윤	광서 12	1886	81세의 김봉윤을 통정대부로 임명.
〃	上書	1매	45×36.3			함풍 3	1853	금산군 부남면 대치리 소재 산 및 임야에 대한 소유권 확인에 관한 회덕 송정산댁노학성의 상서
〃	上書	1매	57.5×95.6			함풍 4	1854	위의 내용과 관련된 충청도 회덕 송정산댁노학성의 상서
〃	立案	1매	58×95.3			함풍 4	1854	위의 내용과 관련된 입안.
〃	單子	1매	42.5×66.8			고종 32	1895	위의 내용과 관련된 충청도 옥천거민 송길헌 단자.
〃	原請	1매	44.2×70.7			고종 32	1895	위의 내용과 관련된 부남면 상굴암에 거주하는 김성종 등의 원청.
〃	自活	1매	44×70.3			광무 6	1902	위의 내용과 관련된 충청도 문의 송도사댁 노 삼용의 자활.
〃	手記	1매	43.5×46.8			광무 6	1902	위의 내용과 관련된 김달수의 수기.
〃	明文	1매	41.5×60			광무 8	1904	위의 내용과 관련된 김도현 명문.
〃	明文	1매	40.5×35.2			융희 4	1910	위의 내용과 관련된 김용규 명문.

소장자 : 김종호(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대티)

분류	자료명	수량	크기	발급	수급	연호	연대	판종	내 용
고문서	所有權確認訴	2매 4쪽	19.5×27.3	錦山區裁判所		명치 43	1910. 1.	미룡지	원고 김용춘과 피고 송재일로 한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치리 후록의 소유권 및 山坂과 松楸伽 반환청구의 소.
”	答辯書	2매 4쪽	19×26.5	錦山區裁判所		명치 43	1910. 2. 26	미룡지	위의 내용에 관한 금산군 재판소의 답변서.
”	闕席判決	6매 11쪽	20×27.5	”		명치 43	1910. 3. 7	미룡지	위의 내용에 관한 금산군 재판소의 궐석
”	和解調整申請書	1매 2쪽	37.6×26.5	금산구 재판소		명치 43	1910. 3. 10	미룡지	의 내용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연서하여 신청한 화해 조정신청서.
”	民有山野略圖	5장	40×19	測量者 李用錫		명치 43	”	”	전라북도 무주군 부남면 대치리 김윤곤 소유의 임야에 대한 측량 후 만든 약도. 융희 4년(1910) 8월 28일 측량하고, 동년 10월 15일 발급한 듯.

소장자 : 주규식(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대티)

”	官案	1책 19매	21×25	무주 도호부		壬午	1762(?)		1762(壬午)년 무주도호부(茂朱都護府) 관노비관안(官奴婢文書)

소장자 : 김수태(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분류	자료명	수량	크기	발급	수급	연호	연대	판종	내 용
고문서	敎旨	1장	84.8×102		김이항	강희19	1680		副司果 金爾恒 武科丙科及第 出身者
〃	敎旨	1장	69×88		김정혁	강희61	1722		閑良 金廷爀武科丙科及第 出身者
〃	敎旨	1장	31×49		김의규	도광 9	1829		□□□□金懿圭爲宣略將軍行□□□副司勇者
〃	敎旨	1장	71×96.3		김의규	도광 9	1829		副司果 金懿圭 武科丙科及第 出身者
〃	勅命	1장	57.5×39		김영식	광무 6	1902		金永植陞正三品通政大夫者 大皇帝階下人 耆社時士庶年八十八人覃恩加資事奉
〃		1장	59×38.8	宮內府大臣臨時署理學部大臣李載克	김현태	광무 9	1905		九品從仕郎金顯泰任分忠義者

소장자 : 주홍규(무주군 무주읍)

고문서	孝烈婦單子	1장	57.4×56.2	慕聖公會			丁卯	1927	부남면 가정리 朱洛文妻金海金氏를 지역민이 孝烈婦로 慕聖公會에 추천하는 단자.
책자	讚揚文	1책 10매	21.7×32.6	모성공회			”	”	모성공회에서 주낙문의 처 김해김씨를 효열부로 인정하는 찬양문.

소장자 : 김옥배(무주군 무주읍 무주군청)

분류	자료명	수량	크기	발급	수급	연호	연대	판종	내 용
고문서	敎旨	1장	76.1×52		김경성	옹정 6	1728		金庚戌爲 通政大夫者
〃	〃	1장	72.5×55.6		김명팔	도광 4	1824		金命八爲嘉善大夫 行龍蚊衛護軍者
〃	傳令	1장	59×39.2		김종현				擺撥 金宗鉉爲中軍 差定卽爲擧行者
〃	〃	1장	59.5×49		김종현				閑良 金宗鉉赤裳鎭 束伍旗鼓官差定卽 爲擧行者
〃	〃	1장	59×39.2		김종현				閑良 金宗鉉赤裳鎭 束伍左司擺撥差定 卽爲擧行者
〃	帖	1장	59×51.5		김석철	가경 14	1809		璿源錄廳爲差定事 幼學金錫喆江華 璇源閣參奉差定爲 有置不輕察任者 右下 參奉 金錫喆 准此
〃	〃	〃	58.4×51.8		김팽손	가경 14	1809		璿源錄廳爲差定事 幼學金彭孫江華 璇源閣參奉差定爲 有置不輕察任者 右下 參奉 金彭孫 准此
〃	〃	〃	62.5×48		김오지	가경 22	1817		赤裳鎭守城將差定 事勤武軍官差定爲 遣合下 仰照驗施行須至帖 者 右下閑良金惡只(父 彭孫)准此
〃	〃	〃	44×46.8		김종인	도광 5	1825		赤裳鎭守城將差定 事本鎭束伍旗牌官 差定爲遣合下 仰照驗施行須至帖 者 右下閑良金宗仁准 此

소장자 : 김옥배(무주군 무주읍 무주군청)

분류	자료명	수량	크기	발급	수급	연호	연대	판종	내용
고문서	帖	1매	61.7×46.6		김종윤	도광 13	1833		赤裳鎭守城將差定事本鎭束前哨哨官差定爲遣合下 仰照驗施行須至帖者 右下閑良金宗允准此
”	帖	1매	58.6×50.5		김종윤	도광 14	1834		赤裳鎭守城將差定事本鎭束伍左司□摠差定爲遣合 下 仰照驗施行須至帖者 右下閑良金宗允准此
”	”	”	18.9×30.4		김종현	도광 29	1849		行府使爲差定事裳谷面初里有司差定爲遣合下 仰 照驗施行須至帖者 右下幼學金從玄准此
”	”	”	40.5×33		김종현	함풍 2	1852		行府使爲差定事裳谷面執綱差定爲遣合下 仰照驗 施行須至帖者 右下幼學金宗鉉准此
”	”	”	18.9×30.4		김종현	함풍 4	1854		赤裳鎭守城將差定事本鎭束伍中部千摠差定爲遣合 下 仰照驗施行須至帖者 右下閑良金宗鉉准此
”	”	”	34×35.5		김경성	己酉			北漢軍需補用次本司 啓請通政帖壹張茂朱居金 庚成處伽錢十五兩特上出給後考施行向事
”	立案	”	62×56.7	兵曹		강희 50	1711		放良文記
”	”	”	62×56.7	掌隷院		강희 50	1711		放良文記
”	完文	”	60.2×51.2	鄕仕廳		甲寅			戶長 金敬民외 9명

소장자 : 김옥배(무주군 무주읍 무주군청)

분류	자료명	수량	크기	발급	수급	연호	연대	판종	내 용
고문서	호구단자	1매	36×53	무주부	김광의	건륭 51	1786		상곡면 초리 步兵 金光儀(46)
”	”	”	32.7×51.2	”	”	건륭 54	1789		상곡면 초리 步兵 金光儀(49)
”	”	”	32.2×52.2	”	”	건륭 60	1795		상곡면 초리 步兵 金光儀(55)
”	”	”	32.4×53	”	김팽손	건륭 60	1795		상곡면 초리 禁衛軍 金彭孫(35)
”	”	”	28.7×52.7	”	김광의처	가경 6	1801		상곡면 초리 故金光儀妻韓姓(50)
”	”	”	37×53.3	”	김팽손	가경 9	1804		상곡면 초리 禁衛軍 金彭孫(40)
”	”	”	26.4×50	”	김팽손	가경 21	1816		상곡면 초리 禁衛軍 金彭孫(52)
”	”	”	34.6×51.5	”	김팽손	가경 24	1819		상곡면 초리 前史庫參奉 金彭孫(59)
”	”	”	36.1×50.7	”	김팽손	도광 14	1834		상곡면 초리 參奉 金彭孫(74)
”	”	”	21.5×56.6	”	김팽손	도광 17	1817		상곡면 초리 嘉善大夫金彭孫(77)
”	”	”	28.5×44.7	”	김종현	도광 20	1840		상곡면 초리 前把摠 金宗鉉(46)

소장자 : 김옥배(무주군 무주읍 무주군청)

분류	자료명	수량	크기	발급	수급	연호	연대	판종	내 용
고문서	호구단자	1매	35.1×44	무주부	김종현	도광23	1843		상곡면 초리 前把摠 金宗鉉(49)
”	”	”	53.1×44	”	”	도광26	1846		상곡면 초리 前把摠 金宗鉉(52)
”	”	”	22.8×48.8	”	”	도광29	1849		상곡면 초리 前把摠 金宗鉉(55)
”	”	”	30.6×49	”	김종석	도광29	1849		상곡면 초리 假鄕所 金宗碩(42)
”	”	”	34.3×51.1	”	김종현	함풍 2	1852		상곡면 초리 前把摠 金宗鉉(58)
”	”	”	35.4×52	”	”	함풍 5	1855		상곡면 초리 前把摠 金宗鉉(61)
”	”	”	38.2×45.4	”	김재환	함풍 11	1861		상곡면 중리 前哨官 金載煥(38)
”	”	”	42.5×51.6	”	백원경	”	”		상곡면 중리 幼學 白元慶(63)
”	”	”	48.8×51.6	”	김종현	동치 3	1864		상곡면 중리 前千摠 김종현(67)
”	”	”	19.7×38.5	”	백원정	동치 6	1867		상곡면 포내리 幼學 白元正(69)
”	”	”	37×35.9	”	김기준	동치 12	1873		상곡면 중리 校生 金基俊(45)
고문서		1매	35×41.5	무주부	김기준	광서 2	1876		상곡면 중리 校生 金基俊(48)
”		”	42.7×41.4	”	”	광서 5	1879		상곡면 중리 校生 金基俊(51)
”		”	49.5×41.8	”	”	광서 8	1882		상곡면 중리 校生 金基俊(54)

소장자 : 이동곤(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분류	자료명	수량	크기	발급	수급	연호	연대	판종	내 용
고문서	敎旨	1매	54.8×75		이현교	광서 13	1887. 3월		閑良李賢敎武科丙科第三百十九人及第出身者
”	”	”	68.2× 57.3		이현교	광서 13	1887. 윤4월		李賢敎爲宣略將軍行龍蚊衛副司果者
”	”	”	55×46.8	嶺南召募使兼居昌都護府使	이현교	甲午	1894		李賢敎를 茂朱一邑都統領에 임명.
”	上書	”	56×88.5		거창부사	乙未	1895		무주 茂豊儒生 등이 이현교의 공적을 치하해 달라며 거창부사에서 올리는 상서.
”	”	”	49.8×34		영남 관찰사	丁酉	1897		茂朱儒生 등이 이현교의 공적을 치하해 달라며 嶺南觀察使에게 올리는 상서.
”	戶單子	”	51.8×39	茂朱府使	이재근	함풍 5	1855		幼學 李在根(54)
”	”	”	53.2× 41.4	”	이현교	광서 10	1884		豊東面 縣內 黑石里 李賢敎(47)
”	”	”	70×41.1	”	이현교	광서 19	1893		豊東面 縣內 黑石里. 宣略將軍龍蚊衛副司果 李賢敎(56)
”	호적부	”	20.8×34	茂朱郡	이시화	광무 (丁未)	1907		전라북도 무주군 豊東面 院村里 李時華(55)

소장자 : 김병순(무주군 부남면 장안리)

분류	자료명	수량	크기	발급	수급	연호	연대	판종	내 용
고문서	敎旨	1매	75×55		김현구	광서 11	1885		金顯球爲折衝將軍行龍蚊衛副護軍者
”	”	”	”		김현구	”	”		金顯球爲嘉善大夫行同知中樞府事兼五衛將者
”	”	”	”		유씨	”	”		淑夫人柳氏封貞夫人者
”	”	”	”		김현구	”	”		金顯球爲嘉善大夫者
”	”	”	”		유인최씨	”	”		孺人崔氏贈貞夫人者
”	”	”	”		김도식	”	”		金道植贈嘉善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者
”	”	”	”		유인유씨	”	”		孺人柳氏封淑夫人者
”	”	”	”		김한현	”	”		金漢鉉贈通政大夫司僕寺正者
”	”	”	”		유인이씨	”	”		孺人李氏贈淑夫人者
”	”	”	”		유인강씨	”	”		孺人姜氏贈淑夫人者
”	”	”	”		김제홍	”	”		金濟弘贈通政大夫承政院左副承旨兼經筵參贊官者
”	”	”	66×77.7		김현영	”	”		閑良金顯榮武科丙科第二百五人及第出身者

소장자 : 김진표(무주군 무풍면 중산리)

분류	자료명	수량	크기	발급	수급	연호	연대	판종	내용
고문서	上書	1매	48.8×99			丁酉 四月	1897		풍남면 석항리 화민 김해영 등이 김동철의 孝行蹟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해달라는 상서
”	牒報	”	51×99.1			丁酉 四月	1897		위의 내용에 대한 풍남면 석항리 尊位 李太圭의 첩보.
”	”	”	53.8×86.5			丁酉 四月	1897		위의 내용에 대한 풍남면 執綱 河○○의 첩보.
”	上書	”	48×95.7			丁酉 四月	1897		위의 내용과 같은 茂朱鄕校 校任 前縣監 朴重浩의 상서.
”	”	”	35.4×27.9			광무 7	1903		위의 내용과 같은 茂朱儒生 등이 올리는 상서.
”	”	”	56.8×96.4			광무10	1906		위의 내용과 같은 道內儒生 등이 올리는 상서.

소장자 : 박영근(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분류	자료명	수량	크기	발급	수급	연호	연대	판종	내용
고문서	戶口單子	1매	51×44.5	錦山郡守	朴乶只	도광 5	1825		부남면 대치리 6통 제2호
”	”	”	49.5×48	”	”	도광 8	1828		부남면 대치리 御營保 朴乶只(43)
”	”	”	59.5×47.8	”	”	도광 11	1831		부남면 대치리 御營保 朴乶只(47)
”	”	”	57.7×67.8	”	”	도광 14	1834		부남면 대치리 御營保 朴乶只(48)
”	”	”	60.5×50.3	”	”	도광 20	1840		부남면 대치리 御營保 朴乶只(61)
”	”	”	61.2×50.7	”	”	도광 23	1843		부남면 대치리 御營保 朴乶只(64)
”	”	”	59×51.5	”	”	도광 25	1845		부남면 대치리 御營保 朴乶只(67)
”	”	”	55.5×54.4	”	”	도광 29	1849		부남면 대치리 御營保 朴乶只(70)
”	”	”	62×50.5	”	”	함풍 2	1852		부남면 대치리 御營保 朴乶只(73)
”	”	”	58.2×51.2	”	”	함풍 5	1855		부남면 대치리 御營保 朴乶只(76)
”	”	”	58×64.5	”	朴沃龍	함풍 8	1857		부남면 대치리 朴沃龍(39)

소장자 : 박영근(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분류	자료명	수량	크기	발급	수급	연호	연대	판종	내 용
고문서	戶口單子	1매	54.2×50	錦山郡守	朴沃龍	함풍 11	1861		금산군 부남면 대치리 朴沃龍(41)
”	”	”	63.8×55.5	”	”	동치 3	1864		금산군 부남면 대치리 朴沃龍(45)
”	”	”	48.5×71.5	”	”	동치 6	1867		금산군 부남면 대치리 朴沃龍(48)
”	”	”	48.5×77.3	”	朴東喆	동치 9	1870		금산군 부남면 대치리 朴東喆(18)
”	”	”	47×70	”	”	동치 12	1873		금산군 부남면 대치리 朴東喆(21)
”	”	”	57.4×43.3	”	”	광서 원년	1875		금산군 부남면 대치리
”	”	”	47×51.5	”	朴東喆	광서 4	1878		금산군 부남면 대치리 朴東喆(28)
”	”	”	47×69	”	”	광서 11	1885		금산군 부남면 대치리 朴東喆(33)

제4절 선현유적(先賢遺蹟)

1. 서원

서원은 고려 중기부터 일어난 사학(私學)의 발전된 형태로 조선시대에는 숭유정책(崇儒政策)으로 인해 새로운 사립학교로 등장하였다. 주된 목적은 서당이나 서재(書齋) 안에 도학(道學 또는 儒學)의 진흥을 위해 헌신한 선현(先賢)을 봉사(奉祀)하고 선현의 가르침을 힘써 배우게 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서당과 서재의 장려를 위해 선현사(先賢祠) 또는 향현사(鄕賢祠) 등을 서당 가까운 곳에 설립할 것을 권장하였는데, 뒷날 서당 안에 사원(祠院)을 함께 설립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원은 학생들에게 유학(儒學)을 강의할 수 있는 강당(講堂)과 선현을 봉사할 수 있는 사원이 동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명종 때 이르러 서원에 노복(奴僕)과 전결(田結)을 주고 면세(免稅)와 원노(院奴)의 군역면제(軍役免除)의 특혜를 주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명문가나 부호들이 다투어 서원을 설립함으로 유생들은 향교를 버리고 서원으로 집결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서원의 급격한 발생은 유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붕당(朋黨)을 조장하는 근거지가 되어 지역의 토호(土豪)들이 모여 권세(權勢)를 남용하는 온상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인조와 효종 그리고 영·정조 때 서원의 정비에 노력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고종 때 대원군의 철폐령에 따라 전국의 650여 개 서원 가운데 사표(師表)가 될 만한 47개를 남기고 모두 철폐되었다.

그러나 대원군이 실권한 후 철폐된 서원의 대부분이 복설(復設)되었고, 이와 함께 새로 세워지는 서원의 수가 더욱 많아졌다.

1) 도산서원(道山書院)

안성면 사전리 사교마을 뒤 오도산(吾道山) 기슭에 자리하고 있으며, 순조 13년(1813) 건립되었는데, 서원의 건물 중 도산재(道山齋)는 덕유산에 있는 백운암(白雲

庵) 건물을 이건(移建)하여 건립했다고 한다. 고종 5년(1868) 훼철(毁撤)되었으나 순종 2년(1908) 도산여학당(道山與學堂)으로 개칭하고 사립학교(私立學校)를 설립하여 교사(校舍)로 사용하였다. 1919년 안성공립학교(安城公立學校)가 개설되면서 서원으로 다시 환원되었다.

이 곳은 충목공(忠穆公) 김여석(金礪石)과 임회당(臨淮堂) 박희권(朴希權)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배향된 인물에 대해서는 인물 편에서 기술하였다.



도산서원

2) 백산서원(柏山書院)

무풍면 현내리 북리 마을에 있으며, 순조 21년(1821) 사액(賜額)받아 건립되었으나 고종 6년(1869)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 순종 2년(1908) 건물을 복원하면서 그 뒤편에 새로운 사당(祠堂)을 세우고 문효공과 정경부인의 영정을 위패와 함께 봉안한 다음, 사액된 타진사 현판을 걸고 매년 춘추로 향사(享祀)하였다. 그리고 종전에 영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은 백산재(柏山齋)라 편액(扁額)하였다. 그 후 일제 강점기였던 갑인(1914)년에 타진사의 서편에 백산사(栢山祠)를 세우고, 백산서원의 현액을 걸었다.

이 곳에는 세종 때 삼정승(三政丞)을 역임한 문효공(文孝公) 하연(河演)과 정경부인(貞敬夫人) 성산이씨(星山李氏)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타진사와 하씨 문중의 선대 중 사양재(四養齋) 하위국(河衛國)의 아들 네 분을 추향(追享)하고 있다.

3) 분양서원(汾陽書院)

무풍면 지성리 지일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1942년 숭모사(崇慕祠) 건립을 시작으로 1971년 분양정사(汾陽精舍)를 건립한 후 분양서원이라 하였다. 숭모사에는 세종 때 등과하여 이조판서에 오른 남은(南隱) 서섭(徐涉)과 선조 때의 학자 취정(翠亭) 서효재(徐孝載)를 배향하고 있다.

남은 서섭은 단종 1년(1453) 계유정난(癸酉靖難) 때 충언(忠言)이 문제가 되어 유배되었는데, 후일 유배에서 풀린 뒤 사육신(死六臣)의 순절을 애통해 하면서 낙향(落鄕) 후 은둔생활로 후진을 양성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서효재는 선조 때 사마(司馬)에 합격했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선대부터 대구(大邱)에서 살았는데,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예측하고 무풍의 부등(扶等)으로 내려와 정착하였다.

4) 주계서원(朱溪書院)

본래 영조 1년(1725) 부내(府內) 남쪽 1리에 있는 백전치(柏田峙) 아래에 건립, 주자(朱子)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을 배향하였다. 정조 6년(1782) 사직단(社稷壇) 동쪽으로 옮겼고, 헌종 9년(1843) 현 무주향교 왼쪽으로 옮겼으나 고종 6년(1869)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철된 후 없어지고 말았다.

주계서원에는 주자와 송시열의 진상(眞像)이 함께 모셔졌는데,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적성지(赤城誌)에 기록되어 있다.

5) 죽계서원(竹溪書院)

안성면 죽천리 평창마을에 있으며, 숙종 39년(1713) 건립되었고 고종 6년(1869)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었는데, 1967년 재건되었다.

사당(祠堂)은 고려 때의 명신(名臣) 문간공(文簡公) 김신(金侁)을 주향(主享)으로 하고, 조선 중기 충신인 백야(柏冶) 장필무(張弼武)와 그의 아들 오류정(五柳亭) 장의현(張義賢), 삼괴(三槐) 장지현(張知賢)을 배향하고 있다. 그리고 수용(睡弁) 하징도(河徵道), 서악(西嶽) 하정도(河呈道), 취은(醉隱) 하형도(河亨道), 모정(茅亭) 하현도(河顯道)를 추배(追配)하였다.



죽계서원

2. 사우

사묘(祠廟) 즉, 사당(祠堂)은 조상 또는 명현(名賢)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곳으로 고대부터 내려 왔고, 고려시대에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시행토록 하였으나, 잘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조선 중종 때 사당을 마련하고 신주를 모셔 제사를 지내도록 장려하였다. 사당에는 망인(亡人)의 신주를 모시는 외에 선정(善政)이나 공(功)이 큰 감사(監司)나 수령(守令) 등을 찬양하는 생사당(生祠堂)도 있었다.

한 가문의 조상을 모시는 것은 그 일가의 사당에 국한된 것이나 학문·덕행·무공이 뛰어난 인물의 사당은 그 연고지 뿐 아니라 각 고장의 유림과 백성에 의하여 숭모(崇慕)의 대상으로 제향(祭享)되었다.

1) 가일사(加一祠)

설천면 삼공리 원삼공 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조 때 순절(殉節)한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를 배향(配享)하고 있다. 1922년 김문기의 후손 김용두(金容斗)와 대사성(大司成) 김지(金智)의 후손 김계홍(金啓洪)이 건립하고 천운재(天雲齋)라 현액(懸額)하였다.

김문기의 초명(初名)은 효기(孝起), 호는 백촌, 본관은 김녕으로 세종 3년(1426) 문과에 급제,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그러나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임금이 되자, 박팽년(朴彭年)과 단종의 복위(復位)를 모의하던 중 붙잡혔다. 그는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이개(李塏)와 함께 죽음을 당했다.

영조 때 그의 9대손 김정구(金鼎九)의 소원(訴願)으로 복관(復官)되었고 충의(忠毅)의 시호(諡號)를 받았다.

2) 도남사(道南祠)

안성면 진도리 별묘마을에 있는데, 건립 경위를 다음과 같다.

정조 5년(1781) 경기도 과천(果川) 비산리(飛山里)에 사는 정민공(貞愍公) 유간(柳澗)이 중국 명나라 말엽 사신으로 갔을 때, 송(宋)나라의 인물 정향(程珦·太中)과 그 아들 정호(程顥)·정이(程蓬) 삼부자(三父子)의 영정(影幀)을 조선에 살고 있는

하남정씨(河南程氏) 후손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나 귀국한 유간은 후손을 찾지 못하고 감실(龕室)에 봉안하였다. 그 후 고종 2년(1865) 9대손 유기준(柳冀準)이 진도리에 살고 있는 하남정씨 본손(本孫) 정낙구(程洛龜)에게 전하게 되었다. 이에 세 분의 영정을 모실 별묘(別廟)를 세우고, 도남사라 현액(懸額)하였다.


도남사

사당에서 주향(主享)으로 모시는 정향은 중국 송나라 인물로 자는 군옥(君玉), 호는 태중(太中)으로 송대육현(宋代六賢) 중 이현(二賢)을 배출하였다.

정호(1032~1085)의 자는 백순(伯淳) 호는 명도(明道)이고, 정이(1037~1107)의 자는 정숙(正叔) 호는 이천(伊川)인데, 송나라의 명현(名賢)들로 남송(南宋)의 이종(理宗) 순우(淳祐) 원년(1241) 종향(從享)되었고, 원나라 문종 지순(至淳) 원년(1330)에 정호는 예국공(豫國公)으로 정이는 낙국공(洛國公)으로 각각 봉(封)해졌다. 한편 이들은 우리나라 여러 향교의 문묘(文廟)에 종향(從享)되고 있다.

3) 백촌사(白村祠)

부남면 가당리 가정마을에 있는데, 1948년 이 지역에 세거(世居)하는 김녕김씨 문중에 의해 건립되었다. 사당에는 조선 세조 때 사육신(死六臣)과 함께 최후를 마친 충의공 백촌 김문기를 주향(主享)으로 하고 김현석(金玄錫)을 배향(配享)하고 있다. 백촌에 대해서는 가일사에서 설명했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4) 설천사(雪川祠)

설천면 소천리에 위치하였는데, 철종 11년(1860) 설천(雪川) 이봉상(李鳳祥)을 향사(享祀)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나 고종 6년(1869) 훼철된 후 복원되지 않았다.

이봉상은 신임사화(辛壬士禍) 때 벼슬을 버리고 무주(茂朱)로 들어와 학문을 닦으

며 여생을 마쳤다. 저서로 독서기의(讀書記疑) 18권, 설천초(雪川抄) 12권, 충효편(忠孝扁) 등을 남겼다.

5) 설호사(雪湖祠)

설천면 소천리 양지마을에 있는데, 철종 11년(1860) 설계(雪溪) 박치원(朴致遠)을 주벽(主壁)으로 하고 운곡(雲谷) 박권(朴權)과 운촌(雲村) 박삼(朴森)을 향사(享祀)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그러나 고종 6년(1869) 철폐령에 의해 훼철되었고, 1920년 문중에 의해 재건되었다.



설호사

6) 서씨세사(徐氏世祠)

무풍면 지성리 부등마을에 있으며, 정조 1년(1777) 달성서씨(達成徐氏) 문중의 회계(晦溪) 서천발(徐天發)과 죽재(竹齋) 서인주(徐仁周)를 향사(享祀)하기 위해 후손들이 건립하였다.

서천발은 예학(禮學)과 효심이 극진했던 학자로 후진양성에 힘써 많은 석학을 배출했는데, '가선대부한성부좌윤(嘉善大夫漢城府左尹)'에 추증(追贈)되었다. 회계의 아들 서인주는 효성이 극진했을 뿐 아니라 이웃에 덕을 베풀어 '자헌대부지중추부사(資憲大夫知中樞府事)'에 증직되었다.

7) 세덕사(世德祠)

무풍면 철목리 원철목(吐玉洞)마을에 있는데, 인조 10년(1632)에 건립한 원주이씨(原州李氏) 세사(世祠)로 고려 말 이후 원주이씨 문중 5현(賢)을 배향하고 있다.

배향 인물은 대제학(大提學) 송우(松愚) 이이(李蓬), 직장(直長) 우송(又松) 이유분(李有芬), 병조판서(兵曹判書) 만포(晩圃) 이천익(李天翊), 호조참판(戶曹參判) 청은재(淸隱齋) 이각(李慤), 평안병사(平安兵使) 송오당(松吾堂) 이계원(李繼原)이다.

8) 유천사(裕川祠)

설천면 소천리 이남마을에 있는데, 본래 1919년 지역의 사림(士林)에 의해 설천면 두길리 구산마을 앞산에 건립되었다. 1987년 김해김씨 문중에 의해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 사당에는 연산 4년(1498) 무오사화(戊午士禍) 때 화를 입은 문민공(文愍公) 탁영(濯纓) 김일손(金馹孫)과 그의 후손 도연정(道淵亭) 김치삼(金致三), 남호(南湖) 김영(金瑩)을 배향하고 있다.

9) 죽림사(竹林祠)

무풍면 철목리에 위치하고 있다. 순조 27년(1827)에 건립되었으나 고종 5년(1868) 철폐령으로 훼철된 후 1986년 후손들에 의해 재건되었다.

사당에는 죽헌(竹軒) 최활(崔活)을 주벽(主壁)으로 하고 춘당(春堂) 권중희(權重熙),[42] 두촌(斗村) 이만경(李晩景)을 배향(配享)하고 있다. 죽헌 최활은 처음 대덕사(大德祠)에 모셨는데, 이 곳으로 옮겼다.

10) 한천사(寒泉祠)

무풍면 은산리 한치 마을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전쟁 때 병화(兵禍)로 소실되었는데, 2002년 복원되었다.

배향된 박문건(朴文健. 1770~1809)의 자는 이환(而煥), 호는 관일당(貫一堂) 또는 정관재(靜觀齋)라 하며 예학(禮學)과 역학(易學)에 밝았다. 본래 진주에서 살았는데, 순조 5년(1805) 이 곳으로 이거(移居)한 후 바깥출입을 한번도 하지 않고 오직 학문에 심취하였다고 한다. 여러 저서를 남겼는데, 문집으로 정관재집(靜觀齋集)이 있다.

11) 대덕사(大德祠)

1814년(순조 14) 무풍면 현내리에 창건되었으나 훼철되었다. 조선 중기의 학자인 노서(魯西) 윤선거(尹宣擧), 인조 때의 인물 회곡(晦谷) 조한영(曺漢英), 조선 중기 때의 인물 구당(久堂) 박장원(朴長遠), 조선 중기의 학자 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

---

42)본관은 안동, 호는 춘당(春堂)이다. 아버지의 병환이 깊자 변을 맛보아 병세를 가늠하며 간호하였고, 아버지가 버섯을 원하자 엄동(嚴冬)에 기도한 후 버섯을 얻어 구환(救患)하는 효행으로 알려졌다.

조선 숙종 때의 학자 명재(明齋) 윤증(尹拯) 등 다섯 분과 더불어 하징도·하정도·하형도·하현도 등 하씨 형제 네 분이 때때로 대덕산(大德山)에 와 소요(逍遙)한 것과 관련지어 후학들이 이를 기리며 사우(祠宇)를 세우고 향사(享祀)하였다고 한다.[43)]

3. 재각(齋閣)

1) 각천재(覺天齋)

무주읍 내도리 내동마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구한말 가문의 전통과 후진양성에 힘썼던 선비 신권(申權)의 가택(家宅)이었다.

신권(1858~1923)의 본관은 평산(平山)으로 초휘(初諱)는 병호(炳鎬), 자는 대경(大敬) 호는 각천재이다. 그는 고려 개국공신 장절공(壯節公) 신숭겸(申崇謙)의 후예로 어려서부터 언어와 행동이 남달랐고, 학문에 깊이 심취하였다. 성장한 후에는 효우돈목(孝友敦睦)의 도리를 다하는 선비로 '땅은 같으나 때는 다르다'는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고 이 곳에 정사(精舍)를 짓고 본인의 호를 따서 각천재라 하였다. 그는 각천재에서 부모에 대한 효와 자제들의 교육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며 여생을 보냈다.

신권의 아들 신영희(申永熙)는 부친을 본받아 효우와 행실을 중하게 여기며, 학문에 힘쓰는 한편 가문에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각천재는 한국전쟁 당시 불에 타버렸고, 근처에 세워진 각천재 신권의 위업을 새긴 기적비(紀蹟碑)만 남아 있다.

2) 경모재(景慕齋)

무풍면 은산리 한치 마을에 있으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밀양박씨 선조를 봉향(奉享)하는 한천사내에 지역의 유림들이 정관재(靜觀齋) 박문건(朴文健)을 향사(享祀)하기 위해 건립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한천사가 전투경찰의 파견대 본부로 사용되던 중, 1951년 9월 16일 전투 때 병화(兵禍)로 소실되었다. 2002년 한천사가 복원되었으므로 정관재 역시 복원될 예정이다.

---

43)전라북도 향교재단, ≪全北鄕校院宇大觀≫, 1994, 160~162쪽.

정관재 박문건은 본래 진주(晋州)에서 태어나 성장한 후 1805년 이곳으로 이거하여 불과 4년 여 동안 살다가 타계하였다. 그는 이 곳에서 오직 학문에만 정진하여 많은 저서를 남겼고, 예학(禮學)과 이학(理學)에 밝았다. 생전에 별다른 주목을 받지 않았는데, 사후(死後) 지역의 선비들에 의해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그를 추앙하는 지역의 유림들이 향사(享祀)하기 위해 경모재를 건립하였다.

현재는 그에 대한 유적비(遺蹟碑)와 1968년 후손들이 간행한 ≪정관재문집(靜觀齋文集)≫이 있다.

3) 고반재(考槃齋)

무풍면 철목리 원철목 마을에 있는데, 덕암(德庵) 김진한(金瑨漢. 1865~1940)이 건축한 후 초산어수(樵山魚水)하며 여생을 보냈다.

그는 무풍면 현내리 태생으로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이 학문을 익히고 벼슬길에 올라 의관(議官)[44]에 이르렀다. 김진한은 성품이 인자하고 봉사정신이 강해 해마다 장리곡(長利穀)으로 허덕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어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 등 자선(慈善)으로 일관한 덕인(德人)이었다. 뿐만 아니라 여행자들에게 숙소 제공은 물론 더러 여비까지 도와주어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김진한이 전날에 사 두었던 서당(書堂)을 자신이 머물러 살 곳으로 정하고 거주했는데, 오래되어 수리하고자 했으나 불행히도 병이 들어 아들 김두화(金斗華로)가 마무리하고 고반재라 하였다. 또한 지역 사람들은 그의 집을 '덕의 집'이라 하여 그의 호를 덕암(德庵)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 후손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매년 9월 9일에 그의 업적을 기리는 제(祭)를 올렸다.

---

44)조선말기의 관직. 중추원(中樞院)에 속했는데, 1895년(고종 32) 관제에 의하여 의장과 부의장 밑에 의관을 설치하였다. 자격은 칙임관(勅任官) 재직자, 국가 유공자 및 정치·법률·이재(理財)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내각회의를 거쳐 내각총리대신의 추천에 의하여 칙선(勅選)으로 임용되었다. 1905년 찬의(贊議)로 개칭되었다.

4) 두람재(斗藍齋)

안성면 금평리 두문마을에 있다.

고종 9년(1872) 심암(深庵) 박남수(朴南壽)가 마을의 미풍양속(美風良俗)을 위한 남전향약(藍田鄕約)을 처음 만들었다.

그러나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미풍양속의 문란과 함께 재각(齋閣)도 퇴락(頹落)하였다. 이에 마을 출신 난사(蘭史) 박승화(朴勝華) 등 뜻있는 인사 10명이 모여 1924년 새로운 향약을 만들고, 1932년 비로소 두람재를 세우게 되었다. 경산(耕山) 이용우(李用雨)가 상량문(上梁文)을 짓고, 단암(丹巖) 민병승(閔丙承)과 용재(龍齋) 박승희(朴勝嬉)가 기(記)를 썼다.[45] 두람재향약(斗藍齋鄕約)은 최근까지 전해져 왔다.

5) 육영재(育英齋)

무풍면 현내리 원평 마을에 있으며, 헌종 15년(1849) 이 지역에 거주하는 흥양이씨(興陽李氏) 문중에서 그들의 자제들을 교육,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건립한 서숙(書塾)이다.

육영재는 후손들의 교육을 위한 사숙이었으므로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불구하고 헐리지 않고 계속 운영되어 지역의 수많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었다. 또한 일제 강점기 때에는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되었는데, 1922년 사립무창보통학교(私立茂昌普通學校)로 출발하여 현재의 무풍초등학교(茂豊初等學校)로 발전하였다.



육영재

6) 화산재(華山齋)

무주읍 당산리 원당산마을에 있었는데, 현재는 훼철되고 없다. 화산재는 이 마을에 세거(世居)하던 문화유씨(文化柳氏) 문중에서 그들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건립한 사숙(私塾)인데, 고을 선비들이 독서(讀書)하여 성취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45) 전라북도 향교재단, ≪全北鄕校院宇大觀≫, 1994, 713쪽.

4. 정각(亭閣)

1) 강수정(講樹亭)

안성면 덕산리 수락마을에 있었다. 조선말기 이 고장의 학자 강지형(姜芝馨)이 사우(士友)들과 더불어 학문을 연구하며 후진들과 강회(講會)[46]하던 곳이다. 옛적에는 활을 쏘는 사정(射亭)이라고도 하였는데, 강수정이라 바꾸어 불렀고, 강수정계(講樹亭契)가 모이던 곳이다.

2) 둔세정(遯世亭)

무주읍 대차리 서면마을에 있었다. 단종 때 함창(咸昌)현감이던 박인정(朴仁挺)은 사육신(死六臣)이 불행을 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주계(朱溪)의 서호(西湖)로 들어와 스스로 호를 도원(桃源)이라 하고, 세상을 등지고 살면서 다시는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그 후 참의(參議) 유연(柳漣)이 들어와 박인정이 지었던 옛정자 터에 둔세정을 짓고 자호(自號)를 둔옹(遯翁)이라 하였다. 그리고 박인정의 후손 삼암 박이겸, 비암 박이항 등과 더불어 강론(講論)하며 시를 짓고 읊었다. 현재 정자는 무너져버렸고 옛터만 남아있다.

3) 만벽정(晩碧亭)

안성면 덕산리 덕곡 마을에 있다. 지역의 선비들로 조직된 관선계원(觀善契員)[47]이 모여 봄가을로 시가(詩歌)를 읊조리던 정자(亭子)이다.

4) 분의정(分宜亭)

무주읍 대차리 차산마을에 있었다. 인조 때의 명신(名臣) 청구(淸滾) 임담(林机)이 우거(寓居)하면서 지은 정자였으나 지금은 터만 전한다.

---

46)학생들을 모아놓고 배운 것을 강론(講論)하는 것.

47)덕산 마을에 사는 선비들이 모여 여씨향약(呂氏鄕約)을 가감(加減)하여 설립한 계(契)이다.

5) 비암정(秘巖亭)

무주읍 대차리 서면마을 집승정(集勝亭) 아래 비암대(秘岩臺) 위에 있었다.
선조 16년(1583) 비암 박이항이 대(臺) 아래에 정자를 짓고, 영이재(詠而齋)라는 현판을 붙이고, 그의 자호(自號)를 붙여 비암정이라 하였다.

그는 이 곳에서 형 삼암 박이겸과 함께 학규약(學規約)을 만들고 덕업계원(德業契員) 30명을 모아 강론하였다. 비암정은 없어졌으나 선조 17년(1584)에 만든 덕업계청과 그에 대한 조약(條約), 계안(契案) 등이 적성지(天)에 남아 있다.

6) 사유정(四柳亭)

적상면 삼유리 상유마을에 있었다. 유산(柳山) 유도(柳燾)가 시를 읊던 곳으로,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조두순(趙斗淳)이 기문(記文)을 짓고, 이조판서를 지낸 위사(韋史) 신석희(申錫禧)가 서문(序文)을 지었다. 지금은 훼철되고 그 터에 기념비만 남았다.

7) 서벽정(棲碧亭)

설천면 두길리[48]에 소재한 수성대(一名 一士台)에 있는 건물이다. 구천동 33경 중의 하나인 서벽정은 고종 23년(1886) 송병선(宋秉璿)이 세상을 등진 채 은거하면서 건립하였고, 영호남(嶺湖南)의 선비들이 모여 시론(時論)을 논하던 곳이다.

송병선(1836~1905)의 본관은 은진(恩津). 자는 화옥(華玉), 호는 동방일사 (東方一士)·연재(淵齋)로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의 9대손이다. 고종 15년(1878) 태릉참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그 뒤 경연관(經筵官)·서연관(書筵官)·시강원자의(侍講院諮議) 등에 차례로 선임되었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그리고 1883년과 1884년에 사헌부대사헌(司憲府大司憲)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다만 그 때에 의제변개(衣制變改)가 단행되자 극력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왕의 비답(批答)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두문자정(杜門自靖)하였으며, 이듬해 옥주(沃州. 현 옥천)에 들어가 살다가 고종 23년(1886) 무주 수성대 산속 물가에 서벽정(棲碧亭)을 짓고 도학을 강론하는 일에만 몰두하였다. 조정에서 다시 가의 (嘉義)로 승품(陞品)하였으나 역시

48)횡천면(橫川面) 무이산(武夷山) 아래 수성(水城)에 있다.

응하지 않고 다만 사교(邪敎)를 엄금할 것을 상소하였다.

1905년 이른바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일제의 무력으로 체결되고 국권을 박탈당하였다. 이에 연재는 서울에 올라가 고종을 알현하고 을사오적(乙巳五賊)을 처형할 것, 현량(賢良)을 뽑아 쓸 것, 기강을 세울 것 등의 십조봉사(十條封事)를 올렸다.

이어서 을사조약에 대한 반대운동을 계속 전개하려고 하였으나 경무사(警務使) 윤철규(尹喆奎)에게 속아서 납치당해 강제로 향리에 호송되었다. 그 해 음력 12월 30일 국권피탈(國權被奪)에 통분하여 황제와 국민과 유생들에게 유서를 남겨놓고 세 차례에 걸쳐 다량의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다.

유서에서는 을사오적의 처형, 을사조약의 파기 및 의로써 궐기하여 국권을 회복할 것을 호소하였다. 그가 자결하자 시비로 있던 공임(恭任)이 따라서 자결하여 세간에서 의비(義婢)라 칭송하였다.

죽은 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1914년 영동에 문충사(文忠祠)[49]를 지어 배향하였으며, 1962년 건국훈장 국민장이 추서되었다.

서벽정 주위는 송병선과 관련하여 여러 지명이 현존하고 있다. 서벽정은 이백(李白)의 시어(詩語)를 취해 느긋하게 세상을 등진 것을 기록한 것이며, 다락을 유아루(有我樓)라 한 것은 넓고도 높은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것이다. 서벽정 아래에서 흐르다 담을 이룬 곳을 도화담(桃花潭)이라 하며, 정자 서쪽에 있는 창암(蒼巖)은 대(臺)를 이루어 돛대처럼 높이 솟아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을 초연하게 버리고 홀로 서있는 형상이라 하여 일사대(一士臺)라 하였다. 또한 골짜기에서 뛰어나게 아름다운 경치를 가려 뽑아 구곡(九曲)이라 하였고, 남쪽의 무이봉(武夷峰)을 보고 무계(武溪)라 이름하였다.

서벽정에 딸린 재산은 민전(民田) 20두락과 산림(山林) 70정보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산림의 대부분은 북해도제국대학교림(北海島帝國大學校林)으로 귀속되고, 민전 20두락은 송씨 집안에서 매각처분(賣却處分)하였다 한다. 그 후 서벽정은 남원(南原)에 사는 선비의 후의로 한차례 수리되었으나, 낡아서 무주군내 유림들이 수리하려 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서벽정에는 1970년까지 송병선의 판목(板木)이 있었으나, 관리자가 없어 여기저기

49)1970년 대전광역시 용운동으로 이전되어 용동서원(龍洞書院)이라 불린다.

흩어져 있었다. 판목은 본래 남원에 있었는데, 보관하던 사당이 허물어져 이 곳으로 가져왔다고 한다. 이송 도중 호종자(護從者) 한 사람 없었고, 서벽정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운전기사가 설천시장 길가에 놓고 간 것을 박일표(朴日杓) 설천면장이 수습하여 서벽정으로 이송하였다고 한다.

8) 집승정(集勝亭)

무주읍 대차리 서면마을에 있었다. 서쪽에 있는 둔세정에서 약 1리쯤 떨어져 있었는데, 삼암 박이겸의 모정(茅亭)이다.

향로봉 남쪽 기슭은 박이겸 선대의 선산(先山)이 있는 곳인데, 박이겸의 아버지가 선산을 생각하며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해 집승정을 건립하였다. 그 후 여섯 명의 은사(隱士)들과 회동(會同)하였다고 한다. 선조 23년(1590)년 삼암 박이겸이 쓴 집승정기가 적성지에 실려 있으나, 현재 유지(遺址)만 남아 있다.

9) 초려정(草廬亭)

안성면 단지봉 아래에 있고, 부에서 40리 떨어져 있었다. 초려정은 효종 8년(1657) 벼슬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이거한 후 후진 양성에 여생을 보낸 이유태(李惟泰)의 유지(遺址)이다. 이유태는 처음 산미촌(山味村)에서 살았는데, 산미촌은 지금의 상산(上山)이다. 천석(泉石) 위에 서재(書齋)를 짓고, 자신의 호(草廬)를 따서 초려정이라 하였다. 그는 이 곳에서 매일 학자들과 학문을 연구하며 닦았다. 그런데 초려정은 1967년 수해로 유실되었다.

10) 풍호정(風乎亭)

무풍면 철목리 철목마을에 있다. 이 정자는 예로부터 명칭은 전해왔으나 언제 누구에 의해 건립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풍호향약(風乎鄕約)은 전해왔으나, 정자는 퇴락하여 터만 남았었는데, 지방민이 합심하여 재건하였다.

11) 환수정(喚睡亭)

무주읍 대차리 남대천변에 있었다. 숙종 33년(1707) 무주부사(茂朱府使) 조구상(趙龜祥)이 건립했던 것을 고종 9년(1872) 정익영(鄭翼永) 부사가 남루(南樓) 2칸을 증축하였다. 문의 이름을 천일(天日)이라 했는데, 무주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훼철되었다.

제5절 충·효·열행

1. 충의(忠義)

1) 충의비(忠義碑)

◇ 반남박씨(潘南朴氏) 삼세충의비(三世忠義碑)

안성면 금평리 두문마을에 있는 삼세충의비각에는 려말선초(麗末鮮初)에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킨 박힐(朴詰), 단종 복위를 도모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박인(朴麟)과 그의 아들 박희권(朴希權) 등 3인의 충신에 관한 비명(碑銘)이 있다.

박힐의 자는 원직(元直), 호는 도소재(逃召齋)로 일찍이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벼슬에는 나가지 않았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낙향하여 은둔하였다.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태종이 찾아와 조정에 나오기를 간청하였으나 '두 임금을 모실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태종은 여러 차례 부르면서 전답과 물품을 하사하였으나, 그 마저도 물리치고 초야에 묻혀 살며 충절을 지켰다.



반남박씨 삼세충의비(안성)

박인은 박힐의 증손(曾孫)으로 자는 성상(聖祥), 호는 의율재(擬栗齋)이다. 일찍이 벼슬길에 올라 여러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였는데, 이르는 곳마다 업적과 명성이 있었다. 진산군수(珍山郡守)로 재직 중 단종의 폐위 소식을 듣고 벼슬을 그만 두고 은둔생활로 충절을 지키다 생을 마감하였다.

박희권의 자는 천경(天經), 호는 임회당(臨淮堂)이다. 박인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충효의 가르침을 늘 가슴에 품고 실천하였다. 부친이 진산군수로 있을 때 단종 폐위 소식을 듣고 아버지와 함께 단종이 있는 영월로 가려 했으나 늙은 조모를 차마 떠날 수 없어 중단하였다. 단종 승하 후에는 통곡을 하며 집안 후원에 단(壇)을 쌓고 일생을 마칠 때까지 매년 단종을 위해 제사를 지냈다.

1812년(순조 12) 박힐·박희권과 함께 충의로 명정(命旌)되었고, 자세한 내용이 ≪적성지≫(지)에 전한다.

2) 충신각·문

◇ 이만번(李晩蕃) 충신각(忠臣閣)

무풍면 철목리 철목 정문거리에 있다. 이만번은 1680년(숙종 6)~1762년(영조 38) 사이의 인물로 본관은 흥양(興陽), 자는 군욱(君郁), 호는 두천(斗川)으로 찬성(贊成) 이서원(李舒原)의 후손이다.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의 난에 동조하여 경남 안의에서 일어나 서울로 진격하려던 정희량(鄭希亮)을 치기 위해 동생 이만경(李晩景)과 함께 의병을 모아 관병에 합세하였다. 성초령(省草嶺)에서 공을 세웠는데, 1888년(고종 25) '충신 통정대부병조참의 흥양 이만번지각(忠臣 通政大夫兵曹參議 興陽 李晩蕃之閣)'으로 명정(命旌)되었고, 그 해 정각(旌閣)을 건립하였다. ≪적성지≫(천)에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만번 충신각

◇ 이유길(李有吉) 충신문(忠臣門)

안성면 장기리 이목마을에 있으며 1619년 건주위(建州衛) 정벌(征伐)에 출전하여 끝까지 싸우다 전사한 이유길에 대한 충신문이다.

이유길은 1579년(선조 12)~1619(광해 11) 사이의 인물로 본관은 연안(延安)이며, 자는 유지(有之), 익호(諡號)는 충의(忠毅)이다. 본래 고향은 경기도 파주인데, 그 종손이 안성면에 내려와 살게 되어, 1684년(숙종 10)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증직되면서 정려를 내릴 때 이 곳에 세우게 되었다. 현재의 정문은 1996~1997년 다시 세운 것이다. ≪적성지≫(천)에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장지현 충신각

◇ 장지현(張智賢) 충신각

충신각은 적상면 괴목리 원괴목 마을에 있고, 무덤은 적상면 사천리 신대마을(서창)에 있다. 장지현은 1536년~1593년(중종 31~선조 26) 사이의 인물로 본관은 구례(求禮)이고, 자는 명숙(明叔), 호는 삼괴(三槐)이며, 임진왜란 때 왜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의병장이다.

무주읍 당산리에서 병마절도사 필무(弼武)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1590년(선조 23) 지략(智略)으로 천거를 받아 전라도병마절도사 신립(申砬)의 부장(部將)이 되고, 이듬해 감찰(監察)에 올랐으나,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왔다.

1592년 임진왜란 때 경상도관찰사 윤선각(尹先覺)에 의하여 그의 용맹을 인정받아 비장(裨將)으로 발탁되었다. 이듬해 부하 수천 명을 거느리고 황간의 추풍령에서 적을 요격하던 중, 금산방면에서 공격해온 왜장 구로다(黑田長政) 군사의 협공을 받아 그의 사촌동생 호현(好賢)과 함께 전사하였다.[50]

50) 임진왜란 때 왜적이 침입하자 장지현은 의병을 일으켜 황간(黃澗) 추풍령에 의군(義軍)을 매복시켰다. 그러나 적군의 공격으로 일진(一陣)이 모두 패하였다. 이에 공이 홀로 몸을 떨쳐 일어나 많은 적을 사살하였다. 그러나 화살이 다 떨어진데다가 활마저 부러졌고, 엄지손가락까지 살이 벗겨져 칼로 적을 베려 하였다. 그렇지만 하늘의 도움도 순응치 않았는지 칼마저 또한 부러져 끝내 종제(從弟) 장호현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다. ≪적성지≫(天).

1891년(고종 28) 통정대부 병조참의(通政大夫 兵曹參議)에 추증(追贈)되었고, 영동의 화암서원(花巖書院)에 제향되었다. [宣祖實錄, 芝窩集. ≪적성지≫(천)〈趙啓纘〉]

3) 신도비(神道碑)

◇ 김여석(金礪石) 신도비

안성면 사전리 사전마을에 있는데, 순조 13년(1813) 유림(儒林)들의 천거로 건립되었고, 묘는 안성면 사전리 사교마을에 있었던 도산서원 뒷산에 있다.

김여석[1445(세종 27)~1493(성종 24)]은 조선 초기 문신으로 본관은 광산(光山), 자(字)는 은경(殷卿), 시호는 충목(忠穆)으로 강화부사 수(洙)의 아들이다.[51)]

점필재(僉畢齋) 김종직(金宗直)의 문인(文人)으로 1465년(세조 11) 진사, 그 해 가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52)] 그 후 성균관학유 겸 예문관검열에 보임되었으며, 뒤에 군자시주부(軍資寺主簿)·병조좌랑을 역임하였다. 그 사이 세조 13년에 있었던 이시애(李施愛)의 난(亂)에 출전하여 공을 세워 공신(功臣)에 올랐다.

1470년(성종 1) 재행겸비자(才行兼備者)를 선발할 때 김종직과 함께 뽑혔으며, 1472년 병조정랑이 된 뒤 의정부검상·사인을 거쳐 사헌부집의가 되었다.

1479년 성균관의 사예(司藝)로서 원수(元帥) 윤필상(尹弼商)의 종사관이 되어 건주위(建州衛)토벌에 참여하였으며, 1481년 사간원사간·사복시정(司僕寺正)을 거쳐 승정원의 동부승지·우부승지·우승지·도승지와 이조참의를 역임하였다.

이조참의로 재직 중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탄핵되어, 1487년 충청도관찰사로 전임되었다. 이듬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로서 판결사(判決事)를 겸한 뒤 경상도·강원도의 관찰사, 호조·병조의 참판을 거쳐 1491년 사헌부대사헌이 되었다. 그 뒤 예조참판을 거쳐 1493년 형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의 사후 광산부원군(光山府院君)에 봉하고 충목(忠穆)의 시호를 내렸다.

---

51) 김여석에 대해서는 Digital 한국학(www.koreandb.net)과 ≪무주군지≫(1990), 그리고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등을 참조하였다.

52) 1990년 발간된 ≪무주군지≫(916쪽)에는 세조 10년(1464)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세조의 총애를 받았으며, 관리가 되어서는 사람의 뜻을 살피기에 힘써 향응(嚮應)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는 사관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2. 효행

1) 효자비

◇ 갈근환(葛根煥) 효자비

설천면 장덕리 수한마을 도로변에 있다. 갈근환은 1851～1915년 사이의 인물로 본관은 남양(南陽)이며, 경홍(敬洪)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일찍이 부친을 잃고 편모슬하에서 성장하였다.

평소 모친에 대한 효성이 극진하였는데, 모친이 병이 들어 생명이 위급할 때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 입안에 흘러 넣어 온전하게 소생시킨 효자이다. 1936년 지역의 유림(儒林)이 추천하여 표창(表彰)을 받았고, 그 해 효자남양제갈공근환지비(孝子南陽諸葛公根煥之碑)라는 비를 세웠다.

◇ 길달규(金達圭) 부부효열비(夫婦孝烈碑)

무주읍 내도리 굴천마을 입구에 있다. 김달규는 1841년(헌종 7)～1936년 사이의 인물로 본관은 김녕(金寧)이며, 자는 영재(永載), 호는 은천(隱川)이다.

김달규는 평소 효성을 근본으로 삼아 부모에 대한 정성이 극진하였고, 부친이 병환에 들었을 때에는 변(便)맛을 보면서 간호하였다. 그의 부인 밀양박씨 역시 일찍이 부녀로서 지켜야 할 어진 덕과 효를 실천하였다. 시부모의 노환(老患) 중일 때 손가락을 잘라 주혈(注血)하여 효험을 보기도 하였다.

부부의 효열에 감탄한 유림(儒林)의 추천으로 1971년 향교에서 포창을 하였고, 그 해 '은천거사 김녕김공부부효열쌍전비(隱川居士 金寧金公夫婦孝烈雙全碑)'를 세웠다.

◇ 김영열(金永烈) 효자비

효자비는 안성면 공정리 통안 마을에 있다. 고종 5년(1868)에 태어나 1944년에 서거했는데, 호는 덕암(德巖), 본관은 광산(光山)이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착하고 효심이 극진했는데, 17세 되던 해 부친이 병으로 눕게 되자, 환자의 변(便)을 맛보며 간호하였다고 한다. 상중(喪中)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禮)와 법도(法道)에 따라 장례를 치렀으며, 3년간의 시묘(侍墓)를 다하였다.

그의 부인 권씨 또한 남편을 본받아 시부모에 대한 효성이 극진하여 노환 중인 시어머니의 변(便)맛을 보면서 간호하였고, 좋은 약이라고 하면 모두 다 구해서 정성을 다해 간호하여 낫게 한 효부였다. 1961년 유림(儒林)의 추천으로 표창(表彰)을 받았고, 효자 덕암처사행적(德巖處士行績)을 새긴 비(碑)를 세웠다.

◇ 정기인(鄭基仁) 효행비

효행비는 안성면 덕산리 수락마을에 있는데, 정기인(1862~1924)의 자(字)는 경오(敬五) 호는 농은(農隱), 본관은 초계(草溪)이다.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 농사일과 장사를 하면서 편모(偏母)를 모시고 살았다. 효심이 극진하여 본인은 비록 굶어도 모친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서 봉양했으며, 장삿길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구해서 봉양하였는데 만일 늦는 경우에는 먼저 돌아가는 사람 편에 부탁하여 모친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모친의 상중(喪中)에는 예와 도를 다해 상을 치룬 효자로 1925년 유림의 추천으로 모성공회(慕聖公會)의 찬양(讚揚)을 받아 1970년 농은정공효행비(農隱鄭公孝行碑)라는 비명을 붙여 세웠다.[적성지(천) 239쪽, 군지 921쪽]

◇ 최익붕(崔翼鵬) 효자비

효자비는 무풍면 현내리 고도마을에 있는데, 최익붕(1810~1872)의 어릴 때 이름은 승대(承垈) 호는 송포(松圃), 본관은 전주이며 죽헌공(竹軒公) 최활(崔活)의 후손이다. 풍채가 훌륭하고 재주가 있었으며, 행동거지가 자상하였다.

효심이 극진하여 부친의 병환 중에는 대변 맛을 보며 증세를 살폈을 뿐 아니라 운명 직전의 부친을 위해 손가락을 찢어 부족한 피를 보충했으며, 상중(喪中)에는 슬퍼함이 끝이 없었다고 한다. 1970년 비를 세웠다.

◇ 최흥림(崔興林) 효자비

효자비는 무풍면 철목리 우평 마을에 있는데, 최흥림(1878～1931)의 자는 기선(箕善), 본관은 전주이다.

가세가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어릴 적부터 천성이 착하고 효심이 지극하였다. 병중인 부친이 먹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드렸다고 한다. 하루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워낙 가난한 살림에 고기를 살 수가 없어서 남몰래 본인의 살을 세 번씩이나 베어 화약(和藥)으로 다려 드리자 부친의 병이 나았다고 한다.

유림의 추천으로 효자로 표창되었고, 1944년 학생전주최공효행(學生全州崔公孝行)이라는 비를 세웠다.

◇ 하인용(河仁容) 효자비

효자비는 무풍면 현내리 북리 마을에 있는데, 하인용(1866～1957)의 자(字)는 재인(在仁), 호는 자하(自下), 본관은 진양(晋陽)이다.

어려서부터 부모에 대한 효성이 극진하였는데, 8세 때 모친이 병으로 눕자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병구완에 정성을 다했다. 운명 직전에는 고사리 같은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환자의 입에 넣어 며칠을 더 살게 한 효자이다.

한국전쟁 때에는 선조(文孝公과 貞敬夫人)의 영정을 백운산으로 옮겨 후대에 전하게 했던 인물로 유림이 추천하여 성균관(成均館)의 표창을 받았다. 1982년 효자백하진양하공기적비(孝子白下晋陽河公紀蹟碑)를 세웠다.

◇ 황의영(黃義永) 효자비

무풍면 현내리 상북 마을에 있는데, 황의영(1876～1926)의 자는 영도(永道), 본관은 장수(長水)이다.

어릴 때부터 효심이 극진했는데, 13세 되던 해 부친이 병으로 눕게 되자 어린 나이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병간호에 정성을 다하였다. 임종 때에는 모친과 함께 손가락을 잘라 주혈(注血)하여 연명(延命)케 했으며, 상중(喪中)에는 묘 옆에 초막(草幕)을 짓고 3년간 시묘(侍墓)하면서 효를 다했다. 모친의 노환(老患) 때나 상중(喪中)에도 모든 예를 다 갖추었는데, 상을 치르고 난 1년 뒤 세상을

떠난 효자이다.

1928년 유림의 추천으로 모성공회의 찬양을 받아 1929년 효자장수황공의영비(孝子長水黃公義永碑)라는 비를 세웠다.

2) 효자각

◇ 송계원(宋桂元) 효자각

부남면 굴암리 상굴암 마을에 있다. 송계원(1731～1792)의 본관은 은진(恩津)이다.

부모에 대한 효심이 극진하였는데, 부친이 병중일 때 온갖 정성을 다해 간호하였다. 추운 겨울, 잉어를 먹고 싶어 하는 부친을 위해 추위를 잊은 채 강가에 나가 헤맸는데, 얼음이 깨지며 잉어가 튀어나와 공양하였다. 또한 추운 겨울에 수박을 먹고 싶어 하는 부친을 위해 애를 태웠는데, 어느 날 밤 꿈의 현몽(現夢)에 따라 외양간에서 수박을 구해 부친의 소원을 풀어 주었다고 한다.

1872년(고종 9) 효자학생은진송계원지려(孝子學生恩津宋桂元之閭)로 명정(銘旌)되어 그 해 이 곳에 정려각(旌閭閣)을 세웠다.

◇ 유경제(柳景堤) 효자각

효자각은 무주읍 당산리 원당산마을에 있다. 유경제(1802～1856)의 자는 화중(和中),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13세 되던 해 작은 집에 양자(養子)로 가게 되었는데, 효심이 극진하여 친가와 양가의 부모를 지성으로 섬겼다.

양부가 노환으로 운명 직전에 이르자 왼쪽 손가락을 잘라 주혈(注血)하여 며칠을 더 연명하게 하였고, 생부의 운명 전에는 오른 손가락을 잘라 주혈하여 연명케 한 효자였다. 고종 25년(1888) '효자증조봉대부동몽교관유경제지려(孝子贈朝奉大夫童蒙敎官柳景堤之閭로 명정(命旌)되었고, 고종 29년(1892) 정각(旌閣)을 건립하였다.

◇ 이만경(李晩景) 효자각

효자각은 무풍면 철목리 철목마을에 있다. 이만경(1691~1776)의 자는 군진(君珍), 호는 두촌(斗村), 본관은 흥양(興陽)이다.

천성적으로 효성이 지극하였는데, 아버지가 풍(風)으로 쓰러져 여러 해 지나 병이 더욱 깊어졌다. 옆으로 돌아누울 때도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하고, 말마저 어눌하게 되어 말끝을 맺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이만경은 전후좌우에서 소리가 없어도 들을 수 있고, 형체가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었으니, 모두가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였다고 한다.

병든 아버지가 꿩과 물고기를 좋아하므로 떨어지지 않도록 했는데, 한번도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봉양하였다. 심지어 집에서 기르던 개의 안내를 받아 눈길을 헤치고 가보니 눈 속에 떨어진 꿩이 있었고, 담(潭)속에 살던 물고기가 얼음을 깨고 뛰어 나왔으며, 부엌에서 기르던 매는 풀어 주어도 날아가지 않고 저절로 죽어 공양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만경의 효심에 감동한 부사(府使) 박사한(朴師漢)이 집으로 찾아와 위로하고 포상했으며, 고을 사람들이 시를 지어 찬양하였다.

부모에 대한 효심 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정 또한 대단하였다. 흉년이 들면 죽을 쑤어 가난한 사람들을 살렸으며, 노비들을 방량(放良)하고 신원(身元)을 보장하여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친척 중에 외롭고 가난하여 시집이나 장가를 가지 못하면 반드시 혼수를 마련해 주어 혼기(婚期)를 놓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한다. 또한 사람 각자가 저마다의 재능에 따라 노력하도록 잘 가르쳐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였으니, 감화(感化)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임종에 이르러 자손들에게 “충효는 본래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므로, 나의 행한 바가 어찌 다른 사람과 다르겠느냐. 부사의 표창, 향인(鄕人)의 찬시(讚詩)를 남겨두면 내가 죽은 뒤에 혹 과분한 일이 있을까 두렵다. 그러면 내 넋이라도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고, 묶어 놓은 실기(實記)를 가져오라 명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태워버렸다고 한다. 그 당시 자손들은 그의 뜻을 받들어 다시 기록하는 것과 향선생(鄕先生)으로 제사(祭祀)하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영조 4년(1728) 정희량(鄭希亮)의 난(亂) 때 중형(仲兄) 이만번과 함께 창의(倡義)하는데 동참하였는데, 사후(死後) 순조 27년(1827) 죽림사(竹林祠)에 모셔졌다. 강재(剛齋) 이승연(李承延)이 효자전(孝子傳)을 쓰고, 계당(溪堂) 유수목(柳疇睦)이 묘갈명(墓碣銘)을 지었다. 고종 25년(1888) ‘효자증자헌대부예조판서겸지중추부사흥양이만경지려(孝子贈資憲大夫禮曹判書兼知中樞府事興陽李晩景之閭)’로 명정(命旌)되었는데, 정려는 형 두천(斗川) 이만번(李晩蕃)과 함께 연정(聯旌)되었다.

3) 효열비(孝烈碑)

◇ 이이옥(李以汶)의 처(妻) 의성정씨(義城丁氏) 효행비

효행비는 안성면 덕산리 수락마을에 있다. 1863년 정재남(丁在南)의 딸로 태어난 의성정씨는 천성이 단정할 뿐 아니라 모든 행동거지에 법도가 있었다.

혼인 후 시부모를 섬기지 못한 것을 슬퍼하며 기일(忌日)이 되면 정성과 공경을 다해 제사를 받드니,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감복하였다.[53] 불행히 일찍 과부가 되어 바로 남편을 따라 죽고 싶었으나 아비를 잃은 어린 아이가 강보에 쌓여 있고, 죽은 남편의 유명(遺命)이 너무도 간절하여 죽음을 포기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부지런히 생업에 종사하였다.

또한 아비 잃은 자식을 잘 길러 훌륭한 스승을 따라 공부하도록 하니 형제와 자매들이 매우 기뻐하였다. 부인은 척박한 전답에서 얼마 되지 않는 곡식을 거두면서도 때로는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의복이나 음식을 나눔으로, 세상은 부인을 일컬어 열 남자보다 낫다고 칭찬하였다.

한편 부인의 친정이 가난하여 부인에게 의지하는 친정아버지도 지성으로 봉양하였다. 이에 유림에서 연장(聯狀)으로 추천하니, '가상(嘉尙)하게 여긴다'는 제사(題辭)[54]가 있었다. 1970년 '효부의성정씨행적비(孝婦義城丁氏行績碑)'를 세웠다.

◇ 최낙규(崔洛奎)의 처(妻) 밀양박씨(密陽朴氏) 효행비

효행비는 안성면 사전리 사교마을에 있다. 남편이 23세의 젊은 나이에 죽자, 부인은 남편을 따라 죽기로 결심하였는데, 불구의 몸으로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었다. 그리하여 남편의 장례를 다 치른 후 시어머니를 효성으로 봉양하였다.

후일 본인이 병이 든 후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죽는 날까지 약 한 모금 먹지 않았고, 오히려 살아생전에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고 죽게 됨을 잊을 수 없다고

---

53)무주군지에서는 " … 시어머니에 대한 효를 다하며 살았는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적성지(지)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다.

54)관(官)에서 백성들이 제출한 소장(訴狀) 또는 청원서(請願書) 등에 기록하는 판결이나 지령(指令)을 이름.

말한 후 눈을 감은 효부였다.

유림의 추천으로 포상되어 1949년 '효부밀양박씨행적비(孝婦密陽朴氏行績碑)'를 세웠다.

4) 효열각

◇ 밀양박씨(密陽朴氏) 효열오정려(孝烈五旌閭)

설천면 기곡리 기곡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밀양박씨 문중의 효열 다섯 분의 정려(旌閭)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효자각으로 효자 박이겸(朴以謙)과 박이항(朴以恒), 효열부(孝烈婦) 전주원씨(全州元氏), 양주조씨(楊州趙氏), 흥양이씨(興陽李氏) 등을 연정(聯旌)하고 있다. 순조 12년(1812) 건립하였다.

◇ 효자 박이겸

박이겸(1555~1613)의 자는 덕후(德厚), 호는 삼암(三巖), 본관은 밀양이며, 국당공(菊堂公) 박흥생(朴興生)의 후손으로 이조참의(贈吏曹參議)에 증직된 박충현(朴忠賢)의 아들이다.

일찍이 학문을 닦아 중봉(重峰) 조헌(趙憲), 한강(寒岡) 정술(鄭述) 등과 함께 교우(交友)하였고 언행과 몸가짐이 단정하였다. 노묘(蘆墓)생활 중 임진왜란을 당하게 되자, 상제(喪祭)의 몸으로 나라를 걱정하며 낡은 도포를 입고 도의(道義)를 닦았다고 한다.

그는 백록동(白鹿洞) 남전향약(藍田鄕約)을 익혀 덕업(德業)계를 조직하였고, '선천심학도(先天心學圖)'를 저술하였다. 후에 추천을 통해 정릉(貞陵)참봉에 제수(除授)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효행과 학행을 겸비한 인물로 정조 13년(1789) 국헌(菊軒) 임옥산(林玉山)과 함께 장수(長水) 압계사(鴨溪祠)에 배향되었고, 후에 여러 차례 감사(監司)의 추천이 있어 대사헌(大司憲)에 증직되었다. 순조 12년(1812) '효자증자헌대부사헌부대사헌밀양박공이겸지려(孝子贈資憲大夫司憲府大司憲密陽朴公以謙之閭)'의 정려(旌閭)가 내려 신풍면(新豊面, 현 설천면) 승장원(承壯院, 현 기곡리)에 세웠다.

◇ **효자 박이항**

삼암 박이겸의 동생으로 자는 덕구(德久), 호는 비암(秘巖)이다. 형 박이겸과 함께 읍청(分淸) 박사종(朴嗣宗)에게 사사하고 덕행과 학행을 쌓았는데, 두 형제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하남(河南) 백숙(伯叔)에 비교할 만큼 효우(孝友)하였다고 한다.

부친이 운명할 때에는 손가락을 잘라 주혈(注血)하여 연명케 했으며, 상중(喪中)에는 형과 함께 초막(草幕)을 짓고 3년간 시묘(侍墓)하며 예와 도를 다했다. 당파를 싫어하여 벼슬에 나가지 않았으나 역리학(易理學)에 능했고, 천묵(天默) 이상형(李尙馨) 등과 함께 교우하고 강론(講論)하며 '대학입덕문가(大學入德門歌)'를 저술하였다.

정조 13년(1789) 형 박이겸과 함께 장수 압계사에 배향되었고, 순조 12년(1812) '효자증통정대부사헌부집의밀양박공이항지려(孝子贈通政大夫司憲府執義密陽朴公以恒之閭)'로 명정(命旌)되어 연정(聯旌)되었다.

◇ **절부(節婦) 전주원씨**

효자 박이항의 처(妻)로 성품이 정결하고 사리가 분명하였다.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남편이 가족들을 데리고 장수 백운산으로 피신하면서 "만약 우리가 한 곳에 가서 있다가 변을 당하면 한꺼번에 변을 당할 우려가 있으니, 각기 다른 곳으로 피하자"고 함으로, 각지 자녀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난하였다. 그 때 왜병이 부인 등이 숨어있는 백운촌(白雲村) 계곡에 들이닥쳐 부인을 끌고 가려 하였다. 그렇지만 부인은 당황하지 않고 대나무를 꺾어들고 왜적을 때리며 크게 꾸짖었는데, 그 때 왜적이 모녀를 살해하였다.[55] 이와 같은 사실은 살아 돌아온 계집종이 전하여 알게 되었다.

1598년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절부 비암처사박이항지처 전주원씨지려(節婦 秘巖處士朴以恒之妻 全州元氏之閭'로 정려되었다. 이 곳 외에 무주읍 가옥리 평촌 마을에도 정려가 있다.

---

55)적성지(천) 267쪽. 그러나 1990년 발간된 ≪무주군지≫에는 "부인은 왜인(倭人)의 손이 몸에 닿았다 하며 품속의 비수를 꺼내 어린 딸과 함께 자결로 정절(貞節)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 열녀(烈女) 양주조씨

박만령(朴萬齡)의 처(妻)로 성품이 곱고 온순하였으며, 시부모에게 하늘같이 순종하고 형제간에 화목하여 가정이 우애하였다.

남편이 병들자 성심으로 간호했으나 끝내 죽음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죽기로 결심하고 있다가 밤이 되어 어두운 틈을 타서 남편이 생전에 사용하던 허리띠를 가지고 조용히 목을 매어 순사(殉死)로 정절을 지켰다.

고종 27년(1890), '열녀 증통훈대부장낙원정밀양박만령지처양주조씨지려(烈女 贈通訓大夫掌樂院正密陽朴萬齡之妻楊州趙氏之閭)'로 정려되었다.

◇ 효부(孝婦) 흥양이씨

삼암 박이암의 후손 박사흠(朴士欽)의 처(妻)로 성품이 단정하고 효양이 극진하였다. 국한문(國漢文)을 모두 다 배워 내칙편(內則篇)을 알아 그 당시 사람들은 부인을 여사(女士)라 칭하였다.

시부모의 병중에 극진한 효성으로 신명을 다했으며, 남편이 죽자 삼상(三祥)을 마친 다음 남편을 따라 죽어 일부종사(一夫從事)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예(禮)를 절차에 따라 정성을 다한 후, 담월(詭月)에 이르러 길제(吉祭)를 행하고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난 효열부(孝烈婦)이다.

고종 20년(1883) 조정에서 '열녀 증승훈랑사헌부감찰밀양박사흠지처흥양이씨지려(烈女 贈承訓郎司憲府監察密陽朴士欽之妻興陽李氏之閭'로 명정(命旌)되었다.

◇ 밀양박씨 효열각

설천면 소천리 양지마을 입구에 있다. 효열각은 밀양박씨 문중의 효자와 열녀를 연정(聯旌)한 것으로 박권과 박삼 형제의 효행과 박경호의 처 김해김씨의 열행을 기념하기 위해 1891년(고종 28) 건립한 것이다.

◇ 효자 박권(朴權)

1747(영조 23)~1822(순조 22) 사이의 인물로 본관은 밀양이며, 자는 맹중(孟仲) 호는 운곡(雲谷)이다.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았으며, 1786년(정조 10) 사마시

(司馬試)에 합격하였다. 성품이 효우(孝友)하고 부모 봉양(奉養)을 즐거움으로 삼아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늘 부모의 건강을 염려하였고, 병중에는 손수 약을 맛보고 음식을 살피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마침내 상(喪)을 당한 후에는 예제(禮制)로 장례를 치르고 셋째 동생 박삼(朴森)과 함께 여막(廬幕)을 짓고 아침저녁으로 전(奠)을 올렸는데, 그 정성이 지극하였다. 그러면서 매일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건강을 살폈다.

모친상을 당해 슬퍼함이 너무도 애절하였으며, 예제(禮祭)는 부친의 상 때와 같이 하였다. 3년상을 치른 것도 부친의 상 때와 같았으므로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시묘(侍墓)를 한 효자였다.

순조 31년(1831) 조정에서 형제를 연정(聯旌)케 하고, 아울러 증직하였다. 형 박권은 사복시정(司僕寺正), 동생 박삼은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증직되었다.[56]

◇ 효자 박삼(朴森)

1762(영조 37)~1832(순조 32) 사이의 인물로 자는 여삼(汝三), 호는 운촌(雲村)으로 효자 박권의 셋째 동생이다.

천성이 효성스럽고 형제간의 우애가 깊어 부모를 섬기는데 극진하였다. 부모의 상중에는 형 박권과 함께 부모의 묘에서 3년씩 여묘(廬墓)살이를 하며 효행을 다하였다.

1891년(고종 28) 조정에서 '효자증동몽교관조봉대부밀양박삼지려(孝子贈童蒙敎官朝奉大夫密陽朴森之閭)'로 명정(命旌)되고, 그의 형 박권과 함께 연정되었다.[57]

◇ 열녀(烈女) 김해김씨

박경호(朴景鎬)의 처로 결혼 후 2년 만에 남편의 근무지인 동경(東京. 현 경주)에서 살았다. 남편이 중병(重病)에 걸리게 되자, 하늘에 대신 죽기를 기도하면서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입에 흘려 넣어 소생시켰다. 그런데 다음 해 남편이 다시 발병(發病)하여 결국 운명함으로 빈소(殯所)를 만들고 전(奠)을 올리며 극진하게 예제(禮制)를 따랐다.

---

56)적성지(천) 258쪽. 그러나 ≪무주군지≫ 927쪽에서는 "1891년(고종 28) '효자성균진사증통훈대부사복시정밀양박권지려(孝子成均進士贈通訓大夫司僕寺正密陽朴權之閭'로 정려(旌閭)되어 동생 박권과 함께 연정되다."고 기록하고 있다.

57)적성지(천)에는 순조 31년(1831)으로 기록되어 있다.

남편과 사별 후 시가와 친가에서 멀리 떨어져 노비(老婢)와 살면서 칠삭(七朔) 유복자(遺腹子)를 낳게 되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집의 울타리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그 후 밤마다 큰 호랑이가 찾아와 뜰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 가축(家畜)과 같았다.

이에 부인은 노비에게 "저 짐승이 비록 맹수(猛獸)이지만, 밤에 왔다가 새벽에 돌아가는 것은 아주 기이한 일이다. 그러니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도둑이 난입하다가 뜰에 누워있는 호랑이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며 놀라 자빠졌다. 이를 본 이웃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호랑이의 행동이 평범한 일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관아에 알려지게 되었고, 수령은 감탄하면서 포상할 뿐 아니라 노자까지 마련해 주었다. 이에 부인은 남편의 관을 싣고, 아이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고종 28년(1891) '열녀 학생밀양박경호지처부인김해김씨지려(烈女 學生密陽朴景鎬之妻婦人金海金氏之閭)'로 명정되어 효자 박권·박삼 형제와 함께 연정되었다.

◇ 문화유씨(文化柳氏) 효열사정각(孝烈四旌閣)

적상면 삼유리 상유마을 입구에 있다. 문화유씨 문중의 효열(孝烈) 네 분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문화사정(文化四旌)' 또는 '사유정(四柳亭)'으로 불린다.

1861년(철종 12) 유한태(柳漢泰)의 처 현풍곽씨가 효부로 정려된 후 이듬해 문중에 의해 마을 입구에 홍문(紅門)이 건립되었다. 그 뒤 1883년(고종 20) 유봉증과 홍증 형제가 효자로 정려되고, 1885년(고종 22) 유최영의 처 풍천임씨가 효부로 정려되었다. 1919년 문중에서 정문을 보수하고 홍살을 붙여 네 분의 현액을 연정(聯旌)하였다. 그런데 1986년 8월 실화로 불에 탄 후 복구되었다.

◇ 효부(孝婦) 현풍곽씨(玄風郭氏)

1755년(영조 31)~1821년(순조 21) 사이의 인물로 유한태의 아내이다.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게 되었다. 이에 남편을 따라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어머니를 죽을 때까지 지성으로 봉양해 달라'는 남편의 유언에 따라 죽지 못하고 평생의 한으로 여기며 살았다.

홀로된 시어머니를 극진한 효성으로 봉양하면서 종가의 조카를 입양하여 대를 잇게 하는 등 효행을 다하였다. 비록 늙고 병들어 위중하여도 맛있는 음식을 가까이 하지 않는 등 늘 검소한 생활을 했으며, 자손들에게 효(孝)와 열(烈)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겸비할 것을 가르쳤다.

1812(철종 12) '효부증통정대부승정원좌승지겸경연참찬관문화유한태처증숙부인현풍곽씨지려(孝婦 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文化柳漢泰處贈淑夫人玄風郭氏之閭)'로 명정되었다.

◇ 효부(孝婦) 풍천임씨(豊川任氏)

1780년(정조 4)~1830년(순조 30) 사이의 인물로 유최영(柳最榮)[58]의 처이다. 성품이 곱고 순하였으며 시어머니를 극진한 정성으로 섬기며 효성을 다 하였다. 집안이 가난하여 먹고 살기가 힘들었지만, 밤낮으로 부지런히 길쌈을 하여 시부모 봉양에 정성을 다하였다.

고사리를 좋아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깊은 산중을 헤맸는데,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가까운 뒷산에 별안간 고사리 싹이 올라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여 공양하였다. 이를 두고 이웃 사람들은 효행의 감동으로 빚어진 일이라 하며 맹순(孟楈)[59]과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 시어머니의 상중에는 그 슬픔이 애절하였고, 맨밥으로 연명하면서 상제로 3년상을 치렀다.

1885년(고종 22) '효부증가선대부호조참판겸동지의금부오위도총부총관문화유최영지처증정부인풍천임씨지려(孝婦 贈嘉善大夫戶曹參判謙同知義禁府五衛都摠府總管文化柳最榮之妻贈貞夫人豊川任氏之閭)'로 명정되었다.

◇ 효자 유봉증(柳鳳增)

1830년(순조 30)~1856년(철종 7) 사이의 인물로 본관은 문화, 자는 명국(鳴國)으로 돈녕부동지사(敦令府同知事) 유도(柳燾)의 아들이다. 1848년(현종 14)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는데, '천경(天敬)'이라는 글을 쓰고 '어버이를 하늘같이 공경해야 한다'고 하였다. 본인이 병에 걸려 무섭고 두려워도 부모가 걱정할까 봐 신음소

58) 호(號)는 후재(后齋)이고, 좌승지(左承旨) 유한태(柳漢泰)의 아들이다. 오로지 어버이 섬기는데 전념하며 일생을 한결같이 살았다. 철종 때 효행으로 은전을 입어 동몽교관에 증직되고, 고종 18년(1881) 호조참판(戶曹
參判)에 증직되었다.

59) 맹종(孟宗)의 죽순(竹楈). 맹종은 중국 오(吳)나라의 강하 사람이다. 그의 어머니가 죽순을 좋아했는데, 어느 해 겨울철 죽순이 나오지 않자, 맹종이 대밭에 들어가 슬프게 탄식하니 죽순이 갑자기 솟아났다고 함.

리 한번 내지 않았고, 병이 깊어 죽음에 임박하여 말을 할 수 없는 데도 부모의 안위를 묻고 숨을 거두었다.

1880년(고종 17) 효행으로 '효자성균생원증통정대부사헌부감찰문화유봉증지려(孝子 成均生員贈通政大夫司憲府監察文化柳奉增之閭)'로 명정되고, 1884년(고종 21) 동생 흥증과 함께 연정(聯旌)되었다.

◇ 효자 유홍증(柳鴻增)

1850년(철종 1)~1879년(고종 16) 사이의 인물로 자는 익여(翼汝) 유봉증의 동생이다.

어릴 적부터 형을 본받아 형제간의 우애가 깊었으며,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형을 부모와 같이 공경하여 모든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형에게 물어보고 행하였다.

큰 형 봉증이 종가(宗家)로 입양된 후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일찍 죽은 형에게 보답의 정성을 펴지 못한 것을 늘 애석하게 여겼다. 작은 형 학증은 장수현감(長水縣監)으로 관직에 머물러 있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꿈을 버리고 부모를 공양하였다. 효와 행실이 큰 형 봉증과 비교되어 난형난제(難兄難弟)였다고 한다.

1880년(고종 17) 사림(士林)에서 효행을 천거하여 교관(敎官)에 증직되고, 1883년(고종 20) '효자학생증동몽교관조봉대부문화유홍증지려(孝子學生贈童蒙敎官朝奉大夫文化柳鴻增之閭)'로 명정되었다. 그 이듬해 형 봉증과 함께 연정되었다.

3. 열행(烈行)

1) 열녀비(烈女碑)

◇ 권영유(權永裕)의 처(妻) 보성오씨(寶城吳氏) 효열비

설천면 심곡리 대평 마을에 있다.

안동권씨 권영유의 아내로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몸과 마음을 길렀고, 남편을 섬길 때는 반드시 공경하고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였다.

1877년 봄, 온 집안이 모두 돌림병에 걸려 불행히도 남편이 죽고 말았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손수 장례를 마치고 남편을 따라 죽으려 결심하였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

숙(嫂叔)의 병세가 위급함에도 당장 간호할 사람이 없었다. 이에 부인은 슬픔을 참고 견디며 시어머니와 시숙의 약바라지에 정성을 다하니, 열흘 정도 지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급한 불을 끈 부인은 시가와 친정 부모의 겨울옷과 여름옷을 일일이 빨고 꿰매어 장롱에 넣고,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수일간 먹을 수 있도록 정갈하게 장만하여 부엌에 챙겨 놓은 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약을 먹고 남편의 허리띠를 잡은 채 조용히 운명하였다. 그 때가 남편 사후(死後) 18일 만이었다.

◇ 김치묵(金致默)의 처 성산이씨(星山李氏) 열행비

무풍면 금평리 금척마을에 있다. 김녕김씨 김치묵의 아내로 시부모 봉양과 제사를 받드는데 정성을 다했고, 남편을 받드는 데에도 어김없이 예도(禮道)를 지켰다. 남편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주혈(注血)로 소생시켜 3일을 더 살게 하였으나 끝내 운명하였다.

이에 부인은 초종(初終)[60]에 쓸 것들을 울면서 손수 마련하면서 아들에게 "너의 아버지가 죽던 날 바로 따라 죽어야 하나, 죽는 일이 사는 일과 같다는 옛 어른들의 교훈을 받들어 조석(朝夕) 공양과 초하루와 보름 때의 삭망(朔望)에 올리는 전(奠)을 정성껏 하고, 탈상(脫喪)에 이르면 반드시 내 뜻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들은 감격하여 울면서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도록 위로하며 말렸다. 그런데 탈상하는 날 전을 마치고 아들에게 "나는 이제 너의 아버지를 따라 갈 것이니, 집안의 모든 일을 네가 알아서 신중하게 하라"고 일렀다. 그 날 자리에 누운 후 미시(未時)에 홀연히 눈을 감았다. 부인이 언행을 실천하여 절의(節義)를 지킨 언약은 천명(天命)과 인사(人事)가 일치하였던 것이다.

◇ 김태현(金兌鉉)의 처 흥양이씨고부효열비(興陽李氏姑婦孝烈碑)

안성면 사전리 사전마을에 있다. 광산김씨 문중의 효열부 흥양이씨와 그 며느리 반남박씨의 효열을 기록한 것으로 1973년 후손들에 의해 세워졌다. 비명(碑銘)은 '김태현배유인흥양이씨 김영은배유인반남박씨효열사적비(金兌鉉配孺人興陽李氏 金永殷配孺人潘南朴氏孝烈事蹟碑'라고 되어 있다.

60)초상(初喪)이 날 때부터 졸곡(卒哭)까지의 일컬음. 초종장사(初終葬事).

◇ 열녀 흥양이씨

1817년 이기복(李基復)의 딸로 태어나 김태현에게 출가했는데, 홀로된 시아버지를 모시고 효성을 다하며 병든 남편을 지성으로 섬겼다. 남편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주혈(注血)로 간호하는 등 정성을 다했으나, 효험도 없이 운명하고 말았다.

이에 남편을 따라 죽기로 결심했으나, 늙은 시아버지만 남겨 놓고 자식도 없이 후사(後嗣)를 잇지 못함을 죄스럽게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마음을 바꾸어 남편의 3년 상(喪)을 모든 예제(禮制)에 따라 치른 후 시동생 김하현(金夏鉉)의 아들 김영은(金永殷)을 양자로 들여 혼인을 치룬 바로 그 날 밤, 정침에 들어가 조용히 목숨을 끊어 남편을 따랐다.

◇ 효부 반남박씨

1863년 박수곤(朴守坤)의 딸로 태어났으며, 김영은의 처로 열녀 흥양이씨의 며느리이다.

시집간 날 시어머니의 상(喪)을 당해 신혼의 즐거움도 잊고 모든 예제(禮制)에 따라 상을 치렀다. 홀로 계신 시할아버지에게 효를 다하고 남편을 받들며 살았다. 그런데 부인의 나이 겨우 19세 되던 해 불행하게도 남편을 잃게 되었다.

이에 부인도 남편을 따라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나 홀로 계신 늙은 시할아버지와 강보에 쌓인 어린 자식을 생각하며 차마 죽지 못하고, 평생 가문을 지키며 연로(年老)하신 시할아버지를 모시고 자식을 양육하며 일생을 바쳤다.

◇ 박태양(朴泰陽)의 처 대구갈씨열부비(大邱葛氏烈婦碑)

안성면 사전리 사교마을에 있다. 갈득성(葛得成)의 딸로 태어났으며, 가난한 집안에 서모(庶母)와 함께 사는 가정으로 출가하였다. 남의 집 삯품팔이로 살림을 꾸려가면서도 병고에 시달리는 남편 병구완에 정성을 다하고, 시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았다.

그러나 불행히 부인의 나이 25세 되던 해 남편이 운명하였다. 이에 남편을 따라 죽기로 작정했으나, 늙은 시부모와 어린 자식을 생각하여 마음을 굳게 먹고 상을 치렀다. 어느 해 변덕이 심한 시어머니가 가난함을 핑계로 부인을 남에게 팔아넘기려는 흉계를 꾸미었다. 눈치를 챈 부인은 엄동설한의 추운 겨울 밤, 어린 자식을 싸안고 집을 나와 배고픔과 추위도 잊은 채 60리 빙판길을 맨발로 걸어 친정으로 피신하였다.

후에 시아버지가 운명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시댁으로 달려가 모든 예제(禮制)에

따라 상을 치른 후 일생을 수절하며 자식양육으로 가문을 지켰다.

고종 12년(1875) 열녀로 포상되었고, 열부비는 고종 14년(1877) '열부유인대구갈씨행적비(烈婦孺人大邱葛氏行蹟碑)'의 비명을 붙여 후손이 세웠다.

◇ 양원철(梁元喆)의 처 흥양이씨효열비(興陽李氏孝烈碑)

이목교(李穆敎)의 딸로 남원양씨(南原梁氏) 원철의 처이다. 어려서부터 부녀자의 규범을 이어받아 출가해서는 시부모를 모시는데 지극 정성을 다하였고,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내도록 늘 온화함을 잃지 않았다.

시아버지가 노환(老患)으로 여러 달 고생할 때 정성을 다해 간호했으며, 위독한 상황에 이르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흘려 넣으니 3일을 더 살았다. 남편이 학질(俺疾)에 걸려 운명 직전에 있을 때에는 세 번이나 허벅다리의 살을 베어 화약(和藥)으로 시탕(侍湯)하여 낫게 하였다.

면과 고을에서 여러 차례 추천하여 포상을 받았는데, 1960년 '학생남원양공원철배유인흥양이씨효열비(學生南原梁公元喆配孺人興陽李氏孝烈碑)'라는 비명을 후손들이 세웠다.

◇ 이건길(李健吉)의 처 경주김씨열부비(慶州金氏烈婦碑)

설천면 소천리 이남마을에 있다. 김의곤(金義坤)의 딸로 출가하여 부부가 의좋게 살았는데, 남편이 병들어 7년을 시달렸다. 부인은 온갖 정성을 다해 간호하였고, 위독한 상황에 처해서는 손가락을 잘라 주혈(注血)로 정성을 쏟았으나 끝내 효험을 보지 못하고 운명하고 말았다.

이에 남편을 따라 죽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사람을 구하는 일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강보에 쌓인 어린 자식을 길러 가문을 일으키기로 마음먹고 자식양육으로 여생을 보냈다.

유림의 천거로 포상 받았고, 1955년 '열녀경주김씨지비(烈女慶州金氏之碑)'라는 비명을 붙여 후손들이 세웠다.

◇ 이윤규(李潤奎)의 처 밀양박씨효열비(密陽朴氏孝烈碑)

안성면 공정리 용추마을에 있다. 박철용(朴哲鏞)의 딸로 효심이 극진하여 시부모의 운명 직전에 손가락을 잘라 주혈(注血)로 며칠을 더 살게 하였다. 1853년에 태어나

1914년에 운명했는데, 1976년 지역 유림의 추천으로 포상을 받았고, '밀양박씨효열비(密陽朴氏孝烈碑)'를 후손들이 세웠다.

◇ 주정익(朱珽益)의 처 김해김씨효열비(金海金氏孝烈碑)

부남면 대유리 대티(大峙)마을에 있다. 김수백(金壽伯)의 딸로 15세 때 출가하여 집안의 우애와 시부모에 대한 효도를 성심으로 행하며 부덕(婦德)을 실천하였다. 남편이 병들어 신음할 때에는 지성으로 병구완을 했으며, 운명 직전에는 손가락을 깨물어 주혈(注血)로 며칠을 더 살게 하였다.

시부모의 병중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탕(侍湯)하면서 환자의 변(便)을 맛보며 간호하였다. 또한 상중이나 제사 때는 절기 따라 구하기 힘든 제수(祭需)를 정성으로 구해 예(禮)를 다해 조상을 모시었다. 1859년에 태어나 1934년에 운명했는데, 운명하던 해 유림의 추천으로 포상을 받았고, 1974년 '신안주공정익배김해김씨효열비(新安朱公珽益配金海金氏孝烈碑)'의 비명을 후손들이 세웠다.

◇ 최영익(崔榮翼)의 처 진양하씨효열비(晋陽河氏孝烈碑)

설천면 장덕리 수한마을에 있다. 17세에 출가한 후 채 1년도 못돼 남편이 우연히 집을 나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러나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조상을 받들어 모시고 시부모 섬기는 도리와 친족들을 대하고 가정을 다스리는 범절이 한결같았다.

또한 양자(養子)를 들여 집안을 잇게 하고, 80평생을 단정하고 장중(莊重)한 품행, 그리고 여자로써 곧은 행실과 맑은 마음이 출가하던 날과 다름이 없었다. 이와 같은 부인의 행동은 두고 세상은 "부녀자가 가정에서 지켜야 할 내칙(內則)의 규칙 가운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세상을 깨우치게 하는 밑천"이라고 하였다.

1976년 세워진 이 비의 비명은 '학생전주최공영익배유인진양하씨효열비(學生全州崔公榮益配孺人晋陽河氏孝烈碑)'로 되어 있다.

◇ 황재성(黃在成)의 처 강릉유씨효열비(江陵劉氏孝烈碑)

부남면 대소리 유평마을에 있다. 유종완(劉宗浣)의 딸로 17세 때 장수황씨(長水黃氏) 문중으로 출가하여 슬하에 4남매를 두고 남편과 사별하였다. 남편의 유언에 따라 연로(年老)한 시어머니 공경과 부모 없이 자라고 있는 조카 3형제를 맡아 친자식처

럼 양육하여 성장시킨 후 혼인을 시켰다. 이 기록은 호남삼강록(湖南三綱錄)과 대한충의효행록(大韓忠義孝行錄)에 실려 있다. 1855년에 태어나 1903년에 운명하였는데, 1979년 '효열부강릉유씨기적비(孝烈婦江陵劉氏紀蹟碑)'의 비명으로 후손들이 세웠다.

◇ 황태우(黃泰宇)의 처 경주이씨절행비(慶州李氏節行碑)

부남면 대소리 유평마을에 있다. 혼인 후 29세 되던 해 두 남매를 두고 남편과 사별하였다. 남편이 운명하였을 때, 7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남편의 묘소를 찾아 성묘한 후 평생을 소복(素服)차림으로 정절을 지켰다.

일제 강점기 때 백의(白衣) 착용을 금지하는 령(令)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흰옷을 벗지 않고 지조를 지켰다. 이에 일본 경찰이 연행하여 호된 추궁을 해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절의(節義)를 지킴으로 일본 경찰도 탄복하였다고 한다. 이 기록은 대한충의효행록(大韓忠義孝行錄)에 실려 있다. 부인은 1892년에 태어나 1976년에 유명을 달리했는데, 1979년 문중에서 '장수황공태우배경주이씨절행비(長水黃公泰宇配慶州李氏節行碑)'를 새겨 비명을 세웠다.

◇ 황호주(黃鎬周)의 처 김해김씨포열비(金海金氏褒烈碑)

무풍면 현내리 상북 마을에 있다. 장수황씨(長水黃氏) 문중으로 출가하여 부덕(婦德)을 쌓아 정숙하면서도 효성이 극진하였다. 남편이 중병으로 고생하였는데, 온갖 정성으로 약을 구해 시탕(侍湯)하며 병구완을 했으나 효과가 없어 죽음에 이르렀다. 이에 손가락을 잘라 주혈(注血)하며 간호하니, 옆에서 지켜보던 열세 살짜리 어린 아들도 부인을 본받아 고사리 같은 손가락을 잘라 주혈로 효행하였다.

남편이 숨을 거두자 따라 죽기로 결심하고 예제(禮制)에 따라 장례절차를 모두 마쳤다. 부인이 순사(殉死)할 것을 알고 있는 아들과 집안 식구들의 만류가 너무도 간곡하여 포기하였다. 대신 남편의 묘소에 초막(草幕)을 치고 아들과 함께 3년 시묘(侍墓)를 마쳤다. 그 후 부인의 일생은 가정일과 자녀 양육에 있을 뿐 문밖출입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

부인은 1856년에 태어나 1922년에 운명하였는데, 1926년 유림의 추천으로 포상되었고, 1929년 모성공회의 찬양문이 내려졌으며, 그 해 '공인김해김씨포열비(恭人金海金氏褒烈碑)'의 비명을 세웠다.

2) 열녀각

◇ 박이항(朴以恒)의 처 전주원씨절부각(全州元氏節婦閣)

무주읍 가옥리 평촌 마을에 있다. 선조 31년(1598) 명정(命旌)되었고, 각(閣)은 후손들에 의해 1958년 세워졌다. 부인의 행적은 밀양박씨(密陽朴氏) 효열오정려(孝烈五旌閭)에 소개되어 있다.

◇ 유풍열(柳豊烈)의 처 창녕성씨열녀각(昌寧成氏烈女閣)

무주읍 당산리 원당산마을에 있다. 남편이 산에 올라갔다가 호랑이를 만나 죽게 되었다. 마을 장정 수십 명이 쫓아갔으나, 성난 호랑이의 울음소리에 놀라 감히 달려들지 못하였다. 그 때 부인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앞으로 나갔더니, 호랑이가 감동하여 슬그머니 놓고 달아나 버리므로 남편의 시신을 수습하고 돌아왔다.

그 당시 부인은 임신 중이었는데,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내가 만일 남자 아이를 낳으면 유씨 가문의 대(代)를 잇게 할 것이나, 만일 그렇지 못하면 마땅히 남편을 따라 죽을 것이다"라고 맹세하였다. 그 후 여자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7일째 되는 날 밤에 몰래 나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 이튿날, 뇌성벽력이 일더니 홀연 고운 빛깔의 무지개가 물 가운데에서 일어나 마을 앞을 가로질러 뻗쳤다. 시신을 물에서 건져내고 보니 부인의 살아있을 때 모습이 완연하였다. 부인은 1865년에 태어나 1891년 운명하였는데, 고종 28년(1891) 나라에서 정려를 내렸고, '열녀학생유풍열지처창녕성씨지려(烈女學生柳豊烈之妻昌寧成氏之閭)의 각(閣)을 세웠다.

◇ 이연우(李連雨)의 처 강릉유씨효열각(江陵劉氏孝烈閣)

부남면 장안리 교동마을에 있다. 유원순(劉元順)의 딸로 17세 때 출가하여 아들 하나를 두고 남편과 사별하였다. 그 때 부인의 나이 21세였다.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남의 집 삯품을 팔아 생계를 꾸렸는데, 평생 다른 마음을 갖지 않고 수절하며 시부모를 극진히 섬기고 어린 자식을 양육하여 훌륭하게 성장시켰다.

부인은 1804년에 태어나 1853년에 운명하였는데, 1927년 유림의 추천으로 모성공회(慕聖公會)의 찬양문을 받았고, 1948년 '효열부학생이공연우지처유인강릉유씨지려(孝烈婦學生李公連雨之妻孺人江陵柳氏之閭)'의 정려각을 세웠다.

◇ 이철구(李喆龜)의 처 옥산장씨열녀각(玉山張氏烈女閣)

무풍면 철목리 철목마을 정문거리에 있다. 부인은 출가하여 시조부(媤祖父)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남편이 병에 걸려 해가 갈수록 병이 깊어만 갔다. 이에 시조부가 염려할 것을 걱정하여 "차도가 있다"고 위로하였고, 홀로인 시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음을 민망하게 여기고 지성으로 권하며 공양하였다.

남편의 병이 더욱 깊어지자 부인은 온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조부와 시어머니에게 "병은 이미 고치기 어렵게 되었고 제게는 대를 이을 자식도 없으니, 만약 불행이 닥친다면 조부님과 어머님은 장차 누구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예로부터 사람들은 집안에 양자를 드리는 예가 있으니, 양자를 드리기 바랍니다."라고 청하였다.

그 후 빨래와 바느질을 시누이에게 부탁하면서 시조부와 시어머니의 옷을 장롱 속에 간수해 놓고, 몇 가지 사복(私服)을 챙겨 친정에 보내면서 부인의 모습을 대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러 친족들에게 조용히 말하기를 "병자의 죽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일 빈소를 차리고 예월(禮月)[61]을 기다린다면, 시조부님과 시어머님의 슬픔만 커질 것이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남편이 숨을 거두어 온 가족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부인은 미리 감추어 두었던 남편의 허리띠로 같은 시간에 목을 매어 남편을 따라 죽었다. 그 때 부인의 나이 22세로 남편과 동갑이었다.

철종 14년(1863)년 나라에서 정려(旌閭)를 내렸고, 고종 35년(1898) '효부열녀학생흥양이철구지처유인옥산장씨지려(孝婦烈女學生興陽李喆龜之妻孺人玉山張氏之閭)라고 편액하여 각(閣)을 세웠다.

[집필 : 김병남]

---

61)초상 뒤에 장사지내던 달. 천자는 7개월, 제후는 5개월, 대부(大夫)는 3개월, 사(士)는 1개월에 지냄.





제2편 민속

제2편 민속

제1장 전통문화

제1절 무주군의 생활권

1. 생활권의 특성

현재 1읍 5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무주군의 생활권은,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산간지역이 많은 지역적 제한과 주변 대도시와의 연계교통이 원활치 못한 관계로 각 면이 위치한 인근 지역 위주의 생활권이 중심을 이루었다. 즉 무주읍과 적상면을 포함하는 무주생활권, 충남 금산생활권에 가까운 부남면, 장수 및 전주생활권의 안성면, 경북 김천생활권의 무풍면, 경북 거창생활권의 설천면 등으로 각기 분산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광역생활권으로 보면, 비록 무주군이 전라북도에 위치하여 전주생활권에 속하나 교통과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대전생활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삼도봉을 중심으로 충남 영동군과 경북 김천시, 경남 거창군 등과도 상호 교류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1997년 '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2001년 대전-무주간 고속도로에 이어 2002년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무주를 관통하게 됨으로써 무주는 우리나라 내륙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적으로는 전라북도에 속하지만 국토의 중심부와 고속도로가 관통한다는 점이 부각되어 전라북도는 물론 충남·북과 경·남북 등으로 생활권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 병원시설의 이용 등이 대전이나 전주 등의 도시권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생활권의 자족적 기능이 형성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러나 1995 년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무주경제 살리기 운동'과 같은 지역개발정책이 추진되고, 문화 및 사회복지 시설 특히 의료시설 등의 대폭적인 개선을 통해 인구유입정책을 펼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2. 생산활동

무주군민의 주된 생업(生業)은 농업 즉 벼농사와 밭농사였다. 그러나 도시화의 물결이 일고, 농기구의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재래식 용구를 이용한 농업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20여 년 전만 해도 '길쌈'을 하는 농가가 있었으나 지금은 모두 사라지는 등 농기구의 현대화로 인해 집단적인 노동이 투자되는 일은 점차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양잠이나 담배 등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기피 대상이 되고 있으며, 소수만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토리묵이나 메밀묵 또는 두부 등을 만들 때에는 일부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손수 콩나물을 길러서 먹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반면 축산업(한우, 젖소, 돼지)과 특용작물(인삼, 표고, 호도), 그리고 고랭지 채소, 사과, 옥수수 등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상품이 자급자족을 넘는 대규모 단위로 재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급자족하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던 농촌의 생업은 도시화와 대량생산, 농기구의 현대화 등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고 도시 공산품을 구입하게 되면서 '길쌈'같은 의료(衣料)생업활동은 중단되었고, 식생활 풍속도 갈수록 인스턴트화 되고 있다. 명절 때 집집마다 만들던 떡도 떡방아간에서 만들어 오고, 콩을 멧돌에 갈아서 끓이던 두부와 손수 길러서 먹던 콩나물도 대다수가 식품점에서 사다 먹는다. 이러한 분업화·도시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되면서 농촌의 전통적인 생업은 설자리마저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 들어 무주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호1품(한마을 한가정 한상품)운동 등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전통적인 생업을 되살리려는 노력은 그 결과를 떠나 적극 권장할만한 사업이라 할 것이다.

3. 소비생활

농산물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급자족(自給自足)하면서 잉여영농산물은 재래시장에 내다 팔았으나, 농가소득의 저하와 직업의 다양화로 근래에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것보다 식품점에서 사는 경우가 흔하게 되었다.

간단한 일상용품은 장날에 시장에서 구입하는데, 5일장이 서지 않는 적상면은 무주장이나 안성장을 이용한다. 부남면의 경우는, 간단한 식품은 면소재지에서 소화하지만 인근의 충남 금산장이나 대전에서 구입한다. 무주읍내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마트 등에서 구입하고 있으나 대전이나 전주 또는 경북 김천시나 거창, 나아가 대구에서 구입하기도 한다.

무주군이 행정 구역상으로 전라북도에 속하면서도 충청도나 경상도의 소비생활권에 속하게 된 것은 지리적인 여건에서 볼 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무주군 자체의 수지타산은 물론 전라북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소비생활권이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제2절 의생활(衣生活)

1. 개요

일반적으로 의생활은 기후와 주거생활 등의 생활양식과 관련이 깊다. 따라서 옛적에는 무더운 여름에는 삼베옷을, 겨울에는 솜을 넣은 무명베옷을 주로 입었다. 명주옷과 모시옷을 입기도 했으나 이는 부유한 계층에 해당되었다. 신발은 짚신을 삼아서 신었고 나막신을 신기도 하였다.

그런데, 개화의 영향으로 서양식 복식제도가 들어오면서 양복의 착용이 점차 확산되었다. 그렇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농촌에서는 주로 집에서 주부가 직접 지은 한복이 이용되었다. 마을마다 베틀이 있는 집이 많아 직접 혹은 시장에서 옷감을 조달하였고, 가정에서 옷을 지어 입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진행에 따라 의복의 대량생산체제가 가능해지고, 기성복시대가 열리면서 의생활도 급변하게 되었다.

우리의 전통복식은 평상복(일상복)과 노동복(일옷), 외출복과 유아복, 그리고 의례복(혼례·제사·상례)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평상복은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으로 노동복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 오래 입은 후 헌옷이 된 평상복을 대개 노동복으로 사용하였다.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례복은 관혼상제에 따라서 엄격하게 지켜졌는데, 현재는 전통혼례복(婚禮服)과 상례복(喪禮服) 그리고 제례복(祭禮服)이 남아 있다.

혼례복은 전통혼례 대신 서양식 혼례가 성행하면서 면사포가 주종을 이루고, 제례복도 향교에서 지내는 의례복만 전승될 뿐 자취를 감추고 있다. 아직까지 전통 복식을 가장 많이 고수하는 의례는 상례복인데, 이마저 굴건제복 대신 검은색 양복에 상장(喪章)만을 표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생활에 불편한 한복을 개량한 이른바 '개량한복'이 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무주에서는 아직까지 두드러진 현상은 아니다.

2. 옷감의 변천

전통시대에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는 대개 목화(木花), 대마(大麻), 누에고치 등을 들 수 있다. 목화에서는 실을 뽑아 목면(木棉 = 무명베)를 짜고, 대마 줄기의 껍질로 마포(麻布 = 삼베)를,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 견직(絹織 = 명주)을 생산하였다.

우리 민족은 백의(白衣)를 즐겨 입었는데, 하절기(夏節期)에는 삼(麻)으로 만든 삼베와 모시(紵)로 만든 모시 옷을 만들어 입어 더위를 피하는 시원한 생활을 즐겼다. 그리고 동절기(冬節期)에는 비단(錦)으로 만든 무명베나 광목(廣木)[1]과 옥양목(玉洋木)[2] 그리고 명주실(絹絲)로 만든 명주나 양단(洋緞)[3] 등에 솜을 넣어 옷을 만들어 입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지혜로운 생활을 지냈다.

현대에 들어와 과학의 발달로 옷감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무명실(綿絲)로 만든 목면

1) 무명실로 당목보다 좀 거칠게 짠 폭이 넓은 베. 왜포(倭布)
2) 생목보다 발이 고운 무명. 빛이 썩 희고 얇음.
3) 여러 가지 무늬를 놓아 두껍게 짠 고급 비단의 한 가지.

(木綿)과 명주실(絹絲)로 본견(本絹)에 다른 종류의 실을 섞어 인공(人工)을 첨가한 인조견(人造絹)이 나오고, 짐승의 털을 실로 만들어 짠 모직(毛織), 석유(石油)나 석탄(石炭)에서 뽑은 실로 짠 화학섬유(化學纖維) 등이 나와 화려한 의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환각제성분(幻覺劑成分)이 문제가 되어 삼(大麻) 농사가 법적으로 통제되고, 한정된 지역에서만 경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삼(大麻)에서 생산되는 마포(麻布)는 귀한 전통옷감이 되어 현재는 상중(喪中)에 쓰이는 상복(喪服)이나 수의(壽衣)를 만드는데 국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구한말(舊韓末)과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간 전래되던 우리 고유의 전통복식(傳統服飾)에서 양복(洋服)과 양장(洋裝)으로 점차 바뀌어 갔고, 1950년대를 거치면서 물밀 듯이 밀려들어온 서구문명(西歐文明)에 의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전통복식은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명절이나 전통의식(傳統儀式)을 할 때에만 입게 되었다.

우리의 전통의복(傳統衣服)은 대개 평상복(平常服)과 유아복(幼兒服), 노동복(勞動服), 의례복(儀禮服), 상복(喪服)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1990년 발간된 ≪무주군지≫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음으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3. 무주지역 옷감의 재료(材料)와 종류(種類)

옷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는 앞에 언급한대로 목화, 대마, 모시풀, 누에고치, 짐승털, 화학물질 등에 의해 생산되는 섬유류 등에서 찾아낸 무명, 삼베, 명주, 모직, 화학섬유 등이다. 이 중 무주군에서 생산되던 옷감의 재료는 주로 목화·삼·모시·누에고치(桑蠶) 등이며, 옷감은 무명베·삼베·명주 등이 있었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에 따라 화학섬유가 등장하면서 이들 전통옷감의 생산은 격감되거나 중단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는 상례(喪禮) 때 쓰이는 삼베가 안성면 사전리 사전마을을 중심으로 공진리 마암, 덕산리 덕곡마을 등 38농가에서 2,095평이 재배되고 있다.[4] 안성면 지역과 함께 적상면 괴목리 일부 지역에서도 재배·생산되었으나 미미한 실정이다.

---

4) 2003. 12. 16 안성면사무소

무주군은 산간지대일 뿐 아니라 기온이 낮은 관계로 목화의 재배가 쉽지 않아 목화생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목화는 옷감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이불을 만드는데 필요한 솜을 생산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목화에서 생산되는 무명베는 맥(脈)이 끊기고, 겨우 혼수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목면(木綿)이 1994년 경 까지만 해도 약간 생산되었다. 베틀에 무명베를 짜기도 했으나 옷을 만들고 이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로 짠 광목과 옥양목 같은 옷감을 시장에서 사다 쓴 것이다. 이 때부터 의생활이 삼베 위주에서 무명으로 바뀌어 갔다.

무주군은 산간지역으로 옛적부터 대마(大麻) 외에 뽕나무가 많은 곳으로 누에를 많이 기르던 곳이다. 따라서 명주를 짜는 누에치기가 매우 성행하였다. 이런 연유로 1957년 전주에 설립되었던 전북제사공장(全北製絲工場)이 1970년 무주읍 오산리로 옮겨왔고, 생사를 생산하면서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온 젊은이들이 몰려 왔다. 1976년에는 7,000여 호에 이르는 농가에서 잠견(蠶絹)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에 큰 보탬이 되는 등 호황을 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일본의 수입선이 중국으로 바뀌면서 수출길이 막혀 점차 줄어들었고, 또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아 사양길에 접어들어 현재는 거의 생산되지 않는다. 1987년에는 1,000여 호에서 누에를 쳤는데 그나마 1990년대 들어 대폭 줄어들었다. 무주군에서 발행한 1997년 ≪통계연보≫(제37회)에 따르면, 1991년 399호를 시작으로 1992년 202호, 1993년 181호, 1994년 126호, 1995년 79호, 1996년 61호까지 통계연보에 양잠가구가 기록되었으나,[5] 1998년 ≪통계연보≫(제38회)에는 그나마 양잠가구가 항목에서 제외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양잠가구는 격감하였고, 설혹 남아 있다해도 미미한 상황으로 추정된다. 누에고치는 봄과 가을에 두 차례에 걸쳐 생산되는데, 공판을 통해 판매를 하였고, 가정에서 명주실을 뽑아 명주를 짜입는 경우는 드물었다. 명주는 고급 옷일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이다.

4. 세탁(洗濯)

1950년 초반 비누가 빨래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잿물을 썼다. 잿물은 보리짚을 불에

5) 통계는 춘잠(春蠶)과 추잠(秋蠶)으로 나뉘어 파악되었으나, 같은 가구가 춘잠과 추잠을 함께 했을 것으로 여겨, 춘잠가구만 선택하였다.

태운 후 재를 큰 자루에 받아두었다가 시루에 재를 넣고 물과 함께 끓여서 독을 없앤 후에 뭉쳐서 사용한 것을 말한다. 다른 한편 잿물에 쌀겨를 쪄서 사용하기도 하고, 양잿물을 사서 쌀겨에 넣어 쓰기도 하였고, 메밀짚에 물을 받쳐서 잿물을 섞어 쓰기도 하였다. 들깨를 태운 재를 쓰기도 하였는데, 비누가 있어도 옷의 솔기 부분만 빨고 나머지는 잿물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빨래는 주로 개울에서 하였다.

우물이 집집마다 들어서는 1970년대 들어서 집에서 빨래를 하였고, 빨래 비누를 사용하였다. 1980년 중반 이후에는 세탁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낡아서 버릴 옷은 땔감으로 사용하든지, 허수아비나 걸레 또는 기저귀로 사용하였다. 일제 강점기 때에는 면사무소에 모아 두었다가 군(軍)에서 기름걸레로 썼다고 한다.

제3절 식생활(食生活)

1. 개요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자연환경이 다르고 남북 사이의 기후도 달라 지역마다 서식하는 생물이 다양하고 풍부하다. 특히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19세기 후반까지는 각 지역의 특산물로 만드는 향토색 짙은 음식법이 많았다. 지역마다 토착된 이러한 음식법을 '향토음식' 또는 '향토요리'라고 한다. 그런데 교통의 발달, 산업의 발달은 풍속상의 많은 상호교류를 가져왔다. 특히,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쪽의 음식법이 많이 전파되어 대중화되었다.

향토음식의 형태에는, 첫째 그 지방에서만 생산되는 식료품을 그 지방 사람들만이 전승하고 있는 조리법으로 요리하는 순수한 향토음식이 있고, 둘째 타지방에서 특산되는 식료품을 도입하여 조리법을 특별히 마련해서 만드는 향토음식이 있으며, 셋째 각 지방마다 만드는 음식이지만 그 조리법에 특색이 있어 묘미를 자랑하는 향토음식이 있다.

최근 지방의 음식법을 도시로 진출시키는 경향이 활발하여 전문음식점이 많이 생기는가 하면, 반대로 서울의 도시풍의 음식이 시골로 전파되어 똑같은 이름의 음식을 파는 음식점이 많아졌다. 따라서 도시와 시골간의 교류가 빈번해질수록 향토음식은,

그 특색을 잃어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향토음식은 그 생성과정이 자연발생적인 것과 문화의 교류에 따라 전파 또는 재현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음식법은 완전히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 또 사람의 손에 따라 그 조리법이 변하고 음식의 맛도 달라진다.

2. 무주지방의 음식

무주지방의 음식은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성에 맞는 기본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특색이라면, 산간지방으로 강과 하천을 끼고 있어 산에서 나는 산채(山菜)나 버섯류, 강이나 냇가에서 나는 민물고기류, 그리고 밭이나 들에서 나는 밭곡식과 들나물류에 의한 음식이 대중을 이룬다. 그렇지만 음식의 종류나 명칭이 다양하고, 조리방법도 가정마다 또는 음식점마다 차이가 있어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다.

1) 별미(別味)와 별식(別食)

어느 지역이나 계절에 맞추어 철따라 생산되는 재료를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별미로 또는 별식으로 취한다. 무주지역 역시 산에서 나는 산나물과 버섯, 강에서 나는 민물고기류에 따라 각기 다른 음식이 차려진다.

장풀이

무주지방에서 6월에 먹는 별식(別食) 중의 하나인 '장풀이'는 차가운 샘물에 날된장을 엷게 풀고 어린 열무를 씻어서 썰어 넣고 풋고추를 썰어 넣은 다음 밥을 말아서 먹는 것인데, 장풀이를 먹으면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냇가에서 고동(다슬기)를 잡아다 엷은 장국에 파나 정구지 등을 함께 넣고 끓여 먹는 '고동국'도 별식 중의 하나이다.

어죽(魚粥)

무주에서는 7월이면 6월에 이어 냇가에서 천렵을 즐기는데, 냇가에 솥단지를 걸어놓고 미역을 감으면서 놀다가 바로 잡은 민물고기를 끓여서 허기를 채우며 즐기는

음식이 어죽이다. 무주의 어죽은 민물고기를 푹 고아 그 물에 쌀을 넣어 만든 죽으로 옹기종기 모여 죽을 먹다가 불어난 입에 양이 모자라다 싶으면 다시 물을 부어 끓여서 정으로 나누어 먹는 무주의 토속음식이다.

본래 어죽에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는데, 최고의 맛을 내는 재료은 민물고기인 자가미[6]이다. 싱싱한 민물고기를 솥에 넣어 반쯤 익힌 뒤 뼈를 발라내고 다시 끓인 후 찹쌀과 고추장, 마늘, 양파, 깨, 인삼 등 무주의 산야에서 채집되고 재배되는 온갖 양념들을 넣고 죽이 될 때까지 쑤어 먹으면 된다.

무주군이 전통음식으로 지정한 어죽은 들깨가루와 수제비 등이 첨가되면서 속풀이와 수술 후 보신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어죽

본래 냇가에서 잡은 딸치나 피라미 같은 것은 초고추장과 불미나리를 준비하여 회로 먹고, 자가미나 뱀장어 등을 맑은 물에 삶아 뼈를 추려낸 다음 그 물에 된장
이나 고추장을 풀고, 쌀을 넣어 끓이면서 파·정구지·우거지 등을 넣어 끓여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죽은 바가지에 담아 물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미역을 감으면서 먹는 것이 제격이었고 한다.[7]

메밀묵

무주지방의 또 하나 별미(別味)인 메밀묵은 한겨울밤 밤참으로 유명한데, 조리 방법이 다른 지방과 다르다. 먼저 쇠뼈나 닭뼈를 물에다 넣고 메밀묵을 채 썰어 넣고 갖은 양념을 한 다음 김치고추(동치미에 담근 고추)를 다져서 넣고 김을 부숴넣어 먹는 별식(別食)이다. 이 외에도 겨울철에는 고욤과 홍시(피감), 곶감 등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먹고, 산이나 들에서 잡은 산토끼나 꿩, 참새 등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

6) 자가사리의 무주 방언.
7) 무주군지. 1088쪽.

무주지방의 음식은 산중(山中)음식이면서 전라도 특유의 음식솜씨의 영향을 받아 대체적으로 짭짤하고 매운데, 무주지방 특유의 향(香)을 내는 맛을 지니고 있어 어느 누구에게도 입맛에 맞는다.

무주 음식은 그 대부분이 산과 강 그리고 강에서 나는 재료로 만들어지고, 이에 맞추어 발달해 향토색이 짙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즉, 이 고장만의 별식(別食)인 더덕구이나 송이버섯을 비롯한 각종 버섯음식과 취나물·곤달비·드릅·고사리 같은 산채류, 민물고기조림·어죽·고동국·굴밤묵·메밀묵·장풀이 등 이 지역에서 나는 산물(産物)에 의한 전통음식이 아직은 그 맥을 잇고 있다.

2) 향토지정 및 모범 음식점[8)]

무주군에서 지정한 향토지정 음식점은 모두 8곳(무주읍 4, 설천면 2, 안성면 2)인데, 주메뉴를 보면 민물어죽 1, 마칼국수 1, 한정식 1, 민물매운탕 2, 산채정식 2, 추어탕 1 곳이다.

민물매운탕은 금강 상류의 맑은 물에서 서식하는 쏘가리·메기·자가미(자가사리) 등에 시래기·파·미나리 등의 양념을 넣어 요리한 것으로 고기 맛이 담백하고 국물이 얼큰하다. 마칼국수는 생마를 갈아서 밀가루·달걀흰자·식용유·소금을 놓고 반죽하여 면을 뽑고 표고버섯·당근·양파·마늘·생강 등과 함께 다슬기 육수에 끓인다.



민물 매운탕

마칼국수는 각종 질병 예방에 좋고 소화흡수도 잘되는 건강식품이기도 하다.

산채정식은 덕유산에서 자라는 취나물·고사리·두릅·참나물 등 6종류 이상의 산채에 참기름을 무쳐 조리한 음식으로 향긋한 산채향기와 특유의 빛깔을 낸다.

이와 함께 모범음식점으로 15곳(무주읍 6, 무풍면 2, 설천면 4, 적상면 2, 안성면 1)이 있는데, 주메뉴를 보면, 불낙전골, 곱창전골, 산오리, 갈비탕, 고추장불고기, 삼겹살, 버섯전골, 오리고기주물럭, 콩나물국밥, 아구찜, 돼지갈비, 김치찌개백반, 소갈비살, 낙

8) 무주군, 제7회(2003년) 무주반딧불축제 팜플렛.

지전골, 닭백숙, 산채정식, 산더덕백반, 오미자냉면, 한우등심, 청국장, 한정식, 애저, 추어탕 등으로 다양하다. 이 중 산더덕백반과 오미자냉면 등은 무주라는 지역적 특징을 나타내는 음식이라 하겠다.

3) 고서(古書)를 통해서 본 무주의 의식(衣食) 재료

≪세종실록지리지≫
- 땅은 메마르고 기후는 바람이 있어 일찍 춥다.
- 개간한 땅은 1,501결(結)인데, 논은 그 중에 9분의 2이다.
- 산물(産物)은 오곡(五穀),9) 뽕나무, 삼, 감, 호도, 왕골.
- 조정(朝廷)에 바치는 토산물(土産物) : 족제비털, 옻, 꿀, 밀랍, 지초, 배, 얼룩무늬 삵괭이 가죽
- 약재(藥材) : 백복령, 녹각, 아교, 모과, 당귀, 맥문동, 인삼

≪신증동국여지승람≫
- 풍속(風俗) : 해를 거듭하여 민업(民業)이 황량(荒凉)하니 상수리와 밤을 저장하여 양식으로 삼네.(정인지의 詩)
- 토산(土産) : 송이버섯, 석이버섯, 잣, 오미자. 옻, 뽕나무

≪무주부읍지≫
- 풍속 : 상수리와 밤을 저장하여 양식으로 삼고, 꾸밈없이 순박함은 습관된 풍속이다.
- 산물 : 시우쇠(正鐵), 꿀(蜂蜜), 석이버섯(石茸), 인삼(人蔘), 닥나무(楮), 오미자(五味子), 당귀(當歸), 황기(黃九), 목화(木花)
- 진공(進貢) : 산꿩(生雉), 산돼지(生猪, 꿀(淸), 곶감(乾柹), 배(生梨), 말린 꿩고기(乾雉), 홍시(紅柹, 잣(柏子), 햅쌀(新稻米), 보리쌀(大麥米), 밀(小麥米), 민부태(白貼扇), 기름먹인 부채(白油別扇)

[집필 : 무주향토사연구회]

---

9) 쌀·보리·조·콩·기장

제4절 무주의 가옥과 주거생활

1. 개요

“집은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흔히 이야기한다. 그릇의 모양이 그 속에 담겨질 내용물에 따라 다르듯이 생활이 다르면 집도 다르다. 집 속에는 그들만의 생활과 문화가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집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의 생활과 문화를 알아야 하고 역으로 집을 통해 그 시대의 문화와 생활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의 모습은 인간의 삶이 다양하듯이 다양한 양상을 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도 경제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 여러 유형이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주거는 기후적 환경에 따라 남부형, 중부형, 북부형 등으로 나뉘어 진다. 남부형은 비교적 따뜻한 기후로 인해 홑집형이 많고, 북부형은 실들이 두 줄로 놓여진 겹집형 평면이 많다.

전라북도는 지리적으로 남부지방에 속하지만 노령산맥을 경계로 동부 산악지대와 서부 평야지대로 자연환경이 확연히 구별된다. 동부 산악지역은 서부 평야지대에 비해 연교차가 심하며 강우량도 많다. 특히 년 평균기온이 2~4℃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겨울이 길고 적설량도 전라북도 전체 평균보다 4cm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환경은 오랫동안 민중의 생활과 밀착되어 각각의 독자적인 문화권을 이루었다. 주거의 모습도 서부평야지대는 남부형 홑집이 주류를 이루는데 비해 동부산악지대는 홑집 외에 추운지역에서 주로 지어지는 반겹집 또는 겹집형 주거도 같이 존재하고 있다.

2. 무주군의 자연환경

무주는 진안, 장수와 함께 동부산악지대에 속한다. 지리적으로 전라북도 최동북단의 소백산맥 서사면에 위치하며 서쪽은 진안군, 장수군과 인접해 있고, 동쪽은 경북 김천시, 경남 거창군, 북쪽은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과 접하여 도계를 이룬다.

우리나라 내륙지방 중에 가장 중심부를 점유한 산악지대로서 동쪽은 해발 1,000m 이상의 산만 해도 10여 곳이 넘고, 서쪽은 갈수록 고도가 낮아져 평균 300m 정도의

고도를 형성하고 있다. 전면적의 84%가 임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논 보다는 밭이 주류를 이루며 호당 평균경지면적이 1.26ha[1]로 서부 평야지대 및 타 군에 비하여 농경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주 농작물로는 산간마을의 지리적 환경에 맞추어 쌀, 보리 등 주곡 외에도 잡곡, 인삼, 버섯, 약초, 엽연초 등을 많이 재배하며, 1970년대 이후 고지대에서는 고랭지 채소나 과일 등을 재배하고 있다. 지금도 전세대수의 약 50% 정도가 농업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농가의 경제적 규모는 중소농에 속한다. 그들의 주거 또한 경제적 규모에 따라 대부분이 소박한 농가의 모습을 하고 있다.

3. 산간지역 주거의 특징과 무주군의 주거환경

무주군에는 건립 년대가 100년이 넘는 오래된 전통가옥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는 한국전쟁 때 관내 전 지역이 피해를 입은데 기인하며 비교적 오래된 집이라 해야 50～60년 된 집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민중의 삶이 오랫동안 큰 변화 없이 이어져 내려오듯이 그들의 가옥 또한 근대에 지어졌다 해도 전통적인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가옥들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붕개량사업으로 초가에서 시멘트기와 또는 슬레이트 등으로 지붕 재료가 변하였다. 부엌도 난방 방식의 변화와 편리성을 추구함에 따라 입식화 되는 등 부분적인 변화가 있지만 전체적인 구조와 기술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



1980년 당시 송봉갑 가옥



지붕개수된 송봉갑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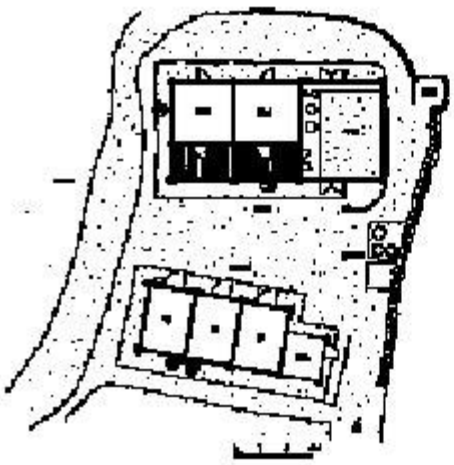
무주군내의 농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살림방이 있는 안채와 안마당, 헛간채 또

1) 2002, 제 42회 통계연보, 무주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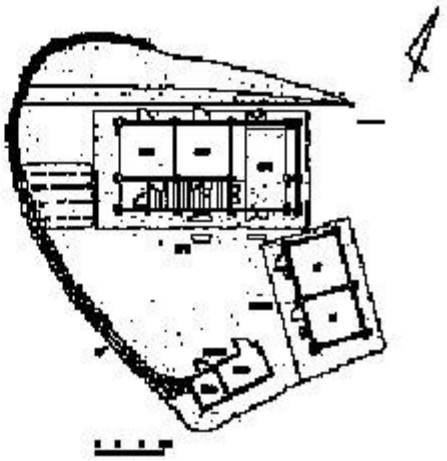
는 부속채로 이루어져 있다. 대부분 집들은 이처럼 안채와 방이 딸린 헛간채로 이루어진 쌍 채로 존재하지만 가끔 외채나 세 채로 구성되기도 한다.

쌍채집일 때는 마당을 사이에 두고 안채와 아래채가 마주하는 두이자형(二) 배치를 하거나 안채와 아래채를 ㄱ자형으로 배치하여 마당을 구성한다. 또한 세채집은 안채+아래채+헛간채 또는 문간채가 마당 주위로 ㄷ자형으로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농가의 배치모습



설천면 삼공리 양공호가옥



설천면 삼공리 유용화 가옥[2]

이처럼 각 채가 마당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것은 우리 주거에서 마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양건축은 건물이 중심인데 비해 우리 건축은 마당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주거에서 마당은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공간이기도 하며 외부와 내부공간을 연결해 주는 통로 역할을 수행한다. 방과 대청 등 모든 실의 출입이 마당에서 직접 이루어지며 앞뒤 마당을 통해 부엌에서 우물과 장독대로 연결되어진다. 집안 내부에 채광과 통풍도 마당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고, 장례와 혼례 등의 의식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마당은 다양한 기능을 담기 위해 정원으로 꾸미지 않고 비워두는 것이 원칙이다. 상류주거의 경우는 집이 여러 채로 이루어짐에 따라 마당도 여러 개로 분리

2) 도면출처, 문화재연구소, 민가조사보고서(전남, 전북편), 1994

되어 있다. 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 별당마당, 문간마당 등이 그것인데 각 마당은 안채와 안마당, 사랑채와 사랑마당, 행랑채와 행랑마당처럼 항상 채와 같이 한다.

상류주거는 이와 같이 채(棟)의 분화에 따라 마당도 분화되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보통의 민가들은 안마당과 바깥마당(옆마당)으로 나뉘어 지거나 안마당이 다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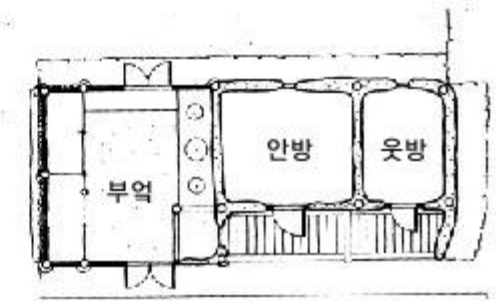
특히 무주와 같은 산간마을은 집들이 비교적 경사가 급한 산비탈에 자리하기 때문에 마당의 구성이 평지 농가에 비해 협소하며, 바깥마당이 따로 마련되지 않고 안마당이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진입의 방식도 전면보다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옆마당(샛마당)이 있는 경우도 있다. 집 주위는 싸리울이나 돌담을 둘러 영역을 구획하였고, 뒤쪽은 축대를 쌓아 뒤안을 구성한다.

안채 뒤의 뒤안 공간은 아녀자들의 공간이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직접 들어갈 수 없으며 부엌이나 안방, 대청 뒷문을 통해서 출입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대나무 등과 같은 나무들을 심어서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으며 외부와의 시계를 차단하여 준다. 평지의 집들은 넓게 뒤뜰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산간마을의 가옥들은 뒤안이 좁으며 부엌 문 가까이에 장독대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안채는 부엌, 안방, 웃방으로 구성된 3칸집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앞 퇴는 흙바닥인 토방으로 그냥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마루를 시설하여 툇마루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3칸 전퇴집은 평면 한쪽에 칸 반 크기의 부엌을 배치하고 가운데에 안방과 반대쪽에 웃방을 각각 한 칸 크기로 만들고 그 앞의 툇칸에 툇마루 또는 토방을 마련한다. 이런 집은 무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부 평야지대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농촌지역 소농의 보편적인 살림집 모습이다.



안성면 진도리



3칸 전퇴집 (진도리 김영돈 가옥)

그러나 산간지역에서는 웃방 앞에 조그만 상방 혹은 뒤에 도장을 두어서 방을 앞뒤로 나누어 쓰는 반겹집 소위 도장집이 눈에 띈다. 도장집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산악지대에 분포한다. 평면구성은 전술한 3칸집과 유사하나 살림방인 웃방이 앞뒤로 나뉘어 도장이나 사랑방으로 나뉜다. 즉 웃방의 접대기능과 수장기능이 각각 필요한 가에서도 사용되었던 구조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교한 기술이나 특별한 도구 없이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의 산간지역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구조이며, 지금도 설천면 삼공리 등 산간마을의 일부 집과 헛간채 등에 그 모습이 남아 있다.

공간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겹집과는 뒤에 놓인 실이 아직 완전히 독립된 방으로서 형태와 기능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지만 일부 집들은 부엌의 앞 또는 뒤에 부엌방(모방)을 두고 작은방 뒤에 한 칸의 도장방을 시설하여 완전한 겹집의 구조를 보여준다. 집들이 이처럼 겹집화되는 것은 산간지방의 기후적 영향이다.



3칸 도장집(설천면 삼공리 송봉갑가옥)

또한 산간마을 주거의 특징으로는 귀틀집을 들 수 있다. 산간마을에서는 목재가 흔한 관계로 집을 지을 때 나무를 정자(井)형으로 귀를 맞추어 쌓아올려 벽을 만든다. 지름 15cm~25cm 정도의 통나무를 양끝에 홈을 내어 엎을장, 받을장으로 결구하여 네 귀를 짜고 나무와 나무사이 틈새는 진흙으로 안팎을 메워 벽을 구성한다. 언제부터 귀틀집을 지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삼국지≫ 위지 동이전 변진조의 기록으로 볼 때 일찍이 초기고대국가에서도 사용되었던 구조방식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교한 기술이나 특별한 도구 없이도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우리나라 전역의 산간지역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구조이며, 지금도 설천면 삼공리 등 산간마을의 일부 집과 헛간채 등에 그 모습이 남아 있다.


귀틀구조(송봉갑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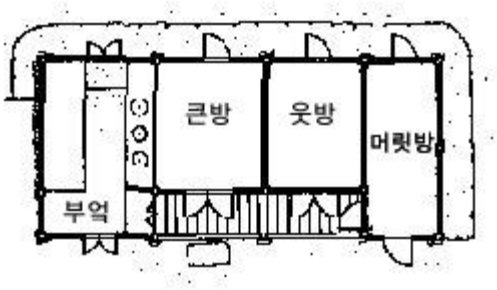
그러나 귀틀집은 벽체의 구조를 지칭할 뿐 지붕의 재료와 형식은 다양한 모습이다. 강원도 산간마을에서는 나무 판재 또는 나무껍질로 지붕을 이어 너와집과 굴피집을 짓기도 하고 지붕의 형식도 우진각집, 까치구멍집, 맞배집 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무주의 가옥들은 볏짚을 이은 초가지붕이 주를 이루었다. 산간마을의 일부 집들은 산에서 나는 억새로 지붕을 잇기도 했다. 샛집은 초가지붕의 수명이 1~2년인데 비해 한번 이으면 적어도 20~30년을 지탱할 수 있다. 초가지붕 보다 지붕의 구배가 심하며 볼륨도 매우 커서 외형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80년대 초만 해도 몇 채의 샛집이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초가지붕도 구경하기 힘든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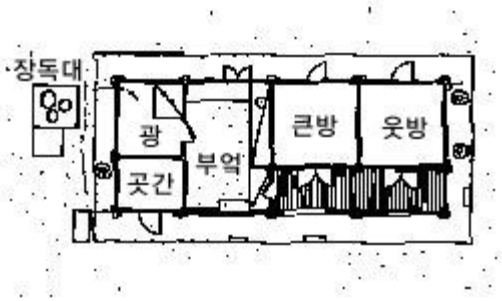
지금은 초가 대신 슬레이트 지붕이 주종을 이룬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새마을 사업 이후 시작되어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이 지붕재료로 사용하였다. 지붕의 모습은 안채의 경우 합각지붕과 우진각지붕이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헛간채는 맞배지붕이 주류를 이룬다. 아직도 소농들의 집에서는 지붕을 제외하고 집들의 주 구조나 기술은 원시적 수법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 집들은 안채와 별도로 손님접대와 남자들의 기거공간으로 쓰이는 아래채 또는 사랑채를 두기도 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세 채로 집이 구성되지만 쌍 채의 집도 있다. 안채는 모두 살림간으로 쓰고 아래채는 방과 헛간을 들이거나 사랑방과 그에 딸린 사랑부엌 또는 대문간으로 이용하고 헛간채를 따로 갖는 모습이다.

이들 집은 안채가 3칸집 보다 규모가 큰 한일자형 4칸집이 보통이다. 간살은 부엌이 오른쪽부터 시작하여 안방, 웃방(작은방), 건넌방 순으로 배치되며 안방과 웃방 앞에 마루를 놓고 건넌방 앞에는 가마부엌을 꾸민다. 또한 안방에서부터 건넌방 앞까지 마루를 놓기도 하고, 3칸 도장집과 같이 건넌방 뒤에 도장 또는 별도의 작은 부엌을 만들기도 한다.



설천면 삼공리 김용조 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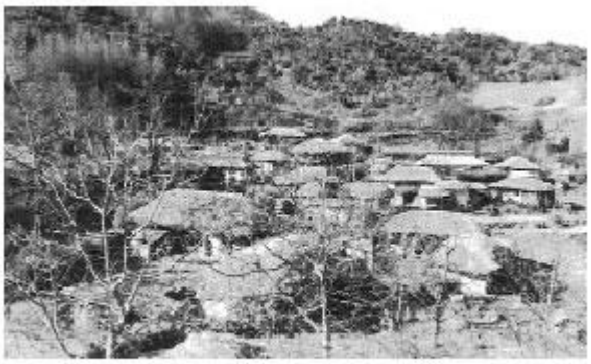
설천면 삼공리 황중식 가옥[3]

3) 도면출처, 문화재연구소, 민가조사보고서(전남, 전북편), 1994

남도지방의 일반적인 4칸집 이라면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대청을 두지만 산간마을의 집들은 대청 대신 구들을 시설하여 방을 만드는 것이 보편적이다. 산간지방에서 가끔 보이는 평면으로는 3칸 도장집의 평면에 부엌 옆으로 한 칸을 연장하여 전면에 모방(아랫방)을 들이거나 광 등 수장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규모가 있는 집에서는 바깥주인이 기거하며 손님들을 접대할 수 있는 반듯한 사랑채를 짓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중남부 지역 중소 농의 집들은 안채 보다 간략한 구조의 아래채를 둔다. 이곳에는 반드시 아랫방을 만드는데 아랫방은 주로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잠자리로 이용되며 또한 큰 아이 공부방 등으로 이용되었다. 규모에 따라 방의 수가 다르며, 여기에는 별도의 부엌과 곡식, 농기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와 헛간 등이 덧붙기도 한다. 농가에서 헛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아래채 또는 문간채에 헛간을 덧붙이거나 마당 한 쪽에 별도로 헛간채를 만든다. 헛간채는 헛간, 잿간, 변소 등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 원시적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지붕만 슬레이트로 바뀌었다.

하지만 아직도 가옥 곳곳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 삶의 모습이 느껴진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평야지대의 농촌마을보다 변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산간마을도 정보통신의 발달과 보다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욕구로 점차 가옥을 개조, 개량하는 추세이다.



설천면 당골마을 옛모습[4]

또한 마을 내에 현대식 농촌주택이 지어지면서 그 변형이 외부적 환경에까지 확대되어 전통적인 마을의 경관도 점차 잃어 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1975년 국립공원지정 이후 관광지 개발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무주읍과 설천면소재지 등에서는 80년대 이후 현대화된 단독주택의 건립이 본

4) 사진출처, 문화재연구소, 민가조사보고서(전남, 전북편), 1994

격화 되면서 타 도시와 같이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 다세대주택 및 비거주용 건물 내에 주거시설 즉 저층 주상복합건물이 늘어남과 함께 고층 공동주택 시설인 아파트가 건립되었으며, 2001년에는 무주읍에 300세대의 대규모 반딧불 아파트가 건립되어 도시적 삶을 영위하고 있다.

[집필 : 홍승재]

제5절 세시풍속

무주군은 본래 백제의 영역이었던 주계(朱溪)지역의 무주읍과 적상면, 역시 백제 영역으로 금산(錦山)에 속하던 안성면과 부남면 그리고 설천면 지역이 신라 영역이었던 무풍면과 통합된 관계로 지역마다 풍속(風俗)에 있어서 다른 면이 있었겠으나 오늘날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다.

본 글은 1990년 발간된 ≪무주군지≫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참고로 2002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전라북도 세시풍속≫를 발간하였는데, 무주군에서는 무주읍 내도리 산의실 마을, 적상면 사천리 서창 마을, 설천면 심곡리 원심곡 마을이 조사되었다. 그러나 신라권, 즉 경상도권에 속하였던 무풍면, 백제권에 속하였던 설천면이나 무주읍·적상면, 같은 백제권이었지만 오랜 기간 금산군에 속하였던 안성면과 부남면 지역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편집자 주]

1. 정월(正月)풍속

1) 설날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음력 정월 초하룻날을 한 해의 첫날이라 하여 원단(元旦), 원일(元日), 정조(正朝), 세수(歲首), 년수(年首) 등으로 불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설 또는 설날이라 부른다. 세수나 년수란 말은 한 해의 머릿 날 즉, 새해의 첫날이란 뜻으로 한자로는 신일(新日)이라 하였다. 또한 근신(謹愼)이라 하였는데, 이는 경거망동을 삼간다는 뜻도 있다.

○ 설빔

설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미리 마련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설빔이라고 한다.
설빔은 남녀노소(男女老少)를 막론하고 잘 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 구분없이 새 옷을 입는데, 자기 분수에 맞도록 마련하였다. 특히 어린이들은 색동옷 등 설빔을 기다리며 섣달 그믐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기도 하였다.

○ 정조 차례(正祖茶禮)

설날 아침 일찍이 원근(遠近)의 자손들은 종가(宗家)에 모여 세찬(歲饌)과 세주(世酒)를 사당에 차려놓고 조상에게 제(祭)를 올리는데 이것을 정조 차례라고 한다.
가묘(家廟)가 있는 집안은 사당에서, 가묘가 없는 집안에서는 제청(祭廳) 또는 대청(大廳)에 세찬을 차려놓고 부모에서 고조(高祖)부모에 이르기까지 사대조(四代祖)의 신주(神主)를 모셔서 다례를 올리는데 제수(祭需)는 반(飯)대신 떡국을 올린다.

○ 세배(歲拜)

차례가 끝나고 어른에게 새해 첫 인사를 드리는 것을 세배라고 한다. 세배는 그 집안의 제일 윗 어른에게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한다. 그 날의 세찬으로 아침 식사를 마치면 일가친척과 이웃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올리는데, 세배를 받은 집에서는 그 집의 세찬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돈을 주기도 하는데 이 돈을 세배돈이라고 한다. 그러나 5년여 전부터 세배 올리는 풍습이 점차 사라졌다고 한다.

○ 덕담(德談)

설날 세배를 하거나 길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과세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금년에는 꼭 소원성취해라” 등 서로 나누는 인사말을 덕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서로의 축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 세찬(歲饌)

설날 다례를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는데, 이를 세찬이라고 한다. 세찬 중에는 어느 집이나 떡국을 만드는데, 떡국에 쓰일 떡은 멥쌀로 가루를 내어 찐 다음 떡판 위에 올려놓고 장정들이 떡매로 쳐서 가래떡을 빚는다. 그런 다음 칼로 썰어 흰 떡국을 끓인다. 떡국을 먹어야만 한 살 더 먹었다고 한다.

떡국에 쓰는 고기는 원래 꿩고기를 사용하여야 하나 꿩을 잡기가 어려우므로 닭고기를 쓰기 때문에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닭고기보다 쇠고기 국물에 떡을 넣고 끓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떡국은 차례에도 쓰이나, 그 날 집에 찾아오는 손님 대접에도 사용된다. 또한 증병(甑餠)이라고 하는 시루떡도 만드는데, 이 떡은 신에게 바치는 제사용으로 쓰인다.

○ 세주(歲酒)

세주는 설날에 쓰기 위하여 만드는 찬술을 말한다. 찬술은 새봄을 맞이한다는 뜻이 있으며, 옛날에는 가정에서 주부들이 직접 담가서 세주로 썼다. 이 날 찾아오는 손님 대접용으로도 사용한다.

○ 복(福)조리

섣달 그믐날 밤 자정이 넘으면 이른 새벽까지 어두운 골목길에서 “복조리 사려” 하는 복조리 장사 소리가 들린다.

복조리는 정월 초하룻날 새벽 일찍 사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여 복조리 장사의 소리가 들리면 각 가정에서는 자다가 일어나 1년 동안 쓸 조리를 사는데, 이 조리는 방문 위에 달아 놓는다.

2) 정초의 풍습

○ 야광귀(夜光鬼) 쫓기

설날 밤에는 야광귀라는 귀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제 발에 맞는 신발을 찾아 신고 간다고 한다. 그런데 신발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해 1년 동안 재수가 없다고 하여 신발을 감추거나 신발을 엎어놓기도 하며, 어떤 집에서는 대문이나 사립문을 일찍 걸어 잠그고 금줄을 치기도 한다. 그리고 어떤 집은 채를 마루 위에 걸어 놓기도 하는데, 그것은 야광귀가 찾아와서 채 구멍을 헤아리다가 아이들의 신발을 훔칠 것을 잊고 닭이 울면 도망치기 때문이라고 한다.

○ 날짜 따지는 풍습 정월 초하루부터 12월까지는 간지(干支)를 따져서 기원(祈願)이나 액(厄)맥이를 하는 풍습이 있다.

■ 상자일(첫 쥐날)

정월의 일진(日辰) 중 첫 번째 자일(子日)을 상자일(上子日)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쥐를 없애는 액맥이의 날로 자시(子時)에 절구질을 하면 쥐가 없어진다고 한다. 농부(農夫)들은 논과 밭두렁을 태우면 쥐가 없어진다고 하여 쥐불놀이가 전래되었다고 한다.

■ 상축일(첫 소날)

정월의 일진 중 첫 번째 축일(丑日)을 상축일(上丑日)이라고 하는데, 이 날은 소달기의 날이라 하여 소를 부리지 않고 콩을 삶아 먹여 살찌게 한다. 농부들은 이 날 연장을 만지면 쟁기나 보습이 부러지고, 방아를 찧으면 소가 일할 때 힘이 빠지거나 기침을 한다고 하여 삼간다.

■ 상인일(첫 호랑이날)

정월의 일신 중 첫 번째 인일(寅日)을 상인일(上寅日)이라고 한다. 이 날은 다른 사람과의 왕래를 삼가는데, 특히 여자들은 외출을 삼간다. 이 날 남의 집에 가서 용변을 보면 그 집 식구 중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호환(虎患)을 당한다고 하여 근신한다.

■ 상묘일(첫 토끼날)

정월의 일진 중 첫 번째 묘일(卯日)을 상묘일(上卯日)이라고 한다. 이 날은 집안의

남자가 일찍 일어나 먼저 문을 열어야 그 해 1년 동안 가운이 융성해진다고 하며, 여자들은 바느질을 하면 장수한다고 한다.

■ 상사일(첫 뱀날)

정월의 일진 중 첫 번째 사일(巳日)을 상사일(上巳日)이라고 한다. 이 날은 머리를 깎거나 머리를 빗으면 뱀이 집안으로 들어와 화를 입게 된다고 하여 삼간다.

■ 상유일(첫 닭날)

정월의 일진 중 첫 번째 유일(酉日)을 상유일(上酉日)이라고 한다. 이 날은 부녀자들이 바느질을 하거나 길쌈을 하면 손이 닭발처럼 보기 싫게 된다고 하여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 상해일(첫 돼지날)

정월의 일진 중 첫 번째 해일(亥日)을 상해일(上亥日)이라고 한다. 이 날은 얼굴과 살결이 검은 사람은 왕겨나 콩깍지로 문지르면 살결이 희고 고와진다고 한다.

■ 초칠일(초 이렛날)

정월 첫 번째 7일은 사람 날이라고 한다. 이 날 외박하면 그 해의 운이 좋지 않다고 하며, 생떡국을 끓여 먹으면 액맥이를 한다고 한다.

■ 초팔일(초 여드렛날)

정월 첫 번째 8일은 곡식날이라 한다. 봄에 심을 곡식을 준비하면 풍년이 들고, 콩을 볶으면서 "새삼 볶자"하고 외치면 콩밭에 새삼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 대보름 전날 풍습

대보름 전날에 오곡(보리·좁쌀·팥·멥쌀·수수)밥을 지어먹으면 그 해의 운이 좋다고 하여 잡곡밥을 지어먹는다. 우물에 물이 나지 않으면 이 날 밤에 물이 많은 우물 세 곳을 찾아 그 물을 길어다 부으면 우물물이 잘 난다고 한다.

그 해 신수가 나쁘거나 자녀가 귀한 사람은 선행을 하면 액을 면할 수 있다고 하여 다리가 없는 개천을 찾아 이 날 밤 남모르게 다리를 놓거나 오쟁이(오장치)에 돌을 담아 냇가에 징검다리(노두·노두독)를 놓기도 한다.

또한 이 날 밤에 생팥이나 삶은 팥을 한 줌 가지고 밭에 나가 제 나이 숫자대로 묻으면서 "미생아 올해 배 아프고 머리 아픈 것을 모두 가져가라"하고 빌면, 그 해에는 무병(無病)하다고 믿었다. 이날 밤 소나무를 베어다가 마당 한 복판에 세우고 그 위

에 짚을 묶어 쌓아서 깃대 모양을 만든 다음 여러 가지 곡식의 이삭을 꽂고 목화를 늘어놓았다가 2월 초하룻날 일찍 철거하면, 그 해의 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낫가릿대를 세우는 풍습도 있다.

3) 정월 대보름

이 날은 오랜 옛날부터 전해오는 우리 민족의 명절로 여러 가지 풍습이 있다. 그러나 도시화의 물결이 농촌에까지 밀려오고 농촌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대보름 행사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차(車)고사'이다. 언제부터인가 농촌에서도 1가구에 1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게 되면서 각종 사고가 빈번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차량 사고를 겪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대보름날 아침에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넓은 공터에 동네의 모든 차량을 모은 뒤, '차고사'를 지내는 것이다. 물론 연중 무사고를 기원한다.

○ 부럼 깨기

정월 대보름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 호도, 잣, 은행 등을 깨무는 것을 부럼이라고 한다. 부럼을 깨물면 1년 동안 부스럼이 나지 않고 이가 단단해 진다고 전해온다. 과실을 제 나이 수대로 깨물기도 하나 단번에 깨무는 것이 좋다고 한다. 첫 번째 깨문 것은 마당에 버리며 "1년 동안 무사태평하고 만사가 뜻대로 되며 부스럼 타지 말아라"하고 기원한다.

○ 귀밝이 술

정월 대보름날 아침 일찍 술을 마시면 귀가 밝아진다고 하여 이를 이명주(耳明酒)라고 하는데, 귀밝이 술은 데우지 않고 찬 술로 마신다. 귀밝이 술을 마시면 1년 동안 좋은 소식만 듣게 된다고 하여 부녀자들도 마신다.

○ 더위 팔기

이 날은 해 뜨기 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웃 친구에게 찾아가 더위를 파는 풍습이 있다. 친구 집에 가서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내 더위 사라"하면 더위를 팔았다고 하는데, 친구가 먼저 "내 더위 먼저"라고 대답하면 오히려 더위를 사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상대방 이름을 불렀을 때 “내 더위 먼저”라고 소리가 나면, 즉시 “네 더위 내 더위 맞 더위”라고 하면 서로 비긴 격이 된다고 하는데, 이 날 더위를 팔면 1년 동안 더위를 먹지 낳는다고 믿는 풍습이 있다.

○ 약밥

이 날은 약밥을 먹는데, 그 유래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488년(신라 소지왕 10) 임금이 천천사(天泉寺)를 가게 되었는데, 천천사의 담에서 까마귀와 쥐가 임금을 바라보며 울더니 쥐가 말하길 “저 까마귀 가는 곳을 따라가 보아라”하고 어디론지 사라졌다. 임금은 기이하게 생각하고 기사(騎士)에게 까마귀가 가는 곳을 따라가 보도록 명령하였다.

기사가 까마귀를 따라 가는데 남산 벽촌이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그런데 난데없이 두 마리의 돼지가 서로 엉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구경하게 되었다. 그 사이 까마귀가 간 곳을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다가 서생지라는 연못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백발노인이 나타나 기사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고 사라졌다.

기사가 그 편지를 받아 겉봉을 보니 “開見二人死 不開一人死”라. 즉 “이 편지를 펴보면 두 사람이 죽게 되고, 이 편지를 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게 된다”라는 내용이었다.

기사는 급한 마음으로 임금에게 달려가 편지를 전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죽는 것 보다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하고 그 편지를 펴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일관이 아뢰기를 “두 사람이라고 함은 서민을 말함이요, 한 사람이라고 함은 임금님을 뜻함이오니 펴 보십시오”라고 권하여 그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어보니, “사금갑(射琴匣)” 즉 “거문고 갑을 쏘아라”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에 임금은 활통을 메고 거문고가 있는 후궁(後宮)의 처소로 달려가 거문고 갑을 활로 쏜 다음 그 갑을 열었다. 그러자 내전에서 불공을 드리던 중이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었다. 후궁을 국문(鞫問)하여 중과 후궁이 내통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이 날 밤 후궁은 중과 같이 놀아나다가 갑작스럽게 임금이 나타나므로 거문고 갑 속에 숨겼다. 그리고 틈을 보아 임금을 살해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후궁을 처형하였다. 그러므로 임금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방을 들어갔더라면, 임금은 그 날 밤 꼼짝없이 시해(弑害)당할 뻔 했는데, 그 날이 바로 정월 보름날이었다. 이 때부터

상해일(첫 돼지날)과 상자일(첫 쥐날)을 꺼려하게 되었고 조심하는 풍습이 생겼다.
그 후로는 매년 정월 보름이 되면, 까마귀에게 보은(報恩)하는 뜻으로 오기일(烏忌日)이라 하여 까마귀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그 후로 찰밥을 지어 들에다 펴놓고 "고시래"라고 하는 풍속이 생겼다고 한다. 그 찰밥은 지금의 약밥으로 찹쌀에 대추, 밤, 꿀, 잣 등을 섞어서 시루에다 찐 밥으로 색깔이 검붉게 빛이 나고 맛이 달아 오랫동안 두고 먹기도 한다.

○ 달맞이
정월 대보름 저녁에는 뒷동산에 올라 떠오르는 달을 맞이한다. 이날 밤 동녘 하늘에 보름달이 떠오르면, 달집에 불을 붙인 다음 횃불을 땅에 꽂아 놓고 두 손을 모아 농민은 풍년을, 도령은 과거급제를, 처녀 총각은 시집장가 가기를 마음속으로 빌며 소원성취를 기원한다.
또한 이날 밤 달빛이 희면 비가 많이 오고, 달빛이 붉으면 가뭄이 온다고 하며, 달빛이 진하면 풍년이, 달빛이 흐리면 흉년이 온다고 점치면서 진한 빛깔의 둥근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린다.

○ 나후직성(羅喉直星)
사람의 나이에 따라 그 해의 운수를 맡아 본다는 아홉 개 직성 중의 하나가 9년 만에 한번씩 돌아온다고 하는데, 남자의 경우는 10년째이며 여자는 11년째 해당하는 것을 나후직성이라고 한다.
남·녀의 나이가 나후직성에 들게 되면 추령(芻靈)이라고 하여 짚으로 사람의 형태를 만든 다음, 나후직성에 든 사람의 옷을 입히고 그 안에 돈과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을 쓴 종이를 넣어 열 나흗날 밤 길에 내다 버리게 되는데, 이것은 처용(處容)이라고 한다.
처용의 유래는 신라 헌강왕 때 동해용왕의 아들에서 유래된다고 한다. 나이가 해와 달라 직성을 만나는 사람은 종이를 해와 달 모양으로 오려서 나무에 끼워 지붕 용마루에 꽂아 두며, 또한 달이 뜰 때 횃불에 불을 붙여 달맞이를 하기도 한다. 또 물의 직성을 만나는 사람은 종이에 밥을 싸서 밤중에 우물 속에 넣기도 하는데 이것은 모두 액운을 때우는 것이다.

나후직성을 가장 꺼려하는 어린이들은 겨울부터 나무로 만든 호로(胡蘆) 세 개를 차고 다니는데, 그 빛깔은 청, 홍, 백 3색으로 마치 까치콩 모양이다. 이것을 채색실 끈으로 차고 다니다가 정월 열 나흗날 밤중에 남 몰래 길에다 버리면 액을 막게 된다고 하는 풍습이 있다.

○ 답교(踏橋)

보름날 밤 남녀노소가 식구들끼리 또는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강이나 개천에 놓여 있는 다리에 나와서 자기의 나이대로 다리를 밟는데, 이것을 답교라 한다.

다리 밟기는 자기의 나이대로 다리를 건너갔다 왔다 한다. 그런데 다리 건너편에서 나이 수에 걸리면, 돌아올 때는 다리를 밟을 수가 없어서 물을 건너 돌아오기도 한다. 이 풍습은 고려 때부터 모든 병을 물리친다는 뜻에서 성행된 민속이다.

○ 기타 잡풍(雜風)

정월 보름날에는 여러 가지 풍습이 전해오는데, 복삼이라 하여 김으로 밥을 싸서 먹기도 하고, 오곡밥을 지어서 이웃끼리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한다.

또한 이 날은 개에게 밥을 먹이면 여름에 파리가 많아진다고 하여 밥을 주지 않는데, 우리의 속담에 “개 보름새듯 한다”라는 말이 있다. 이날 과일나무 가지진 곳에 돌을 끼워두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수(嫁樹)라 하여 과일나무 시집보내기라고도 한다.

밤중에 한 자가 넘는 나무를 마당 가운데 세워놓고 달빛이 자정이 될 때 그림자를 재어서 그림자 길이가 여덟치가 되면 대풍이 온다고 하고, 일곱치에서 여섯치면 집안이 길하고, 다섯치면 불길하며, 네치면 수해나 해풍이 심하다고 하고, 세치가 되면 곡식이 익지 않아 흉년이 든다고 점친다.

또 재를 주발에 담아서 지붕 위에 얹어놓으면 어떤 곡식의 씨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데, 아침에 그 곡식을 보면 그 해는 그 곡식이 풍작이 든다고 믿는다.

새벽에 처음 우는 닭소리를 기다렸다가 그 우는 횟수를 헤아려서 열 번 이상이면 풍년이 든다고 한다. 또한 콩 열두 개에 열두 달을 표시하여 수수깡 속에 넣고 묶어서 우물 속에 넣어 두었다가 보름날 새벽에 꺼내보고 콩알이 불고 안 불은 것에 따

라 길흉을 점치기도 하였다. 이것을 월자(月滋)라고 하여 동네 안의 가가호호대로 콩을 골라 각 호주의 성명을 표시하고, 짚으로 묶어서 우물에 넣었다가 보름날 새벽에 꺼내어 어느 집에 풍년과 흉년이 드는가를 점쳐보는 것을 호자(戶滋)라고 한다.

4) 정월의 점치기

정월에는 신년 신수를 가리기 위해 점을 치는 사람이 많다.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가족들의 1년 신수를 물어보고 재액이 있다면 그 액맥이 굿을 하기도 한다.

또한 토정(土亭) 이지함(李之函)이 만든 한 해의 길흉화복을 예언한 '토정비결(土亭秘訣)'을 보면서 운수를 점치고, 윷점풀이 책을 놓고 윷을 치기도 하는데, 이것은 꼭 믿어서가 아니라 옛 우리 조상들이 복을 누리고 액을 미리 막으려는 일념에서 습관화된 풍속이다.

5) 입춘(立春)

입춘은 24절후의 하나로 양력 2월 3~5일 사이의 날이며, 이날부터 새봄이 시작되는 것이다. 입춘을 맞이하면 대궐에서는 춘첩자(春帖子)를 붙이고, 민가에서는 춘연(春聯)을 붙이는데 이것을 춘축(春祝)이라 한다.

무주 지방에서 각 가정마다 붙이는 춘축은 대부분 대문기둥, 대들보, 천정 등에 붙이는데,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이 날은 남에게 부탁하여 꼭 써서 붙이나 상가(喪家)에서는 붙이지 않는다. 또한 이 날은 입춘걸립이라 하여 풍물을 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 모습이 사라졌다.

이 날은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하며, 오곡의 씨앗을 솥에 넣고 볶아 보아서 제일 먼저 솥에서 튀어나오는 곡식은 그 해에 풍작을 가져온다고 믿었다. 또한 보리를 뽑아서 그 뿌리가 세 갈래면 풍년이 들고, 두 갈래면 흉년이 든다고 믿는 농점(農占)을 치기도 한다.

집안에 붙일 때는 상기둥에 '입춘대길(立春大吉)'을, 그 맞은 편 기둥에 '건양다경(建陽多慶)'을 붙인다. 대문에 붙일 때에는 왼쪽에 '입춘대길'을 오른쪽에 '건양다경'을 붙인다.

2. 이월 풍속

1) 2월 초하룻날

○ 영등 할머니

2월 초하룻날은 영등 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날이다. 이날 내려온 영등 할머니는 20일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무주지방에서는 이날 영등제를 올리는 것을 바람 올린다고 하여 각 가정에서 제를 올린다.

바람 올리기는 풍신제(風神祭)라고 하는데, 이날은 떡과 음식을 청결하게 장만하고 소지를 준비한다. 부엌에 음식을 차려놓고 참기름 불을 밝힌 뒤에 소지를 올리면서 무사태평과 소원이 성취하기를 축원한다.

영등 할머니가 하늘에서 내려 올 때는 며느리나 딸을 데리고 오는데, 딸을 데리고 올 때는 아무 탈이 없지만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비바람이 몰아쳐 농사에 피해를 준다고 믿었다. 또한 이날 햇볕이 나면 “불영등 드린다”고 하고, 비가 오면 “비영등 드린다”고 하며, 바람이 불면 “바람 영등 드린다”고 한다.

영등 할머니가 내려와 있는 동안에 각 가정마다 금기하는 풍속이 있다. 영등 할머니를 맞이하기 위해 황토 흙을 파다가 문 앞에 뿌려서 신성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대나무를 꺾어다가 오색 헝겊을 달아 사립문에 달아 놓고 부정한 출입을 막으며, 창문도 바르지 않고 고운 옷이나 새 옷을 입는 것도 삼간다.

○ 일꾼의 날

2월 초하룻날은 일꾼의 날이라 하여 옛날에는 머슴이나 노비(奴婢)에게 풍성한 대접을 하였다. 2월이 되면 농사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이므로 이날은 일꾼들을 위로하며 하루를 놀고 쉬도록 하기 위하여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노래와 춤으로 즐기게 한다.

또한 그 해에 20세가 된 일꾼은 이날 어른들에게 한턱을 내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성인 대우를 해 달라는 뜻이다. 만약 한턱을 내지 못하는 일꾼은 항상 어린아이 취급을 받아 품앗이나 품삯에 차등이 생기므로 말하자면 성인신고에 해당되던 것이다.

○ 콩 볶기

2월 초하룻날은 콩 볶는 날이기도 하다. 매년 이날이 되면 각 가정마다 콩을 볶아서 가족들이 나누어 먹기도 하며, 아이들은 할머니나 어머니가 볶은 콩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하였다.

콩을 볶을 때는 주걱으로 저으면서 "새를 볶아라", "쥐를 볶아라", "콩을 볶아라"하며 축성하는데, 그것은 그 해에 새와 쥐에 의한 농사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기원이다. 또한 이날 농점을 치기도 하는데 콩과 보리를 약간 섞어서 한 되를 볶은 다음 한 되가 되면 풍년이 오고 한 되가 되지 못하면 흉년이 온다고 믿었다.

○ 대청소의 날

2월 초하룻날은 대청소의 날이다. 이날은 집 안팎을 깨끗이 쓸고 닦으며 거미줄도 털고 가축우리의 거름도 치운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이 고장에서는 '노래기'라고 하는 벌레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벌레는 풀이나 나무 등의 썩은 부분에서 나와 방까지 기어들어 오는데, 냄새가 지독하다.

이 벌레를 막기 위해 "향낭각씨(香娘閣氏) 속거천리(速去千里)" 또는 "노낙각씨 멀리가라"라는 부적을 써서 기둥이나 벽, 서까래 같은 곳에다 거꾸로 붙인다. 그렇게 하면 노래기가 없어진다고 믿으며, 또한 청솔가지를 꺾어 지붕 위에 꽂아 놓으면 노래기를 막는다고도 한다.

2) 좀생이 점

2월 초엿새날 저녁에 좀생이별을 보고 그 해의 농사에 대한 점을 친다. 좀생이별은 묘성(昴星)으로 여러 개의 작은 별이 모여서 성군을 이루고 있으며, 달 좀생이가 나란히 가거나 조금 앞서 있으면 풍년이 든다고 믿는데, 그 빛을 보고 풍흉을 미리 판단하기도 한다.

3) 경칩(驚蟄) 날

24절후의 하나인 경칩 무렵은 날씨가 따스해 지면서 초목이 움트기 시작하며, 겨울동안 땅 속에서 잠자던 냉혈동물 들이 땅 위로 기어 나오기 시작한다.

이날은 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를 찾아서 개구리 알을 건져다 먹기도 하는데, 이것을 경칩이라고 하며 개구리의 정충이 사람의 몸에 좋다고 하여 먹는다. 그리고 이 날은 흙일을 하면 탈이 없는 날이라 하여 벽을 바르거나 담을 쌓기도 하는데, 이날 벽을 바르면 빈대가 없어진다고 한다.

4) 한식(寒食) 날

한식은 동지(冬至)부터 105일째 되는 날이며, 음력 3월에 들기도 하나 대개는 2월에 드는 해가 많다.

이날은 술, 과일, 떡 등의 제수를 마련하여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를 하며, 더러는 조상의 묘소가 헐었으면 수축(修築)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개사초(改莎草)라고 한다. 만약 3월에 한식이 들면 개사초는 하지 않는다.

또한 이날은 하루 내내 찬밥을 먹는 풍습이 있어 한식이라고 하는데, 중국 진나라 때의 충신 개자추(介子推)의 넋을 위로하는 고사(古事)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개자추가 간신에게 몰려 면산이라는 곳에서 숨어 있었는데, 진(晉)나라의 문공이 개자추의 충성심을 알고 찾았으나, 나오지 않으므로 그를 나오게 하기 위하여 산에다 불을 질렀다. 그러나 개자추는 끝내 나오지 않고 불에 타 죽었으므로 그를 측은하게 여긴 임금은 매년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그리고 그를 알던 사람들은 그의 충성심에 감동하여 찬밥을 먹었던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식에 대한 유래는 이와 다르다. 고구려 때 낙랑구(樂浪丘)에서 전렵(田獵)을 열고 지신(地神)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임금이 친히 참여한 가운데 무술대회를 열고 사냥을 많이 한 무사에게 상을 주어 상무(尙武)의 기풍으로 세웠다. 오랜 세월이 흐름에 따라 민간에서도 지신에게 제사하는 풍속이 생겼고, 근대에 이르러는 선영(先塋)의 묘소에 성묘하는 풍속으로 변했다고 한다.

3. 삼월 풍습

1) 3월 삼짇날

3월 3일을 삼짇날이라고 한다. 이날은 강남으로 갔던 제비가 옛 집을 찾아온다는 날이다. 이 무렵이면 산과 들에 꽃이 피기 시작하여 갖가지 나비들이 꽃을 찾아 날아드는 좋은 계절이므로 사람들은 처음 보는 나비를 보고 점을 치기도 한다.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보면 1년내 좋은 일이 있고 소원성취 한다고 믿으며, 흰나비를 보면 부모의 상을 당하거나 불길한 일이 닥친다고 믿는다.

2) 곡우(穀雨) 날

24절기 중의 하나인 곡우는 양력으로 4월 20일이거나 그 다음날이 된다. 이 때가 되면 볍씨 담그기와 못자리가 시작된다.

이 날을 전후하여 높은 산에 올라가 거자수 나무의 물을 받아다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며, 이 때 꿩 알을 주우면 길하다고 하여 산기슭이나 보리밭으로 꿩 알을 주우러 나가기도 한다.

4. 사월 풍습

1) 4월 초팔일

사월 초팔일(初八日)은 석가탄신일(釋迦誕辰日)로 이 날을 욕불절(浴佛節), 연등일(煙燈日), 등석(燈夕), 관등일(觀燈日)이라고 하는데, 흔히 '초파일'이라고 부른다.

이 날은 불교도들이 사찰에 찾아가 부처님 앞에 불공을 드리고, 가족 수에 따라 등을 달아 놓고 가족의 발복(發福)과 후세의 명복(冥福)을 빌면서 하룻밤을 세우는 풍습이 있다.

이러한 풍습은 신라 때 팔관회(八關會)에서 정월 보름날 간등(看燈)한 것을 시작으로 고려 초기까지 이어 오다가 고려 현종 때부터는 2월 보름날에 연등회를 거행하게 된 것이 그 관례가 되었는데, 후에 4월 초팔일에 행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5. 오월 풍속

1) 5월 단오(端午)날

5월 5일은 단오날이다. 이 날은 술의(戌衣), 천중절(天中節), 단양(端陽), 중오절(中午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옛날에도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는 날이었으며, 농촌의 큰 명절로 집집마다 수리치 떡 등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여 단오 차례(茶禮)를 지내고 남자들은 씨름과 풍물을 치며 부녀자들은 창포(菖蒲)에 머리를 감고 그네를 뛰며 하루를 즐겼다.

옛부터 우리 민족은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등 달과 날이 홀수로 같은 날을 명절로 삼았는데, 그 중에 5월 5일은 양(陽)이 가장 많은 날이라 하여 큰 명절로 여겼다.

이 날은 궁중(宮中)에서도 신하들에게 부채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 부채를 단오선(端午扇)이라 하였고, 민가에서는 창포물에 세수하고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윤기가 나며 머리가 빠지지 않고 소담해진다고 하여 머리를 감았다. 어린아이들은 창포탕에 세수하고 홍색과 녹색의 새옷을 입었다.

또한 부녀자들은 창포 뿌리로 비녀를 깎아 수자(壽字)와 복자(福字)를 새기고 끝에다 연지를 발라 머리에 꽂았다. 붉은 색은 양색(陽色)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믿어 재액(災厄)을 막기 위한 비방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단오장(端午粧)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날은 익모초(益母草)와 쑥을 뜯는 풍속이 있었다. 단오날 오시(午時)에 익모초와 쑥을 뜯어 말렸다가 산모에게 달여 먹이면 산후에 좋다고 하며, 위가 나쁜 사람이 먹으면 건강이 회복되고 식욕이 좋아진다고 한다.

6. 유월 풍속

1) 6월 유두(流頭)

6월 15일을 6월 유두라고 한다. 이는 신라 때의 풍속으로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으며 계음(?飮)이라고 하는 액막이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였는데, 이것을 유

두연(流頭宴)이라고 한데서 유래한다고 한다.

즉, 신라 지증왕이 백관을 거느리고 서라벌 남천(南川)에 가서 머리를 감고, 심신을 정결하게 한 뒤 포석정(包石亭)에 모여 연회를 베풀고 하루를 즐겼는데, 이 남천이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어서 동유두목욕(東流頭沐浴)이라 하였으며, 동유수(東流水)에 머리를 감는 것은 동쪽은 맑고 양기가 왕성한 곳이라 믿는데서 비롯되었으며, '유두'란 '동유두'의 약자(略字)라 전한다.

이 날은 참외와 수박 등을 따서 국수와 떡을 만들어 조상께 차례를 올렸는데, 이것을 유두 천신(薦新)이라 한다. 무주에서는 유두 고사(告祀)라 하여 떡을 만들어 가지고 논에 가서 물고 밑에 던져놓고 다니면서 풍년을 기원하고 풍물을 치면서 하루를 즐긴다. 유두 고사를 용신제(龍神祭)라고 하며 부녀자들은 이 날 밭에 나가는 것을 금한다.

2) 복(伏)날

복날은 하지(夏至) 이후 세 번째 돌아오는 경일(庚日)을 초복(初伏), 네 번째 경일을 중복(中伏) 그리고 입추가 지난 첫 번째 경일을 말복(末伏)이라고 하는데, 초?중?말복을 가리켜 삼복(三伏)이라고 한다.

삼복 기간은 1년 중 가장 더울 때이므로 '복다름'을 한다고 하여 개를 잡아먹는 풍속이 있다. 개는 허한 사람의 원기를 회복하기에 가장 좋은 약이 된다고 하여 '보신탕'이라는 이름을 붙여 먹는다. 우리의 속담에 "복날 개 패듯 한다", "개 잡아 줄래", "초장에 개국"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복날에 개를 잡는 것을 풍자한 것이다.

7. 칠월 풍속

1) 칠석(七夕) 날

음력 7월 7일을 칠석이라고 한다. 이날은 하늘에 있는 견우(牽牛)와 직녀(織女)라고 하는 별이 1년에 한번씩 만나는 날이라고 한다.

이날 저녁 처녀들은 외를 깎아놓고 직녀성(織女星)과 견우성(牽牛星)에게 바느질

솜씨가 늘기를 빌고, 공부하는 소년들은 두 별을 제목으로 글을 짓기도 하였다. 이렇듯 견우성과 직녀성은 젊은 소년?소녀들의 숭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럴만한 전설이 있기 때문이다.

2) 백종(百種) 날

음력 7월 15일 백중일(百衆日), 백종(百種), 망혼(亡魂)날이라고 하며 불교에서는 맹난분(孟蘭盆)이라고 한다. 이날 사찰에서는 승려들이 제를 올려 부처님께 공양한다. 신라와 고려 때에는 일반 사람들도 공양케 하였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배불정책(排佛政策)으로 승려들만이 행사를 갖게 되었다.

백종이란 이때가 되면 과일과 채소가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을 차릴 수 있다는 데서 연유되었고, 망혼일이란 백종날 밤에 온갖 음식을 차려서 조상께 먼저 바친다는 뜻이다. 농촌에서는 이때가 되면 농사일이 거의 끝이 났다 하여 호미 씻기를 한다. 흙과 때를 깨끗이 씻고 발꿈치를 깨끗이 한다고 하여 백종(白?) 혹은 백중(百衆)이라고 한다.

이 날은 또 일꾼들의 날이기도 한데, 그 마을에서 가장 농사를 잘 지은 일꾼을 뽑아 삿갓을 씌우고 소등이나 사다리에 태우고 풍물을 친다. 일꾼 집에 음식을 차려놓고 술과 고기를 먹으며 씨름판도 벌이며 흥겹게 지낸다. 성현(成俔)의 ≪악학궤범(樂學軌範)≫에 이 날의 노래가 다음과 같이 전해오고 있다.

동동사(動動詞)
七月ㅅ 보로매
아으 百種排 하야두고
니물 한대 너 가져 願을 비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3) 벌초(伐草)

백중이 지나고 음력 7월 그믐 때까지 조상들의 묘소를 찾아 성묘하고, 봄부터 여름 내내 자란 풀을 말끔하게 깎아주는데 이것을 벌초 또는 금초(禁草)라고 한다. 이것은

조상들을 기리는 마음에서 행하는 것이므로 산소에 풀이 우거져 있으면, 자손들의 큰 수치로 알고 있다.

8. 팔월 풍속

1) 추석(秋夕) 날

음력 8월 15일은 추석 또는 가배일(嘉俳日), 중추절(仲秋節), 한가위 등으로 불리어지는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을 이어온 큰 명절이다. 이 때는 날씨가 춥지도 덥지도 않으며, 높고 맑은 푸른 하늘 아래 풍성한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밤이면 밝고 큰 달이 온 누리를 밝게 해준다. 또한 농촌에서는 일손이 한가한 때라 1년 중 가장 즐거운 최고의 명절이다.

추석이 되면 새 옷을 마련하고 햇곡식과 신선한 햇과일, 그리고 싱싱하고 살찐 생선과 고기로 음식을 풍성하게 장만하여 추석날 아침 사당이나 제청에 음식을 차려놓고 조상 앞에 차례를 올린다. 그 다음 조상의 묘소를 찾아가 성묘를 마치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즐거운 하루를 지낸다. 추석 때는 차례에 쓰일 음식을 밥 대신 떡으로 쓰기도 한다. 떡은 햅쌀로 만든 송편으로 그 속에다 햇콩이나 햇밤을 넣어 만든다.

추석은 신라 유리왕 때 길쌈 삼기부터 시작하였다는 역사적인 유래가 있다. 경주의 육부(六部)를 둘로 나누어 두 왕녀(王女)가 한편씩을 거느리며,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베를 짜서 보름날 밤 이경(二更)을 기하여 판가름을 한 다음, 진 편에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날 제사를 올리고 조상의 묘소에 성묘하는 것은 1년 동안 무사히 농사를 지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이 조상의 은덕이라고 생각하여 감사를 들이는 날로 생각한다.

이날은 천리타향 객지에서 고향을 찾아 일가친척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고, 지난날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하루를 즐기는 풍속으로 우리 민족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민속이다.

9. 구월 풍속

1) 중양절(重陽節)

음력 9월 9일은 중구(重九), 중양(重陽)이라고 한다. 중구란 말은 구자(九字)가 겹쳤다는 뜻이고, 중양이란 양수(陽數)가 겹쳤다는 뜻이다.

이날을 귀일이라고도 하는데, 귀일이란 구일(九日)이란 뜻이며 이날 제사를 올리는 귀일차례는 직계종손(直系宗孫)이 끊기어 추석 때 제사를 드리지 못한 분들에 대해 지손(支孫) 중에서 차례를 올리는 날이다. 추석 때 햇곡식이나 햇과일이 미처 익지 않아 쓰지 못했을 때 이 날 차례를 올리는 수도 있다.

10. 시월 풍속

1) 10월 상달

음력 10월 3일은 우리나라 건국신화(建國神話) 중 단군 성조(聖祖)께서 개천(開天)하신 날로 나라의 기원으로 삼는 날이다. 지금은 양력 10월 3일로 개정하여 개천절로 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10월을 상달이라고 하여 1년 중 가장 높은 달로 여겼는데, 이것은 고대사회로부터 내려온 유풍(流風)이다. 상고(上古)시대에는 천제(天祭)를 모셔 제정(祭政)을 일치시켰으며, 이를 부여에서는 영고(迎鼓), 예(濊)에서는 무천(舞天), 고구려에서는 동맹(同盟)이라 하여 10월에 행하였다고 전한다.

이때 농가에서는 도신(禱神)이라고 하여 날짜를 잡아 햇곡식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장만하고, 성주(城主)를 비롯한 가택신(家宅神)과 농신(農神)에게 고사(告祀)를 지내며, 추수(秋收)에 감사하며 다음해 풍년을 기원한다.

2) 시제(時祭)

우리 민족의 풍습 중에 4대조(四代祖)까지는 기제(忌祭)를 드리고 5대조(五代祖) 이상은 시사(時祀) 또는 시형(時亨)이라고 하여 이 달이 되면 문중(門中)이 모여서

조상들에게 제를 올린다.

시제 때는 멀고 가까운 후손들이 모여 산소를 찾아 제를 드리는데, 이 때의 제수는 후손들 중에서 마련하거나 위토(位土)를 마련하여 산소를 관리하는 산지기를 정해서 마련하기도 한다.

시제 때에는 많은 자손들이 모이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며, 명당(明堂)일수록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믿는다.

11. 십일월 풍속

1) 동지(冬至) 날

동지는 24절후 중의 하나로 양력 12월 22일이거나 그 다음날이 되며 음력으로는 11월 중에 든다. 동지가 음력 동짓달 초순에 들면 애기 동지, 중순에 들면 중(中) 동지, 하순에 들면 노인(老人) 동지라고 하며, 이 달에 동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동짓달이라고 한다.

고대(古代)에 태양신을 숭배하던 때는 이날을 설날로 삼기도 했다고 하는데, 동지가 되면 태양이 가장 남쪽으로 기울어져 고도가 낮아지므로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 된다.

이날은 가정과 그 주변의 잡귀나 부정을 쫓아내기 위하여 팥죽을 끓여 문지방이나 부엌, 대문, 담, 도랑 등에 뿌리는 풍습이 있는데, 옛날 중국의 고사에 공공(共公)이란 사람의 아들이 동짓날에 죽어서 역귀(疫鬼)가 되어 해를 끼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역귀는 팥을 제일 무서워하므로 그가 죽은 날에 팥죽을 끓여 귀신을 쫓는 풍습이 생겼다고 한다. 팥은 그 색깔이 붉어서 귀신을 쫓는 색이라고 하여 잡귀를 쫓고자 할 때, 민가에서 흔히 쓴다.

2) 동지팥죽

동지를 아세(亞歲) 또는 작은 설이라고도 한다. 흔히 동지 팥죽을 한 그릇 먹어야 한살 더 먹었다고 하며, 이 날은 팥죽을 끓여서 조상께 먼저 제를 올리고 가택신에게

드린다고 하여 방, 부엌, 마루, 광 같은 곳에 한 그릇씩 떠놓는다.

그런데 초순에 드는 애기 동지 때는 팥죽 대신 떡을 만들기도 하며, 중 동지나, 노인 동지 때에는 팥을 삶아서 으깨거나 체에 걸러 껍질을 가려낸 후 그 물에다 찹쌀로 새알 크기의 단자를 만들어 넣고 끓이기도 한다. 이 고장에서는 이 단자를 새알수제비라고 하며, 식구들의 나이에 맞추어 만들어 넣는다.

12. 십이월 풍속

1) 납월(臘月)

음력 12월은 섣달, 또는 납월이라고 하며 오행신앙(五行信仰)에 의하여 중국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고려 때에는 납일을 대한(大寒) 후 첫 신일(辰日)로 하였는데, 조선에 이르러 동지 후 세 번째 미일(未日)로 하였다.

국가에서는 이 날을 기하여 나라의 농사 형편이나 그 밖의 일들을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에 고(告)하고, 자연만물의 덕을 감사하기 위해 모든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것을 납향(臘享)이라고 하는데, 납(臘은) 곧 렵(獵)의 뜻으로 사냥하여 짐승을 잡아 선조께 제사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납향에 쓰는 고기는 산돼지와 산토끼를 사용하였다. 고구려 무사들은 납향일 10일전부터 사냥을 시작하여 그동안 사냥한 성적에 따라 상을 주고 천제를 모시어 오방신(五方神)에게 제사하였다. 겨울철이 되면 수렁들이 꿩, 산돼지, 산토기 등을 잡아 진상(進上)하기 위해 백성들을 동원하는 폐단이 있었다. 그래서 이를 폐지하고 포수를 시켜 사냥토록 한 것이 기인이 되어 지금도 겨울사냥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풍속이 민간에 파급되어 농촌에서도 새잡기를 한다. 납일에 잡히는 참새는 늙고 병든 사람에게 이로운 약이 된다고 하여 참새 잡기를 즐겼고, 또한 이날 내린 눈도 사람에게 약이 된다고 하여 독에 담아 두었다가 눈이 녹은 물을 김장독에 넣으면 맛이 변하지 않는다고도 하며, 옷이나 책에 바르면 좀을 막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납일에 받아 두었던 눈 녹은 물은 한약을 다릴 때 쓰기도 하였고, 그 물로 눈을 씻으면 안질에 걸리지 않으며, 눈이 밝아진다고 전하고 있다.

2) 제석(除夕)

섣달 그믐날을 제석 또는 제야(除夜)라고 한다. 이날은 1년 중의 마지막 날로 연중에 있었던 거래(去來)를 결산한다. 빚을 진 사람은 해를 넘기지 않고 모두 청산하게 되는데, 만약 갚을 형편이 못되어 갚지 못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그 이듬해 정월 대보름날까지는 독촉도 하지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풍속이 있다.

3) 구세배(舊歲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이날의 풍속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조신(朝臣) 2품(二品)이상과 시종신(侍從臣)들이 대궐에 들어가서 구세(舊歲) 문안을 올리고, 사대부 집에서는 사당에 참례(參禮)하고 연소자들은 친척과 어른들을 찾아뵈었는데 이것을 구세배라고 한다.

이날은 초저녁부터 밤중까지 길거리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등불이 끊이지 않고, 집안에서는 자제나 부녀들이 모두 집안의 어른께 묵은 세배를 한다.

4) 수세(守歲)

섣달 그믐날 밤은 방, 뜰, 곳간, 변소 할 것 없이 집안의 구석구석에 불을 밝히고 잠을 자지 않으며 밤을 새우는 풍속이 있으니 이것을 수세라고 한다.

불을 밝히는 것은 잡귀의 출입을 막는 것이며, 부뚜막과 부엌을 밝히는 것은 조왕신을 위한 것이다. 조왕신은 섣달 스무 사흘 날, 천제(天帝)에게 가서 자기 집의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고(告)하고 그믐날 밤에 돌아온다고 한다.

또한 섣달 그믐날 잠을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하여 밤이 늦도록 윷놀이를 하거나 옛날 이야기를 듣기도 하며,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잠자는 아이가 있으면 하얀 가루를 눈썹에 묻혀 설날 아침에 거울을 보게 하여 눈썹이 희어졌다고 놀려주기도 하였다.

[정리 : 무주향토사연구회]

월		세 시 풍 속	놀 이	시 식
1월	설	차례. 세배. 성묘. 산신제. 당산제. 설빔 입히기. 대문 일찍 열기. 날씨 정치기. 가치소리로 정치기		떡국
	정초	토정비결 보기. 복조리 걸기. 엄나무 걸기. 사람날 쉬기. 날씨 정치기. 토끼날 절에 가지 않기. 사람날 절에 가기. 상재막이. 치성드리기. 안택. 돈·곡식 빌려주지 않기. 장 담그기. 당산제. 산신제. 짐대제. 디딜방아 훔치기. 바당밟이(지신밟기). 천둥소리 듣기. 여자출입금기		
	입춘	보리뿌리 정치기. 입춘축 붙이기		
	14일	산신제. 하당제. 오곡밥과 묵은 나물 먹기. 싸리나무로 불때기. 오곡밥 일찍 먹기. 아홉 번 행동하기. 잡곡밥 얻어먹기. 보름 나가서 쇠기. 방새기. 수세미 똬리(따바리)·짚신 만들기. 노두 놓기. 허새비 버리기. 거리제(질산제). 종이옷 태우기. 팥량개비 꽂기. 버선 꽃기. 볼 밝히기. 체 달아두기. 양말 신고 자기. 식구불 켜기. 키 엎어두기. 용왕제(요왕공). 절구지 하지 않기. 마당 일찍 쓸기	윷놀이	오곡밥. 묵은 나물
	대보름	차례. 보름밥 일찍 먹기. 아홉 번 행동하기. 찰밥 짓기. 보름밥·더위밥 얻어먹기. 칼질하지 않기. 맨발로 다니지 않기. 노래기 쫓기. 까치밥 주기. 김쌈 먹기. 젓가락으로 밥 먹기. 더위팔기. 귀밝이술 마시기. 부럼깨기. 바당밟이(지신밟기). 까마귀·까치밥 주기. 소밥주기. 개보름쇠기. 취나물·두부·콩나물 먹기. 찬물 마시지 않기. 매운 음식 먹지 않기. 마당 쓸지 않기. 물 긷지 않기. 복조리 걸기. 엄나무 걸기. 날씨 정치기. 삼농사 정치기. 여자출입금기. 달집태우기(달 끄슬리기). 달점치기. 망우리. 안택. 디딜방아 훔치기. 짐대제. 볼싸움. 날씨정치기. 액연 태우기	윷놀이. 볼싸움. 달맞이. 널뛰기. 연날리기. 불깡통. 돌리기. 춘향이 놀이	오곡밥. 묵은 나물. 취나물. 두부. 콩나물
	월중	천둥소리 듣기		
2월	2월 1일	콩 볶기. 영등(이월할머니) 위하기. 칼질하지 않기. 날씨정치기. 여자출입금지		
	월중	개구리알 먹기. 좀생이별 보기. 장 담그기. 무색 천 만지지 않기. 개구리 울음소리로 정치기. 물방수날. 문 바르지 않기. 천둥소리 듣기. 하늘이 우는 것 보기		
3월	삼짇날	요왕모시기. 배냇머리. 깎아주기. 제비집으로 정치기. 떡 해먹기		떡또래기·떡또리
	한식·청명	산일 하기. 차례. 장독대 수리하기. 손없는 날		
	월중	동물 정치기. 소쩍새 울음으로 정치기. 괴목(느티나무) 잎으로 정치기. 진달래꽃으로 정치기. 물방수날. 씨나락 담그기. 거자수물 마시기	풀각시 놀이. 가족나무 잎 따기. 호드기 불기	거자수물
4월	초파일	절에 가기		
	월중	날씨 정치기. 팽알 줍기. 가뭄과 갸재		
5월	단오	보리떡 해먹기. 약초 말리기. 창포물에 머리감기. 상추이슬로 분바르기	그네뛰기	보리떡
	유두	논고사. 차례. 유두잔치. 천둥소리 듣기. 머리감기		
6월	월중	복달임. 복날 벼 마디 보기. 이불 꿰매지 않기. 이불 빨래 하지 않기. 만들이(장원주). 복날과 대추. 기우제. 문 바르지 않기. 장 담그지 않기. 베개 사기	씨름. 들돌 들기 낭장 씨름	
7월	칠석	칠석공드리기. 날씨 정치기. 칠석비		
	백중	들에 일찍 나가지 않기. 벌초. 치성드리기. 코스모스 피는 것 보기		
8월	월중	벌초. 코스모스로 정치기. 벼 마디 보기		
	추석	올벼심리. 터주단지 쌀 갈기. 차례. 성묘. 물액질		
9월	월중	올벼심리(올개심리). 터주단지 갈기		
	중양절	문 바르지 않기. 차례(귀일제). 외손봉사 하기		
10월	월중	문 바르지 않기		
		날씨정치기. 손돌영이 추위. 시사. 하늘 우는 것 보기. 지붕 엊기. 도신		도신떡
11월	동지	제사. 팥죽 쑤기. 열두 번 행동하기. 낮 길이 보기		팥죽
	월중	고드름 꺾지 않기. 첫눈 보기. 지붕 엊기		
12월	섣달 그믐	수세. 볼 밝히기. 빚 갚기. 짚신·인상밭·새끼 꼬기. 세찬 보내기. 양말 신고 장자기. 명절 폐백		
연중	윤달	집·묘소 고치기. 수의 만들기. 이듬해 절기 보기		
	월중	짚신. 인상밭 새끼 꼬기		

※출처 :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북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358쪽

제6절 민속놀이

1. 놀이의 개념

우리나라의 놀이는 오늘날의 단순히 시간 보내기 위한 오락과 즐기기 위한 오락의 차원을 넘어서 이해되어야 한다.

민속놀이는 흔히 민속오락, 민속경기, 민속유희, 민속예능, 전승놀이, 향토오락 등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민속놀이라는 개념 속에는 싸움을 뜻하는 경쟁의식을 비롯해서 흥을 뜻하는 유희성, 즐김을 나타내는 오락성,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성이 복합적으로 숨어있기 때문이다.

놀이는 종교적 의식이나 세시풍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은 네덜란드의 중세 역사가인 호이징가(Johann Huizinga)의 학설처럼 문화보다 오랜 것이다. 곧 문화 이전의 발생된 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모방본능에서 출발 했다든가 단순히 휴식을 위한 필요성에서 출발했다는 설도 합당치 않다.

인류학자들은 프라트리아(부족의 소분자), 씨족, 형제애 등을 단순히 '놀이공동체'라고 설명하는데 이것도 경솔한 노릇이다. 인류학자들은 원시민족의 마음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형상화의 의미를 캐는데 역점을 두었고, 미개민족의 놀이 개념에만 치우쳐 생산·놀이의 발생원인 등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호이징가는 그 같은 관념을 넘어 '자유활동'이라고 한다. 자유활동은 그 자신 내부에 자체로부터 발생한 질서를 강요하고 있으며, 그 규칙에 따라 지배되고 있음을 본다. 그는 또 놀이와 신성성과의 긴밀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놀이 자체가 종종 극적인 구경거리의 존재이고, 퍼레이드나 올림픽 등에서처럼 허세를 부리는 것도 있음을 설명하지 않으며, 투기나 내기놀이의 중요한 역할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호이징가의 설은 후에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까이요와(Roger cail)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다.

그는 놀이를 분명한 개념으로 세분하여 두 축으로 나눈다. 즉, 파이디아(Paidia)와 루두스(Ludus)라는 축이다. 문화행위의 가정법적 시공 속에서 인간은 퍼즐이나 미로놀이 십자말풀이, 장기에서처럼 변덕스런 장애물을 설정하고 극복하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 루두스 곧 규칙들은 일상생활에서 장애물에 대처하는 훈련도 되고, 또한 전적으로 놀이하는 사람이 복잡한 규칙에 의해서 규범화되고 닫혀진 놀이의 세계 속

에서 전적으로 마을을 쏠리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즉, 파이디아에 이들 루두스가 서로 연결되고 반복됨으로써 놀이는 추진되고 형식구조가 발생한다고 믿었다. 그리하여 까이요와는 놀이를 아곤(agon), 알레아(alea), 미미크린(mimicry), 일린크스(ilinx) 네 가지로 세분하고 있다.

아곤은 경쟁, 알래아는 운수, 미미크린은 흉내내기, 일린크스는 현기증 등으로 놀이를 분류하고 설명하고 있다.

<표 1, 놀이의 분류>

	아곤(agon) 경쟁	알레아(alea) 운수	미미크린(mimicry) 흉내내기	일린크스(ilinx) 현기증
↓파이디아↓ (paidia) 떠들썩함, 동요(흥분), 폭소	규칙없는 경기 육상, 레스링 등	노래부르기 전후면 말맞추기	아이들의 입사식 환상적 놀이 술래잡기 전쟁놀이 가면놀이 변장놀이 소꿉놀이	아이들이 타고노는 놀이, 회전목마 그네 원무곡
연날리기 혼자두는장기 페띠기 말메꾸기	각종 스포츠 일반			
↑루두스↑ (Ludus)	복싱, 펜싱, 축구, 장기, 바둑	도박,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단식, 복식, 연속)	연극, 일반적인 초대형 예술	보라도라 순회카니발 스키 등산 줄타기

위의 표에서 까이요와가 예로 든 놀이는 스포츠나 아이들의 문자놀이, 내기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집단적 놀이 형태나 제의적 놀이가 별로 없다는데 한국적 놀이문화와의 차이점을 찾게 된다. 실상 우리의 동요나 모든 민속놀이는 거슬러 올라가면 제의성과 무관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많다. 이들 학자들이 발표한 이론의 상당 부분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의 분석자료가 20세기를 전후한 그들 사회의

놀이문화의 분석이 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해가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놀이문화에 대입시켜 볼 때 무언가 빠진 것이 있다는 아쉬움을 직감 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나 무주군의 놀이를 살필 때, 우리는 플라톤의 '신에 바쳐진 놀이'로 출발하여 풍농과 풍어를 빌었다는 점에서 제1의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제의 놀이를 구체화시켜 대동단결하는 핵을 만들어 나갔다는 점이 서구의 놀이문화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놀이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우선 '신바람'과 '멋'을 들 수 있다. 어떤이는 '한'을 그 속에서 찾기도 한다. 한스러운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고, 누구도 허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삭이면서 다져온 비애 속에서 우리의 미의식으로 승화된 것이 바로 한이다.

2. 놀이의 분류

1) 송석하의 분류

송석하는 민속놀이를 난장놀이와 대동놀이로 구별하였다. 전자는 다분히 흥행적 색채, 곧 어떤 사람의 직업적 전제하에서 일정한 예인이나 반예인이 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와 반대로 한 마을이나 한 단위가 직업적 의식을 떠나서 경비와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자기들 자신이 스스로 환락을 찾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분류표를 제시하고 있다.

① 기구상 부류
② 계절적 분류
③ 관념적 분류
④ 존재상의 부류

2) 한국민속대관 분류

① 아이놀이
② 어른놀이
③ 경기
④ 곡예

3) 임동권의 분류

① 신앙놀이
② 명절놀이
③ 경기놀이
④ 기타놀이

4) 김선풍의 분류

김선풍은 기존의 역사서, 세시기, 민속조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모든 자료를 하나의 틀속에 넣고자 분류체계를 시도하였다. 먼저 민속놀이를 명절놀이와 일상놀이로 크게 나눈 다음 다시 명절놀이를 그 목적에 따라 농경축원, 농어축원, 벽사진경, 제액초복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놀이 자체가 목적인 비승부놀이, 승부놀이, 내기놀이, 전문인놀이, 기타로 나누었으며, 그 다음 인원 편성, 승부여부, 연령 및 성별 등으로 세분하였다. 참고로 명절놀이는 그 시기를 순차적으로 표시하여 시기별로 놀이 상황도 알 수 있게 하였다. 일상적 놀이는 놀이 자체가 목적인 비승부놀이, 승부놀이, 내기놀이, 전문인놀이, 기타로 구분하고 다시 인원편성, 및 성별, 또는 직업 등으로 세분하였다. 참고로 부기해 둘 것은 하나의 놀이가 다른 분류항에 겹칠 경우 관련 사항을 표시해 놓았다는 점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놀이라는 지역적 특색이 있는 것은 별도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다른 경우를 고려하여 다른 이름도 표시해 두었다.

3. 1936년대의 놀이

≪조선의 향토오락≫은 1924년부터 1941년 사이에 간행된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전47집 가운데 47집에 해당된다.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책 수립을 위한 풍속 조사를 시도하였다. 총독부는 식민지 문화에 대한 조사도 식민지 주민용 각종 법령 제도의 마련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정교한 제도와 보다 효과적인 통치 요령을 얻어내려는 조사로 발전시켜려 하였다”. 이런 조사목적에 대해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은 퍽 불편한 것이어서, 이런 자료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자료 조사를 남기지 못했던 아쉬움과 함께, 우리들은 이 무렵의 조

사 자료가 지닌 가치는 있는 그대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조사 자료의 학문적 가치에 관한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의 논의를 거친 단계로 보고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1923년에 설정한 풍속조사 항목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조사, 보고되었는데 실무적인 일은 경성제국대학, 조선총독부 중추원, 조선사편수회가 중심이 되어 대부분 총독부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본서의 간행 책임자인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은 동경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의 문서과 조사제2계 주임 겸 촉탁위원으로 민간신앙 조사에 주력해서 『조선의 귀신』, 『조선의 풍수』, 『부락제』 등을 펴냈다.

1936년 조선총독부의 『조선의 향토오락』에 나타나는 민속놀이 무주편에는 총 27개의 놀이가 조사되어 있다. 그런데 각 놀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전주지역 놀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다. 이 때 조사된 놀이는 전국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놀이들이었던 것이다.

조사목록을 보면 아래와 같다.

놀 이	시 기	대 상	놀 이	시 기	대 상
윷놀이	정월, 추석	일반	천렵	봄, 가을	일반
널뛰기	정월, 추석	여자	복놀이	삼복	일반
달맞이	정월보름	일반	제기차기	봄	어린이
다리밟기	정월보름	일반	농악	2월, 김매기철, 7월, 추석	농민
횃불놀이	정월보름	어린이	시회	수시	유림
연날리기	겨울 특히 정월	어린이	백일장	가을	유림
달집태우기	겨울 특히 정월	어린이	화전놀이	봄	일반
썰매타기	겨울	청소년	버들피리	봄	어린이
팽이치기	겨울	어린이	장치기	봄, 가을	농촌 소년
줄다리기	정월보름	일반	숨박꼭질	수시	어린이
활쏘기	봄, 가을	부유층	경로히	수시	어린이
그네	단오	여자	공기	수시	어린이
씨름	추석	남자	꽃구경	봄	일반
호미씻이	백중	농민			

4. 1990년대의 놀이

1990년 발행한 『무주군지』에는 무주의 민속놀이가 정리되어 있다. 비교적 많은 놀이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분류항목은 남성놀이, 여성놀이, 남녀공동놀이, 기타 잡희 등이다. 그동안 무주군의 놀이 보고서 중에서 가장 자세하게 정리된 것이 『무주군지』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남성놀이(총 19개)

꼬누, 구슬치기, 낫치기, 농악놀이, 닥지치기, 돈치기, 말뚝치기, 말타기, 비석치기, 서리, 씨름, 연날리기, 엿치기, 자치기, 제기차기, 쥐불놀이, 팽이치기, 호미치기, 횃불놀이

2) 여성놀이(총 9개)

공기받기(한찍기), 그네뛰기, 널뛰기, 목자놀이(받침자), 실뜨기, 실 태우기, 줄넘기, 칼치기

3) 남녀 공동놀이(총 8개)

눈싸움, 닭잡기놀이, 봉사(장님)놀이, 썰매타기, 수건돌리기, 숨바꼭질(술래잡기), 윷놀이, 천렵(川獵)

4) 기타 잡희(총 5개)

골패, 투전, 화투, 바둑, 장기

5. 2003년에 조사된 놀이

2003년의 놀이 보고서는 없던 놀이가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무주지역에서 행해지던 놀이로 과거 조사에서 누락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일부 새로 생

겨난 놀이 는 학교교육, 컴퓨터의 영향으로 생겨난 놀이이며, 스포츠가 놀이화된 것도 포함하였다. 새로 추가한 놀이는 총 99개이다.

1) 새로 추가한 놀이

1. 2. 3. 4 놀이, 20발 뛰기, 가마타기, 갈퀴치기, 감치기, 강아지 쫓아가기, 같은 종류 말하기, 개구리잡기, 개비름놀이, 경찰과 도둑, 계단 올라가기, 고무줄놀이, 공기놀이, 공놀이, 공차기, 구경거리, 구석지기, 그림 술래, 글씨 찾기, 깡통 돌리기, 깡통차기, 꿀밤 술래, 나라 뺏기, 나무치기(1), 나무치기(2), 난간 올라타기, 눈〔目〕싸움, 다리세기, 닫았다. 문열었다, 달님놀이, 달맞이, 달집태우기, 달팽이집 경주, 닭싸움, 담력 겨루기, 더위팔기, 덫놀이(참새잡기), 동전치기, 두꺼비 집짓기, 두레 싸움, 들독들기, 땅따먹기, 뛰어내리기, 말 잇기, 머리카락 싸움, 물놀이, 밀떡고사, 바람개비 돌리기, 바밤바 키스, 바이킹, 방아깨비놀이, 버들피리, 번개 놀이, 병정놀음, 보(洑)트기놀이, 보름밥 훔쳐먹기, 복다리미, 비녀돌리기, 사방뛰기(사방차기, 사방치기), 살가지 쫓기, 승경도놀이, 신발 던지기, 쌈치기(야마),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 아카시아잎 따기, 악어놀이, 액연날리기, 야광귀쫓기, 야유회, 얼음땡, 오재미, 우리집에 왜왔니, 우물(샘) 꼬누, 이름대기, 잠자리, 매미 잡기, 장치기, 정월대보름의 놀이, 주먹치기, 지신밟기(마당밟기), 질경이꼬기, 참새 잡기, 토끼사냥, 톰과 제리, 통닭놀이, 팔랑개비놀이, 팔씨름, 팽돌이, 풀 찾아내기, 풀각시놀이, 풀치기, 풍뎅이 돌리기, 한 발뛰기, 허방다리 짚기, 허수아비, 호박 따기, 흰눈썹 그리기 등

6. 부남방앗거리 놀이

방앗거리놀이는 부남면 대소리 대소·대티·가정마을을 중심으로 전승되어 오는 전통적인 놀이다. 무주읍에서 금산방향으로 12km 지점에 이르러 굴암리에서 부남방향으로 금강천변을 거슬러 9km 가량 들어가면, 옥녀봉 기슭에 아담하게 자리잡은 마을이 부남면 소재지 대소마을이다. 부남면 소재지인 대소마을은 비교적 큰마을로 김씨, 유씨, 강씨가 50호 가량 되며, 기타 성씨들까지 포함하여 100호 가량이 살고 있다. 면소지인 만큼 면사무소를 비롯하여 농협은 물론 학교 등이 있기 때문에 대소리는

유동 인구가 많은 마을이다.

대소마을 일대는 삼한시대 백제의 진례군(進禮郡), 통일신라시대 진례현(進禮縣), 조선시대에는 금산군의 지역이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무주군에 편입된 지역이다.

대소마을은 무주군에서 교통이 불편한 오지이지만, 금강 상류 지역으로 사방이 산과 강으로 둘러쌓여 산수가 아름다운 지역이기도 한다. 대소마을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구역으로 무주반딧불이 축제 때, 반딧불이 체험을 하는 장소이기도 할 만큼 깨끗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

방앗거리놀이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300여년 전 마을 전역에 전염병이 나돌아 마을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겪어야만 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한 해의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기 위하여 신에게 제사 지내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거리제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민속놀이로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부남방앗거리놀이는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전북대표로 출전하여 입상하였고, 매년 무주반딧불이 축제는 물론 전북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축제에 찬조 출연하여 무주군 민속예술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대단위 사람들이 등장하는 부남방앗거리놀이는 농촌 인구의 노령화와 인구감소로 연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1) 방앗거리놀이의 특징

- 마을의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는 엄숙한 의식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음주가무와 놀이로 연결되고 있다.
- 마을의 재앙을 몰아내기 위해 온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공동체를 유지시키려는 공동체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 제례의식, 놀이, 춤, 풍물굿 등이 어우러지는 무주군 지역의 종합적인 제와 놀이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놀이이다.
- 생활 환경의 변화로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의 본디 모습을 지켜오고 있는 것은 마을민이 한 마음이 되어 전통을 지켜내려는 의지의 소산이다.

2) 방앗거리놀이 진행 과정

① 거리굿

마을에서 노 주민이 모여 방앗거리로 나뉘어 나오며 놀이판을 펼치기 위하여 풍물굿을 앞세우고 13명 정도의 풍물패가 이동한다. 뒤를 따라 15명의 기수, 7명의 제관, 30여명의 디딜방아꾼, 11명의 제수 준비자, 4명의 화동 순으로 풍물패의 소리에 맞춰 방앗거리로 나온다. 방앗거리에 도착하면 원을 그리며 한바탕 놀이판을 벌인다. 놀이판이 마무리되면 풍물패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판에서 빠져나오고 풍물패만 방앗거리를 원을 그리며 돈다. 판에서 빠져나온 방아꾼들은 이웃마을로 방아를 떼러 간다. 방아를 떼러가면서 흥겨운 춤을 추며 이동한다. 제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집 저집 돌아가며 놀이판을 벌이며 제수를 거두어 온다.

② 창거리굿

창거리굿은 30여명의 여인들이 디딜방아를 이웃마을에서 몰래 떼어오며 노는 놀이이다. 디딜방아를 가져오면서 앞소리꾼(선소리꾼)이 소리를 메기면 뒤를 따르는 유대꾼들이 소리를 받는다. 이렇게 소리를 메기고 받으며 돌아오는 동안 사람들은 짖굳은 장난을 치며 마을로 돌아온다.

③ 창거리굿

11명의 젊은 아낙네들이 제수를 장만하기 위하여 바가지 자루를 가지고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제사에 사용한 음식을 거두어 온다. 그리고 거두어온 곡식을 절구통에 넣고 찧는다. 절구질은 두 명이 하고 다른 한 명은 손질을 한다.

④ 방앗거리제

방앗거리에서 제수를 준비하고 사람들과 풍물패는 마을 어귀까지 마중을 나가 방아를 대리고 온다. 이때 제수를 준비하던 아낙네들은 준비한 제수를 머리에 이고 풍물패 뒤를 따라 가며 논다. 방아꾼들이 방아찧기 적당한 곳에 방아를 내려놓고 물러나면 준비한 제수를 방아 앞에 내려놓는다. 이렇게 방아 운반이 끝나면 풍물패, 방아

꾼, 제수 준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방아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흥겨운 판을 한번 벌인다.

방아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판이 벌어지는 동안 제관들은 디딜방아 공이 부분을 바닥에 놓고 발로 디디는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한다. 위로 향한 부분에 여인들의 고장중의를 입히고 3색 드림으로 방아를 묶어 움직이지 않도록 땅에 고정시킨다. 방아를 고정시키고 나면 방아 앞에 모두 모여 경건한 마음으로 절차에 따라 제를 올린다. 제례는 유교식 제례로 행한다.

방아 앞에서 거리제를 지내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아래와 같은 액맥이 고사 노래를 부른다.

에루 액이야 에루액이야 / 어기영차 액이로구나
정월보름에 드는 액은 / 이월영등으로 막아내고
이월영등에 드는 액은 / 삼월삼질에 사월초파일로 막아내고
사월초파일에 드는 액은 / 오월단오로 막아내고
오월단오에 드는 액은 / 유월유두로 막아내고
유월유두에 드는 액은 / 칠월칠석으로 막아내고
칠원칠석에 드는 액은 / 팔월한가위로 막아내고
팔월한가위에 드는 액은 / 구월시월 동지섣달로 막아내고
에루 액이야 에루 액이야 / 어기영차 액이로구나

⑤ 합거리굿

제례가 끝나면 마을 대표(지금의 이장)가 “오늘 방앗거리를 무사히 마쳤으니 우리 한 번 신명나게 놀아 봅시다”라고 끝소리로 외치면 온 마을 사람들은 환호하며 원을 흥겨운 놀이판을 벌인다. 이때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방아 2개를 가지고 서로 어루고 선소리꾼의 메기는 소리에 맞추어 소리를 하며 함께 어울려 짜릿한 감동으로 신명나게 한바탕 어울리고 나면 방앗거리놀이는 끝이 난다.

방아를 어루면서 부르는 소리는 아래와 같다.

아헤 - 방아헤 - (아헤 - 방아헤 -) / 이 방아가 웬방아냐 (아헤 - 방아헤 -)
강태공의 조작 인가 (아헤 - 방아헤 -) / 아헤 -방아헤 - (아헤 - 방아헤 -)
기산영수 별긴곤세 (아헤 - 방아헤 -) / 효자 효부 놀아 있고 (아헤 - 방아헤 -)
아헤 - 방아헤 - (아헤 - 방아헤 -) / 보은 속리 문장대에 (아헤 - 방아헤 -)
세조대왕 놀아 있고 (아헤 - 방아헤 -) / 아헤 - 방아헤 - (아헤 - 방아헤 -)
우리들은 놀데 없어 (아헤 - 방아헤 -) / 이 방아로 놀아 보자

3) 방앗거리 구성

인원은 제한이 없으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놀이에 가담하며 한 가구당 최소한 성인 1명이상은 참여한다.
구성 인원 : 제관-7명, 방아꾼-30여명, 제수준비-11명, 화동-4명, 기수-15명, 풍물패 30여명

① 복색
제관은 유건을 쓰고 그 외 제례자는 정자관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는다.
남자의 옷은 흰저고리와 흰바지에 행전을 맨다.
여자의 옷은 흰저고리와 흰치마를 입고 머리에는 흰수건을 두른다.
풍물패는 전통적인 좌도풍물굿의 복장을 입는다.

② 장비
제상, 제물,용당기, 농기 등 9개, 키3개, 절구통 3개, 절구대 6대, 체 3개, 축문, 풍물 아기, 디디방아 및 동아줄, 놀이기 9개

③ 기의 종류
<소원성취>, <우순풍조>, <액운소멸>, <방앗거리 놀이>, <천우신조>, <무병장수>, <국태민안>, <만사대길>, <액운소멸> 등

<2003년 방앗거리 참여자 명단> 총인원 : 80명 내외

이 름	성 별	나 이	이 름	성 별	나 이	이 름	성 별	나 이
유광종	남	55	최동진	남	56	김남순	여	63
배종문	남	59	유영석	남	61	강이순	여	64
김기성	남	44	강명섭	남	62	류순열	여	62
이문수	남	63	주규식	남	62	유 순	여	65
김영수	남	43	박영근	남	70	이양예	여	58
주의식	남	46	백태열	남	60	이판심	여	53
김우철	남	48	유재두	남	57	황경순	여	55
임상남	남	62	김영규	남	70	백봉남	여	64
김호진	남	53	김희숙	여	49	유복순	여	56
황동주	남	47	유순애	여	47	김영순	여	65
김영규	남	70	정길주	여	54	주영이	여	45
최봉근	남	60	최기수	여	48	유순자	여	52
박태선	남	60	송복단	여	53	이옥자	여	58
백정환	남	47	한복심	여	51	김연숙	여	55
유영두	남	47	주금순	여	55	신옥단	여	62
강두석	남	69	신현신	여	58	이봉님	여	65
강봉덕	남	65	김순선	여	61	엄애자	여	58
황수덕	남	58	강영덕	여	62	박순남	여	65
황익주	남	73	이소지	여	62	이정순	여	58
권기주	남	71	권경순	여	57	김현미	여	49
김복동	남	74	이화자	여	54	조은영	여	58
유문호	남	62	강숙자	여	56	김순자	여	57
임옥봉	남	71	이장순	여	42	강기택	여	6
김석대	남	59	이연옥	여	58	유환정	여	7
이홍로	남	65	이호생	여	59	유환진	여	8
김남수	남	27	김순숙	여	65	유윤상	여	10
박경식	남	56	최봉순	여	62			

7. 무주의 민속놀이 방법

1. 남성놀이

1) 가마타기

두 사람은 서로 손목을 엇갈라 잡고 한사람은 그 위에 타는(원님승마) 놀이다. 일명 사도승교희(使道乘轎戱). 주로 소년들이 즐긴다.

2) 갈퀴치기

갈퀴는 마른 풀이나 나뭇잎, 검불 또는 곡식 등을 긁어 모으는 데에 쓰는 기구이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 이 갈퀴를 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놀이가 곧 갈퀴 치기다. 이 놀이는 낫 치기와 비슷한 놀이로서 놀이 기구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 하는데, 낙엽이나 나무를 하는 도중에 취하는 휴식 사이에 하는 놀이로서 다소 투기성이 있다.

놀이자는 나무 한 다발씩 또는 한 아름씩 걸고 갈퀴를 가지고 승부를 다툰다. 갈퀴 자루를 손에 잡고 돌리거나 갈퀴자루를 잡고, 일정한 선 밖으로 집어 던져서 갈퀴 밑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바르게 서는 사람이 이긴다.

갈퀴 밑이 하늘로 향하는 사람은 실격이 되어 놀이에서 제외된다. 놀이자 전원 실격이 되면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승부를 겨룬다. 1차 던지기에서 바르게 선 사람이 여럿일 경우에는 이들만이 2차, 3차 계속 던져서 최종승자를 가린다. 최종 승자는 놀이자들이 걸어 놓았던 나무나 낙엽을 모두 차지한다.

● 다른 형태

낫치기와 비슷하며 산에 갈비를 하러 갈 때 한다. 갈퀴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갈퀴부분을 하늘로 향하게 한 다음 높이 던지면서 회전을 시키는데 갈퀴의 뾰족한 부분이 땅바닥에 꽂히면 이긴다. 논 같은 데서 해야 잘 꽂힌다고 한다.

3) 감치기

꼭지쪽 밑을 옆으로 두 동강 잘라 씨를 셈하여 씨가 많은 편이 이긴다. 엿치기 놀이와 같은 방법이다.

4) 골패

골패는 뼈를 깎아 만든 도전성(賭傳性)놀이 기구로 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골패(骨牌)라고 한다. 손가락 한 마디만한 검붉은 나무나 뼈의 바탕에 그와 똑 같은 크기의 흰 뼈를 붙였는데, 흰 뼈에는 한 구멍에서부터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순 뼈로만 깎은 것은 민패, 뼈에다 대나무를 깎아 붙인 것은 사골패(紗骨牌)라고 한다. 골패는 투전과 함께 민간 놀이기구로 널리 사용하나 그 값이 비싸고 방법이 복잡하여 대중화되지는 못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즐겨하던 놀음으로 원래는 중국에서 유래되어 우리나라에 전하게 된 것이며 그 놀이의 방법도 중국의 마패(麻牌)와 비슷하다.

골패는 장방형으로 앞면에 크고 작은 붉은 점과 검은 점을 파서 표식하여 32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명칭과 수량은 다음과 같다.

백아. 백사. 아삼, 아사, 관이, 이륙, 삼사, 백오, 백륙, 진아, 장삼, 직흥, 순오, 사륙, 오륙, 주륙, 각 2장씩이다. 두 사람 혹은 너덧 사람이 둘러앉아서 한 짝을 내고 한 짝을 맞추고 하는 놀이이다. 여시, 골여시, 쩍쩌기 등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 마작의 원시적인 것이다.

5) 공차기

한 아이를 공이라고 지정한 다음 다른 아이가 발로 차서 굴린다. 세 개 차지는 않으며 체인 아이는 공처럼 데굴데굴 굴러야 한다.

6) 구슬치기

구슬치기는 겨울철에 주로 하던 놀이로 옛날에는 진흙으로 동글동글한 구슬을 빚어 말려서 불에다 구워 만들거나 깨진 기왓장을 갈아서 둥글게 만들어 구슬치기를 했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라 유리구슬, 사기구슬 등이 나왔고 6·25동란 이후에는 무기류 또는 자동차 등의 기계류에서 나온 쇠구슬(베어링)이 나와서 사용하기도 했다.

구슬치기는 땅바닥에 약 7㎝크기의 구멍을 파고 적당한 거리에다 선을 그어 그 선을 그은 자리에서 구슬을 던지거나 발로 굴려서 구멍 안에 넣어야 하는데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상대방의 구슬 하나를 따먹게 되고 만약 그 구슬이 구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음 차례가 같은 방법으로 하여 들어가면 먼저 던진 사람의 구슬을 따먹게 되나 들어가지 않으면 먼저 던진 사람이 구슬을 굴리거나 던져서 상대방의 구슬을 맞추어 따먹는 놀이다.

7) 깡통 돌리기

보름달이 뜨면 동네 아이들이 횃불과 깡통을 들고 마을 앞으로 모인다. 밤에 달맞이를 하고 논둑과 밭둑을 태운다. 깡통 돌리기는 쥐불놀이의 일종으로, 남자아이들이 산에서 소나무 관솔을 따다가 깡통에 넣고 돌리던 놀이이다. 아이들은 정월 14일 아침에 마을의 쓰레기 더미에서 빈 깡통을 구하여 쥐불을 놓을 준비를 한다. 빈 깡통에 못을 이용하여 구멍을 낸 후 양쪽을 철사를 연결하여 허리 정도 되게 줄을 만든다. 구멍은 불을 깡통에 넣었을 때 바람이 들어가 나무가 더 잘 타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빨리 돌리면 돌릴수록 불꽃은 더 밝았다.

저녁이 되면 아이들은 들판에 나아가 모닥불을 피우고 불씨를 나무와 함께 깡통에 담은 후 돌린다. 이때 송진이 묻은 관솔을 따다가 구멍이 뚫린 깡통 속에다 넣고 돌린다. 그러면 연기가 나면서 불이 잘 타는데, 그것을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돌렸다.

밤이 으슥할 때까지 깡통을 돌리다가 보면 깡통에 숯불이 많이 남는다. 깡통의 반 정도 숯이 차면 하늘로 힘껏 던진다. 그러면 깡통에 있던 불붙은 숲이 떨어지면서 하늘에 불꽃에 수놓게 된다. 그리고 깡통을 거두어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깡통에다 관솔을 넣고 불을 붙여 돌리다가 이웃 마을의 아이들과 싸움을 하게 된다. 그 돌리던 깡통을 빼앗고 빼앗기는 놀이로, 깡통을 빼앗긴 동네는 흉년이 들고 빼앗은 동네는 풍년이 든다고 한다.

8) 깡통 차기

직경 50cm정도의 원을 그리고 그 안에 깡통을 놓고서 술래를 정한다. 다른 사람들은 한 번 깡통을 차고 숨으면, 술래는 차여진 깡통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숨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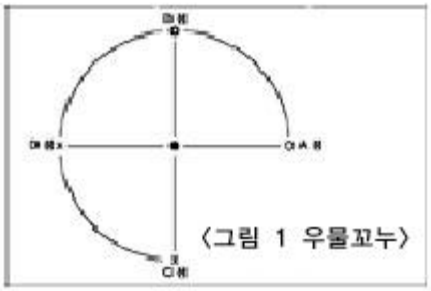
들을 찾기 시작한다. 숨은 사람을 찾았을 경우에는 찾은 사람의 이름을 대고 깡통에 돌아와서 밟으며 찜을 하면 죽게 된다. 찾았어도 술래보다 빨리 돌아와 깡통을 원 밖으로 차면 다시 숨을 수 있다. 이때 깡통을 차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또한 술래가 찾은 사람이 많아도 찾지 못한 사람이 술래보다 먼저 또는 술래 몰래 깡통을 차면 죽은 사람도 다시 숨을 수 있다. 그렇게 술래가 숨은 사람을 다 찾으면 사람들끼리 가위 바위 보를 해 새로운 술래를 정하여 반복적으로 놀이가 진행된다.

9) 꼬누

무주지방에서는 꼰 또는 고누라고 하는데 그 종류는 다양하여 우물꼬누, 사발꼬누, 네발꼬누, 물레꼬누, 참꼬누 등이 있다. 이 꼬누는 농촌에서 농민들이나 어린아이들이 야외의 나무 그늘 밑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 땅바닥에다 말판을 그려 놓고 조그마한 돌이나 나뭇가지 등을 꺾어 말을 만들고, 둘이서 상대가 되어 말을 움직여 상대방의 말을 꼼짝 못하게 가두면 이기는 놀이다.

가) 우물(샘) 꼬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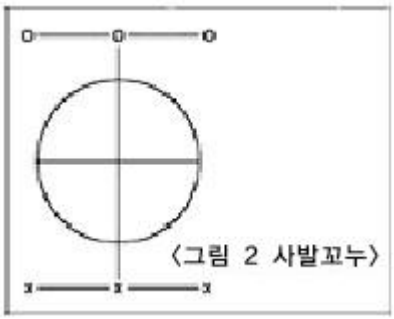
우물 꼬누는 샘꼬누 또는 강꼬누라고도 한다. 먼저 땅바닥에 다 둥근 원을 그려놓고 그 원의 중심점에서 십자로 줄을 그어 넷으로 나눈 다음 한쪽 변을 지워 우물을 만들어 어느 쪽의 말이든지 건너가지 못하게 하고 한쪽 편마다 2개씩의 말을 만들어 놓고 상대편의 말과 번갈아서 한 점씩을 옮겨 놓는 것으로 이때 상대방의 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으면 이긴다.


〈그림 1 우물꼬누〉

즉. 이 우물꼬누를 두는 방법을 그림을 통해 설명하면 ○편이 먼저 시작할 경우 ○편의 A점의 말은 M 점으로는 먼저 움직일 수 없으며 X편이 먼저 시작하는 경우에도 X편의 C점 말은 M점으로 먼저 옮길 수 없다. 이 꼬누는 어느 편이든지 가운데에 놓여있는 즉 ○편의 B점말, X편의 D점말부터 M점으로 움직이면서 시작하여 상대방의 말이 움직일 수 없을 때까지 계속 꼬누를 둔다.

나) 사발(세발) 꼬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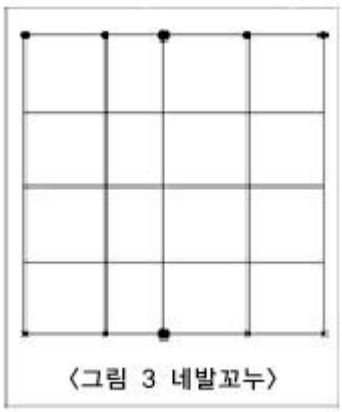
무주 지방에서는 서발꼬누, 호박꼬누, 선꼬누라고도 한다. 양편이 공히 세 개씩의 말을 움직여 두는 꼬누로서 꼬누의 모양이 마치 호박 또는 사발 같고 그림이 서 있는 모양이라서 선꼬누라고도 한다.


〈그림 2 사발꼬누〉

이 꼬누는 자기편의 말을 앞으로 움직여 상대방의 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꼬누로 자기 집에서부터 한발씩 전진하여 원안으로 나온 말은 집으로는 후퇴할 수 없으며 자기 집에 서도 한번 움직인 말은 옆으로도 후퇴는 할 수 없고 다만 전진만을 하여 상대방의 말을 움직일 수 없도록 하면 이기고, 또 한 가지는 말을 한 발씩 전진하여 상대편의 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봉쇄
하면서 상대방의 집을 먼저 점령하면 이기는 놀이가 있다.

다) 네발꼬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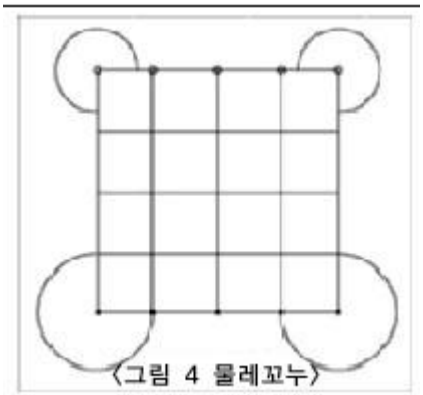
네발꼬누는 가로와 세로에 각각 5줄씩의 선을 그어 사각형 말판을 만들어 놓고 둘이서 하는 꼬누로 양편이 각각 장수 말 1개와 졸병 말 4개씩을 말판 맨 앞줄에다 놓는데 그 중에 장수 말은 한가운데 줄에다 놓는다. 놀이의 방법은 상대편 장수 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두거나 상대편의 졸병 말을 3개 이상 먼저 따내면 이기는데 장수 말은 한번 움직여서 상대편 졸 병말 사이를 끼어 들어가면 그 졸 병말 2개를 따낼 수 있고 졸병 말은 상대편 말을 양쪽에서 에워싸게 되면 그 말을 따낼 수 있는 놀이다.


〈그림 3 네발꼬누〉

라) 물레(바퀴) 꼬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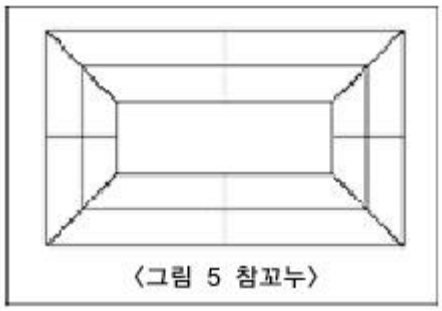
물레꼬누는 네발꼬누라고도 한다. 네 귀퉁이에다 물레같은 원을 그려놓아 물레같이 생겼다 하여 물레꼬누라고도 하는데 더러는 바퀴꼬누 또는 자동차꼬누 라고도 한다. 이 꼬누는 두개의 말로 상대방의 말을 사이에 가두어 잡아내는 것으로 상대방의 말

을 잡을 때는 반드시 네 귀퉁이의 물레를 돌아야 하며 물레를 돌 때는 직선상의 앞을 가로막는 말이 없어야 한다. 상대방의 말을 잡기 위해 물레를 돌 때는 여러 개의 발을 건너 뛸 수 있는 특전이 부여된다.


〈그림 4 물레꼬누〉

마) 참(상)꼬누

참꼬누는 곤질꼬누 또는 상(床)같이 생겼다고 하여 상고누라고도 한다. 참꼬누는 사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다 중간 사각형, 한 가운데에다 작은 사각형을 그은 다음 바깥 사각형 귀에서 가운데 작은 사각형의 귀까지 대각선을 긋고 가로, 세로 2등분하여 바깥 사각에서부터 한 가운데 제일 작은 사각까지 선을 그어 말판을 만든다.


〈그림 5 참꼬누〉

이 참꼬누는 양편이 각각 다른 말을 사용하여 양편이 번갈아 가며 말 하나씩을 말판의 교차점에다 놓아 가면서 자기 말 3개가 일직선이 되면 그것을 「꼰」이라고 하여 상대편의 말 하나를 제거하고 상대편 말을 제거한 자리에는 X표시를 하여 그 자리에는 다시 말을 놓을 수 없게 한다.

그렇게 하여 말을 놓을 자리가 없어지면 서로 말판 위에 있는 말을 움직여 「꼰」을 만들면서 상대방 말의 수를 줄여서 꼰을 만들 수 없는 3개 이하가 되면 지는 것이다.

10) 나무치기(1)

긴 나무를 가늘게 다듬어 삼각 발이 되도록 대각선으로 묶어 세운다. 나무꾼들이 자신들이 한 나무를 한 다발, 혹은 한 짐을 걸고 순서를 정하여 대각선으로 묶어 세운 나무 사이로 돌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여 그 안으로 많이 들어간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이긴 사람은 걸어놓았던 나무를 모두 가져가는 놀이이다.

11) 나무치기 (2)

이 놀이는 나무를 가지고 상대의 나무를 쳐서 따먹는 놀이로, 늦가을에서 이름 봄 사이 추수를 마친 논이나 마당에서 주로 행해졌다. 나무치기를 하려면 일정 30~40cm 길이로 자른 다음 낫으로 한쪽 끝을 뾰쪽하게 깎는다. 그러면 못처럼 날카롭게 되어 한 손으로 잡고 던지면 그대로 꽂히게 된다.

나무치기는 던진 나무가 바닥에 꽂혀있는 상대의 나무를 쓰러뜨려 바닥에 꽂히면 상대로부터 나무 한 개를 받는다. 그러나 상대의 나무가 쓰러졌어도 자기가 던진 나무가 땅에 꽂히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이런 나무 치기는 두 명이 일 대 일로 놀이를 할 수도 있지만 서너 명이 어울려서 함께 놀이를 하면 더욱 재미가 있다. 예를 들어 차례로 나무치기를 하는데, 이등과 삼등은 자기의 나무를 바닥에 꽂아 놓아야 한다. 이때 일들은 쓰러뜨리기에 좋은 나무를 골라 자기의 막대로 상대의 나무를 쳐서 성공하면 계속해서 나무 치기를 할 수 있고, 실패하면 순서대로 나무 치기를 한다.

12) 낫치기

낫치기는 농촌의 청소년들이 나무하러 가거나 들에 풀을 베러가서, 해놓은 나무나 풀을 따먹는 놀이다. 이 낫치기는 6~7㎝ 전방에다 선을 그어 놓고 한 줄로 서서 그 선을 향해 낫을 일제히 던져 땅에 꽂히게 되면 이기게 되고 꽂히지 않으면 지는 것으로 낫치기에서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나무나 풀을 대신 해주거나 나뭇짐이나 풀짐을 이긴 사람 집까지 날라다 준다.

13) 닭싸움

남자아이들이 단체적으로 하는 놀이라 한다. 이 놀이는 외발로 서서 몸을 지탱해야 하는 점에서 균형감을 체득시켜 줄 수 있는 놀이이다. 외발로 서서 몸싸움을 한다. 이때 손을 사용하거나 두 발이 땅에 닿으면 안 된다. 깡충깡충 뛰면서 서로를 쓰러뜨리거나 땅에 발이 닿는 사람이 죽게 된다. 잡고 있던 발을 놓치거나, 손을 사용한 사람이 진다.

14) 담력 겨루기

백주에 표지물을 꽂아 놓고 삼경 들어 산지당, 묘지골, 방죽골, 상여집, 애장터, 숲, 산제당 등을 골라 단신으로 다녀오는 담력 겨루기다. 소년들이 여름과 겨울에 수시로 즐겼다.

15) 돈치기

돈치기는 포근한 겨울철이나 이른 봄에 청소년들이 많이 하던 놀이로 옛날에는 엽전으로 하던 것을 지금은 동전으로 상대방의 동전을 따먹는 놀이이다.

돈치기는 땅에다 발금을 그어 놓고 그 발금에서 약 5m정도 띄어 경계선을 그은 후 그선 전방 약 30㎝정도 떨어진 곳에다 엽전 하나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돈구멍 하나를 파 놓는다.

돈치기를 할 사람들은 모두 발금을 밟고 서서 각자의 동전을 돈구멍을 향해 던져 돈구멍에서 제일 가깝게 떨어진 동전 주인이 제1순번, 그 다음이 2순번, 제일 먼 곳에 떨어진 사람이 끝 순번이 되는데 정해진 순번에 따라 제1번 순번 자가 돈치기에 참가한 모두에게 동전1개씩을 거두어 동전구멍을 향해 모두 던져 놓으면 다음 순번 자들이 흩어져 있는 동전들 중에서 하나씩 지적해 준다. 첫 번째 순번자는 목자라고 하는 손바닥 크기의 납작한 돌로 던져서 동전을 맞히면 그 동전을 다 따먹게 되고 만약 맞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되며 다음 순번 자 순으로 이어 진다.

처음에 돈구멍을 향해 던진 동전이 경계선을 넘지 못하면 실격이 되어 다음 순번자의 순서가 되고 던진 동전이 실격이 되지 않고 돈구멍으로 들어가면 그 동전은 던진 사람의 것이 되는 놀음으로 정해지는 방법과 규칙에 따라 얼치기, 펑치기 등으로 불리는 도박성 민속놀이도 있다.

16) 동전치기

땅바닥에 작은 원을 그리고 각자 동전을 몇 개씩 넣은 다음 정해진 선 밖에서 동전을 던져 원 안의 동전이 원 밖으로 튕겨 나가면 먹는다. 동전치기도 오랜 옛날부터 되어 온 듯하다. 동국세기기에 이르길 “땅을 파서 구멍을 만들고 어른과 아이들이 편을 갈라 돈을 그 속에 넣어 그 구멍을 채운다. 그리고 큰 동정으로 그 구멍 안의 내기

물건을 맞춘다. 그리하여 맞춘 사람이 그 돈을 갖고 이긴 것으로 친다. 만일 잘못 맞추었거나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지는 것이다. 정월 보름날에 이 놀이가 더욱 성하다." 아이들은 혹 사금파리를 돈으로 삼아 던지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요즘도 중·고등학생 사이에 가끔 보인다.

17) 덫놀이(참새잡기)

세찬 진눈깨비라도 휘 뿌리는 날 장독대머리 앵두나무 그늘 밑에서 삿갓, 쌀책박 등을 작대기로 받친 그 위에 맷돌을 한 짝 눌러 씌우고 새끼끈, 질경이끈 등을 작대기에 비끄러메어 줄 한 끝을 방 속에 끌어들여 뒷창머리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때마침 참새 떼들이 날아와, 뿌려 논 쌀, 조, 보리 등을 주워 먹을 때 <덫>에 걸리도록 해서 잡는 놀이다. 동지섣달, 어린 소년들이 즐겼다.

18) 두레 싸움

각 마을마다 두레패가 별도로 있어서 농사를 짓거나 각종 행사가 있을 때 풍장을 치고 흥을 돋우곤 했다. 농사일을 하기 위해 풍장을 치고 가다가 두레패끼리 마주치게 되면 아우두레는 형님두레에게 기절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 싸움은 상대편의 꿩장목을 뺏는 편이 이기게 된다. 싸움에 진 두레는 싸움에 이긴 두레에게 예를 다하고 형님으로 각별하게 모시게 된다. 싸움에 이긴 두레 중에서는 간혹 싸움에 진 두레의 풍물패까지 모두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하여 심한 경우에는 진짜 싸움으로까지 확대되어 대단히 곤욕을 치른 적도 있었다고 한다. 두레싸움의 과정은 '길놀이→기세배→마당놀이→기돌림→두레싸움→뒷풀이'의 순으로 되어 있다.

19) 들독들기

암괴, 거목, 맷방석, 절구통, 학돌, 다듬이 돌 등을 단번에 들쳐 메어 드는 놀이로 백중이나 칠월칠석 때 술맥이 굿을 하며 성인 남자들이 한다. 돌의 크기에 따라 가슴까지 들어올리는 것과 어깨 뒤로 넘어뜨리는 것이 있다. 마을 정자나무 밑이나 모정 근처에 들독이 있어 청년들이 평상시에도 한번씩 들어보기도 한다. 그리고 지나가는 외

지 청년이 있으면 들독을 들게 하여 들어올리면 융숭한 대접을 하지만 들어올리지 못하면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마을 앞에 있는 들독의 크기는 힘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20) 딱지치기

딱지는 패라고도 하는데 어린이들이 마당이나 행길에서 하는 놀이다. 딱지치기는 보통 2~4인 정도가 같이 하는 놀이로 두터운 종이나 곽종이 등을 5~7㎝정도 크기의 사각형으로 견고하게 접어서 만들어 그 딱지를 따먹는 놀이다.

먼저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하여 진 사람이 딱지를 땅위에 깔아 놓으면 맨 처음 순번 자가 자기의 딱지로 후려쳐서 땅에 깔린 딱지를 뒤집어지게 하면 따먹는 놀이가 있고 또 땅에 일정한 크기의 원을 그려놓고 진 사람들이 원안에다 딱지를 깔아 놓으면 처음 순번 자가 원안에다 자기의 딱지를 내려쳐서 원 밖으로 밀어내면 따먹게 되는데 만약 따먹지 못하면 다음 순번 자가 같은 방법으로 치기를 하여 따먹는 놀이다.

요즘 어린이들은 문구점에서 딱지사서 사용한다. 놀이 방법은 과거와 같으나 과거에는 딱지를 만들어 사용한 것에 비하여 현재는 만들어진 딱지를 돈을 주고 사서 사용한다는 점만 다르다. 현재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딱지는 만들어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깔끔하고 딱딱하여 사용과 보관에 용이하다. 가격은 1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21) 뛰어 내리기

높이 약 1.5m쯤 되는 연단에서 뛰어내리는 담력 시합을 한다. 뛰어내리다가 넘어지면 실격이고 울거나 코피가 나면 진다.

22) 말뚝치기

말뚝치기는 시골에서 추수가 다 끝난 다음 아동들에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즐기던 놀이로 팔목 굵기 정도의 약 45㎝쯤 되는 말뚝 끝을 뾰쪽하게 깎아서 논바닥에 내려 꽂으며 하는 놀이 인데 먼저 첫 순번 자가 자기의 말뚝을 논바닥에 내려 꽂으면 다음 순번 자가 꽂혀있는 말뚝을 향해 자기의 말뚝을 내려쳐 꽂으면서 상대방

의 말뚝 을 넘어뜨리게 하며 따먹는 놀이(상대방의 말뚝을 넘어뜨려 꽂히면 이기지만 같이 넘어지면 비기게 된다.)로 일해주기, 술내기 등의 규칙을 정하기도 하여 즐기던 놀이이다.

23) 말 타기

말 타기는 소년들이 즐겨하던 놀이로 대체로 두 가지의 놀이가 있다. 한 가지는 놀이에 참여할 소년들끼리 가위, 바위, 보로 말과 마부를 정하는데 제일 먼저 진 소년은 말의 머리를 오른쪽 옆구리에 끼고 오른손으로 말의 눈을 가리고 말은 마부의 허리를 두 팔로 휘어잡아 튼튼한 말을 만든다.

이렇게 말이 만들어지면 마부는 가위, 바위, 보에서 이긴 소년들이 말을 타게 되는데 그 소년들이 말을 탈 수 없도록 이러 저리 피해 다녀주고 말은 뒷발질로 위협을 준다. 이때 말을 탈 소년들은 말 뒤쪽에서 빠른 동작으로 올라타야 하는데 말을 타다가 말의 뒷발질에 채이면 채인 소년은 말이 되고 말을 하던 소년은 마부가 되며 마부를 하던 소년은 말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말은 여러 사람이 같이 탈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두 편으로 나누어 하는 놀이로 각 판별로 대장 한사람 씩을 선정한 후 가위, 바위, 보로 승부를 정해서 진편은 모두 말을 만들고 이긴 편은 말을 타게 되는데 말을 만드는 편의 대장이 벽이나 기둥 같은 곳을 의지하고 서면 다른 소년 하나가 대장의 허리를 잡고 허리를 꾸부리면 다음 소년들은 순서에 따라 앞에 있는 소년의 허리나 다리를 잡고 허리를 꾸부려서 숫자대로 긴 말을 만든다. 이때 이긴 편에서는 멀리서부터 뛰어와 말을 타야 하는데 편의 숫자대로 다 타야 하고 잘못하여 말에서 떨어지거나 사람 수 대로 다 탈수 없으면 지게 되며 다 탓을 때에는 대장끼리 가위, 바위, 보로 승부를 정하여 다시 시작한다.

24) 물놀이

여름에 더위에 식히기 위하여 개울이나 연못가에서 멱을 감게 된다. 이 물놀이는 어린이들은 개울에서 물장구를 치고 고기를 잡으며 더운 여름을 보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튜브나 다양한 용구가 필요하지만, 옛날에는 별로 없었다. 따라서 물가에 가서

수영을 하다가 주인 몰래 인근에 있는 수박이나 참외를 서리하다가 물가에서 나누어 먹는 것이 다였다.

25) 바둑

바둑은 한자로 기(碁), 혁(奕) 또는 위기(圍棋)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라고 하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상류층에서 즐기던 놀이였으며 고려시대는 문인, 학자들 사이에 애호를 받았고 조선시대는 왕가에서 즐겼던 놀이다. 세조왕은 오행위기법(五行圍碁法)을 친히 만들었는데 옛날은 오동나무통위에 대추나무를 깎아서 붙여 바둑판을 만들어 돌을 놓을 때 부드러운 소리가 나도록 했다고 한다. 지금은 타나무, 은행나무 등의 통나무로 판을 만드는데 세로 19줄 가로 19줄의 선을 그어 흑과 백의 돌로 집을 만들고 생대방의 돌을 잡아내어 집을 줄이게 하는 한편 자기 집의 수를 늘려 이기게 하는 놀이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실내 오락으로 대중적인 오락이 되었고 남녀노소 없이 누구나 즐기고 있다. 현재는 프로 바둑인들이 생겨 바둑을 생계의 수단은 물론 명성과 부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스포츠가 되어있다.

26) 반딧불 호롱놀이

호롱, 호박꽃, 소지종이, 갈포망 등으로 주머니 모양 또는 봉지 모양을 만들어 반딧불을 그 속에 잡아넣어서 노는 반딧불 호롱놀이다. 일명 개똥불 놀이라고도 하며, 여름철에 어린 소년들이 즐겨했다. 반딧불이는 무주를 대표하는 곤충으로 무주반딧불이 축제는 무주의 청정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성공하였다.

27) 병정놀음

초등학생들이 야산에 가서 두 편으로 나누어 병정놀이를 한다. 나무로 총을 만들거나 새총 같은 것으로 쏘기도 하여 다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28) 비석치기(돌치기)

비석치기는 두 사람 이상하면 어느 장소든지 땅바닥 위에서 할 수 있는 놀이다. 이

비석치기는 돌을 던질 장소에서 약 5m전방에다 선을 그어놓고 비석같이 생긴 납작한 돌 하나를 그 선에다 세워 놓은 후 비석치기를 할 사람들끼리 가위, 바위, 보로 순서를 정하여 그 순서에 의해 전방의 비석 돌을 자기의 먹자라는 돌로 맞히어 쓰러뜨리는 놀이다.

이 놀이의 방법은 대게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하고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그냥치기 : 발금에서 선채로 먹자 돌을 던져서 맞추기.

●엎어치기 : 발등에다 먹자를 얹어서 세발 뛴 다음 비석 돌을 맞추어 쓰러뜨리기

●오금걸이 : 다리의 오금사이에 먹자를 끼우고 깨금발로 뛰어가서 오금을 펴면서 비석을 쓰러뜨리기

●사타구니치기 : 먹자를 사타구니 사이로 끼고 모둠발로 뛰어가서 떨어뜨리며 비석돌 쓰러뜨리기.

●봉사치기 : 눈을 감고 먹자를 던져서 비석돌 쓰러뜨리기.

●물동이이기 : 먹자 돌을 머리에 이고 가서 허리를 굽히며 떨어뜨려 비석돌 쓰러뜨리기.

●가슴치기 : 먹자 돌을 가슴에 얹고 가서 떨어뜨려 비석돌 쓰러뜨리기.

●어깨치기 : 먹자 돌을 어깨에 얹고 가서 떨어뜨려 비석돌 쓰러뜨리기.

●등치기 : 먹자 돌을 등위에 얹고 가서 뒤로돌아 허리를 펴면서 떨어뜨려 비석돌 쓰러뜨리기.

위와 같은 순서를 정하여 진행하다가 실수하면 다음 순번 자가 교대하여 하는 놀이다.

29) 서리

서리란 옛날 청소년들이 남의 곡식이나 과일, 가축 등에 이르기까지 주인 몰래 따 먹거나 불에 구워 먹거나 잡아먹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서리는 값을 치르지 않고 몰래 훔쳐오는 행위이므로 지금은 근절되고 없다. 옛날에는 동내 청소년들이 산이나 들에 일하러 갔다가 들에 익은 곡식, 밀이나 콩 또는 감자, 고구마 같은 것을 조금씩 따다가 그 자리에서 구워 먹으며 배고픔도 달래던 것이어서 주인에게 들켜도 장난질로 생각하여 너그럽게 대해 주었다. 그러나 6·25동란 이후 치열한 생존경쟁의 시대로 바뀌면서 현재는 서리를 절도로 간주하여 법으로 금하고 있다.

여기서 옛날 농촌 청소년들이 즐겨하던 서리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 밀서리

밀서리는 늦은 봄밀이 노랗게 익기 시작할 무렵, 이 밭, 저 밭에서 익은 밀의 이삭을 뽑아 한 움큼이 되면 냇가나 개울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불에다 그을려 익혀 먹는데 어느 정도 불이 다 타면 익은 밀 이삭만 남는데 이 때 밀 이삭을 손바닥으로 비벼서 껍질을 불어내고 남은 밀알만 먹는다.

● 콩서리

콩서리는 초가를 콩잎이 떨어지고 콩이 여물기 시작할 때 몇 곳의 콩밭에서 두 세 포기씩 뽑아다가 냇가나 넓은 바위 위에다 마른 나뭇가지를 주어다 불을 피우고 그 위에다 콩다발을 얹어 놓으면 불에 타면서 떨어지며 익는데 불이 다 타고나면 불 자리를 불어내고 남아있는 콩깍지와 콩만 골라서 빙 둘러앉아 콩을 주워 먹는다.

● 감자서리

감자서리는 춘궁기에 많이 하던 것으로 감자밭에 꽃이 필 무렵이면 몇 개씩 캐내어 강가의 모래밭을 찾아 모래를 파고 널찍한 돌을 주어다가 구들을 놓은 후 그 위에다 새알만한 자갈을 깔아 놓고 불을 때면서 돌을 달군다.

돌이 달구어 지면 감자를 그 구들 위에 얹어놓고 흙이나 모래로 그 위를 덮어서 잘 다진 후에 냇물을 길러다가 흙 위에 촉촉하게 부으면 뜨거운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감자가 고르게 잘 익게 되는데 물을 붓고 20~30분 후에 흙을 파내면 잘 익은 감자가 탐스럽고 포근포근하게 익어 감자 맛이 일품이다.

30) 승경도 놀이

승경도 놀이는 조선시대 양반층의 자제들이 주로 놀았던 놀이다. 지방에 따라서는 승정도, 종정도, 정경도 등으로 불리며 놀이 방법과 말판이 조금씩 다르다. 이 놀이는 말판에 관직명을 칸칸마다 적어 놓고 윤목을 던져 나온 숫자대로 말판에 적어 놓은 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벼슬자리를

이해하게 되고 선비의 자세를 익히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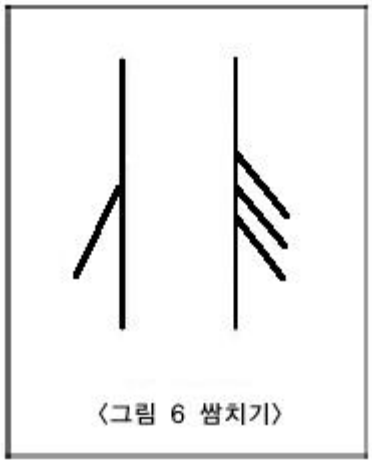
놀이 방법은 윷놀이와 비슷하다. 그러나 윷놀이는 던져서 나온 윷의 모양에 따라 가면 되지만, 승경도 놀이는 윤목을 던져서 나온 수대로 가되 말판에 여러 가지 경우를 적어 놓아 꼭 그 곳으로 가야 한다. 가다 보면 사약을 받는 경우도 있고 빨리 승진을 할 수도 있다.

31) 쌈치기(야마)

이 놀이는 일종의 놀음의 일종으로 투기성이 강하다. 놀이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동전을 가지고 노는데, 뒤에 으찌, 두비 ,쌈이란 놀이와 비슷하다. 이 쌈치기 놀이는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놀이자는 우선 동전 여러 개를 손에 넣고 흔든다.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숫자를 3까지 정한다. 동전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숫자를 배수로, 동전의 개수를 빼어 나아간다. 남는 갯수가 자신의 숫자와 일치할 때 이기는 놀이이다.

세 곳 중에서 두 곳에만 갈 수 있고 한 곳은 비워 두는데 이곳은 동전을 잡은 사람의 몫이다. 아무도 맞추지 못하면 동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되고 한 곳이라도 맞추면 맞춘 사람이 건 돈만큼 주게 되며, 맞추지 못한 사람은 건 돈을 다시 반환하게 된다.



〈그림 6 쌈치기〉

32) 씨름

씨름은 남자들의 전통적인 민속놀이로 옛날부터 우리의 조상들이 힘과 재주를 겨루며 즐겼던 서민적인 민속이다. 옛날에는 정월 대보름, 정월 단오, 칠월백중, 팔월 한가위, 구월 중양절 등 농사일이 비교적 한가한 명절을 전후하여 씨름판을 벌였는데 누구나 한 번씩은 겨루어 보았다.

씨름은 개인전과 단체전이 있는데 개인전에 출전한 선수가 1등을 하게 되면 그에게 장사라는 칭호와 함께 황소 한 마리를 상으로 주었다. 황소를 상으로 받은 장사는 황

소의 등에 타고 의기양양하게 마을로 들어가며 용맹을 자랑하였고 동내에서는 풍물을 치며 한바탕 동네잔치를 벌였는데 황소를 타 가지고 온 장사는 동네 처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씨름판에서 최후의 승자에게 황소를 상으로 주는 것은 옛날 농촌에서 농사일에 반드시 황소가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농부들을 돕기 위한 풍습이었던 것이다. 또한 단체전은 마을과 마을끼리 기량을 겨루는 것으로 한 마을에서 대개 다섯 명씩의 선수를 선발하여 팀을 이룬 다음 씨름판을 벌였는데 부락대항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날은 온 동내가 밤늦도록 풍물을 치며 잔치를 벌여 하루를 즐겼다.

씨름판은 일정한 규격은 없고 마을의 공터나 운동장 같은 넓은 마당에다 사람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도록 적당한 크기의 둥근 모래판을 만들어 놓고 시름이 시작되면 심판은 출전한 양쪽 선수들을 씨름판으로 불러낸다. 이때 출전한 선수들은 샅바를 매고 씨름판 중앙으로 나와 심판석과 관중석을 향해 인사를 한 다음 양 선수 공히 서로 상대방과 인사를 나눈다. 씨름판 중앙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앉아 오른손으로는 상대방 허리 샅바를 왼손으로 다리샅바를 잡은 다음 심판의 지시에 따라 동시에 일어나서 신호를 하면 시작하여 서로 힘과 기술을 다하여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승자가 된다. 이 씨름은 주로 3판2승 경기로 세 번 싸워서 두 번 이겨야만 승자가 결정되는 것이다. 씨름의 기술은 안다리걸기, 밖다리걸기, 호미걸기, 배지기, 둘러치기, 업어치기, 무릎치기, 꼭뒤잡기, 등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서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 하더라도 기술이 없으면 승리 할 수가 없으므로 힘과 기술, 순발력 등을 고루 발휘해야만 하는 겨루기이다.

현재는 프로씨름이 생겨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었다. 프로씨름에서는 선수들의 체중을 금강급, 한라급, 백두급으로 나누어 체급별 장사를 가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체급을 통합하여 천하장사를 가리게 된다. 천하장사가 되면 부와 명예를 한 몸에 차지하게 된다.

33) 액연 날리기

겨울 내내 연을 날리다가 정월보름을 기점으로 더 이상 연날리기를 하지 않는다. 계속 연날리기를 하는 아이가 있으면 상놈의 자식이라 욕한다. 보름날 날리는 연은

액연이라 하여 연에다 송구영신, 또는 제액초복이라 써서 날려 보낸다. 이러한 풍속도 상당히 오래되어 『동국세시기』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아이들이 "집안 식구 아무개 무슨 생, 몸의 액을 없애 버린다."라는 글자를 연 뒤에 써서 그 연을 띄우다가 해질 무렵에 그 연의 줄을 끊어 버린다. 연 만드는 법은 대를 깎아 뼈대로 하고 종이를 풀칠한 것이 마치 키의 모양과 같다. 그리고 오색으로 칠을 한다. 그런데 혹 기반, 묵액 (머리 쪽에 검은 칠을 한 연), 쟁반(접시같이 둥그런 모양의 연), 방혁(방패연), 묘안(고양이 눈을 그린 것 같은 연), 작령(까치날개 모양의 연), 어린(고기비늘모양의 연), 용미(용의 꼬리모양같이 길게 된 모양의 연)를 붙들어 매어 공중에 띄워 바람의 방향대로 날린다.

34) 연날리기

연은 음력 섣달부터 정월 보름 때까지 어린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즐겨 날리던 민속이었으나 한국전쟁이후 차츰 모습을 잃어 가다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차츰 옛것을 찾아 재현하기 시작, 요즈음 와서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초겨울이 되면 이른 봄까지 즐기고 있다.

옛날에는 정초부터 보름까지 즐겼는데 보름날이 돌아오면 모든 재앙을 연에다 실어 멀리 띄워 보낸다고 하여 이때까지 띄우며 즐기던 연에다 송액(送厄), 또는 송액영복(送厄迎福)이라는 글귀를 써서 높이 띄워놓고 연줄을 끊어서 날려 보냈다.

우리나라의 연에 대한 역사는 오래 전인 신라 때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삼국사기의 열전에 의하면 선덕여왕 시절에 반란군에 의해 흉흉해진 민심으로 임금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김유신 장군은 연을 이용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평정을 찾게 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또한 고려 때에는 최영 장군이 제주를 토벌할 때 군사의 목적으로 사용하여 정벌에 성공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때 의기 계월향이 외장과 함께 있으면서 외군의 비밀을 적은 종이로 연을 만들어 띄워 아군에게 전하게 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는 등 연이란 우리나라 정치, 군사, 통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유서 깊은 민속으로 사랑 받아 오던 놀이이기도 하다. 연의 크기는 일정치 않고 보통 30㎝에서 90㎝까지의 크기로 만들어 날리기도 하는

데 만들고자 하는 크기의 창호지를 자른 다음 대나무를 쪼개어 연상을 만들고 풀을 발라 붙여서 목줄과 방줄 등을 맨 후 연줄을 매어서 날린다. 이때 연줄은 얼레 또는 자사라고 하는 실패에다 감는다.

연은 만드는 방법과 모양에 따라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종류는 방패연, 가오리연, 나비연, 치마연, 반달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놀이의 종류도 높이띄우기, 멀리 날리기, 재주부리기, 연줄 끊어먹기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연줄 끊어먹기는 연싸움이라 하여 제일 즐기던 놀이인데 연싸움은 보통 정월 대보름날 북풍을 잘 받을 수 있는 강둑이나 동산을 장소를 정해서 싸움을 붙이는 것으로 무주에서는 남대천 둑에서 주로 했다.

연줄 끊어먹기는 연을 하늘 높이 띄워 놓은 다음 상대방의 연줄과 엉키게 한 후에 얼레에 감긴 연줄을 풀어서 엉킨 줄이 끊어지도록 하는 놀이로서 한쪽의 연줄이 끊겨 등실 거리며 멀리 날아가 버리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지화자! 소리가 온 동네를 꽉 메우고 그날 1등을 차지한 사람은 고수의 명성을 얻고 쌀 1가마니와 광목 등을 부상으로 받기도 한다. 이때 연싸움에는 방패연(통연)을 사용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질기고 날카로운 연줄인데 연 싸움을 위하여 매는 연줄은 개미를 먹인다고 하여 사기그릇 조각이나 유리조각을 곱게 갈아 가루로 만들어서 찹쌀풀에 이긴 다음 실에다 매겨 질기고 날카로운 줄을 만들어 얼레에 매어 감아 두었다가 시합 날에 가지고 나가서 사용한다.

연날리기 시합은 얼레의 얼르는 기술과 줄 튕김 기술 등이 있어서 공중의 연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고도의 기예가 필요하다.

35) 엿치기

옛날에는 엿장수들이 엿가락을 엿목판에 담아 가지고 농촌이나 시골을 찾아 다니며 팔기도 했고 손수레에 싣고 다니면 골목길이나 행길 옆에 세워놓고 팔았는데 엿을 팔 때는 찰카닥 찰카닥 하는 엿가위 소리를 내며 “꿀맛 같은 찹쌀엿! 쫄깃쫄깃한 울릉도 호박엿을 사세요”라고 노래를 부르며 팔았다.

동내에 엿장수가 찾아오면 어린아이들은 쓰다 버린 놋쇠그릇, 부러진 몽당숫가락, 다 떨어진 고무신짝,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다 버린 대꼬바리 등 고물들을 들고 나와 엿

과 바꾸어 먹기도 했으며 마을의 청년들은 대여섯 명씩 짝을 지어 엿장수가 가지고 온 엿목판을 둘러싸고 엿가락을 하나씩 골라 엿치기를 했는데 엿치기는 본인들이 골라잡은 엿가락을 두 동강으로 내어 엿가락 속의 구멍크기를 견주어 승부를 가리고 후에 각자가 먹는데 이 때 엿 구멍이 제일 작은 사람은 지는 것으로 그 엿 값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때로는 누구의 구멍이 큰가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때는 엿장수가 심판이 되기도 한다. 어떤 때에는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엿치기를 한 후 진 사람이 몇 사람 되면 진 사람들끼리 떠넘기기를 하여 제일 마지막으로 진 사람은 그 날의 엿 값을 몽땅 치러야 한다.

때때로 엿치기가 끝난 후 동네 젊은이들이 엿 값을 주지 않고 엿장수를 패서 내쫓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 예전에는 엿장수가 고물을 수집해서 엿으로 바꿔 주기도 했다. 이 동네는 고물상이 없었기 때문에 외지에서 엿장수들이 들어와서 며칠씩 묵으면서 고물을 수집했는데 엿장수가 없는 틈을 타 수집한 고물을 훔쳐서 다시 엿으로 바꿔먹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36) 자치기

자치기는 어린이들이 편을 짜서 동네의 넓은 공터나 골목길의 일정한 곳의 땅바닥에 조그만 흠 하나를 파 놓고 약 50㎝쯤 되는 막대기 하나와 손가락 굵기 만한 나무막대로 약 10㎝내외의 메뛰기 하나를 준비해서 양쪽편이 순번을 정한 후 놀이를 시작한다.

이 자치기는 맨 처음 공격하는 편에서 메뛰기를 흠에다 놓고 자막대로 메뛰기가 멀리 날아서 떨어지도록 떠낸 다음 자막대를 그 흠에 걸쳐놓으면 상대편에서는 홈에서 날아오는 메뛰기를 땅에 떨어지기 전에 손으로 받아 내거나 땅에 덜어진 메뚜기를 홈 쪽으로 던져 자막대를 맞추면 먼저 공격한 사람은 죽고 다음 순번 자가 공격을 하게 된다.

그러나 먼저 공격자가 죽지 않으면 자막지를 가지고 메뛰기의 한쪽 끝을 때려 공중으로 뜨게 한 다음 땅으로 떨어지기 전에 메뛰기를 쳐서 멀리 가도록 하는데 이것을 세 번 반복하면 메뛰기가 최종적으로 떨어진 자리에서 홈까지의 거리를 자막대로 잰다. 이때 양편에서 미리 정해 좋은 자수에 먼저 도달하는 편에서 이기는 놀이다.

37) 장기

장기는 원래 중국에서 유래되어 고려 때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다고 한다. 처음 상희(象戱) 라고 했다고 하는데 조선 초기이후에 장기라고 이름을 붙어 바둑과 함께 대중적인 오락으로 즐기게 되었다고 한다.

바둑은 상류층 오락인 반면 장기는 서민적인 오락으로 안방에서부터 동구 밖 정자나무 그늘이나 원두막 같은데도 놀이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계정 또한 구분 없이 춘하추동 어느 때나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이기도 한다.

장기는 둘이서 만 할 수 있는 오락이면서도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약자 편에 서 <훈수>하고 하는 응원을 하기도 한다. 훈수는 뺨을 맞으면서도 하며, 훈수에 의해 이기면 상대편은 또 다른 사람이 훈수를 하여, 나중에는 편 장기가 되다가 늦게는 동네 장기판이 되기도 한다.

장기판은 사방 40cm가량의 나무판 위에 가로 10줄, 세로 9줄의 선을 그어 만들고 장기 알은 회양목을 잘라서 둥글게 또는 육각, 팔각형으로 깎아 漢과 楚의 장군이 되는 宮 각 1개씩, 그리고 각 군의 車, 象, 馬, 包 2개씩, 궁을 지키는 士 각 2개, 그리고 전방을 지키는 卒은 각 5개씩 만든다. 漢과 楚를 쉽게 구분하기 위해 글씨의 모양과 색깔을 서로 달리하고 있는데 漢軍은 해서체로 음각하여 붉은색으로 하며 楚軍은 초서체의 글씨를 파란색으로 칠한다. 장기를 둘 때에는 노홍청소(老紅靑少)라 하여 상대방의 연장자가 홍색인 漢軍을 차지하고 연하자는 청색인 楚색으로 대전하여 예를 지킨다.

장기 알은 말이라고 하는데 宮은 宮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士는 宮 안에서 宮을 지켜주며 車는 전후좌우 직진으로, 馬는 日子進, 象은 用子進, 包는 일직선상에 놓여있는 말 하나를 뛰어 넘으며, 卒은 좌우, 전진 한 발 씩만 움직일 수 있다.

자기의 말이 길에 따라 움직일 장소에 상대방의 말이 있으면 따내고 최후에는 상대방의 궁을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승리하는 놀이다.

38) 장치기

장치기는 오늘날의 필드하키와 유사한 방식의 놀이로써, 한국의 전통적인 하키 경기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 말의 어원은 나무막대를 가지고 놀이를 하기 때문에 '장치기' 또는 나무 공을 가지고 놀이를 하기 때문에 '공치기'라고 한다. 이 장치기는

40~50년 전 초군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성행했던 놀이이다. 즉 해마다 가을걷이가 어지간히 갈무리되면 농가에서는 겨우살이에 없어서는 안 될 땔감을 준비하기 위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다.

땔감인 나무를 구하러 겨우내 수십 명의 초군 들이 몰려들어 나무를 하였다. 이와 같이 초군 들이 몰리는 곳에서는 산 밑이나 들판에 '공 마당'이 있기 마련이었고, 나무꾼들은 이 공 마당에서 나무를 하다가 힘이 들면 장치기며 갈퀴치기를 하면서 쉬어가곤 했다.

장치기를 하려면 나무공과 공채가 있어야 한다. 나무 공은 주로 소나무를 사용하여 주먹만 하게 다듬는데 잘 쪼개지지 않도록 옹이가 박힌 것이나 기형으로 둥글게 생긴 것을 골라서 만든다. 이 기형으로 생긴 것을 '부엉이가 똥 쌌다' 또는 '부엉이가 방귀를 뀐 것이다'라고 하며, 이것으로 나무 공뿐만 아니라 되박을 만들면 잘산다는 속설이 내려온다고 한다.

한편 공채는 길이 1~15m 가량 되는 소나무나 잡목으로 다듬는데 하키나 골프채처럼 끝이 꼬부라진 나무를 사용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작대기를 공채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나무 공도 역시 마땅한 재목이 없을 때 커다란 솔방울을 가지고 장치기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무공과 공채가 준비되면 가위 바위 보를 해서 두 패로 편을 나누는데, 놀이의 인원은 한편에 소소한 3~4명에 많은 경우 10~15명이 되도록 편을 짠다. 놀이의 방법은 양 진영으로 포진한 다음 양편의 다음 양편의 주장이 되는 사람이 홈 속에 공채를 넣고 있다가 '시작' 신호와 함께 농구처럼 자기진영으로 나무 공을 띄운다.

공마당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놀이하는 인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당하게 조절한다. 골문을 만들지 않고 공 마당의 끝을 경계선으로 한다. 따라서 별도로 골키퍼를 두지 않는다. 그리고 공 마당의 중간에 직경이 30cm쯤 되는 흠을 판다. 나무 공은 반드시 공채로 쳐야 한다. 만일 발로 차거나 손으로 잡으면 반칙이 된다. 그리고 상대편을 손으로 잡거나 공채로 사람을 치면 반칙이 된다. 또한 나무 을 쳐서 고의로 상대편을 맞추면 반칙이 된다. 반칙을 하면 상대편에게 공을 넘겨준다. 그리고 상대진영 끝으로 공을 쳐내면 골인이 되어 1점을 얻는다.

놀이를 하기 전에 몇 점 나기를 해서 먼저 점수에 도달하는 편이 이긴다.

39) 제기차기

제기는 엽전이나 구멍이 뚫린 주화를 얇고 질긴 한지나 비단에 접어서 싼 다음 양 끝을 구멍에 꿰고 그 끝을 여러 갈래로 찢어서 너풀거리게 한 것인데, 주로 정초에 즐기는 어린이 놀이 기구이다. 이 놀이는 축국(蹴鞠)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축국은 고대 중국에서 무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행하던 것으로, 넓은 마당에 높은 장대를 여러 개 세워 그 위에 망을 치고, 털로 싼 가죽 공을 여러 사람이 다투어 차서 공을 망 위에 얹는 결과로 승패를 짓던 것이었다. 뒷날 공에 바람을 넣어 사용하게 되어 이름도 축구 또는 타구로 바뀌었다.

<구당서>에 고구려 사람들이 축국을 잘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신라의 김유신이 축국을 빙자하여 김춘추의 옷고름을 밟아 떼어 누이인 문희에게 달게 함으로써 두 사람의 인연을 맺게 하였다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또한 <수서> <동이전 백제조>를 보면 백제에서도 축국놀이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같이 이 놀이가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널리 행해져 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조선시대에는 한자어 <축국>에 우리말 음을 붙여 <적이>라 했다. 그 후 <적이>란 말은 <제기>로 바뀌게 되고, 놀이방법도 공을 차올리는 것에서 오늘에 보이는 소년들의 <제기차기>로 변했으리라는 설도 있다. 제기는 한 사람씩 차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마주 차기도 한다.

한 번 차서 제기를 입에 물었다가 다시 차고 다시 무는 <물지기>, 키를 넘겨 올려 차는 <키지기>, 차서 머리 위에 얹었다가 떨어뜨려 다시 차는 <언지기>도 있다. 잘 차는 사람은 한 가지만으로 몇 백까지 차기도 하는데, 차올린 제기를 머리 위나 어깨로 받아서 한참씩 다리를 쉬거나 발 안쪽과 바깥쪽은 물론이고 발등과 발뒤축 또는 무릎으로 차는 재주를 부리기도 한다. 진 쪽에서는 <종들이기>라 하여 상대방의 서너 걸음 앞에서 제기를 발부리에 던지며, 이긴 사람은 이것을 멀리 차낸다. 진 쪽이 그것을 손으로 잡지 못하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여 주어야 하며, 차는 쪽에서 헛발질을 하면 조의 입장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편, 제기를 받아 차는 쪽에서는 일단 받아서 자기 혼자서 몇 번이고 차다가 주위에 있던 자기편에게 넘기기도 한다. 그래서 진 쪽에서는 이것을 받아 찬 사람에게까지 종들이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종들이기는 사람은 제기를 던지는 헛 시늉을 하거나 일부러 다른 데로 던져서 상대의 헛발질을 유도한다.

40) 주먹치기

동전을 주먹에 쥐고 상대편이 몇 개가 들어 있나를 알아맞히는 놀이이다. 알아맞히면 먹는다.

41) 쥐불놀이

해마다 첫 쥐날[上子日] 또는 정월 대보름 전날 농촌에서 논밭 두렁 등의 마른 풀에 불을 놓아 모두 태우는 풍습으로, 논두렁 태우기라고도 한다. 이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쥐를 잡고 들판의 마른 풀에 붙어 있는 해충의 알을 비롯한 모든 잡충(雜蟲)을 태워 없앨 뿐만 아니라 타고 남은 재가 다음 농사에 거름이 되어 곡식의 새싹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한 소망이 담겨 있다. 또 민간신앙으로 보면, 이날 불을 놓으면 모든 잡귀를 쫓고 액을 달아나게 하여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믿었다.

이 날은 마을마다 농부 또는 청소년들이 들로 나가 밭두렁, 논두렁에다 짚을 깔아 놓았다가 해가 지면 일제히 불을 놓는데 이것을 쥐불이라고 한다. 자우룩한 연기와 함께 불이 사방에서 일어나 온 들판이 장관을 이루는데, 이 쥐불의 크기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흉 또는 그 마을의 길흉을 점치는 풍습이 있었다. 따라서 마을마다 서로 다투어가며 불을 크고 세게 하려고 애썼다. 밤이 늦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들에 타고 있는 불은 끄지 않았다.

쥐불놀이는 이웃동네와 경계를 정하여 먼저 태우기로 승부를 가려 승리한 마을에서는 자기 동네 쥐들이 옆 동네로 쫓겨가고 풍년농사가 온다 하여 성행하였는데 쥐불놀이는 논두렁과 밭두렁의 들쥐들을 쫓아 내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충해를 없애는 방법을 행해지던 민속이다.

『동국세시기』에, "충청도 풍속에 떼를 지어 횃불을 사르는 훈서화(燻鼠火), 즉 쥐불 놓는 풍습이 있다"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쥐불놀이를 이르는 것이다. 다만 이 놀이는 충청도 지역에 국한된 풍속이 아니라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42) 토끼사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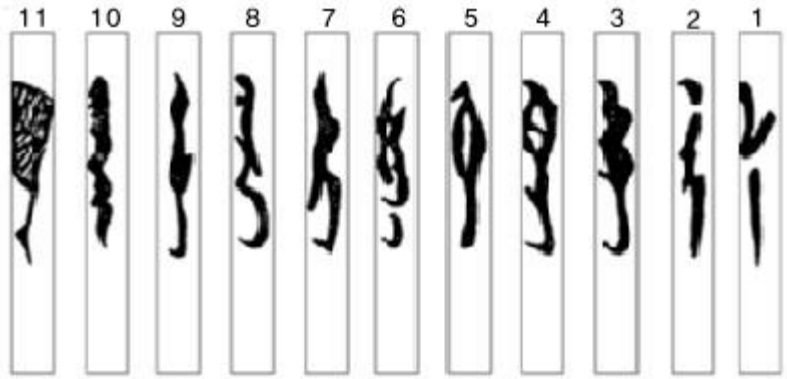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온 동네 주민들이 모두 산으로 몰려나가 토끼사냥을 한다. 평상시에는 올가미를 놓고 토끼사냥을 하지만 눈이 내리면 다음날 올가미를 들고 산으

로 올라가 눈에 찍힌 토끼 발자국을 따라가면 올가미를 설치하면서 간다. 그러면 토끼는 놀라 도망가는 것이 산을 빙 돌아 처음 발견지점으로 다시 오면 올가미에 걸리게 된다. 겨울날 눈이 내려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 때 소년들이나 청년들이 토끼사냥을 나간다.

43) 투전

투전은 옛날 사랑방이나 구석진 방을 찾아다니며 어른들이 즐기던 도박성놀음으로 농촌에서 가을 추수가 끝나면 농사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던 것으로 투전을 하는 사람들을 노름꾼이라고 한다. 이 투전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머슴살이한 새경을 다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산을 탕진하여 패가망신하기도 했으나 화투가 등장하면서 없어졌다.

투전은 두꺼운 기름종이로 넓이 1.5cm 정도의 크기에다 붓으로 그림을 그려 넣어 만든 것인데 그림은 사람, 짐승, 대, 벌레, 물고기 등의 형상과 문자나 글귀를 나타내어 1에서 10까지 숫자를 표시한 부호를 표기, 4쌍에서 8쌍까지 만들어 사용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 수가 달라 25매에서 80매까지 사용하기도 했으나 통상 40매를 가지고 한다.



〈그림 7 투전〉

투전은 지금의 화투와 비슷하여 갑오잡기를 주로 했으며 패를 돌려 투전을 합한 숫자의 끝수가 1은 따라지, 5는 진주, 6은 서시, 7은 고비, 8은 덜머리, 9는 갑오, 10은 무대(장)라고 하여 같은 숫자가 2장이면 그 숫자의 땡이라고 한다.

44) 팔씨름

장원자 뽑기로 팔 힘을 겨루는 놀이다. 두 사람씩 어울린다. 놀이가 간편하여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상대만 있으면 하는 놀이다. 어린이와 성인, 여자와 남자가 같이 힘의 균형이 맞지 않을 때에는 팔목을 잡고 하기도 한다.

부락끼리 전파, 근동(近洞) 부락까지 응원을 받아 편을 짜서 헌헌(軒軒) 장사들이 운집하였다. 마을 대항으로 팔씨름이 벌어지면 볼만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단체나 마을 대항을 사라지고 개인끼리 이루어진다.

45) 팽이치기

팽이는 겨울철 어린이들이 즐겨하던 농이로 직경 4~5㎝쯤 되는 둥근 나무토막의 위를 5~6㎝쯤 되도록 반듯하게 잘라 다듬어서 팽이를 만들고, 굵기가 1.5~20㎝쯤 되는 나무 막대기를 50~60㎝전도 되도록 잘라 한쪽 끝에다 40~50㎝쯤 되는 끈을 매어 단 팽이채를 만든 후 반반한 땅바닥이나 얼음판 위에서 돌려 치며 논다.

팽이는 오른손으로 팽이를 잡고 팽이채의 끈으로 팽이 허리를 돌려 감았다가 팽이 끝을 땅에 대로 팽이채를 빠른 속도로 잡아당기면 돌게 되는데 이때 돌고 있는 팽이를 팽이채로 치면 도는 속도가 빨라진다.

싸움은 싸움을 하고자 하는 상대와 같이 팽이를 돌려놓고 상대방의 팽이를 넘어뜨리면 이기는 놀이가 있다. 팽이채로 자기의 팽이를 쳐서 상대방의 팽이를 부닥뜨리게 하여 승부를 겨루는 놀이다.

46) 풀치기

솔뿌리, 칡 줄기, 풀 넝쿨, 고동 등의 솟아난 빼부쟁이 줄기 등을 끊어다 서로 얽어 부벼 대어 끊는 놀이다. 봄, 여름, 가을에 소년들이 즐긴다.

47) 허방다리 짚기

심술꾼이나 개구쟁이들의 장난놀이다. 함정을 파놓고 그 위에 저립대(삼대)를 깔고 곤마자잎, 호박잎, 오동잎 등을 씌우고 흙을 깔아 감쪽같이 감춰 평탄 길로 꾸민다. 일몰 후 골목에 숨어서 넌지시 망보다 취객들이 행보 중 헛딛고 넘어지는 모습을 고

소해 하는 짖궂은 장난놀이다. 봄, 여름, 가을에 수시로 어린 소년들이 즐겼다. 결국 어른들에게 발각되어 호되게 꾸지람을 듣기도 한다.

48) 호미치기

호미치기는 낫치기와 비슷한 놀이로 농촌에서 일꾼들이 밭이나 논을 맬 때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잠시 동안 하는 놀이로 발금을 그은 후 발금 전방에서 약7m 쯤 떨어진 거리에다 경계선을 그어 놓고 경계선 너머까지 호미를 던져 호미가 엎어지면 지고 던진 호미가 꽂히면 이기는 것으로 이때 던진 호미가 경계선을 넘지 못하면 낙방이라 하여 지게 된다. 이 호미치기에서 진 사람은 벌칙으로 이긴 사람대신 밭이나 논을 매어 주거나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때 풀 한 망태를 베어 주기도 하는 놀이로 힘든 농사일과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한 민속이었으나 지금은 별로 하는 사람이 없다.

49) 호박 따기

어린이들이 장난으로 남의 호박을 따다가 동물을 만든다. 큰 호박에다가 막대기로 다리를 붙이고 작은 호박으로 머리를 만든다. 어른들에게 들키면 혼난다.

50) 횃불놀이

횃불놀이는 원래 정월 보른날 밤 달맞이 행사인 망우리라고 하는 달집 태우기에서부터 유래된 것인데 망우리는 마을의 동산에다 만들어 놓고 달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불을 지른 후 '망월' 또는 '달떴다'라는 함성과 함께 절을 하고 노인들은 떠오르는 달의 빛과 모양을 보고 그 해 농사의 풍(豊)·흉(凶)을 점치기도 하던 행사다.

이날 밤 마을의 청소년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또래들끼리 빗자루나 짚단 등으로 횃불을 만들어 두었다가 달이 뜨기 시작하면 홰에 불을 붙여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대치한 이웃마을 패들을 부르며 약을 올리고 싸움을 청한다.

이때 어느 편이든지 자기들의 패거리가 많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횃불을 가지고 뱅글뱅글 돌리기도 한다.

상대편에서 횃불의 수를 보고 자기마을의 수가 열세하다고 판단하면 싸움을 포기하기도 하는데 수가 같다고 판단되면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서로 접근하여 공격을 개시한다.

이 횃불싸움은 원래는 상대편이 가진 횃불을 다 빼앗을 때까지 하여 상대편이 다 없어지면 승리하는 놀이인데 근래에 와서는 상대편과 뒤엉켜 육박전을 벌이고 돌멩이나 각목 등으로 공격하여 부상을 입히게 하는 등 과격한 싸움으로 변질되어 한동안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지금은 다만 어린이들이 보름날 밤 깡통에다 구멍을 내어 바람을 통하게 한 다음 손잡이를 철사 줄로 매어 달고 숯불을 넣어 뱅글뱅글 돌리는 것으로 횃불놀이를 대신하고 있다.

2. 여성놀이

51) 고무줄놀이

고무줄놀이는 여자애들이 줄 위에서 또는 줄을 넘나들며 노는 놀이이다. 마치 춤을 추듯 몸을 움직여 놀지만 몸짓이 줄에 의해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이 놀이는 고무줄이라는 재료의 특성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일반 전래 놀이와는 달리 역사가 짧은 놀이로 볼 수 있다. 먼저 손바닥 뒤집기나 가위, 바위, 보로 편을 가르고 순서를 정한다. 기둥을 사이에 두고 고무줄을 매거나 진편의 아이가 양쪽에서 고무줄을 잡으며 노래 하나가 끝 날 때마다 조금씩 높이를 올려가며 논다. 고무줄 사이를 노래에 맞춰 뛰고, 닫고, 휘감으며 논다.

52) 공기놀이

보통 공기놀이와는 달리 많은 공기를 갖고 하였던 놀이도 있다. 이 놀이에는 공깃돌을 많이 가져와야 이기는 놀이다. 이 놀이 방법은 다음과 같다. 둘 혹은 여러 명이 편을 갈라 차례로 양편에서 한 명씩 나와 놀이를 시작한다. 공깃돌을 200~300알 정도 주워서 땅 위에 쏟아 놓는다.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쪽부터 한 알을 떼어내고 그것을 공중에 던져 올린 뒤 두 알부터 다섯 알까지 마음대로 집어 받아낸다. 도중에 다른 공깃돌을 건드리거나 던져 올린 돌을 못 받으면 죽어 상대편에서 공기놀이를 이어서 계속한다. 이 놀이는 쌓여 있는 공깃돌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하는데, 많은 공깃돌을 가져온 편이 이긴다.

53) 공기받기

무주지방에서는 공기받기를 한 찍기라고도 하며 소녀들이 즐겨하는 놀이다. 한 찍기는 두 사람 이상이면 할 수 있는 놀이로 편을 짜서 하기도 한다. 이 놀이는 참새알 크기의 동굴 동글한 돌 다섯 개를 갖고 땅바닥이나 마루바닥, 방바닥 같은 평평한 곳이면 어디서나 할 수 있는데 공기돌을 공중에 던졌다가 받으면서 노는 놀이로 그 순서는 먼저 공기돌 다섯 개를 전부 손에 쥐고 있다가 그 중 한 개를 공중으로 던지면서 나머지 네 개를 땅바닥에 던져 좋고 공중에서 떨어지는 공기돌을 받은 다음 다시 그 공기돌을 공중으로 던져놓고 공중에서 떨어지는 공기돌을 받은 다음 다시 그 공기돌을 공중으로 던진 후 땅바닥에 있는 공기돌 한 개를 집으면서 공중에서 떨어지는 공기돌을 순간적으로 받는 것을 반복하여 바닥에 깔린 공기돌 네 개를 다 줍게 되면 그 다음에는 두개씩, 세 번째는 세 개와 한 개, 그리고 끝으로 네 개를 한꺼번에 주우면 된다. 한 개씩 줍는 것은 한 찍기 두 개씩 줍는 것은 두찍기, 세 개씩 줍고 한 줍는 것은 셋찍기. 네 개를 모두 줍는 것은 네찍기 또는 막찍기라고 한다.

막찍기가 끝나면 콩찍기 또는 고추장 찍기라고 하여 손에 쥐고 있는 공기돌 다섯 개중에 한 개를 공중으로 올린 후 검지 손가락을 땅바닥에 한번 찍고 떨어지는 공기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은 손에 쥐고 있던 공기돌을 손바닥을 뒤집어 손등으로 떨어지는 공기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은 손에 쥐고 있던 공기 돌을 손바닥을 뒤집어 손등으로 떨어지는 공기돌을 받았다가 다시 공중으로 띄운 후 떨어지는 공기돌을 손바닥으로 받든지 또는 손바닥을 밑으로 하여 잡아채기도 하는데 이것을 챙이라고 한다.

한찍기는 챙이가 끝나면 한번 끝이 나게 되는데 한찍기에서 부터 챙이까지 하는 동안 실수를 하면 죽고 다음 순번자의 차례가 되어 점수를 낼 수가 없다. 이 놀이의 점수는 챙이를 하여 받은 공기돌의 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손바닥으로 그냥 받았을 때와 손바닥을 밑으로 하여 챈다든지 콩찍기를 하면서 받는 등의 방법에 따라 점수의 차이가 생긴다.

이 밖에도 한 개 던지고 네 알 놓고 받은 다음 한 개 던져 한 개 줍고 한 개 받기. 두개 던져 한 개 줍고 두 개 받기, 세 개 던져 한 개 줍고 세 개 받기, 네 개 던져 한 개 줍고 네 개 받기, 다섯 개 던져 콩찍고 다섯 개 받기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54) 구석지기

방안에서 여자들이 하는 놀이이다. 방의 구석에 여자들이 모여서 서로 부둥켜안고 있는다. 그러면 술래가 한 사람씩 떼어내는 놀이이다. 약 60년 전에 했던 놀이 이나 현재는 이렇게 노는 사람이 없다.

55) 그네뛰기

그네는 예부터 여인들이 즐겨 하던 놀이로 마을의 입구나 개천가 또는 마을 가운데서 있는 정자나무나 버드나무 가지에다 직경 5~7㎝ 굵기의 동아줄을 두르고 느려 뜨려 매어 놓고 두발로 올라서서 뛰고 노는 것인데 옛날에는 단오 때부터 시작하여 유두 때 까지 여름철 내내 여인들의 더위를 잊게 하였으며 더러는 높이뛰기시합도 벌이기도 하였다.

그네는 원래 북방의 새외민족(塞外民族)들이 몸놀림을 재빠르게 연마하기 위해 하던 것을 중국의 여인들이 배워서 즐기기 시작했으며, 당나라 때부터 양선희(羊仙戲)라 하여 경연대회를 벌였다고 한다.

이 그네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 언제부터 인가는 자세하지 않으나 상류계급에서의 정원이나 궁안의 천변에다 그네를 매어놓고 호화롭게 추천희(豕韆戲)를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상류층계급사회의 양반가에서는 너무나 율동적이어서 사대부의 체통에 문제가 된다고 하여 점차 멀리하여 되었고 서민층의 놀이로 행해 왔으나 정월, 단오 명절이 돌아오면 그날만은 양반가의 부녀자들도 그네를 메어놓고 하루를 즐겼다.

지금도 오월 단오절이 되면 그네뛰기 경연대회를 갖는 곳이 많은데 그네는 혼자서 뛰기도 하지만 둘이서 마주 바라보며 올라타고 뛰는 쌍그네도 있다.

그네를 뛸 때는 그네에 올라 탄 다음 자기의 가슴 높이 쯤의 양쪽 그네 줄을 양쪽 손으로 한 줄씩 잡고 배에다 힘을 주며 발로 굴러 앞과 뒤로 왔다 갔다 하며 뛰는데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갈 때마다 양쪽 손으로 잡고 있는 그네 줄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힘을 주며 굴러야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 그네뛰기 경연대화는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승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높이를 잴 때는 긴 장대에다 방울을 달아놓고 그네 뛰는 사람의 발로 방울을 차서 소리를 내기도 하며 그네의 발판에다 줄자를 매어 늘어뜨려서 그 줄자를 제일 많이 끌고 가는 사람을 가려내는 방법을 사용한다.

56) 널뛰기

널뛰기는 정초부터 보름 때까지 집안의 마당에서 아녀자들이 즐겨하던 놀이로 길이 2~3m , 넓이 약 30㎝, 두께 6㎝쯤 되는 널빤지를 30㎝쯤의 두께가 되는 집단이나 돌돌 말아 묶은 가마니 위의 중간쯤에다 걸쳐놓고 무게가 비슷한 사람끼리 널판자의 양쪽 끝에서 마주 바라보고 올라서서 한 사람씩 교대로 굴러 상대방의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는 놀이이다. 공중에 떴다가 내려디디면서 널판자를 힘껏 굴러 상대방을 높이 뜨게 하는 것을 반복하여 어느 한 사람 이든지 널판지에서 떨어지면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뛰게 된다.

널을 뛸 때 몸의 중심을 바로 잡기 위해 널판 옆에 빨랫줄처럼 긴 줄을 가설하고 한 손으로 이 줄을 쥐고 뛴다. 줄을 놓고 뛸 수 있을 때까지 널뛰기를 익히는 데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정초가 되면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아녀자들이 공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널을 뛰는 모습에 반하여 담 밖에서 구경하던 총각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바깥세상을 모르고 항상 별당의 규방에서만 생활하던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 널뛰기를 핑계 삼아 담 바깥세상을 구경할 수도 있었다. 이 널은 옛날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이 죄를 지어 옥에 갇히게 되자 옥에 갇힌 남편의 얼굴이라도 한 번 보고 싶은 마음에 생각한 끝에 다른 죄수의 부인을 달래가지고 담 밖에서 널을 뛰면서 옥에 갇힌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옛 이야기도 있다.

또 비슷한 이야기지만 담장 밖의 총각들이 보고 싶을 때 널을 뛰면서 살짝살짝 보기 위해서 널뛰기가 시작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렇게 담장 밖의 세상을 보기 위해서 널뛰기가 유래되었다는 그럴듯한 이야기도 있지만, 몸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널을 열심히 뛰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처녀 시절에 널뛰기를 하지 않으면 시집가서 아기를 순산시키지 못하고, 정월에 널뛰기를 하면 1년 내내 발바닥에 가시가 찔리지 않는다는 다리운동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널을 뛰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널뛰기는 설날에 많이 뛰고 있으나 단오나 추석에도 많이 하는 놀이다.

57) 땅따먹기

땅따먹기는 봄부터 여름까지 소녀들이 집안마당이나 마을의 공터에서 하던 놀이로 땅바닥에다 직경 1m 쯤 크기의 원이나 사방 1m 쯤 되는 사각형을 그려 놓고 2~4명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다.

놀이의 방법은 땅에다 그려놓은 원안에 다 각자 자기의 손으로 한뼘이 되도록 반원형을 그려서 각자의 집으로 정해놓고 가위, 바위, 보로 순을 정한 다음 바둑돌 크기의 납작한 돌이나 사금파리 같은 것으로 말을 만들어 정해진 순번에 따라 자기 집에서부터 가운데 비어있는 고터를 향해 손가락으로 튕겨서 말이 멈추면 튕긴 곳에서부터 그 자리까지 일직선의 선을 긋고 그 자리에서 다시 자기 집으로 튕겨 말이 들어가게 하고 말이 들어간 선을 따라 선을 연결한 후 자기 집 선에서 인접한 공터를 한 뼘 재어서 끊어 선을 연결하면 자기의 땅이 확보가 되는 것이다.

첫 순번 자가 한번 끝나면 다음 순번 자가 같은 방법으로 자기들의 땅을 확보하고 다음에는 그 다음 순번 자가 하여 원안의 공터가 다 없어질 때 까지 반복하여 각자의 영역을 넓힌 다음 땅 빼앗기를 시작하게 된다.

땅 빼앗기는 순번에 따라 각자 자기의 땅 안에서 말을 퉁겨 자기의 뼘으로 거리를 잰 다음 그 수에 따라 상대방의 땅을 잘라먹는 것인데 만약 자리의 말이 남의 땅으로 들어가거나 경계선에 걸리거나 또는 거리가 한 뼘이 되지 못할 경우는 실격이 되어 다음 순번자의 차례가 된다.

이렇게 하여 각자 자기의 영역을 넓혀서 원안의 땅이 한 사람의 것으로 될 때까지 반복하여 자기의 땅이 한 뼘을 잴 수 없게 되면 지게 되는 놀이로 옛날 농경사회에서 생활터전과 토지의 점유욕에 대한 뜻이 담긴 놀이다.

이 외에도 가위, 바위, 보에 의한 수를 정하고 뼘으로 반원을 그려 나가며 따먹는 놀이도 있다.

58) 목자놀이(받침차)

목자 놀이는 소녀들이 즐기는 놀이로 땅에다 일정한 규격의 바둑판 같은 선을 그려놓고 각 칸마다 숫자나 문자 또는 ○, ×, △등의 표시를 하여 목자라고 하는 손바닥 크기의 납작한 돌을 손으로 던지거나 깨금발로 차면서 칸을 뛰어 넘기도 하고, 한 칸씩 가기도 하며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기도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은 목자를 발등에

올려 공중으로 띄운 다음, 손으로 받아 쥐고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다 끝난 다음 문자나 표시에 따라 짐승들의 흉내나 소리를 내면서 되돌아오는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그 놀이는 목자나 발이 선에 걸리거나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면 실격이 되어 다음 순번 자가 하는 놀이다.

59) 실 태우기

실 태우기는 명(목화)실태우기라고도 하는데 매년 섣달 그믐날 밤 부녀자들이 하던 놀이로 그날 밤을 세우기 위해 모인 식구들끼리 저마다 무명실을 한 벌씩 잘라서 자기 나이 수대로 실을 중간 중간에다 매듭을 지은 다음 손으로 들고 밑으로 늘어뜨려 놓고 맨 끝에다 불을 붙여 태운다. 실이 타다가 매듭쯤에 가서 불이 꺼진다던지 전부 타는 것을 보고 새해의 운수를 점치는 놀이다. 이 실태우기로 운명을 점칠 때에는 명을 삼등분으로 나누어 표시를 해 놓고 제일 밑쪽을 초분이라 하여 초년을 뜻하고, 중분을 중년, 말분을 말년을 뜻한다고 하여 불을 붙여 들고 일생의 운수가 대통하기를 바라면서 기원한다. 끝의 종분까지 전부 다 타버리면 명대로 장수 할 수라 하여 모든 식구들끼리 기뻐하며 박수로 축하를 해 준다.

그러나 중간쯤에서 타다가 꺼지면 액운이 있다고 하여 서로 걱정을 해주고 그해 1년 동안은 바깥출입을 삼가며 조심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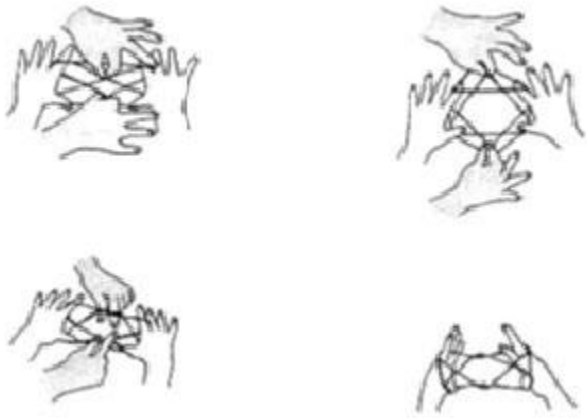
60) 실뜨기

실뜨기 놀이는 길이가 1m 가량 되는 실이나 노끈의 양끝을 연결하여 만든 실테를 손에 걸고 손가락으로 실을 떠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며 노는 놀이이다. 자료에 의하면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어린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실뜨기 놀이를 많이 해 왔다. 이것은 실뜨기 놀이가 근대 이전부터 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실뜨기 놀이는 방 안에서 많이 했으나 날씨가 따뜻한 때에는 토방이나 마당에 앉아서 혼자서도 하고, 두 명 또는 여럿이 모여서도 했다.

1) 실뜨기 기본 모양

① 양 손의 손가락 둘레로 실을 감습니다.



<그림 8> 실뜨기

② 실을 양손에 걸어 고리를 한 번 더 만듭니다.
③ 오른손 가운뎃손가락으로 왼손 바닥에 있는 실을 걸어옵니다.
④ 왼손도 오른손같이 해서 당기면 '날틀'이 됩니다.

2) 둘이 하는 실뜨기 I



<그림 9> 실뜨기 I

① 엄지와 검지로 실이 교차하는 곳(×)을 잡습니다.
② ×자의 교차점을 꼭 집은 상태에서 그림과 같이 밖으로 잡아당기세요.
③ 교차점을 잡은 상태에서 당겼다가 밑에서 위로 올려 떠 보세요.
④ 두 손을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잡고 있던 실을 놓으세요. '바둑판'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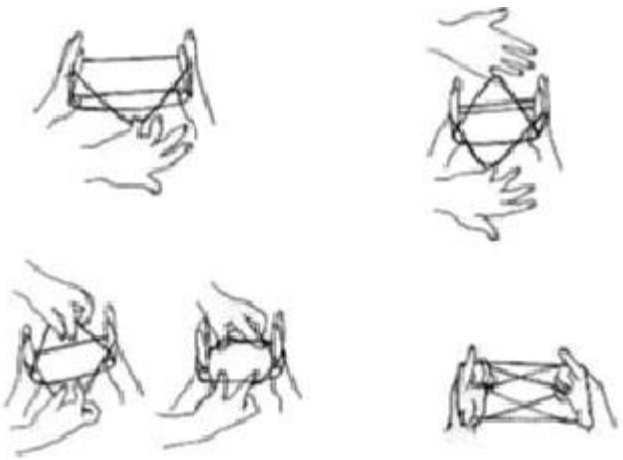
3) 둘이 하는 실뜨기 II
① 실이 교차한 곳에 엄지와 검지를 세워 잡아 주세요.
② 실을 잡은 채로 위로 올려 밖으로 잡아당기세요.



<그림 10> 실뜨기 II

③ 양 손을 바깥쪽에 있는 실의 아래로 빙 돌려 가운데 비어 있는 공간으로 떠 보세요.
④ 실을 놓으면 양 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벌려 양쪽으로 잡아당기면 '젓가락' 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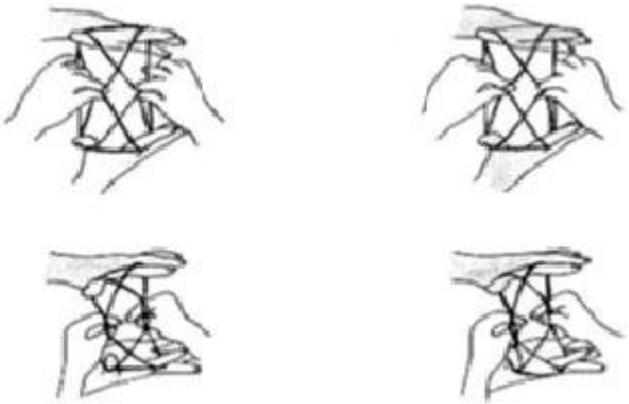
4) 둘이 하는 실뜨기 III



<그림 11> 실뜨기 III

①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왼쪽 실을 걸어 당깁니다.
② 오른손으로도 ①번과 같이 집습니다.
③ 새끼손가락으로 잡은 채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펴 위로 뜹니다.
④ 양손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벌리면 실을 놓으세요. '베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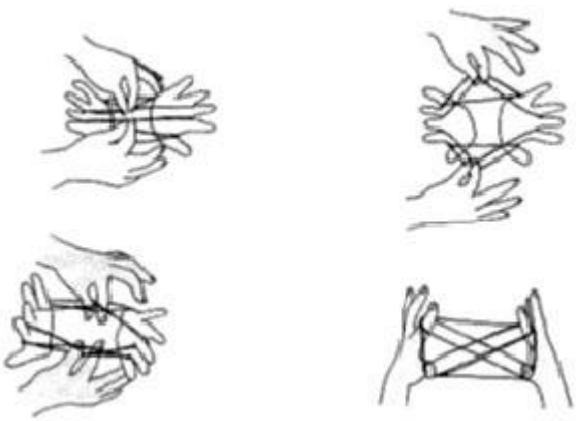
5)둘이 하는 실뜨기 Ⅳ



<그림 12> 실뜨기 Ⅳ

① 아래쪽 교차점(×)을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잡아 주세요.
② 실을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위로 약간 올려 보세요.
③ 위쪽의 실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④ 실을 놓으면 양 손을 쫙 벌리세요. 다시 '바둑판'이 됩니다.

6) 둘이 하는 실뜨기 Ⅴ



<그림 13> 실뜨기 Ⅴ

① 교차점을 엄지와 집게손가락으로 잡으세요.
② 실을 위쪽으로 들어 바깥쪽으로 나옵니다.
③ 바깥쪽 실을 지나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려 뜹니다.
④ 실을 놓으면 손가락을 펼치세요. '소눈깔'이 됩니다.

61) 쎄쎄쎄

어린아이에게 말과 손동작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시작하여, 10세 전후의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포와 여러 종류의 방법이 보인다. 주로 여자아이들이 많이 하며 때로는 남녀가 같이 하기도 한다.

○ 번데기 쎄쎄쎄
"쎄쎄쎄 번데기 번데기 번 번데기 데기"라고 노래를 하며 번데기 1(가위) 번데기 2(바위) 번데기 3(보) 번데기 4(가위)의 차례로 가위 바위 보를 반복해서 낸다. 누군가 한 명이 가위 바위 보를 내는 차례를 틀릴 때까지 계속한다.

○ 짱구는 못 말려 쎄쎄쎄
쎄쎄쎄 짱구는 못 말려 짱구야~
짝짝맞어 텔레파시 꽁꽁
만세 만세 (잉잉)
이라는 노래에 맞추어 손동작을 한다. "짝짝맞어"에 손을 마주치고 "꽁꽁"에 양손검지를 양볼에 갖다댄다. 그 다음 가위 바위 보를 한 다음 이긴 사람은 "만세 만세"라고 노래 부르고, 진 사람은 "잉잉"이라고 노래를 부르며 우는 시늉을 한다. 아하, 계속 반복한다.

○ 맹구야 쎄쎄쎄
맹구야 같이 놀자 맹구야
맹구야 저리가라 맹구야
"맹구야 같이 놀자 맹구야" "맹구야"까지 노래를 하고 가위 바위 보를 한다. 이어 "저리가라"라는 가사에 맞추어 가위 바위 보에서 진 사람의 이마를 손으로 밀친다. 이하 계속 반복한다.

62) 아침바람 찬바람

이 놀이는 어린이들의 율동과 리듬과 표현력을 길러 주는데 아주 유용한 놀이뿐만 아니라, 건강한 정서 함양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놀이라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마주앉아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마주치기, 엇갈려 치기, 얼굴 찍기 등 여러 가지 동작을 반복한다. 느리게 하다가 점점 빠르게 한다. 진 사람은 상대에게 정해진 벌칙을 받는다. 노래는 대게 다음과 같다.

아침바람 찬바람에 / 울고 가는 저 기러기 / 우리 선생 계실 적에 / 엽서 한 장 써주세요 / 한 장 말고 두 장이요 / 구리구리구리구리 / 가위바위보!

놀이의 동작은 손을 맞잡고 살살 흔들다가 손뼉을 치며 가위바위보를 한다. 이때, 이긴 아이는 상대의 머리에 살짝 알밤을 먹인다.

63) 오재미

주로 여자아이들의 놀이로서 때로는 남녀가 같이하기도 한다. 10~20명이 한 편씩, 두 편으로 나누어 가위 바위 보로 공, 수를 결정한다. 공격 쪽은 사각형의 금 안에 들어가고 수비 쪽은 양쪽 끝에서 오재미를 던져서 상대편을 맞춘다. 이때 공격 측은 수비 측이 던진 오재미에 몸이 맞으면 죽는다. 그러나 실수로 금 안에 떨어지거나 던진 오재미를 공격 측이 받으면 죽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중 가장 경기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살린다.

64) 줄넘기

줄넘기 놀이는 공터나 넓은 마당에서 소녀들이 즐겨하던 놀이로 편을 갈라서 하기도 하고 개인끼리 하기도 한다. 가위, 바위, 보로 두 사람의 굴레를 정하게 되면 굴레들은 6~7m 되는 새끼줄 양쪽 끝을 잡고 빙글빙글 돌리고 이긴 사람들은 돌고 있는 새끼줄 안으로 들어가서 새끼줄이 땅에 닿을 때 마다 깡충깡충 뛰어 넘는 놀이로 어떤 때는 두 사람이 짝을 지어 함께 놀기도 하고 한 사람씩 차례대로 들어가면서 놀기도 한다.

이때 술래들이 줄을 돌릴 때는 줄을 돌리는 수에 따라 숫자를 헤아려 주기도 하고 박자를 맞추어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줄넘기를 하는 사람들은 노래의 시작과 함께 뛰어 들어가면서 줄넘기를 하다가 노래가 끝나면 동시에 밖으로 나와야 하며 다음

노래가 시작되면 다음 순번 자가 동시에 들어서서 줄넘기를 하게 된다.
줄넘기를 하는 사람이 도중에 실수로 줄을 넘지 못하던지 줄이 몸에 닿으면 실격하게 되고 실격한 사람은 다음번의 불래가 되는 것이다. 줄넘기 놀이는 노랫말에 따라 동작을 하면서 뛰어 넘기도 하고 술래와 줄넘기를 하는 사람은 서로 노래를 주고받으면서 하기도 하는데 줄넘기 노래는 지방마다 노랫말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며 어떤 때는 동요에 맞추어 돌려주기도 한다.
다음은 무주지방에서 부르는 줄넘기 노래다.

● 줄넘기 노래<1>(혼자할 때)
꼬마야 꼬마야 뒤로 돌아라
돌아서 돌아서 땅을 짚어라
짚어서 짚어서 만세 불러라
불러서 불러서 잘~ 가거라.

● 줄넘기 노래<2>(둘이할 때)
○○씨 ○○씨 들어오세요.
둘이서 둘이서 인사 하세요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진 사람은 빨리 빨리 나가주세요

이때 가위바위보를 하여 진 사람은 밖으로 나가고 이긴 사람은 계속하며 다음 순번 자가 들어오면 다시 시작하여 가위, 바위, 보로 승부를 가리며 줄넘기를 한다.

● 줄넘기 노래(3)
이 노래는 술래와 주지가 박자를 맞추어 서로 말을 주고 받는 식으로 부르는 노래며 노래가 끝나면 첫 주자는 나오고 다음 주자가 들어가서 계속한다.

(주자) 똑~똑
(술래) 누구십니까?
(주자) 손님입니다.

(술래) 들어오세요.
(주자) 네~네(하면서 줄 안으로 들어가서 줄을 넘기 시작한다)
(술래) (계속하여 줄을 돌린다)
(주자) 들어와서 무얼 할까요?
(술래) 요강 닦아라.
(주자) 요강 깼어요.
(술래) 밥상 들어라
(주자) 엎어 졌어요.
(술래) 네 이년! 네 이년 나가버려라.

65) 칼치기

칼치기는 이른 봄에 쑥이나 냉이 들 봄나물을 뜯기 위해서 들에 나갔을 때 잠시 쉬는 동안 부녀자들이 하던 놀이로 발금을 그어 놓고 5~6m 앞에다 표시를 해놓은 곳에다 칼을 던져서 칼끝이 땅에 꽂히면 이기고 꽂히지 않으면 지는 놀이다.

이때 칼치기에서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벌칙으로 나물바구니를 집까지 들어 다 주던지 아니면 나물을 뜯어 주기도 한다. 이 놀이는 남자들의 낫치기나 호미치기와 같은 놀이로 봄나물을 뜯으러 같이 나온 아낙네들 끼리 잠시 틈을 타서 즐기던 놀이였으니 지금은 들나물 가지도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놀이는 없어지고 있다.

3. 남여 공동놀이

66) 1. 2. 3. 4 놀이

공격 쪽과 방어 쪽으로 나누어서 공격 쪽은 네 모서리에 그려진 작은 네모 안에 있고 방어 쪽은 십자형의 통로에 서 있는다. 공격 쪽은 처음 지정된 작은 사각형 방에서 다음 방으로 이동하며 숫자를 하나씩 쓴다. 처음 지정된 곳에 1이라고 땅바닥에 쓰고 다음으로 이동하게 되면 2라고 쓴다. 왔던 길을 되돌아 갈 수는 없으며 이동하

는 도중 금밖으로 나가거나 금을 밟게 되면 탈락이다. 방어 쪽은 공격 쪽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지나갈 때 손으로 채서 금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공격 쪽 사람이 방어 쪽 사람에게 “내 손을 잡아봐라”하고 손을 내민다. 그때 무의식중에 손을 잡거나 닿으면 탈락되고 만다. 방어 쪽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공격 쪽 사람들이 손을 내밀면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손을 뒤로 숨기거나 다른데도 피하기도 한다. 그때 공격 측은 얼른 다른 칸으로 이동을 한다.

67) 20발 뛰기

2명씩 편을 나눈다. 가위는 5발, 바위는 20발, 보는 10발로 거리의 양을 정해 논다. 두 명중에서 한 명이 다른 편과 가위 바위 보를 한다. 이긴 쪽에서 가위 바위 보를 하지 않은 사람이 이긴 가위, 바위, 보로 정해놓은 발 수대로 시작 선에서 달려간다. 누가 더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결정 난다.

68) 강아지 쫓아가기

동네에서 작고 만만한 강아지를 발견하면 무조건 쫓아가서 겁을 준다. 강아지가 겁을 먹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즐기는 놀이이다.

69) 같은 종류 말하기

미리 범위를 정한(예, 물고기) 범위 내에 있는 명칭들을 번갈아 가며 그 종류를 말하는 것이다.(붕어, 갈치, 매기) 미처 못 대면 그 아이에게 벌칙을 준다.

70) 개구리 잡기

5월 초순부터 개구리나 올챙이 같은 것을 잡으며 논다. 잡은 개구리는 두고두고 괴롭히다가 때로는 놓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한다. 옛날에는 개구리 뒷다리를 구워 먹기도 했으면 요즘엔 먹지는 않는다. 식용으로 하는 개구리는 별도로 있어서 겨울에만 먹는다.

72) 경찰과 도둑

약 10여명이 절반씩 편을 나누어 경찰 쪽과 도둑 쪽을 정한다. 경찰은 도둑을 잡으러 다니고 도둑은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닌다. 경찰 쪽은 도둑을 잡아서 감옥으로 설정한 공간에 가둔다. 도둑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다른 도둑이 몸을 찍어주면 10초 후에 풀려난다. 모두 가두면 경찰 쪽과 도둑 쪽이 서로 역할을 바꾼다. 때때로 도둑일 때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집에 가버리는 아이들이 있어 놀이가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다.

73) 개비름 놀이

들에서 개비름을 뽑아서 “각시방에 불 켜라, 신랑 방에 불 켜라”라고 하면서 뿌리를 쓰다듬는다. 그러면 그 뿌리가 빨갛게 변한다. 약 60년 전에 했던 놀이이다.

74) 공놀이

동네에서 어른들이 돼지를 잡으면 돼지 오줌보를 얻어서 속에 들어 있는 오줌을 빼내고 좁은, 입구에 보리 집을 넣고 공기를 넣어 공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돼지오줌 보공을 발로 차고 노는 놀이로, 오늘날 축구와 비슷하다. 만약 5명 이상이 모이면 편을 갈라, 양편의 끝에 골대를 만들어 발로 차서 공을 차 넣는 보편적인 놀이다. 놀이터는 동네 공터에 특별히 칸이나 줄을 긋는 것 없이 양 진영에다가 골대를 표시하는 굵은 돌을 두 개씩 놓으면 공차기의 준비 끝이다. 놀이 인원이 많으면 골키퍼를 두기도 하였다. 놀이의 승부는 정한 점수에 먼저 도달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정하고 많이 점수를 넣은 편이 이기는 경기이다.

75) 구경거리

예전에는 약장수 공연이나 서커스 순회공연, 굿판 따위가 마을의 큰 구경거리였지만 요즘은 TV등 매스컴의 발달로 더 좋은 구경거리가 많아져서 주민들의 관심도 없어졌다.

76) 꼬리잡기

두 편으로 나누어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늘어선다. 두 줄로 늘어선 양측은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처음 이긴 아이가 머리가 되고 끝까지 진 아이가 술래가 되며 술래를

이긴 아이가 꼬리가 된다. 머리가 맨 앞에 서면 나머지 아이들은 허리를 붙들고 늘어서고 맨 나중에 꼬리가 붙든다. 시작과 동시에 술래가 머리 앞에서 꼬리를 잡기 위해 이리저리 뛰면, 머리는 재빠르게 팔을 벌 술래 앞을 막아선다. 늘어선 아이들은 술래를 피해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줄이 끊어지게 되면 허리를 놓친 아이가 술래가 되고, 술래가 그 자리로 들어간다. 만약에 술래가 꼬리를 잡으면, 꼬리는 술래가 되고 먼저 술래는 머리가 된다. 그리고 머리를 하였던 사람은 둘째 자리에 위치한다.

77) 계단 올라가기

두 사람이 계단 앞에 서서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간다. 이긴 사람이 한 칸씩 올라가지 않고 저금하여 두었다가 한꺼번에 다섯 칸씩 올라갈 수도 있다. 반대로 계단 내려오기도 하며 방법은 같다. 어린이들도 하고 연인들 사이에도 많이 행해진다.

78) 그림 술래

술래는 벽 쪽을 향하여 서서 눈을 가린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누가 누가 집 그렸나” 라고 노래하면서 그 중 한 명이 술래의 등에다 집 모양의 그림을 그린다. 술래가 돌아서서 누가 그렸는가를 맞히면 그린 사람이 술래가 되고 맞히지 못하면 정해진 장소에까지 뛰어 갔다 오는 벌칙이 가해진다. 그 동안에 나머지 사람은 모두 숨고, 이때부터 숨바꼭질과 같은 방식으로 놀이가 이어진다.

79) 글씨찾기

주로 여자아이들의 놀이로서 한 명이 땅에다 글씨를 나무로 깊이 판다. 다른 사람은 그 글씨가 뭔지 미리 보지 않기 위하여 다른 곳에 가 있는다. 글씨가 다 써지면 흙을 살짝 덮어 알아보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을 부른다. 그러면 와서 손으로 더듬어 무슨 글씨가 써있는지 알아맞히는 게임이다. 글씨를 깊게 파면 알아맞히기 쉽고 얕게 파면 알아맞히기 어렵다.

80) 꿀밤 술래

술래는 벽 쪽을 향하여 서서 눈을 가린다.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꼼꼬미 꼼꼬미 누가 때렸나” 라고 노래를 하면서 그 중 한 명이 꿀밤을 때린다. 술래가 돌아서서 누가 때렸는가를 맞히면 때린 사람이 술래가 되고 맞히지 못하면 계속해서 술래가 된다.

81) 나라 뺏기

반씩 나누어 팀을 정한다.
“댄지에 부러시”
“안돼도 몰라”
“요번에는 진짜”
처음에 “댄지에 부러시” 라고 노래를 하며 각자 손바닥이나 손등을 내밀어 손바닥은 손바닥끼리, 손등은 손등끼리 편을 나눈다. 요행이 절반씩 나누어져 편이 맞으면 다행이지만 편이 맞지 않으면 “안돼도 몰라”라고 노래를 하며 다시 편을 나눈다. 그래도 맞지 않으면 “요번에는 진짜”라고 노래를 하며, 편이 맞을 때 까지 반복해야 한다.
나라를 가진 편과 가지지 못한 편으로 나눈다. 나라를 가진 편은 계속해서 나라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가지지 못한 편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방어를 한다. 나라는 통과미로, 미끄럼틀, 시소, 정글짐 등 주변에 세워진 시설물들을 모두 이용하여, 가운데의 씨름장은 지하 감옥이라고 설정한다. 처음에는 나라를 가진 편이 한 사람에 한 나라(시설물)씩을 차지한다. 빈 시설물을 보면 방어하는 편 몰래 다가가 “우리나라”라고 외치면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다. 나라에서 나라로 옮기는 사이에 방어하는 편에 잡히면 강제로 끌려나와 지하 감옥에 갖히고 만다. 한번 지하 감옥에 갇히면 다시 나올 수 없다. 모두 붙잡혀 지하 감옥에 갇히면 총살 시킨다. 그러면 놀이가 끝이 나고 편을 바꾸어서 다시 한다.

82) 난간 올라타기

난간에 두 명이 마주보고 앉아 가위 바위 보를 하여 이긴 사람은 한 칸을 전진하고, 진 사람은 한 칸을 후진한다. 계속 후진을 하다가 난간이 끝나서 마지막에 뒤로 떨어지는 사람이 지는 놀이이다.

83) 눈(雪)싸움

무주지방은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겨울이면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리게 된다. 그러므로 이 고장의 소년 소녀들은 눈싸움을 많이 했다. 눈싸움은 패를 갈라서 땅위나 장독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둥글게 뭉쳐서 상대편으로 던지며 공격하는 놀이인데 이때 밀리는 편이 지는 것이다.

84) 눈(目)싸움

2명의 어린이가 눈을 뜨고 서로 마주보고 응시하여 먼저 눈을 깜박이는 쪽이 지는 놀이이다.

85) 다리세기

여러 명의 아이들이 서로 마주 앉아 다리를 뻗는다. 그리고 마주보고 앉은 아이의 다리 사이에 뻗는다. 이렇게 한 다음에 노래를 부르며 다리를 세어 나간다. 노래가 끝나는 데서 다리를 센 아이는 다리를 오므린다. 이렇게 하여 맨 마지막까지 남은 아이가 벌칙을 받게 되는 놀이다.

86) 닫았다. 문 열었다

뺑뺑이의 중앙에 있는 창살 하나하나가 모두 문이며 위의 지붕처럼 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가 창문이다. 술래는 밑에서 돌아다니며 위에 있는 사람을 채야 한다. 위에 있는 사람은 술래에게 “문 열었다”고 외쳐서 가까이 오도록 유도한 다음 채이기 직전에 “문 닫았다”고 외친다. 문이 닫혔을 때는 채지 못한다. 술래는 다른 사람을 채는 척 하면서 시선을 끈 다음 문을 닫기 전에 순식간에 채야만 했다. 뺑뺑이 앞에 있는 아름드리나무는 에너지 보충원이다. 술래가 다른 쪽에 시선을 끄는 사이 얼른 빠져 나와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채지 못한다. 나무에 붙어서 에너지를 보충 받으면 막강한 파워가 생긴다고 한다. 에너지 보충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 놀이를 계속한다.

87) 달맞이

정월보름날 젊은 사람들이 서숙대(조)를 나이 수 만큼 묶어서 불을 잘 붙으라고 속에 짚을 넣은 다음, 뒷산에 올라가서 불을 붙여 '하느님, 달님 소원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 달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조금이라도 먼저 동네 뒷산에 올라가곤 했다. 처녀가 가장 먼저 보면 그 해에 시집을, 총각이 가장 먼저 보면 장가 갈 수 있다고 하며, 임산부가 보면 득남을 하는 등 남녀노소 구별 없이 했으며 그렇게 하면 일년 동안의 소원이 이루어지며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전쟁 때, 산에 가서 불을 피우면 인민군들이 봉화불을 놓는 것으로 오인한다 하여 금지시킨 이후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동국세시기』에 보면 '초저녁에 횃불을 들고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영월(달맞이)이라 한다. 먼저 달을 보는 사람이 길하다. 그리고 달빛으로 점을 친다. 달빛이 붉으면 가물 징조이고, 희면 장마가 질 징조이다. 또 달이 뜰 때의 형체, 대소, 용부(출렁거림), 고저로 점을 치기도 한다. 또 달의 윤곽으로 사방의 일년 농사를 점친다. 달의 사방이 두터우면 풍년이 들 징조이고, 엷으면 흉년이 들 징조이며, 조금도 차이가 없으면 평년작이 될 징조이다.'라고 했다.

88) 달님놀이

달님놀이는 정월 대보름날에 단을 쌓아 놓고 불을 질러 활활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달님을 보면서 절을 하며 소원을 비는 놀이다. 주로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빌고 혼인을 안 한 젊은 처녀들은 시집보내 달라고 비는 경우가 많다.

89) 달집태우기

사람들이 정월 보름날 떠오르는 달을 보기 위하여 산꼭대기로 올라간다. 겨울이라 춥기 때문에 이를 필할 수 있는 방법이 주변에 불을 놓고 달을 구경하면 따뜻하게 구경할 수 있고, 또 하나 나쁜 것을 모두 태워버리고 새로운 충만한 달을 맞이하는 의식에서 비롯된 놀이라고 본다. 이 달집 태우는 방법은, 정월 초가 되면 동네에서 짚을 얻어다 놓고, 청장년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수북하게 쌓아 놓는다.

보름달 달을 보기 위하여 달집이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와 달뜨는 것을 보려고 한

다. 달이 떠오르는 순간에 수북하게 쌓아 놓은 나무더미(달집)의 밑에 불을 여러 곳에 붙인다. 달집 주변에서 달님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 달집이 다 탈 때까지 즐기기도 한다. 한편 이 달집이 타다가 쓰려지는 쪽이 풍년이 든다는 말도 있다.

90) 달팽이집 경주

통과 미로에서 하는 놀이이다. 두 사람이 경주를 하는데 한 사람은 통과 미로의 안쪽에서 출발하고 또 한 사람은 통과 미로의 위에서 출발한다. 달팽이 터널을 빠져나가 달팽이 집안에 들어가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철봉을 먼저 잡는 사람이 승리한다.

91) 닭잡기 놀이

무주 지방의 닭잡기 놀이는 대체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소년 소녀들 중에서 한 사람을 술래로 정하고 노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두 패로 나누어서 노는 방법이 있다.

술래를 정하고 노는 방법은 먼저 가위, 바위, 보로 닭을 잡는 술래를 정한다. 이긴 사람 중에서 힘이 세거나 재치가 있는 사람이 닭이 되어 주인의 등 뒤에 일 열로 매달린다.

정해진 신호에 따라 술래가 닭을 잡기시작하면 닭들은 “꼬꼬댁 꼬꼬댁”하고 울음소리를 내며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면 술래는 그 닭들을 잡기 위해 뛰어다니다가 술래에게 잡혀 앞 사람의 허리를 놓게 되면 술래가 시키는 대로 정해진 벌칙을 받게 되고 다음번의 술래가 되어 놀이는 계속된다.

또 한 가지는 두 패로 나누어 각 편마다 장수 한 사람씩을 선정하여 앞에 세우고 나머지는 모두 졸병 닭이 되어 장수의 허리 뒤에 일렬로 붙어서 긴 꼬리를 만든 다음 놀이가 시작되면 장수들은 상대편 장수 뒤에 붙어 다니는 닭들을 따내든지 중간을 떼어 수를 줄여 상대편 닭을 많이 잡아낸 편이 이기는 놀이다.

92) 더위팔기

정월 보름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무개야’하고 이름을 불러서 대답을 하면 ‘내 더위 사가라’라고 더위를 판다. 더위를 사지 않으려면 대답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날 더위를 판 사람은 더위를 산 사람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여름 내내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부스럼이 오지 말라고 부럼을 깬다. 호두, 밤 땅콩을 깨물며 '부스럼 깨자'라고 말한다. 그러면 딱딱한 것을 깨물며 내는 소리에 잡귀가 놀라 도망을 간다고 한다. 귀밝이술은 일년 동안 귀가 어두워지지 말고 밝아지며 어린이들은 어른들 말씀을 잘 들으라는 의미에서 먹는다. 그래서 이날은 남녀노소가 모두 술을 먹는다. 술은 보통 청주를 먹으나 취향에 따라 막걸리나 소주를 먹는 사람도 있다.

93) 두꺼비 집짓기

여름철에 진흙더미나 모래사장에서 즐기는 아이들의 놀이다. 냇가 근처에서 수영이나 목욕을 하다 말고 동네 아이들끼리 했다고 한다. 이 놀이는 물기가 있는 모래가 많이 지키기 때문에 냇가에서 쉬면서 하는 놀이이다. 흙에 한 손을 파묻고 다른 한 손으로 두들겨서 단단히 굳힌 다음 조심스럽게 손을 빼낸다. 이때 손을 빼낼 때 고도의 집중력으로, 집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특히 집 입구의 얇은 부분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빼야한다. 이때 무너지면 다시 두꺼비집을 만들게 되고, 완성된 후에도 입구에 다듬거나 다른 집을 또 만들기도 한다. 내기를 할 경우에는 지은 집이 깊은가 보고 서로 견주어 따진다.

손을 파묻고 모래를 툭툭 두드릴 때 아이들 서너 명이 그 박자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른다.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 집 다오 / 두껍아 두껍아 집 지어 줄게

하며 노는 놀이다.

94) 땅따먹기

둥글게 큰 원을 그린 다음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한 귀퉁이에 한 뼘 정도의 자기 집을 그린다. 엄지와 중지를 사용하여 차례로 한 번씩 자기의 목자를 튕긴다. 목자가 밖으로 나가거나 큰 원에 걸쳐지면 탈락이며 남의 금을 지나가도 탈락이다. 끝까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남의 금도 지나가지 않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 놀이는 앞의 땅따먹기와 달리 원래의 자기 집 들어올 수 없다.

95) 말 잇기

말 잇기는 아이들의 어휘력 향상을 위한 놀이이다. 이를 통하여 아이들은 낱말의 뜻과 사용법을 배우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이름대기나 같은 종류 대기 등을 통하여 친근성과 분류방식을 배우게 된다.

빙 둘러앉아 한 아이가 처음 낱말 이야기를 하면, 빙 돌아가며 차례로 끝말로 시작되는 낱말을 댄다. 미처 못대는 아이는 정해진 벌칙을 받는다.

96) 머리카락 싸움

두 명이 하는 놀이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아서 서로 마주 걸고 당겨서 끊어지는 쪽이 지는 놀이이다.

97) 밀떡고사

칠월칠석날 부녀자들이 모여서 밀떡을 부쳐 먹는다. 부친 밀떡을 터주가리 같은데다 놓고 절을 하기도 한다. 약 30년 전에 했다.

98) 바람개비 돌리기

색종이와 수수깡으로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바람 부는 쪽을 향하여 달리거나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돌리는 놀이이다.

99) 바밤바 키스

땅바닥에 원을 하나 그리고 그 위에 더 큰 원을 하나 그린다.
첫째를 뽑자 가위 가위 보
둘째를 뽑자 가위 가위 보
셋째를 뽑자 가위 가위 보
넷째를 뽑자 가위 가위 보 라고 노래를 부르며 순번을 정한다.
첫 번째 뽑힌 사람이 '바'라고 외침과 동시에 원 앞에 발을 내딛고, '밤'이라고 외치며 첫 번째 큰 원, '바'라고 외치며 속에 있는 작은 원, '키스'라고 외치며 다시 큰원, '키스' '키스'라고 외치며 원 밖으로 크게 두 걸음 내딛는다.

두 번째 뽑힌 사람이하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내딛는다. 모두가 내디뎠으면 첫 번째 사람이 뒤의 사람을 보고 가장 가까운 순서부터 차례로 '바' '밤' '바' '키스' '키스' '키스'라고 외치며 차례로 한 사람씩 발을 찬다. 이때 다른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발로 찰 때 한 발을 뛰어서 피하여야 한다. 피하면 살고 피하지 못하면 죽는다. 피할 때 원 안쪽 선을 넘어서 피하면 안 된다.

100) 바이킹

그네에 앉은 두 명이 서로 마주보게 몸을 틀고, 다리를 엇갈리고 서로 손으로 부둥켜안아 꽉 잡는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굴려준다. 굴러가는 모습이 마치 바이킹 타는 모습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01) 방아깨비 놀이

방아깨비의 두 다리 끝을 잡고 있으면 방아깨비가 달아나려고 용을 쓰는 순간 몸통이 꺼덕꺼덕 흔들린다. 이것은 마치 디딜방아의 방아 찧는 모양과 같다. 이 때 아이들은 "아침 방아 찧어라. 저녁 방아 찧어라. 쿵쿵 찧어라"하며 노래를 부르며 논다.

102) 버들피리

하천변 물오른 물버들, 실버들을 꺾어 피리를 만들어 분다.(※ 일명 회뚜기피리. 3·4월 화진절 강남 제비(후조) 올 무렵 초동 소년 소녀들이 즐긴다.)

103) 번개 놀이

구름사다리나 기타 건조물이 있는 곳이면 아무데라도 상관없다. 달리기를 할 사람 두 명을 뽑은 다음 한 사람은 슈퍼가(일명 칸), 또 한 사람은 번개카로 지정한다. 각 자동차마다 운전하는 사람도 한 명씩 지정한다. 두 사람은 구름사다리 주위를 몇 바퀴 돌면서 자동차 경주를 한다. 달리는 도중에 슈퍼카 운전사가 슈퍼카에게 "슈퍼카터보"라고 외치면 더 빨리 달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번개카 운전사는 번개카에게 "번개카터보"라고 외치며 응수한다. 달리는 도중 "허리케인"이라고 외치면 혼자 5바퀴를 빙글빙글 돌면서 달려야 한다. 번개가 칸보다 강하다고 한다. 말 그대로 놀이이지 경

주 아니어서 승패에 연연하지 않는다. 만화영화 스피드왕 번개에서 유래한 것이다.

104) 보(洑)트기놀이

샘물이 흐르는 골목쪽 웃뜸에 끼리끼리 모여 흙, 점토로 복막이를 꾸며 물이 하나 고이게 한 다음 단숨에 보를 터 흘린다. 이때 아래뜸에 도래도래 앉아 보뚝을 방비하던 측은 세찬 물줄기에 밀려 미쳐 손도 쓰기 전에 모두 무너져 떠내려간다. 손뼉을 쳐 승전고가 골목 안에 메아리 치면 끝이 난다. 주로 봄과 여름에 소년들이 즐긴다.

105) 보름밥 훔쳐 먹기

정월 보름 날 동네 어린이들이 모여서 남의 집에 밥을 훔쳐 먹으러 다닌다. 이 날 주인은 일부러 대문도 닫지 않고 밥을 훔쳐 먹게 그냥 둔다. 애들 장난이기도 하지만 자기 집 밥을 훔쳐 먹으면 재수가 좋다고 하며 지역에 따라 정월 열 나흗날 하는 곳도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백가반 이라고 하여 백 집 또는 성씨가 다른 세 집 이상의 밥을 얻어먹어야 한다는 풍속이 있는데 보름 밥 훔쳐 먹기는 거기에서 연유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실제로는 백 집의 밥을 훔쳐 먹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지 여러 집의 것을 훔쳐 먹는다는 의미일 따름이다.

106) 복다리미(복달음)

복날 더위를 이기려면 영양보충이 필요하다. 구성에서는 이날 '복다리미'라고 하여 경치 좋은 곳이나 마당이 넓은 집을 선택하여 개장국을 끓여 먹는다. 주로 남자들만 모여서 놀고 부녀자들은 끼워주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남녀를 가리지 않으며 가족끼리 복다리미를 하거나 지인끼리 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

107) 봉사(장님)놀이

봉사 놀이는 같은 또래의 소년 소녀들이 마당에 모여 함께 노는 것인데 먼저 가위, 바위, 보로 술래를 정한 다음 수건이나 머리띠 등으로 술래의 눈을 가리면 술래는 봉사가 되는 것이다. 놀이가 시작되면 다른 사람들은 손뼉을 치면서 "나 여기 있다",

“나 잡아라”하면서 술래를 놀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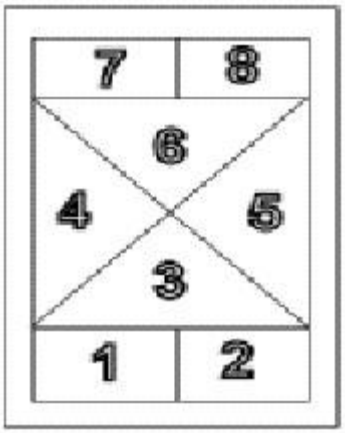
그리하여 술래는 손뼉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을 잡기 위해 이러 저리 뛰어 다닌다. 이때 한 사람이라도 잡히면 잡힌 사람이 다음 술래가 되어 놀이가 계속되는데 어떤 때는 볼 일이 있어서 밖을 나갔다 들어오는 어른들을 잡는 실수를 하기도 하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는 유쾌한 오락이다.

108) 비녀 돌리기

이 놀이는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한다. 돌리는 대상이 비녀이면 비녀 돌리기, 수건이면 수건 돌리기라 하는데 놀이 방식은 똑같다.

109) 사방뛰기(사방차기, 사방치기)

아래와 같은 그림에다 번호를 써놓고 순서에 맞게 한발 또는 두 발을 이용하여 뛰는 놀이이다. 처음 시작할 때 돌을 던져놓고 그 돌이 들어있는 번호는 피하여 뛴다. 던진 돌이 그림 밖으로 나가거나 뛰는 도중 발의 순서가 틀리게 되면 죽는다. 여자 어린이들 사이에 보편적인 놀이로서 현재의 70~80대의 노인들도 어렸을 때부터 하였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역사가 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5 사방뛰기〉

110) 살가지 쫓기

어미 닭의 꼬리를 물고 비웃드름 매달리듯 병아리 떼처럼 매달려 <꼬꼬댁 꼬꼬댁 꼬꼬댁> 소리를 흉내 내며 맴돌아 가고, 살가지 지역은 날쌔게 뛰어다니며 허를 찔러 병아리 채갈 틈을 노린다. 일종의 어미 품안의 새끼 보위놀이다. 소년 소녀들이 즐긴다.

111) 수건 돌리기

수건 돌리기는 대개 강변이나 야외의 풀밭에서 남 여 청소년들이 즐기는 놀이다. 이 놀이는 잔디밭이나 모래사장 같은 넓은 평평한 장소에서 둥글게 원을 이루어 둘러 앉

아서 노는 것으로 가위, 바위, 보 또는 주사위 같은 것으로 술래를 정하여 그 술래가 수건을 가지고 둘러 앉아있는 사람들의 주위를 뛰어서 돌다가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의 등 뒤에 수건을 떨어뜨려 놓고 다시 한바퀴 돌아 그 사람을 잡으면 잡힌 사람이 술래가 되는 것이다. 이때 잡힌 사람은 정해진 벌칙에 따라 노래를 부르거나 장기를 자랑하기도 한다.

이 수건 돌리기를 할 때에는 술래가 누구에게 수건을 떨어뜨리는지 눈치 채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박수를 치거나 합창을 하기도 한다. 술래가 수건을 자기에게 놓고 간 것을 눈치 챈 사람은 그 수건을 집어 들고 술래를 뒤쫓아 잡게 되면 먼저 술래는 다시 술래가 되며 벌칙을 이행해야 한다.

이때 먼저 술래가 잡히지 않고 뒤 따라오는 술래의 자리를 찾아 앉으면 새로 된 술래에 의해 수건 돌리기를 계속 진행된다.

112) 숨바꼭질(술래잡기)

숨바꼭질은 나이 어린 소년 소녀들이 즐기는 놀이로 술래잡기 또는 숨기잡기라고도 하는데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모여 가위, 바위, 보로 술래를 정하고 놀이를 시작한다.

술래가 된 아이는 담벼락이나 어떤 기둥 같은 곳을 집으로 정해 놓고 두 눈을 가리고 하나에서 백까지 수를 헤아리면 그 동안에 다른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장독 뒤나 장광, 또는 뒤뜰 등 몸을 숨길만한 적당한 장소에 몸을 숨긴다. 그러면 술래가 숨은 아이들을 찾아내는 놀이인데 술래가 하나에서 백까지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대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하고 열 번 외우기도 한다.

그 다음 술래가 “숨었니?”하고 고함을 치면 숨어있는 아이들은 “숨었다”하고 대답하는데 이때부터 술래가 숨어있는 아이들을 찾기 시작한다.

술래가 숨어있는 아이를 찾으면 그 아이이름을 부른 다음 집으로 뛰어가서 손을 짚으면 “000 찾았다”라고 소리 지르면 들킨 아이가 술래가 되는데 만약 술래가 숨은 장소에서 찾았다 하더라도 다른 아이가 술래 먼저 집으로 뛰어가서 “살았다”하고 집을 짚으면 들켰던 아이는 다시 다른 곳으로 숨을 수 있다.

그런데 술래가 숨어있는 아이들을 찾지 못하고 이리 저리 다니면 숨어있는 아이들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옷자락 보인다”라고 합창을 하면서 놀려 주기도 한다.

113) 신발 던지기

술래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다. 순서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이며 나이가 같으면 가위 바위 보로 결정을 한다. 뽑힌 술래는 자기의 양쪽 신발을 벗어서 차례로 연단을 향하여 힘껏 던진다. 던질 때는 손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헐겁게 신고 발을 튕겨서 던진다. 손으로 받거나 온몸으로 신발을 막고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잡으면 5점을 얻는다. 좌, 우측 신발 모두 던지면 차례를 바꾼다. 차례를 바꾸려고 연단에 올라올 때가 이 놀이의 하이라이트이다. 올라오는 사람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밀기도 하며 물을 뿌리던가, 입에 물을 담고 내뿜기도 한다. 때로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아이도 있다.

114) 썰매타기

다른 지방에 비해 눈이 많이 오는 무주지방은 기온도 낮아 냇물이나 논바닥에 얼음이 많이 언다. 그러면 많은 소년 소녀들이 썰매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얼음 지키기로 한해 겨울을 보낸다.

이 고장에서 썰매타기는 빨리 달리기, 눈 언덕 넘어가기 들의 경주를 벌이기도 하는데 썰매는 대나무를 두 쪽으로 쪼개어 미끄러운 면을 양쪽 발 밑에다 깔고 눈 위를 달리는 것도 있지만 대개는 나무판지에다 굵은 철사를 붙여서 만든 썰매를 탄다.

썰매를 탈 때는 썰매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타기도 하고 양반다리로 앉아서 타기도 하는데 썰매를 지치는 찍게는 끝을 뾰쪽하게 갈은 철사를 박은 것을 사용한다.

썰매에 두발로 올라서서, 양쪽에 3~4자 정도 되는 막대기의 한 쪽에 못을 박아 얼음을 찍으며 탄다. 이런 썰매 외에 겨울에 산에 가서 나무 조각을 잘라서 그것을 이용하여 타고 내려오는 자연용 썰매타기도 하고, 최근에는 비닐 자루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썰매에 끈을 매고서 한 사람은 앉아서 타고 다른 사람이 끌고 다니기도 하였다.

115) 아카시아잎 따기

여름에 아카시아 잎이 나오면 줄기 하나를 꺾어서 두 사람이 놀이를 한다. 처음에 사람이 “딸똥”이라고 하면서 잎을 하나 뜯는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말똥”이라고 하면서 또 하나를 뜯는다. 이렇게 “말똥” “말똥”을 되풀이하면서 계속 따내다가 맨 마지막 잎이 남는 사람이 이긴다.

116) 악어 놀이

악어놀이는 구름사다리와 미끄럼틀을 이용하여 하는데 신세대 악어놀이, 구시대 악어놀이, 보통 악어놀이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여기서는 가장 많이 놀아지는 신세대 악어놀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술~레를 뽑자 가위, 가위(바위), 보"라고 노래를 부르며 가위 바위 보로 악어를 뽑는다. 악어는 구름사다리 위에 있는 천사를 잡으러 다닌다. 악어가 가까이 오면 천사는 "매달리기"라고 외치며 구름사다리 위에 철봉을 잡고 허공에 매달리면 악어는 잡지 못한다. 또 "마네킹"이라고 외치며 마치 마네킹처럼 가만히 있거나 "콩콩이"라고 외치며 철봉 위를 두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콩콩콩 뛰고 있으면 잡지 못한다. 구름사다리의 널빤지 아래는 천사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천사가 들어가면 악어는 잡지 못한다. 악어가 바닥에 내려와 천사의 집 앞에 있는 밧줄을 잡고 천사를 발로 차면 천사는 죽는다. 악어가 밧줄을 잡고 있을 때는 천사는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구름사다리에 있다가 악어가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미끄럼틀로 이동을 할 수 있다. 미끄럼틀로 갈 때에는 "깽깽이"라고 외치며 깨금발로 뛰거나, "도둑발"이라고 외치며 두발로 재빨리 뛰어간다. 미끄럼틀로 이동하는 도중 악어에게 잡히면 죽고 만다. 놀이하는 도중 한 명이 악어에게 채이면 악어가 바뀌게 된다.

117) 야광귀 쫓기

정월 열 나흗날 밤에 야광귀가 내려와 집안으로 들어온다고 하여 신발을 모두 감추고 문에 싸리 밭을 걸어 놓는다. 그렇게 하면 야광귀가 싸리의 빈틈이 몇 개인가 개수를 세어보다가 날이 새어서 그냥 간다고 한다. 이 양광귀 이야기는 『동국세시기』『 원일조』에도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속담에 야광이란 귀신이 있다. 이 귀신이 이날 밤 인가에 내려와 두루 아이들의 신을 신어보고 발에 맞으면 곧 신고 가버린다. 그러면 신을 잃은 주인은 불길하다. 그러므로 여러 아이들이 이 귀신을 두려워하여 모두 신을 감추고 불을 끄고 잔다. 그리고 채를 마루 벽이나 뜰에다 걸어둔다. 그러면 야광신이 와서 이 체의 구멍을 세느라고 아이들의 신을 훔칠 생각을 잊는다. 그러다가 닭이 울면 도망가 버린다. 야광이란 어떤 귀신인지 모르겠으나 혹은 약왕의 음이 변한 것이 아닌가 한다. 약왕의 형상이 매우 추하여 아이들을 두렵게 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생각된다.

118) 야유회

동네 청년회에서 주관을 하여 노인들에게 1년에 한번씩 야유회를 보내준다. 그 외에도 효도관광이나 여러 가지 명목으로 여행을 보내주며, 마을 부녀회에서 부녀자들끼리 가는 경우도 있고 친목회에서 단체로 가는 경우도 있다.

119) 얼음땡

가위 바위 보로 먼저 술래를 한 명 뽑는다. “이오십”이라고 말하는 신호와 함께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은 술래 앞에서 약을 올린다. 술래는 약을 올리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손으로 채면 채인 사람이 술래가 된다. 그러나 채이기 직전에 자기 스스로가 ‘얼음’이라고 외치고 움직이지 않으면 술래가 채지 못한다. 스스로 ‘얼음’이 되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편에서 찍어주면 다시 살아난다. 시작하기 전에 정한 일정 수의 인원을 술래가 채면 놀이는 끝나고 ‘얼음’이 된 사람끼리 다시 가위 바위 보로 술래를 정한다. 만약 얼음이 된 사람이 움직이다가 들키면 그 사람이 술래가 된다.

120) 우리 집에 왜왔니

이 놀이는 일정한 선을 긋고 놀이자들과 술래가 함께 노래를 하며 하는 놀이이다.
놀이자들은 모두 가위 바위 보를 시켜 두 패로 나눈다. 각 패는 각각 일렬로 서서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서로 마주보고 선다. 가운데 부분에 선을 긋고 자기 진열의 위치를 확실히 한다. 두 패에서 한 명씩 나와 가위, 바위, 보로 공격할 편을 정한다.

수비 편은 “우리 집에 왜왔니?”라고 노래를 부르며 모두 앞으로 나아간다. 이때 공격 편을 뒤로 물러난다. 이어서 공격편이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라고 역시 모두 앞으로 나아가면서 수비 팀에 맞서서 노래를 부른다. 수비편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라고 노래한다.

이때 공격 편은 수비 편 중 한 명의 이름을 노래 가락에 넣어 불러 세운다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공격 편의 대장과 수비 편의 이름을 불린 사람이 가위 바위 보를 한다. 이때 이름을 불린 사람이 이기면 공격과 수비가 바뀌어 다시 시작하고, 지면 이긴 사람 편으로 간다. 그 다음 공격은 가위 바위 보에서 이긴 편이 한다. 계속하다가 한쪽이 없어지거나 인원이 적은 편이 지게 된다.

121) 윷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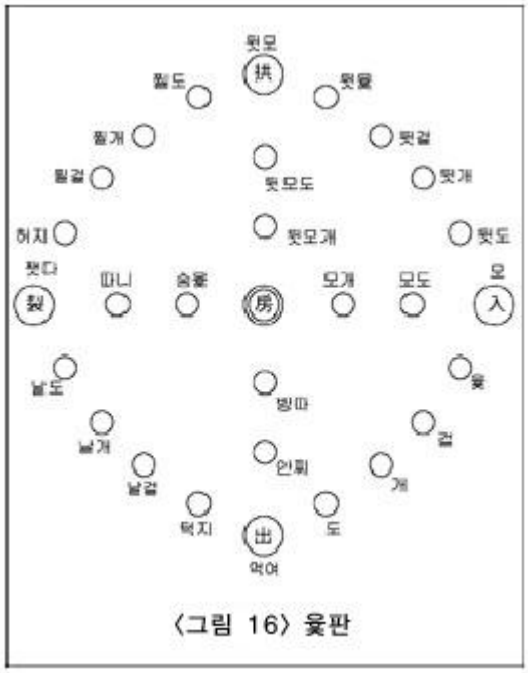
윷놀이는 우리나라 고유 민속놀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장 서민적인 놀이다.

이 윷놀이는 음력 정월이 되면 가족 또는 이웃, 친지, 동료들 간에 즐기는 것으로 편을 갈라서 하기도 하고 개인끼리 하기도 하는데 부녀자들은 따뜻한 방이나 마루에다 방석을 깔고 놀며, 남자들은 마당이나 넓은 공터에서 멍석을 깔아놓고 하는 민속놀이다.

윷은 장작윷과 깍쟁이 윷이 있는데 장작윷은 남자들이 하는 것으로 직경 2~3cm정도의 둥근 통나무 두개를 약 15~20cm정도의 길이로 잘라 반씩 쪼개어 4짝을 만들고 모서리를 다듬어 만든다.

이 장작윷을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의 경쾌한 소리가 들리도록 하기 위해 밤나무나 박달나무 등 무게가 있는 잡목으로 만든다.

또 깍정이 윷은 직경 1cm내외의 통나무를 길에 2cm쯤 되도록 하여 2개를 쪼갠 후 4짝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놀이의 방법은 종지 같은 조그마한 그릇에다 윷을 넣고 흔들어 던지며 논다. 윷놀이의 기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이미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궁녀들의 즐겼다고 한다.



〈그림 16〉 윷판

이 윷놀이는 각 편마다 구분 할 수 있는 말 4개씩을 준비하고 윷을 놀아서 4개의 윷짝이 엎어지고 잦혀져서 나타나는 수에 따라 말판(윷판)에 자기편의 말을 놓아가며 노는 것으로 어느 편이든지 자기편의 말4동이 먼저 나면 이기게 된다.

말을 놓을 때는 정해진 말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서 상대편의 말을 잡아낼 수도 있고 같은 편끼리 합쳐져서 한꺼번에 움직일 수도 있으며 또한 가깝게 빠지는 길도 있는가 하면 먼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길도 있어서 운영을 잘해야 이길 수 있게 된다.

윷짝 4개에서 나타나는 수에 따라 전진하게 되는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 도: 1점, 3개가 엎어지고 1개가 잦혀지는 것
● 개: 2점, 2개가 엎어지고 2개가 잦혀지는 것
● 걸: 3점, 1개가 엎어지고 3개가 잦혀지는 것
● 윷: 4점, 4개가 모두 잦혀지는 것
● 모: 5점, 4개가 모두 엎어지는 것

윷판은 대개 장기판 정도 크기인 목판이나 종이 또는 헝겊에다 그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멍석에다 그려놓고 사용하기도 한다.

윷판을 그릴 때는 먼저 중앙에다 동그랗게 큰 점 하나를 그려놓고 동, 서, 남, 북에다 중간 크기의 동그란 점을 그린다음 중앙의 큰 점에서 외각의 중간점을 연결하는 작은 점 두개씩을 각각 그려 넣어 십자모양을 만든 후 외각의 동, 서, 남, 북 중간점끼리 연결하는 작은 점 4개씩을 그려 넣으면 완성된다.

조선 선조 때의 사람 김문표는 상설도(相說圖)를 통해 윷판 중앙의 큰 점을 구성인 북극성 외부에 둘러싸인 28개의 작은 점은 별들이라고 했으며 중앙 큰 점은 좌, 우, 전, 후에 자리한 네 모서리의 중간 지점을 춘, 하, 추, 동 사계를 표현하는 춘분, 하지, 추분, 동지라고 비유하여 설명했다.

윷은 놀이 외에도 윷점이라고 하여 마을의 풍년이나 흉년을 미리 알아보기 위한 동네 점과 개인의 일년 동안 운수를 알아보는 신수점 등이 있는데 동네 점은 동네 사람들끼리 편을 나눈 후 한편은 수답 또 한편은 산농이라고 정해 놓고 윷을 놀아 수답편이 이기면 풍년이 오고 산농편이 이기면 흉년이 온다고 한다.

또한 개인의 신수점은 정초 처음 윷을 놀게 될 때 본인이 세 차례 던져 나온 점수에 따라 일년 동안의 신수풀이를 하게 되는데 점괘의 풀이는 대략 다음과 같다.

● 도도도: 쥐가 노적에 드는 괘라, 춘하는 불편하나 추동은 대통하리라.
● 도도개: 가뭄에 비 만났다. 금년 운수 대통하여 생남 하리라.
● 도도걸: 밤에 등잔 얻었다. 소원성취하리라.
● 도도모: 꽃피는 봄 만났다. 춘하는 대통하고 추동은 평평하리라.
● 도개도: 죄에 공을 세웠다. 춘하는 평평하고 추동은 대통하리라.
● 도개걸: 나비등잔수라. 여름과 가을에 신병을 조심해라.
● 도개모: 소가 뿔이 없다. 금년은 원망들을 수다. 칠성님께 기도하라.

● 도걸도: 금년은 이사할 수다. 남을 조심해라.
● 도걸개: 가뭄에 비 얻었다. 금년신수 사시 평길 하리라.
● 도걸걸: 거북이 논에 들어갈 수다. 죄는 얻기 쉽게 면하기 어렵다.
● 도걸모: 용이 바다에 들어갈 수다. 영화 보와 뿔 안나고 등천 하리라.
● 도모도: 나무에 뿌리가 없다. 남의 간교에 빠지면 귀양 갈 수다.
● 도모개: 추울 때 옷 얻었다. 지인을 만나 의식이 풍부하리라.
● 도모걸: 죽은 자 깨어나는 수라. 의외의 경사 있고 사시가 대통하리라.
● 도모모: 가난한 자 보배 얻었다. 춘하는 대통하고 추동은 평편하리라.

● 개도도: 해가 구름에 들었다. 춘하는 대통하고 추동은 평편하리라.
● 개도개: 학이 하늘에 오른다. 근년은 대인을 만나니 소원 성취하리라.
● 개도걸: 화살에 촉이 없다. 금년은 이사랄 수니 조심해라.
● 개도모: 집에 문이 없다. 금년은 불편하니 산천에 축수해라.
● 개 개도: 약한 말에 짐 많이 실었다. 수고는 많고 공은 없으니 평길하다.
● 개 개걸: 수레가 바퀴 없다. 금년 산수 불편하다.
● 개 모도: 범이 산에 들었다. 남의 복을 입어 면치 못할 것이니 남을 조심해라.
● 개모개: 재물이 빠진 거동이다. 금년 신수 불편하니 산천께 기도해라.
● 개모걸: 서리와 눈 올 때는 춥다. 신수는 좋으나 도둑으로 고생한다.
● 개모모: 무에서 유를 얻었다. 홀연히 재물을 얻을 것이니 지성으로 불공해라.
● 걸도도: 임금님이 신하 얻었다. 금년 신수 대통하리라.
● 걸도개: 더위에 부채 얻었다. 춘하는 대통하고 추동은 평길 하리라.
● 걸도걸: 매가 발톱을 얻었다. 재앙이 있을 것이니 칠성님께 기도하라.
● 걸도모: 구슬이 강에 들었다. 횡액의 난을 조심해라.
● 걸개걸; 가뭄에 비 얻었다. 신수 대통하여 부귀다남 하리라.
● 걸개모: 의식은 풍족해도 죄를 지으면 면하기 어렵다.
● 걸걸도: 고기가 그물에 걸린 수다. 금년 신수 불길하니 조심해라.
● 걸걸개: 새가 다리가 없다. 매사에 불길하니 지성으로 기도해라
● 걸걸걸: 동정에 액이 놀지라. 산천에게 기도해라
● 걸걸모: 죽은 나무에 열매 열었다. 득남할 수니 불공해라.

● 걸모도: 집이 외(?)가 없다. 관재수가 있으니 재물 받다가 조심해라.
● 걸모개: 승이 다른 곳에서 잤다. 금년은 이사할 수니 불전에 기도하라.
● 걸모걸: 새 밤이 없다. 일마다 허술하며 수확이 없더라.
● 걸모모: 상전이 종을 얻었다. 의외로 횡재하리라.

● 모도도: 소경이 눈을 얻었다. 재물 얻고 영화 볼 수다.
● 모도개: 의외의 시비 생길 수다. 남의 문병 문상에 조심해라.
● 모도걸: 용이 구름을 얻었다. 춘하에 재물 얻고 추동은 평길하다.
● 모개도: 천한 사람이 귀하게 되고 재물 얻고 득남하리라.
● 모개개: 농사에 씨가 없다. 심어만 놓고 소득은 없다.
● 모개걸: 용이 한데 모였다. 금년은 무사하고 평편하다.
● 모개모: 사람이 집이 없도다. 의식이 부족하고 배고플 수다.
● 모걸도: 도덕 사람을 다시 보리라. 춘하는 평평하고 추동은 태평하리라.
● 모걸개: 근심에 경사 있도다. 대통수다. 칠성께 기도하라
● 모걸걸: 잃은 종 찾아 횡재할 수나 시비가 있으리라.
● 모걸모: 행인이 발을 얻었다. 금년은 재물을 얻을 수다.
● 모모도: 여름을 얻었다. 봄은 불길하나 추동은 대길하다.
● 모모개: 금년에 장가를 들고 영화 볼 수 있다. 불공을 드려라.
● 모모걸: 고기가 응시를 삼켰다. 일마다 성과를 얻지 못하리라.
● 모모모: 장사가 접전한다. 항시 대길하리라.

이상과 같은 윷점의 괘는 모두 64괘로 나타나고 있다.

윷판도 각 밭마다 명칭이 있는데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한초전(漢楚戰)의 전사에 의해 유래된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漢沛公西入(한패공서입)
● 秦子叛手拱(진자영수공)
● 樊將軍目裂(번장군목열)
● 楚縊王南出(초패왕림출)
● 張子房運壽(장지방운수)
● 犯增房擧鰊(범증방거결)

다음은 무주 지방에서 부르고 있는 우리말 명칭

● 도, 개, 걸, 윷, 모
● 뒷도, 뒷개, 뒷걸, 뒷찌, 뒷모
● 찔도, 찔개, 찔걸, 허지, 쨋다
● 날도, 날개, 날걸, 턱지, 먹여
● 앞모도, 앞모개, 방혀, 송윷, 따니
● 뒷모도, 뒷모개, 방혀, 방따, 안찌

122) 이름대기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부르면서 한 음절(복)을 말하면 이름이 불려진 아이는 재빨리 그 음절로 끝나는 낱말(항복, 행복)을 대야 한다. 낱말을 못 댄 아이는 벌칙을 받은 귀에 다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음절을 댄다.

123) 잠자리, 매미 잡기

잠자리는 긴 장대를 가지고 잠자리가 많이 날아다니는 곳에서 빙빙 돌이면 잠자리가 장대 위에 앉는다. 그러면 패댕이를 쳐서 잠자리를 잡는다.
한여름 매미가 울면 살금살금 다가가 매미가 붙어있는 나무를 올라가 매미를 잡는다.
잠자리나 매미를 잡아서 날개를 찢거나 괴롭히다가 죽이기도 하고 그냥 살려 주기도 한다.

124) 정월대보름의 놀이

정월보름은 세시풍속과 관련하여 가장 행사가 많고, 거기에 따라서 놀이도 가장 많은 날이다. 한 겨울 동안의 농한기가 모두 지나가고 다시 생명력이 되살아 나는 봄을 맞이하여 그 동안 묵은 부정을 털어내고 농사를 다시 준비하는 때이므로 일 년 중 제일 중요한 날이다.

125) 줄넘기

둘씩 편이 되어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순서를 정하고 돌리는 두 사람(술래)도 정한다. 긴 줄넘기를 돌아갈 때 나머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뛰어 들어 온다. 노래에

맞춰 줄을 넘는다. 두 명중에서 한 명이라도 줄에 걸리면 두 명은 술래가 된다. 다시 노래가 시작되고 줄을 넘는다. 노래는 다음과 같다.

꼬마야 꼬마야 들어 오너라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돌아서 돌아서 땅을 짚어라
짚어서 짚어서 만세를 불러라
불러서 불러서 잘 가거라.

126) 줄다리기

고래로 민속 ·종교적인 의미에서 성행한다. 중국에서는 6~9세기에 후베이[湖北]·후난[湖南] 두 성(省)에서 줄다리기가 성행하였고, 라오스에서는 봄의 파종 전 농경의례의 일부로서 줄다리기를 하는데, 줄은 뱀을 상징한다고 하며, 암줄이 이겨야 풍작이 된다고 믿었다. 이와 같이 동부아시아·인도차이나의 벼농사 지대에도 농경의례로서의 줄다리기가 널리 분포하며, 이 지역 외에도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의 농경민족 사회에는 풍작과 건강에 인연을 두고 민속적·종교적 성격을 띠고 성행한다. 한국은 옛날부터 이남 지방에서 성행한 대중적 의의를 가진 특수한 놀이로서 대개는 정월 대보름날에 하며, 지방에 따라서는 5월 5일 단오절이나 7월 보름날 백중절에 한다. 한 고을이나 촌락이 동과 서로 나누어 집집에서 모은 짚으로 새끼를 꼬아 수십 가닥으로 합사(合絲)한 큰 줄을 한 가닥으로 하여 다시 여러 가닥으로 꼬아 굵은 줄을 만들고, 줄에는 손잡이 줄을 무수히 매단다. 줄 머리에는 양편 모두 도래라고 하는 고리를 만들어 연결한다. 중앙에서 동서부의 고리를 교차하여 그 속에 큰 통나무를 꽂아 동서부의 줄을 연결한다. 마을 사람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참가하여 줄을 당기어 승패를 겨룬다. 줄에는 암수가 있어 동을 수줄, 서를 암줄이라 하며, 이긴 쪽은 그해 농사가 풍작이 되고 악질(惡疾)에도 걸리지 않는다고 전한다. 어떤 지방에서는 암줄이 이겨야만 풍작이 된다고 한다.

무주지방에서는 정월보름이 되면 마을에서 줄다리기를 했다. 줄다리기는 한 해 동안의 풍농을 기원하고 잡귀를 물리치며 마을의 안녕을 바라는 의미로 한다. 매년 계

속되던 줄다리기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한때 전승이 중단되었다.

줄다리기에 사용하는 짚은 농사짓는 집을 상대로 거출을 한다. 농사를 많이 짓는 집은 많이 내고 농사를 조금 짓는 집은 조금만 내며, 그 외 농사를 짓지 않는 집은 새끼를 꼬거나 노동력을 제공한다. 짚을 내는 집은 집안에 평안과 무사가 온다고 한다. 경비도 집집마다 거출을 한다. 잘 사는 집은 많이 내고 못 사는 집은 적게 내고 아주 못 사는 집은 안낸다. 마을 전체의 일이라서 서로 협동도 잘되며 특별히 불만을 가지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한다. 끝난 후의 뒷풀이 때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음식과 술을 가져와서 같이 먹고 마신다.

줄은 줄다리기 1~2일 전에 동네에서 마당이 넓은 집을 선택하여 만든다. 중, 장년층이 나와서 만들며 노년층들은 기술적인 지도를 해준다. 만약 줄다리기 도중 줄이 끊어진 다던가 하면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새끼를 꼴 때는 나무 3개를 엇받쳐서 만든 걸침대를 만들어서 이용하며, 3명이 계속 먹여치기로 들어간다. 새끼는 왼새끼를 꼰다.

줄다리기는 그 줄의 유형에 따라 외줄다리기와 쌍줄다리기로 나눌 수 있다. 외줄다리기는 요즘 많이 하는 방식처럼 긴 줄 하나를 가지고 그 중심을 경계로 하여 양편이 당기는 방식을 말한다. 쌍줄 다리기는 마을별로 암줄과 숫줄을 각 하나씩 별도로 만들어서 결합하여 당기는 방식이다. 암줄과 숫줄은 말 그대로 암놈과 수놈의 의미로 그 모양이 암수의 생식기 모양을 하고 있다. 암숫줄의 결합은 모의 성행위로서 농경사회의 노동력이 되는 다산과 농사의 풍요를 의미한다. 구성에서의 줄다리기는 쌍줄 다리기이다.

줄이 다 만들어지면 정월 대보름 날 저녁에 줄을 매고 동네를 한바퀴 돌며 길놀이를 한다. 이때 풍물패들이 앞장서며 흥을 돋운다.

각각 무동을 선다. 무동을 서면 좋다고 하여 추천이 들어오면 사양하지 않고 선다고 한다. 여색 복장은 보통 집에서 입는 치마저고리를 입는다. 남동, 북동이 각자 길놀이가 끝나면 지금의 지서 앞에서 만나 합수를 한다. 지서 앞에서 만나면 우선 마당놀이를 시작한다. 풍물패들의 장단에 맞춰서 춤추며 한바탕 멋들어지게 논다. 풍물패는 7~8명 가량의 동네 주민들로 구성되며 북, 꽹과리, 징 장고, 호적 등이 동원된다.

줄다리기는 3판 승부로 결정된다. 보통 첫째 판은 남자, 둘째 판은 여자, 셋째 판은 다시 남자가 이긴다. 그 당시에는 여자 쪽의 경사가 높기 때문에 힘이 훨씬 더 들고,

자연히 남자 쪽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국 남자편이 이기며 그래야 풍년이 든다고 한다. 이곳에서의 줄다리기는 여자 편에서 지는 것이 당연하고, 또 져야만 한다고 한다. 끝나면 그 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한바탕 놀고 끝난다. 가끔 질 것 같은 쪽에서 나무에다가 줄을 묶어놓는 반칙을 범하기 때문에 싸움을 할 때도 있다고 한다. 만약 반칙이 발각되었을 시에는 다시 한다.

해방이후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줄다리기는 점점 사라지고 학교운동회 또는 면민 체육대회 등에서 의례를 없어지고 커다란 동아줄을 놓고 마을대항 줄다리기를 한다. 요즘도 마을대항 줄다리기는 종종 이루어진다.

127) 지신밟기(마당 밟기)

정월 보름 날 집집마다 떡, 초, 명태, 술을 차려놓고 절을 하며, 지신밟기 패들이 와서 한 바탕 지신을 밟아주고 간다. 답례로 쌀이나 떡, 돈 같은 것을 주기도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집안에 있는 잡귀를 몰아내고 일년 동안의 태평과 무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약 20년 전까지 행했다고 한다. 이날 지신밟기의 대가로 걷혀진 돈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한다.

128) 질경이꼬기

빨래줄, 두레박줄, 꼬기풀을 이용하여 한 차례 꼬아 실털을 다듬은 다음 세 가닥을 총총히 꼬아 한 타래씩 만들어낸다. 보통 열 내지 스무 자, 때로는 서른 자도 꼬아낸다. 작법과 기구는 초벌을 손으로 꼬아 한 끝은 기둥 등에 묶어 한 끝은 ㄱ자형 참나무 토막 머리통에 구멍을 뚫고 대토를 꽂아 돌리면 질경이 꼬는 자세가 된다.

129) 참새 잡기

겨울에 눈이 온 날 막대기를 세우고, 그 위에 바구니를 걸쳐놓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 다음 막대기에 끈을 연결하여 숨어 있는다. 그러면 바구니 아래의 먹이를 보고 날아든 참새가 바구니 밑에 들어 갈 때 끈을 잡아당겨 참새를 가둔다. 옛날부터 사용하던 일종의 덫인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잡은 적이 거의 없다고 한다.

130) 천렵놀이

천렵은 이 고장 특유의 여름철 놀이다. 무주 지방은 어디를 가나 냇물이 많아 여름철이 되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친구, 가족, 또는 친목회원들 끼리 냇가를 찾아 천렵을 한다. 이 천렵을 하려면 돈이나 쌀 또는 찬거리를 거두어 솥과 나무, 그릇들을 가지고 냇가에 나아가 음식과 술을 먹으며 춤과 노래 등으로 하루를 즐긴다.

이 날은 냇가에다 솥을 걸어놓고 그물이나 통발, 낚시 등으로 잡은 물고기를 푹 삶아 뼈를 추려낸 다음 쌀을 넣어 끓인 어죽이나 그물에 걸려나온 소가리나. 딸치 같은 물고기로 회를 처서 술과 함께 먹으며 목욕을 하고 노는데 이 고장의 어죽은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어죽은 바가지에 퍼 담아 가지고 물속에다 몸을 담그고 바가지는 물에 띄워놓고 먹는 것이 제격이다. 이 어죽은 민물고기이므로 비린내 없이 끓이는 특수한 비방이 있어서 무주의 전통음식으로 지정되고 있다.

무주 지방에서는 주로 강선대나 칠리대, 녹산강변, 앞섬과 뒷섬 등의 냇가에서 천렵을 즐겼는데 지금은 하천의 오염으로 옛날에 즐기던 여러 곳은 어려운 실정이고 앞섬이나 뒷섬 근방에서 천렵을 즐길 수가 있다.

131) 톰과 제리

만화영화 톰과 제리에서 힌트를 얻어 만들어진 놀이로서 가위 바위 보에서 진 사람이 고양이 톰이 된다. 톰은 미끄럼틀의 위 전망대에 위치하며, 나머지 생쥐 제리들은 전망대로 올라가는 입구 앞에서 톰을 약 올리며 희롱한다. 톰이 손으로 채면 제리는 죽기 때문에, 톰이 가까이 오면 “문잠궜다”고 외친다. 잠궈진 문으로는 톰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채지 못한다. 한쪽 미끄럼틀을 보며 톰이 정신을 빼앗긴 틈을 타서 다른 쪽의 제리들은 자리를 왔다 갔다 이사를 하면서 교란을 시킨다. 톰이 채기 전에 전망대에 올라 톰의 옆을 지나서 다른 쪽 미끄럼틀로 옮겨 가야 한다. 동작이 날쌔고 눈치가 빠르면 성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채이고 만다. 만화 톰과 제리에서처럼 바보 같은 고양이 톰은 항상 꾀돌이 제리에게 당한다.

132) 통닭놀이

한 명을 철봉에 통닭처럼 매달려 있게 한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모래를 뿌리면서 “양념을 뿌린다”고 한다. 다 익힌 다음 다른 곳으로 옮겨서 먹는다.

133) 팔랑개비 놀이

빳빳한 종이 한 장을 대각선으로 두 번 접고 펴서 네 귀를 반쯤 가위로 자른다. 잘려진 네 귀를 하나 건너 하나씩 중간으로 굽혀 가운데 모은 다음 성냥개비로 네 개의 종이를 관통하여 수수깡에 끼운다. 그런 다음 바람 부는 방향으로 들고 서 있으면 마치 풍차처럼 빙글빙글 돈다.

134) 팽돌이

빳빳한 색지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접고 오려서 팽돌이를 만들어 동산, 언덕 등의 바람에 마주대고 논다. 부서진 지우산대, 싸릿대, 굽대, 심대 등에 꿰어 놀았고 바람통 추녀에 꽂아 놓고 즐겼다. 또 입에 물고 달리기도 하여 즐겼다. 동지섣달에 어린 아이들이 즐겼다.

135) 풀 찾아내기

두 사람이 모여서 가로, 세로 약 30cm가량 각자 자기 집을 확보한 다음 새끼손톱만 하게 풀 뭉쳐서 숨겨놓는다.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한 다음 서로의 풀을 찾는 놀이이다. 글씨 찾기와 비슷한 놀이이다.

136) 풀각시 놀이

각시풀이나 난초를 뜯어 머리를 만들고, 수수깡에 연결시켜 인형을 만들어서 논다. 약 40년 전에 했던 놀이이다.

137) 풍뎅이 돌리기

여름철 아이들이 풍뎅이 벌레를 잡아 놀린다. 풍뎅이는 몸이 뚱뚱하고 다리가 짧다.

그래서 한번 뒤로 엎어놓으면 좀처럼 일어나지를 못한다. 아이들은 풍뎅이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풍뎅이 벌레를 잡아 엎어 놓는다. 그러면 풍뎅이는 일어나려고 애를 쓰나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다. 풍뎅이가 일어나려고 날개를 열심히 돌리면서 빙빙 도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즐기고 또 손으로 땅을 치면서

앞마당 쓸어라 / 뒷마당 쓸어라 / 노래를 부른다.

138) 한 발 뛰기

어린이들 사이에 가장 많이 행해지는 놀이 중의 하나로 종류도 많고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다. 남녀 어린이가 같이 모여서 한다. 놀이방법은 출발선에서 술래는 다섯 발, 술래를 제외한 사람은 여섯 발을 뛴다. 술래가 다른 사람의 발을 땅에서 떼지 않고 손과 몸만은 움직여 채면, 채인 사람이 술래가 되고, 못 채면 그대로 놀이가 계속된다. 살아남은 사람은 출발선까지 다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방법이 아래와 같이 다양하다.

○ 고구마
고구마(신발)를 들고 깨금발로 들어온다. 고구마는 뜨거워서 계속 들고 있지 못하고 던졌다가 받는 동작을 되풀이한다. 고구마를 땅에 떨어뜨리거나 깨끔발로 못 들어오면 죽는다.

○ 스파이더맨
한 사람씩 벽에 딱 붙어있으면 술래가 뒤에서 가슴을 부둥켜안고 뗀다. 벽에서 떨어지면 죽고 떨어지지 않으면 산다.

○ 신호등
노란불일 때는 손을 깍지 끼고 머리에 올린 다음 혼자 빙글빙글 돌면서 들어오고 빨간불일 때는 멈춘다. 파란불일 때는 그냥 달려서 들어온다. 빨간불이나 파란불 이냐의 신호는 술래가 맘대로 결정한다.

○ 로봇
들어올 사람은 양손을 위로 올리고 그 앞에 술래가 선다. 술래가 왼손을 누르면 오른발을 전진, 오른손을 누르면 왼발을 전진한다. 양손 다 누르면 점프로 전전한다.

139) 허수아비

첫째를 뽑자 가위, 가위, 보 둘째를 뽑자 가위, 가위, 보 셋째를 뽑자 가위, 가위, 보 넷째를 뽑자 가위, 가위, 보라고 노래를 부르며 순번을 정한다.
철봉대 하나를 지정하여 밑에 둥글게 원을 그려 놓는다. 첫 번째 사람이 먼저 철봉을 잡고 매달려 '허' '수' '아' '비'라고 외치며 리듬에 맞게 몸을 4번 굴려 앞으로 뛴다. 원 안에 빠지면 죽고 원 밖으로 나오면 산다. 힘껏 뛰어 원 밖으로 나오면 다시 '허' '수' '아' '비'라고 외치며 한 발씩 크게 내딛는다. 뒤를 이어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내닫는다. 모두 내닫았으면 첫 번째 사람이 다음 사람의 발을 양손으로 감싼다. 최대한 밀접하게 감싸기는 하나 손이 발에 닿으면 안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은 감싼 발을 손에 닿지 않게 살그머니 뺀다. 만약 닿으면 죽고 닿지 않으면 산다. 닿지 않고 발을 빼면 다음은 가슴을 양팔로 감싸 안는다. 이것도 마찬가지 닿지 않도록 감싸야 한다. 그러면 자기 몸을 팔에 닿지 않도록 살그머니 빼면 산다. 몸까지 무사히 뺀 사람은 다시 '허' '수' '아' '비'라고 외치며 한발 한발 되돌아와서 철봉대에 매달리면 이기게 된다.

140) 화투

한국인으로 살면서 화투놀이 한두 번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세 사람만 모이면 벌어지는 화투판. 일본에서 전래되었던 것이 기정사실이나 몇 년 전 화투가 본래 한국에 뿌리를 둔 우리의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한동안 떠들썩했던 적이 있다. 화투를 못하면 대인관계에도 지장이 있다고 여겨지던 때도 있었고, 이제는 인터넷게임으로서도 한 몫하고 있는 화투이다.

① 화투의 유래
일본의 화투-하나후다(花札)는 1543년 규슈 다네가시마에 표류한 포르투칼인에 의

해 일본에 전래된 서양의 카드가 240여 년간에 걸친 변형 끝에 18세기 말에 완성된 것이다. 화투가 한국에 전해진 것은 19세기말 대마도 상인들에 의해 부산 지방에 들어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는 1902년 이후 일본 내에서 판매되는 화투에 한해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억제 조치가 꾸준히 전개되지만, 1920년경에는 게임 종류가 30여종에 달하였다고 하니 일본 사람들도 화투를 꽤나 즐겼던가 보다. 화투는 1940년 이후 일본군의 대륙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에 적극적으로 수출되어 군대 내에서 만은 허용된 일본 최초의 공영 도박이 되는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도 강제 징용 및 군속으로 참여했던 한국인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도입 된다. 현재의 고스톱은 일본의 [こいこい]를 바탕으로 [はちはち]가 가미된 것으로서 1960년대에 한국에 수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1980년대 들어 급속한 경제적 발달과 정치적 혼란기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게 되면서 오늘의 전성기를 맞는다.

② 화투 용어

화투 용어에는 일본어가 많다. [고스톱]의 대표적 용어인 [고도리]는 5를 뜻하는 [고]에 [새]를 뜻하는 [도리]를 붙여 만든 한국식 일본어 이고, 점수가 되는 [약]이라는 말은 일본어의 세금 부역 등을 의미하는 [yaku(役)] 즉 [역]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으로 화투나 마작 용어이다. 1을 의미하는 삥과 9를 의미하는 가보(본래는 가부)는 포르투갈어에 어원을 둔 일본어이다. 싯삥은 [4,1]의 일본 발음이고 구삥은 [9,1]의 일본 발음이다. [땡]은 본래 시를 쓰는 종이를 가리키는 단책(短冊)의 첫 자를 따서 푸른 단책을 줄여 청단 즉 [아오땅)], 홍단 즉[아까땅)]이라고 하듯 같은 패를 가리켜 땅이라고 하던 것이 음운 변화를 일으켜 땡이 된 것이다. 개평을 뜯는 것을 고리끼라고 하는 것도 금품을 받는다는 의미의 일본어 [고오리끼]에서 온 말이고, 오야는 부모나 대표를 뜻하고, [선]은 먼저를 뜻하는[先saki]를 우리발음으로 읽은 것이고, [기리]는 자른다는 뜻의 일본어, [나가레]는 무산되었다는 일본어, 돈을 내지 않고 미루어 두는 [가리]는 빚을 뜻하는 일본어이다. [도리]는 취득 즉 싹쓸이를 뜻하는 일본어이다. [광(光)]은 일본어의 [kou/pika]를 우리 발음으로 읽은 것이다. 껍질 또는 피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어의 [kasu] 즉 껍질을 皮라는 한자말로 바꾸어 부른 말이다. 여름과 가을의 7초를 중심으로 한 4.5.7의 띠로 구성된 [구사(草)]도 풀을 뜻하는 일본어이다. 이 밖에 쪼이(8을 뜻하는 오이쪼의 와전), 모이쪼(오이쪼의 와전), 삼봉(三

本의 일본 발음), 이노시카(이노시카쵸란 멧돼지 사슴 나비의 뜻)등 화투용어의 대부분이 일본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식 용어는 화투 놀이뿐이 아니고, 땡 잡았다, 먼저 갖는 놈이 장땡이다, 가보 쪽 같은 양반, 삥땅치다, 도리하다 등의 관용어가 되어 우리 언어생활 깊숙이 자리 잡을 만큼 화투 병의 증상은 깊다.

③ 한·일 화투의 차이

일본 화투와 한국 화투의 차이는 한국 화투의 그림이 약간 조잡하다는 것과 한국 화투에는 광(光)을 문자로 표시해 둔 점, 오동과 비에 대한 월별 배치가 다르다는 것 외에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사진 참조). 월별 배치의 경우 우리는 오동이 11월인데 일본은 12월에 배치한다. 일본은 오동을 가리키는 [기리]라는 말이 근세의 에도 시대의 카르타에서 맨 끝인 12를 의미했던 것이므로 12월에 배치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오동잎이 가장 먼저 지는 계절성을 감안하여 순서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④ 화투의 문화 기호

화투를 대충 훑어보면 십장생과 온대 몬순지역의 초목 문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중일 삼국의 공통 정서를 그린 것처럼 친근하다. 그러나 한 페이지씩 넘기듯 월별로 읽어 보면 더 많은 문화기호가 보인다. 1월의 소나무는 설날부터 1주일 동안 집 앞에 꽂아 두고 조상신과 복을 맞아드린다는 일본의 대표적인 세시 풍속을 그린 것이다. 2월의 매화 축제는 이바라키현 미토시의 가이라크 매화 공원을 비롯하여 전국 곳곳에 매화 공원이 있어서 2월이 되면 매화 축제가 벌어지고 꾀꼬리는 일본에 많은 텃새로 동경의 역명에도 있을 만큼 일본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새이다. 3월의 벚꽃 축제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유명한 행사로 그림에 보이는 [만막]이라는 휘장은 지금도 경조사 때에 천막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휘장이다. 흑싸리로 잘못 읽고 있는 4월의 등나무는 일본 전통시의 시어로 쓰이는 여름의 상징이며 각종 행사시 가마에 장식하기도 하고 가문의 문양으로 쓰이는 등 일본인에게 친숙한 식물이다. 한국에서는 난초라고 잘못 읽고 있는 5월의 붓꽃은 보라색 꽃이 피는 습지의 관상식물이다.6월에 피는 모란도 6월의 詩語이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귀한 이미지를 가진 꽃으로 일본인들의 가문 문양에 많이 쓰이는 꽃이다. 꽃과 나비하면 모란을 가리킬 만큼 동양에서는 꽃

의 왕으로 불리고 있지만, 한국화의 경우 신라 선덕여왕에게 보낸 당태종의 모란 그림에 나비가 없음에 모란에는 향기가 없음을 알았다는 일화 이래 모란에는 나비를 그리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화투에는 일본화의 관례대로 모란과 나비가 함께 그려져 있으니 우리와는 다른 문화적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 7월의 싸리는 가을 7초의 하나로 여름의 시어이며, 함께 그려진 멧돼지는 근세에 성했던 멧돼지 사냥철임을 나타낸다. 8월 공산 가득히 그려진(한국화투에는 생략되어 있음) 억새는 가을 7초의 하나이고 둥근 달은 8월 15일의 달구경하는 명절인 「오츠키미」를 뜻한다. 9월 국진의 국화는 9세기경인 헤이안 시대부터 9월 9일에 국화주를 마시고 국화꽃을 덮은 비단옷으로 몸을 씻으면 무병장수한다는 전통의 반영인데, 목숨 수자가 술잔에 적혀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10월 단풍의 사슴은 사슴 사냥철을 의미하고, 사슴을 뜻하는 [시카]와 단풍의 [카에데]도 운이 맞는다. 11월(한국은 12월) 비광의 갓 쓴 사람은 오노노도후라는 일본 귀족으로 10세기의 유명한 서예가이다. 한국 화투는 갓 모양만 변형한 것으로 의상은 일본의 것 그대로 이다. 비가 11월에 배치 된 것과 수양버들이 등장하는 것은 계절에 맞지 않지만, 개구리가 버드나무에 뛰어오르기 위해 수없이 노력하는 것을 보고 노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오노의 전설을 그린 것으로 일본의 예전 교과서에 실리던 유명한 설화를 그린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우 음력 11월에 배치한 것은 11월이 비가 내리는 시기이고 파란 풀이 월동할 만큼 온난한 지역이므로 이러한 배치가 가능한 것이다. 12월(한국은 11월)의 오동은 오동잎에 봉황 즉 일본 왕의 도포에 쓰이는 문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동이 12월인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오동을 뜻하는 기리라는 말이 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투에는 1년 열 두 달의 내용이 어느 것 하나 일본인의 풍류와 민속이 묘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화투야 말로 일본 문화 기호로 가득 찬 일본의 고유 그림책인 것이다.

화투는 겨울철 가족 끼리나 친지 또는 친구들 끼리 모여 묵내기나 두부내기 등 가벼운 먹기 내기를 하면서 즐기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투전대신 도박기구로 사용되는 도박성이 높은 놀음기구다.

화투는 원래 일본으로부터 전해온 것인데 3.3cm * 5.6cm 정도 크기의 빳빳한 곽종이에다 솔, 매화, 벚꽃 등 12종의 그림을 그려 넣고 1에서 12까지의 숫자를 나타낸 것으로 같은 수를 각각 4장씩 48장을 가지고 논다.

화투의 월별 명칭은 1월 송학, 2월 매조, 3월 사쿠라, 4월 흑싸리, 5월 난초, 6월 목단, 7월 홍싸리, 8월 공산, 9월 국진, 10월 단풍, 11월 오동, 12월 비 라고 하는데 각 월별을 끗수라고 하여 점수가 표기되어 있다.

놀이의 종류로는 민화투, 육백, 섯다, 짓고땡이, 고스톱 등이 있는데 그중 섯다나 짓고땡은 돈을 주고받는 도박에 사용하며 민화투나 육백은 주로 내기에 사용된다. 근래에는 나이롱뽕이라고 하는 마치 중국의 마작과 같은 방법으로 놀음이 성행하다가 현재는 고스톱이라고 하는 도박성 놀음이 유행하고 있다. 고스톱은 이제 전 국민이 즐기는 놀이가 외었으며, 인터넷에도 고스톱관련 사이트가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민화투>

화투의 기본 이라고 볼 수 있는 민화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정해진 기본 점수외의 3단과 3약이 있는데 3단은 홍단(1월 송학, 2월 매조, 3월 사쿠라. 5끗짜리), 청단(6월 목단, 9월, 국진, 10월 풍 5끗짜리), 초단(4월 흑싸리, 5월 난초, 7월 홍싸리 5끗짜리)이며 3약은 초약(5월 난초 4장), 풍약(10월 풍 4장), 비약(12월 비 4장)이다. 단을 따 가면 30점을 내고 약을 따 가면 20점을 내야하는 놀이다. 화투의 끗수는 각 종류마다 껍질이 2장씩이고 5끗짜리 1장씩 그리고 10끗짜리나 20끗짜리가 있는데 20끗짜리는 광이라고 하여 1월 송학, 3월 사쿠라, 8월 공산, 11월 오동, 12월 비이며 나머지 10끗짜리로 되어 있다.

민화투는 같은 월별 짝을 맞추어 따가지고 가서 단이나 약을 한 사람에게 주어야할 점수를 주고 계산하여 끗수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놀이다.

141) 흰눈썹 그리기

섣달그믐날 일찍 잠이 들면 눈썹이 센다고 하여 아이들에게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 만약 일찍 자는 어린이가 있으면 눈썹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발라서 하얗게 센 것처럼 하여 아침에 일어나면 놀려준다.

［집필 : 이종진］

제7절 민요

1. 노동요

모심는 소리 ①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율오(소리 : 이순이, 박해경, 정진상, 김걸) - 1990. 11. 29

가: 요 논에다 모를 심어 장잎 나서 영화로다
나: 얼니 동생 곱게 길러 갓을 씌워 영화로다
가: 모야 모야 노랑 모야 원제커서 영화를 볼래
나: 오월크고 유월 크고 칠팔월에 영화로다
가: 머리 좋고 키 큰 처녀 울뽕낭게 걸어 있네
나: 울뽕 줄뽕 내 따 주께 요내 말씀 들어주게
가: 서 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치 남았네
나: 니가 무슨 반달이냐 초승달이 반달이지
가: 처남 처남 우리 처남 느그 누야 멋 하더노
나: 양단 이불 원앙금 잣비게를 분베사창 골방 안에 펴놓고 임 오기를 고대하네
가: 물꼬 철철 물 실어 놓고 이 집 주인 어디 갔네
나: 문어 전복 손에 들고 첩으 방에 놀러 갔네
가: 낮으로만 놀로 가고 밤으로난 자로 가네
나: 오늘 해가 다 됐는가 골골마동 연기나네
가: 우련 님은 어디가고 저녁 할 줄 왜 모르나
나: 저녁이사 하지마는 임이 없어 수심이요
가: 배가 고파 지은 밥은 돌도 많고 뉘도 많네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모심는 소리 ②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진평(소리 : 김복순, 유월순) - 1990. 11. 15

가: 이 논에다 모를 심어 장잎 나서 영화로세
나: 어린 동생 길러 내어 갓을 씌워 영화로세
가: 우리 부모 산소 앞에 솔을 심어 영화로세
나: 담송담송 닷마지기 일천 석만 쏟아지게
가: 일천 석만 천 섹이냐 삼천 석도 천 섹일세
나: 니 아무리 원을 한들 된 거 없이 쏟아지랴
가: 서 마지기 논배미가 반달만치 남았구나
나: 제가 무신 발달인가 우련 님이 반달일세
가: 자네 임만 반달인가 초승달도 반달일세
나: 이 논배미 쥔네야 양반 물꼬 놓고 가고 없네
가: 문에야 전복 둘러 처미고 첩에 집에 놀로 갔네
나: 첩이란 기 게 무엇일레 밤에 가고 낮에 가네
가: 밤으로는 잠자러 가고 낮이로는 놀러가네
나: 이 등 저 등 싸리등에 모시 지출 여름살이
가: 우련 님은 워데로 가고 옷 입을 줄 모르는가
나: 이 방 저 방 골방 안에 분꽃 같은 임 앉았네
가: 임으 물팍 뎅기나 비고 임도 방실 나도나 방실
나: 방실방실 웃는 님을 못 다 보고 해 다 졌네
가: 지느야 핼랑 접어나 두고 돋는 해로 다시보세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모심는 소리 ③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삼공(소리 : 김규환, 최일남, 장병희, 이인하)

가: 징게 망게 너른 들에 쟁피 흩는 저 마누라
나: 날 마다고 가시더니 강피자루 못 면했네
가: 저기 가는 저 할마씨 걸머진 게 무엇이요
나: 송도에서 내리 온 갖인황애 처녀님 머 리 댕기
가: 서울이라 유다락에 금비둘기 알을낳네
나: 만져 보고 쥐어 보고 못 가져온 게 한이로세
가: 서울이라 낭기 없어 건붕채로 다리 놨네
나: 그걸사도 다리라고 쿵쿵 소리 요란하네
가: 머리야 좋고 키 큰 처녀 월산이 고개로 넘날아드네
나: 오면 가면 선만 비고 장부 간장 다 녹이네
가: 담송담송 닷 마지기 반달만큼 남았구나
나: 제가 무슨 반달이냐 초등달이 반달이지
나: 초승달만 반달인가 우련 님도 반달일세
가: 늦어 가네 늦어 가네 점심 때가 늦어가네
나: 숟갈 닷 단 열닷 단을 시다 보니 늦었구나
가: 살랑살랑 부는 바람 우련 님에 한숨바람
나: 지가 무슨 한숨 바람 비 올라고 부는 바람
가: 안개구름 잦인 골에 방울 없는 매 나가네
나: 이 매 저 매 내 맬런가 이내 매가 분명하네
가: 엊저녁에 얻은 첩이 맨발도 벗고 가고서 없네
나: 가래갱기 승마총을 따라야 감 감선 신길손가
가: 저기 가는 저 한량은 갓끈조차도 한량이네
나: 우리 형이 살았더라이면 우리 형 형부를 삼을 것을
가: 진주야 담사 안사랑에 바둑 뒤는 처남에 소년
나: 여중일색 너그 누를 남중호걸 나를 다고
가: 한산 모수 적삼 안에 박속 같은 저 젖 보게
나: 옆구리를 찔벅하니 뺑긋 웃고서 돌아서네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모심는 소리 ④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덕곡(소리 : 이희환, 최재구) - 1990. 12. 1

가: 농창 농창 베루 끝에 시누 오 올키 빠졌다네
나: 나도나 죽어 후승 가서 후련 님을 셈길라네
가: 머리 좋고 키 큰 처녀 울뽕 남기서 앉아서 우네
나: 울뽕 줄뽕 내 따나 줌세 요내 품에 잠자 주소
가: 차도나 영산 참샘이 물에 배차 씻는 저 처녀야
나: 겉에여 젙잎 다 젖혀놓고 속에 속잎 나를 주게
가: 뽕 따러 가세 뽕 따러 가세 뒷동산에로 뽕 따러 가세
나: 뽕도나 따고 임도나 보고 겸도 겸해 뽕 따러 가세
가: 서울이라 남기 없어 고사리로 대궐을 짓네
나: 아래 윗집 처녀들아 대궐 짓는 구경가세
가: 서울이라 남기 없어 원추리로 대문을 다네
나: 아래 윗집 처녀들아 대문 다는 구경가세
가: 서울 가신 선비님네 우리야 선비 안 오시던가
나: 오기야 오기는 오시더래도 칠성판에 실려 오네
가: 모시 적삼 안섶 안에 분결같은 젖 좀 보게
나: 만지나 보면 병 날기고 빛만 살짝 보고나 가게
가: 방실방실 웃는 임을 못 다 보고 해 넘어가네
나: 오늘날로 못 다 보면 내일 날로 다시나 보세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모심는 소리 ⑤
무주군 茂朱 邑內里 (소리 : 葛容世/1911/男)

사해 창생 농부님네
농사 밖에 더 있는가

호미 들고 밭을 매고
천하 대분 심을 쓰네

전국 명산 만장봉아
바람분다 쓰러지면

송죽같은 굳은 절개
매친다고 휘절 허랴
쇠끝 같이 맺인 언약
가망없고 무가내지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모심는 소리 ⑥
무주군 茂豊 池城里 (소리 : 이교열/1911/男)

모야 모야 노랑모야
인제 심어 원제 클래
이달 커고 저달 커서
칠팔월에 열매여네
분벽사창 고운방에
반달거울 임 맞났네

이 몸으로 땡기되고
임도 방실 나도 방실
이 논배미 모를 심어
송이 나서 영화로세

서울이랴 한양터에
대궐지켜 영화로세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모심기 소리 ⑦
무주군 雪川 三公里(소리 : 양승훈/1920/男)

이 논에다 모를 심어
장닢이 훨훨 영화로세

어린동생 곱게 길러
갓을 씌워 영화로세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모심는 소리 ⑧
무주군 赤상 斜川里 (소리 : 박종님/1925/男)

메: 요 논에다 모를 심어 / 장닢이 훨훨 영화로세
받: 어린동생 곱게 길러 / 갓을 씌워 영화를 보세
메: 담 안에다 꽃을 심어 / 담밖으로 늘어나 졌네
받: 꽃이야사 곱다마는 / 남이야 꽃에다 손댈 수 있나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모심는 소리 ⑨
무주군 安城 琴坪里 (소리 : 서석기/1915/男)

유월달이 둘 이라서
첩을 팔아 부채 샀네

구시월이 돌아 와서
첩의 생각이 절로나네

방실방싱 웃는 애를
못 다 보고 해 다졌네

오늘 해를 못다보면
샛는 날로 또다시 오소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모심는 소리 ⑩
무주군 安城 公正里(소리 : 金南洙/1913/男)

메: 이논에다 모를 심어 / 감실감실 영화로세
받: 어린 동생 업어키워 / 갓 씌워도 영화라네
메: 동해 동창 돋는 해는 / 서해 서로 넘어 가네
받: 일락서산 해 떨어지고 / 월출 동산 달 떠오네
메: 서마지기 논 배미가 / 반달 만큼 깃 달았네
받: 제가 무슨 반달인가 / 우리 님이 반달이지
메: 뽕 따러 가세 뽕 따러 가세 / 뒷동산에 뽕 따러 가세
받: 뽕도 따고 임도 보고 / 얼사 절사 뽕 따러 가세
메: 담안에 꽃을 심어 / 담밖으로 넘어 가세
받: 꽃들이야 곱다 마는 / 남의 꽃을 손을 댈까
메: 얽음 삼삼 고운 처녀 / 채전 밭에 왔다 가네
받: 왔다 갔다 선만 뵈고 / 장부 같장 다 녹이네

메: 서마지기 논 배미가 / 반달만큼 남았네
받: 제가 무슨 반달인가 / 초승달이 반달이지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모심는 소리 ⑪
무주군 부남 가당리(소리 : 崔致雲/1912/男)

오늘 해도 다 되었네
골골 마다 연기 나네

서산에 해 떨어지고
월출동녁 달 돋아 온다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모심는 소리 ⑫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봉산마을(소리 : 유한열/85세/南, 전용표/64세/南) - 1982. 4 .5

메: 요 논배미 모를 승거 장리비 자라 영화로세
받: 어린 동생 곱게나 길러 갓을 씌워 영화로세

메: 울타리 밑에서 깔 비는 총각 눈치나 있거든 떡 받아 먹게
받: 떡을랑 받아서 팡게치고 내 손목 잡고서 낙루를 헌다
메: 곰슬곰슬 속적삼 안에 분결 같은 저 젖 보소
받: 많이 보면 병환이 나서 손톱만치만 보고 가소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모심는 소리 ⑬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두문마을(소리 : 박찬훈/52세/南, 김성녀/77세/女) - 1982. 8.15

메: 병풍 치고 불 쓴 님의 손질 얼런 나네
받: 님의 손길 얼런 나면 유자 향네 진동하네

메: 서울이라 낭기가 없어 당사실로 다리를 놨네
받: 그 다리를 건너 가면 쿵쿵절사 소리가 나네

메: 구시워리 이삼월인가 비개머리에 꽃이 폈네
받: 그믐밤도 초승이던가 이불 밑에서 반달이 솟네

메: 수건 수건 반포수건 내 님이 떠다 준 반포수건
받: 수건귀가 떨어지면 임의 정도 떨어지지

메: 주인 양반 어디를 가고 물고만 철철 넘어 가네
받: 산넘에다 소첩을 두고 첩의 방에 놀러 갔네

메: 무슨 첩이 그리도 좋아밤에 가고 낮에도 강가
받: 밤이로는 잠자러 가고 낮이로는 놀러 가네

메: 말은 가자고 네 굽을 놓느니 소매를 잡구 낙루허네
받: 말을 타고 꽃속에 드니 말등 마둥 향내가 나네
메: 담송담송 닷 마지기 반달만큼 깃 달았네
받: 지가 무슨 반달이냐 초생달이 반달이지

메: 오늘 해도 다 되었능가 골골마동 연기 나네
받: 우리 아이는 어디로 가서 연기 낼 줄 모르는가

메: 빵실빵실 웃는 임을 못다 보고 해 다 지네
받: 오늘 날로 못다나 보면 내일 날로 다시 보세

메: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골골마다 연기 나네
받: 우리 님은 어디 가고 연기 낼 줄 모르신고

메: 배가 과 받은 밥상 뉘도 많고 돌도 많네
받: 임이 없이 받은 밥상은 뉘도나 많고 돌도나 많네

메: 해 다 지고 저문 날에 한 소자가 울고 가네
받: 그 소자가 우는 뜻은 백년 첩을 잃고 우네

메: 네 아무리 울고 같들 잃은 첩을 찾을 소냐
받: 찾으나 못찾으나 솟는 울음 어이하리

메: 담 안에다 꽃을 심거 담 밖으로 휘져졌네
받: 서울 갔던 선비님은 꽃을 보고 지네 가네

메: 꽃이사 곱지마은 남의 꽃을 손댈손가
받: 요 한 등만 넘어 가면 이 내 꽃도 휘져졌네

메: 이산 저산 속낙새야 날만 보면 슬피운가
받: 네가 무슨 넋일런가 님의 죽은 넋이로다

메: 이 산 저 산 영산 속에 슬피 우는 저 새소리
받: 네가 무슨 넋일런가 울엄니 죽은 넋이로세

메: 담 안에다 싱군 화초 담 밖으로 넘어가네
받: 꽃이야 곱네마는 가지 높아서 못 꺾껏네

메: 꺽던지야 못 꺽던지 꽃 이름이나 짓고 가세
받: 꺽으면은 유정화요 못 꺾으며는 단정화라

메: 녹수야 청강 흐르는 물에 배처 씻는 저 큰애기
받: 겉으 겉대를 제쳐 놓고 속의 속대를 나를 주소

메: 언제 봤던 님이라고 속의 속대를 달라 하요
받: 오늘 보면 초면이요 내일 보면 구면이라

메: 저기 가는 저 아주머니 속속 가래 풀고 가네
받: 풀고 가나 들고 가나 도련님께 상관이 뭐요

메: 상관이야 없네마는 요내 맘이 심송감송
받: 도련님 마음이 심송커던 후원 별당 찾아 오소
메: 병풍 넘에 봉초비는 젖 달라고 울어쌌네
받: 아강 아강 우리 마라 죽은 에미 젖이 나냐

메: 높은 낭게 유자 열고 낮은 낭게는 석류가 열고
받: 유자 석류 금슬이 좋아 한 수어리에 둘 열렸네

메: 담 안에다 심은 화초 담 밖으로 넘어 가네
받: 저 건네 가는 저 선비들이 부여 잡고 다 꺾어 가네

메: 엊저녁에 얻은 처녀 발을 벗고 간 곳 없네
받: 가래냉기 속낙 총혜 따라 감서 싱겨 줄걸

메: 이 논에다 모를 숭거 우리 부모 봉양을 하세
받: 어린 자식 곱게 길러 갓을 씌워서 영화로세

메: 이 논에다 모를 숭거 장잎이 훨훨 영화로세
받: 우리 부모 산소 앞에 솔을 숭거 영화로세

메: 머리 좋고 날랜 처녀 울뿡 낭게 앉아 우네
받: 울뿡 줄뿡 내 따 줌세 내 품 안에 잠을 자게

메: 언제 봤던 님이라고 당신 품에 잠을 자리
받: 오늘 보면 초면이고 내일 보면 구면이요

메: 상주 함창 공갈못에 연밥 따는 저 큰아기
받: 연밥 조큰 내 다 주께 요내 품에 잠을 자지

메: 잠 자기는 어렵지 않지만 연분 아닌데 잠을 잘까
받: 연분이사 따로 있나 같이 자면 연분일세
메: 이 논에다 모를 숭거 일천석만 쏟아지소
받: 일천석만 천석이던가 이천석도 천석이지

메: 이천석만 천석이던가 삼천석도 천석이지
받; 삼천석만 천석이던가 사천석도 천석이지

메: 담송담송 닷마지기 일천석만 쏟아지소
받: 일천석만 천석이던가 삼천석도 천석이지

메: 모야 모야 노랑모야 너 언제 커서 열매 열래
받: 이달 크고 새달 크고 칠팔 월에 열매 엶세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모심는 소리 ⑭

메: 농창농창 베루 끝에 무정할손 오라버님
받: 나도 죽어 훗세상에 낭군부터 생길라네

메: 담송담송 닷마지기 일천석만 쏟아지소
받: 네 아무리 쏟아진들 된 것 없이 쏟아지랴

메: 한강에다 모를 부어 모찌기가 극난하네
받: 석산에다 상추 부어 상추 속기 난감하네

메: 사우 사우 감자 먹게 일상 먹어도 감자 좋데
받: 장인 장모 콩밥 잡숴 일상 먹어도 콩밥 좋데
메: 개령선산 얽은 독에 쌀로 썩은 강해주를
받: 꽃나였다 유리잔에 나도 한잔 진지하네

메: 알고선산 고운 처녀 뒷골짝으로 넘어가네
받: 석자 수건 목에다 걸고 총각 둘이나 따라가네

메: 알고 전답 오고나 처녀 못 다 보고 해 다 져요
받: 오늘날로 못다 보면 돋는 해에 다시 보세

메: 분벽 사창 곱은 방에 신선 같은 임 앉아서
받: 임의 무릎 댕겨 비고 임도 방실 나도 방실
메: 이 집안 논임재 어디 가고 물고 돋울지 모르나요
받: 죽고 없다네 죽고 없어 우리 농군덜 힘써줘요

메: 더디 오네 더디 오네 점심참이 더디 오네
받: 무주 배꼴 꽃그릇을 세느라고 더디 오나
메: 간지 닷단 수지 닷단 세느라고 더디 오나

메: 까마귀 꺽꺽 울고 이몸 병세는 짙어 오네
받: 임의 손목 담쏙 잡고 임도 울고 나도 우네

메: 요내 다리 박속 다리 임의 다리 검정 다리
받: 초저녁에 갱긴 다리 날이 새도 안풀리네

메: 여 보아라 농부들아 말 들어라
　　일락서산에 해는 떨어지고 월출 동령에 달이 솟네
받: 에에 에헤 이루 상사뒤야

메: 봄에 밭 갈아 씨 뿌린 후에 우순 풍조가 제일이라
받: 에에 에헤 이루 상사뒤야

메: 춘하추동 사시 순환은 우리 농부를 위함이라
받: 에에 에헤 이루 상사뒤야

메: 저 건너 갈미봉에 비가 묻어 들어 온다
　　우장을 허리다 두르고 기심을 매러 갈 꺼나
받: 에에 에헤 이루 상사뒤야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모심는 소리 ⑮
무주군 부남면(소리 : 김동호/67세/男, 이재삼/56세) - 1997. 7. 17

이 논배미 모를 심어 감실감실 영화로세
어린 동생 갓을 씌워 감실감실 영화로세
담송담송 닷마지게 반달만치 남어 있네

니가 무신 반달이냐 초승달이 반달이지
초승달만 반달인가 그믐달도 반달이지
그믐달이 반달이냐 우련님이 반달이지
임아 임아 서방님아 정만두고 몸만 가면 이내 눈에 눈물만 나요
눈물은 흘러 대동강되고
한숨은 쉬어서 동남풍되네
산천초목 붙는 불은 만인간이나 끄지마는
이내 속에 붙는 불은 한 품이 든 임도 못꺼나 주네
담배 술과는 내 심정 알건만
한 품에 든 임은 내 심정 몰라
스마지게 논배미가 반달만치 남았고나 (히이 후후후)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마을』(전북도립국악원,1998)

모심는 소리⑯
무주군 안성면(소리 : 류순예/73세/女) - 1997. 7. 17

이 논에다 모를 심어 감실감실 영화로세
어린 동생 곱게나 길러 갓을 씌워 영화로세
몰꾸야 철철 물넹가 놓고 쥔네야 한량 어데를 갔소
문어 전복 손에다 들고 첩의 방에 놀러를 갔네
농에다 농창 베루야 끝에 무정하신 저 오라바
나도나 죽어 후세상에 낭군부터 섬길라네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 다 진데 어데를 가나
우리 엄마 산소나 가에 젖먹으러 나는야 가네(이히 호호)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마을』(전북도립국악원,1998)

모찌는 소리 ①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진평(소리 : 김복순/65세/女, 유월순/67세/여) - 1990. 11. 15

가: 들어내세 들어내세 요 모자리 들어내세
나: 둘러 짜세 둘러나 짜세 요 모자리 둘러 짜세
가: 남우야 가락 세 가락에 날른 가락 들어내세
나: 늦어 가네 늦어나 가네 정심 참수 늦어 가네
가: 질과 같은 쌀독에서 쌀 퍼다가 늦었다네
나: 석산에다 상추를 부어 상추 솎다 늦었다네
가: 수지야 닷 죽 바가치 닷 죽 시어다가 늦었다네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모찌는 소리 ②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덕곡(소리 : 이희환, 최재구) - 1990. 12. 1

가: 불러보세 불러나 봇 노래를 하 하안번 불러보세
나: 이삼십이 넘어가면 노래 정도 간 곳 없네
가: 한강에다 모를 부어 모 쪄내기가 난감하네
나: 어서야 펄펄 모쪄 놓고 연초 담배한 대 푸어 봇
가: 들어내세 들어를내세 이 모자리 들어내세
나: 어서야 펄펄 들어나 내고 연초 담배 푸어나 보세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모찌는 소리 ③
무주군 安城 公正里(소리 : 金南珠/1913/男)

메: 한강에다 모를 놓아 / 모 쪄내기 난감하네
받: 석상에다 상치 심어 / 상치 속기 난감하네
메: 들어를 내세 들어를 내세 / 이 못자리 둘어를 내세
받: 들어를 내자 들어 내세 / 나무가락 들어내세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모찌는 소리 ④
무주군 赤상 斜川里 (소리 : 朴氷達/1920/男)

한강에다 모를 부서서
모쩌내기 난감하네
석상에다 상추를 심어서
상추나 뜯기가 난감하네

요 논에다 모를 심어
장닢피워 영화보세

어린자식 곱기나 길러서
사모를 씌워서 영화를 보세

(오전노래)
물고 철철 물 실어 놓고
한량은 어디를 갔소
무네야 전복을 손에다 쥐고
갭으나 방으로 놀러를 갔네

담 안에다 꽃을 심어

담 밖으로 늘어나 졌네
꽃이야 삼아 곱드라 마는
나무야 꽃에다 손 댈수 있나

날 오라네 날오라네

오라기는 오래 놓고
문을야 걸고서 나부잠 자네

알곰 살곰 어여쁜 처녀
울쁨 남에 앉아서 우네

울뽕 줄뽕 내 따다 줌세
아가씨 홀목만 잡아다 주네

(오후노래)
오늘 해도 다 되었는가
동네야 마다 연기가 나네

우리님은 어디를 가고
저녁 할 줄 모른는가

병풍치고 불씬 방에
이모나 손일이 얼련하네
이모 손일이 얼른하니
유자야 상네가 진동하네

서울이라 왕대밭에다
금비달기 알을 낳네

뉘여다 보고 만져다 보고
못다나 대고 해 넘어 가네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논매는 소리 - 방아타령①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삼공(소리 : 최일남, 김경수, 양성훈 외) - 1990. 11. 30

메: 에 헤로 방애 호 / 이 방아를 누가 냈소 / 강태공이 조작방애 / 방애소리 잘들 하면 / 쥔네 양반이 나와 서로 / 술도 주고 담배도 준다네 / 방애 소리 잘들 허면 / 먼뎃 사람 듣기 좋게 / ●에나 사람 베기 좋고 / 이 논배미는 지심맬 때 / 지심들이 많으니 / 양대받이로 훌쳐나 매소 / 에 헤로 방애 호 / 배가 고파 못허겄소 / 사람은 작아도 소리는 많네 / 어허 우겨라 방애호 / 논매기가 재근하면 / 말초한 대 피워 보세 / 에 헤로 방애 호 / 허리 아픈데 한 허리 합시다.
받: 에 헤로 방아 호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논매는 소리 - 방아타령②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두문마을(소리 : 정성녀/77세/女) - 1982. 8.15

메: 이 방애가 뉘 방애냐 / 우리 동네 물방애냐
받: 에 에에 웃 방애요

메: 방아 우기는 저 큰 아가 / 방애만 자꾸 우겨라
받: 에 에에 웃 방애요

메: 이 방애가 누 방애냐 / 강태공의 조작방에
받: 에 에에 웃 방애요

메: 떨커덩 떨커덩 찧는 방애 / 언제나 다 찧고 밤마실 갈거나
받: 에 에에 웃 방애요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논매는 소리 - 상사뒤 소리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율오(소리 : 정진상) - 1990. 11. 29

메: 어 하 룰 룰 상 사 뒤야 / 서 마지기 넘어갑니다 / 이 논배미 논을 매여 / 어는 달에 영화를 볼까 / 이 달 저 달 다 지네고 / 팔월이라 영화로세 / 올게 매고 내년에 매고 / 해마둥 풍년이 오소 / 옆에 양반은 보기도 좋고 / 가는 양반은 딛기도 좋은네 / 참 잘하네 참 잘하네 / 우리 농민들 참 잘하네 / 상사뒤 소리 참 잘하만 / 술도 있고 밥도 있네 / 우리 아주머니 가지고 오네 / 올게 하고 내년에 하세 / 서 마지기 다 돼 가네 / 이 논배미 다 돼 가네 / 우리 농민들 기본도 좋네
받: 어 하 룰 룰 상 사 뒤야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논매는 소리(두벌) - "위야 호호"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왕정(소리 : 갈용세) - 1990. 11. 29
메: 위야 호호 / 위야 호호 / 한목지기 / 심을 써서 / 여기도 매고 / 저기도 매고 / 위야 호호 / 두루 두루 / 밋꿈하게 / 뒤돌아 보고 / 앞돌아 보고 / 밋꿈하게 / 잘들 매게 / 밥 잘 먹기는 / 하늘님 덱이요 / 돈 잘 씨기는 / 부모 덱이요 / 옷 잘 입기는 / 가속 덱이라 / 어서 어서 / 논을 매자 / 땀 흘리고 / 일을 하고 / 샛밥도 먹고 / 술도 먹고 / 위야 호호 / 돌아간다 / 베루잽이야 / 어서 오니라 / 어서 어서 / 논을 매자 / 해 다 지고 / 저문 날에 / 골골마다 / 연기 난다 / 어서 어서 / 돌아 오니라 / 위야 호호 / 저기도 매고 / 여기도 매고 / 두루 삥삥 / 잘들 매게 / 천하 대본 / 심을 씨고 / 농부들아 / 이내 말을 / 들어 봐라 / 시호 시호가 / 부재내리 / 봄이 돌아와 /

농사 짓고 / 가을이믄 / 추수하고 / 그 아니 / 좋을쏘냐 / 돈 잘 벌고 / 밥 잘 먹으니 / 그 이상 / 더 좋을쏘냐 / 위야 호호 / 위야 호호 / 어서 어서 / 돌아 오니라 / 베루잡아 / 이리 오니라 / 저리가고 / 이리 가고 / 어서 어서 / 논을 매자 / 해 다 지고 / 저물 날에 / 달빛을 / 빼 가지고 / 집에 가서 / 잠자고 / 일어나자
받: 위야 호호
함께 : 몰아세! 이 호호호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논매는 소리 ①
무주군 安城 公正里(소리 : 金南洙/1913/男)

(지심소리)
메: 살랑이나 살랑부는 바람 / 우리 님의 한삼 바람
받: 알강이나 달가 짓는 소리 / 우리 님의 짓진 소리

(상사 소리)
메: 얼널널 상사뒤야
받: 얼널널 상사뒤야
메: 여러 농부들 심겨 주소
받: 얼널널 상사뒤야
메: 앞구잽이는 종을 들어
받: 얼널널 상사뒤야
메: 뒷구잽이는 조리를 들어
받: 얼널널 상사뒤야
메: 이 농사를 짓고나면
받: 얼널널 상사뒤야
메: 백만석이나 쏟아지소
받: 얼널널 상사뒤야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논매는 소리 ②
무주군 安城 公正里 (소리 : 이귀종/1929)

어린 동생 곱게 길러
갓을 씌워 영화로세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논매는 소리 ③
무주군 安城 琴坪里 (소리 : 서석기/1915)

메: 에헤루 방애호
받: 에헤루 방애호
메: 이방애를 누가 놨노
받: 에헤루 방애호
메: 강태공의 조작 방애
메: 에헤루 방애호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논매는 소리 ④
무주군 安城 沙田里(소리 : 박진하/1933/男)

(쌈 쌀 때)
메: 우야헤헤
받: 우야헤헤
메: 우야헤헤
받: 우야헤헤

메: 무주군수는 해우 쌈으로
받: 우야헤헤
메: 안성면장은 돈달로 쌈으로
받: 우야헤헤
메: 우리야 농부는 상추 쌈으로
받: 우야헤헤
메: 우야헤헤
받: 우야헤헤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논매는 소리 ⑤
무주군 茂豊 池城里(소리 : 서병석/1929/男)

(상사 소리)
메: 어허 눌눌 상사디여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이 논배미 논을 매면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열매 열어 영화로세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서마지기 논배미가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반달 만큼 남아 있네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일락 서산 해는 지고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월출 동경 달 돋아서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서산에 지는 해는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지고 싶어서 지는가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나를 두고 가는 님은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가고 싶어서 가는가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저 건너라 잔솔 밭에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슬슬 기는 저 포수야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잡지마오 잡지마오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그 비둘기를 잡지를 마오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간 밤에 꿈을 꾸니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나와 같이도 임을 잃고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임을 찾아 헤매노라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삼년만에 돌아를 왔네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진주 나무 주문하여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그 나무에 열매 열어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방실 방실 달렸고나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빨간 것은 하늘 열고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노란 것은 꽃을 열고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진주 댁이 바느질에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양산댁에 솜씨에다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네모반 듯 흠치리 압고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서마지기 논배미를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쏜살같이 달려와서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상사디를 부르노라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메: 어허 눌눌 상사디여
받: 어허 눌눌 상사디여

(칭이나 칭칭)
메: 이 논배미 노을 매면
받: 칭이나 칭칭 나네
메: 장잎이 훨훨 영화로세
받: 칭이나 칭칭 나네

메: 사람은 많아도 소리는 적소
받: 칭이나 칭칭 나네
메: 동산나무 까치집은
받: 칭이나 칭칭 나네
메: 바람이 불까 염려로세
받: 칭이나 칭칭 나네
메: 유다락에 알을 낳아
받: 칭이나 칭칭 나네
메: 그 알에서 새끼까 나서
받: 칭이나 칭칭 나네
메: 까고보니 영화로세
받: 칭이나 칭칭 나네

메: 칭이나 소리를 신나게 하면
받: 칭이나 칭칭 나네

메: 이 논배미 논을 다 매면
받: 칭이나 칭칭 나네
메: 집으로 돌아가세
받: 칭이나 칭칭 나네

메: 어서 가요 빨리 가요
받: 칭이나 칭칭 나네
메: 집에 가면 마누라가
받: 칭이나 칭칭 나네
메: 비단요를 깔아 놓고
받: 칭이나 칭칭 나네

메: 오늘은 이 논배미 매고
받: 칭이나 칭칭 나네
메: 내일은 박씨 논으로 갑시다
받: 칭이나 칭칭 나네
메: 아침식사 일찍하고
받: 칭이나 칭칭 나네
메: 박씨 논으로 나와주소
받: 칭이나 칭칭 나네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논매는 소리 ⑥
무주군 부남면 대소(소리 : 유순예/73세/女) - 1997. 7. 17

앞둑 뒷둑 베루잽이 휘휘 둘러 쌈을 싸세
이내 골을 어서 매고 임의 골로 마주나 들세
우련님은 어디를 가까디 골골마동 연기가 나는디 저녁 동자 안하는가
저 건네라 잔솔밭티 살림살이 내간살이 하러나 갔는가
만장 같이 널룬 방에 독수공방 홀로 누워
앉었으니 임이 오냐 누웠으니 잼이오냐
앉어 생각 누워 생각 생각중의 임의 생각

밭매는 소리 ①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진평마을(소리 : 김복순, 유월순) - 1990. 11. 15

이내야 밭골 얼른 매고 임으야 밭골 질러 매세
이 골 저 골 매는 뜻은 군 뜻 먹고 내가 매네
불과 같이 더운 날에 매갓같이 지슨 밭을
한 골 매고 두 골 매고 삼 시 골을 거퍼 매니
다른 저밈 다 나오는데 이내 점심 안 나오네
그러구로 집에 오니 원수놈으 시어마니
어라 요년 물러나 서라 그길사나 일이라고
점심 찾고 샛밥 찾나 정지라고 들어가니
웬수 놈오 시누 아씨 어라 요년 물러서라
그길사나 일이라고 점심 찾고 저녁 찾나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밭매는 소리 ②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율오(소리 : 이순이) - 1990. 11. 29

가: 요내 밭골 월릉 매고 임의 밭골 질러 매세
나: 질람 질람 매 나가는 뜻은 군 뜻 먹고 매 나가네
가: 살랑살랑 부는 바람 우련 님오 황손 바람
나: 제가 무신 황손인가 하늘님네 도술이제
가: 서울이라 유다락에 금삐둘기 알을 낳네
나: 만져 보고 쥐어 보고 못 가져온 기 한이로세
가: 서울이라 낭기 없어 금봉채로 다리놨네
나: 그 다리를 건네갈 때 쿵쿵절싸 소리가 나네
가: 다풀다풀 다박머리 해 다 젼데 울고 가네
나: 우리 엄마 산소 앞에 젖 먹으러 나는 가오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밭매는 소리 ③
무주군 안성 공정리(소리 : 김남수/1913/남)

메: 얼른 뚝딱 김매 놓고 / 우리 애기 젓 먹이세
받: 늦어나 간다 늦어나 간다 / 담배 참이 늦어나 간다
메: 녹음방초 우거나 진데 / 슬피 우는 저 새소리
받: 그 새소리 좋네마는 / 임의 소리 당할 손가
메: 오늘 해도 다 가는데 / 골골 마다 연기나네
받: 우리 님은 어기가고 / 저녁 질줄 모르시나
메: 다팔 다팔 다박머리 / 해 다 진데 어디를 가나
받: 우리 모친 산소다에 시묘 살러 가는 가요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밭매는 소리 ④
무주군 읍내리(소리 : 하윤님/1917/女)

이내 밭골 어서 매고
임의 발골 마저내 매세

이내 밭골을 마저 매는 뜻은
군떡 먹고 마저 잘 매세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밭매는 소리 ⑤
무주군 부남면 대소(소리 : 유순예/73세/女) - 1997. 7. 17

못다맬 밭 다 맬라다 우련님 금봉채 내 잃고 가네
전주야 송방다 더둬도 우련님 금봉채 내 잃고 가네
총객이 떠다 준 홍갑사 댕기 곤때도 안 묻어 날받이 왔네
울타리 밑이 깔비는 총각 눈치나 있걸랑 떡받어 먹게
땍일랑 받아서 팽개를 치고 내 홀목 붙들고 낙루만 한다
이내 밭골 어서 매고 임의 밭골 마주나 들세
일락서산 해 떨어지고 월추야 동산 달 돋아오네
산천이 고와 나 여기 왔는가 임 살던 곳이라 나 여기 왔지
우련님은 어디를 가까디 해가 가고 달이 가도 날찬어 올지를 왜 모르는가
전 건네라 잔솔밭티 콩팔러 갔는가 쌀팔러 갔는가
일년이 가고 삼년이 가도 날 찾어 올지를 왜 모르는가
요볼통 조볼통 저 남산 보소 우리도 죽으면 저 모냥이지
동산에 달뜬건 남보기나 좋건만 여자의 맘뜬건 임없는 탓이지
일본아 대판이 얼매나 좋간디 꽃같은 나를 두고 일본을 갔는가
일본이 좋아 내가 갔냐 금전이 팔려 내가 갔지
일본을 갈라니 연양이 있나 장개를 갈라니 연분이 있냐
알뜰헌 우리 오빠 일본 대판 갔는디 창꽃같은 우리 올키 절골이 됐네
절공이 됐다고 편지를 한게 후사리 가라고 답쟁이 왔네
일년 열두달 남의집 설어 청치매 밑이로 다 들어갔네
놀기야 좋기는 기상방에 잠자기 좋기는 큰애기 골방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마을(전북도립국악원,1998)

나물뜯는 소리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덕곡(소리 : 제배순) - 1990. 12. 1

가: 덱우산 상살봉 실안개 돌고 요내야 가슴에는 수심만 돈다
나: 오늘 해도 다 됐는가 골골마동 연기가 나네
가: 우련 님은 위디를 가고 마중롤 줄을 모르는고

나: 있게사도있네만은 해 가는 줄을 내 몰랐네
가: 바늘 같은 요내 몸에 황소 같은 짐을 실고
나: 활장 같이 굽은질로 화살같이 내 나가네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목도소리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율오(소리 : 정진상, 박해경, 김걸) - 1990. 11. 29

메: 일 자도 모르는 건 판판 무식이라 / 촌놈에 딸이면 쌍놈에 딸이라 총춘에 늙노나 차정 / 으여차 / 으여차 / 한 발재죽 / 까딱거리먼 / 다 죽는다 / 어그여차 / 으여차 / 옆 발재죽 / 다 맞촤라 / 한 발재죽 / 잘 하면은 / 자알 한다 / 어허허하 / 어허허 / 다 와 가네 / 뒤에 양반 / 밀어 주고 / 옆에 양반 / 땡겨 주고 / 어허허 / 으야하 / 아하하 / 아하하 / 다 와 간다 / 아하하 / 한 발자죽 / 까딱거리면 / 다 죽는다 / 밥숟가락 사요나라다 / 두 발재죽 / 건네가면 / 다 와 가고 / 옆으로 / 돌아가라 / 어그여차 / 외나무다리 / 잘 건넨다 / 아아하하 / 아아하하 / 놓고
받: 디여차 / 으여차 / 헤여차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단 목도 소리
무주군 赤裳 사천리(소리 : 박종님/1920/남)

사정-.
허기야 허기여허 허여허
허여차 허여
허기저 허기저히 허기저히 허기차

허야치 하야
허야차 허야야야 어야치차 허야
허야 허야하 허야 허야

나부나미가 허야하
우투럽다 허야
허여차 허여 허여 허여
어깨가 아프면 쉬어서 가야지
허야 허야
도랑이다 허여하
건너 뛰어라 허야
허야 허야 허여차 허야
어야 하야아 어여차 허야
놓고-.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삼삼는 소리 ①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덕곡(소리 : 제배순) - 1990. 12. 1

치자골 바람이 내리다 불면
오라바니 부채가 간들간들
이 삼 삼아 옷해 입고
무덤산에 구경가세
무덤사네 고사리는
밤이슬 맞고 히들어졌네
우리집에 우리 올키
잠이 와서 히드어졌네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삼삼는 소리 ②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두문마을(소리 : 정성녀/77세/女) - 1982. 8.15

잠아 잠아 오지를 마라
그 삼 삼아 뭣 할랑가
아가 아가 시누아가
자네 오빠 서울 갈 때
입는 도포를 말아 줌세
그 남지기는 두었다가
우리 시누 시집갈 때
가마일당을 둘러 줌세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삼삼는 소리 ③
무주군 안성 금평리(소리 : 박길선/1923/女)

혼자 삼는 삼까래는
목욕 깜기가 일이구나
둘이 삼는 삼까래는
군디 뛰기가 일이로세

비리치고 배리치고
송곳니를 다머리고
이 삼 삼아 옷해 입고
저 건너 갈미봉 구경 가세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삼삼는 소리 ④
무주군 안성 덕산리(소리 : 이문순/1923/女)

해털었네 해털었네
요네 전지를 해털었네
송곳니를 다물이고
붕어눈을 부릅뜨고
비벼쳐고 배비쳐고
이 삼 삼아 옷해 입고
무덤삼아 구경가세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아리랑 - 문경새재 박달나무+영감아 곶감아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율오(소리 : 이순자) - 1990. 11. 29

밍경아 새재야 박달나무
홍두개 방마치 다 나가네
홍두깨 방마치 팔자 좋아
큰애기 손끝에 놀아나네
영감아 꽂감아 개떡 묵게
곰보리 방아 품 덜어 개떡 했네
개떡이나 쪘으만 작게나 쪘나
서 마 지기 밥솥으로 하나 쪘네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아리랑 - 산이노래
무주군 부남면 가당리 하평(소리 : 주함봉) - 1990. 11. 16

날 가라네 날 가라네 날 가라네
삼베 질삼 못한다고 날 가라네
오동나무 열마는 가실감실
큰애기 젖퉁이는 몽실몽실
영 글렀네 영 글렀네 영 글렀네
가매 타고 시집가기 영 글렀네
늘어졌네 청처졌네 쇠불알 낭자
누 간장을 솔라고 저 모냥이냐
날 버려라 날 버려라 날 버려라
이십 안쪽에 날 버려 주게
산천이 고와서 나 여기 왔어
임 살던 골 이라고 나 여기 왔네
아리 아롱 아리 아롱 아라리 났네
아라린가 지랄인가 영천인가
월매나 좋아서 요 모냥이 됐어
아리롱 고개는 열두나 고개
아리롱 고개는 한 고개네
다래야 머루야 열지를 마라
산골짝 큰애기 몸깨단다
열라는 콩팥은 아니나 열고
열지 마란 아주까리 조자리 쳤네
아리 아롱 아리 아롱 아라리요
아리 아리 고개로 놀로나 가세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지게목발노래 - 어사용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율오(소리 : 정진상) - 1990. 11. 29

아이고 답답 내 팔자야 아 아 아 아
이 내 신세를 어이 하나 아
어는 사람은 팔자 좋아
부대공실 높은 집에 에 이 이
소리 명창 유다락에
우리 같은 인생들은
지게목발 뚜디리고
아이고 답답 내신세야 아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물레질 소리 ①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진평(소리 : 권문식) - 1990. 11. 15

물래는 뱅뱅 동줄로 돌고
줄은 낭창 고리루 돌고
은진배 전진배 하정차 바람에
진 줄을 모시고 곰돌아 지네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물레질 소리 ②
무주군 읍내리(소리 : 임학순/1916/女)
세 살에 물레는 좋다
동주리 놀고요

우리댁 서방님은 좋다
방 밖에 노노라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運材 소리
무주군 안성 공정리(소리 : 김남수/1913/男)

메: 어허루 산이로고나
받: 어허루 산이로고나
메: 뒷고잽이 끌어 당기고
받: 어허루 산이로고나
메: 앞고잽이는 진구지 돌려
받: 어허루 산이로고나
메: 에헤루 산이로세
받: 어허루 산이로고나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터 다지기(망깨)소리
무주군 무풍 지성리(소리 : 서병석/1929/남)

메: 어여라 차하 / 삼천근 망깨가 / 삼천근 망깨가 / 머리 위에서 빙빙 도네 / 사람은 많아도 소리는 적어요 / 망깨 소리만 크게 하면 / 저절로 올라 갑니다 / 먼대 사람 듣기 좋게 / 옆 사람도 보기 좋게 / 저 건너라 가는 양반 / 망께 소리를 듣고 보니 / 길을 못가고 멈추고 있소 / 몽끈 몽끈 올려 주소 / 어여라 차하
받: 어여라 차하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2. 유희요

시집살이 노래 - “깨끼 깨끼 깨끼적삼”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율오(소리 : 이순이) - 1990. 11. 29

깨끼 깨끼 깨끼적삼
북도 멩자 짓 을 달아
남복초로 고롬 달아
열이렛 날 은다리미 불을 피워
사리살콤 다리서로
조그만헌 제피방에
줄때다가 걸었더니
조그만헌 시누아씨
은칼을랑 몸에 품고
들랑날랑 다 찢었네
지부 겉은 니 오래비
니 한 동네 다 얻어다
숨이 깔딱 넘어갔네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시집살이노래 - 춘아 춘아 옥단춘아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율오(소리 : 박해경) - 1990. 11. 29

춘아 춘아 옥단춘아
버들 밑에 새단춘아
왔소 왔소 편지 왔소
한 손으로 받아 들고
두 손으로 피어 보니

아차 깜짝친정 곳에 부고로세
나는 가요 나는 가요
부모님께 나는 가요
한 모롱이 넘어가니
까막 까치 진동하고
두 모롱이 썩 돌아서니
여우 새끼 진동하고
세 모롱이 넘나드니
노루 새끼 진동하고
네 모롱이 넘어서니
상도꾼들 진동하네
저기 가는 저 상도꾼들
행여나 쪼꼼 놓아주소
행여 갈 길 바쁜 질에
친정 집에 빨리 가소
다섯 모롱이 돌아서니
친정 집에 당도했네
오빠 오빠 우리 오빠
대문 쪼금 열어 주소
에라 이년 몹쓸 년아
부모님 얼굴을 볼랴거든
어제 아래 올 것이지
셍이 셍이 올 것이지
대문 쪼금 열어주소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람
부모님 얼굴을 볼랴거든
어제 아래 올 것이지
에라 썩 물러서라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시집살이노래 ①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두문마을(소리 : 정성녀/77세/女) - 1985. 8. 15

무주 읍내 저 처녀는
글 좋다고 소문 났네
서울이라 저 총각은
글 좋다고 소문 났네
그럭저럭 부모 알아
결혼 혼사를 맺었구나
상채를 놓구 중채를 놓구
날이라고 급히 보니
이월이라 초엿샛날
날이 좋다고 내렸구나
강사재이 도드락만
병풍치고 채울 쓰고
강사쟁이 기다리니
죽었다네 죽었다네
강사쟁이 죽었다네
저 아버지 하는 말이
가가 아가 내 딸 아가
머리 풀고 발상하고
마당 안에 곡을 하라
아이고 아부지도
언 제 봤단 님이라고
머리 풀어 발상 할고
그거 아니다 흰둥안에
베기 싫은 흰둥 타고
울기 싫은 울음 울고
풀기 싫은 머리 풀고

시집 가네 시집 간다
한 모랭이 돌아 가니
까막 까치 진동하네
두 모랭이 돌아 가니
얼시구 집이 미쳤고나
대문 밖에 썩 들어 가니
늘쟁이는 늘을 짜고
꽃쟁이는 꽃 그리네
아이고 대고 들어가니
시어머니 하는 말씀
에라 이년 못 들어온다
네 팔자가 얼메나 좋으면
내 자식이 죽었느냐
그럭저럭 하는 말이
동지님이 썩 나심서
여보 어마니 그 말 마오
이것두 우리 가문인디
방문 조끔 열어 주소
송장 방문 열어 보니
원앙금 잣비게는
모를 듯이 주어 베고
마주비단 한 이불은
이리나 저리나 걸치 덮고
자는 듯이도 가고 없네
아이고 세상 내 팔자야
동지님이 한단 말이
한탄 말게 한탄 말게
우리 자식 크거들랑
자네에게 전장험세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시집살이노래 ②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봉산마을(소리 : 장을선/32세/女) - 1982. 8. 21

시집 갔네 시집 갔네
강원도 금강산 시집 갔네
시집 간 지 삼일 만에
참깨밭 매라고 등살이 댄다
한 골을 매고 두 골을 매니
점심때가 짐들어졌네
세 골을 매고 네 골을 매니
어시름 달밤이 짐들어졌네
앞천에 가서 손을 씻고
뒷천에 가서 발을 씻고
집이라고 들어오니
열 두야 대문이 다 쟁겼네
시오 시오 시어머니
내 왔응게 문 좀 따오
야요라 요수 요망한 년아
어시름 달밤에 썩 물러가라
둥실 둥실 둥실님이요
내 왔응게 문 좀 따오
이 밤중에 누가 찾어
하늘 같이 높으신 님이요
내 왔응게 문 좀 따오
덜크렁 덜크렁 문 따는 소리
열 두야 대문이 다 열렸네
방이라고 들어 가니
돼지막은 장판이요
밥이라고 주는 밥은

삼년 묵은 공보리밥이요
장이라고 주는 장은
오년 묵은 된장국이라
수지라고 주는 수지는
담 넘어서 주은 수지
한 술을 먹고 두 술을 먹으니
밥그릇이 텅텅 볐네
안방 문을 열고 보니
장닭 같은 시아버지
나는 가요 나는 가요
이 집을 두고서 나는 가요
하늘 같이 높으신 님이요
도치 같이 무선 님이요
이 집을 두고서 나는 가요
내가 가면 아주 가요
아주 간들 잊을쏘요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시집살이노래 ③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두문마을(소리 : 정성녀/77세/女) - 1982. 8. 15
어와 세상 벗님네야
이 내 한 말을 들어 보소
천사 만사 지은 죄로
이 세상을 생겨나서
친부모에 유명자에
이십 년을 길러 내여
연분이라 보내시니
할 일 업다 여자 몸이

다시 갈 곳 정이 없어
생각한 님 이별할 제
눈물 흔적 옷깃 젓고
한 골 매고 두 골을 매니
부고 왔네 부고 왔네
집이라고 들어 가서
시어미니께 말씀하니
들은 척도 아니 한다
그럭저럭 삼일 간에
친정 집에 가겼더니
아홉 서지 맛오래비
썩 나심서 허는 말이
에라 이년 물러서라
너그머니 볼래치면
어제 아니 올 날이지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시집살이노래 ④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두문마을(소리 : 정성녀/77세/女, 이민손/68세/女) - 1982. 8. 15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석삼년을 살고 나니
시어마니 하시는 말씀
진주낭군을 볼랴거든
진주 남강에 빨레질 가라
진주 남강에 빨레질 가니
물도 좋고 물도 좋다
검은 빨래는 검게 빨고

흰 빨래는 희게 빨아
이리 저리 걸치 빨아
옆눈 슬쩍 바라 보니
진주 낭군이 오시는구나
벼락 같은 말을 타고
하늘 같은 갓을 씨고
진주 낭군이 오신단다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집이라고 돌아가서
정지라고 들어가니
시어마니 허시는 말씀
진주 낭군이 오셨단다
사랑방 문을 열어 봐라
사랑방 문을 열고 보니
진주 낭군 거동 보게
기생첩을 목에 안고
이리나 저리나 쓸어졌네
아이고 답답 내 신세야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진주 낭군을 바라보고
석삼년을 살었더니
이제는 살 것 내가 없네
이 내 방을 들어 가서
명지 석자 석자 수건
목을 짤라 나는 죽네
아가 아가 사랑 아가
메늘애기가 죽었단다
진주 낭군 거동을 보게
버선발로 썩 나심서
여보 부인 참 죽었소

여보 부인 영 죽었소
백년 언약 한 부인을
백년이나 믿었더니
천년이나 믿었더니
기생첩이 좋다고 한들
석달 베께 더 가것소
영보 부인 참 죽었제
장다리는 한 철이요
미나리는 사철이라
사철 맺이루 믿었더니
요렇게 갈 줄 내 몰랐네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시집살이노래 ⑤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두문마을(소리 : 정성녀/77세/女, 이민손/68세/女) - 1982. 8. 15

울도 담도 없는 집에
시집살이 삼년을 살고 나니
시아버님 하시는 말씀
아가 아가 며늘아가
진주 남강에 빨레를 가라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아가 아가 메눌아가
진주 남강 빨레를 가라
시누애기 하는 말씀
성아 성아 올게 성아
진주 남강에 빨레를 가소
진주 남강에 빨레를 가니

흰 빨래는 희게 빠니
난 데 없는 발자국 소리
얼그럭 절그럭 나는 구나
하늘 같은 갓을 쓰고
구름 같은 말을 타고
본숭만숭 지나가네
집이라고 도라오니
시아버님 썩 나심서
아가 아가 며눌아가
아랫방을 내려가게
시어머니 썩 나심서
아가아가 메눌아가
아랫방을 내려가게
시누애개 썩 나섬서
성아 성아 올케 성아
아랫방에 내려가소
아랫방을 내려가니
기생첩을 옆에 찌고
권주가를 내는 구나
하도 속디 답답하여
나의 방을 들어와서
석자 세치 명치수건
목을 매어 죽으리다
안방 선비 그말 듣고
보선발로 뛰어 와서
여보 당신 망할 사람
당신하고 나하고는
백년 기약을 맺었건만
기생첩은 석달 사랑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시집살이노래 ⑥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두문마을(소리 : 정성녀/77세/女) - 1982. 8. 15

우리집 시어머니 염치도 좋네
저 잘 난 걸 낳아 놓고 날 데러 왔네
델러나 왔으면 복지나 말지
요리 복고 조리 복고 콩 복듯 하네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시집살이노래 ⑦
무주군 (소리 : 최정자/1936/女, 우근은/1935/女)

처남 처남 내 처남아
자네는 님을 아는가
입던 적삼 등받던다
신던 버선 물받던가
동지 섣달 기인 밤에
연지분을 곱게 하고
자형 오기만 기다린다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시집살이노래 ⑧
무주군(소리 : 최정자/1936/女, 우근은/1935/女)

성아 성아 사촌 성아
시집살이 어떻드냐
애고 애고 말도 마라

시잡살이 말도 마라
고초당초 맵다지만
시집보다 더 매우랴
쓸개야 쓰다한들
시집보다 더 쓰랴
바닷물이 짜다 한들
시집보다 더 짜랴
시집살이 어떠 한지
이내 말을 들어봐라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첩노래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덕곡(소리 : 김언년) - 1990. 12. 1

남방유리 둘이라서
첩을 팔아 부채 샀네
첩을 팔아 부채 사고 보니
구시월이 닥치오니
첩의 생객이 절로 나요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독수 공방 노래
무주 읍내리(소리 : 임학순/1916/女)

독수공방 빈 방에
팔을 베고 누었으니
잠이 와요 임이 와요
인물 병풍 머리맡에 둘러 치고

원앙금침 잣베개
둘이 빌 듯 돋아 놓고
오강대는 발치 발치 밀쳐 놓고
이불자리 피여놓고
임도 안와 잠도 안와
저승길이 질 같으면
감선 옴선 만내 보지
뗏장문이 문 같으면
열고닫고 만내 보지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다리빼기노래-이걸이 저걸이 갓걸이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진평(소리 : 권문식) - 1990. 11. 15

이걸이 저걸이 갓걸이
진주 맨주 도맨도
짝발이 사양근
머우밭에 독수리
동지섣달은 대서리
두루매기 치끼 장토칼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쌍금 쌍금 쌍가락지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율오(소리 : 이순이) - 1990. 11. 29

쌍금 쌍금 쌍가락지
수시때기 밀가락지
호작질로 아내야

그 가락지 누가 주데
서울 갔던 우리 오빠
봉지 봉지 사다 주데
지부 겉은 네 오래비
풍지 떠는 소리올시다
조그만헌 제피방에
숨소리가 둘이 나네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도령부채 노래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덕곡(소리 : 제배순) - 1990. 12. 1

질 밑에라 옹당샘이
뱅두필성 봉숭아야
건져 주게 건져 주게
도령 부채를 건져 주게
시 원제나 날 봤다고
도령 부채를 건져주까
무정하네 무정하네
그 큰애기 무정하네
초승이라 반달이면
다시 한번을또 돌아볼까
아가 아가 맏딸 아가
저기 저기 웬 생이가
우려 집으로 휘어든다
풀어 줘라 풀어 줘라
석 자 머리를 풀어 줘라
걸어 줘라 걸어 줘라

물명지라
아홉 새라 물명지 적삼
생이 끝에다 걸쳐 줘라
가락같이 오던 생이
불꽃같이도 날아가네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자장가 ①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율오(소리 : 박해경) - 1990. 11. 29

자장 자장 워리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자네
우리 아가 잠들 무렵
검둥개야 짖지 말고
복동개도 짖지 말고
우리 아가 잠 잘 잔다
나라님껜 충성동이
부모님껜 효자동이
동네방네 귀염둥이
우리 아가 잘도 자네
자장자장 워리 자장
칠성님께 명을 빌고
부모님께 뻬를 빌어
우리 아가 성공하면
나라 태평하겠노라
자세 자세 잘도 자네
우리 아가 잘도 자네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자장가 ②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율오(소리 : 이순이) - 1990. 11. 29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앞집 개도 잘도 자고
뒷집 개도 잘도 잔다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높은 낭케 활가진가
낮인 낭케 옆가진가
쳉이 끝에 싸래긴가
잘도 잔다 잘도 잔다
동네 가운데 화수둥이
나라님께 충신둥이
부모 동구간한테 회수둥이
잘도 잔다 잘도 잔다
우리 애기 잘도 잔다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자장가 ③
무주군 운천 소천리(소리 : 한옥매/1916/女)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자네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자네
서울 애기도 잘도자네
시골 애기도 잘도자네
개야 개야 짖지 마라
니가 울어 날이 새면

닭이 울어 날이 새지
자장 자장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자네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자장가 ④
무주군 운천 소천리(소리 : 한옥매/1916/女)

자장 자장 자는구나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은자동아 금자동아
수명장수 부귀동아
은을 주면 너를 사랴
금을 주면 너를 살까
나라에는 충신둥이
부모에는 효자둥이
형제간에 우애둥이
일가친척 화목 둥이
동네 방네 인심동이
태산같이 굳세 거라
하해같이 깊고 깊어
유면천하 하여보자
잘도잔다 잘도잔다
두둥 두둥 두둥 두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자장 자장 워리 자장
금자동이 옥자동이

나라에는충신동이
부모에는 효자동이
은을 주면 너를 사랴
금을 주면 너를 살까
일가친척 화목 동이
동네 방네 인심동이
동방삭의 명을 받아
석숭이네 복을 받아
우리 애기 잘도 잔다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자장가 ⑤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봉산마을(소리 : 김계순/76세/女) - 1982. 4. 5

아가 아가 우지마라
젖 돌라고 우지마라
뒷집개도 잘 자더라
앞 집 개도 잘 자더라
아장 아장 우리 애기
금쪽 같은 우리 애기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자장가 - 물무야 불무야
무주군 부남 대소리(소리 : 김완금/1920/女)

불무야 불무야 불무야
불무야 딱딱 불어라

자장 자장 자장가야
우리야 아기야 잘도 잔다
허허야 불무야
불어라 딱딱 불무야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아이 어르는 소리 - 달강달강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진평(소리 : 권문식) - 1990. 11. 15

달강달강 워리 달강
서울이라 서울 가서
밤 한 되를 주워다가
독 안에다 너 놨더니
머리 까먼 새양쥐가
들랑날랑 다 까먹고
한쪼가리 남은 거는
껍띠기는 아비 주고
번디기는 네미 주고
알랑굴랑 너랑 나랑
둘이 먹자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아이 어르는 소리 - 둥 둥 둥개야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덕곡(소리 : 장기봉) - 1990. 12. 1

둥 둥 둥개야
동구마침 꽃갬인가

하고일삼 알뱀인가
청산부하는 대추씬가
날라가는 학선인가
얼음구녕에 수달핀가
네모 뻔듯 뚜부몬가
부모한테는 소자둥이
이웃간에 화목둥이
동구가네 우애둥이
나라님게는 충신둥이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아이 어르는 소리 - 불무 불무 불무야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진평(소리 : 김복순) - 1990. 11. 5

불무 불무 불무야
불무 딱딱 붙어라
전라도는 게불무
경상도는 대불무
부지런히만 불면은
삼시 먹고 돈 닷 냥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새는 남에 자고
무주군 안성 덕산리(소리 : 박종순/ 1937/女)

새는 새는 남에 자고
쥐는 쥐는 궁게 자고

어제 왔던 새 시악씨
신랑품에 잠을 자고

우리 같은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잠을 잔다
임의 정도 좋지요 만은
자식 정리를 두고 가소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기다림
무주군 여부남 대소리(소리 : 정언년/1912)

포릇 포릇 봄 배추는
밤이슬 오기만 기다린다
옥에 갇힌 춘앵이는
이도령 오기만 기다린다

포릇 포릇 봄 배추는
밤이슬 오기만 기다린다
봉지 봉지 꽃봉지는
나비 오기만 기다린다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癮兒謠 –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감나무
오자 오자 옷나무

김치 가지 꽃가지
맨드래미 봉숭화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癤兒謠 – 숨바꼭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옷자락이 보인다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癤兒謠 – 잠자리
잠자리 꽁꽁
앉은뱅이 꽁꽁
멀리 멀리 가지말고
이리 와서 앉아라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癤兒謠 – 줄넘기
① (口述調로)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 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빨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면 백두산
② (노래로)
백두산 뻗어나려
반도 삼천리
(이하생략)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癡兒謠 - 술래잡기
(문답식으로)
문: 여우야 여우야 뭘하니?
술래: 잠잔다
문: 잠꾸러기
술래: 세수한다
문: 멋쟁이
술래: 밥먹는다
문: 무슨반찬
술래: 개구리 반찬
문: 죽었니? 살았니?
술래: 살았다. (혹은 죽었다)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癤兒謠 - 달아달아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 저기 저 달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
옥토끼로 찍어 내어
금도끼로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지어
양친부모 모셔다가
천년 만년 살고 지고
천년 만년 살고 지고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癤兒謠 - 세세
세세 세세
아침 바람 찬 바람이
울고 가는 저기 기러기
엽서 한 장 써주세요
구리구리 구리구리 장갬-보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땅개비 노래
무주군 읍내리(소리 : 임학순/1916/女)
한다리가 없는 땅개비가

이팥 다팥 짊어지고
앵두고개 넘어 가다
할맘 하나 주었고나
남 주자니 아깝도다
살거나 말거나 하다가
이삼년을 살았더니
아들 남매를 낳았네
지집애 이름은 땡순이
머슴아 이름은 땅개비
두서나 손님을 시켜서
품마하고 날렸네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도래이 꽃
무주군 읍내리(소리 : 임학순/1916/女)

동동산에 도래이 꽂은
맹경새가 내우 하네
원아 원아 밀양 원아
날 작다고 타박 마라
뒷동산에 키가 크고
높은 나무 석루 유자
금실 좋아 한 봉오리 둘 열었네
춘하 추동 부는 바람
떨어 질까 염려 로다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지치캐는 처녀
무주군 읍내리(소리 : 하해춘/1911/女)

구구 구월산 밑에
지치캐는 저 처녀야
너의 집이 어디길레
해가 지도록 지치캐나

너의 집을 아시랴 거든
사신 산신 안개속을
초가 삼칸 내 집이니
맘에 있거든 찾아 오소
맘에 없거든 그만 두소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디딜 방아 노래
무주군 안성 금평리(소리 : 박길선/1923/女, 김화옥/1920/女)

새야 새야 푸른 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 지면
청포 장사 울고 간다

새야 새야 프른 새야
암놈이 물어 수놈주고
늙은 과부는 한숨쉬고
젊은 과부는 단봇짐 싸네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뱃노래
무주군 부남 대소리(소리 : 구옥순/1928/女)

아리 리리 리리동동
스리 리리 리리배앵
수백노 요리 디리디리
송알 송알 원산 대천에
뱃 놀이를 가자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춤나온다
무주군 부남 대소리(소리 : 구옥순/1928/女)

춤 나온다 춤 나온다
굿거리 장단에 춤 나온다
이 장단에 춤 못추면
어느야 장단에 춤을 추랴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문열기 소리
무주지방, 임동권 『한국민요집』

메: 너레기 판데기 두두렁 탕탕 담을 넘세
받: 너레기 판데기 때문 조꼼 열어 주게
메: 서울이라 남대문 남대문좀 열어주게
받: 열데 없어 못 열겠네

메: 열데가 없으면 숟갈 총이래도 열어 주게
받: 숟갈총 없어 못 열겠네

메: 젓가락디래도 열어 주게
받: 젓갈총 없어 못 열겠네

메: 두루렁 탕탕 넘어 가세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탄노가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두문마을(소리 : 정성녀/77세/女) - 1982. 8. 15

분통 같은 요내 얼굴
검버섯이 끼었구나
삼단 같은 요내 머리
모시 바구리가 되었구나
초롱 가으 밝던 귀는
절벽귀가 되었구나
박속 같은 이내 이빨
간 곳 없고 아래턱이 코를 차네
아무리야 좋은 사람
늙어나 지면 뵈기도 싫여
아무리야 좋은 입성
떨어지면 걸레가 되고
아무리야 좋은 음식
쉬어지면 못 먹느니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징금마야·어르마야

무주군 임동권 『한국민요집』

징검아 징검아
네 돈 서갱 갚아 주마
머리랑은 빼 가지고
삼단으로 팔아도
네 돈 석냥 갚아 주마
징검아 징검아
해골바가지는 떼 가지고
바가지로 팔아도
네 돈 석냥 갚아 주마
징검아 징검아
눈구녕이란 빼 가지고
탈감으로 달아도
네 돈 석 냥 갚아 주마
징검아 징검아
귀때기랑 떼 가지고
쫑그락지로 팔아도
네 돈 석 냥 갚아주마
징검아 징검아
혓바닥은 빼 가지고
신짝으로 팔아도
네 돈 석 냥 갚아 주마
징검아 징검아
모가질랑 빼어서
장구 모가지로 팔아도
네 돈 석 냥 갚아 주마
징검아 징검아
손일랑은 빼 가지고
갈꾸리로 파라도

네 돈 석냥 갚아 주마
징검아 징검아
베때길랑 떼어서
구시통으로 팔아도
네 돈 석 냥 갚아 주마
징검아 징검아
창실랑은 빼어서
서답줄로 팔아도
네 돈 석 냥 갚아 주마
징검아 징검아
간일랑은 빼어서
회감으로 팔아도
네 돈 석 냥 갚아 주마
징검아 징검아
자질랑은 빼어서
저울대로 팔아도
네 돈 석 냥 갚아 주마
징검아 징검아
붕알은 띠어서
저울추로 팔아도
제 돈 석 냥 갚아 주마
징검아 징검아
발모가질랑은 빼어서
괭이로 팔아도
네 돈 석 냥 갚아 주마
징검아 징검아
다 갚았습니다.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동물노래 - 새타령
무주군 임동권 『한국민요집』

새가 새가 날아든다
새가 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남풍조차 떨쳐 나니
구만리 장천 대붕새
문황이 나셨으니
기산 조양의 봉황새
무한기우 깊은 회포
울고 나는 공작새
소상절벽 칠월야에
한령장명 백학이
글자를 뉘전하리
가인상사 기러기
생중상액 수고랑하니
어여쁠사 채란새
약수 삼천리 먼먼 기레
서왕모의 청조새
유복귀인 서기산에
소식 전튼 앵무새
성서제혈 염화지
귀촉도 불여귀
요서몽을 놀라 깨니
막교지상 꾀꼬리
양류지사 담담풍에
둥둥 떴는 징경이

낙하는 여고 목제비하고
추수공장 따오기
팔월 벽공 높이 떠
백리추호 보라매
금자하민 수감소
연비여천 소리개
쌍비 총구간에
쌍거쌍래 비둘기
촌산무반 독상구
벌목정정 딱저구리
어사 부중 잠이 들어
울고 가는 까무기
정유 문전에 깃들었다
작시강강 까치
만천소의 몽강남은
한가하다 해오리
우후청강 맑은 홍
묻노라 갈매기
추래견월 다귀사하야
열고 노으니 두루미
산림 비조 뭇새들은
노춘화답 짝을 지어서
쌍거쌍래 날아든다
공기접동 공기접동
공기 뚜루룩 수꽁소텡
가가 삽수리 날아드나
공산야월 깊은 밤에
두견새는 슬피운다
오색채의를 덜쳐 입고

아홉 아들 열 두 딸을
좌우로 거느리고
상평전 하평전으로
아주 펄펄 날아든다
장끼 까토리가 울음 운다
꺽꺽 꾸루룩 울음 운다
저 무슨 새가 울음 우는고
저 꾀꼬리 울음 운다
황금 갑옷 떨쳐 입고
양류청정 버드나무
제 이름을 제가 불러
이리로 가며 꾀꼬리루
저리로 가며 꾀꼬리루
머리 고이 빗고
시집가고 지고
게알 가가감실 날아 든다
저 할미새 울음 운다
저 방정 맞은 할미새
경술 대풍 시절에
쌀을 양에 열두 말씩 해도
굶어 죽게 생긴 저 할미새
이리 가며 팽당그르르
저리 가며 팽당그르르
아주 펄펄 날아 든다
저 머슴새 날아 든다
저 뻐꾹새가 울음 우나
꽃 피어서 만발하고
잎 피어서 우거진데
이리고 가며 붓붓

저리로 가며 붓붓
초경 이경 삼사 오경
사람의 간장 녹이려고
이리 한참 날아 든다
저 비들기 울음 운다
나의 춘흥 못 이기어
숫비들기 나무에 앉고
암비들기 땅에 앉어
콩 한줌 주루루 흩어 주니
수놈은 물어 암놈 주고
암놈은 물어 수놈을 주며
주홍 같은 입을 대고
궁글궁글 울음 운다
저 무슨새 울음 우내
저 종달새 울음 운다
춘삼월 호시절에
한 길을 오르며 종지리
두 길을 오르며 종지리
아주 펄펄 노니는 구나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식물노래 - 도라지
무주군 임동권 『한국민요집』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심심산천에 백도라지
한 두 뿌리만 캐어도

정든 님 반찬이 되었네
도라지 캐려면 캐던지
산삼을 캐려면 캐던지
이웃집 귀동자 데리고
요 덤풀 저 덤풀 웬일인가
이어라 난다 지화자 좋다
니가 내 간장 스리슬슬 다 녹인다.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식물노래 - 미나리
무주군 안성면 금펴리 두문마을(소리 : 정성녀/77세/女) - 1982. 8. 15

저 건네라 강강논에
미나리를 심어 놓고
삼일 만에 가 보닝게
소복소복 커 났고나
은장도라 드는 칼로
담곰당곰 비벼다가
씻고 씻고 열두 번 씻고
싻고 싻고 열두 번 싻어
채별같은 발돋체에다
아리살짝 데쳐 내어
열두 가지 양념 너서
오물 조물 무치어서
우리 아버지 밥상에도
오복소복 놓아 주소
우리 어머니 밥상에도

오복소복 놓아 주소
우리 오빠 밥상에도
오복소복 놓아주소
우리 올케 밥사에도
오복 소복 놓아주소
우리 형제 밥상에도
옹복소복 놓아주소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댕기노래
무주군 안성면 금펴리 두문마을(소리 : 정성녀/77세/女) - 1982. 8. 15

우리 오빠 호령 댕기
오리 올케 눈치 댕기
삼단 같은 요내 머리
요낭 길러 드렸더니
성 안에서 널을 뛰다
성 밖에다 버렸구나
분하구나 분하구나
요내 댕기 주섰거든
요내 나를 던져 주오
주섯기는 주섰네만
언약없이 너를 주랴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노리개
무주군 안성면 금펴리 두문마을(소리 : 정성녀/77세/女) - 1982. 8. 29

우리 아버지 노리개는
담뱃대가 노리개요
우리 어머니 노리개는
막내딸이 놀개요
우리 오빠 노리개는
부새 설대가 노리개요
우리 올케 노리개는
비내솥깽이가 노리개요
우리 형제 노리개는
바늘 골미가 노리개라
우리 아버지 죽거들랑
달 가운데 별나주오
우리 어머니 죽거들랑
별 가운데 달나주오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애정·유락요 ①
무주군 안성면 금펴리 두문마을(소리 : 정성녀/77세/女) - 1982. 8. 15
만고풍상 우리 어머니
조선일색 날 낳아 놓고
피는 꽃을 어따 두고
지는 꽃에 날 예웠오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애정·유락요 ②
무주군 안성면 금펴리 두문마을(소리 : 정성녀/77세/女) - 1982. 8. 15

종달새가 울거든 부몬 줄 알고요
하모니카 불거던 남인 줄 알어요
삼나무 솔깃은 실가락을 풀건만
대장부 남자로서 여자 심중 모를까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애정·유락요 ③
무주군 안성면 금펴리 두문마을(소리 : 정성녀/77세/女) - 1982. 8. 15

저녁 마실 가라면
엉덩이 춤만 추고요
새벽 마실 가라면
바가지 둥당 구른다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동요 - 불무야
무주군 임동권 『한국민요집』
불무야 불무야
경상도는 대불무
전라도는 쇠불무
불어라 불어라
불무 딱딱 불어라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내방가사

무주군 안성면 긍정리 봉산마을(소리 : 이민순/60세/女) - 1982. 8. 21

어련구고 삼일만에
구고살광을 둘러보니
무어스로 살아나며
구곳의 봉양을 어이 할꼬
한 술 밥을 못모르고
한 정 잠으 못 이루고
여공 지삼에 것이
침선 방적 뿐일런데
삼가래로 벗을 삼고
밤낮 주야를 몰랐드니
유명하신 구고앞에
정성으로 봉양하고
지엄할사 군자앞에
지성으로 봉양하고
강보에 사인 자식
자정으로 길러 내여
성취 출가 시긴 후에
봉황에 상일런가
상에 상에 이기하니
광대한 천지간에
초로인생 가소롭다
유수 같이 늙었으니
오십이 되니 몸만 늙고
육십이 되니 아조 늙어
일할 심사 전혀 없고
놀기를 생각한들

늙어져두 여자몸이
한 두 곳을 몰랐드니
해 마참 모춘이라
고운 날을 당했구나
우리 벗님 친구들이
골목 골목 정거하여
쌍쌍히 작판하여
사락정 숲속 안에
어리 그뜩 모였구나
저 벗님네야 하는 말이
오만 화초루 빛난 중에
배꽃도 빛날시구
그 열매 자라나면
선영 황황 봉제사에
삼실과 중에 으뜸이요
자애롭다 목화꽃은
세상 부인 제일화라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3. 의식요

상여소리 ①
무주군 안성 공정리(소리 : 김남수/1913/男)

메: 어하흥 어하흥 / 문턱밑이 황천이로고나 / 신사당에 허배하고 / 구사당에 하직하고 / 대문밖에 썩 나서니 / 없던 곳식 낭나하네 / 연화대로 가십시오 / 신선대로 가십시오 / 가시기는 가시지만 / 오실날을 일러주오 / 천석 만석 높이 쌓고 / 내몸 하나 병이들면 / 백사 만사 허사로다 / 북망산이 멀다더니 / 저 앞산이 북망일세 /

명사십리 해당화야 / 네 꽃진다 설워마라 / 명년 봄이 다시오면 너는 다시 피련만은 / 우리인생 한번 가면 / 다시오지 못하느니 / 어는 누가 부여잡고 / 답답한 말 호소할꼬
받: 어하흥 어하흥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상여소리 ②
무주군 무풍 지성리(소리 : 서병석/1929/男)
메: 어허흥 어하흥
받: 어하흥 어하흥
메: 명사십리 해당화야
받: 어하흥 어하흥
메: 꽃 진다고 서러말고
받: 어하흥 어하흥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상여소리 ③
무주 운천 소천리(소리 : 이태하/1929/男)
메: 어허이 어하흥 / 간다 간다 나는 간다 / 북망산천 나는 가요 / 이제가면 언제와요 / 다시 오기 어렵구나 / 무정세월 여류하니 / 이삼수를 강도하여 / 부모얼굴 강메더니 / 헌핏다절 성큼노니 / 저녁날로 병이 들어 / 실낫같은 약한 몸에 / 부르느니 어머니요 / 찾는 것이 병수● / 인삼 녹용 약을 주니 / 약 덕이 있을 손가 / 무녀 불러 굿을 하니 / 굿 덕이 있을 손가 / 비나이다 비나이다 / 하느님전 비나이다 / 칠성님전에 비나이다 / 무슨소용 있을 손가 / 억숙 창생 시주님네 / 이내 한말 들어보소 / 빈손으로 나왔건만 / 무력 탐심 내지말고 / 세밀 수심 천가지라

받: 어허이 어하흥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상여소리 ④
무주군 부남 가당리(소리 : 최치운/1912/男, 박창선/1920/男)

메: 어 허 어 하
받: 어 허 어 하
메: 어머님전 살을 빌어
받: 어 허 어 하
메: 아버님전 뼈를 빌고
받: 어 허 어 하
메: 이내 일신 탄생했네
받: 어 허 어 하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희다지 소리 ①
무주군 안성 공정리(소리 : 김남수/1913/男)
메: 에헤루 다지호 / 산지 조종은 곤륜산이오 / 수지 조종은 황하수라 / 백두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 삼각산이 생겼구나 / 그 산 낙맥이 뚝 떨어져서 / 덕유산 산봉이 생겼구나
받: 에헤루 다지호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희다지 소리 ②
무주군 안성 공정리(소리 : 이귀종/1929/男)

메: 에헤루 다지허
받: 에헤루 다지허

메: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오
받: 에헤루 다지허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희다지 소리 ③
무주군 부남 가당리(소리 : 최치운/1912/男)

메: 어여루 다지호
받: 에헤루 다지호

메: 덕유산 영기가 주춤주춤 이 자리와서 뚝 떨어졌네
받: 에헤루 다지호
메: 이 마을은 가정마을인데 황원 봉줄기가 명기가 이 자리와서 뚝 떨어졌네
받: 에헤루 다지호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희다지 소리 ④
무주군 무풍 지성리(소리 : 서병석/1929/男)

메: 달 - 구여
받: 달 - 구여
메: 대덕산 날줄기가 뚝 떨어져 삼도봉이 솟아 있고 자손줄이 솟았으니 삼억발복 자리가 분명하고나
받: 달 - 구여
메: 평안도 모란봉운 해주강이 둘렀는데 그 산 명기가 여기와 좌정해
받: 달 - 구여

메: 전라도와 지리산은 두루치기가 둘렀는데 그 산 명기가 여기와 좌정해
받: 달 - 구여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성주굿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삼공(소리 : 김귀선) - 1990. 11. 30

상쇠: 벅구야
치배: 어이
상쇠: 다름이 아니고
치배: 어이
상쇠: 지신은 밟았고
치배: 어이
상쇠: 성주굿을 헌단 말이지
치배: 어이
상쇠: 성주본이 어데 메냐 / 경상도 안동땅 / 제비원이 본일레라 / 제비원에다 솔씨를 받어 / 소평대평에 던졌더니 / 그 솔이 점점 자라나 / 소부됨이 되었구나 / 대부됨이 되었구나 / 황장목이 되었네 / 청장 목이 되었네 / 도리 지둥이 되었네 / 그 재목을 날라고 / 앞집에라 김대목 / 뒷집에라 박대목 / 은도치 금도치 갈아 쪄고 / 영평 장평을 들어가서 / 소산에 올라 소목 내고 / 대산에 올라 대목 내고 / 원금산에 칡을 끊어 / 서룬 세 명을 역꾼을 세와 / 양구 양천 흐르는 물에 / 어리화 둥실 띄웠네 / 요 물 요 사공들 / 저 물에 저 사공들 / 물때가 점점 늦어 간다 / 굽은 나무는 등을 쳐고 / 곧은 나무는 배를 쳐고 / 호박 지추 도리 지둥 / 상량에 쇠를 걸어 / 네 귀에 핑경 달고 / 동남풍이 내리 불면 / 핑경소리는 요란하고
(풍물)
어라 만수 저라 대신이야

상쇠: 우리가 이적때이 진 집은 말이지
치배: 어이
상쇠: 이 박생원들에 이 집이란 말이지
치배: 어이 그렇지!
상쇠: 이 집 짓고 아들애기를 놓거들랑은 효자를 놓고
치배: 어이 그렇지
상쇠: 딸애기를 놓거들랑은 열녀를 납소서
치배: 어이
상쇠: 잡구잡신을랑
치배: 어이
상쇠: 물로 깨끗하니 씻었으니 물알로 훨훨 도망가고
치배: 어이 그렇지
쇠: 금지고 은지고 하는 양반은 내알부터 삽작이 빗장으로 꺼역꺼역 들어오기를 점지합니다.
(풍물)

상쇠: 이 집에 박생원댁에서 원래 복은 말이지
치배: 어이
상쇠: 석숭이의 복을 탔고
치배: 어이 그렇지
상쇠: 명은 삼천갑자 동방삭이의 명을 탔습니다.
치배: 어이 그렇지
(풍물)
상쇠: 일 년 삼백육십오 일 가드락 고뿔 한 점 없이 말이지
치배: 어이 그렇지
상쇠: 만수무강하기를 바랍니다.
(풍물)

상쇠: 한 잔 먹자
치배: 어이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지신밟기 소리 - 성주굿
무주군 읍내리(제보 : 이화영/1928/男)

어허라 지신아
이 집 성주 누르세
성주 본이 어디냐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이로세

제비원에서 씨받아
서평 대평 던져서
그 소리 점점 막아라
소부더기 되었네
대부더기 되었네
요지부동 되었구나

앞집에 김대목
뒷집에라 박대목
김대목 박대목 어우러서
그 중에 소나무
주렁주렁 가리비야

자진나무 배치고
곧은 나무 덩쳐서

사기어사 다듬어서
작은 대패 큰 대패
대톱을 걸어라
스르렁 스르런 톱질이야

제주 곱돌 버리고
정주 옥돌 실어다가
열 두칸 두줄배기
버젓하게 실어놓고
세발지기 얽어라
어기어차 땡겨라
어기어차 올라가리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지신밟기 소리 - 조王굿
무주군 읍내리(제보 : 김화영/1928/남)

이 집 조왕 들러 보세
오천년 누르세
누구만년 누르세
서말지기 밥솥에다
물 붓네 복 붓네
이 솥에다 밥지어
대주양반 자시거든
동서남북 가더래도
발자국 마다향기로
남의 눈에 꽃으로
확실히 전해 주소

석쑥에 복 빌어
강태공의 공으로
수십만년 가드래도
재수삼왕을 빌어 주오
숟가락 열단을 전해주오
누구 만년 누르세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지신밟기 소리 - 조왕굿(정지굿)
무풍 지성리(소리 : 서병석/1929/男)

(口述 조로)
메구야
오늘날 이집에
지신을 밟는구나 그려

이 명당 이 터전
저 명당 저 터전
떳다 보아라
수명당이구나 그려

일년 열 두달 과명 열석달 360일에
잡귀 잡신일랑 물 알로 물리치고
한 달에 스믈 아홉 번씩
산 더미 같은 배암 뭉텅이가
두굴 두굴 두굴 구불러
농안에 척척 대이는구나 그려
(노래조로)

어허루 지신아
조왕신을 누르세
천년을 누르세
반년을 누르세
큰 솥이 걸렸네
작을 솥도 걸렸네
서말지기가 걸렸네
너말지기가 걸렸네
(이하 생략)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회갑노래
무주군 안성 금평리(제보 : 이동규)
천하 보배는 내 아들이오
백년 효부는 내 며느리요
천지 일월은 내 손자요
금어 화초는 내 딸이요

서해 서창 지는 해는
양모산에 잡아 매고
동해 동창 돋는 해는
계수에다 잡아 매세
육십일년 돌아왔네
우리 집에 오신 손님
많이 많이 잡수시고
만수무강 하옵시오

* 자료출처 : 『무주군지』(무주군지편찬위원회, 1990)

달구소리 - 다지호 소리
무주군 부남면 대소리 유평(소리 : 홍제균) - 1990. 12. 15

메: 에헤루 다 지호 / 산지조중은곤륭산이요 / 수주조중은 황해수라 / 백두산 명기가 떨어져서 / 지리산이 생겨났네 / 지리산 명기가 떨어져서 / 진안 속곰산 생겨났네 / 진안 속곰산 생겨나서 / 덕유산이 생겨났네 / 덕유산 명기가 떨어져서 / 지장산이 생겨났네 / 지장산 명기가 떨어져서 / 갈미봉이 생겨났네 / 갈미봉 명기가 떨어져서 / 유평이 자리 떨어졌네 / 에 헤루 다 지호
받: 에 헤라 다 지호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4. 기타

새야 새야 포랑새야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율오(소리 : 이순자) - 1990. 11. 29

새야 새야 포랑새야
녹뒤 낭케 앉지 마라
녹뒤꽃 이 떨어저마
청포 장사 울고 간다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장사 장사 황애장사
무주군 무풍면 지성리 율오(소리 : 이순자) - 1990. 11. 29

장사 장사 황애 장사
걸머진 게 그 뭣인고

앵두 창칼 유동 피리
바리 기상 머리 댕기

* 자료출처 : MBC 한국민요대전

품마야 경계야
우리 살림이 조선나
훗떡이 장사 돈 나와
곤 옷이나 주고
홑주머니만 남았구나
품마야 경계야
품마야 경계야

* 자료출처 : 『전북의 민요』(전북애향운동본부, 1989)

〔집필 : 유장영〕

제8절 무주군 마을신앙

1. 무주읍

1) 오산리(吾山里) 왕정(旺亭)마을

◇ 마을 개관

왕정 마을은 무주읍 오산리(吾山里)에 속한다. 오산리는 본래 무주군 신풍면의 지역으로써 외딴 산이 있으므로 오무, 오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왕정리 일부와 북면의 율속동(栗屬洞)을 병합하여 오산리라 해서 무주읍에 편입하였다. 오산리는 자연마을로 오무(鰲茂), 오산(吾山), 왕정리(旺亭里), 밤수골[栗屬洞] 등이 있다.


왕정마을 산제당

왕정 마을은 정확히 언제 형성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왕정 마을에는 제갈씨, 대구 갈씨, 순용 안씨, 금녕 김씨 등이 살고 있다. 현재 왕정 마을은 30호 정도 살고 있다.

왕정 마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어떤 스님이 지나다가 마을지세를 보고 부촌(富村)이 될 좋은 마을"이라며 이곳에 나무를 심어 가꾸게 하고 이름을 왕정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마을입구에 느티나무와 소나무로 형성된 마을 숲이 조성되어 있다.

◇ 마을신앙

(1) 산신제

왕정 마을 산제당은 마을 뒷동산 중턱에 커다란 참나무, 소나무와 바위가 있는 곳

에 위치한다. 현재 산제당은 축대를 쌓은 위에 150cm 남짓 높이로 정면과 측면이 한 칸 규모이며 지붕은 함석으로 되어 있다. 산제당 정면에 따로 문이 없다. 산제당 안에는 그릇과 촛대가 있으며, 금줄로 사용한 새끼줄이 있다. 이와 함께 명태를 묶은 실타래가 산제당 앞에 있다.

산신제는 음력 정월 초이튿날 밤 11-12시경에 시작되어 새벽닭이 울 무렵까지 지냈다고 한다. 금줄은 그믐날에 친다. 제주는 돌아가면서 지내는데, 상주나 궂은 곳에 간 사람은 제주를 피한다. 보통 산신제에는 제주와 제물을 운반하는 사람 두 분만이 참석한다. 비용은 동답 한 마지기(300평)에서 나온 비용으로 충당한다. 제물은 시루 떡, 삼색실과, 찬, 돼지머리 등을 준비한다. 예전에 산신제 지낼 때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현재는 돼지머리로 대체한다고 한다. 축문은 따로 없고 마을 가구마다 그 해 소원 성취를 비는 소지를 올린다. 제가 끝난 후 이튿날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음복하고 즐겁게 놀며 대동회를 갖는다.

산신제를 올린 후 마을 숲에 위치한 2기의 장승에 제를 모신다.

(2) 장승

① 위치 : 마을 숲 양쪽에 마주보며 세워져 있다.
② 명칭 : 장승
③ 기수와 재질 : 2기, 암석
④ 크기 : 마을 오른쪽 높이 - 135cm 너비 - 35cm
마을 왼쪽 높이 - 85cm 너비 - 36cm
⑤ 명문 : 없음.
⑥ 형태 : 오른쪽 장승은 자연석으로 직방 형태이며 어떠한 조각도 되어 있지 않다. 끝 부분이 뾰쪽한 형태이다. 왼쪽 장승은 자연석으로 중간이 파손되어 다시 조그만 동을 올려 놓았다. 역시 어떠한 형태의 조각도 없다. 끝 부분이 뾰족하다.
⑦ 기능 : 마을 수호신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을로 들어오는 잡귀를 막는 역할을 한다. 오래 전에는 이곳에서 디딜방아 세우기를 하였다고 한다. 산신제가 끝난 후 간단히 밥을 준비하여 제를 지내는데, 제를 지낼 때 명태와 실 타래를 묶어 놓는다.

⑧ 조각 : 없음.
마을 뒤에는 개인이 세운 나무로 만든 지하여장군이 세워져 있다.

◇ 마을 숲

마을 숲은 마을입구에 위치하며 느티나무와 소나무로 구성되어 있다. 동네 숲으로 면적은 2,000평 정도 된다. 마을의 수구막이 역할을 한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숲이 바람막이를 하고 울타리 하듯 마을 숲이 있어야 마을이 유지된다고 믿고 있다.

조사일시 : 2003년 9월 28일
제 보 자 : 안충성(남·56세 2003년 제주) 김석기(남·75세)

2) 오산리(吾山里) 오산(吾山)마을

◇ 마을개관


오산마을 산제당

오산 마을은 무주읍 오산리(吾山里)에 속한다. 오산리는 본래 무주군 신풍면의 지역으로써 외딴 산이 있으므로 오무, 오산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왕정리 일부와 북면의 율속동을 병합하여 오산리라 해서 무주읍에 편입하였다. 오산리는 자연마을로 오무(鰲茂), 오산(吾山), 왕정리(旺亭里), 밤수골[栗屬洞] 등이 있다.

오산리는 무주읍에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붙여졌다고 하며 산의 모양이 자라와 같다고 하여 오산(鰲山)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는 마을 주위 산 즉 생주골, 뒷것에(뒷산), 수대작골, 용두산, 아랫 동산 등
5개가 있어 오산(五山)이라 붙여졌다고 한다. 일제시대에 오산(吾山)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옛 부터 마을에 학문을 좋아

하는 선비들이 많아 항상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오무(吾茂)라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도 '오무들'이란 지명이 남아 있다. 오산마을은 객지에서 온 사람이 부자가 되어 나간다는 속설이 있다.

오산 마을 역시 정확하게 언제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대구 갈씨, 김해 김씨 등이 살고 있다. 예전에는 150호 정도 살았으나 지금은 100호가 살고 있다.

◇ 마을신앙

(1) 산신제

오산 마을 산신제당은 마을 앞 용두산(龍頭山) 정상에 위치한다. 이 용두산은 일제시대에 큰 인물이 날 것이라 하여 용두산 준령의 맥을 끊었다고 한다. 이곳을 '용고개'라 부른다. 산제당은 콘크리트 기둥으로 세워졌으며, 높이는 2m 남짓 되며 정면 측면 한 칸 정도의 규모이다. 문은 창살로 여닫이문으로 되어있다. 본래는 기와지붕 이었으나 현재는 슬레이트로 다시 건축되었다. 내부에는 "오산(吾山) 용두산(龍頭山) 산신령지위(山神靈之位)"란 신위가 화선지에 새겨져 붙여졌다.

산신제는 음력 정월 초이튿날 밤 12시경에 지낸다. 이때 이장, 개발위원장, 제물을 가지고 가는 사람 모두 3명이 참여한다. 예전에 제주는 삼일 전부터 부정을 금하고 아무리 추운 날이라도 냇가에 나아가 목욕을 했다고 한다. 만일 제주 및 마을 사람들이 성의가 부족하면 마을에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에서 정성껏 모셨다고 한다. 비용은 동네 기금으로 준비하며 전에는 동답, 산 등 마을재산이 많았으나 모두 없어졌다고 한다. 제물은 돼지머리, 삼색실과, 명태, 떡, 밥, 술 등을 준비한다. 예전에 김진상(남·75세)에 의하여 마을 주민들이 병 없고, 풍년 들고, 마을 편안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축문에 준비되었으나 지금은 축문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오산 마을 1반에서 9반까지 가구마다 한해 소원을 비는 소지를 올린다. 요즘에는 반장 중심으로 소지를 올린다고 한다. 산신제를 마친 후 마을회관 앞 둥구나무에 백지를 접고 명태를 실로 달아맨 후 간단히 제를 올린다. 예전에는 거리제도 모셨다.

오산 슈퍼마켓 앞에 보호수가 있는데 이는 팽나무로 마을나무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곳에서 단오날 그네를 뛰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장승 2기가 있었

다고 한다.

제를 마친 다음날 마을 사람들은 제주 집에서 음복하고 하루를 즐겁게 놀면서 이날 대동회를 하면서 한해 결산과 계획을 한다고 한다.

조사일시: 2003년 9월 28일

제 보 자: 김진숙(남·55세) 김진상(남·75세)

3) 내도리(內島里) 굴천(屈川)마을

◇ 마을개관

굴천 마을은 내도리에 속한다. 내도리는 본래 북면 지역인데 1914년 내동(內洞), 산의곡(山義谷), 굴천(屈川), 후도 일부 및 금산군 부동면 굴천, 금동 일부를 병합하여 내동, 후도에서 따 내도리라 하고 무주읍에 편입되었다. 내도리는 자연마을이 안골[內洞], 거리대(巨里垈), 굴천리(屈川里), 산의곡(山義谷), 방죽안[池內里], 뒷섬[後島], 앞섬[前島], 새터[新基] 등이 있다. 굴천은 마을 산 계곡에 암굴(岩窟)이 있는데 이곳에서 물이 흘러 내려와 개울을 이룬다고 붙여졌다고 한다. 굴천 마을은 정확히 언제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다. 경주 김씨, 밀양 이씨, 전주 이씨 등이 살고 있으며 현재 40호가 살고 있다.

◇ 마을신앙

굴천 마을은 안담, 바깥 담으로 구분된다. 본래는 각각 제를 모셨다고 한다. 안담 산제당은 바위와 소나무가 있는 곳에 조성되었고, 바깥담 산제당은 마을 건너편 중턱 바위에 모셔지고 있다. 현재는 바깥담 산제당 에서 만 제를 모신다.

제일은 본래 음력 정월 초사흗날 밤에 모셨으나 지금은 음력 정월 보름날 저녁 식사 후에 모신다. 제주는 본래 깨끗한 사람으로 뽑아 제를 모셨다. 그러나 2년 전부터는 마을 뒤에 있는 산신당의 보살이 맡아 모셔오고 있다. 이는 마을에서 지낼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용은 동답 400평에서 나온 기금으로 준비하는데 산신당 보살에게 쌀 한 가마를 준다고 한다. 예전에는 돼지머리를 준비하였으나 지금은 명태, 포, 김, 백설기 등을 준비하여 모신다. 제는 유교식으로 모셨고 축문을 하고 가구마다

소원성취를 비는 소지를 했다. 산제를 모신 다음 마을 앞에 사과 과수원 밭 가운데 있는 돌탑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를 지냈으나 현재는 방치해 둔 상태이다.

조사일시: 2003년 9월 28일
제 보 자: 김광옥(남·67세)

4) 내도리(內島里) 산의(山義)마을

◇ 마을개관

산의 마을은 내도리에 속한다. 내도리는 본래 북변 지역인데 1914년 내동(內洞), 산의곡(山義谷), 굴천(屈川), 후도 일부 및 금산군 부동면 굴천, 금동 일부를 병합하여 내동 후도에서 따 내도리라 하고 무주읍에 편입되었다. 내도리는 자연마을이 안골[內洞], 거리대(巨里垈), 굴천리(屈川里), 산의곡(山義谷), 방죽안[池內里], 뒷섬[後島], 앞섬[前島], 새터[新基] 등이 있다. 산의 마을은 정확히 언제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본래 청주 한씨, 굴천 조씨가 살았으며 현재는 40호 정도 살고 있다.


산의 마을 짐대(1991년)

◇ 마을신앙

산의 마을은 뒷산에서 모시는 산신제와 마을 앞에서 모시는 짐대제가 있다. 산신제는 마을뒷산 산제당에서 모신다. 본래 신신목으로 소나무가 있었으나 고사하고 현재는 바위 밑에서 지낸다. 그곳에는 제물을 직접 장만할 옹기, 솥 단지 등이 있다. 마을 앞의 짐대는 본래 마을 양쪽에 2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마을 입구에 1기만 남아 있다. 마을에 짐대를 처음부터 2기를 세운 것은 아니고 새로 길이 나면서 다시 세우게 되어 2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남아 짐대 옆에는 예전에 세운 1기의 짐대가 있다. 짐대는 낙엽송으로 만드는데 마을 청년들이 준비하여 세운다고 한다. 기둥 위에는 Y로

되어있는데 끝 부분에 3마리의 황새가 올려져 있다. 마을사람에 따라서는 까마귀라고 하기도 한다. 까마귀가 마을의 나쁜 일을 미리 알고 액을 막아주는 것으로 믿어 수호신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제를 모실 때 짐대 기둥에는 화선지로 감싼 북어를 실타래로 매어둔다. 이를 '댕이맨다'고 한다. 그리고 짐대를 세울 때 구덩이에 숯과 소금을 넣는다고 한다. 이러한 짐대를 세우고 제를 올리는 것은 마을에 들어오는 재앙을 물리친다는 믿음에서이다. 산신제는 새마을운동 무렵에 잠시 중단되었다가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죽는 등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게 되자 80년대부터 다시 모시기 시작했다.

제일은 정월 초사흗날 밤에 모신다. 제주는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그런데 요사이는 돌아가면서 지낸다. 보통 제는 제주 부부가 간다. 비용은 동답(洞畓)이 있어 여기에서 나온 비용으로 충당한다. 제물은 돼지머리를 비롯하여 삼색실과, 밥, 떡 등을 준비한다. 그런데 밥은 산제당 샘물을 이용하여 직접 짓는다. 축문은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동네 성바지대로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소지를 올린다. 산제를 마친 뒤 마을 앞에 있는 짐대에서 간단한 제물을 준비하여 거리제를 지낸다. 다음날 음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조사일시: 2003년 9월 5일
제 보 자: 김석주(남·65세)

5) 대차리(大車里) 서면(西面)마을

◇ 마을개관

서면 마을은 대차리에 속한다. 대차리는 본래 부내면 지역인데 1914년 차산 일부 및 서면 대촌을 합병하여 대차리라 하고 무주읍에 편입되었다. 대차리 자연마을은 차산(車山)[茶山], 서면(西面-대촌) 등이 있다.

서면 마을은 약 450여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하며 평산 신씨, 조씨, 황씨, 김씨 등이 살고 있으며 단일마을로 규모가 큰 마을인데, 많을 때 230호까지 살았으며 지금은 170호 정도가 살고 있다.

◇ 마을신앙

서면 마을 당산은 5군데에 이른다. 지금은 마을 앞 주차장 느티나무에서 몇 년간 중단되었다가 3년 전부터 다시 모시고 있다. 본래 있었던 당산을 제 지낸 순서대로 정리하면 제일 먼저 당산은 어른인 ① 자밭골에 있는 참나무 ② 서당골 소나무 ③ 마을중심에 있는 느티나무 ④ 폐교된 학교의 느티나무(일명 돈세정) ⑤ 도깨비 집 등 5군데이다. 도깨비 집은 현재 마을 내 고사목 있는 곳에 위치했는데 일명 '김생원집'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돌탑이 있었고 탑 위에는 선돌이 올려진 형태였다고 한다. 마을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여 화재를 막으려고 도깨비 집을 지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제를 2번 지냈으나 현재는 한번 지낸다. 제일은 정월 초 열 나흗날 밤 12시에 모셨다. 제관은 깨끗한 사람으로 정하는데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제관이 되어서 제를 모시면 후에 아들을 얻는다고 믿고 있다. 제에는 제관, 축관, 제물 운반자 등 3명이 참여한다. 비용은 동네 기금으로 준비되며 제물은 당산 지내는 곳마다 별도로 준비한다. 이때 읽혀진 축문은 다음과 같다.

동제축문

維
歲次 正月 朔 月 西面洞里民代表 幼學 敢昭告于
山王大祭地神
伏願 神其保佑
龍王大祭地神
家家安寧 又人健康
五穀百穀 年年登豊
所願成就 謹以 酒饌祗備于 尙
饗

里社祭 祝文

維
歲次 正月 朔 月 西面洞里民代表 幼學 敢昭告于
西面大車里之神 維此孟春 苦時昭事一里康吉
百穀豊穰糞賴神休 菲禮將誠 惟神顧歆 永尊厥居 尙
饗

산제당 축문(山王經)

大山小山山王大神 大角小角山王大神
大岳小岳山王大神 大祝小祝山王大神
微山諸處山王大神 五岳名山山王大神
二十六町山王大神 四海八方山王大神
明堂土山山王大神 靑龍白虎山王大神
金積大德山王大神 玄武朱雀山王大神
東西南北山王大神 上方下方山王大神
遠山近山山王大神 凶山吉山山王大神
定近地運 南無萬德 高山勝地 間積山主
菩薩

축을 한 다음 가구마다 번영을 기원하면서 소지를 올린다. 4~5년 정도 제를 지내지 않았을 때 마을 사람이 많은 상을 당했다고 한다. 그래서 3년 전부터 5군데의 당산을 한군데로 묶어서 지내게 되었다고 한다.

서면 마을에서는 옛날부터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는데 스님이 마을에 화산이 비치므로 불이 나기 때문에 제를 지내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서면마을에서는 '머라우산', '섬통산'이 화산(火山)이어서 마을에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를 막기 위하여 당산제를 지내는 밤에 소금을 넣은 단지를 봉우리에 묻었다고 한다.

제가 끝나면 이튿날 음복을 하고 대동회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조사일시: 2003년 9월 28일
제 보 자: 이종성(남·75세) 김동섭(남·72세) 김동관(남·74세)

6) 용포리(龍浦里) 잠두(蠶頭)마을

◇ 마을개관

잠두 마을은 용포리에 속한다. 용포리는 본래 서면 지역인데 1914년 용포(龍浦), 공정(公正), 추동(楸洞), 잠두(蠶頭)와 부남면 하굴암(下屈岩) 일부 및 금산군 부동면 요대(要垈)를 병합하여 용포리라 하고 무주읍에 편입하였다. 자연마을로는 용포(龍浦), 공정골[公正里], 가래골[楸洞], 뉘머리[蠶頭], 요대(要垈), 늘목, 옹기점터 등이 있다.

잠두 마을 뒷산인 조항산(鳥項山)에서 북쪽에서 내리 뻗은 능선이 일곱 개의 봉을 이루어 누에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누에 잠(蠶)자를 써서 잠두 마을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예전에는 머리부분에 비석을 세우면 누에가 무거워서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하여 비석을 세우지 못하게 하였다.

잠두 마을은 김해 김씨, 전주 이씨 등에 의하여 형성되었고 새마을 운동 당시에는 70호 정도가 살았으나 현재는 37호가 살고 있다.



잠두마을 산제당

◇ 마을신앙

잠두 마을 산제는 본래는 마을 뒷산 마루에 커다란 소나무였으나 6·25때 없어졌고, 그 아래 자리에 산제당을 세워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산제당은 정면 측면 한 칸의 규모이며 토담으로 쌓았다. 본래는 기와였는데 현재는 슬레이트 지붕이다. 지금도 바깥에 금줄이 쳐져 있으며 내부에는 '산왕대신지위(山王大神之位)'란 신위가 있다. 그리고 50cm정도 크기 선돌이 있는데 이것이 '신주 어른'이라고 한다. '신주어른'에는 화선지와 함께 역시 금줄이 쳐져 있다. 그리고 안에는 산제 때 사용한 시루와 솥이 있다. 산제당 상량문에 보면 '기수 단기 사천이백팔십오임진 음력 구월 이십일일건설 송(재필)영창(期壽 檀紀 四千二百八十五壬辰陰曆 九月 二十一日建設 宋(在弼)永昌)' 이라 기록되어 있어 1952년에 세워진 산제당 임을 알 수 있다.

산제는 본래 1년에 정월 열 나흗날과 시월 열 나흗날 등 2번을 모셨으나 지금은 정월에 한번만 모시고, 전에는 12시에 모셨으나 지금은 저녁 무렵인 5시경에 모신다. 또한 제주도 마을의 상노인이 선정되어 모셨으나 현재는 마을을 대표하여 이장이 모신다. 이는 마을에서 선뜻 제주를 하고자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비용에 있어서도 전에는 쌀이나 돈 등을 가구마다 걷어서 충당하였으나 현재는 마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제물은 삼색실과를 비롯하여 포, 나물, 떡, 밥 등이 준비된다. 제의는 유교식으로 초헌, 종헌, 음복 순으로 하며 축문은 빠진다. 대신 가구별로

소원성취를 빌면서 소지를 올린다. 산제가 끝나면 마을 앞 정자나무에서도 산제 제물 그대로 하여 제를 올린다. 제가 끝난 후에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조사일시: 2003년 9월 28일
제 보 자: 한상철 (남·63세)

2. 적상면

1) 사천리(斜川里) 서창(西倉)마을

◇ 마을개관

서창 마을은 사천리(斜川里)에 속한다. 사천리는 본래 유가면 지역인데 1914년 길왕(吉旺), 내사(內斜) 일부를 병합하여 새냇들의 이름을 따서 사천리라 하고 적상면에 편입하였다. 자연마을은 길왕리(吉旺里), 지소땀, 서창(西倉), 신대(新垈), 느티골〔槐木洞〕, 구석들〔九億〕, 난들번득〔樂安洞〕 등이 있다.

서창 마을은 임진왜란 때 피난 터로 형성되었다. 처음에 들어온 입향조는 김해 김씨이다. 현재는 7가구가 살고 있다. 서창이란 지명은 적상산을 둘려 싸고 서쪽에 있는 창고를 의미한다.



서창마을 고석할매

◇ 마을신앙

(1) 산신제

서창 마을 산제는 10~15년 전에 이미 없어졌다. 서창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7가구에 10명이 살고 있는 실정이다. 서창마을에서는 과거 3군데에

서 제를 모셨다.

현재도 서창 마을 산제당은 마을 뒷산 중턱 아름드리 소나무 숲에 남아 있다. 이 당산을 '할아버지'라고 칭한다. 산제당은 정면 측면 모두 한 칸의 규모이며 예전에는 기와를 올렸다고 하나 지금은 주변과 지붕 모두 함석으로 되어있다. 주변에 기와가 쌓여 있다. 문은 쌍여닫이 나무문이다. 지금도 문 앞에는 시루가 놓여 있다. 내부에는 당시에 사용했던 촛대, 술 주전자, 그릇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신위나 산신도 등은 없다. 이곳이 첫 번째 제를 모시는 곳이다. 두 번째는 마을입구 못 미쳐 오른편 언덕에는 1m정도 크기의 여근석을 모신 제당이 있다. '고석 할머니'라 칭한다. 고석 할머니는 자연석인데 마치 여성의 생식기 모습이다. 아랫부분에는 몇 개의 돌이 놓여 있고 칡 줄기로 묶어 있다. 고석 할머니는 장방형의 돌 위에 올려져 있으며 네 기둥에 함석지붕을 올려놓은 모습으로 모셔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을 숲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곳에서 모셔진다. 이곳에는 돌탑이 있었다고 하나 새마을 운동 때 없어졌다고 한다.

서창 마을 산제는 음력 정월 초이튿날 11시~12시경에 모셨다고 한다. 제주는 음식을 준비하는 집에서 맡는데, 삼 일간 목욕하고 바깥출입도 하지 않고 기우하면서 하는데 2분이 모신다고 한다. 비용은 동답(200평)에서 나온 것으로 충당하였으나 부족면하 동네 기금으로 충당하였다고 한다. 제물은 삼색실과, 마른 어물, 김, 탕, 돼지머리, 떡 등을 준비하였다. 이때 음식을 장만할 때에는 마을 뒤 바위 밑 샘에서 나오는 물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할아버지, 할머니 당산에는 똑같이 제물을 장만하지만 느티나무에서는 고시레 한다고 한다.

제의 순서는 유교식으로 초헌, 중헌, 종헌을 하는데 축은 없고 가구마다 소원성취를 기원하면서 소지를 올린다고 한다. 다음날 마을사람이 모여 신나게 놀았다고 한다.

(2) 마을 숲

서창마을 마을 숲은 느티나무로 구성되었으며 규모는1,000평 정도 된다. 마을의 수구막이 역할을 한다.

조사일시: 2003년 9월 5일
제 보 자: 김용화(남·70세)

2) 사천리(斜川里) 구억(九億)마을

◇ 마을개관

구억 마을은 사천리에 속한다. 사천리는 본래 유가면 지역인데 1914년 길왕(吉旺), 내사(內斜) 일부를 병합하여 새냇들의 이름을 따서 사천리라 하고 적상면에 편입하였다. 자연마을은 길왕리(吉旺里), 지소땀, 서창(西倉), 신대(新垈), 느티골〔槐木洞〕, 구석들〔九億〕, 난들번득〔樂安洞〕 등이 있다.

구억 마을은 김해 김씨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기러기가 날아와 앉는 형세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구억마을 산제당 내부 산신지위

◇ 마을신앙

구억 마을 산제당은 큰 고목(모래 참나무)옆에 홀로 자리 잡고 있다. 산제당은 정면, 측면 각각 1칸 규모로 쌍여닫이문으로 되어있다. 지붕은 본래 기와였으나 양철로 개량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 기와가 흩어져 있었다. 산제당 안에는 산신지위(山神之位)라 새겨진 위패가 모셔져 있다.

산신제는 음력 정월 초사흗날 12~1시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제주는 음력 섣달 보름에 산제동회(山祭洞會)를 열어 부정이 없고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으로 제주 1인과 집사 2인을 뽑는다. 제주가 결정되면 섣달 그믐날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려 다른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제주는 목욕재계를 하면서 깨끗한 마음으로 제를 지내게 된다. 비용은 산제답(山祭畓 논 1마지기, 밭 2군데)과 산재(山財)가 있어 충당하며 제물은 제주가 무주장에 가서 사온다. 이때 절대로 값을 깍지 않는다고 한다. 제물은 돼지머리, 삼색실과, 백설기, 메, 3탕, 미역 등을 준비하며 이때 모든 음식에 고추 가루를 쓰지 않는다고 한다. 제물 중 돼지머리는 정육점에서 사지 않고 마을에서 기른 돼지를 사용한다. 제는 유교식으로 올리며

축문을 읽고 소지를 집집마다 1장씩 올린다. 이때 특별히 기원할 일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쌀 1말씩 내고 독소지(왼장 소지)라 하여 큰 종이로 소지를 올리면서 기원한다.

구억 마을 산신제 축문은 다음과 같다.

유세차 간지 00년 0월 0삭 0일 간지 본리 거민 전속 유학 000 감소고우
토지지신 복유존신 대전선화지사 일방비민 유조사안락 유신지사 사포이란
유신지우 도민지덕 감인혜택 고소신미 거매신공 이리동속 사탄기궁 보사급진
유월지성 생주수박 식출미성 유신감각 서감유충 망수무구 극유시종 상향

(구억 마을에서는 축문이 본래 한자로 된 것을 한글로 사용하고 있다.)

산신제가 끝나면 마을 앞에 있는 조그마한 느티나무에 금줄을 치고 금줄에 화선지를 꽂고 간단히 밥을 약간씩 접시에 놓는다. 이것으로 제는 끝난다. 이튿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복하면서 즐겁게 논다. 마을 앞 느티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큰 본래 괴목 나무가 있었으나 고사하고 다시 현재의 나무로 심었다고 한다. 고사한 괴목나무는 농방에 팔렸고 그 돈은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산제 기금으로 편입시켰다고 한다.

산제 내용을 기록한 <동중산제기(洞中山祭記)>가 잘 보관되어 있다. 구억 마을에는 동중산제기는 정해년(丁亥年) 정월(正月) 초(初) 육일(六日)부터 기록되어 있었다. 정해년은 1947년이며 이전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해방 후인 1947년부터 현재까지 동제에 대한 기록을 남겨 놓고 있는 것이다. 동중산제기는 해당 년도를 기록하고 그 아래에 제주 성함을 기록한다. 수입과 지출내력을 기록한다. 간단한 내용들이 오랫동안 기록되어 있어 그 동안 제를 행한 제주와 제물종류, 물가 등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구억 마을 산제당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앞으로 지내지 않기로 결의했다. 서로 모실 라고 하지 않고 현재 마을에서 모시는 6~7분도 모시지 않으려 한다. 특히 구억 마을 34호 중 절반 가까이가 마을 앞 적상 교회에 다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마을 뒤로 4차선 도로가 새롭게 개설되는데 그 위치가 산제당이 있는 위치와 맞물려 있어 구억 마을 산제당이 위기에 처해 있다.

올해 2003년 산제당 동제기록

1. 서기 2003년 음 정월 4일 제주 김용근 김호근

정기예금 500,000원 이자 45,000원 보통통장 20,000원(별도) 계 545,000원 현재 이월액 450,000원(통장예치) 대출금 64,000원 이자무 김정주

합계 609,000원

지출금 만수향 1,000원 홍합 1,000원 조기 3,000원 제두(돼지머리) 5,000원 대추 1,000원 밤 3,000원 건시 2,000원 멸치 1,000원 김 2,000원 미역 1,000원 소지종이 4,000원 양초 1,000원 배 3,000원 공화금(수공비) 80,000원 소주 3,300원 쌀 10,000원 사과 10,000원 피등어 3,000원 건전지 2,500원 식대 10,000원 정종 5,000원 회의경비 85,000원

지출계 161,300원

2. 1996년 2월 22일(음 1월 4일) 제주 김승락, 최기만

여러 명의 채무자, 본금, 원금 본금 상환 350,000원 이자수입 157,000원 왼장소지(김병선, 김병만) 20,000원 수입 527,800원

(산제 기금은 때로 마을사람들에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기금을 늘리기도 하며, 왼장소지를 올리는 사람은 별도로 기금을 낸다)

지출

1. 산제당 보수 194,500원

화판 1장 44,000원 함석 8장 36,000원 못 1,500 품삯(이봉천, 김순악) 110,000원 보수새참 3,000원 (산제당이 보수를 1996년에 했음을 알 수 있다)

2. 제물 130,000원

재두 6,000원 후라시등 4,500원 대추 1,000원 밤 3,000원 건시 3,000원 미역 1,000원 포 1,000원 양초 400원 만수향 1,000원 한지 2장 600원 한지 2권 1,600원 조구 3,000원 김 2,000원 김 2,000원 배 4,000원 석유 12,000원 소주 2,100 타올 2,000원 쌀 2되 6,000원 떡방아 1,000원 음료수 1,100원 대동회경비 4,500원 공하금 80,000원

(산신제에 필요한 제물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물품이 기록된다.)

3. 결산

총 지출 324,500

잔액 361,938원 본금 대출 2명 434,000원 산제 총자산 795,938원

3. 임진년(壬辰年) 정월(正月) 초사일(初四日) 산제(山祭) 하용기(下用記)

가입금(加入金) 칠만오천원(七萬五千圓)
가입미(加入米) 사두(四斗) 사승(四升)
이자(利子) 오천백오십원(五千百五拾圓)
백미이자(白米利子) 소(小) 삼두이승오합(三斗二升五合)
어물가(魚物價) 일만칠천백원(一萬七千百圓)
백지가(白紙價) 삼천원(三千圓)
곡자가(曲子價) 일만육천원(一萬六千圓)
주미(酒米) 소삼두(小三斗)
식용(食用) 이승오합(二升五合)
공하금(公下金) 오천원(五千圓)
스리미가(價) 사만원(四萬圓)
두부가(價) 이천오백원(二千五百圓)
계(計) 팔만삼천육백원(八萬三千六百圓)
백미사두(白米四斗) 동중용(洞中用)
김인평(金仁坪) 일금(一金) 일천사백오십원(壹阡四百五拾圓)
김봉곤(金鳳坤) 일금(一金) 사천원(四阡圓)
김동성(金東成) 일금(一金) 이천오백원(貳阡五百圓)
김병윤(金炳允) 일금(一金) 이천이백오십원(貳阡貳百五拾圓) 유치(留置)
김수암(金壽岩) 이천오백원(貳阡五百圓) 김순덕(金順德) 이천오백원(貳阡五百圓)

(임진년은 1952년인데, 6·25전쟁 중에도 산신제가 모셔졌음을 알 수 있다. 전쟁 중이라 제물이 간소하게 준비 된 것으로 생각된다. 아직 화폐를 원(圓)으로 사용하고 있다.)

조사일시: 2003년 10월 11일
제 보 자: 최기영(남·53세 마을이장)

3) 사천리(斜川里) 길왕(吉旺)마을

◇ 마을개관

길왕 마을은 사천리에 속한다. 사천리는 본래 유가면 지역인데 1914년 길왕(吉旺), 내사(內斜) 일부를 병합하여 새냇들의 이름을 따서 사천리라 하고 적상면에 편입하였다. 자연마을은 길왕리(吉旺里), 지소땀, 서창(西倉), 신대(新垈), 느티골



길왕마을 산제당

槐木洞〕, 구석들〔九億〕, 난들번득〔樂安洞〕 등이 있다.

길왕 마을은 350여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옥천 전씨(35호), 문화 유씨(7호)가 주로 살고 있다.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본래는 '지랭이'라 불렸다고 한다. 마을은 풍수상 '배터'라고 한다.

◇ 마을신앙

(1) 산신제

길왕 마을 산제는 마을 뒤편 산제당에서 모신다. 산제당은 마을 주산(主山)인 '솔다배기산' 아래 있다. 기와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마치 벽장같이 만들었다. 주변은 돌담으로 쌓았다. 정면은 쌍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으며 화선지를 꽂은 금줄이 둘러쳐져 있다. 내부에는 나무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신왕지위(山王之位)라 새겨져 있다. 산제당 주변에 촛대, 그릇, 소지종이, 향 등이 있고 아래에는 시루와 비가 놓여 있다.

제일은 음력 정월 초사흗날 밤 9시-12시 사이에 지낸다. 제주는 동네에서 운수를 보아서 운이 제일 좋은 사람으로 뽑는다. 3일 정도 근신해야 했으며 그래서 바깥출입도 못했다. 제주는 산제 후 세배를 다녔다. 올해는 정진철씨(64세) 내외가 맡았다. 비용은 마을기금으로 충당하며 20만원 정도 든다. 제물은 돼지머리를 비롯하여 과일, 과자류, 술 등을 준비하며 제물을 준비할 때 소지종이, 초 등도 준비한다. 제물은 제주 집에서 장만한다. 축문을 읽고 가가호호마다 소지를 올린다. 다음날인 초나흗날에 동회를 한다.

초하룻날에 마을입구 양쪽 당산나무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 뿌렸다. 특히 금줄에는 한지와 명태를 달아매었다. 이는 마을에 부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요사이 당산나무는 죽어 다시 소나무로 정했다.

(2) 마을 숲

마을 입구에는 팽나무 숲이 있었다. 100평정도의 규모였으며 4차선이 나면서 많이 베어졌으나 지금도 이곳을 '팽나무거리' '숲거리'라 부른다. 숲이 울창하여 마을이 없는 줄 알 정도였다고 한다. 이 숲은 마을의 수구막이 역할을 한다.

조사일시 : 2003년 10월 7일
제 보 자 : 전우식 (남·68세) 전태창(남·67세)

3) 사산리(斜山里) 마산(馬山)마을

◇ 마을개관


마산마을 산제당

마산 마을은 사산리(斜山里)에 속한다. 사산리는 상곡면과 유가면 접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1914년에 상곡면의 마산(馬山), 사교(沙郊)와 유가면 내사(內斜), 하가(下加) 각 일부 및 외사(外沙)를 병합하여 사산리라 칭하고 적상면에 편입되었다. 자연마을로는 마산리(馬山里), 사내(斜內): 바깥사내[外斜], 안사내[內斜], 신사내[新斜], 용담거리, 안골〔內洞〕, 큰땀[大村], 양지땀 등이 있다.

마산 마을은 현재 100호 정도 대규모의 마을인데 가구 수가 많을 때는 260호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래서 마산 마을은 마을 동산을 중심으로 양지땀, 안골, 큰땀, 샛땀 등 4개의 소규모 마을로 분리되어 있다.

마산(馬山)이라 불리게 된 이유는 마을에서 무주구천동 넘어가는 길목 오른편에 리베라 모텔이 있는데 모텔 뒷산 줄기가 '말형'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마산(馬山)이라 부르게 되었고, 말형 줄기가 길가에까지 뻗었는데 도로 공사로 인하여 끊기게 되었다고 한다. 샛땀쪽 참나무가 있는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을 말의 밥통인 '말구시'라 한다.

◇ 마을신앙

(1) 산신제

마산 마을은 산신제를 모시는데 산제당은 양지땀 뒷산에 위치한다. 산제당은 정면 두 칸, 측면 한 칸의 흙담집이다. 과거에는 기와지붕이었으나 지금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있다. 마산 마을 산제당은 몇 가지 특징을 갖는데 첫 번째는 보통 산제당의 규모에 비하여 정면이 두 칸이 크기이다. 그래서 쌍여닫이문이 2개가 있는데, 오른쪽

실내에는 호랑이와 산신할아버지가 그려진 산신도가 있으며 신주가 모셔져 있다. 신주는 쌀을 넣어 둔 단지라 하는데 매년 신주에 화선지로 고깔을 만들어 씌운다고 한다. 다음 특징은 왼쪽 실내의 용도인데 여기에서는 제 지내는 것을 준비하는 곳이다. 실내에는 바닥을 깔 수 있는 것과 옷가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제를 지내기 전 사흘 간 지낸 곳이라 한다. 또한 여기에서 밥과 백설기 등 제물을 직접 만든 곳이다. 또한 산제당 앞에는 지게와 삽 등이 있는데, 산신제 지낼 때 제물을 운반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제일은 음력 정월 초사흗날 7시~8시경에 모신다고 한다. 제주는 사흘 전부터 단속하고 기우했으며 산제당 지내는 곳 옆 실내에서 혼자 있다가 제를 모셨다. 오래 전에 작고했지만 유학선 씨가 주로 모시고 이후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모시다가 올해로 4년째 마을 뒤 학림사의 김광배(남. 67세) 스님이 맡아오고 있다.

비용은 전에는 동답 400평 정도가 있어 제주가 농사지었다. 지금은 마을기금에서 쌀 한가마니 정도 비용을 김광배 스님에게 준다고 한다. 제물은 돼지머리, 삼색실과, 찬 등이 준비되며 밥과 백설기는 직접 산제당에서 짓는다고 한다.

제는 유교식으로 초헌, 독축, 삼헌을 하고 가구 호 수마다 소지를 올린다. 그리고 음복한 후 제가 끝난다. 이때 독축한 산제당 축문은 다음과 같다.

산제축문

維
歲次 ○○正月 ○○朔 ○月 馬山洞里民代表 幼學 ○○○敢昭告于
山堂之神 節彼岩岩 泌彼洋洋 一村人物 三農得業 護我村庄 沃其惠澤 孰不蒙化 亦是神感
六畜繁殖 驅渚病厄 降于福祿 蠢玆民物 豈非貧佑 屈居海外 潤我村容 或有忌味 置之度外
擇于吉辰 勿以勿咎 齊沐斯潔 護以酒果 祗薦于神 尙饗

(2) 기우제

마산 마을 기우제는 간지골 골짜기의 바위에서 지내는데 반드시 산제당에서 제를 지낸 후 모신다고 한다. 간지골 바위에서 돼지를 잡아 피를 뿌리고 기우제를 지냈다. 그리고 쇠말봉에서 짚이나 소나무 잎으로 불을 피웠다. 아주머니들은 쇠말봉에서 흘러내리는 '찬물내기내'에서 키를 가지고 까불면서 비가 오기를 기원하였다.

이 때 기우제 축문은 다음과 같다

산제축문

생각컨대 년 ○월삭 ○일 마산이장 ○○○는 감히 마산의 신께 고하나이다.

엎드리어 부재(不材)로서 이장(里長)이 되어 오직 직무(職務)에 태만(怠慢)하였음이 두렵나이다. 하물며 가뭄이 심하옵기 백성(百姓)의 먹을 것을 걱정함이 절실하지 않겠사옵니다. 불같은 해는 방재 맹렬하여 내 아름다운 곡식을 태웁니다. 혹은 물을 길러 마른 곡식 적시고 혹은 물을 끌어 마른 데에 댔아온데 물과 샘이 또한 마르니 백성의 지침이 어찌 극도(極度)에 달하지 않겠사오니까. 무릇 사람의 심정이 걱정으로 사무쳐, 못에나 골짜기에 떨어질 것 같으니 농부(農夫)에게 무슨 연고가 있겠습니까? 책임(責任)은 이장에게 있사오니 허물과 잘못을 살피소서.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엎드려 삼가 희생(犧牲)과 술을 갖추어 공손히 적은 정성을 드리오니 큰 단비를 빌어 주시와 몽몽히 쏟아 내려 넉넉하게 족하게 하여 우리 모든 농부를 위로하여 주소서 바라옵건대 흠향(歆饗)하소서

조사일시: 2003년 10월 4일
제 보 자: 서동렬(남·66세)

5) 사산리(斜山里) 사내(斜內)마을

◇ 마을개관

사내 마을은 사산리(斜山里)에 속한다. 사산리는 상곡면과 유가면 접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1914년에 상곡면의 마산(馬山), 사교(沙郊)와 유가면 내사(內斜), 하가(下加) 각 일부 및 외사(外沙)를 병합하여 사산리라 칭하고 적상면에 편입되었다. 자연마을로는 마산리(馬山里), 사내(斜內): 바깥사내[外斜], 안사내[內斜], 신사내[新斜], 용담거리, 안골〔內洞〕, 큰땀[大村], 양지땀 등이 있다.



사내마을 산제당

◇ 마을신앙

사내 마을 산제는 안사내 마을 뒷산에 있는 산제당에서 모신다. 산제당은 안사내 뒷산 큰 소나무와 참나무가 있는 곳에 있다. 슬레이트 지붕이며 주변은 돌담으로 되어 있다. 정면은 나무로 되어 있으며 외닫이 문인데 떨어져 방치되어 있다. 내부에 신위는 따로 없으며 안에 금줄이 쳐 있다. 그리고 내부에 시루와 제기 등이 뒹굴고 있다. 거의 방치된 상태로 있다. 산제를 모신 후 마을 앞 정자나무에 제를 지냈으나 6-7년 전에 불에 타 없어지면서 없어졌다.

제일은 음력 정월 초이튿날 밤에 모셨으나 5년 전부터는 해 넘어 갈 무렵에 모신다. 제주는 마을 청년들로 정해지는데, 이장이 중심이 되어서 지낸다. 그리고 옛날에는 제주 혼자 가서 제를 지냈으나 지금은 궂은 곳 가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참여한다. 예전에는 제주를 지내면 1년에 5~7말 정도씩 수고비를 주었다고 한다. 비용은 동제에서 충당한다. 동답으로 논 1000평 정도가 있고, 집터 7가구, 산제당이 있는 산이 동네 산이다. 제물은 돼지머리를 비롯하여 백설기, 자반, 다시마, 나물, 두부 등이 준비되었다. 축문은 따로 없고 성씨 별로 소지를 올렸다. 그리고 다음날 동네잔치와 함께 동네 회의를 한다.

안사내 마을 입구에는 2개의 돌탑이 있었다. 1개는 30여년 쯤 밭주인에 의해 없어졌고, 나머지 한기는 올해 (2003년) 도로를 개설하면서 없어지고 말았다. 돌탑은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데, 본래 안사내 마을은 역사가 오래되었고 잘 살았는데 탑이 없어지고 난 후에 동네가 기울었다고 한다.

조사일시: 2003년 9월 5일
제 보 자: 김삼종(남· 61세)

6) 삼가리(三加里) 상가(上加)마을

◇ 마을개관

상가 마을은 삼가리에 속한다. 삼가리는 본래 유가면 지역인데 1914년 여올(汝兀) 상가(上加) 중가(中加) 하가(下加) 일부를 병합하여 삼가리라 하고 적상면에 편입되

었다. 자연마을로 재밑(상땀 웃상가), 중간땀, 상가치리(큰땀 上加里), 중가치리(中加里), 하가치리(下加里), 노루고개(정착농원), 갈골[葛谷], 늘갓[汝兀里], 안늘갓[廣浦], 사기점(沙器店) 등이 있다.

상가 마을은 가치리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마을로 예부터 상가치리라 부르던 것을 상가라 부른다. 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300여 년 전쯤에 생각하고 있다. 현재 김해 김씨, 여주 이씨, 연일 정씨, 수원 백씨, 이천 서씨 등 32가구가 살고 있다.

◇ 마을신앙

상가 마을의 산신제는 마을 뒷산 '큰골'이라 큰 골짜기에 바위와 소나무로 구성된 산제당이 있다. 제일은 정월 열나흗 밤 6~7시경에 모신다. 제관과 집사는 깨끗한 사람으로 생기복덕에 의하여 선출하여 금기사항을 지킨다. 현재 이장이 맡아서 한다. 마을 사람들은 농부바위까지만 동행한다.

농부바위에서부터는 제관과 집사만 올라가 제를 모신다. 비용은 <산제계비> 50만원 있어 여기에서 충당하며 보통 10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제물은 밤, 대추, 감 등 삼색실과와 백설기 가 준비된다. 밥은 산제당에서 직접 짓는다. 돼지머리는 준비하지 않는다. 마을 앞 당산나무에는 닭을 준비하여 제를 모신다. 제는 유교식으로 모신다. 축문은 따로 없고 가구마다 나면 소지를 올린다.

조사일시: 2003년 10월 4일
제 보 자: 서동렬(남·66세)

7) 북창리(北倉里) 내창(內倉)마을

◇ 마을개관

내창 마을이 소재한 적상면 북창리는 무주군의 주산인 적상산의 밑 골짜기에 위치하여 적상산 북쪽에 최영 장군이 군량미를 보관하였다는 창고가 있어 북창리라 부른다. 그리고 내창 마을은 북창의 안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험준한 산 속 깊은 골짜기에 위치하며 안국사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한 내창 마을은

현재 28가구의 100여 명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대체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마을에 처음 들어온 성씨는 하씨라고 하는데, 지금은 살고 있지 않다. 하씨에 이어 전주 이씨가 내창 마을로 들어왔는데 21세손이 이 마을에 살고 있으며, 현재는 이씨 외에 박씨, 김씨, 한씨, 양씨, 권씨, 송씨, 황씨, 오씨 등이 살고 있다.



내창마을 산제당 내부

◇ 마을신앙

(1) 산제와 당산제

내창 마을은 마을 옆 산 위에 위치한 산제당집과 마을 아래의 정자나무 두 곳에서 제를 모신다. 산제당집은 마을 옆 가까이에 있는 낮은 산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 산제당집에서 산제를 모시는데, 원래 당집은 마을 앞산에 있었으나 당집을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당집을 옮기게 된 연유는, 누구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어느 지체 높은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데, 제당 근처 바위에만 이르면 말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함으로 내려서 걸어가야만 했다. 따라서 갈 길이 지체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래서 그 바위를 일러 '지체바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분이 당집에 올라가서 산제를 모시는 종이를 띄워서 날렸더니, 종이가 지금의 산제당이 있는 곳에 붙자 그곳에 당집을 새로 짓게 되었다. 당집을 옮긴 뒤로, 자연스럽게 당집 아래에 많은 집들이 들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당집은 1994년도 슬라브 지붕으로 개축한 것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제를 모실 수 있도록 선반이 만들어져 있다. 선반 아래에는 상과 떡시루, 촛불 등이 놓여 있다. 당집의 규모는 네 사람이 들어가서 제를 모실 정도의 크기이다. 당집 안에는 당산할머니와 당산할아버지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대략 50여 년 전에 권철훈이라는 외지 사람이 그린 것이라 한다. 그 전의 그림은 좀이 쓸고 오래되어 그림이 선명하지 못하

여 바꾼 것이다.

정자나무는 마을 아래의 냇가 옆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정자나무 위쪽으로 도로가 뚫려 있으나, 예전에는 정자나무 옆으로 길이 나 있어 그 길로 마을 사람들이 출입하였다. 정자나무는 대략 300년 수령이 되어 그 중 일부는 고사된 상태이다. 정자나무 앞으로 돌을 차곡차곡 괴어 놓은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에서 당산제를 모신다. 마을 사람들은 당산제를 일러 '서낭제'라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정자나무 미쳐 못 가서 내를 건너기 전에 양옆으로 돌탑 2기가 조성되어 있는데, 돌탑 위에는 큰 돌 하나를 세워놓았다. 마을 사람들은 돌탑을 일러 '조탑배기'라 부른다. 수력발전소 때문에 마을 앞으로 큰 도로를 내면서 돌탑을 없애버린 것을 마을 사람들이 다시 도로 아래쪽에 돌탑을 쌓아놓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예전의 돌탑은 그 규모가 상당히 컸으나, 현재의 돌탑은 대략 1m 30cm 정도의 높이이며, 맨 위에는 조그마한 돌을 세워놓았다. 당산제를 모시기 전에 돌탑에 마른명태, 실, 종이 등을 묶어 금줄을 쳐놓으나, 따로 제를 모시지는 않는다.

내창 마을에서는 산제를 음력 정월 열 나흗날 저녁 11시경에 모시며, 산제가 끝나면 곧바로 당산제를 모시는데, 당산제까지 끝나면 12시가 넘는다. 음력 정월 열 나흗날에 제를 모시는 것 외에 음력 10월에도 제를 모셨다. 그러나 5년 전부터 제의의 까다롭고 번거로움을 피하기 인해 정월 한 번으로 축소하였다고 한다.

음력 정월 설을 지내고 나면 마을 회의를 통해 산제와 당산제 모실 사람을 선정한다. 제를 모시는 사람을 제관이라 부르는데, 나이가 지긋하고 정갈한 사람으로 1명을 뽑는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은 선정된 그날부터 정월 한 달 동안 궂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초상집 등 궂은 곳을 가지 않는 등 여러 가지로 근신한다. 제관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를 주도하지만, 마을이장과 노인회장 역시 제에 참여하여 제를 돕기 때문에 이들 역시 금기를 지키고 있다. 또한 제를 모시기에 앞서 제관을 비롯하여 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미리 목욕재계하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제관의 집 대문에는 솔가지를 꽂은 금줄을 쳐 놓는데, 이는 궂은 사람이나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함이다.

예전에는 마을에 전답이 있어 그것으로 제비를 마련하였으나 지금은 그 전답이 없어져버렸다. 따라서 이제는 마을기금으로 제비를 마련한다. 마련된 제비로 제관은 무주읍내 오일장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는데, 주로 돼지머리, 과일, 포, 밤, 대추, 한지 등을 산다. 지금도 제수품을 살 때는 절대로 값을 깎는 법이 없다고 한다. 제관이 장을 보러 갈 때 궂은 것을 보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일찍 갔다 오는데, 요

즈음은 자가용을 이용함으로 궂은 것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보통 산제가 11시에 시작되는데 이때 이장 댁에 모여 있는 마을 이장과 노인회장, 마을 원로 1명이 제관의 집으로 가서 준비한 제물을 세심하게 챙긴 뒤 모두 당집으로 향하였다. 제관의 집에서 당집으로 가기까지 10여분이 소요되었는데, 눈이 제법 쌓여있는 길이여서 쉽지는 않았다.

당집에 당도하여 준비한 제물을 당집 안의 선반 위에 진설하는데, 제물은 떡시루, 메 두 그릇, 돼지머리, 나물, 적, 사과, 배, 귤, 밤, 대추, 곶감, 미역, 탕, 김, 과자 등이다. 단 제주는 막걸리가 아닌 식혜로 진설 하였다. 식혜를 '단술'이라고도 하는데, 예전부터 식혜를 올렸다고 한다. 제물을 진설하는데 10여 분이 소요되었고, 곧바로 제의가 시작되었다.

당산 할아버지, 당산할머니에게 잔을 올리고 재배를 한 뒤, 축문은 읽지 않고 이어서 소지를 올렸다. 소지는 노인 회장인 이귀찬(남·72세)이 주도하여 제일 먼저 마을 이장이 소지를 올리고, 이어서 집집마다 그 숫자대로 소지를 올렸다. 소지를 올리면서 축원하는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 소지는 박씨 가문의 소지입니다. 이 가문도 뜻과 마음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소지 올리면서 종이가 타 올라가는 상황을 보고 대략 그 해 운세를 점치기도 한다. 소지가 타오르면서 당집 천장에 올라가 붙으면 그 해 운이 잘 풀리는 것으로 믿고, 소지가 타면서 땅으로 떨어지면 그 해의 운세가 좋지 않는 것으로 믿는다. 소지를 올리는 시간은 25분 정도 소요되었다.

제물을 조금 떼어서 당집 밖에 헌식하고, 이어서 간단히 음복하였다. 그리고 제관은 진설한 제물을 정리하여 지게에 싣고 다시 제관의 집으로 향하였다.

제관은 당집에서 차린 것과 똑같이 제물을 다시 챙겨서 제에 참여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자나무로 향하였다. '마을나무'라 부르기도 하는데 정자나무는 마을 아래쪽에 위치하여, 그 옆으로 냇물이 흐른다. 정자나무에 다다르기 전에 내리막길 양쪽으로 돌탑 2기가 양쪽으로 서있는데, 정월 열 나흗날 오전에 돌탑 위의 선돌에 한지 한 묶음과 함께 금줄을 쳐놓았다. 그렇지만 당집과 정자나무에는 금줄을 두르지 않았다.

정자나무 아래에 도착한 제관과 그 일행은 제단 위에 준비한 제물을 진설하고, 산신제를 모신 그대로 다시 제를 모신다. 다만 당산제에서는 소지를 올리지 않고, 헌식

과 음복을 끝으로 모든 제의를 끝을 낸다. 예전에는 산제를 모시기에 앞서 초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풍물을 치면서 당집을 갔다 왔으나 지금은 풍물을 칠 사람들이 없어 그나마 하지 못한다고 한다.

한편, 산제를 정성스럽게 모시지 않으면 산신령님인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 여기 저기 돌아다닌다고 한다. 심지어 언젠가는 제를 모신 뒤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 개를 물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 만큼 제를 모실 때에는 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마을 사람들은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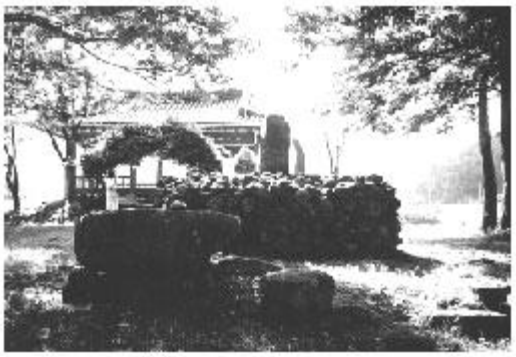
조사일시 : 2001년 2월 6일 9일(화) 음력 정월 열 나흗날
제 보 자 : 김창남(남·48세 이장) 이귀찬(남·72세) 이진흥(남·63세) 양봉모(남·70세)
권재원(남·69세) 송용진(남·38세) 전남대 서해숙 강사 조사 참조

3. 안성면

1) 공진리(貢進里) 주고(舟庫)마을

◇ 마을개관

주고 마을은 공진리에 속한다. 공진리는 본래 일안면 지역인데 1914년 공진(貢進), 주고(舟庫), 죽장(竹場), 마암(馬岩)과 장수군 당저 각 일부를 병합하여 공진리라 하고 안성면에 편입하였다. 자연마을은 공진, 술고지[酒庫] : 수꾸지, 학선리 ; 신월리, 말바우, 보안땀, 새땀, 양지땀, 음지땀 등이 있다.



주고마을 돌탑

주고 마을은 약 450여 년 전에 형성되었다고 하며 인동 장씨, 밀양 박씨, 김해 김씨, 성신 배씨 등이 살고 있다. 현재는 52호가 살고 있으나 70년대에는 100호가 넘는 마을이었다. 현재 주고 마을은 한자로 주고(舟庫)였으나 본래는 주고(酒庫)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술을 먹고 일을 하지 않아 주고(舟庫)로 바뀐 것이라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주고(酒庫)였다는 의미는 마을주변의 지명에서 찾고 있다. 즉 마을쪽 산은 미기봉(美妓峰)으로 여자를 의미하며 맞은편 산은 삼부봉(三夫峰)으로 남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마을 입구 쪽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이를 '동무산'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술상을 의미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술상을 마주하고 남녀가 있는 형국이니 이것이 주고(酒庫)라는 의미인 것이다. 주고 마을 아래쪽으로 돌탑 1기가 있다.

◇ 마을신앙

(1) 돌탑

① 명칭과 수량

돌탑이라 부른다. 마을 아래쪽에 물이 합수하는 곳에 돌탑이 있다. 위에 선돌 1기를 올려놓았다.

② 크기

높이 130cm, 축 470cm, 탑 위돌 높이 140cm

③ 외형과 특징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며, 탑 위돌 올려져 있다. 탑 윗돌이 큰 편에 속한다.

④ 기능

주고 마을의 돌탑은 마을 수구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 위쪽에서 두 줄기로 내려오는 합수(合水)점에 자리 잡고 있어 그 기능을 알게 해준다. 50여 년 전부터 이미 제는 중단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돌탑을 훼손하지 않고 무너질 때마다 개축한 점으로 보아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를 지닌다.

(2) 마을 숲

주고 마을 숲은 소나무, 느티나무로 200평정도 되며, 마을 소유이고 수구막이 역할을 한다. 마을 숲 안에 돌탑이 있다.

조사일시: 2003년 9월 6일
제 보 자: 배상조(남·64세)



안기마을 축문

2) 금평리(琴坪里) 안기(安基) 마을

◇ 마을개관

안기는 금평리에 속한다. 금평리는 본래 이안면 지역인데 1914년 궁대(弓垈), 상두(上斗), 안기(安基), 도촌(島村), 금평(琴坪), 덕곡(德谷), 상산(上山), 장구(長久)와 상곡면 사교 각 일부를 병합하여 금평리라 하고 안성면에 편입하였다. 자연마을은 궁대리(弓垈里), 말거리[斗文里], 안터〔安基里〕, 섬말〔島村〕, 홈말〔柳村〕 등이 있다. 안기 마을은 낙안 김씨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현재는 20호가 살고 있다.

◇ 마을신앙

안기 마을 당산제는 마을 뒷산에 위치한 소나무 숲에서 모신다. 아름드리로 소나무 숲이 형성되어 있고 흙으로 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는다. 제일은 음력 정월 열 나흗날 밤 11～12시에 모신다. 제주는 전에 돌아가면서 모셨으나 지금은 성동화(남·48세 면사무소 근무)씨가 지낸다. 비용은 마을 동답 논 3～4마지기와 산이 있는데 이를 짓고 성동화씨가 충당한다. 제물은 돼지머리를 비롯하여 삼색실과 밥, 떡 등을 준비한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
歲次 正月 朔 月十五日 幼學 敢昭告于

堂山之神 山是鎭洞 神固至靈 機緘造化 惟神主宰 玆以卜吉 虔誠祈禱 伏惟尊神 黑佑期人時和 歲豊 家. 人是 邪氣消盡 吉祥周. 神之德 惟神之惠 今玆齊沐 致誠 仰禱禮野情眞伏惟尙
饗
그리고 가구마다 소지를 올리고 다음날 대동회의를 한다.

조사일시 : 2003년 10월 5일
제 보 자 : 김정수(남·60세)

3) 덕산리(德山里) 정천(井川) 마을

◇ 마을개관

정천 마을은 덕산리에 속한다. 덕산리는 본래 이안면에 속해 있던 마을인데, 1914년에 정천(井川), 덕곡(德谷), 수락(水落), 상산(上山), 중산(中山) 각 일부를 병합하여 덕산리라 칭하여 안성면에 편입되었다. 자연 마을로는 황거를〔德谷〕, 수래기〔水落〕, 새암내〔井川〕, 면맛〔산밑촌〕 등이 있는데, 지금은 정천으로 부르고 있다. 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0여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마을은 과거에는 100여 호 가량이 살았는데 현재는 50여 호 정도만이 살고 있다.


정천마을 돌탑 윗돌

정천 마을은 옛날 마음씨 착한 앉은뱅이 처녀와 장님 총각의 전설을 담고 있는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샘물이 마르지 않고 언제나 맑고 찬물이 풍성하게 솟아 마을 주민들이 걱정 없이 살았다.

그러나 윗마을인 수락은 조금만 가물어도 샘물이 떨어져 이 마을까지 내려와 물을 길어다 먹어야 하는데 그것은 덕유산 황골[黃谷]에서 부터 흘러오던 냇물이 수락마을에서부터는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정천 마을에 이르러서는 맑은 찬물이 솟아 나와 내를 이룬다고 하여 정천 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마을신앙

(1) 당산제

정천 마을에서 당산은 마을 왼편 날망에 있는 소나무 숲과 참나무가 있는 곳이 당산이며 마을 입구에 길 양편으로 2기의 돌탑이다. 돌탑은 본래 마을에 7기가 마을 사방에 둘러 있었는데 새마을 사업 당시 길을 내면서 미신이라 하여 없앴다. 정천 마을에서는 돌탑을 '조탑'이라고 부른다.

당산제 정월 열 나흗날 밤에 모신다. 제관은 마을사람 중에서 깨끗하고 공들인 사람이 맡으며 보통 5~6명 정도 참여한다. 비용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하며 제물은 돼지머리를 비롯하여 삼색실과 백설기, 탕 등을 준비한다. 이때 제기는 언제나 새로 마련하여 지낸다.

당산제를 지내기 전 공동 샘에 불을 밝혀 놓으며 풍물패를 앞세우고 당산을 향한다. 풍물패는 당산까지만 굿 소리를 내며 가고 당산제는 유교식 제의 절차에 따라 지낸다. 축문은 유교식 축문을 최상태가 맡아 쓴다.

당산제가 끝나면 풍물패 앞세우고 마을 입구에 있는 탑에 가서 탑제를 지낸다. 탑제가 끝나고 나면 샘에서 샘굿을 친다. 샘굿을 마지막으로 당산제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다음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마당 밟기를 한다. 마당 밟기는 온 마을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돌아오는 새해에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굿이다.

당산제를 지내는 날은 마을 사람들은 대동회를 연다. 대동회에서는 한 해의 회계결산, 새해계획, 품삯 등을 정한다. 대동회가 끝나면 당산과 탑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달집을 만든다.

(2) 조탑

① 명칭과 수량

조탑이라 부른다. 현재는 마을입구 길 양편으로 2기가 있다. 새마을운동 전에는 7기정도 있었으나 그 당시에 없어지고 다시 세운 것이다.

② 크기

오른쪽 높이 220cm, 축 420cm, 탑 위돌 높이 50cm

왼쪽 높이 207cm, 축 300cm, 탑 위돌 높이 55cm

③ 외형과 특징 :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며, 탑 위돌 1기 올려져 있다.

④ 기능

정천 마을 돌탑은 마을 수구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풍수 비보책으로 세워졌다. 마을이 풍수상으로 불안하여 마을주변에 7기에 이르는 돌탑을 세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사일시 : 2003년 10월

제 보 자 : 최상태(남·63세)

4) 덕산리(德山里) 수락(水落)마을

◇ 마을개관



수락마을 탑 윗돌

수락 마을은 덕산리에 속한다. 덕산리는 본래 이안면에 속해있던 마을인데, 1914년에 정천(井川), 덕곡(德谷), 수락(水落), 상산(上山), 중산(中山) 각 일부를 병합하여 덕산리라 칭하여 안성면에 편입되었다. 자연마을로는 황거를〔德谷〕, 수래기〔水落〕, 새암내〔井川〕, 면맛(산밑촌) 등이 있다.

수락 마을은 정확히 언제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고 이씨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한다. 수락이란 지명은 덕유산 황골〔黃谷〕에서부터 흘러오던 냇물이 수락마을에서부터는 땅속으로 스며든다고 하여 수락(水落)이라 불렸다고 한다. 수락이란 지명은 덕유산 황골〔黃谷〕에서부터 흘러오던 냇물이 수락마을에서부터는 땅속으로 스며든다고 하여 수락(水落) 이라 불렸다고 한다. 이후 일제시대 때 수락(壽樂)이라 불렸다가 현재는 다시 옛 지명인 수락(水落)이라 부르고 있다. 수락 마을은 풍수적으로 배터인데 배가 떠내려가지 말라고 마을에 돌탑을 세웠다.

◇ 마을신앙

(1) 돌탑

① 명칭과 수량

도탐이라 부른다. 현재는 마을입구 길 양편 및 마을정면으로 5기가 있다. 새마을운동 전에는 6기가 있었으나 1기는 다리를 놓을 때 없어졌다.

② 외형과 특징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며, 5기 모두 탑 위돌 1기 올려져 있다.

③ 기능

수락마을 돌탑은 마을 수구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풍수 비보책으로 세워졌다. 마을이 풍수상으로 불안하여 마을 정면에 일자로 5기의 돌탑이 있다.

5) 덕산리(德山里) 덕곡(德谷)마을

◇ 마을개관

덕곡 마을은 덕산리에 속한다. 덕산리는 본래 이안면에 속해있던 마을인데, 1914년에 정천(井川), 덕곡(德谷), 수락(水落), 상산(上山), 중산(中山) 각 일부를 병합하여 덕산리라 칭하여 안성면에 편입되었다. 자연마을로는 황골〔德谷〕, 수래기〔水落〕, 새암내〔井川〕, 면맛〔산밑촌〕 등이 있다.



덕곡마을 당산 및 입석

◇ 마을신앙

(1) 당선제

덕곡 마을 당산은 마을 뒷산 중턱 소나무이다. 예전에는 이곳에 산제당이 있었다고 한다.

당산제는 음력 정월 초이튿날 11시경에 모신다. 제주는 깨끗한 사람으로 하여 부부

가 가서 모신다. 비용은 마을에서 기금으로 충당하며 제물은 돼지머리를 비롯하여 삼색실과 탕, 백설기 등을 준비한다. 제는 유교식으로 초헌, 중헌, 종헌 순으로 모시며 축을 하고 가구마다 소원성취를 빌면서 소지를 올린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 ○○正月 ○○朔○月 幼學○○○ 敢昭告于 堂山之神 曰 天子祭天下之名山
諸侯祭一國之名山 大夫祭一境之名山 士庶祭一洞之主山 天下之禍福 一國禍福 一境之禍福 皆在主山神本靈矣寧不感動乎 有禱必應無願不遂 山耕野耕 有百穀長養豊 朝採 暮樵無一人顚沛 之傷 飛禽走獸藏匿遠循 疾寓惡祟 黜狄消滅 月中蟾桂 人誰可析 池上 風毛 家皆能育者 豈主山之所賜耶 曰吉辰良 齊沐虔禱 尙
饗

제가 끝난 후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흥겹게 논다.

(2) 풍남제

덕곡 마을에서는 특이하게 풍암제가 있다. 풍암제는 황골(바람바위골짝)에 풍암(風岩)이 있는데, 이곳 바위에서 고요한 날이라도 '우우'하는 소리가 나며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하여 바람이 세차게 불므로 바람의 피해가 심하여 풍해(風害)를 막아 달라는 뜻에서 음력 정월 대보름날밤에 풍암제를 지낸다. 현재는 풍암이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을 뒤 저수지 옆에 큰바위를 풍암으로 정하여 이곳에서 제를 지낸다. 제관은 부부가 맡으며 삼색실과, 백설기, 탕, 등을 준비하여 지낸다.

축문은 다음과 같다.

維
歲次 ○○正月 ○○朔○月 德谷里居人 ○○○敢昭告于
乾文坤母 胚育元氣 巽木水生 良石成體 惟神是依 鎭我一里
靈應無窮 降福除害 時雨時暘 休微自至 五穀番熟 六畜蕃琵
山無毒獸 道不拾遺 人皆相愛 渾是春和 日吉辰良 齋沐虔告
神其府佑 蓋應玆禱 尊獻 尙
饗

6) 사전리(沙田里) 사전(沙田)마을

◇ 마을개관

사전 마을은 사전리에 속한다. 사전리는 본래 이안면과 상곡면 접계 지역인데 1914년 이안면 장구(長久), 구항(鳩項), 상산(上山), 중산(中山), 하산(下山), 금평(琴坪)과 상곡면 사교(沙郊) 각 일부 및 사전(沙田), 구교(鳩橋) 각 일부를 병합하여 사전리라 하고 안성면에 편입되었다. 자연마을로 모래실[沙田], 앵밑[沙郊里], 바랑말[신기리], 다릿말[橋村], 하산리(下山里), 양촌(陽村), 웃말, 평지땅[沙田], 효자촌(孝子村) 등이 있다.

사전 마을은 본래 마을 뒤로 국도가 지나갔으나 최근에 마을 앞으로 2차선 도로가 지나가면서 마을이 더욱 융성하게 번창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유는 이 마을이 풍수지리적으로 마을형국이 거문고 형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새로 난 도로가 거문고 줄을 의미하고 차량이 지나가며 내는 소리는 악기소리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거문고 형상의 풍수가 도로가 나면서 완성되어 마을이 융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마을은 실제 악기와 관련한 지명이 많이 존재한다. 사전 마을은 마을의 지질이 모래이기 때문에 붙여져 모래땅이라 불린 데서 붙여진 명칭이다.

사전 마을은 광산 김씨들이 임진왜란 때 피해 들어와 형성되었고 웃말, 양지말, 평지말, 동촌 등 4개 마을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는 83호가 거주하고 있다.

◇ 마을신앙

사전 마을 산제당은 마을 뒷산에 위치한다. 이곳을 '서당골 날망'이라고 부르며 소나무와 참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일은 음력 정월 열 나흗날 밤 10시경에 행하여진다. 제주는 깨끗한 사람으로 운이 맞는 사람으로 선정하여 음식을 운반할 사람과 함께 두 분이 산제를 모신다. 비용은 마을기금으로 충당한다. 그리고 제물은 돼지머리를 비롯하여 삼색실과, 탕, 백설기 등을 준비한다. 제물 중 돼지는 과거에는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사용했다고 한다. 제를 지내기 전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풍물 굿을 치며 한바탕 흥겨운 판을 벌인다. 흥겨운 놀이판이 끝나고 나면 제주와 장정 두 분이 제물을 지게에 지고

산제당으로 간다. 산제를 모실 동안에는 쇳소리를 내지 않는다. 제주가 제를 지내려 산제당에 불을 밝히면 마을사람은 불빛을 보고 이에 따라 각자의 집에 불을 밝힌다. 제주가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산제당에 올라가지 못한다.

산제는 유교식으로 진행되며 가구마다 소지를 올린다. 제가 끝나고 마을로 내려오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음복을 한다. 이때 풍물굿 패와 함께 흥겨운 놀이판을 벌인 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 다음 날 아침 정월 대보름 상을 차릴 준비를 한다. 2002년 제관은 박래원(남, 1956), 정병천(남, 1933)씨이다.

조사일시 : 2003년 10월 5일
제 보 자 : 이기섭(남·55세)

7) 사전리(沙田里) 사교(沙郊)마을

◇ 마을개관

사교 마을은 사전리에 속한다. 사전리는 본래 이안면과 상곡면 접계지역인데 1914년 이안면 장구(長久), 구항(鳩項), 상산(上山), 중산(中山), 하산(下山), 금평(琴坪)과 상곡면 사교(沙郊) 각 일부 및 사전(沙田), 구교(鳩橋) 각 일부를 병합하여 사전리라 하고 안성면에 편입되었다. 자연마을로 모래실[沙田], 앵밑[沙郊里], 바랑말[신기리], 다릿말[橋村], 하산리(下山里) 양촌(陽村), 웃말, 평지땅[沙田], 효자촌(孝子村) 등이 있다.


사교마을 돌탑

사전 마을은 두문산에서 진도리로 흘러가는 사전 천변에 위치하여 마을이 모래땅이어서 '모래터'라 불리었는데 사전마을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사교라 불리었다. 마을은 풍수적으로 '조리터'라 한다. 조리는 곡식이 차면 넘치기 때문에 부자가 되면 나가 산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앞동산이 가로 막혀 마을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원사교 마을은 정확히 언제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전주 최씨와 밀양 박씨가 입향조이다. 마을에는 현재 55가구 정도 살고 있다.

◇ 마을신앙

(1) 산신제

사전마을 산신제는 마을 뒷동산 소나무에서 모셨으나 10년 전쯤에 없어졌다. 현재 산제당으로 모신 소나무는 넘어진 상태이다.

제일은 음력 정월 열 나흗날 밤에 모셨다. 제주는 아무나 하지 않고 마을에서 천기복덕을 뽑아서 운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하는데 보통 제주 1명과 제주를 돕는 사람 1분 2명을 뽑는다. 비용은 마을기금으로 충당하며 제물은 제주가 장만하며 삼색실과, 떡, 술 등을 준비하며 김이나 조기는 준비하지 않는다. 제는 유교식으로 하며 축문을 읽고 가구마다 소지를 올린다. 제를 지낸 후 마을 사람들과 흥겹게 논다.

(2) 돌탑

① 명칭과 수량

돌탑이라 부른다. 또는 탑이 있는 곳을 '도탐거리'라 부른다. 현재는 마을 오른편에 1기가 위치한다. 새마을운동 당시에 없어지고 다시 세운 것이다.

② 크기 : 높이 120cm, 축 150cm, 탑 위돌 높이 30cm

③ 외형과 특징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며, 탑 위돌 1기 올려져 있다. 현재 약간 허물어진 상태이다.

④ 기능 : 원사교 마을 돌탑은 마을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

조사일시 : 2003년 10월 5일

제 보 자 : 이명희(남·57세)

8) 죽천리(竹川里) 갈마(渴馬)마을

◇ 마을개관

갈마 마을은 본래 죽천리에 속한다. 죽천리는 본래 일안면 지역인데 1914년 갈마(渴馬) 평장(平章) 신평(新平) 죽장(竹場) 명정(鳴井) 사탄(沙灘)과 이안면 이목(梨木) 각 일부를 병합하여 죽장 명천(명정)에서 따 죽천리라 하고 안성면에 편입되었다. 자연 마을로는 대맏〔竹場〕, 명천(鳴川 明川): 명정(鳴井), 비앗들[新坪里], 무수동(舞袖洞), 갈마리(渴馬里), 평장리(平章里): 평장동(平章洞), 양수골[점터], 양지땀, 음지땀〔명천〕 등이다.

갈마 마을은 경주 김씨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이후 선씨가 들어와 살게 되었다. 갈마 마을은 풍수상 마을을 감싸 안은 산 형세가 갈증을 느낀 말이 물을 찾는 형국이라고 해서 갈마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갈마 마을은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항상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마을 위쪽에 연못을 파기도 했다고 한다. 현재 19호 정도 살고 있다.

◇ 마을신앙

(1) 산신제

갈마 마을 산신제는 20여 년 전에 끊겼다. 산제를 모실 당시 산신제는 마을뒷산 산제당에서 모셨다. 산제당은 커다란 소나무였다. 제일은 음력 정월 열 나흗날 밤 10시경에 모셨다. 제주는 깨끗한 사람으로 정해지며 2사람이 제를 모셨다. 제주는 3일 동안 기우한다. 비용은 동네 기금으로 충당한다. 제물은 돼지머리를 비롯하여 시루떡 등을 준비한다. 축문은 없어졌으며 가구마다 소지를 올렸다. 제가 끝난 후에는 마을사람들이 모여 흥겹게 놀았다. 산제를 잘 모시면 재수가 있고, 산제를 잘못 모시면 해코지가 있었다고 한다.

(2) 돌탑

① 명칭과 수량

돌탑이라 부른다. 마을의 청룡자락과 백호자락에 2기가 있다.

② 크기
방치되고 풀에 둘려 쌓여 크기를 파악할 수 없었다.
③ 외형과 특징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며, 탑 위돌 1기 올려져 있다. 현재 약간 허물어진 상태이다.
④ 기능
갈마 마을 돌탑은 풍수형국상 갈마 마을의 백호와 청룡 끝자락에 위치하여 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사일시: 2003년 9월 6일
제 보 자: 이정수(남·80세)

9) 죽천리(竹川里) 명천(明川) 마을

◇ 마을개관
명천 마을은 죽천리에 속한다. 죽천리는 본래 일안면 지역인데 1914년 갈마(渴馬), 평장(平章), 신평(新平), 죽장(竹場), 명정(鳴井), 사탄(沙灘)과 이안면 이목(梨木) 각 일부를 병합하여 죽장 명천(명정)에서 따 죽천리라 하고 안성면에 편입되었다. 자연 마을로는 대맏(竹場), 명천(鳴川 明川): 명정(鳴井), 비앗들[新坪里], 무수동(舞袖洞), 갈마리(渴馬里), 평장리(平章里): 평장동(平章洞), 양수골[점터], 양지땀, 음지땀〔명천〕 등이다.
명천 마을은 임진왜란 무렵에 진주 강씨에 의하여 마을이 처음 형성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각성바지가 살고 있다. 본래는 명천(鳴川)이라 불리다가 명천(明川)바뀌어 부르게 되었다. 명천 마을은 현재 양촌과 음촌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산은 덕유봉이며 쌀봉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풍수상 방아 찧는 형국이라 하여 마을주변에 챙이혈, 쌀봉, 딩기봉 등이 있다. 현재는 65호가 살고 있다.

◇ 마을신앙

(1) 산신제

명천 마을은 양촌과 음촌 각기 3곳에서 제를 모신다. 먼저 양촌의 당산은 상탕, 중탕, 하탕 등으로 불리는데 상탕은 사슴목장 뒤쪽에 소나무가 위치한 곳이다. 이곳에는 샘이 있다. 예전에 제를 지냈던 그릇, 단지 등이 놓여 있다. 중탕은 당산이라 불리는 정자나무이다. 그리고 하탕은 마을입구에 위치한 '도탐'이라 불리는 돌탑이 있다. 음촌 마을 역시 상탕, 중탕, 하탕 등으로 불리는데, 상탕은 안터골의 샘이 있는 곳이다. 중탕은 쌀 봉에 있는 소나무, 하탕은 마을 아래쪽에 위치한 바위에 모신다.

산제를 70년대 이미 없어졌으나 제일은 음력 정월 열 나흗날 10시경에 모신다. 제주는 깨끗한 사람으로 정해지며 상탕에는 제주 혼자만 가서 지낸다. 산신령이 찾아와 정성 들여 잘지냈는지 지켜본다고 한다. 중탕에는 2분이 지낸다. 비용은 마을의 동제기금으로 충당하며 제물은 상탕에는 삼색실과, 미역과 자반 등이 준비되며 중탕에는 제사 음식이 준비된다. 일반적으로 쓰는 돼지머리는 준비하지 않는다. 하탕 제물은 중탕에서 사용하던 것을 사용한다.

축문은 따로 없으며, 가구마다 소원 성취를 비는 소지를 올린다. 이튿날 마을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면서 논다.

(2) 돌탑

① 명칭과 수량 : 도탐이라 부른다. 마을입구에 2기가 있다.

② 크기

오른쪽 높이 200cm, 탑 위돌 둥근 모양 왼쪽 높이 250cm, 탑 위돌 뾰족한 모양(최근에 새로 쌓음)

③ 외형과 특징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며, 탑 위돌 1기 올려져 있다. 여자 탑은 둥글고, 남자 탑은 뾰족하다.

④ 기능

명천 마을 돌탑은 마을입구에 세워져 있어 수구막이 역할을 한다.

마을입구에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소나무가 없어지면 마을이 망한다는 속설이 있어 잘 보존하고 있다.

조사일시: 2003년 9월 6일
제 보 자: 신정석(남·62세)

4. 부남면

1) 대소리(大所里) 도소(島所)마을

◇ 마을개관

도소(島所) 마을은 대소리에 속한다. 대소리는 본래 부남면 지역인데 1914년 대소(大所), 유평(柳坪), 도소(島所)를 병합하여 대소리라 하고 도로 부남면에 편입되었다. 자연마을로는 대소(大所: 대수(大水), 유평(柳坪), 섬소[島所], 문암(文岩), 개안(開眼), 안죽동(安竹洞), 질바우[路岩]등이 있다.

도소 마을은 김해 김씨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현재도 김해 김씨를 비롯하여 경주 최씨, 인왕 전씨, 청주 한씨 등이 살고 있다. 마을주위로 금강이 굽이쳐 흘러가므로 '섬소'라 한 것을 도소(島所)라 한자화시켰다.


도소마을 산제당 내부

◇ 마을신앙

도소 마을 산제는 마을 뒤편에 있는 산제당에서 지낸다. 본래는 좀 더 위쪽에 있었으나 20여 년 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왔다. 산제당은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함석지붕을 하고 있다. 내부에는 불교식으로 치장되어 있다. 단상에는 많은 촛대와 제기들이 놓여 있다. 산제장 앞에는 조그마한 돌 2개가 올려진 제단이 있다.

제일은 음력 정월 초사흗날 저녁 해질녘 무렵에 지낸다. 예전에는 깨끗한 사람으로

한집이 맡아서 지냈으나 10년 전부터는 극락사 보살인 최행란씨가 모시고 있다. 비용은 벼 1가마 정도 소요되었는데, 현재는 15만원 정도 든다.

제물은 돼지머리를 비롯하여 삼색실과, 떡, 밥 등이 준비되며, 축문은 따로 없고 구송만 하며 집집마다 소지를 올린다. 산제당에서 제를 모신 후 마을회관 앞에서 가구마다 제물상을 차리고 거리제를 모신다.

조사일시: 2003년 10월 5일
제 보 자: 김재곤(남·68세)

2) 대소리(大所里) 유평(柳坪) 마을

◇ 마을개관

유평(柳坪) 마을은 대소리에 속한다. 대소리는 본래 부남면 지역인데 1914년 대소(大所), 유평(柳坪), 도소(島所)를 병합하여 대소리라 하고 도로 부남면에 편입되었다. 자연마을로는 대소(大所: 대수(大水), 유평(柳坪), 섬소[島所], 문암(文岩), 개안(開眼), 안죽동(安竹洞), 질바우[路岩] 등이 있다.

유평 마을은 예부터 버드나무가 많고 비교적 넓은 들이 있어 유평(柳坪)이라 불렸다. 마을에 장수 황씨가 많이 살고 있으며 80호 정도의 큰 규모의 마을이다.

◇ 마을신앙

유평 마을 산제는 마을 뒷산에 소나무와 돌로 3층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모신다. 제일은 음력 정월 보름날 저녁 7시~8시 정도에 모신다. 제주는 이장 부부가 모신다. 비용은 마을기금으로 충당하며 돼지머리, 삼색실과, 떡, 밥 등이 준비된다. 축문은 따로 없다. 가구마다 소지를 올린다. 산제가 끝난 후 마을 앞에 있는 느티나무에서 아주머니들이 중심이 되어 제물을 장만하여 거리제를 모신다.

조사일시: 2003년 10월 5일
제 보 자: 신종규 (남·77세)

3) 대소리(大所里) 대소(大所)마을

◇ 마을개관

대소(大所)마을은 대소리에 속한다. 대소리는 본래 부남면 지역인데 1914년 대소(大所), 유평(柳坪), 도소(島所)를 병합하여 대소리라 하고 도로 부남면에 편입되었다. 자연 마을로는 대소(大所:대수(大水), 유평(柳坪), 섬소[島所], 문암(文岩), 개안(開眼), 안죽동(安竹洞), 질바우[路岩]등이 있다. 대소마을은 각성바지로 현재 부남면 사무소가 위치한 마을이다. 본래마을은 현재 마을입구에 형성되었고 화재가 발생하여 현재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었다. 마을 입구에는 디딜방아가 재현되어있는데, 1997년 전국민속경연대회 출전하여 대상을 받은 민속 전통놀이이다.

대소란 지명은 흔히 큰물이라 이란 뜻으로 쓰고 있으나 그렇지 않고 마을 뒤에 죽담 폭포가 있는데 '죽담'은 큰 연못이란 의미인데 여기에서 큰 곳이란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 마을신앙

1) 산신제

대소 마을 산제는 현재 지내지 않고 있다. 과거 산제를 지내는 곳은 마을 뒷산 소나무 숲에서 지냈다. 현재는 볼 수 없다. 제일은 음력 정월 초이튿날 12시 또는 섣달 그믐날에 모셨다. 깨끗한 사람으로 제주를 정하고 제주의 집에 향토를 뿌리고, 금줄을 쳤다. 제주는 목욕재계하고 정갈하고 혼자 가서 지낸다. 비용은 산제답(위토답 500평)에서 나온 비용으로 충당하였다. 제물은 돼지머리를(수놈)을 비롯하여 떡, 밥, 삼색실과, 포 등을 준비한다. 예전에는 돼지를 통째로 준비하였다고 한다. 축을 하고 가구마다 소지를 올렸다. 최근에 산제가 없어지게 된 것은 마을에서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지기도 했지만 한마을에 교회가 2개가 설립되어 이를 미신시 하기 때문이다.

2) 탑제

현재는 없지만 대소 마을에 3기의 돌탑이 있었다고 한다. 돌탑은 70년대 새마을 운동 때에 없어졌다. 돌탑을 쌓게 된 유래는 본래 마을이 '광선뜰'이라는 곳에 형성되

었는데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때 지나가던 스님이 돌탑을 쌓고 그 안에 집을 지으라고 했다.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마을 앞 바위가 '화산바우' 마을에 비치기 때문이라면 이를 방비하여 화재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 돌탑을 쌓게 되었다. 그런데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 원인 살펴보니 화산바위를 막고 있는 준령이 짧아 산줄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그 끝에 탑을 세웠다. 이렇게 탑을 쌓아서 재앙을 막았다. 또한 마을 남쪽으로 마을 숲이 있었다. 마을 숲은 조성한 목적은 역시 화산 바위를 비보하기 위하였다.

조사일시: 2003년 10월 5일
제 보 자: 유재두(남·64세) 유영석(남·65세)

4) 고창리(高昌里) 고창(高昌)마을

◇ 마을개관

고창 마을은 본래부터 부남면에 속해 있었고, 1914년 이전에는 고창동(高昌洞)이라 불렀지만 이후에는 고창리라 칭하였다. 자연마을로는 고창골[高昌洞], 방골[房谷], 심배나뭇골[심리목골 深梨木谷], 안골: 덕골, 태산(兌山), 건네들 등이 있다.

고창 마을은 성산 배씨, 전주 이씨 등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며 현재는 53가구가 살고 있다.

◇ 마을신앙

고창 마을 산제는 마을뒷산 '매밭골' 아래줄기에 있는 소나무에 지낸다. 이곳에는 5~6그루의 소나무가 있다. 제일은 음력 정월 초하룻날 밤 7~8시에 모신다. 제주는 깨끗한 사람으로 1명을 정하며 3일 동안 목욕재계한다. 비용은 가구별로 쌀을 거출한다. 제물은 돼지머리(숫돼지), 삼색실과 등을 준비하며 축문은 따로 없고 가구마다 소지를 올렸다. 이렇게 산제당에서 제를 모신 이후에 마을입구 당산나무에 부부간에 가서 제를 모시는데 이때는 풍물을 울리고, 마을사람 모두가 참여한다. 그런데 고창 마을 산제당은 10여 년 전에 없어지고 말았다. 제가 끊긴 이유는 제주 할 사람이 없어

서이다. 제주로 잘못 지내면 손해를 보며 그렇기 때문에 선뜻 제를 모시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일시: 2003년 10월 5일
제 보 자: 길상선(남·80세) 배영환(남·63세) 이용수(남·68세)

5. 설천면

1) 심곡리(深谷里) 원심곡(元深谷)마을

◇ 마을개관

원심곡 마을은 심곡리(深谷里)에 속한다. 심곡리는 본래 횡천면 지역인데 1914년 심곡(深谷), 배방(培芳), 삼공(三公) 일부를 병합하여 심곡리라 하고 설천면에 편입되었다. 자연마을로 지픈골[深谷], 큰버득[大坪], 배방이[培芳], 관동(冠洞), 등방(登芳), 만선(滿仙), 주막땀 등이 있다.

원심곡 마을은 임진왜란 때 난을 피해 들어온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깊은골'이라 불렸으나 이를 한자화 시켜 심곡이라 부른다. 마을 전체 호수는 50~60호 정도 되는데 본래 살던 사람은 15호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은 최근에 관광지가 되면서 조성된 가구이다.



원심곡마을 산제당 내부

◇ 마을신앙

원심곡 마을 산제는 마을 뒤편 산제당에서 모신다. 산제당 주변에는 바위와 참나무, 소나무 숲으로 되어 있다. 산제당은 아랫부분에 돌을 쌓은 후 그 위에 정면 두 칸·

측면 한 칸 규모로 세웠다. 한 칸은 제물을 준비하는 장소이다. 지붕과 둘레가 함석으로 되어 있다. 둘레에는 금줄이 쳐져 있다. 내부에는 제를 지내던 솥, 시루와 화선지가 꽂힌 금줄이 있다. 내부에는 산신봉사전(山神奉祀殿)이란 신위가 있다. 그리고 왼편에는 산제당을 건립한 최·양·강씨의 기복단(祈福檀)에 적혀 있으며 상량에는 <丁丑十二月十四日梁柱德氏建設紀念>이란 적혀 있는데 정축년은 1937년이다. 이 산제당은 1937년 12월 14일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산제당을 상당이라 하고 마을 입구에 있는 엄나무를 하당이라고 한다. 엄나무는 마을에 잡귀를 물리친다는 신령스러운 나무이다.

제는 음력 정월 보름날 밤 10시쯤에 행하여진다. 제주는 예전에는 깨끗한 사람을 뽑아서 제를 모시다가 요즘에는 돌아가면서 한다. 올해 제주는 박지하씨이고 함께 지내던 분은 김영철씨이다. 비용은 마을기금으로 충당하며 10만원 정도 소요된다. 제물은 떡, 곶감, 대추, 밤, 김 등이며 돼지고기는 준비하지 않는다. 밥은 산제당에서 직접 짓는다. 하당에서는 탕과 밥 등을 간단히 준하여 지낸다. 축문은 따로 없으며 가구마다 소지를 올린다. 다음날에 마을사람들이 함께 모여 논다.

조사일시: 2003년 10월 11일
제 보 자: 박지하(남·71세)

2) 심곡리(深谷里) 대평(大坪)마을

◇ 마을개관

대평 마을은 심곡리(深谷里)에 속한다. 심곡리는 본래 횡천면 지역인데 1914년 심곡(深谷), 배방(培芳), 삼공(三公) 일부를 병합하여 심곡리라 하고 설천면에 편입되었다. 자연마을로 지픈골[深谷], 큰버득[大坪], 배방이[培芳], 관동(冠洞), 등방(登芳), 만선(滿仙), 주막땀 등이 있다.



대평마을 호랑이 바위

대평 마을은 진주 강씨에 형성되었다고 한다. 본래는 호수가 적고 토지가 넓어 '큰번덕'이라 불리다가 대형(大坪)이라 한자화 되었다.

◇ 마을신앙

대평 마을 신앙은 15년 전에 없어졌다. 자꾸 마을 인구수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폐지되었다고 한다. 제를 지낼 당시 2군데서 모셨다. 마을 뒤 산지당 골짜기라 불리는 곳의 정자나무가 있는 곳을 상탕이라 부르고, 마을 좌측편 소나무 숲 돌탑을 하탕이라 불렸다. 상탕과 하탕 2군데에서 제를 모셨다.

제일은 음력 섣달 그믐날 밤 12에서 1시에 모셨다. 공을 들이고 운이 좋은 사람을 뽑아서 지냈다. 보통 제주와 짐꾼 등 2명을 뽑는다. 비용은 마을기금으로 충당하며 보통 20만원정도 들었다고 한다. 제물은 돼지를 통째로 준비하고 삼색실과, 떡, 밥 등을 준비한다. 제는 유교식으로 초헌, 중헌, 종헌 순서로 진행하며 축을 하고 각 호구마다 소지를 올린다. 제는 상탕에서 먼저 지낸 다음 하탕에서 지낸다. 보통 소나무 숲 내 돌탑 앞에서 지낸다. 소나무 숲 속에 호랑이 형상의 바위가 있는데 이 호랑이형 바위 때문에 마을에 호식(虎食)의 피해가 있어 호랑이 바위 앞에 돌담을 쌓고 입에 돌을 넣어 막았다고 한다. 심지어 돌탑을 쌓은 이유는 마을에서 호랑이 바위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조사일시 : 2003년 10월 11일
제 보 자 : 양승철(남·52세)

3) 심곡리(深谷里) 배방(培芳)마을

◇ 마을개관

배방 마을은 심곡리(深谷里)에 속한다. 심곡리는 본래 횡천면 지역인데 1914년 심곡(深谷), 배방(培芳), 삼공(三公) 일부를 병합하여 심곡리라 하고 설천면에 편입되었다. 자연마을로 지픈골[深谷], 큰버득[大坪], 배방이[培芳], 관동(冠洞), 등방(登芳), 만선(滿仙), 주막땀 등이 있다. 배방 마을은 본래 배방(培坊)이라 불렀다. 이는 마을이 작

은 언덕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이후 꽃향기 방(芳)자를 붙여 배방(培芳)이라 한다. 배방 마을은 외배방과 내배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방 마을은 풍수상 배형국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마을에서 우물을 파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한동안 공동우물을 이용하였다. 마을이 형성된 것은 정확히 알 수 없고 김해 김씨, 경주 김씨, 낭주 최씨 등에 형성되었다. 전체호수는 80호 정도 되는데 본래 마을사람은 20호 정도 된다. 대부분은 무주리조트 상가를 이룬다.



배방마을·장승

◇ 마을신앙

(1) 산신제

배방 마을 산신제는 마을 뒷편 당산이라 불리는 소나무 숲 속에 있는 산제당에서 모신다. 본래 산제당은 산제당골이라는 골짜기에 있었는데 6·25이후에 옮겨졌다. 현재 산제당은 정면 두 칸 측면 한 칸으로 함석지붕으로 되어 있다. 제일은 음력 정월 이튿날 밤 11시～12시 사이에 지낸다. 제주는 택일을 보아서 좋은 사람으로 정하며 유사는 따로 정하여 그 집에서 제물을 장만한다. 보통 3사람 정도가 제에 참여한다. 비용은 동네 기금으로 충당하며 제물은 김, 미역, 밤, 대추, 밥, 떡, 돼지머리 등을 준비한다. 전에는 산제당에서 밥을 직접 지었다.

제는 유교식으로 초헌, 중헌, 종헌 식으로 지내며 축문을 읽고 개인마다 소지를 올린다.

(2) 장승

마을 입구에는 4～5년 전에 세운 나무장승이 있다. 남장승은 천하대장군, 여장승은 지하여장군이란 명문이 있다. 소나무로 제작되었으며, 동네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

① 위치 : 마을 입구에 있다.

② 명칭 : 장승

③ 기수 및 재질 : 2기, 소나무
④ 명문 : 오른쪽은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 왼쪽은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인데, 양각을 했다.
⑤ 조성 년대 : 4~5년 전에 세웠다.
⑥ 기능 : 배방 마을 장승은 보름날 저녁에 거리제로 지낸다.
⑦ 조각자 : 김학수, 김영욱

조사일시 : 2003년 10월 11일
제 보 자 : 정상돈(남·60세)

4) 심곡리(深谷里) 관서(冠西)마을

◇ 마을개관

관서 마을은 심곡리(深谷里)에 속한다. 심곡리는 본래 횡천면 지역인데 1914년 심곡(深谷), 배방(培芳), 삼공(三公) 일부를 병합하여 심곡리라 하고 설천면에 편입되었다. 자연마을로 지픈골[深谷], 큰버득[大坪], 배방이[培芳], 관동(冠洞), 등방(登芳), 만선(滿仙), 주막땀 등이 있다.


관서마을·산제당

관서 마을은 본래 관동(冠洞)마을이라고 불렸다. 이는 마을 뒷산인 김해산(金海山)이 주산이고 마을 지형이 마치 유자(儒者)들이 쓰는 정자관(程子冠) 같은 형국이어서 갓관(冠)자를 붙였다고 한다. 현재 70호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는 무주 리조트로 인한 상가가 많아져서 이고 본래 마을 주민은 11호이다.

◇ 마을신앙

관서 마을 산제는 마을 오른편에 위치한 산제당에서 모신다. 산제당은 본래 초가지

붕이었으나 현재는 함석지붕이며 흙벽으로 되어 있다. 내부에는 제기가 놓여있다. 산제당 앞에는 겨자나무(?)란 커다란 나무가 있다. 산제는 음력 정월 열 나흗날 11-12시에 모신다. 제주는 돌아가면서 모셨다. 비용은 마을경비와 찬조를 받아서 했는데 보통 15만원정도 쓰인다고 한다. 제물은 돼지머리, 명태, 삼색실과, 떡, 정종 등이 준비된다. 축문이 있으며 가구마다 소지를 올린다.

그런데 작년에 결의하여 올해부터는 지내지 않기로 했다. 관서마을 전체 호 수는 70호 정도 되는데 본래 주민은 11호를 차지하고 있어 외지에서 온 사람과 분쟁이 생기기도하며 연초가 이 지역에서 민박 등 바쁜 철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산제를 지내지 않기로 결의하여 산제가 중단되었다.

조사일시 : 2003년 10월 19일
제 보 자 : 김희식(남·51세) 관서마을 이장

5) 삼공리(三公里) 보안(保安)마을

◇ 마을개관

보안(保安) 마을은 삼공리에 속한다. 본래 횡천면 지역인데 1914년 삼공리(三公里)일부를 도로 삼공리라 하고 설천면에 편입되었다. 자연마을은 곰살미[공살미 三公里], 당골[月谷], 보안(保安)[포내], 신대(新垈), 오절리(五切里): 五幸里, 금포정이[琴抱亭]등이 있다.

보안 마을은 삼방지간에 피난지지로 합천이씨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현재는 전주 이씨가 많이 살고 있다. 보안은 마을 앞 천을 막았다고 하여 보내(洑內)라 불렸다가 보안(保安)이라 부르게 되었다. 현재는 25호가 살고 있다.



보안마을▪산제당

◇ 마을신앙

보안 마을 산신제는 마을 뒷산에 있는 산제당에서 모셨다. 산제당은 55년 전에 초가로 한 칸 규모의 지었다. 이후 초가지붕은 함석으로 바뀌었다가, 10년 전에 현재의 슬라브 건물이 지어졌다. 현재의 산제당은 3칸의 규모이며 제일 왼쪽은 음식을 장만하는 부엌이고, 가운데 칸이 제를 모시는 곳이다. 오른쪽 칸은 2~3일전부터 기우하는 곳이다. 이곳이 상탕에 해당되고 여기에서 모신 다음 마을 끝에 위치한 느티나무에 모셨다. 이곳이 하탕이 된다.

제일은 음력 정월 초사흗날 남 12～1시경에 모셨다. 제주는 12월말 마을총회에서 상주가 아니고 아프지 않으며, 가정에 아무런 일도 없는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하여 모셨다. 비용은 본래는 전답 1000여 평, 동네 산에서 나온 기금으로 했으나 마을기금에서 충당한다.

제물은 돼지머리를 비롯하여 삼색실과, 나물, 조기 등을 준비한다. 예전에는 돼지 1마리를 준비하였다. 축문은 따로 있고 '이것은 아무개 댁 누구의 소지입니다.'라고 하면서 호마다 소지를 올린다.

다음날 산제 음복을 한다. 그런데 보안마을 산신제는 3년 전부터 모시지 않고 있다. 이유는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제주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수당이 적고, 춥기 때문에 누가 제주를 맡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폐지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사일시 : 2003년 10월 19일
제 보 자 : 김형명(남·71세)

6) 미천리(美川里) 중미(中美)마을

◇ 마을 개관

중미 마을은 미천리에 속한다. 미천리는 본래 풍서면 지역인데 1914년 미천리를 그대로 미천리라 하여 설천면에 편입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미래[미내 美川], 안골[內洞 上美], 웃미래[中美], 아랫미래[下美], 보사골[保沙洞], 장자터[壯子洞], 점말[店村] 등이 있다.

중미 마을은 1960년대 말 산골에 있었던 마을에서 내려오게 되어 형성된 마을이다. 이곳을 본래는 미래라 불리는데, 이는 미래에 좋은 세상이 온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곳은 마을 사람들은 10 승지지로써 피난지라 생각하고 있다.



중미마을 돌탑

◇ 마을신앙

(1) 돌탑

① 명칭과 수량 돌탑이라 부른다. 마을 물길이 빠져나가는 마을숲 속에 1기 있다.

② 외형과 특징

원추형으로 되어 있으며, 2기의 탑윗돌이 올려져 있다.

③ 기능

중미 마을 돌탑은 수구막이 역할을 한다. 소나무와 참나무로 된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또한 마을 앞이 허(虛)하여 조성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방패막이 한다고 한다.

7) 미천리(美川里) 하미(下美)마을

◇ 마을 개관

하미 마을은 미천리에 속한다. 미천리는 본래 풍서면 지역인데 1914년 미천리를 그대로 미천리라 하여 설천면에 편입 되었다. 자연마을로는 미래[미내 美川], 안골[內洞 上美], 웃미래[中美], 아랫미래[下美], 보사골[保沙洞], 장자터[壯子洞], 점말[店村] 등이 있다.

◇ 마을신앙

(1) 돌탑

① 명칭과 수량

돌탑이라 부른다. 마을 물길이 빠져나가는 숲 속에1기씩 있다.

② 외형과 특징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며, 1기의 탑윗돌이 올려져 있다. 허물어진 상태이다.

③ 기능

하미 마을 돌탑은 수구막이 역할을 한다. 소나무와 팽나무로 된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또한 마을 앞이 허(虛)하여 조성된 것이다.

8) 대불리(大佛里) 불대(佛垈)마을

◇ 마을 개관



불대마을 돌탑

불대(佛垈) 마을은 대불리에 속한다. 대불리는 본래 풍서면 지역인데 1914년 불대(佛垈) 북동(北洞)을 병합하여 대불리라 하고 설천면에 편입되었다. 자연마을로는 불대(佛垈), 북동(北洞), 중고개[中峴], 안북동[內北洞], 바깥북동[外北洞], 진벌[長坪] 등이 있다.

불대는 이곳에 큰절이 있었던 대불리라 불리는 자연마을 중 하나이다. 그래서 마을주변에는 불대, 불당골 등 불교와 관련된 지명이 많이 전한다. 마을사람들은 정감록 비결을 믿으며 10승지지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각성바지로 현재 18호 정도 살고 있다.

◇ 마을신앙

(1) 산신제

불대 마을 산신제는 마을 앞 소나무에서 모신다. 제일은 음력 섣달 그믐밤 12시경에 모신다. 제주는 그 해 운을 보아서 생기복덕이 맞는 2분을 선정한다.(제주, 짐꾼) 비용은 마을 기금이 없어서 가구마다 걷는다. 보통 2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제

물은 돼지머리를 비롯하여 떡, 밥, 삼색실과 등을 준비한다. 축문은 따로 없으며 가구마다 소지를 올린다.

(2) 돌탑

① 명칭과 수량

돌탑이라 부른다. 마을 물길이 빠져나가는 소나무 속과 길 한쪽에 1기씩 있다.

② 외형과 특징

소나무 숲 돌탑은 원추형이다. 길 한쪽에 있는 돌탑은 허물어진 상태이다.

③ 기능

불대 마을 돌탑은 수구막이 역할을 한다. 소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또한 마을 앞이 허(虛)하여 조성 된 것이다.

조사일시 : 2003년 10월 11일
제 보 자 : 정이근(남·65세)

9) 삼공리(三公里) 원삼공(元三公) 마을

◇ 마을 개관

삼공 마을은 삼공리에 속한다. 본래 횡천면 지역인데 1914년 삼공리(三公里)일부를 도로 삼공리라 하고 설천면에 편입되었다. 자연마을은 곰살미[공살미 三公里], 당골[月谷], 보안(保安)[포내], 신대(新垈), 오절리(五切里): 五卒里, 금포정이[琴抱亭] 등이 있다.

삼공 마을은 금녕 김씨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현재는 전주 이씨가 많이 살고 있다.



원삼공마을 장승

◇ 마을신앙

(1) 산신제

삼공 마을 산신제는 마을 뒷산에 10년 전에 콘크리트로 지어진 산제당에서 모신다.(1992년 11월 준공 양창모 기증) 산제당에는 주변에는 참나무 숲이 있다. 제일은 음력 정월 초이튿날 12시에 모신다. 제주는 마을에서 궂은 데도 가지 않고 깨끗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2분이 선정된다. 제를 모시는 사람을 '상탕'이라고 하고 제물을 가져다주는 사람을 '하탕'이라고 한다. 비용은 마을기금에서 충당하며 보통 1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제주에게 일당을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 상탕은 30만원, 하탕은 20만원씩 지급되었다. 제물은 돼지머리를 비롯하여 삼색실과, 백설기 등을 준비한다. 제는 유교식으로 지내며 축문을 읽고 성바지마다 소지를 올린다. 그리고 3년 전에 마을주변 양쪽 경계에 세워진 돌탑과 장승에 산신제를 지낸 후 간단히 제물을 장만하여 제를 모신다.

(2) 장승

마을 양쪽에 3년 전에 세운 나무장승 2쌍이 있다. 남장승은 천하대장군, 여장승은 지하여장군이란 명문이 있다. 소나무로 제작되었으며, 동네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

① 위치 : 마을 양쪽 경계에 돌탑과 함께 있다.
② 명칭 : 장승
③ 기수 및 재질 : 4기, 소나무
④ 명문 :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양각을 했다.
⑤ 조성 년대 : 3년 전에 세웠다.
⑥ 기능 : 원삼공 마을에서 산신제를 모신 이후 돌탑과 장승에 제를 모신다.
⑦ 제작자 : 김학수, 김영옥씨가 제작하였다.

(3) 돌탑

① 명칭과 수량

돌탑이라 부른다. 마을 양쪽 경계에 1기씩 있다.

② 외형과 특징

2기 모두 원통형으로 되어 있으며, 탑윗돌이 올려져 있다. 산신제를 지낼 때 금줄을 친다. 금줄을 칠 때 화 선지를 꽂고 한번 정도 둘러맨다.

③ 기능

원삼공 마을 돌탑은 마을의 좌청룡, 우백호의 맥을 잇기 위해서 조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장승과 함께 세워 졌다.

조사일시 : 2003년 10월 19일
제 보 자 : 김동섭(남·57세)

[집필 : 이상훈]

제9절 민간의료[1)]

1. 개관

민간의료는 전문화된 의학에 의하지 않고, 일상생활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약이나 주술적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민간인들이 스스로 그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여 병을 고치는 것으로 예로부터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경험적인 방법에 의해 민간이 스스로 만든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술적인 힘에 의존해서 병을 고치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오랜 경험의 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약물치료 방법은 일정한 체계

1) 본 글은 1994년 무주군에서 발간한 《鄕土文化財誌》에 수록된 제3절 민간의료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글은 1993년 무주군 전역을 조사하고 무주군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민간의료에 의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일정 연령대를 지나면 그와 같은 민간의료가 행해졌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비록 10여 년 전의 글이지만, 다시 전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편집자 주]

가 서 있지 않고 주로 한 가지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주술적 방법은 간단한 주문을 외거나 주부(呪符)를 사용하여 악귀를 쫓아내기도 하며, 길고 복잡한 과정을 가지는 무당의 굿에 이르기에 다양하다. 특히 후자는 약을 사용하여 치료가 잘 되지 않을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주술적인 민간치료 방법은 고대 사회에서 더욱 번성하였는데, 의사보다는 무당을 신봉하여 무의(巫醫)가 악령을 쫓아냄으로써 질병을 치료한다고 굳게 믿어왔던 것이다.

이런 민간의료의 발생은 민간인들의 질병에 대한 사고에서 유래한다. 민간인들은 질병의 발생을 초자연적인 것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왔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알아도 쉽게 낫지 않고 오래 끌거나, 병의 원인을 알지 못할 때 정령에 의해서 옮겨진 것으로 보았다. 즉, 첫째 귀신이 탈을 일으켜 잡귀를 씌웠을 때, 둘째 금기를 위반하여 귀신의 노여움으로 벌을 받을 때, 셋째 어떤 물체가 몸속에 들어왔을 때 병이 생긴다고 보았다. 이런 병을 치료하기 위한 민간의 경험이 축적된 치료방법이 주술의료와 민간 요법이다.

무주에서 이루어진 민간치료 방식은 다른 지방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다른 지방보다 산에서 나는 약초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곳이 산간지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본문에 게재된 내용은 1993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무주군 전역을 탐방하여 조사한 것과 무주군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것을 정리하여 가나다 순으로 수록한 것이다.

2. 주술의료

◇ 눈병이 났을 때 : 해 돋을 때 찔레가시를 떼어서 그 자리에 꽂으며, “여봐라 아목중형격이면, 아봐라 여목중형격이라, 여볼봐라 아목중형격이면, 아불봐라 여목중형격이라”고 한다.

◇ 눈에 쌈(삼) 났을 때 : 옛날에 눈에 쌈 섰을 때는 ‘잡는다’고 그랬다. 찔레나무 가시를 따 가지고 눈에다 꽂으며 ‘쌈잡자’를 3번하고 나무 눈에다 도로 꽂았다. / 그렇지 않으면 고기 그림을 그려놓고, 눈에다 가시를 박고 ‘쌈잡자’라고 한다. / 찔레나

무가 동쪽으로 뻗은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의 눈, 즉 가시를 떼어 가지고 눈 주위를 돌리면서 '가시나무에 가시가 돋지, 왜 사람 눈에 가시가 돋느냐'고 3번 말하고 가시를 떼어낸 자리에 거꾸로 꽂는다. / 삼을 쪄서 껍질을 벗긴 후 갈아서 상처에 바른다.

◇ 눈에 티가 들어갔을 때 : "까치야, 까치야 내 눈에 티가 들어갔구나, 내일 모레 떡을 해 줄테니 티좀 빼주렴"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눈을 두 손가락으로 누르며 오른쪽으로 살짝 돌린다.

◇ 다래끼 났을 때 : 왼쪽 눈 위에 나거든 오른발 발바닥에 천평(天平)을 쓰고 왼쪽 눈 아래 나거든 지평(地平)을 쓰면 곪지 않고 낫는다. 곪기 시작하면 효험이 없다. 발바닥에 '상' '하' 글씨를 써 놓고 잠을 잔다. / 어린 아이의 고추 끝을 다래끼 난 부위에다 문지른다. 발에 '왕' 자를 쓰거나 콩을 단다. / 오른쪽 눈에 다래끼가 나면 왼발에 땅지자를 쓰고, 왼쪽 눈에 나면 오른발에 하늘천자를 쓴다. / 아무도 없는 샘물에서 물을 바라보며 "내 다래끼 빠졌구나"하면 된다. / 손톱, 발톱을 깎고 손톱을 칼로 벗긴다. / 손톱, 발톱에 바늘로 십자가를 긋는다. / 아버지의 머리카락을 뽑아 눈물샘 구멍에 닿게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면 된다. / 삼거리에 돌멩이를 삼각형 모양으로 놓고 다래끼 난 쪽의 눈썹과 콩을 놓아 다른 사람이 차게 한다. / 실을 엄지발가락에 묶는다. / 얼레빗을 방바닥에 문질러 열이 나면 그것을 눈에 대면서 '다래끼 삭카 주시오, 다래끼 삭카 주시오.'하고 빗한테 빈다. / 길에다 솥을 걸어 놓고 누가 가서 고걸 탁 차면 낫는다.

◇ 담에 걸렸을 때는 : 돌담에 가 딱 붙어 서서 '담도 담붙나, 담도 담붙나'하고 담을 쓸어주면 딱 떨어진다.

◇ 도둑잡기 : 고양이를 솥에 넣고 불을 땐 다음 솥뚜껑을 열어 고양이가 뛰어 들어간 집을 의심한다. / 미꾸라지를 잡아 양쪽 눈에 바늘을 끼우면 도둑의 눈이 먼다.

◇ 동티가 났을 때 : (울타리에 있는 나무 - 살구, 복숭아, 밤, 감 등 - 을 잘못 베면 동티가 난다.) 부적을 써서 붙이는데 나무를 건드려서 났으면 목신부(木神符)를 쓰고,



목신부 토신부

흙을 건드려서 났으면 토신부(土神符)를 쓴다. 부적의 생김새는 목신부일 때 다음과 같고 토신부는 목 대신에 토자를 쓴다.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한다. 해가 넘어가면 밥을 해서 문앞에 앉아서 밥, 숯, 고추, 칼로 굿을 한다. “호세이, 발에 따라 죽은 귀신, 못 다 먹고 죽은 귀신, 발끝에 따라온 귀신” 칼등으로 머리를 십자로 친다. 다시 “이 집 대주에 오지 마라” 칼로 열십자를 긋는다. “호세이” 칼을 던진다. 집안으로 향하면서 다시 집밖으로 향할 때까지 바가지하고 칼을 엎어놓는다.

/ 초상집에 갔다가 통티날 때는 진언을 염한다. 그 환자를 방에 놓고 부엌칼을 3개 가지고 “헷세, 성주로 물리는 게 아니라 조상으로 물리는 게 아니라 잡귀, 잡신으로 물리니 쩍 나가지 않으면 이 칼로 목을 베어 대천 한 바다에 무시 가메(마)를 시킬테니 썩 나가거라, 헷세” 하고 말한다. 이렇게 진언치고 나서 “각항지방 심리가 두유여이 이실버 계로이마 필자상 정시우산쟁이신 이십필수 시화(와)라 상구풍전제갈량 육국진승 진시방 혜(세)밀촐대 촐대방 김이서방 제갈량 육국진승 진시방 벽설의리 진서방 기밀촐대 촐대방 기미서방 제갈량 벽설의리 우리주 어명극형 사팔세”하고 귀신 나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조선 복송나무(복숭아나무) 동쪽으로 난 것을 꺾어다가, 3개 두들기면서 ‘어명극형 사팔세’하고 말한다. 계속하면서 나가라고 명령한다. 아픈 사람을 방에 놓고 또는 마당에 놓고 한다. 끝으로 바가지를 깨기 전에 칼을 집어 던지는데, 그 칼끝이 십자골로 나가면 나간 거라고 그랬다. 그러면 물을 거기다 내버린다. [조사자 : 무슨 물을 내버려요?] 밥하고 물하고 소금하고 타 가지고서 그렇게 물이 들어있는 바가지를 들고 복송나무를 들고, 탈 3개를 거기다 담아 가지고서 그래 이걸 물려 갖고, 그걸 내버리고 칼끝이 저기 나가면 내버리고, 십자를 그리고 거기다가 칼을 이래 꼽고 그 위에 바가지를 엎어놓았다. [조사자 :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할 때 바가지하고 물하고 소금하고 밥하고 복숭아나무가지 3개를 준비하여 놓고 하는 거군요?] 칼을 이제 이렇게 +로 그려놓고 그 위에 꼽아놓고 바가지를 그 위에 씌웠다.

제2편 민속 448

◇ 동티를 예방하려면 : 목수가 왼쪽으로 도끼를 세 번 찍어 나무를 베며, 베고 난 후에는 잘린 위에 짚신에다 고추씨나 벼의 방아 찐 껍질을 놓고 불을 붙이면 동티가 안난다.

◇ 두드러기 날 때는 : 화장실 짚을 빼다가(짚은 화장실 문으로 사용했던 가리개짚) 부엌에 갖다 놓고 태운다. 이때 소금을 넣고 빗자루로 쓸면서 '두드러기 쓸자, 두드러기 쓸자'하면서 쓸었다. / 탱자 삶은 물을 먹고 아픔 부위에 바르면 낫는다. 소금을 불에 태워 그 연기를 빗자루에 쐬어 두드러기 난 부분을 쓸어낸다. / 각성받이(김씨, 이씨, 서씨 등) 성이 다른 3집의 초가에서 짚을 변소문에 놓고 태워 연기를 쏘이며, 변소를 쓰는 빗자루로 "두드러기 쓸자. 중도 고기 먹냐, 닭도 고기 먹냐"하며 두드러기 난 사람의 등을 쓸어 주었다.

◇ 마마 걸렸을 때 : 천연두 또 손님이라고 한다. 약이 없고 조상한테 빌기만 하였다. / 꽃이 나면 배선시루를 하고, 시커멓게 물이 잡히면 꽃시루랑 해 주고, 딱지 앉으면 딱지시루를 해 주었다. 떡을 2~3번씩 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힌무리를 하고 세 번째는 팥을 넣고 하였다. 다시 네 번째는 하얗게 하였다. / 왼새끼로 금줄을 쳐 놓고 정월 보름날 디딜방아 훔쳐다가 거꾸로 세워 놓고 고사를 지냈다. 천연두인 이 전염병 들면 그 집에 가지 않을 뿐더러 한 사람이 물도 길어다 주고 못 나오게 한다. 시루떡 해 놓고 '떡 먹고 낫고 걸리지 마라' 했다.

◇ 말라리아(하루걸이) 걸렸을 때는 : 초학 참조.

◇ 목젖이 아플 때 : 동쪽에서 해가 뜰 때 세 번 씩 "목젖 올라라"하면 그 다음날 목젖이 올라온다.

◇ 목이 아프면 : 해를 보고 귀를 두 번 잡아당긴다.

◇ 밤에 대변을 누고 싶으면 : 돼지에게 "돼지야 돼지야! 내 똥하고 네 똥하고 바꾸자"하고 말한다.

◇ 배탈이 나면 : 쌀을 그릇에 담아 보자기로 싸서 배 위를 문지른다.

◇ 뱀에 물렸을 때 : 뱀보다 먼저 그 땅의 흙을 핥아먹으면 뱀이 죽는다.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것을 보고 그렇게 믿어온 것 같다. 하지만 사람이 뱀보다 먼저 흙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독이 퍼지는 것이라고 한다.

◇ 볼거리를 앓을 때 : 볼에 옥색물을 바른다. 파란 물감을 바른다.

◇ 열병이나 장질부사에 걸렸을 때 : 개똥, 돼지똥을 볶아서 먹는다. 그게 열 쳐내는 데 좋았다. 하얗게 된 똥을 주워다가 볶아 천으로 쌀아서 물에다 넣고 끓어 먹으면 낫는다. / 뚫어놓은 계란을 오줌물에 삶아 문구멍으로 주면서 “이것 먹고 너 혼자 그 병 다하고 다른 사람은 주지 말아라”한다. 옛날에는 장질부사 걸리면 다 번지니까 퍼지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

◇ 이빨이 빠지면 : 헌 이를 지붕위로 올리면서 “까치야, 까치야 헌 이 줄께, 새 이 다오”하면 새 이빨이 난다. 아랫니 빼면 아랫 채 지붕에다 던지면서 ‘까치야, 까치야, 헌 이 줄께 새 이 다오’하였다. 또 윗니 빼면 몸 채 지붕에다 던진다.

◇ 입이 돌아갔을 때 : 대추나무 가지를 거꾸로(입이 돌아간 반대) 매달아 놓는다.

◇ 전해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 : 다른 동네에서 디딜방아를 훔쳐 다가 교서방(헛간)에다 거꾸로 세워놓고 ‘올해는 그러지 말라’고 절을 한다. 이것도 방비의 일종이다.

◇ 초학에 걸렸을 때 : 옛날에는 초학을 많이 하였다. 초학은 하루 걸러서, 아침에는 안 아프고 점심때 되면 한축이 들었다. 머리가 아프고 이불을 덮어도 겨울같이 자꾸 춥다고 한다. 초학에 걸린 사람이 자고난 후 초학을 할 날이면 식전에 밖으로 나아가, 누구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우리 콩죽거리 먹었어요”라고 말을 하고, “쫓아 들어 오라”고 하면 나왔다.
초학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1. 저녁에 소등에 태워 동네 밖으로 몰고 다니며 ‘동

네 사람들아, 도둑놈 잡았네, 도둑놈 잡아가라'하고 소리를 지르며 다녔다. 2. 학질에는 자리를 두르고 보자기로 덮어 향불을 맡게 하고 동네 끝에 전봇대에 묶어 두고 아버지는 돌아서 그냥 가 버렸다. 그리고 '도둑놈 잡았다'고 소리치고 갔다. 3. 위의 두 방법을 써도 낫지 않으면 돗자리로 말아 넣어서 마당 가운데에 놓고 소에게 밟으라고 했다. 그러면 소가 사람을 넘어갔다고 한다. 이러한 것은 놀래야 초학이 낫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4. 초학에 걸리면 잠을 못 자게 하고 나가서 돌아다니도록 했다. 5. 낫지 않으면 중이 얻은 시주쌀을 얻어 그 쌀로 밥을 해서 먹으면 나았다. 이때 반찬은 먹지 않는다. / 며느리심은 며느리만 한다고 해서 며느리심이라 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당 가운데에 삼대를 놓고 제대껍데기를 갖다가 열십자로 놓고 바늘을 꼽아 놓았다. / 아픈 사람은 소를 태워서 이 마을을 끝에서 끝까지 돌았다. 돌아 가지고 마당 가운데에 갖다놓고 덥석에다가 둘둘 사람을 말아서 눕혀 놓고서 소를 덕석 위로 세 번 넘어가게 한다. / 병자를 멍석에 말고 소를 가지고 병자를 넘으면서 '송장 밟는다'를 세 번 외친다. / 아침 식전에 아무 묘에 가서 절을 하고 오는 수도 있다. / 화장실에 가서 똥을 곁에 놓고 거기를 핥는다고 혀를 세 번을 대었다. 그러면 욕지기가 막 나오며 구역질하고 나면 놀래서 떨어졌다. / 더러운 동물이 먹다 남은 동물의 뼈를 집 뒤에다가 두면 낫는다. / 묵은 묘(벌초하지 않은 아주 오래 된 묘)에 가서 3번을 구르고 집에 갈 때는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 / 새벽에 산소에 가서 덕새를 넘으면 된다.

3. 민간요법

◇ 가래가 끓을 때 : 인진쑥을 물에 넣고 끓인 후 식혀서 하루에 2번씩 먹는다. / 대추나 인삼을 넣었을 경우엔 상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끓여 준다.

◇ 가스에 중독되었을 때 : 무우 생즙을 먹거나 김치물을 마신다.

◇ 가시가 박혔을 때 : 바늘을 불에 데운 후에 가시를 빼낸다.

◇ 간염의 예방에는 민들레꽃 뿌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려 먹는다.

◇ 간질에 걸렸을 때 : 지랄병이라고 해골바가지를 주워오라고 하였다. 공동묘지에 가면 해골바가지가 있는데 주워 와보니까 그 속에 물이 가득 고여 있어. 그걸 삼베수건에다 싸 가지고 와서, 푹 다려 가지고 그걸 꼭 짜서 먹으라 했다. 간질병에는 그것 밖에 약이 없었다. / 느삼을 삶아서 먹는다. / 송장뼈를 태워서 재를 마시거나 홍백을 몰래 깨다가 끓여서 마신다.

◇ 감 먹고 체했을 때 : 날 된장을 먹는다.

◇ 감기 걸렸을 때 : 몸을 잘 씻지 않고 몸이 튼튼하지 않아서 감기가 쉽게 걸린다. 몸을 잘 씻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몸이 튼튼해지고 감기가 낫는다. / 감 끓인 물을 마신다. / 모과 끓인 물을 먹는다. / 귤껍질 말린 것 삶아서 물을 마신다. / 소금물로 입안을 씻어내고 콧구멍도 씻어낸다. / 연한 감잎을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 다려 먹는다. / 그전에는 밀감 껍데기하고 대나무 잎사귀하고 박속, 진동찰 삶아서 먹고 치한하면은 나았다. 멱넝쿨이나 댓잎을 몇 줄 끓여 차라고 마신다. 돼지 똥물에다 콩과 보리를 넣고 볶아서 헝겊에 싸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먹는다. / 꿩의 발목을 잘라 푹 끓여서 국물을 마신 후 땀을 내며 잠을 자면 효과가 있다. / 돼지똥을 볶아서 그 물을 다려 마신다. / 그전에 감기도 땀이 안나면 돼지 똥을 빻아 가지구 동글동글 환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땀을 푹 낸다. / 생강을 갈아서 넣고, 간장을 두서너 방울을 떨어뜨려 끓는 물을 붓고 마신다. 파대가리 세 개에 엿질금을 넣어 먹인다. / 대추와 생강과 귤 껍질을 적당량씩 넣어 이를 달여 따끈하게 마시고 땀을 낸다. / 콩나물 반 줌(주먹)에 북어 반마리, 파 흰부분 3개를 달여서 따뜻하게 마시고 땀을 낸다. / 모과, 생강, 귤껍질을 설탕으로 재워두고 1~2주일 후에 따라 마신다.

◇ 개에 물렸을 때 : 물은 개의 털(꼬리털)을 베어 태워서 그 재를 상처에 바른다. / 살구씨를 달에 부치거나 개의 골을 먹거나 해삼 마늘을 짖이겨 바르거나 생강즙을 바른다. / 개 꼬리털을 잘라서 된장을 바른다. / 개의 침과 상처의 피를 되도록 많이 짜내고 식초를 바른다. / 물린 개의 털을 불에 태워 재를 바르고 그 곳에 장을 바른

다. / 개의 살을 떼어서 환부에 바른다. / 개 소유의 집 된장을 바른다. / 아주까리 잎을 짖 이겨서 붙인다.

◇ 경기 일어날 때 : 대왕이나 민들레를 찧어서 바른다. / 바늘로 손가락을 따서 피를 낸다. / 호롱불 기름을 세 방울 타 먹으면 낫는다. / 입으로 코를 빤다.

◇ 고양이에게 물렸을 때 : 담배진을 바른다.

◇ 곤충에 물려 피가 나올 때 : 쑥을 찧어서 상처에 대고 약간 누른다.

◇ 곤충에 물렸을 때 :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침을 바른다. / 잇똥을 바른다.

◇ 골병든데 : 똥물을 바른다.

◇ 귀에 물이 들어가면 : 따뜻한 돌로 대면 빠진다.

◇ 귓속에 벌레가 들어갔을 때 : 귓속에 담배연기를 불어넣는다.

◇ 기침 감기에 걸렸을 때 : 기침을 자꾸 하면 무시(무)를 딱 쪼개 가지고 가운데를 파서 꿀이나 설탕을 넣고, 따깥(뚜껑)을 요래 덮어 가지고 불에다 구워 안에 고인 물을 마신다. / 발바닥을 밟으면 좋아진다. / 은행에 설탕을 넣고 달여서 먹는다.

◇ 기침이 날 때 : 돼지 허파를 산추기름에 튀겨 먹는다.

◇ 난산할 때 : 호박을 삶아서 먹는다. / 물이나 미역을 먹고 감을 다려 마신다.

◇ 내중에 걸렸을 때 : 요즘의 암의 일종으로 무우(무)씨를 닭에다가 넣고 해 먹는다.

◇ 농약을 먹었을 때 : 2~3컵의 소금물을 마시게 하고 손가락을 넣어 토하게 한다.

◇ 눈병 났을 때 : 소금물로 눈을 씻어낸다. / 깨를 눈에 넣는다. / 아침에 첫 번 오줌으로 씻는다. / 검은콩을 양파 자루에 담아 문지르면 된다. 이 때 해가 뜰 때 문질러야 한다.

◇ 눈병이 났을 때나 눈에 열이 있을 때 : 머리에다가 찬물 한 방울씩 떨어뜨리거나 수건으로 싸기도 한다.

◇ 눈에 티가 들어갔을 때 : 흐르는 물에 눈을 대고 살며시 눈을 뜨면 티가 빠진다. / 밖에 나가서 침을 다섯 번 뱉는다.

◇ 눈의 시력이 약해졌을 때 : 냉이를 달여서 마신다. / 옛날에는 뽕나무(오돌개)를 많이 먹어야 눈이 밝고, 지금은 결명자 차를 먹어야 눈이 밝아진다.
눈이 아프거나 약해졌을 때 : 뱀의 눈을 빼서 먹는다.

◇ 다래끼가 났을 때 : 생선을 먹지 않는다. / 그 부분은 소금물에 씻어준다. / 처음 가려울 때 얼기빗을 자리에 비비면 열이 나는데 그 뜨거운 것을 눈에 갖다 댄다.

◇ 다리가 저릴 때 : 코에 침을 세 번 바른다.

◇ 다리를 삐면 : 부어 있는 곳에 흐르는 물로 똑똑 떨어뜨리면 낫는다. / 무의 즙을 내어 바른다. / 애기 똥물을 소금에 쪄서 따뜻하게 한 다음 붙인다. / 생지황을 찧어서 붙인다.

◇ 닭고기에 체했을 때 : 흰 복숭아의 꽃, 잎, 줄기를 달여 마신다.

◇ 담배를 태워서 눈이 노란할 때 : 생무를 삶아 먹으면 좋다. 알타리무가 좋다.

◇ 담에 걸렸을 때 : 부추의 흰 부위를 찧어 소주를 넣고 달여서 마신다. / 하늘수박을 술에다 담궈서 마시거나 수나무를 찧어서 마신다.

◇ 더위 먹었을 때 : 쑥뿌리의 즙을 내서 공복에 마신다. / 더위초라는 풀의 원액으로 씻는다. / 찬물에 간장을 타서 먹는다. / 쑥, 육모초를 이슬에 말려 두었다가 찧어서 즙을 내서 먹는다. / 감을 즙을 내서 먹는다. / 대추나무 저자리를 따다가 물에다 뜯어서 마당 가운데 앉아서 갑을 쓴다. / 호박잎을 쪄서 먹는다. / 한 달 동안 꾸준히 쑥즙을 먹는다. / 설탕물을 먹인다. / 닭에다 마늘을 넣어 먹는다. / 대추 잎을 즙을 내어 한탕기의 물에 타서 복용한다.

◇ 데었을 때 : 상처로 덴 부위를 덮는다. / 감자를 긁어 붙인다. / 물집이 생겼으면 담배재와 밥알을 이겨서 종이에 편 다음 환부에 붙인다. / 소의 똥을 덴 자국에다 바른다. / 누에고치를 태워서 그 재를 참기름에 개어서 붙인다. / 오소리 기름을 바른다. / 소주를 이용하여 열을 날려보낸다. / 소다나 붕산연고를 바른다. / 소나무 껍질을 벗겨 말아서 기름하고 바른다. / 간장을 바른다. / 감자를 태워서 참기름과 섞어 바른다. / 밤나무 껍질 또는 대추나무 껍질을 후라이팬에 볶아 빻아서 참기름에 섞어 바른다. / 옛날에는 호박(호박은 안의 그 알맹이 붙은 것)도 긁어 붙이고 무우도 긁어 붙였다. / 치약을 바른다. / 풀을 바르면 물집이 생기지 않는다. / 쑥을 비벼서 대기가 쉽다. / 손을 데면 소금을 꽉꽉 씹어서 칵 뱉어서 바르던지 아니면 간장에다 담그던지 한다. / 황토를 바른다.

◇ 동상 걸렸을 때 : 콩자루 속에 동상 부위를 넣으면 낫는다. / 마늘에 비벼도 된다. / 가지를 삶은 물에 푹 담그면 효과 있다. / 지우초 열매를 찧어 바른다. / 두부 순물을 데워서 동상 걸린 부위를 담구면 된다. / 마늘 잎사귀를 삶아서 그 물에 넣는다. / 따뜻한 물에 소금을 풀어서 동상 걸린 부위를 담근다. / 방금 싼 소똥에 발을 넣는다. / 밀가루를 불에 태우면서 그 속에 발을 넣어 환부에 연기가 스며들게 한다. / 두부로 발을 싼다. / 마늘대, 가지를 삶아서 그 물에 담근다. / 동치미국을 얼려서 동상에 난 곳에 대거나 콩을 옹기에 넣고 발을 넣는다. / 까죽을 삶은 물에 손을 담근다. / 가지나무 대궁을 불에 태워서 물에 넣고 그 물에 담근다. / 감즙을 붙이거나 솜으로 찍어서 바른다. / 세숫대야에 소주와 담뱃가루를 넣어 손을 담그면 된다. / 국화꽃 뿌리를 고아서 그 물로 여러 차례 담근다. / 세수대야 가득히 자갈을 담아놓고 그 위에 발을 놓고 주무른다. / 담배를 넣고 끓인 물에 발을 담근다.

◇ 동티가 났을 대 : 삶은 달걀 1개와 참기름 1숟갈과 화성초 한 뿌리를 먹는다.

◇ 돼지고기 먹고 체했을 때 : 곶감을 삶아 가지고 그 물을 먹는다. / 오래된 새우젖 국물을 먹으면 된다.

◇ 두드러기가 날 때는 : 미나리 생즙을 마시거나 환부를 닦아준다. / 칡을 끓여서 마신다. / 지푸라기에 불을 붙여 소금을 뿌린 후 빗자루를 연기에 넣었다가 두드러기 부위에 쓸어준다. / 수수빗자루에 소금을 뿌린 다음 불에 그을려 두드러기 난 곳을 때리면 낫는다. / 화장실 지붕에 물을 뿌려서 받은 물에 삼베를 만드는 삼나무껍질을 벗긴 제릅(대)을 넣고 삶아 그것을 바른다.

◇ 두통할 때 : 헝겊에 식초를 묻혀 머리에 얹는다. 쭌 딸국질이 날 때 : 감꼭지를 주전자에 끓여 그 물을 마신다. / 물을 물구나무 서서 먹는다. / 숨을 잠시 멈추웠다가 물 한 대접을 단숨에 들이킨다. /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걸고 있거나 재채기를 한다. / 감꼭지 6～10개 정도를 달여서 따뜻한 상태에서 마신다.

◇ 땀띠가 났을 때 : 오이즙을 자주 먹는다. / 가지를 저며서 땀띠 난 부위에 대고 문지른다.

◇ 떡 먹고 체한데 : 엿기름 생즙을 두 스푼 가량 먹는다.

◇ 마마 걸렸을 때 : 뽕나무 뿌리를 캐다가 찧어 먹는다. / 산토끼를 삶아 열치라고 먹인다.

◇ 매독이나 임질에 걸렸을 때 : 해골을 먹어야 한다. / 임질 초기에는 쌀뜨물이 좋고, 물푸리 나무가 좋다.

◇ 매를 맞아 부었을 때 : 인분을 마신다.

◇ 머리가 깨졌을 때 : 된장도 바르고 (생)쑥을 싹싹 비벼서 붙인다. 지금도 손 비었을 때 세 가지 풀을 뜯어다가 찧어서 바르면 낫는다.

◇ 머리에 부스럼이 날 때 : 뒷꼭대기에 부스럼이 나면 발치라고, 노루발을 불에서 구워가지고 지진다.

◇ 머리가 아플 때 : 양손을 맞대고 30번 문지르면 손에 열이 난다. 자기가 아픈 부위를 갖다 댄다.

◇ 멀미날 때 : 바늘로 엄지손톱을 뚫는다. / 여행하기 전에 무우즙 1일 1~2회로 1주일 정도 마시면 효과가 있다. / 엄지와 검지 사이를 세게 누른다. / 손바닥 중앙, 가운데 손가락 두 번째 마디,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누른다.

◇ 멍(얼)이 들었을 때 : 무를 얇게 썰어 환부에 붙이는데 1시간 간격으로 갈아 붙인다. / 침으로 빼거나 계란으로 맛사지 한다. / 인분에 대나무를 박아서 똥물을 받아 마신다. / 계란으로 문지르고 담배꽁초와 소주를 바른다. / 쇠고기를 생으로 붙이면 된다.

◇ 모기에 물렸을 때 : 선인장의 가시를 제거하고 약간의 소금을 쳐서 환부에 붙인다. / 침을 바른다.

◇ 목에 가시가 걸렸을 때 : 목에 생선가시가 걸리면 김치를 먹는다. / 머리 위에 그 가시의 왕가시를 올려놓고 밥을 안 씹고 그냥 넘긴다.

◇ 목이 따끔거리며 아플 때 : 소금물로 헹궈낸다.

◇ 목이 쉬었을 때 : 무즙과 생강즙을 적당히 섞어서 마신다.

◇ 목이 아프면 : 천마 다린 물을 마신다. / 도라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진하게 달여 마신다. / 우엉씨를 달여 이것으로 자주 양치한다.

◇ 몸에 멍이 들거나 골병이 들 때 : 똥물을 변소에서 떠 먹인다. / 나무에 떨어져 골병이 든 사람은 소주병에다 솔잎을 꽂아 변소에 넣어 맑은 물을 뜬다. 그 놈을 채반에다 받쳐서 먹고 뜨거운 방에서 초한을 한다.

◇ 몸에 열이 났을 때 : 행게피 껍데기를 삶아 먹는다.

◇ 못에 찔렸을 때 : 자석을 문지르면 쇠독이 빠진다. / 피를 조금 빼내고 검정콩을 입으로 씹어서 붙인다. / 성냥불로 지진다.

◇ 무좀이 걸렸을 때 : 가지를 삶은 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다. / 소금을 따뜻한 물에 풀어 발을 담그고 있는다. / 식초와 정로환을 섞어서 바른다. / 후추와 오이 자루를 찧어서 같이 물에 섞어 바른다. / 큰 비닐 봉지에 식초를 2~3 방울 붓고 거기에 발을 넣는다. / 버들강아지를 찧어 진을 발라서 치료하거나 까치를 잡아서 삶은 물에 발을 담군다. / 떡과 덩쿨을 삶은 물에 발을 담근다. / 마늘을 강판에 갈아 바른다. / 치약을 발라준 후에 깨끗이 씻어준다. / 등겨 기름을 바르거나 담배를 삶아 그 물로 씻는다. / 비름을 삶은 물에 발을 담근다. / 지우초 삶아서 거기다 담가 놓는다. / 휘발유를 소금에다 묻혀 가지고 바른다.

◇ 물집이 났을 대 : 소독한 바늘로 물을 뺀 다음 밥알을 담뱃재에 개어서 환부에 발라 붕대로 감아 둔다.

◇ 발 저릴 때 : 침을 발하고 코에 바른다.

◇ 배가 아프거나 곽란이 났을 때 : 질경이 뿌리를 찧어 그 생즙을 마신다. / 손가락을 한 군데 따서 피를 나게 한다. / 질경이 뿌리를 삶아 먹는다. / 꿀을 타서 마신다. / 쑥물을 다려 먹는다. / 손바닥만한 납작한 돌을 불에다 달구어 수건에 싸서 배 위에다 올려놓는다. / 쌀을 바가지에 넣고 보자기로 덮어 배를 문지른다. / 화장실 지붕에 쏟은 물을 받아먹는다.

◇ 배가 자주 아플 때 : 소주하고 산딸기를 같은 양으로 병에다 붓는다.(산딸기가 뜰 정도) 그리고 1달 정도 놔두면 술이 발갛게 된다. 이것을 소주컵에 한잔씩 먹는다.

◇ 배탈이 났을 때 : 배탈났을 적에는 소금을 한 주먹 쥐고 낫기 위해서 찬물로 먹는다. / 소다를 먹는다. / 곶감이나 홍시를 먹는다. / 미나리 즙을 먹는다. / 질갱이 뿌리를 캐어다 쪄 먹인다. / 동네 찬물을 뿌리고 소금을 먹는다. / 소다도 먹이고 된장도 풀어 먹이고 했다. / 쑥, 익모초, 질경이 뿌리를 쪄서 즙 내서 먹는다. / 쑥을 찧어서 즙을 내서 먹었다.

◇ 뱀에 물렸을 때 : 백반가루 물에 타서 담근다. / 쑥즙을 발라준다. / 상처의 윗부분을 피가 통하지 않도록 하고 상처부위의 피를 입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빨아낸다. / 익모초 달인 물을 20cc씩 하루 세 번 마신다. / 정신을 차리기 위해 흙을 파서 먹는다. / 미나리를 붙인다. / 흰죽을 바르고 석광꽃을 찧어서 바른다. / 머리카락(달비)으로 독이 퍼지지 않게 묶는다. / 뱀에 물린 곳을 칼로 째고 피를 뺀 다음 끈으로 묶는다. / 또는 사금조각으로 피를 내어 발아 내거나 상처에 돼지비게를 붙인다. / 마른 담배 잎을 담가 놓은 물에 상처를 담근다. / 돼지 배설물을 바른다. / 보리깍지로 뜸질을 한다. / 박속을 긁어서 바른다. / 흰죽을 끓여 물린 부위를 죽에 담근다. / 그리고 돼지 비게를 삶아서 상처에 붙인다.

◇ 벌에 쏘였을 때 : 탱자즙을 바르면 낫는다. / 오줌을 바른다. / 꿀을 바르고 된장을 상처 부위에 바른다. / 암모니아수를 바른다. / 꿀, 된장, 침도 바르고 이똥도 바른다. / 이의대(풀의 일종)를 바른다. / 탱자를 물에 끓여서 몸에 발라준다. / 침은 살속으로 파고드는 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빼면 두드러기 같은 것은 나지 않는다. / 쏘였을 당시 암모니아가 없으면 오줌을 바른다. / 간장, 된장을 바른다. / 벌꿀을 바른다. / 이빨에 낀 물질을 그 주위에 바른다.

◇ 베었을 때 : 쑥을 으깨어 상처에 붙여 놓고 꼭 쥐고 있으면 피가 멈춘다. / 담배진으로 덮고 붕대로 감는다. / 담배를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 잣나무 껍질을 벗겨 감는다.

◇ 복통할 때에 : 질갱이 뿌리 물이나. 추자(호두)를 먹는다. / 쥐선풀을 삶아 먹는다. / 가마솥 밑에 검은 그을음을 물에 개어 먹는다. / 지푸라기 태운 것을 물에 타서 마신다. / 쌀뜨물을 먹으면 된다. / 쑥물과 질경이 뿌리를 찧어서 짜서 먹는다.

◇ 볼거리를 앓을 때 : 꿀을 먹는다.

◇ 부스럼이 났을 때 : 촛농을 대서 치료한다.

◇ 비듬이 생겼을 때 : 밤나무 잎을 말려서 삶은 물로 머리를 감는다. / 양파로 즙을 내어 아침 저녁으로 머리에 바르고 한참 후에 헹구어 낸다. / 복숭아 잎이나 국화잎을 삶은 물에 머리를 감는다.

◇ 빈혈이 있을 때 : 산초기름으로 두부를 튀겨 먹는다. / 냉수욕이나 냉수마찰을 하고, 음식은 달걀흰자·광물질·육류·콩류·과일 등과 딸기 당근을 같은 분량으로 즙을 내서 매일 공복에 마신다. / 돼지 간이나 소 간을 먹는다. / 찔레 버섯 나무를 삶아 먹거나 방개를 먹는다.

◇ 삐었을 때 : 잡아 당기거나 밀가루와 소주를 혼합해서 부기를 뺀다. / 치자 열매를 물에 담가 그 물로 밀가루를 반죽하여 삔데 부친다. / 지황 바른다. / 부엌 안을 파서 빨간 흙 나오면 오줌 찌거리다가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뜨뜻하게 해서 바른다.

◇ 사마귀가 났을 때 : 사마귀를 붙여 놓으면 먹는다. / 거미줄로 감아 놓는다. / 밀가루로 사마귀를 둥글게 감싸고 그 안에 쑥 말린 것을 쪄 넣고 불을 지펴서 없앤다. / 아주까리 열매를 으깨어 바른다. / 율무쌀을 씹어 혹 있는 곳에 바르고 먹는다.

◇ 산모가 입덧이 심할 경우에는 : 호랑이 고기를 구해다 먹으면 차도가 있고 아기가 건강하다.

◇ 상사병에 걸렸을 때 : 짝사랑을 하다가 걸린 상사병에 돼지 똥을 볶아서 그 물을 먹으면 직효한다. 소똥은 안된다.

◇ 상처가 났을 때 : 된장 바른다. / 생알밤을 종기난데 찧어서 붙이고 그랬다. / 심한 상처를 입었을 때는 젖소 뼈가루를 바른다. / 쑥을 찧어 붙여 둔다. / 상처가 곪았을 때는 밥을 으깨서 붙인다. / 쑥을 쪄서 즙을 내 바른다. / 갑오징어 뼈를 갈아서 바른다. / 뿔나무에서 추출한 뿔남철을 붙여 놓는다.

◇ 생손을 앓 때 : 된장을 바른다. / 간장을 끓여서 손을 넣는다.

◇ 설사 났을 때 : 소나무 꽃가루를 물에 개어 먹는다. / 미나리를 찧어서 생즙을 마시거나 곶감을 다려서 먹는다. / 잦나무 잎을 진하게 다려 마신다. / 산버들을 그늘에 말려 먹거나 닭벼슬을 다려 먹거나 곶감을 먹는다. / 사과즙이나 꿀물이나 쑥즙을 식사 대용으로 마신다. / 당근씨를 볶아서 가루 내어 물로 마시든가 당근씨를 진하게 달여서 마신다. / 질경이를 생즙을 내서 먹는다. / 홍시감이나 곶감을 많이 먹는다. / 먹고 체한 음식을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먹는다. / 계란을 삶아서 노른자와 솥 밑바닥 재를 같이 먹는다. / 고기 피창이나 달걀 노른자를 먹인다. / 화정향(꽃화, 곰배정, 향기향)이 좋다. 율무초 뿌리나 돼지 피를 먹는다.

◇ 소변을 자주 볼 때 : 옥수수 수염을 다려 먹는다.

◇ 손가락이 삐었을 때 : 파를 썰어서 식초와 섞어서 아픈 부위에 붙인다.

◇ 손님을 앓 때는 : 떡을 잘 쪄가지고 붙인다. 손님을 앓으면 보릿덩이처럼 얼굴이 툭툭 불거져 나온다. 그 때 덕을 잘 쪄가지고 비선(비손)을 하거나 고사를 하면 딱정이가 없어져서 곰보가 되지 않는다.

◇ 손톱이 곪는 경우 : 뜨거운 된장으로 찜질을 한다.

◇ 술 취했을 때 : 무의 가운데를 파서 꿀을 넣고 게다가 주추(가재), 이를 홍진지 쯤이라 하는데, 시방은 가게라고 하여 넣어 먹는다. / 칡뿌리를 짜서 마신다. / 칡의 꽃을 말려 술 마신 다음에 달여 마시면 더욱 좋다. / 된장을 물에 풀어 먹는다.

◇ 습진에 걸렸을 때 : 복숭아 잎을 찧어서 바른다. / 나팔꽃 씨를 생즙 내서 마신다. / 삼 잎을 달여서 자주 먹는다. / 나팔꽃 씨를 생즙을 내어 바른다.

◇ 심하게 아플 때 : 질경이 풀의 잎을 빠서 즙을 마셨다.

◇ 쐐기에 쏘였을 때 : 쐐기를 죽여서 물린 데에다 올려놓는다. / 쐐기를 잡아 나온 진물을 바른다.

◇ 아기가 비누를 먹었을 때 : 소금물로 헹군다.

◇ 아기가 젖으로 탈이 날 때 : 파뿌리와 엿기름을 젖과 섞어 먹는다.

◇ 아기가 젖이 체하면 : 젖을 호롱불에다 데워서 먹인다.

◇ 아기가 경기를 일으킬 때 : 돼지 쓸개를 삶아서 국물을 마시면 효과가 있다. / 무명지 손가락을 따준다.

◇ 아기를 관장시킬 때 : 문종이를 말아서 꿀을 묻혀 넣는다.

◇ 암에 걸리면 : 느릅나무 뿌리를 캐다가 그것을 삶아서 즙을 먹는다.

◇ 여드름 날 때 : 진달래꽃을 찧어 바른다. / 논에 나는 미나리를 따서 잘 씻은 다음 쪄서 15~30일 정도 바른다. / 복숭아 줄기를 찧어서 붙인다. / 물과 소금을 같이 끓여 수건에 짜서 대면 낫는다. / 치약을 바른다.

◇ 여자가 손발이 찰 때 : 꿀과 인삼을 다려 먹거나 돼지고기를 삶아서 국물을 마신다.

◇ 연탄가스를 마셨을 때 : 김칫국물을 마신다.

◇ 열 내리게 할 때 : 돼지 똥물에다가 콩을 삶아 열내리라고 먹인다. / 돼지 쓸개를 말렸다가 물에 데워서 먹는다. 영사 같은 것도 갈아 먹는다. / 무를 두 쪽으로 잘라 안을 동그랗게 파낸 다음에 서로 덮은 후 재속에다 파묻었다가 안에 고인 무기름을 먹는다. / 추자와 겉보리를 삶아서 다려 마신다.

◇ 염병이 났을 때 : 이불을 덮어서 땀을 낸다. / 변소간에서 오물을 퍼서 담에 바른다. / 얼굴을 내놓고 재워 땀나게 한다.

◇ 오돌이 났을 때 : 빗자루로 불에 데워 오돌이 난 곳을 문지른다.

◇ 오줌사개 : 인삼과 꿀을 함께 먹는다. / 은행을 삶아 먹는다. / 옥수수 수염을 삶아서 그 물을 마신다.

◇ 옻이 올랐을 때 : 계란 노란자와 소나무 껍질을 칼로 벗겨 그 가루를 바른다. / 피비린내 나는 닭과 같은 것을 바른다. / 버드나무로 찜질하거나 들기름을 바른다. / 생살을 갈아 바르고 먹는다. / 생쌀을 씹어서 옻 오를 때 뱉어서 바른다. / 버드나무를 쪄서 연기를 쐰다. / 논의 게를 으깨서 그 즙을 낸 것과 혼합하여 환부에 자주 바른다.

◇ 유리에 찔렸을 때 : 쑥을 쪄서 다친 부위에 바른다.

◇ 이가 시릴 때 : 호두 2~3개 씹어 먹는다.

◇ 이가 아플 때 : 아픈 부위에 치약을 바른다. / 소다를 물고 있는다. / 무우를 물고 있는다. / 마늘을 물고 있는다. / 제비꽃을 찧어서 물고 있으면 된다.

◇ 이를 빼고 피가 나면 : 간장을 머금는다.

◇ 이질 걸렸을 때 : 이점(질) 걸리면 솥 밑의 검댕이를 긁어 가지고 바짝 부숴서 개어서 먹는다. / 개두름나무 껍데기 벗겨서 그걸 바짝 쳐대가지고 태운 재를 먹었다.

정술을 끓여서 설탕과 같이 그런 다음 먹는다. / 익모초를 생즙으로 먹는다. 생마늘과 생미역을 다려 마신다.

◇ 잇몸이 아플 때 : 따뜻한 소금물로 입안을 헹군다.

◇ 입술이 틀 때 : 사과 껍질을 문지른다.

◇ 입이 헐었을 때 : 꿀을 바른다.

◇ 자면서 이를 갈 때 :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이에 물고 있는다.

◇ 잠이 안 올 때 : 머리 위에 양파를 올려놓는다.

◇ 장이 안 좋을 때는 : 맵고 짜게 먹지말고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한다.

◇ 장질부사(머리)에 걸렸을 때 : 돼지똥을 검정콩, 벌과 같이(함께) 볶아가지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그 물을 먹는다. 그걸 먹고 담을 내야지 땀이 안나면 안 낫는다. / 사람똥이나 개똥, 돼지똥을 볶아서 먹이고 땀내는 게 최고다. 이 때 똥을 사기조각에다가 검게 볶은 후에 또아리베에 사서 넣고 바글바글 끓여 물을 먹는다.

◇ 종기 났을 때 : 느릅나무 껍데기 벗겨 찧어서 붙인다. 그 원리가 나쁜 균을 빼낸다고 그랬다. / 밥풀을 으깨 붙인다. / 두꺼비 기름 바르면 낫는다. / 고약을 붙인다. / 느릅나무와 송진을 쪄서 바른다. / 느릅나무 뿌리의 껍데기를 벗겨서 찧어 유리가루와 함께 종기가 난 곳에 붙인다. / 개 쓸개를 환부에 고약같이 붙이고 거즈를 대고 반창고로 고정시켜 하루에 한번씩 갈아붙인다. / 잣나무에 있는 송과 느릅나무 껍질을 붙인다. / 밥 한 수저를 잘 으깨서 상처의 부위만큼 거즈에 묻혀서 붙여준다. / 야생종 딸기를 줄기와 잎을 으깨어 붙여준다.

◇ 중풍에 걸렸을 때 : 다시마를 길쭉하게 길게 썰어서 입안에 물고 있으면 된다.

◇ 쥐가 날 때 : 들깨를 갈아서 명태머리와 함께 고아 국물을 오래 계속해서 마신다.

◇ 쥐에 물렸을 때 : 고양이털을 태워 바른다.

◇ 지네에 물렸을 때 : 밤을 찧어 상처에 붙인다. / 생밤을 씹어서 환부에 붙인다. 뽕잎을 다려 먹는다. / 토란잎이나 박하 잎 혹은 호박잎을 바르면 효과가 있다.

◇ 체했을 때 : 소금에다 된장을 풀어서 마신 후에, 손을 따서 검은 피를 빼 나쁜 것을 내려가게 한다. / 소금이나 소다수를 마신다. / 질경이 뿌리를 즙을 내어 먹는다. / 식초에다 소금을 타서 마신다. / 침을 하는데, 아픈 곳을 입까지 재어서 끝을 보드랍게 해서 입에 넣어 쑤신다. / 양손을 최대한 뒤로 해서 닿는 곳을 친다. 뒤꿈치를 들고 몇 번 들었다 내렸다 하면 된다. / 엄지손가락 손톱 바로 밑을 바늘로 따서 피를 낸다. / 된장을 풀어서 먹는다.

◇ 축농증에 : 목련화 꽃봉오리를 달여서 마시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콧속에 넣어준다.

◇ 충치가 났을 때 : 소금물을 물고 있는다. / 호두를 바늘에 꽂고 촛불에 태운 다음 그것을 충치를 넣는다.

◇ 치질에 걸렸을 때 : 복숭아 가지를 잘라 즙을 내고 환부에 바른다.

◇ 치통, 잇몸이 약할 때 : 차돌을 깨끗이 씻어서 불에 달구어 물에 넣고 그 물로 입안을 반복해서 헹군다.

◇ 치통에 : 아주까리를 호롱불에 지져서 아픈 데다 댄다. / 마늘을 구어 아픈 이에 닿도록 지그시 물고 있는다.

◇ 코가 막혔을 때 : 눈과 코 사이의 길을 손으로 눌러 내리면 막힌 코가 뚫린다.

◇ 코피가 날 때 : 침쑥을 비벼서 콧속에 꽉 끼운다. / 코피가 잦으면 연뿌리를 생즙을 내서 마신다. / 칙백나무 가지나 연근 부리를 다려 먹는다. / 향나무 잎을 달여 먹는다. / 쑥을 뜯어 막는다.

◇ 타박통에는 : 인삼을 삶아 먹으면 잘 풀린다.

◇ 탈모증 : 사과를 갈아 즙을 내어 머리 속에 골고루 바른다.

◇ 토사곽란을 할 때 : 쓴 것, 댄 것을 물에 담가 빨아먹거나 씀바귀를 찧어 먹는다. / 질경이 뿌리를 생즙으로 마신다. / 질경이를 빻아서 먹거나 수수를 생즙을 내서 먹는다.

◇ 티눈이 났을 때 : 마늘 껍질을 벗겨 두께가 3㎜쯤 되게 잘라 티눈이 박힌 부위에 오려 놓는다. 한 번에 10분씩 하루에 세 번 정도 반복한다. / 땡감을 잘라서 붙인다. / 칡즙을 바르거나 먹는다. / 식초를 하루에 한번씩 발라준다. / 죽은 송장의 옷을 잘라서 붙인 후 바늘로 티눈을 찌른다. / 대추를 얇게 썰어서 붙인다.

◇ 편도선이 부었을 때 : 송이버섯을 삶아서 국물을 마신다.

◇ 풀독 올랐을 때 : 박잎을 찧어서 물을 바르면 낳는다. / 소금물에 목욕을 한다. / 호박잎을 바른다.

◇ 풍기가 있을 때 : 풍기란 서른 여섯 가지인데 피순환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혈액 순환을 좋게 하는 뉘를 먹인다. / 미나리를 뿌리 채 뽑아서 깨끗이 씻은 다음 쪄서 즙을 내어 먹는다.

◇ 풍치 : 상치대 말린 것으로 담배를 피운다.

◇ 피가 날 때 : 생쑥 비벼서 대면 안난다. 그 다음에는 된장 대고, 담배재를 묻힌다.

◇ 피가 안 통할 때 : 발바닥을 손으로 두드린다.

◇ 피똥 걸렸을 때 : 개가죽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그 속의 하얀 것을 벗겨 그냥 말렸다가 빻아서 먹인다.

◇ 해충이나 독충에 물렸을 때 : 담뱃재를 물이나 침에 묻혀서 물린 자리에 붙인다.

◇ 허리가 아플 때 : 뱀(능사) 술을 먹는다.

◇ 허리를 삐었을 때 : 맨드라미를 소주에 3개월 간 담갔다가 식후 즉시 소주잔으로 한 잔씩 마신다.

◇ 허할 때 : 인진쑥이나 익모초를 다려서 마신다.

◇ 혓바늘이 돋을 때 : 백반을 태워서 넣으면 낫는다.

◇ 홍역에 걸렸을 때 : 도랑의 가재를 잡아서 생으로 찧어서 먹거나 토끼 똥을 삶아서 먹기도 했으며, 토끼 꼬리도 삶아서 먹는다. 그래도 낫지 않으면 찔레나무(가시나무)의 빨간 열매를 따다가 진하게 삶아 먹으면 기침이 멎었다. / 산토끼를 삶아서 먹거나 토끼 똥을 구어서 해열제로 쓴다. / 산토끼를 삶아 열치라고 먹인다. / 가재를 잡아다가 찧어 먹인다. / 산에 가서 산토끼 똥을 삶아서 그 물을 먹이면 된다. /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을 홍역 걸린 애한테 던지면 벌떡 일어난 적도 있다.

◇ 홍진이 났을 때 : 토끼 똥이나 간을 볶아서 먹는다. / 토끼 간, 똥을 말려 끓여서 마신다.

◇ 화장실에 빠졌을 때 : 화장실 안에서 빵을 먹는다. / 떡을 해 먹고 그 떡을 화장실에 가지고 가서 빈다.

◇ 황달에 걸렸을 때 : 기래방, 인정수, 흰들국화, 조판나무를 삶아서 물을 마시면 좋다.

◇ 회충이 있을 때 : 석유도 먹고, 약초중에 산에 나는 쓴 것을 먹인다.

〔정리 : 무주향토사연구회〕

제10절 무주의 풍수(風水)

Ⅰ. 머리말

무주의 풍수는 무주군 1읍 5개 면의 마을풍수를 중심으로 하여 풍수와 관련된 형국론 및 풍수와 관련된 전설, 민속신앙 대상물이면서 풍수와 관련되는 돌탑, 선돌, 마을 숲 등을 정리하고 그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풍수지리사상은 우리 겨레의 전통지리학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연관이 잘 나타나 있는 경험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음양론(陰陽論)과 오행설(五行說)을 기반으로 주역의 체계를 주요한 논리구조로 삼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전통 지리과학으로 추길피흉(追吉避凶)을 목적으로 삼는 상지기술학(相地技術學)이다. 이것이 후에 효(孝)의 관념(觀念)이나 샤머니즘과 결합되어 이기적 속신(俗信)으로 진전되기도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일종의 토지관(土地觀)의 표출이라고 말할 수 있다.[1)]

그런데 우리 민족은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독특한 풍수를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비보풍수(裨補風水)이다. 비보(裨補)란 자연적 성국(成局)의 결처(缺處)를 보(補)하여 인위적으로 길국(吉局)을 형성하는 것으로 인간이 자연환경과 상생(相生) 조화관계를 맺으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전통지리사상이다. 즉 비보풍수는 결함이 있는 땅을 명당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명당 개념은 물질적 정신적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무주지역에서 비보풍수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마을 풍수 유형을 정리하고 그 특징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무주지역의 마을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풍수에 대한 의식은 비보관념이 매우 잘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즉 없앴던 마을 숲을 다시 조성한다든지, 탑을 다시 세운다든지 하는 모습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는 《한국의 풍수사상》, 《한국의 자생풍수 2》 최창조, 《무주군지》, 《내 고장 전설집》, 《향토문화재지》(이상 무주군), 《적성지》(천·지·인) 무주문화원, 《조선의 풍

1)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71~74쪽

수》 촌산지순 등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본 연구는 무주지역 풍수의 유형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나타난 특징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Ⅱ. 비보(裨補)·진압(鎭壓) 풍수(風水)

1. 비보·진압 사상

비보(裨補)란 무슨 뜻인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도와서 모자람을 채운다는 뜻이 된다. 이를 좀 더 쉽게 풀이해 보면 보허진압(補虛鎭壓), 즉 허(虛)한 곳을 보충하여 주고 강한 곳을 눌러 준다는 뜻이 된다. 세상에는 결함이 없는 자리란 없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지세(地勢)의 허결(虛缺)함을 방비, 보충, 변경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있는데 이것이 풍수비보설(風水裨補說), 비보사상(裨補思想)이다, 풍수비보설(風水裨補說)에 관해서 최창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2)]

비보사상(裨補思想)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풍수적 사고방식에 기초를 둔다.

첫째, 인간이 정혈처(定穴處)를 차지하면 그는 지적(地的) 생기(生氣)의 이득을 얻는다.

둘째, 지적(地的) 생기(生氣)는 인간에 의해 파괴 될 수도 있고 복구 될 수도 있다.

셋째, 지적(地的) 생기(生氣)는 집중적으로 취주(聚住)한 완벽한 자리란 없으나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그 자리의 결점을 극복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보의 예는 허결(虛缺)한 장소나 사탑(寺塔)을 쌓거나, 가산(假山)을 쌓거나, 큰 돌을 세우거나, 시장이나 도로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쓰이고 있다.

비보대상물은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해 보면[3)]

1) 비보물의 유형별 분류

① 가산(假山)비보 : 선돌, 돌무더기, 탑, 솟대, 당간 등을 가산으로 본다, 탑은 사찰의 주요 비보 수단으로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토착화되었다.

---

2)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서해문집, 1993, 318~320쪽

3) 최창조 외, 《풍수, 그 삶의 지리, 생명의 지리》, 푸른 나무, 1993, 79~80쪽

② 동수(洞藪)비보 : 우리나라 촌락의 앞면 혹은 서측의 강변, 평지, 낮은 언덕에 송림 혹은 잡목이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동수라고 한다. 동수는 홍수를 방지하고 방풍(防風)과 장풍(藏風)을 하고, 지형의 흉상을 막거나 수구막이의 비보림(裨補林)으로서 기능을 가진다.

③ 지명(地名)비보 : 이름으로 땅의 부족함을 보충한다.

2) 비보압승의 기능별 분류

① 수구(水口)막이 : 수구가 허하여 지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비보(裨補)한다.

② 화기(火氣)방어 : 앞산의 강한 화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하여 연못, 해태 등으로 압승(壓勝)한다.

③ 방위(方位)비보 : 장승 등으로 방위의 허(虛)함을 비보(裨補)한다.

3) 비보의 대상별 분류

① 산천(山川)비보 : 국가 왕업의 흥망을 지덕의 성쇠가 좌우한다고 하여 산천에 절이나 불상, 탑 또는 장생표를 세워 지맥을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② 마을비보 : 마을의 위치를 볼 때 세 방향은 산으로 둘려 싸여 있고 한쪽은 물이 흘러가는 수구로 되어 있는 것이 흔히 있는 지형의 형국이다. 수구(水口)가 터져 보여 허(虛)한 곳은 나무를 심거나(동수) 산을 만들어(조산) 마을을 보호하였다. 길 양쪽에는 수구막이로 벅수나 장승을 세웠다.

③ 사찰(寺刹)비보

2. 무주지역 비보·진압 풍수

무주지역에서 나타나는 비보와 진압풍수의 예는 수 없이 많다. 풍수사상이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다. 여기에서는 무주지역에 나타나는 비보(裨補)·진압(鎭壓) 풍수의 예를 제시하고, 특히 민속신앙물과 관련된 풍수비보사상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비보풍수(裨補風水)

마을 입구가 터져 있어 수구 막이로 마을 숲이나 돌탑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무주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마을 숲, 돌탑 등이 대표적인 비보책(裨補策)이다. 이중 돌탑은 안성면과 설천면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무주지역 마을에서 배 형국이 가장 많이 등장한다. 배 형국 마을에서는 우물을 파면 마을이 망한다. 또는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속설이 있다. 배 형국인 마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위에 물이 흐르고 있다. 이 경우에 수해를 입을 소지가 많다. 그래서 수해를 방지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배 형국인 경우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돛대 역할을 하는 짐대를 세운다. 이 경우 '돛대'라고 칭한다. 배가 떠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닻을 설치하기도 한다.



무풍면 증산리 사동 마을 돛대나무

무풍면 증산리 사동 마을[4]은 배혈인데 마을 아래쪽으로 커다란 미루나무가 있다. 이 미류나무를 '돛대나무'라 부르고 있다. 배가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돛대가 필요한데 이는 마을이 배혈이기 때문에 마을이 잘 되기 위하여 미류나무를 심고 '돛대나무'라 불렸다고 한다.

2) 진압풍수(鎭壓風水)

무풍면 철목리 묘암과 지성리 서동 마을[5]에서 흥미로운 풍수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철목리 묘암(猫岩)마을은 마을 뒷산에 고양이 형상을 하고 있는 '괘바우'가 있고 남대천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 지성리 서동(鼠洞) 마을 뒷산에는 '쥐바우'가 있다. 그래서 서동(鼠洞), 서수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4) 무주군, 《내 고장 전설집》, 1992, 60-62쪽
5) 무주군, 《내고장 전설집》, 1992, 164-169쪽



무풍면 철목리 묘암마을
(오른쪽 산속에 괘바우가 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진안군 용담면 호미동[6]에서도 전하는데 호미동 마을 앞에는 주자천에 흐르고 냇가 건너편에 괘바우(고양이)가 있고 호미 동쪽에는 쥐바우가 있다. 예전에는 징검다리로 건넜다. 이후 와룡교가 건설되면서 마을에 재앙이 생기자 그 원인을 고양이가 마을에 건너와 해코지 한다고 생각하여 다리 입구에 호랑이 상 2마리를 세웠다.

이와 관련하여 묘암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마을 맞은편 호랑이 바위가 마을에 비추기 때문이라하여 마을사람들이 범바위를 부수자 마을은 안정을 되찾았으며, 서동 마을도 묘암 마을과 다리를 놓은 이후 마을이 쇠퇴해지자 서동(鼠洞)에서 호미서(鋤)자를 사용하여 서동(鋤洞)이라 바꿔 부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풍수상 오수부동격(五獸不動格)이라 하는데 오수부동격(五獸不動格)은 다음과 같다. 이는 개성의 지형인데 개성의 만월대가 풍수적으로 노서하전형(老鼠下田形)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남산이 그 늙은 쥐의 아들 쥐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래서 아들 쥐가 부모 품을 떠나면 부모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서 자남산 앞에 고양이를 세워 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만 한다면 고양이 앞에 쥐 같은 형세라 쥐가 불안해할 것이다. 따라서 고양이를 견제할 개를 만들고 개를 제압할 수 있는 호랑이를 세우며 호랑이가 마음 놓고 날뛰지 못하도록 코끼리를 만든 것이다. 한데 묘하게 코끼리는 쥐를 무서워한다고 한다. 이렇게 다섯 동물이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모두 안정을 위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오수부동격비보책(五獸不動格裨補策)이다.



무풍면 지성리 서동마을

6) 이상훈, 《진안의 마을신앙》, 진안문화원, 1998, 187-188쪽

3) 민속에 나타난 풍수비보사상

민속신앙물 장승, 짐대(솟대), 선돌, 돌탑, 당산나무(마을 숲) 등에서 나타난 비보사상(裨補思想)을 찾아보자.

① 장승

장승은 마을이나 사찰 입구에 나무나 돌로 세워 놓은 것인데, 상부에는 사람 얼굴이나 귀면의 형상을 그리거나 조각하고 하부에는 천하·지하대장군, 상원주장군, 하원당장군 등의 명문 또는 이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민중신앙의 물질적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명칭은 역사적 문헌에는 장생표주(長生標註), 국장생표주(國長生標柱), 생(牲), 후(候), 장승(長丞), 당승, 장성(長城), 장신(長新) 등의 기록이 있으며 지역과 문화에 따라 장승, 벅수, 우석목 등 다르게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그 형태는 귀면괴이(鬼面怪異), 미륵형(彌勒形), 문무관(文武官) 등이며 장소에 따라서 마을장승, 사찰장승, 공공장승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 기원은 링가(linga) 숭배설, 퉁구스 기원, 남방 벼농사 기원,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고유민속 기원설(성황단, 선돌, 누석단에 기원했다는) 등이 있다. 장승은 민중의 수호신으로서 신앙되고 있으며 당산제에 있어서 하위신격으로 신앙된다.

무주지역에서 풍수비보적인 기능을 갖는 장승은 무주읍 왕정 마을과 무풍면 사동 마을 장승이 대표적인 예이다. 왕정 마을 장승은 마을입구 숲 속에 마주하며 자리잡고 있다. 마을의 수호신이다.



왕정마을 장승



사동마을 장승

② 짐대

짐대는 가늘고 긴 나무나 돌 윗 부분에 새를 한두 마리 올려놓고 단독으로 세우거나, 장승과 함께 마을 입구나 신성한 장소에 세워 마을의 액운을 방지하고, 마을을 수호하는 신으로 신앙화된 민속 신앙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명칭은 짐대, 진대, 거오기, 수살막이대, 까마귀, 철통, 솟대, 솔대, 별신대, 영동대, 화줏대, 거릿대, 오릿대, 볏가릿대 등으로 전해진다.

짐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마을액막이(마을수호, 화재예방, 풍농, 풍요, 기자 등을 위해서 세우는 짐대)
* 마을이 행주형(行舟形) 지세에 세우는 짐대
* 급제를 기념하기 위한 짐대

여기에서 비보(裨補)와 관련하여 세우는 짐대는 배 형국인 경우에 해당된다. 배 형국인 마을에서는 마을 내에 어떠한 우물도 파지 않는다. 우물을 파게 되면 배가 침몰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마을에 액운이 끼인다는 생각에서이다. 그래서 배 형국인 마을에서 짐대를 세우는 것은 배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함이며, 이는 곧 마을의 안정과 풍요를 비는 것이다. 무주군 에서는 읍내 산의 마을에서 짐대를 볼 수 있다.

③ 선돌

시장을 개설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기(地氣)의 기승함을 누르는 것과 같이 큰 돌을 놓아 지기의 흩어짐을 막는 경우가 많다. 선돌은 풍수에서 형국이 뱀 형국인 경우에 세우는 경우가 많다. 즉 뱀 형국인 경우에 좋지 않다고 하여 뱀의 머리 부분에 뱀의 기(氣)를 누름으로써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마을 앞이 허(虛)한 경우에 이를 비보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경우가 많다. 안성면 장기리 하이목 마을에서 2기를 볼 수 있다.



안성면 장기리 하이목 마을 입석

④ 돌탑

보통 우리가 연상하기에는 고개에 돌무더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을 서낭당이라



수락마을 돌탑



주고마을 돌탑



내창마을 돌탑

고 하는데 마을입구에 형성된 돌탑은 마을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의식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을 말한다. 조산, 조탑, 돌산, 탑거리 등 여러 명칭으로 불려지는데, 이러한 탑들은 보통 마을 입구가 허(虛)한 경우에 세워진다.

그래서 인공적인 산이라는 상징성을 담아내기 위해서 조산(造山)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특히 허(虛)함을 메우기 위하여 탑을 서너 개씩 일정한 방위에 맞추어 세운다. 남원, 진안, 장수, 임실, 무주, 순창 등 전라북도 동부 산간지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무주군에서 돌탑이 나타나는 지역은 무주읍내는 굴천 마을 비롯하여 안성면 수락마을, 정천마을, 원사교마을, 주고마을, 갈마마을, 명천마을과 설천면 중미마을, 하미마을, 외북마을, 불대마을, 대평마을, 원삼공마을 그리고 적상면 내창마을 등에서 볼 수 있다.

특히 돌탑은 방위를 맞추어 조성되는데 보통 위치는 마을의 주맥(主脈)과 이어지는 지점, 마을의 수구막이 지점, 우백호, 좌청룡 맥이라는 지점, 마을 앞이 허(虛)한 지점이다. 이와 같이 돌탑의 위치를 고려하면 돌탑의 조성은 풍수지리적 측면에서 조성되었음을 말할 수 있다.

⑤ 마을 숲

마을 앞에 형성된 숲이 비보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마을 앞이 허(虛)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상당한 큰 규모의 숲이 형성된다. 무주읍 왕정 마을, 적상면 길왕, 서창 마을 등에서 볼 수 있다.



서창마을 마을 숲

Ⅲ. 고을풍수

1. 무주현(茂朱縣)



북고사 탑



북고사 탑(새로 조성한 탑)

무주현의 진산(鎭山)은 현 북쪽 1리에 있는 노산(爐山)이다[7]. 흔히 향로산(香爐山)이라 불린다. 향로산은 삼도봉으로부터 내려와 읍의 주맥(主脈)을 이룬다. 즉 향로산이 무주읍의 진산(鎭山)인 것이다. 여기에서 진산(鎭山)은 고을이나 마을의 후면(後面)에 위치한다. 그래서 고을이나 마을의 좌향(坐向)이 남면(南面)이기 때문에 진산은 고을이나 마을의 북(北)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진산은 고을이나 마을을 진호(鎭護), 표상(表象)하는 바와 같이 상징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멀리서도 취락을 대표할 수 있는 수려 장엄한 산세의 산으로 이루어진다. 진산의 의미성은 그것이 방어나 계절풍과의 관계에 의한 합리적인 이유 이외에도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고을이나 마을 입지에 대한 특이한 풍수사고의 표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향로산이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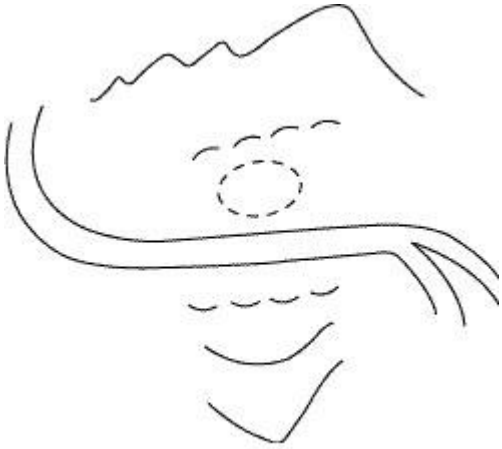
그런데 향로산이 너무 동편에 치우쳐 있어 북쪽의 능선이 너무 허(虛)하니 향로산 북쪽에 있는 경월사에 탑을 세우고 절 이름을 북고사(北固寺)[8]라 바꾸어 부르고 이곳에 오층석탑을 세웠다. 이 북고사는 무주의 비보 사찰이고 오층석탑은 비보탑인 셈이다. 향로산의 기운이 현재의 무주초등학교로 타고 내려와 무주군청에 명당판을 형성시켜 놓았다.

무주현의 명당수는 적천(赤川)이다.[9] 적천은 대덕산(大德山)과 덕유산(德裕山)에서

7) 김경석 편저, 《무주지》, 무주문화원, 2001, 87쪽, 122쪽
8) 무준군, 《향토문화재지》, 1994, 158쪽과 《내고장 전설집》, 1992, 82-83쪽

흘러나와 객관(客館) 앞을 지나 금산군 경계로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적천(赤川)은 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남대천이다.

안산(案山)은 남산(南山)다. 안산은 이름 그대로 주산의 책상이다. 조산(朝山)은 적상산에 해당된다. 적상산은 견고한 산으로 조산(朝山)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무주부 지도를 보면 예로부터 조산인 적상산을 매우 중히 여긴 것으로 생각된다. 무주현청 보다 오히려 적상산내가 화려하게 그려진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주현 풍수도

이렇듯 무주현은 전형적인 명당판이 형성된 구조인데 특히 북오층석쪽이 허(虛)하여 북고사(北固寺)와 탑을 쌓아 이를 비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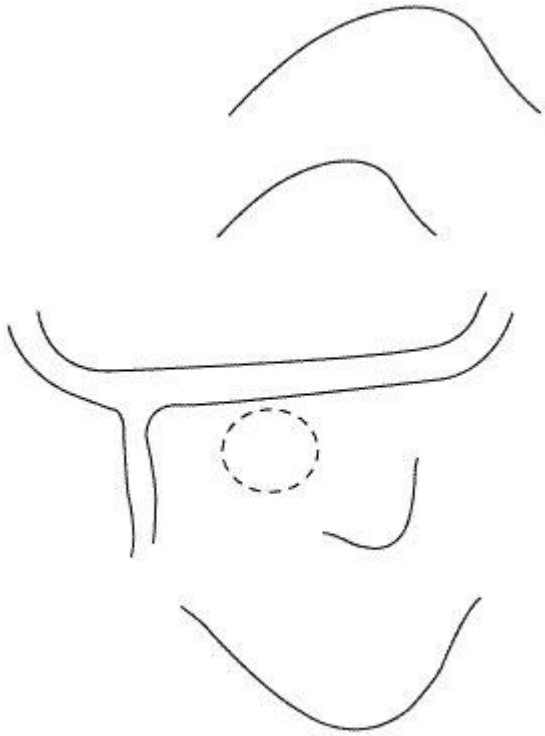
형국론적으로 무주는 행주형(行舟形)이다. 전칠둔산(前七屯山) 후칠둔산(後七屯山)이 있어 읍기(邑基)가 배를 띄운 것 같은 모양이므로 읍내리에는 부자가 전해지고 있다.



〈사진13〉 무주부고지도

9) 김경석편저, 《무주지》, 무주문화원, 2001, 89쪽, 124쪽

2. 무풍현(茂豊縣)



무풍현 풍수도

무풍현은 신라 때 무산현(茂山縣)이라 불렸다. 무풍현의 진산에 관한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 추측 할 따름이다. 무풍현의 진산은 흔히 남향으로 자리 잡는다면 백운산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舊)면사무소와 현재 장터 뒤에 '명례궁'이라 하여 민병석이 남사고의 예언에 따라 국가 변란 시 피할 수 있는 궁(宮)을 지어 국가에 바쳤다고 한다. 그러나 후에 민병석에게 되돌려졌고 이를 이장우에게 팔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명례궁은 해방 이후 철거되었다고 한다. 명례궁은 '궁상집'이라 불렸다. 현재는 마구간을 했던 집과 주춧돌만 보일 뿐이다. 그래서 백운산 아래에 자리잡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무풍현의 진산은 백운산보다는 대덕산 줄기에서 뻗어 나온 줄기가 훨씬 진산으로써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무풍현의 진산 대덕산

특히 최근에 국무총리와 국회의원의 출신이 대덕산 줄기인 사동, 석항 마을인데 이점이 더욱 대덕산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대덕산 줄기는 '당곡재'라 일컫는 줄기까지 이어져 현재 무풍초등학교에 명당판을 형성시켜놓았다. 명당수는 백운산에서 출발한 적천이며 안산은 '삿갓봉'이라 말할 수 있다.

무풍현의 진산을 대덕산으로 하면 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된다. 진산의 위치가 일반적으로 남향이 많으나 북향인 경우도 있다. 즉 현의 남쪽에 진산이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무안현의 승달산, 제주목의 한라산, 순천도호부의 인제산, 곡산군의 남산 등이 그 예이다.

3. 십승지지(十勝之地)[10)]

병화(兵火)와 흉년(凶年)이 없는 피난(避難)·보신(保身)의 땅을 일컬어 십승지지(十勝之地)라 한다. 십승지지(十勝之地)는 민중의 풍수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병난(兵難)과 흉년을 벗어나 보자는 생각은 대부분의 민중이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었다.

감결에는 "보신(保身)할 땅이 열이 있으니 첫째는 풍기·예천이요, 둘째는 안동의 화곡(華谷)이요, 셋째는 개령(開寧)의 용궁(龍宮)이요, 넷째는 가야(伽倻)요, 다섯째는 단춘(丹春)이요, 여섯째는 공주의 안산심마곡(安山深麻谷)이요, 일곱째는 진목(鎭木)이요, 여덟째는 봉화(奉化)요, 아홉째는 운산봉두류산(雲山峰頭流山)이요, 열째는 풍기의 대·소백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풍기(豊基)의 금계촌(金鷄村), 안동(安東)의 춘양면(春陽面), 보은(報恩)의 속리산(俗離山), 운봉(雲峰)의 두류산(頭流山), 예천(醴泉)의 금당동(金堂洞), 공주(公州)의 유구(維鳩)와 마곡(麻谷), 영월(寧越)의 정동상류(正東上流), 무주(茂朱)의 무풍동(茂豊洞), 부안(扶安)의 변산(邊山), 성주(星州)의 만수동(萬壽洞)을 일컫는다. 여기에서 무주 무봉산(舞鳳山) 북동방상동(北銅傍相洞)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무풍면에 방상동이란 지명이 현재는 남아있지 않으며 유사한 지명은 방곡, 덕동 등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무봉산이란 지명도 남아있지 않다.

흔히 이러한 십승지지는 일반적으로 방어상, 피난지로서의 유리성을 가진 지역인데, 무주는 어느 곳이나 이와 같은 곳에 부합되는 곳이다. 특히 무주에서는 설천면의 대불리와 미천리, 그리고 무풍면 전체가 십승지지에 해당하는 형세이며, 그 지역사람들도 이를 강하게 믿고 있다.

---

10)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314-328쪽

Ⅳ. 마을풍수[11)]

1. 무주읍

1) 가옥리(佳玉里)

◇ 주동(珠洞) 마을

마을 뒷산인 무월봉(舞月峰)이 사자 머리와 같다고 하여 '사자(獅子)골'이라 부르고 마을은 사자 꼬리 부분에 위치한다고 하여 '사직골'이라고 불렸다. 마을 서쪽 마향산(馬香山)으로부터 흘러내린 능선이 마을을 좌우로 싸안고 있어 마치 조개 속의 진주와 같은 형상이라 하여 주동(珠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2) 당산리(堂山里)

◇ 당산마을

서쪽입구에 탑이 있었다. 이 탑은 풍수에서 흔히 마을 지세 허결처(虛缺處)를 비보(裨補)하기 위하여 세웠다. 화산은 당산 북쪽에 있는 산으로 화심혈(花心穴)에 해당한다. 마을입구에 버드나무 숲이 있는데 이곳을 '숲거리'라고 부른다. 마을의 수구(水口)막이 역할을 한다.

3) 읍내리(邑內里)

◇ 무주읍내[12)]

예로부터 무주읍내는 행주형(行舟形)이다. 전칠둔산(前七屯山), 후칠둔산(後七屯山)이 있어 읍기(邑基)가 배를 띄운 것 같은 모양이므로 읍내리에는 부자가 많다고 전해진다.

---

11) 무주군 마을풍수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창조, 《한국의 자생풍수2》,민음사, 1997, 무주군 부분을 참고하였다.

12) 촌산지순 저, 최길성 옮김, 《조선의 풍수》,민음사, 1990, 620쪽

◇ 한수(寒水) 마을

한수골은 예로부터 찬물이 나오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 한수골은 향로봉 남쪽에 위치하는데, 조선 초 무학대사가 무주읍 지세를 보고 북쪽이 허(虛)하다고 하여 탑을 세우고 절을 짓게 함으로써 건립하였다는 북고사(北固寺)가 있다.

4) 오산리(吾山里)

◇ 오산(吾山) 마을

오산이라 부르게 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전한다. 무주읍내로부터 오리가 떨어져 있다는 설과 산의 모양이 큰 자라와 같다고 하여 오산(鰲山)이라 했다고도 한다. 또한 마을에 선비들이 많아 항상 글 읽는 소리가 끈이지 않아 오무(吾茂)라 불렸다고 하는데, 지금도 '오무들'이 있다. 그리고 마을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있다 하여 오산(五山)이라 한다. 다섯 개의 봉우리는 생주골, 디컷디, 수대작골, 아랫동산, 용두산 등이다. 마을에서는 객지에서 온 사람이 부자가 되어 나간다는 속설이 있다.

오산에서 설천으로 가는 방향으로 용두산 맥이 일제에 의하여 끊겨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용두산 맥이 잘린모습

◇ 왕정(旺亭) 마을

옛날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 마을지세를 보고 부촌이 될 좋은 마을이라며 이곳에 나무를 심어 가꾸게 하고 이름을 왕정이라 하게 하였다. 지금도 마을입구는 정자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다. 이는 마을 숲으로 마을의 수구막이 역할을 한다. 마을 숲 속에는 2기의 장승이 있다.

5) 용포리(龍浦里)

◇ 잠두(鰲頭) 마을

잠두 마을 뒷산인 조항산(鳥項山) 능선이 일곱 개의 봉우리로 마치 누에와 같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속설에 의하면 뽕나무 숲이 있으면 기운이 성해서 발복(發福)한다는 설이 있다.

6) 장백리(長白里)

◇ 진사산(眞絲山)

비덕산 북쪽에 있는 산이다. 이곳에 옥녀가 가야금을 타는 옥녀탄금혈(玉女彈琴穴)이 있다고 한다. 흔히 옥녀탄금혈(玉女彈琴穴)에서 옥녀는 유예(遊藝)에 숙달한 여자를, 금(琴)은 악기를 의미하는데 지형에 소응(昭應)하면 대대로 인재 또는 과거급제, 부자가 나온다는 설이 있다.

2. 무풍면(茂豊面)

1) 금평리(金坪里)

◇ 금척(金尺) 마을

금평리에서 으뜸가는 마을이다. 마을 뒷산이 옥녀봉인데 여기에 옥녀가 비단을 짜는 혈인 옥녀직금형(玉女織錦形)의 명당이 있다. 옥녀직금형(玉女織錦形)은 옥녀가 비단을 짜듯이 자손은 끊임없이 귀한 인물이 배출된다는 속설이 있다. 또한 옥녀봉에서 뻗어 내린 능선이 마치 금(金)으로 만든 자[尺]처럼 생겼다고 하여 쇠자 또는 쇠재라 불린다. 예쁜 선녀가 금으로 만든 잣대로 비단을 재어 옷을 해 입었는데, 이 자는 신통한 쇠자로 죽어 가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으로 세 번만 재면 살아나는 신통력

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잊어 가는 것이 안타까워 그 자를 금척혈(金尺穴)에 묻었다는 전설이 있다.

◇ 서북날
쇠재 서쪽에 있는 등성이로 베틀의 북과 같다는 한다.

2) 덕지리(德地里)

◇ 부흥(富興) 마을
부흥마을 뒷산인 삼봉산(山峰山)의 지세가 부(富)를 일으키는 형국이라 하여 부흥이라 했다.

◇ 하덕(下德) 마을
갈마(渴馬)는 마을 뒷산이 갈마음수혈(渴馬飮水穴), 즉 목마른 말이 물을 먹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경우 주변에 저수지나 연못이 있다. 그런데 목마른 갈(渴)자를 칡갈(葛)자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

3) 은산리(銀山里)

◇ 오방(吾芳) 마을
본래는 오무실이라 불렸다. 후에 오산의 오(吾)자와 방곡의 방(芳)자를 따서 오방이라 부르고 있다.
망덕산과 비래봉 사이의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오무실은 산골 속에 마당같이 넓은 땅이 있어 마당말이라고도 불렸는데, 예로부터 마을에 글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아 오(吾)자를 붙여 오산(吾山), 오무실이라 불리다 망덕산을 중심으로 높은봉[高峰], 마초봉(馬超峰), 비래봉(飛來峰), 시루봉[甑山峰] 등 다섯 개의 봉우리로 둘려 쌓인 마을이라 오산(五山)이라 불렸다고 한다.

4) 증산리(曾山里)

◇ 사동(沙洞) 마을

마을에 큰 당산무가 있었고 돛대나무라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이 돛대나무가 베어질 운명에 처했는데 나무를 베기로 한 하루 전날, 오랫동안 돛대나무 위에서 살던 까치가 둥지를 옮기는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나무를 베자 나무 밑동에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나와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마을사람들은 불길한 징조로 생각했다.

나무를 벤 후 홍수와 가뭄 등이 번갈아 일어났으며 이후 마을사람들이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나무를 베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여 그 자리에 나무를 다시 심게 되었고, 이후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다고 한다.

본래 사동 마을은 '모래골'이라 불렸고 이곳에 월해평(月海坪)이라 부르는 뜰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바다'로 인식하였으며, 마을은 풍수상 배형국이라고 한다.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하여 돛대나무를 심어놓은 것으로 추측된다.

5) 철목리(哲木里)

남대천을 사이에 두고 철목리 묘암(猫岩)마을은 마을 뒷산에 고양이 형상을 하고 있는 괘바우가 있고 맞은편 지성리 서동(鼠洞)마을 뒷산에는 쥐바우가 있다고 하여 서동, 서수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묘암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마을 맞은편에 호랑이 바위가 마을에 비추기 때문이라 하여 마을 사람들이 범바위를 부수자 마을은 안정을 되찾았으며, 서동 마을도 묘암 마을과 다리를 놓은 이후 마을이 쇠퇴해지자 서동(鼠洞)에서 호미서(鋤)자를 붙여 서동(鋤洞)이라 바꿔 부르게 되었다.

3. 부남면(富南面)

1) 굴암리(屈岩里)

◇ 율소(栗所) 마을

율소는 마을의 지세가 마치 밤송이 속에 들어 있는 알밤 같은 형국이라고 하여 밤소가 되었다고 하며, 또는 이곳에 대곡소(大谷所)가 설치되어 있을 때 밤나무가 많아 생율(生栗)을 생산하던 곳이라 하여 밤소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밤소의 동편으로 우뚝한 조항산(鳥項山) 북쪽으로 길게 뻗어 내린 능선이 마치 황새 모가지처럼 생겼다고 하여 황새목으로 부르는 재가 있는데, 밤소에서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새목[鳥項]이라는 마을이 있다.

꾸리골 : 옥녀가 비단을 짜는 혈인 옥녀직금혈(玉女織錦穴)이 있다. 옥녀가 쓰는 베틀의 실꾸리에 해당된다.

샛등이 : 비조탁목형(飛鳥琢木形)이다. 이는 나는 새가 나무를 쪼는 형세를 말한다.

2) 대소리(大所里)

◇ 대소(大所) 마을[13)]

대소마을 본래 위치는 현재 마을 아래쪽 '넙선들'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화재로 인하여 현재의 자리로 이전하여 형성되었다고 한다. 마을 남쪽에 마을 숲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마을에 불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다. 어느 날 지나가던 도승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화산바위'의 화기(火氣)가 불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주위에 나무를 심고 마을 집들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그대로 행한 후로 화재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문암 남쪽에 있는 옥녀봉에는 옥녀산발형(玉女散髮形)이 있다. 옥녀산발형(玉女散髮形)에서 산발은 화장하기 위한 자세의 모습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 신망 받는 사람이 나온다는 설이 있다.

---

13) 무주군, 《내고장 전설집》, 1992, 57쪽

◇ 도소(島所) 마을

도소 마을은 마을 앞으로 금강 상류가 휘돌아가 가기 때문에 섬소라 불러 왔는데, 도소(島所)로 한자화 되었다. 마을은 '가재혈'이라 한다. 마을 양쪽 맥이 '가재발'이라 하여 입석(立石)을 세웠다고 한다. 또한 뱀이 똬리를 틀고 있는 형국인 초중반사형(草中盤巳形)이 있다고 한다.

3) 대유리(大柳里)

◇ 유동(柳洞) 마을

유동 마을은 버드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에 봉길 마을이 있는데 이는 지형이 새의 부리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봉황혈(鳳凰穴)이 있다고 한다.

◇ 대치(大峙) 마을

뜬자리뫼끼 : 한치 서쪽에 있는 날 등인데, 이여송이 산 날을 떴다고 한다. 이는 산맥(山脈)을 끊었다는 의미이다.

4. 설천면(雪川面)

1) 기곡리(基谷里)

사방에 높은 산이 둘려 싸고 남대천이 흘러서 좋은 터라 하여 터일, 기곡이라 불림.

◇ 당산나무

기곡 북쪽 끝에 있는 두 그루의 느티나무를 말한다. 꽃이 동시에 피면 모심기를 한꺼번에 하고 따로 피면 모심기를 따로 한다고 한다.

◇ 솟대배기

배나들 앞 동쪽에 있는 터전에 솟대가 서 있었다고 한다.

2) 두길리(斗吉里)

구산 마을 뒷산이 거북과 같다고 하여 붙여졌는데, 마을 뒤편 개울가에 또 하나의 숨어 있는 거북과 같은 형상이 있어 이곳을 은구암(隱龜巖)이라 부른다.

3) 미천리(美川里)

이곳에는 과거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에 따라 불대, 불당골이라 불린다. 이곳 지형은 미륵 형상을 하고 있어 언젠가 미륵이 올 땅이라 하여 미래(彌來)라는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

4) 삼공리(三公里)

갈밭번덕 : 당골 남쪽에 있는 등성이로써, 비안함로형(飛雁含蘆形)이다. 이는 나는 기러기가 갈대를 물고 있는 형세이다.
금포정이 :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이다. 이는 닭이 알을 품은 형국이다. 속설에 의하면 무리를 이끄는 위대한 호걸 및 대대로 많은 자손을 번식한다고 한다.

5) 소천리(所川里)

게네미 : 새말 동남쪽에 있으며, 게형국이다.
노루고개 : 노루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모양이다.
옥토산 : 옥토망월형(玉　望月形)이다. 옥토망월형(玉　望月形)은 전안(前案)에 월암(月巖)형의 사가 있으면 길하고 없으면 불길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옥토는 암토끼이며, 달 속에는 수토끼가 있기 때문에 옥토가 달을 바라보는 것은 수토끼에 의해 잉태하기를 원하고, 낳기를 원하는 것이다.
파리매미소 : 이여송이 임진왜란 때 나제통문이 있는 곳의 산맥을 끊어 흘러나온 피가 이곳에 고였는데, 파리가 모여들어 빨아먹었다고 한다.

6) 심곡리(深谷里)

◇ 대평(大坪) 마을[14)]

대평 마을 어귀 송림(松林)속에 마치 호랑이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대한 암석 하나가 마을 쪽을 바라보고 있어 예로부터 호식(虎食)을 당하는 사람이 일이 많았다는 전설이 있다. 산신제를 정성스럽게 지내도 재난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마을에 스님이 들러서 마을 입구에 있는 큰바위 겉에 돌을 쌓아 마을이 보이지 않게 하도록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고 돌을 쌓지 않자 재난이 계속되었다. 그제야 돌탑을 쌓기 시작했으며, 돌을 쌓고 보니 그 형상이 호랑이가 되었다고 한다.



대평마을 호랑이 형상

이후로 이곳에 정성을 들여 제사 지낸 뒤로는 호랑이의 화가 미치지 않았다고 한다. 여기에서 돌탑과 소나무 숲은 비보적(裨補的)인 역할을 한다.

검령(劍嶺) : 보검장갑형(寶劍藏匣形)이다. 보검장갑형(寶劍藏匣形)에서 보검이라 해도 갑 속에 넣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데 한번에 갑 속에서 나오면 간사함을 진압하는 큰 이익을 이루게 된다. 이 지형은 천하를 재단하듯 마치 날카로운 칼로써 허공을 자르는 듯 위대한 인물을 낸다는 속설이 있다.

배방(培芳) : 행주형(行舟形)이다. 행주형은 배가 떠나가는 형국이다. 행주형인 경우 우물을 파면 안된다는 속설이 있다. 우물을 파게되면 마치 배 밑이 뚫려 배가 침몰되듯 마을이 망한다고 한다.

◇ 관서(冠西) 마을

관서 마을은 김해산(金海山)을 주산으로 삼고 마을 지형이 마치 유자(儒者)들이 쓰는 정자관(程子冠)과 같은 형국이어서 갓관(冠)자를 붙여 지은 지명이다.

---

14) 무주군, 《내고장 전설집》, 1992, 64-66쪽

7) 청량리(淸凉里)

◇ 남청(南淸) 마을

하엽(荷葉)니 : 마을에 옛날 커다란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는 연꽃이 많이 피어 인근마을까지 향기가 풍기었다고 한다. 마치 연꽃잎 같은데 본래 연꽃에는 무거운 것을 올려놓을 수 없다하여 이 마을에는 기와집을 짓지 않는다.

5. 안성면(安城面)

1) 공정리(公正里)

구시골 : 소가 누워 있는 형국의 와우혈(臥牛穴)이다. 이 경우 앞에 초봉(草峰)이 있다. 또는 소밥 그릇인 구유(구시)가 있다.

책바우 : 책 상자를 덮어놓은 것처럼 생겼으며 그 속에 선서(仙書)가 있는데 제세구민(濟世求民) 할 수 있는 보서(寶書)가 된다.

◇ 통안(通安) 마을

삼재불입지지(三災不入之地)라 하여 누구나 평안을 누리며 살수 있는 땅이다. 삼재(三災)인 병화, 흉년, 역병 등이 들지 않은 편안한 땅을 일컫는다.

2) 공진리(貢進里)

매내리 : 매화낙지(梅花落地)형이다. 이는 매화꽃이 떨어지는 형세이다.

새암골 :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이다. 연화부수형(蓮花浮水形)은 연꽃이 물위에 떠 있는 형국이다.

술고지 : 주고 마을의 지형은 창고에 넣어 둔 배형국이다.

현재 주고 마을은 한자로 주고(舟庫)이지만 본래는 주고(酒庫)였다고 한다. 마을사람들이 술을 먹고 일을 하지 않아 주고(舟庫)로 바뀐 것이라 한다. 마을 사람들은 주고(酒庫)였다는 의미를 마을 주변의 지명에서 찾고 있다. 즉 마을쪽 산은 미기봉(美

妓峰)으로 여자를 의미하며, 맞은편 산은 삼부봉(三夫峰)으로 남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마을 입구 쪽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이를 '동무산'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술상을 의미한다고 한다. 말하자면 술상을 마주하고 남녀가 있는 형국이니 이것이 주고(酒庫)라는 것이다.

3) 금평리(琴坪里)

◇ 안기(安基) 마을

소가 누워 있는 형세의 와우혈(臥牛穴)이다. 안기마을은 '안터'라 불리운데 '여자 자궁' 속에 들어온 형상이라고 한다. 마을 주산은 선녀봉이다. 백호줄기는 소가 누워 있는 '와우혈'이고, 소머리 부분에는 소 콧구멍 바위가 있다고 한다. 청룡의 끝자락은 '구시봉'이라 하여 소 여물통이 있다.



안기마을 와우혈 모습

◇ 금평(琴坪) 마을

금평 마을은 마치 신선이 거문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뜯는 형국이라고하여 붙여졌다.

이곳은 완주 고산의 화평(花坪), 김제 금구의 월평(月坪)과 함께 승지삼평(勝地三坪)이라 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라 칭송하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게 되었다고 한다.

4) 덕산리(德山里)

◇ 정천(井川) 마을

계곡 물이 흘러나오다가 땅속으로 스며들어 수락석출(水落石出)현상을 나타내므로 물이 부족하지만, 그 물이 정천 마을부터 다시 솟아 나와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정천 마을에는 본래 7기의 돌탑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2기의 돌탑이 있는데 마을의 수구막이 역할을 한다.

5) 사전리(沙田里)

◇ 사전(沙田) 마을

과거에는 마을 뒤로 국도가 지나갔다. 그런데 근래에 마을 앞으로 2차선 도로가 지나가게 되어 마을이 더욱 번창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유는, 마을은 풍수지리적으로 거문고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근자에 새로 난 도로가 거문고 줄을 의미하고, 차량이 지나가며 내는 소리가 악기소리를 의미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거문고 형상의 풍수가 도로가 나면서 완성되어 마을이 융성한다고 한다. 마을에는 실제 악기와 관련한 지명이 많이 존재한다.



사전마을 거문고 줄로 인식하는 봉우리들

6) 죽천리(竹川里)

무수동(舞袖洞) : 신선이 춤추는 형국인 선인무수형(仙人舞袖形)이다.

비아들 : 비아부벽형(飛蛾附壁形)으로 산의 푸른 벽 위에 나는 누에나방이 붙어 있는 것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형이다. 혈 앞에 꽃가지형이 있고 왼쪽에 동풍선(東風扇)이 있다면 길지가 된다는 속설이 있다.

6. 적상면(赤裳面)

1) 북창리(北倉里)

운평(雲坪) : 구름들로 운중반월형(雲中半月形)이 있다. 구름 속에 반달이 보이는 형국이다.

2) 사산리(斜山里)

시탕산(時湯山)에는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형세의 비룡상천형(飛龍上天形)이 있다.
막은 담이 : 마산리와 바깥새내 사이에 있는 모롱이. 수구를 막았다고 한다.
오동곡(梧桐谷) : 머구골이다. 마구(머귀)나무 같이 봉황이 깃들었다고 한다.
밀모산(彌磨山) : 큰사슴이 엎드린 형국이 있다.

3) 사천리(斜川里)

길왕산 : 모래밭으로 기러기가 내려오는 형세의 평사낙안형(平沙落雁形)이 있다.

4) 삼가리(三加里)

안늘갓[廣浦] : 배모양

5) 성내리(城內里)

모래밭으로 기러기가 내려오는 형세의 청사락안형(淸沙落雁形)이 있다.

6) 포내리(浦內里 개안)

복호밑 : 호랑이가 엎드린 형세의 복호혈(伏虎穴)이 있다.
한절골[閑寺] : 구씨가 집을 짓고 한가히 살았다 함. 땅의 성격상 잘 잡은(좋은)절터는 사람의 심성을 편케 해주는 지기를 갖고 있는 경우.

Ⅴ. 음택(陰宅) 풍수

1. 적상면 삼가리 봉화산(峰火山)[15]을 <연화지(連火地)>라 하는데, 예로부터 이 곳에 묘를 쓰면 자손이 부귀하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유씨

15)촌산지순저, 최길성 옮김, 《조선의 풍수》, 민음사, 1990, 454쪽

(柳氏)가 부귀하게 된 것은 그곳에 묘를 썼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같은 면 사산리(斜山里) 시탕산(時湯山)도 <비룡상천형(飛龍上天形)>의 길지(吉地)가 있다. 읍내리 김씨가 이곳에 묘를 썼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귀하게 되었고 자손도 번영한 것이다.

적상면 사천리 길왕산(吉旺山)은 평사낙안(平沙落雁)의 길지(吉地)로써 동리의 김(金)씨가 이곳에 묘를 썼기 때문에 지금처럼 부귀해졌다. 또 같은 면 옥수동 청량사(淸凉寺) 십리안에 만년유택지지(萬年幽宅之地)가 있어 무주읍 옥산리의 갈(葛)씨가 이곳에 묘를 썼으나 아직 발복(發福)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2. 김진상의 각명산도화결(各名山圖畵訣)

김진상(75세)은 무주읍 오산리 오산마을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조부 김문성이 50년 전에 만든 풍수결록이 각명산도화결(各名山圖畵訣)이다. 책 속에는 여러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데 무주에 관한 부분만 싣는다.



김진상씨

◆ 무주안성동(茂州安城東) 비룡농주형(飛龍弄珠形) 장후십년대발부귀관세(獎後十年大發富貴冠世) - 무주 안성동쪽에는 하늘을 나는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형국이 있는데, 이곳은 장장 10년 후에 크게 부귀와 권세를 누릴 곳이다.



각명산도화결 표지



각명산도화결 내용

◆ 무주남오리(茂州南五里) 금반형(金盤形) 미안(美案) 옥배안(玉杯案) - 무주 남쪽 오리에는 금쟁반형이 있는데 안산은 옥으로 만든 잔 형태이다.

장후십년대발자손다부귀(獎後十年大發子孫多富貴) - 이곳에는 장차 십년 후에 자손이 번성하고 부귀를 누릴 곳이다.

이지삼대일품출전지무궁(二之三代一品出傳之無窮) 2대에서 3대에 걸쳐 제일 으뜸으로 출세할 것이다.

3. 호남명혈록(湖南名穴錄)[16)]

무주(茂朱) 무풍(茂豊) 주계(朱溪)

동오리(東五里) 복패면견안금산(伏　眠犬案金山) 자암동이십리외행주형(紫岩東二十里外行舟形) 삼증안천기(三　案千基)

일운(一云) 동악운천상노인조어형(東岳雲川上老人釣魚形) 유래경작병사득축파(由來庚作　巳得丑破) 백화십오대백자천손만대□□지지(白花十五代百子千孫萬代□□之地) 삼도봉하천지인부귀지지(三道峯下天地人富貴之地)

남오리(南五里) 금반형미인옥배안(金盤形美人玉盃案) 십년대발다자손대부귀지지(十年大發多子孫大富貴之地) 삼대일품출전지무궁(三代一品出傳之無窮)

남칠십리(南七十里) 금귀예니칠봉안출가차(金龜曳尾七峯案出可차)

남오리(南五里) 천녀산화형(天女散花形) 금동무수형금산(金童舞袖形金山)

남십오리(南十五里) 허견치탈록수군수목산간괘(許犬峙奪鹿遂　水木山艮卦) 용장패단주석봉 외산안혈하정(龍長佩短主石峯外山案穴下井) 용두로삼수교합대천류동회서남일운구곡수(龍頭路三水交合大川流東回西南一云九曲水)

적산지하김천상일운(赤山之下金川上一云) 금정상유반월형천기수목산 괘이혈(金井上有半月形千基水木山□卦二穴)

---

16)본 자료는 진안군 백운면 원노촌에 출생하여 타계하신 신택범 선생이 소장하고 계신 《湖南 名穴錄》이라는 필사본 중에서 무주현 부분이다. 답사를 하여 보다 정확한 위치 및 사진 등 여러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후일의 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자료를 아낌없이 제공해 주신 신택범 선생께 고마움을 전한다.
《호남 명혈록》을 읽으면서 참고할 내용

□동산하황용형(□동山下黃龍形) 칠주안강이초위천기금산□괘(七珠案姜李初威千基金山□卦)
제봉구리동산 암하천년지지(霽峯九里東山庵下千年之地)
안성시동거령비룡재천형십년발부귀관세(安城市東巨嶺飛龍在天形十年發富貴冠世)
안성남원통사남일록변화탈□인작평강중봉(安城南元通寺南一鹿變化脫□因作平崗衆峯)
삼용신작선인무수가이오대상공(森龍身作仙人舞袖可以五代相公)
남오십리(南五十里) 덕유산북갈마동유갈마음수형(德裕山北渴馬洞有渴馬飮水形)
□병용오입오좌자향묘서득자파오상칠현지지운운(□丙龍午入午坐子向卯西得子破五相七賢之地云云)
적상서이십리(赤裳西二十里) 대산상유현덕동상유대중소삼부형(大山上有玄德洞上有大中小三釜形)
소부금□파용발금총우유중부형(小釜金□巴用發金塚右有中釜形)
기좌외청용중요유대부형난침(其左外靑龍中腰有大釜形難침)
서십리(西十里) 누반하익주형인오술목화산(樓般下益州形寅午戌木火山)
북이십리(北二十里) 장군대좌격고안용□패주삼수교합(將軍大坐擊鼓案龍□시패 走三水交合)
흑봉남십오리(黑峯南十五里) 비용형대강안금산분괘(飛龍形大江案金山賁卦)

※ □는 해독하지 못한 글씨임.

---

① 여기서 위치는 무주현 동헌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시대 무주현 동헌 위치는 현재 무주군청으로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② 거리는 현재와 다르다. 참고로 대동여지도에서 10리는 5.4㎞이다.
③ 내용은 형국을 중심으로 음택명당을 말하고 있다.

Ⅵ. 맺는 말

이상으로 무주지역 풍수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무주현의 진산, 안산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으나, 무풍현 진산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어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필자는 백운산보다는 대덕산이 진산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는 큰 특징은 병화(兵火)와 흉년(凶年)이 없는 피난(避難)·보신(保身)의 땅을 일컫는 십승지지(十勝之地) 관념이다. 무주지역 중 무풍면, 설천면 지역에서 십승지지(十勝之地)에 관한 강한 풍수관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비보풍수적 관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결함이 있는 땅을 명당으로 만든다는 관념인데 마을 숲, 돌탑, 장승 등이 무주지역 전역에서 나타났으며 무풍면 증산리 사동 마을 미류나무 이야기, 무풍면 철목리 묘암 마을과 지성리 서동 마을의 풍수 이야기, 설천면 대평 마을의 호랑이 바위 이야기는 비보풍수적 관념이 강하게 배여 있음을 짐작케 하는 사례이다.

〔집필 : 이상훈〕

제2장 무주의 전설(傳說)과 시가(詩歌)

제1절 무주의 전설

1. 개요

전설(傳說)이란 한 민족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는 신화(神話)·설화(說話)·고담(古談)·우화(寓話)·동화(童話)·잡설(雜說)·소화(笑話) 등의 총칭이다.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보면 집단생활에서 자연적으로 생장한 집단의 사상, 감정 또는 생활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개인적이거나 지배계층의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며 평등적이며 민족적인 것이다. 또 이것을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역사적 민족설화와 현실적 민족설화로 구분 할 수 있다. 기록상에만 그 존재를 남긴 것은 전자에 속할 것이며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것은 후자에 속할 것이다. 또 이것을 문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지식계급이 문자를 통해 기록을 읽어 느끼는 문학과 무식계급의 말을 통해 느끼는 구비문학(口碑文學)으로도 구분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전설, 혹은 설화는 비단 우리 민족의 설화나 전설만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공통설화, 말하자면 세계적 전설의 모든 종류를 우리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전설이나 설화를 연구하는 것은 한 개의 전설이 어떻게, 어느 곳에서 발생하여 어느 시대에, 어떠한 까닭으로, 어느 곳으로 전파되었는지 그 경로를 알아보기 위한 작업이다. 우리의 전설을 여러 곳에 기록하는 까닭도 바로 이러한 뜻에 따른 것이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전설이 있다. 강과 산, 바다, 바위,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도 전설이 담겨 있다. 무엇 하나 허투로 보아 넘길 수 없는 소중한 이야기가 많다는 뜻이다.

이러한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전설, 혹은 설화는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교훈으로, 지혜로, 용기로 가슴을 적셔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절망에서 희망

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불행에서 행운으로, 역경에서 행복으로 이르게 하는 큰 힘이 되게도 한다. 이를테면 태평성대에는 풍류와 가무를 즐기다가도 나라가 어려운 형편에 처하거나 국난을 당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지켜오기도 한다.

이렇게 큰 힘을 갖게 하는 원천은 바로 이러한 역사의식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랜 역사와 함께 보석처럼 빛나는 문화유산을 갈고 닦아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겨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자 한다.

2. 도마재와 근심터

조선시대 영조 임금 때의 일이었다. 그 때만 하더라도 나라 안은 당파 싸움으로 어지러운 일만 계속 일어났다. 정희량의 난도 이러한 당파 싸움에서 불만을 품은 몇몇 사람들이 짝을 지어 반란을 일으킨 씻지 못할 큰 과오였다.

정희량은 지금의 경남 거창 사람이었다. 그는 영조 임금이 자기들 파만 거들떠보지 않는다 하여 몇몇이 모여 난을 일으킬 것을 모의하고 각기 자기 고향에서 반군을 조직하여 서울로 올라가 반대파 신하들을 쳐 없앨 것을 궁리하였다.

정희량은 고향으로 가기 전에 상궁으로 있는 자기 누님에게 난을 일으키겠다는 뜻을 알려 줬다. 누님인 상궁은 동생의 무모한 행동을 꾸짖고 간절히 만류했다.

그러나 한 번 먹은 마음을 정희량은 굽힐 수가 없었다. 그 같은 누님의 꾸짖음에도 아랑곳없이 누님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무모하게 난을 일으키다 실패하면 삼족이 살아남지 못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정 상궁은 겉으로는 동생의 일을 도우는 척 하면서 그의 계략을 사전에 막을 것을 궁리하고 있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정 상궁은 동생에게 일렀다.

“ 네 뜻대로 하되 사람을 죽이는 일은 되도록 삼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모하게 성을 쳐들어오는 것보다는 성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내가 문을 열어줄 때 난군을 성 안으로 잠입케 하되 만약 연락이 없으면 성안에 큰 변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조심하도록 해야 한다.”

누님인 정 상궁의 이야기를 들은 정희량은 의기양양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 해 정희량은 경남 안의와 거창에서 난을 일으켰다. 거창 안의를 점령한 정희량은 난군을 이끌고 함양을 쳐 빼앗고 서울로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반군이 지금의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도마재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정희량이 탄 말이 끙끙대며 걷지를 못하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다. 정희량은 너무 무리한 행군이라 말과 군사들이 지친 것이라 생각하고 반군들을 잠시 멈추어 쉬게 했다. 그리고는 정희량이 이곳 사람들에게 땅 이름을 물었다. 이곳은 소사였다.

정희량은 눈이 번쩍 띄었다. 누님과 약속한 소사였기 때문이었다. 소사는 서울로 들어가는 첫 성문이 있는 곳이었다. 정희량은 승리를 눈앞에 둔 장군처럼 의기양양 했다.

그러나 실은 이 곳은 서울 밖의 소사가 아니라 경상남도의 조그만 마을인 소사였다.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정희량은 벌써 서울 인근까지 온 것이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워낙 싸움에 지친 터라 하루에 얼마만큼의 길을 걷는지도 몰랐다.

정희량은 곧 전갈군을 뽑아 누님인 정 상궁에게 보냈다. 이제야 말로 난을 일으켜 반대편 무리들을 쳐부술 때가 왔다는 서찰을 보냈음은 두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며칠을 꼬박 기다려도 전갈군은 아무 소식이 없었다. 이제나 저제나 기쁜 소식만을 기다리던 정희량은 이상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갔다. 정희량은 다시 부하를 시켜 이 곳이 어느 곳인지를 물었다.

정희량이 오랫동안 진군하지 않고 멈추고 있는 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부하 한 사람이 말했다. 이 곳은 서울의 성문이 있는 소사가 아니라 경상남도 거창에 있는 소사라고 대답했다. 당황한 정희량은 그만 실망하고 자기의 무능을 한탄하며 서울 성문 밖 소사까지 진격할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는 자기의 가슴을 치며 말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엔 또 말이 말을 듣지를 않았다. 한 발자국도 떼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이상히 여긴 정희량은 말에서 내려 말발굽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말발굽이 머리채로 꽁꽁 묶여 있는 것이 아닌가. 말발굽은 말이 아니었다. 몽땅 뭉개져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정희량은 그때서야 누님인 정 상궁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치를 떨었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무주부에선 반군이 도마재에서 머물고 있음을 알고 관군과 민병 등을 동원하여 도마재로 진군했다.

겹겹이 포위를 하고 사방에서 북을 치며 진격을 하니 정희량과 반군들은 그만 기가 꺾이어 몇 사람만 도망을 가고 수많은 사람들은 외로운 넋이 되고 말았다. 한 때의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던 무리들이 속속 항복을 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정희량은 처음에 기세가 등등하여 거창, 함양, 안의 등 여러 고을을 멋대로 장악했으나 도마재 수호신의 도움은 받지를 못했는지 한 낱 가을바람에 낙엽이 되고 말았다. 반군들의 소란에 더욱 어지럽던 나라가 화평을 되찾은 것은 몇 달이 지나서였다.

중신들이 일으킨 무서운 역적 흉계를 한 상궁의 지혜로 다시 세상은 옛날과 다름없이 평온하게 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도마재에서 희생을 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도마재에 비 오는 밤이 되면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함성이 들린다고 하니 그 때의 처절했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듯 하다.

또 반군들의 외로운 넋이 내뱉는 신음소리가 지금도 종종 들린다고 전해져 사람들은 이 재의 제일 높은 곳을 근심터라고 부르고 있다. 지금의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도마재가 바로 그 곳이다.

(무풍면 금평리)

3. 원수와 은혜의 성

옛날도 아주 먼 옛날 지금의 무주군 설천면 나제통문(羅濟通門) 부근에서 있었던 일이다.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고구려와 백제를 쓰러뜨리고 기세가 등등하던 무렵이었다.

때는 가을, 무서운 전쟁이 할퀴고 지나간 자리에 단풍만은 전쟁도 아랑곳없이 앞을 다투어 곱게 물들어 있었다. 깎아 세운 듯한 산허리로 말을 탄 아가씨 한 사람이 꼬불꼬불 올라가고 있었다.

“거 누구냐?”

난데없는 남자의 앙칼진 소리가 단풍이 곱게 물든 산속으로 울려 퍼졌다.

“ 누구냐? 서랏”

다시 한 번 고함소리가 서릿발처럼 가슴을 섬뜩하게 했다.

제2편 민속 500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제의 기가 나부끼던 이 산성이 지금은 신라의 병사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장창을 들고 당장 찔러버리기라도 할 듯 기세가 등등하던 신라 병사들은 말 위에 탄 사람을 보고서야 그만 주춤 물러서고 말았다. 말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갓 스무 살이나 되었을까 여인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도대체 넌 누구냐?"

신라의 병사들은 아까와는 달리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를 가는 계집애냐?"

그러나 말 위에 탄 여자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태연하게 눈망울만 초롱초롱 굴리고 있었다. 여인은 얼굴만 예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높은 기품까지 있어 보였다. 신라의 병사들은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고 죽이던 무서운 전쟁을 치른 병사들이어서 그런지 눈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어찌 대답이 없느냐?"

"지체하면 당장 창칼이 간다."

두 사람의 신라 병사들은 다시 창을 휘두르며 얼러댔다.

"하하하하 호호호호"

여인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간드러지게 웃어댔다.

무서운 전쟁터에 때 아닌 여자의 간드러진 웃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가 되어 우수수 낙엽처럼 지고 있었다. 여자의 웃음소리를 들은 병사들은 그만 기가 막혔는지 멍청하게 여인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여자의 웃음소리는 칼날같이 섬뜩했다.

"도대체 왜 웃는 거냐?"

"우습지 않구요?"

여인은 그때서야 말 위에서 내리면서 신라의 병사들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한 낱 힘없는 여인을 앞에 두고 장창을 들이대는 신라의 병사들이 우습지 않구요?"

"도대체 넌 누구냐?"

"난 원래 백제의 궁녀이옵니다. 임금님 앞에서 노래나 춤을 추는 궁녀입니다. 이제 백제도 망했으니 신라의 임금님 앞에 나가 노래나 부르고 춤이나 추는 궁녀가 될까

해서 신라의 서울 서라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뭣이 백제의 궁녀라고?”

“그렇다오. 이름은 단이라고 하온데 원래 춤과 노래는 백제에서는 나를 따를 사람이 별로 없었다오. 그런 내가 재주를 그냥 썩힐 수가 없어 신라의 서울인 서라벌로 가서 신라의 임금님을 즐겁게 하는 궁인이나 될까 하옵니다.”

“글쎄 궁인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우리 대장에게나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시오.”

백제와 고구려를 쓰러뜨린 신라의 임금 태종 무열왕은 김유신 장군과 그 밖의 문무백관 들을 이끌고 지금 백제의 서울 부여로 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신라의 임금 태종의 가는 길은 험난했다. 억울하게 나라를 빼앗긴 백제의 군사들이나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곳곳에서 잃었던 땅을 되찾자고 일어섰기 때문이었다. 백제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은 의분을 참지 못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 선 데에는 당나라 군사들의 행패에도 큰 원인이 있었다. 당나라 군사들의 행패는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 가는 곳마다 노략질이며 사람들을 마구 죽였다. 정복자의 만행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 견디다 못한 백제의 의병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당나라 군사들을 무찌르는가 하면 신라의 군사들에게 대항을 했다.

그 중에서도 진무 장군이 이끄는 의병들의 힘은 보통이 아니었다. 진무 장군은 백제 의자왕을 모시고 있던 뛰어난 장수의 한 사람이었다. 의자왕과 함께 당나라 군사들에게 생포되어 온갖 수모를 다 겪다가 탈출하여 의병을 일으킨 것이었다. 그런 장군이 당나라 군사에게 쉽사리 항복할 턱이 없었다.

태종 무열왕이 김유신 장군이나 품일 장군과 같은 용맹한 장군들을 휘하에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백제의 서울인 부여에 입성 할 수 없었던 것도 백제의 진무 장군이 이끄는 의병들이 신라군을 자꾸만 공략을 하기 때문이었다. 태종 무열왕이나 김유신 장군도 진무 장군에겐 여간 힘든 싸움의 상대가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리 용맹한 진무 장군이었지만 나라가 망하고 임금도 없는 백제를 다시 찾을 수는 없었다. 김유신 장군은 계략을 짜기 시작했다. 진무 장군의 목을 당장 베어버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태종은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김유신 장군에게 일렀다.

백제의 장군이 백제의 왕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갸륵한 충신이니 그런 충신을 아무리 적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충성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쟁은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신라 군사들과 백제 군사에게 드디어 결전의 날이 돌아왔다. 쌍방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입히면서 무서운 싸움은 벌어졌다. 진무 장군의 장창은 하늘을 나는 번개와 같았다. 여기에서 번쩍, 저기에서 번쩍, 신라 병사들의 목이 낙엽처럼 뒹굴었다.

이 광경을 보다 못한 김유신 장군은 품일 장군에게 명령을 했다. 도저히 사로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그의 목을 향해 활을 당겼다. 일당백의 힘든 싸움이어서 진무 장군도 하늘의 명은 어길 수가 없었다.

이 무서운 싸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백제 궁녀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왔기 때문에 신라 군사들은 더욱 이상한 눈으로 맞는 것이었다.

신라의 태종 임금은 진무 장군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도록 했다. 백제의 충신인 진무 장군의 애석한 죽음을 슬퍼하고 그의 영혼을 위로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태종은 신라의 장군들에게 엄숙하게 분부를 했다.

"백제 사람이나 고구려 사람이나 신라 사람이나 다 같은 동족, 절대로 적이 될 수는 없는 일, 목숨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느니라. 짐이 삼국을 통일하는 뜻은 한 겨레가 한 마음으로 뭉쳐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 결코 신라의 영토를 넓히거나 원수이기 때문에 쳐서 빼앗은 것은 아니니라. 짐의 뜻을 제관들은 한 치의 어김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니라."

왕의 분부는 장군들의 마음속에 동족 사랑의 정신을 심어 주었다. 그 때였다. 신라의 장군들이 어느 여인 한 사람을 끌고 와 왕 앞에 엎드려 고했다.

"이 여인은 백제 왕실의 궁녀 이온 데 상감마마 뵙기가 소원이라 하옵니다."

"무엇이! 백제의 궁녀라고?"

"네, 그렇사옵니다. 이 여인은 본래 춤과 노래로 의자왕을 섬기던 궁녀라 하옵니다."

"그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소인은 백제의 궁녀 단이라고 하옵니다."

"그래 어찌하여 나를 보기를 원하였더냐?"

"소인은 원래 노래와 춤으로 의자왕을 섬기던 터인데, 이제 백제는 망하고 갈 곳도 없어 상감마마께 노래나 춤을 한 번 보여 드릴까 해서 뵙기를 청했습니다."

"음 …. 그래 그렇다면 네 노래와 춤 솜씨를 한 번 보여 다오."

왕은 백제의 여인을 용상 앞으로 들게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김유신 장군이 왕께

아뢰었다.
"마마 아니 되옵니다. 필시 무슨 흉계가 있을지도 모르니 가깝게 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장군, 그러실 거 없소. 저 토록 예쁜 여인이 흉계가 있을 턱이 있겠소?"
"자, 단이야 어서 춤이나 추어 보아라."
여인은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춤을 추는 단이의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왕도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노래와 춤추는 모습이 마치 선녀와 같았다. 춤과 노래는 좀처럼 그치지 않았다.
왕은 단이의 노래와 춤에 취해 한 마리 나비가 되어 훨훨 나르고 있었다. 단이의 노래와 춤에 모든 문무백관 들은 넋을 잃고 황홀경에 빠져 있었으나, 김유신 장군과 왕자 풍은 단이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틀림없이 어떤 흉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왕은 단이로 하여금 노래와 춤을 그치게 하고 그를 왕의 내실로 들어오도록 분부했다.
단이와 단둘이서 이야기나 해 보자는 것이었다.
"마마 아니 되옵니다. 저 여인에게 필시 무슨 흉계가 있을 듯 하옵니다."
이번엔 왕자 풍이 왕께 아뢰었다.
"아니다. 저렇게 예쁜 여인이 그런 악한 마음을 품을 리가 없느니라. 김유신 장군과 왕자 풍은 각자 자기의 처소로 물러가 쉬도록 하라."
왕은 모든 신하들을 내보내고 단이와 마주 앉았다.
"단이야, 그래 너희들 궁녀들의 고초가 얼마나 크겠느냐?"
"마마, 이젠 바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자왕의 딸 비화라는 공주입니다. 비록 망한 나라의 공주이긴 하옵니다만 억울하게 나라를 빼앗긴 아버지의 원수이며, 백제의 원수인 마마의 목을 베어 아버지에 대한 효도를 다하고자 왕을 뵙고자 한 것입니다."
"의자왕의 딸 비화라고? 아 정말 이상한 인연이구나! 난 너의 아버지 의자왕과는 원수는 아니니라. 같은 민족끼리 죽이는 것 보다는 어서 통일을 하여 자자손손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뿐이니라."
"그러하오나 자식 된 도리로, 백성 된 도리로, 어찌 망한 나라꼴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결단코 마마의 목을 베어 원한을 풀까 하옵니다."

비화는 원수를 앞에 두고도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다.

"비화야, 너의 마음씨가 참으로 갸륵하구나. 원수를 앞에 두고도 왕에게 대하는 예의를 갖추니 참으로 놀랍구나. 너를 대하니 너의 아버지에게 죽은 나의 딸 소랑의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대야성 싸움에서 너희 아버지 의자왕이 이끄는 백제 군사들에게 젊은 나이로 목숨을 잃었단다. 그 때를 생각하면 당장 너희 아버지의 목을 베어도 슬픔은 가시지 않았을 것이나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했느니라. 이젠 다 지나가 버린 일, 네가 원수 갚는 일을 그만 두고 나의 딸이 되어줄 수는 없느냐?"

"아니 되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상감마마의 목을 가져가야 하겠사옵니다."

"네 연약한 그 예쁜 손으로 나의 목을 벨 수 있겠느냐?"

비화는 품속에 간직했던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꺼냈다.

"제가 만약 상감마마의 목을 베지 못할 땐 저의 목을 베어주십시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그렇다면 어서 나의 목을 베어라."

순간 비화의 칼이 공중을 날았다. 여자의 예쁜 손이 수백만을 거느린 장군의 손보다도 훨씬 빨랐다.

그러나 순간 왕의 손도 동시에 허공을 한 바퀴 돌며 비화의 손을 잡았다. 순간적인 일이었다. 왕은 비화의 무예를 칭찬했다.

"과연 훌륭한 솜씨로군."

그러나 비화의 솜씨 못지않게 왕은 무예와 학문으로 단련된 장사였다.

" 마마, 이제 제 목을 베어 주십시오."

"아니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나의 딸이 되어다오."

"아니 되옵니다."

"그렇다면 너를 놓아 줄 테니 멀리멀리 가서 잘 살아라."

"아닙니다. 이대로 보내주시면 소인은 다시 왕의 목숨을 노릴 것입니다."

"아무래도 좋다. 어서 가거라."

이 때 밖엔 김유신 장군과 왕자 풍이 칼을 빼어 들고 서 있었다. 왕은 비화를 지금의 나제통문까지 배웅해 주었다. 단풍잎이 우수수 지는 쓸쓸한 가을이었다.

(설천면 신두마을)

4. 미륵바위와 노인 부부

지금으로부터 2백여 년 전 일이었다. 지금의 적상면 삼유리 평촌마을에 늙은 부부가 아들딸도 없이 외롭게 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늘그막에 아들딸들이 모시게 되고, 그 손주들의 재롱 속에서 즐거운 황혼을 맞고 있지만, 이 두 늙은 부부에겐 항상 쓸쓸하고 외로움으로 근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할아버지는 궁리 끝에 성황당을 찾아 치성을 드려 소원을 빌기로 했다. 치성을 드리는 동안은 여러 가지 금기하는 일이 많았다. 궂은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하며, 남과 말다툼을 해서도 안 되며, 아무리 하찮은 생명이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등 그야말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성을 다 해야 했다.

두 노인은 그런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아들만 얻는다면 그것 이상의 일도 할 수가 있었다.

"하느님, 이 불쌍한 늙은이들에게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두 노인의 정성은 극진하다 못해 미친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노인의 꿈에 하얀 수염을 시렁시렁 늘어뜨린 노인이 나타나 하는 말이, "칠곡산 골짜기에 올라가면 세 그루의 미루나무가 있고, 그 한 가운데에 늙고 얽은 커다란 돌을 주어다 집 안에 놓고 매일 새벽에 치성을 다하라" 하면서 사라져버렸다.

이튿날 노인은 날이 새기도 전에 칠곡산 골짜기를 올라갔다. 그 곳엔 꿈에 노인의 말대로 늙고 얽은 커다란 돌이 하나 있었다. 노인은 필시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그 돌을 움직여 보았다. 그러나 그 돌은 조금도 움직여지질 않았다. 노인은 몇 번이고 돌을 움직여 보았으나 커다란 산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노인은 마을로 내려와 마을 장정들을 모았다. 마을 장정 열 대여섯이 있는 힘을 다해 움직이려 했으나 그것도 허사였다. 노인은 실망과 허탈감으로 풀이 죽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 날 밤이었다. 며칠 전 밤 꿈에 나타났던 그 노인이 다시 나타나 하는 말이 "그 돌 옆에는 사람의 형국을 한 조그마한 돌이 2개가 있으니 그것도 함께 가져오라"고 했다.

노인은 이튿날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늙고 얽은 바위 옆에 사람의 형국을 한 조그마한 돌 두개가 있었다. 노인은 그 두 개의 돌을 정성껏 집으로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어제까지도 장정 열 대여섯 명이 죽을힘을 다했어도 움직이지 않던 늙고 얽은 바위가 엉금엉금 노인을 따라 내려오는 것이었다.

두 노인은 바위와 돌 앞에 제단을 마련하고 치성을 드렸다. 그 뒤 얼마 가지 않아 노인은 아들을 낳았다. 노인이 바란 대로 틀림없는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사람의 형국을 하고 있을 뿐 늙고 얽은 바위의 형상과 같았다. 두 노인은 그만 실망과 부끄러움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 아기를 보다 못한 할머니는 말했다.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하느님에게 죄를 지어 이런 돌덩이 같은 아들을 낳은 것이 틀림이 없는 모양이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버럭 화를 냈다.

"우리가 성황당에 치성을 다 할 때는 아들을 낳게 해 달라 했지. 예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는 안 했지 않소? 비록 얼굴은 그러하지만 훌륭하게 기릅시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위로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상한 아이를 보고 한편 놀라고 측은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런 말들은 아랑곳없이 아기에게 정성을 다했다.

아기가 열 살이 되는 해였다. 아기의 얼굴이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뱀이 허물을 벗듯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한 꺼풀 허물을 벗는 것이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 꺼풀 허물을 벗은 아기는 아주 딴 사람이 된 것이다.

바위 형국으로 못 생기기만 했던 이 아기는 천하에 훌륭한 미남이 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두 노인은 이 신기한 일에 그만 말문이 막혔다. 아기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일을 도왔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던 일을 그대로 멈추지 않았다. 아이는 부모들의 마음만큼이나 효성이 지극했다.

그 날 밤이었다. 10년 전 그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났다.

"너희들 마음을 시험하느라 무서운 얼굴을 한 아들을 보내주었으나 조금도 미워하지 않고 정성껏 길렀으므로 이젠 안심이 되어 본 얼굴을 갖게 했으니, 옛날과 다름없이 훌륭한 아들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이튿날 아침 두 노인은 똑 같은 꿈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주었다. 그 뒤 이 집안

엔 많은 자녀가 태어나 대대로 훌륭한 집안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적상면 삼유리 평촌 마을에는 그 날 그 미륵바위가 옛 그대로 눈을 껌벅이듯 서 있다.

(적상면 평촌마을)

5. 아기 머슴과 효자문

먼 옛날 일이다. 지금의 무주군 안성면 효자촌이라는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소년이 한 사람 살고 있었다. 소년은 늙고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근근이 살아가는 처지였다. 낮에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밤에는 부지런히 글공부하면서 홀어머니 섬기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비록 가난하고 보잘 것 없이 살면서도 소년의 마음은 어느 부잣집 부럽지 않게 화목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커다란 근심거리가 생겼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병환 때문이었다.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되면서 어머니의 병환은 점점 더 했기 때문이었다. 효성이 지극한 소년은 좋은 약이란 약은 모두 구하여 드렸지만 어머니의 병은 낫기는커녕 점점 더해만 갔다. 가을도 가고 겨울이 돌아왔다. 늙으신 어머니의 병환은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죽음에 이르고 있었다.

며칠간이나 잠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의 병간호에 정성을 쏟던 소년은 잠깐 사이에 꿈을 꾸었다. 꿈속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다.

"너의 어머니의 병은 두릅을 먹어야 낫느니라."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는 홀연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소년은 이상한 꿈이라고 생각하며 밖으로 나왔다. 밖은 어느덧 새 하얀 눈이 수북하게 쌓였다. 이런 추운 겨울에 깊은 산 속에서 자라는 두릅을 어떻게 구한단 말인가. 소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남은 일은 두릅을 구하는 길뿐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산은 모두가 눈으로 덮여 두릅은커녕 두릅나무도 볼 수가 없었다.

소년은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느님께 빌었다.

"하느님, 우리 어머니를 살려 주셔요. 우리 어머니만 살려 주시면 나 하나쯤 죽어도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년은 기도를 드렸다. 바로 그 때 황소보다도 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어흥 어흥' 소리를 내며 소년의 앞에 넙죽 엎드리는 것이었다. 소년은 그만 질겁하여 도망치려 했으나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지 못하고 불효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태연히 일어나 오히려 큰 소리로 호령을 했다.

"너는 하찮은 짐승으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효도를 방해하느냐?"

호랑이는 소년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넙죽 엎드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것이었다.

소년은 호랑이가 혹시 하느님의 사자로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두릅을 구해 줄 것이 아닌가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호랑이 등에 업히었다. 그러자 호랑이는 쏜살같이 산을 넘었다. 한참을 가다가 어느 곳엔 가 소년을 내려놓았다. 그 곳은 어느 절 앞이었다. 소년은 절 안으로 들어갔다. 소년이 스님을 찾자 하얀 머리를 치렁치렁 늘어뜨린 노인 한 분이 당당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었다.

소년은 노인에게 울면서 어머니의 병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대답은 하지 않고 노인은 소년에게 어떻게 밤중에 이곳까지 왔느냐고 되묻는 것이었다. 소년은 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빼 놓지 않고 다 말했다. 노인은 소년을 보고 과연 하늘이 내려준 효자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었다. 노인은 다름이 아닌 이 절의 스님이었다.

스님이 소년을 데리고 들어간 곳은 겨울인데도 두릅이 활짝 피어 있었다. 스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꺾어 소년에게 주면서 정성껏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라고 당부했다. 소년은 몇 번이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다시 절을 나왔다. 절을 나오자 아까 그 호랑이가 마치 태우고 갈 말 같이 허리를 굽히고 앉아 있었다.

소년은 호랑이 등에 업혔다. 그리고 다시 절을 향해 절을 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까 그 절과 그 노인, 희미한 불빛은 간 곳이 없지 않은가. 소년은 모두가 어머니를 돕기 위해 산신령이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신령께 감사의 절을 했다.

소년이 호랑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막 새벽을 알리는 첫 닭이 훼를 치고 있었다. 소년은 정성을 다해 어머니에게 두릅을 다려 드렸다. 약은 신기했다. 밤사이에 어머니는 언제 병을 앓았느냐는 듯 밥도 잘 먹고 문밖출입도 했다.

어머니는 물론 소년의 마음은 뛸 듯이 기뻤다. 그 뒤 소년은 예쁜 아가씨와 결혼도

하고 차츰 살림도 부유하게 돼 행복하게 살았다고 전하고 있다.
뒷날 사람들은 소년의 지극한 효성의 뜻을 기념하고 오래도록 그 정신을 소년들에게 교훈을 삼고자 마을 이름을 효자촌 이라고 하고 마을 입구에 효자비를 세워 오래오래 지내 오다가 60여 년 전 큰 홍수로 떠내려 가버렸다는 것이다.

(안성면 효자촌)

6. 매산이와 호랑이 바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대평(大平) 마을엔 거의 한 달에 한 사람씩 호랑이의 밥이 되어 가곤 했다. 혹 사람이 호랑이 밥이 되지 않을 때는 소나 가축이 호랑이 밥이 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랑이의 밥이 되지 않으려고 밤만 되면 문을 걸어 잠그고 문 밖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이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어귀의 늙은 소나무 밑에 많은 곡식을 차려 놓고 산신령께 제사를 지낸다, 마을 가장자리에 높은 나무로 울타리를 만든다, 법석을 떨었지만 호랑이의 횡포는 그치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 마을에 시주를 청하러 온 늙은 중이 한 사람 있었다. 늙은 중은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몇 번이고 마을 둘레를 살펴보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허허! 마을 꼴이 말이 아니구나."
중의 행동을 유심히 눈여겨보던 마을 사람들은 필시 무슨 곡절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중에게 물었다. 늙은 중은 잠시 눈을 감고 염불을 외우더니 마을사람들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큰일이군요. 오늘 밤에 이 마을엔 큰 변이 닥칠 것만 같으오."
마을 사람들은 중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눈망울만 굴리고 서 있었다.
"내가 며칠 전에만 이 곳엘 왔어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인데…."
마을사람 들은 더더욱 이상한 말만 하는 중을 바라볼 뿐 말이 없었다.
"하여튼 좀 늦긴 했지만 오늘부터 이 마을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나서

서 저쪽 마을로 가는 길가에 있는 큰 바위의 앞에 돌을 쌓아 이 마을이 보이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늙은 중은 말도 없이 길을 떠나고 말았다. 이상한 중의 하는 말에 마을 사람들이 따를 리 없었다.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대책도 세우지 않고 지레 겁을 먹고 너나 할 것 없이 우왕좌왕 옥신각신 싸움만 하고 있었다.

그 날 밤이었다. 이 마을에 어린이 한 명이 또 호랑이의 밥이 되고 말았다. 3대 독자인 이 아이의 이름은 매산이라고 부르는 이 동네에선 제일 돈이 많은 부잣집의 귀염둥이었다. 매산이는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은 아버지 마중을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사람들은 아버지 대신 아들이 호랑이에게 희생당한 것이라고 했다. 온 집안 식구들은 매산이를 잃은 슬픔으로 몸져눕고 말았다. 어머니의 마음도 아팠다. 아프다 못해 반미치광이가 되었다.

매산이가 호랑이에게 물려 간 후 어머니는 매일같이 앞산 바위 위에서 매산이를 부르며 통곡했다. 매산이 어머니는 거의 밥알 하나 입에다 대지도 않고 몸부림을 쳤다. 그러던 어느 날 매산이 어머니도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났다.

얼마 전 늙은 중의 한 말이 머리 속을 스친 것이다. 이 마을에 큰 변고가 생길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이 바로 매산이의 이야기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 날부터 이 마을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총동원되어 바위 앞에 조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다. 조탑이 끝난 후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지금까지 둥실둥실하던 바위가 느닷없이 호랑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마을을 향해 입을 벌리고 금방이라도 사람을 해칠 모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그 늙은 중이 예삿중이 아닌 것을 알고 감탄하게 되었다. 이 신기한 일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그 날부터 조탑 앞에 많은 음식을 차리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매산이의 외로운 넋을 위로하고 매산이 어머니의 애틋한 그 울음소리가 다시는 이 마을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기원이었다. 그 뒤부턴 호랑이의 발자취는 영영 사라지고 말았다. 호랑이 상을 가진 바위의 조화라고 사람들은 수군댔다.

설천면 심곡리에는 지금도 그 매산이 바위와 호랑이 바위, 조탑이 옛날 이 마을의

한이 서린 채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다. 그 때부터 지낸 제사도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와 매년 정월 초하룻날 제사를 지내고 있다.

(설천면 심곡리)

7. 도사의 고행과 칠연폭포

아주 오랜 옛날, 인간 세상에 대한 이치를 깨달은 도사 한 사람이 있었다. 도사는 자기의 깨달은 바가 컸지만 꿈은 항상 신선이 되어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더욱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천제님께 빌었다.

"천제님, 세상의 학문은 다 익혔으나 하늘에는 오를 수가 없으니, 어찌 하면 되겠사옵니까?"

그런 어느 날 하늘에서 도사에게 계시가 있었다. 지금의 안성면 봉산 밑에 가면 책바위란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속에 신선이 되는 보배로운 책이 있다는 것이었다.

도사는 그 길로 하늘의 계시에 따라 지금의 안성면 공정리에 있는 봉산 밑의 책바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막상 와 보니 사람의 힘으로는 바위 문을 열 수가 없었다. 도사는 다시 책바위 밑에서 석 달 열흘 동안 천제에게 간절히 빌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책바위 위에 용마를 탄 천제가 내려와 바위의 문을 열어 주었다.

지금도 이 책바위 위엔 그 때 용마가 내렸던 발자국이 남아 있다. 도사는 책바위 속에서 칠년 간이나 긴 세월을 신선이 되기 위해 고행을 겪었다.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날 신선이 된다는 보배로운 책은 순간 없어지고 바위 문도 꼭 닫혔다.

도사는 이제 하늘로 오르는 일만 남았다. 도사가 하늘로 오르고자 마침 지금의 용추폭포에 이르렀을 때였다. 때가 아침을 먹을 때였으므로 도사도 시장기를 느끼고 어느 집으로 아침을 얻어먹으려 들어갔다. 그러나 도사가 막 찾아 들어간 곳은 노랭이로 이름이 난 최부자 집이었다.

"누가 아침부터 구걸을 청하느냐?"

밥을 한 상 차려 밖으로 나오려던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호령에 주춤했다.

"길을 가는 도사이신 모양입니다."

"안 된다. 아침부터 음식이 밖으로 나가면 가난해지는 거란다."

제2편 민속 512

노랭이 부자는 도사를 밖으로 밀어내며 발길질까지 했다. 이에 격분한 도사는 착한 며느리만 밖으로 나오게 하고, 노랭이 노인이 살고 있던 집은 소를 만들어 버렸다.

지금까지 부자 노랭이 노인이 살고 있던 집터는 금방 물이 넘실거리는 소가 돼버린 것이다. 이 소가 바로 용추소이다. 이 소는 얼마나 깊은지 명주실 한 꾸리가 다 들어가도 바닥에 닿지를 않는다고 한다.

이 소는 용이 살고 있다고도 전하고 있다. 도술의 기적이 생기자 도사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오만스런 마음씨가 되어 거드름을 피웠다. 도사가 칠연(七淵) 폭포에 이르렀을 때였다. 금빛 찬란한 말을 탄 천제께서 일곱 가지 색깔의 무지개를 따라 칠연폭포에 내렸다.

"도사야, 넌 천리를 깨우치고도 한낱 인간에 대한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보복의 죄를 저질렀으니 어찌 신선이 되기를 바라느냐?"

천제는 도사를 꾸짖었다. 도사는 그제야 자기의 경솔함을 깨닫고 천제님께 울며 용서를 빌었다. 천제는 도사의 죄를 벌하려 했으나 그의 속죄함이 간절하였으므로 다시 한 번 속죄의 기회를 주었다. 속죄의 길은 매일 차가운 물에 목욕을하고 칠년 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도사의 고행은 다시 시작되었다. 칠년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다시 칠년 간의 고행이 시작된 것이다.

도사의 정성은 대단했다. 칠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금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도사는 천신만고 끝에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

지금의 칠연폭포 명제소(命帝沼)는 천제(天帝)께서 무지개를 타고 내려와 도사에게 다시 수양을 하라는 명을 내렸다는 연유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전하고 있다. 도사가 7년간 수양을 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선녀를 내려 보냈던 소를 선녀탕이라고 부르며, 도사가 7년간 수양을 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바위를 가리켜 하늘바위라고 전하고 있다.

도사가 칠연폭포에서 도를 닦았다는 것은 비단 이야기로만 전하는 신비한 곳만은 아니다. 아름다운 경치속에 젖어들면 바로 자기가 신선이 된 듯, 마음도 몸도 하늘로 붕붕 떠가는 기분이 된다. 오색 물안개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면 어느덧 세상의 온갖 떼가 말끔히 씻기어지고 티 없이 맑은 마음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옛날 도사가 왜 이 곳에서 7년간의 도를 닦게 됐는지, 하늘의 정기가 이곳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여기에는 작은 하늘나라와 같이 아름다운 경치로 온통 마음도 몸도 깨끗해진다.

(안성면 통안리)

8. 구천동과 설천

무주 구천동 이라고 하면 예로부터 깊은 산골로 유명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깊은 산골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으레 무주 구천동을 연상하리만큼 깊은 산골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국립공원인 덕유산이 있어 도로가 말끔히 포장 되었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마련되어 어디를 가 보아도 깊은 산골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다.

이 곳을 구천동 이라고 부르게 된 데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첫번째 이야기는 이 곳엔 오래 전부터 구씨와 천씨가 많이 살고 있었다. 구씨와 천씨는 워낙 우직하고 배운 것이 없는데다 돈은 많아 항상 남을 시기하고 괴롭혔다. 그 중에서도 유안거 라는 선비를 더욱 미워하고 시기했다. 유안거는 본래 서울 사람인데 몸의 병을 고치려고 물 맑고 공기 맑은 이곳으로 내려와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구씨와 천씨는 자기의 힘만을 믿고 유안거의 아내와 며느리를 뺏으려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난데없이 저승사자가 나타나 그만 구씨와 천씨 두 사람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 뒤부터 이 곳을 구천동 이라고 했다고 전하고 있다.

두번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이 곳엔 옛 부터 백련사(白蓮寺)라는 절이 있었다. 백련사에는 구천 명이나 되는 중이 살고 있었다. 얼핏 보면 그저 평범한 산골짜기인 것 같지만 워낙 산이 웅장하고 신비해서 곳곳에 암자가 늘어서 있어도 사람들의 눈에는 쉬 보이지 않았다. 구천 명이나 되는 중들이 이 곳에서 도를 닦고 있었다니 산의 형세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래서 구천 명의 중이 살았다고 해서 '구천둔'이라 했는데, 차츰 변해서 구천동이 되었다고 한다. 구천 명이나 되는 중들이 먹을 쌀을 씻으려면 쌀의 양도 짐작이 가지만 그 쌀을 씻을 물도 문제였다. 그 때문에 절에서 쌀 씻는 물이 마치 하얀 눈 같이 흘러내렸다고 한다. 냇물이 온통 하얀 눈이 흘러내리듯 쌀 씻은 물이 흘렀다고 해서 지금의 구천동의 아랫마을이 있는 곳을 설천(雪川)이라 했다고 전하고 있다.

세번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원(元)나라 순제는 어느 날 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옥새를 잃고 그것을 찾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중국에서 용하다는 점쟁이들을 다 불러다가 옥새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 때마다 헛수고였다.

그래서 순제는 온 천하에 이 일을 알려 옥새를 찾는 한편 고려왕에게도 옥새를 찾아 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했다. 고려왕은 원나라 순제의 부탁을 받고 용하다는 점쟁이를 구하기 시작했다.

"지금 원나라 순제는 옥새를 잃고 그것을 찾으려고 나라 안이 온통 벌집 쑤셔 놓은 듯 하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옥새를 찾는 사람에겐 후한 상과 벼슬까지 준다 하니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있는 사람이면 서슴지 말고 대궐로 들어와 임금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을 방방곡곡에 써 붙여 놓는 한편 사람들을 풀어 그런 일을 해낼만한 사람을 찾도록 했다. 그 때 지금의 구천동에 유해(劉海)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기로 유명했다. 웬만한 일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고려 임금의 귀에까지 유해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고려 임금은 유해를 원나라로 보냈다. 원나라로 들어간 유해는 순제를 만나 한 달간의 여유를 주면 옥새를 기필코 찾아주겠다고 언약을 했다.

순제의 앞을 물러나 숙소로 돌아온 유해는 기가 막혔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임금님의 명이라 거역할 수 없어 원나라에까지 오기는 했으나 여간 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만약 한 달 안에 옥새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결국 천제를 속인 죄로 살아남지 못할 것은 뻔했기 때문이었다. 유해는 날이 갈수록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제 하루만 지나면 약속의 한 달이 된다.

유해는 답답한 마음을 어찌하지 못해 담배만 계속 피웠다.

"에라, 모르겠다. 담배나 죽이자"
유해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이 때 방 밖에서 유심히 유해의 행동을 살피고 있던 두 사나이가 있었다. 바로 옥새를 훔친 도둑이었다. 도둑들은 사색이 되어 유해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렸다.
"죽을죄를 지었으니,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처음엔 유해도 어리둥절했으나 이내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놈들, 나는 벌써 너희들이 범인이라는 것을 알았느니라. 하지만 너희들이 제 발로 걸어와서 용서를 빌 때까지 기다린 것이니라."
두 사나이는 담거와 배소라는 사람이었다.
"담배를 죽이자" 하는 말에 그만 두 사나이는 자기들을 죽이겠다는 말로 알고 용서를 빌게 된 것이다.
"제발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네놈들의 말대로 목숨만은 살려 줄 것이니 옥새를 이리로 가지고 오도록 하여라."
"네, 네"
옥새를 가져다 유해의 앞에 놓은 담거와 배소는 유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천운으로 옥새를 찾은 유해는 이튿날 옥새를 순제에게 갖다 바쳤다. 순제는 기뻐 어쩔 줄 모르며 큰 잔치를 베풀고 후한 상도 주었다. 이 때 순제는 유해가 태어난 곳을 구천동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천승지국(天乘之國)의 구국제후(九國諸候)가 모여서 가히 축하할 만한 사람이 태어난 곳이라는 것이었다. 깊은 산골이라고 생각했던 구천동이 이런 연유로 해서 구천동 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설천면 심곡리)

9. 감악바위와 남선굴

고려 말엽, 충신 남선(南仙) 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남선은 지혜와 학문이 남달리 뛰어났을 뿐 아니라 불의를 보면 목숨을 내어놓을 만

큼 강직한 사람이었다.

고려왕조가 쇠퇴하여 붕괴되고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새 국호로 새 왕조를 세우면서 새로운 인물을 뽑아 조정의 중신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 중에는 고려의 유신인 남선도 참여시키고자 회유하였다. 그러나 남선은 "충신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며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 이곳 부남으로 내려왔다.

다른 사람들처럼 마음을 바꿔 새 왕조에 충성을 하게 되면 높은 벼슬에까지 오를 수 있었으나, 모든 권세와 영화를 마다하고 오직 절개를 지키기 위해 산골 마을인 지금의 부남(富南)면 대유리 한뫼마을 감악바위 밑에 굴을 파고 은둔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이성계는 남선의 충절에 감복하여 몇 차례 사람을 시켜서 남선이 다시 한양으로 올라올 것을 간청했으나 끝내 거절하고 세상을 멀리한 채 굴속에서 생활하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

남선의 죽음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남선이 이성계의 회유책에 견디다 못해 감악바위 위에서 투신하여 죽었다고도 하고, 굴속에서 단식을 하다 그만 굶주려 죽었다고도 전하고 있다.

어쨌든 남선은 후세 사람들에게 충절에 대한 높은 기개를 일깨워 주었으며, 나라를 찬탈한 거대한 힘에 죽음으로써 항거하는 선비의 혼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계기가 되었다.

그 뒤 이 고장 사람들은 그의 높은 충절을 기리기 위해 그 바위 위에 수절사(守節士)라는 비석을 세우고 해마다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흔적조차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져 버리고 남선이 거처했다는 감악바위굴만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선비의 혼은 사람들의 가슴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

현재 감악바위는 땅 위에 보이는 감악바위와 물속에 잠겨있는 감악바위가 있는데, 본래는 모두 땅 위에 있었으나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각 변동에 따라 바위 일부가 물속에 잠긴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자연경관이 워낙 아름답고 수려하여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의 여름철 휴양지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부남면 대유리)

10. 금척마을과 만리강산

무풍(茂豊)의 금척마을에서 북쪽으로 한참 가다보면 만리강산(萬里江山)이라는 산이 있다. 이 산에 대한 이야기가 효심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먼 옛날 이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총각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총각은 몹시 가난하여 나무를 해다 팔아 겨우겨우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형편이었다. 이에 나이가 들었어도 장가 갈 생각은 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홀어머니까지 병석에 누운 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으니, 어느 처녀가 시집인들 올 것인가.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여느 때처럼 산에서 나무를 해 가지고 오던 총각은 산길에서 큰 비를 만났다. 비를 피하느라 얼마를 지체하고 있던 총각은 깜박 잊고 있었던 집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가 생각났다.

부랴부랴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덜컥 겁이 났다. 여느 때 같으면 방문을 열고 반갑게 맞아 줄 어머니가 오늘따라 아무 기척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뭇짐을 팽개치고 방안으로 들어온 총각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자꾸만 헛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화꽃이 보고 싶다. 매화꽃이 … ."

그 소리를 들은 총각은 곧바로 매화꽃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한겨울에 매화꽃을 찾는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매고 다니던 총각은 발이 얼어 터지고 허기에 지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였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도 무엇인가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정신을 차린 총각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앞에는 보기에도 무시무시한 호랑이 한 마리가 넙죽 엎드려 절을 하는 듯 하더니 꼬리를 흔들며 등에 올라타라는 듯한 몸짓을 했다.

그러고 보니 호랑이 입에는 매화꽃 한 송이가 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 총각이 호랑이 등에 오르자 호랑이는 쏜살 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호랑이가 도착한 곳은 총각의 집이었다. 꿈만 같은 순간이었다.

총각은 서둘러 매화꽃을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다. 그러자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는 언제 병으로 고생했느냐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총각은 너무나 기뻐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금방까지만 해도 문밖에 큰 호랑이가

앉아 있었는데 호랑이는 간데없고, 그 자리에 예쁜 색시 하나가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총각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색시에게 물었다.

"사실 저는 앞산에 사는 호랑이온데, 오래 전부터 인간의 세계가 그리워 산신령님께 인간이 되게 해 달라며 지극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산신령께서 소녀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효성이 지극하신 서방님과 부부의 정을 맺도록 허락해주셨습니다."

색시는 총각의 어머니에게도 공손히 인사를 올렸다. 그리고 결혼식도 성대하게 올렸다. 색시는 첫날밤 총각에게 한 가지 꼭 약속을 지켜 주어야할 일이 있다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을 했다.

"알았소, 그 약속이 무엇이요?"

"이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알았소, 꼭 지킬 테니 무슨 약속이요?"

"제가 앞으로 백일 동안은 산신령께 더 기도를 해야 하옵니다. 그래서 서방님께서는 절대로 저 앞산에 올라가서는 아니 되옵니다. 알으셨죠. 이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만 되옵니다."

"알았소. 그게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구, 그렇게 어렵게 말을 하오."

총각은 절대로 앞산에 나무하러 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색시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리고 꿈같은 즐거운 날이 얼마간 지나갔다. 그러나 총각의 마음에 자꾸만 이 호랑이 색시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도대체 무슨 연유로 앞산에 가면 안 되는 걸까? 왜 일까?"

아내가 정성을 기울일수록 궁금증은 더해갔고 산을 바라보면 더욱 가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침내 총각은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갔다.

총각이 산기슭에 들어서자 갑자기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았다. 총각이 산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지고 드디어는 천둥 번개가 요란하더니 산으로 오르던 총각은 갑자기 무엇인가 알 수 없는 큰 힘에 의해 산 아래로 내동댕이쳐졌다. 얼마 동안 정신을 잃었던 총각이 집으로 돌아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병들어 앓고 있는 어머니의 신음소리만 방안 가득 들려올 뿐 꽃 같이 예쁜 색시는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야 비로소 총각은 색시의 간곡한 청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총각 앞에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원망스럽고 서글픈 눈초리로 사납게 총각을 향해 으르렁대다가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지고 말았다.

총각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지만 한 번 지키지 못한 약속은 영원히 되돌릴 수가 없었다. 그때 총각이 흘린 눈물이 냇물이 되어 오르지 못할 큰 산을 휘몰아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만리강산에 계곡이 많은 것은 총각의 눈물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한 번 맺은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 주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교훈이다. 또 순간의 실수로 하여 만리길보다 더 먼 산이 되었다 하여 이 산의 이름을 만리강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옛 이야기다.

(무풍면 금척리)

11. 돛대나무 이야기

무주군 무풍면 증산리 사동마을 뒤로 대덕산과 망덕산이 마주보며 이룬 계곡에 '갈마골'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을에는 높이 18m, 둘레 6m가 넘는 삼백년이나 묵은 한 그루의 나무가 우뚝 솟아 있었다. 사람들은 이 나무를 돛대나무라 불렀다. 마을의 운명을 저어 나가는 돛대라는 뜻이었다. 또 마을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돛대나무의 은덕이라 생각하고 잘 가꾸며 보호했다.

그런데 어느 날 관청에서 집을 새로 짓기로 했는데 그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 갈마골의 돛대나무를 베기로 하였다는 말이 전해 왔다. 돛대나무가 크고 반듯하여 목재로는 아주 안성맞춤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을사람 들은 모두 반대하였다. 마을의 수호신을 베어간다는 것은 곧 마을을 황폐화 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관청에서 순순히 물러날 까닭이 없었다. 관청에서는 적당한 재목감이 없다며, 마을사람 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압적으로 위협도 했다. 할 수 없이 마을사람 들은 나무를 베도록 허락했지만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나무를 베기로 한 하루 전, 돛대나무 위에서 살던 까치가 마치 돛대나무가 베어 없어지는 것을 알기라도 한 듯이 둥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런

가 하면 나무를 베어내자 나무 밑동에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나와서 어디론가 살아지는 것이었다.

마을사람 들은 이 같은 이상한 일은 아무래도 나쁜 징조가 틀림없다며, 나무를 베도록 허락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마을에는 재앙과 걱정할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홍수와 가뭄으로 마을사람 들을 괴롭히는가 하면, 인심 좋기로 소문난 마을 사람들이 조그마한 일에 서로 다투고 시비를 하고 조용할 날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 중에는 다른 곳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었다. 마을이 이토록 황폐해지는 까닭은 돛대나무를 벤 때문이라 생각하고 의논 끝에 돛대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나무를 심기로 했다. 그러자면 빨리 자라는 나무를 골라 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미루나무를 돛대나무가 섰던 자리에다 심었다. 지금 마을 앞 미루나무는 그때 심은 나무라고 전해오고 있다.

마을사람 들은 정성으로 이 나무를 사랑하고 보호했다. 미루나무가 커가면서 차츰 마을은 예전의 인심 좋고 마음씨 착한 사람들의 마을로 변해가고 있었다. 나무를 가꾸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을 좋아하게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무풍면 증산리)

12. 백련사(白蓮寺)와 못봉 구렁이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유서 깊은 고찰 백련사에는 죽음을 앞에 둔 전장의 그늘처럼 적막에 싸여 있었다. 이따금 계곡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만이 대웅전 처마 끝의 풍경을 흔들어 놓을 뿐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법당을 오가는 승려들도 오늘따라 한결같이 말이 없었다. 저마다 몹시 긴장하고 초조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왜 지금까지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올해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지나가는 것일까?"

승려들은 조바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승려들이 긴장과 초조 속에 빠져있는 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해마다 섣달그믐이 되면 빠짐없이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가 올해는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승려들은 차라리 그 소리가 빨리 들려왔으면 하고 바라는 심정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디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도 모르는 채 벌써 여러 명의 승려가 그믐날에 종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백련사 큰 스님은 올해엔 반드시 자신이 직접 그 소리의 정체를 찾아가 볼 결심을 하고 있었다. 삼경이 가까워 올 무렵이었다.

"여보시오. 누구 좀 이리 와 주시오."

드디어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소리가 들리던 첫 해에는 제법 당당하게 들리던 것이 해가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힘을 잃고, 이제는 애절하고 애원하는 듯한 소리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백련사 승려들은 하나같이 두려움과 불안한 얼굴이었다. 올해는 또 누구를 보낼 것인가. 몇 년을 두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큰 스님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도록 승려를 한 사람씩 보냈지만 부르는 소리를 찾아간 승려는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큰 스님이 직접 찾아 갈 모양인지 가사자락을 떨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승려들은 큰 스님이 어디를 가시느냐며 모두 만류했지만 듣지 않고 올해에는 결코 그 소리의 정체를 밝히겠노라고 결심을 하고 있었다.

"이리 오시오! 누구 좀 와 주시오. 누구 없소?"

큰 스님은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갔다. 스님이 소리에 이끌리듯 간 곳은 앞산 못봉이었다. 못봉에 이르자 어디선 가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큰 스님 앞으로 다가왔다. 구렁이를 보자 큰 스님은 발을 멈칫멈칫 뒷걸음을 했다.

"놀라지 마십시오. 절대로 해치지 않습니다."

구렁이는 애원하듯 말했다.

"네가 해마다 그믐날이면 기이한 소리로 승려들을 홀린 것이었더냐?"

"예, 저는 본래 제자동(帝子洞)의 중화사 수좌 였으나 전생에 많은 죄를 지어 이런 모습으로 업을 살고 있습니다."

"하면 어이 하여 해마다 무고한 승려들을 끌어다 죽였단 말이냐?"

스님은 노기 띤 얼굴로 구렁이를 크게 꾸짖었다. 그러자 구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간절한 소원이 있어 도와주기를 청한 것이 온데, 어찌 사람들을 해칠 일이옵니까? 저의 소리를 듣고 이리로 온 승려들이 저의 험상궂은 이런 모습을 보는 순간 혼절을 하여 숨을 거둔 것이지, 결코 제가 해친 것이 아니옵니다. 믿어주십시오. 스님.”

“그래, 너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저를 위해 제를 한 번만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저는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사옵니다.”

구렁이의 간절한 소원대로 스님은 천도제를 올려주기로 하고 백련사로 돌아와 정성껏 제를 올려 주었다. 천도제를 올린 뒤 얼마 안돼 백련사엔 큰 불이 나 절간을 모두 태워버렸는데, 기이한 것은 같은 날 중화사에도 불이 나 절간이 모두 타버렸다.

어쨌든 백련사 스님들은 불에 탄 절을 다시 세우기로 하고 여러 가지로 힘을 쏟았다. 그러나 소실된 절을 다시 복원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조금씩 들어오는 시줏 돈으로는 턱없이 모자랐다.

스님들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느낀 큰 스님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명나라의 어느 스님에게 구원을 얻고자 길을 떠났다. 이때 명나라 황실에는 큰 경사가 일어났다. 황제와 황비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공주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웬일인지 공주는 울음도 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라면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른 손을 꼭 쥔 채 손가락을 펴지도 못했다. 황실에서는 공주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중국 땅 수많은 명의들이 다 대궐로 찾아와 공주의 병을 고치려 했지만 아무도 공주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

공주는 몸도 쇠약해 앓아 눕는 날이 많았다. 생각 다 못한 황실에서는 사랑하는 공주를 산 좋고 물 맑은 조용한 절로 보내 요양토록 했다. 이 무렵 백련사 큰 스님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마침 유서 깊은 절 하나가 있었으므로 그리로 찾아 들어갔다.

큰 스님이 막 산문을 들어서려는데 난데없이 병사들이 길을 막고 서는 것이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먼 곳에서 온 중 이온데 잠시 이 곳에서 머물다가 떠날 테니 그리 아시지요.”

“아니 됩니다. 이 곳은 지금 공주님이 계시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면 되오.”

“아니 되오. 어서 나가시오.”

잠시 쉬어가겠다는 스님과 병사들이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때마침 시녀들을 따라 산문을 나서던 공주와 큰 스님의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태어나서 말 한마디 못하던 공주가 갑자기 "스님! 스님!"하고 소리쳤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큰 스님 앞으로 급히 다가오는 도중에 그때까지 꼭 움켜쥐고만 있던 손바닥이 저절로 펴지면서 그 속에서 무엇인가 뚝 떨어지는 것이 있었다. 그것을 주어보니 거기에는 "해동조선국(海東朝鮮國)덕유산제자동선승후신(德裕山帝子洞禪僧後身)"이라는 글이 적혀 있는 게 아닌가.

명나라에서 편작의 후예라 자칭하는 명의들도 고치지 못한 공주의 병이 백련사 큰 스님을 보는 순간 씻은 듯이 나았으니, 황제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황제는 큰 스님을 대궐로 모셔 다 극진한 대접을 하며 조선국에서 먼 중국에까지 오게 된 연유를 물었다.

큰 스님은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은 당연하다. 황제는 큰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백련사 재건 비용을 상금으로 내렸고, 큰 스님은 돌아와 옛 모습 그대로 백련사를 재건했다. 바로 못봉의 구렁이가 환생하여 백련사에 보은을 한 것이었다.

(설천면 심곡리)

13. 빙어약소 (氷魚躍所)와 설치자투소 (雪稚自投所)

지금의 설천면 소천리(所川里)와 두길리(斗吉里)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나제통문(羅濟通門)옆 냇가에는 '빙어약소'라고 쓰여진 바위가 하나 있다. 또 그곳에서 구천동을 향해 십리 가량 올라가면 두길리 구산마을 행길가에도 '설치자투소'라고 쓰여진 바위가 있다. 이 두 바위는 이만경(李晩景)이라는 사람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조선 영조 때의 일이다. 이만경은 성품이 바르고 학문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힘도 세어 근방에서는 당할 사람이 없었다. 효성도 지극하여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만경의 성품이 워낙 곧고 청렴하여 집안은 늘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그의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마을사람 들이 몰래 쌀 가마니라도 들여놓는 날에는 당장 불호령이 떨어졌다.

"세상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는데, 무슨 어리석은 짓이냐"는 것이었다.

자신보다는 이웃에, 이웃보다는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큰 인물이었다.

어느 엄동설한 이었다.

만경의 늙으신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다. 효성이 지극한 만경은 정성을 다해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였다. 그런데 며칠 동안을 몹시 앓던 어머니가 느닷없이 꿩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자 만경은 당장 꿩 고기를 구하러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자신의 형편으로는 시장에 나가 꿩 고기를 사올 처지가 못 되는 만경은 꿩을 잡으러 무작정 산으로 올라갔다.

만경의 힘은 어느 장사 못지않게 세지만 허리까지 빠지는 눈밭에서 살아 날아다니는 꿩을 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얼마 동안 꿩을 찾아 헤매다 지친 몸으로 지금의 두길리 구산 마을에 들어섰을 때였다. 어디선가 갑자기 '푸드득' 하는 소리가 나더니 만경의 발 밑에 꿩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만경은 놀랐지만 이는 하늘이 내려준 은혜로 감사히 생각하며 어머니에게 정성껏 끓여 드렸다. 만경은 이런 행운을 어머님을 더욱 잘 봉양하라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아들 만경에게 "얘야, 잉어가 먹고 싶구나. 싱싱한 잉어고기를 먹고 나면 내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만 같구나." 하고 말했다.

만경은 한겨울에 잉어를 잡는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지만 싫은 기색도 없이 "예, 그러지요." 하고 다시 밖으로 달려 나갔다.

그날 따라 날씨는 더욱 춥고 어두웠다. 눈도 많이 내리고 바람이 몹시 불어댔다. 사방 천지에 움직이는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 고요하기만 했다. 냇가 어디에도 꽁꽁 얼어붙어 얼음을 깨고 들어갈 곳은 하나도 없었다. 얼마 동안을 추위와 허기에 지쳐 지금의 원당천 냇가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얼마가 지났을까 희미하게 정신이 든 만경은 깜짝 놀라 일어났다. 두껍게 얼어붙었던 냇물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잉어 한 마리가 펄떡거리며 땅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만경의 효심에 또 한 번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다. 만경은 잉어를 잡아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다려드렸다. 그리고 하늘의 고마움에 몇 번이고 절을 하며

효성에 대한 약속을 했다. 이 같은 일이 마을에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만경을 일컬어 하늘이 내려준 효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훗날 사람들은 그의 효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꿩이 스스로 떨어져 죽었다는 두길리 구산마을 길가 바위에다 설치자투소(雪稚自投所)라는 글을 새겼고, 얼음을 깨고 잉어가 튀어나왔다는 나제통문 개울가 바위에는 빙어약소(氷魚躍所)라는 글을 새겨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두길리 구산마을)

14. 적상산성(赤裳山城)과 장도바위

때는 고려 말의 이야기다. 우리나라 남쪽 해안지방에는 왜구들이 자주 출몰하여 노략질을 일삼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았다. 그런 중에도 명나라 에서는 제주도의 말 2천 필을 보내달라며 위협을 하는 등 나라 안이 어수선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에는 일찍부터 목마장을 개설하고 몽고 사람들을 보내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조정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틈을 타 도적떼들이 난을 일으켜 제주민을 억압하는 등 그 횡포가 날로 심해져 가고 있었다.

이에 고려 조정에서는 삼도통제사 최영 장군이 앞장서 제주도로 내려가 도적떼의 반란을 평정하고, 또 왜구들을 멀리 내쫓는 등 백성들을 편안히 살게 하고 개경으로 가는 개선 길에 올랐다.

최영 장군의 군대가 주계(朱溪 : 무주의 옛 이름) 땅을 지나게 되었다. 때는 가을,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들어 아름다움이 극치를 이루고 있을 때였다. 적상천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개울가에 행군을 멈추게 하고 병사들을 잠깐 쉬게 하고 있던 최영 장군은 만산홍엽으로 아름답게 물든 적상산을 올려 다보았다.

산의 허리를 깎아 세운 듯한 암벽이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고, 그 위의 나무들은 붉은 물감을 칠한 듯 단풍이 눈부시게 곱게 타고 있는 불길 같았다. 마치 붉은 치마를 입은 아리따운 여인을 연상시키는 산정을 올려 다 보고 있던 최영 장군은 문득 산 정상에 오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최영 장군은 병사들을 모두 주계성으로 행군케 하고 부장 몇 사람만 데리고 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최영 장군 일행이 정상 가깝게 오르고 있을 때, 최영 장군 일행 앞에 떡 버티고 서있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다.

이 바위 때문에 도무지 산 정상에 오를 수가 없었다. 정상을 눈앞에 두고 산을 내려 가야 할 최영 장군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내가 이제까지 왜구와 오랑캐를 치기 위해 온갖 어려움과 험난한 길도 거칠 것이 없었는데, 감히 바위가 내 앞길을 가로막는단 말이냐?"

장군은 허리에 차고 있던 장도를 뽑아 들고 바위를 힘껏 내리쳤다. 순간 그때까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사람들의 앞을 가로막고 버티고 섰던 바위가 양쪽으로 쪼개지면서 길이 나는 것이 아닌가.

그를 따르던 몇몇 부장들은 입을 모아 "과연 최영 장군은 하늘이 내리신 명장이시다"하며 감탄하였다.

정상에 오른 최영 장군이 그 곳의 산세를 살펴보니, 사방은 천길이나 되는 절벽이 에워싸고 있어 왜적을 물리치고 국난을 막을 수 있는 천혜의 요새였다. 이에 감탄한 최영 장군은 왕에게 적상산에 성을 쌓고 절을 지어 그 곳에서 승병을 양성토록 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적상산성이 축조되고 안국사(安國寺)가 창건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장도바위는 적상산성 서문 아래에 위치하여 지금도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때 최영 장군이 장도로 내리쳐 쪼갠 바위라 하여 장도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적상면 북창리)

15. 극락전과 학대사(鶴大師)

적상면(赤裳面) 북창리(北倉里)리에 있는 적상산에는 고려 충렬왕 때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유서 깊은 사찰 안국사(安國寺)가 있다. 이 사찰은 조선조 광해군 6년(1614년)에 사각(史閣)을 설치하고 선원록(璿源錄)까지 봉안했던 유명한 고찰이다.

이 고을 사람들은 나라의 귀중한 실록이 봉안된 안국사를 이 고장의 자부심으로 삼

았고,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 부처님께 정성을 드려 기도했다.

고종 원년(1864년)에는 조정에서 적상산 사고의 포쇄관(曝碼官 : 사고의 서책을 점검하고 햇볕에 말리는 일을 맡아 보는 직책)으로 예문관 부재학이던 난대학사(蘭臺學士) 이면광(李冕光)을 임명하였다.

이에 안국사에 부임한 이면광은 사고(史庫)의 수호사찰인 안국사가 너무 낡고 초라하여 당시의 승장이던 인아대사(仁雅大師)와 상의하여 조정에 수리를 요청했다. 조정에서는 즉시 사찰을 수리토록 허가했다.

이에 안국사는 보수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인 1865년 안국사는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나, 마침 조정에서 경복궁 중건사업을 하고 있던 터라 단청공(丹靑工)을 구할 수가 없어 단청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아대사와 마을사람들은 모두 나서 백방으로 단청공을 수소문 해보았으나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안국사는 누더기 옷을 입은 형상이었다. 이를 안타까이 바라보던 스님들과 불자들은 보수공사 축성식과 함께 백일기도에 들어갔다.

백일기도가 끝난 며칠 뒤, 안국사 극락전 앞마당에 형색이 남루하고 늙은 몸을 간신히 지팡이에 의지한 노승 한 사람이 주지스님을 찾았다. 안국사를 한참이나 바라보던 노스님은 단청을 하지 않는 연유를 물었다.

"단청공을 찾으려 백방으로 수소문 했으나 단청공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노스님은 "사정이 그러시다면 내게 단청을 맡겨 주시오"라고 했다.

인아스님도 처음에는 형색이 너무 초라하고 나이가 많은 것 같아 망설였으나 달리 방법도 없고 해서 승낙을 했다. 늙은 스님은 단청에 필요한 물건을 구하러 간다며 떠나더니 며칠 후 지게에 잔뜩 짐을 진 장정들과 함께 돌아왔다.

그런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 풀어놓은 짐을 보니 단청에 쓰일 물건은 하나도 없고 쓰다버린 홑이불 같은 휘장 백여 장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닌가.

인아대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스님, 이 휘장을 극락전 사방으로 둘러쳐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안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하면 석 달 열흘이 걸릴 것이오. 내가 일을 마칠 때까진 주지스님은 물론 누구도 이 안을 들어다 보아서는 아니 되오. 알았소?"

몇 번이고 노스님은 당부했다.

"내가 저 휘장 안으로 들어갈 것이니 누구에게도 내가 저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는 얘기도 발설치 말고, 또 아무리 궁금하고 짜증스럽다 하더라도 절대로 나와 이야기할 생각도 말아야 하오. 알겠소?"

노스님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나자 인아대사는 단청도구는 물론 물감도 없이 단청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며, 또 석 달 열흘간 공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인아대사는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또 공연한 일을 시킨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해 기도에 정진하던 인아대사는 석 달 아흐레가 되는 날 도저히 더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다.

극락전 앞으로 다가간 인아대사는 당장 휘장을 들춰 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순간 조용하던 휘장 안에서 푸다닥 거리는 새의 날개 짓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깜짝 놀란 인아대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귀를 기울이니 휘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것 참 알 수 없는 일이로군. 휘장 안에서 날아다니는 새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더욱 궁금하고 초조해진 인아대사는 휘장의 벌어진 틈으로 안을 살며시 들여다보았다. 이때 커다란 새 한 마리가 극락전 뒤의 추녀에 매달려 있다가 푸드득 소리를 내며 날쌔게 휘장을 찢고 날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니 하얀 학 한 마리가 너울너울 어디론 가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다.

"아, 아. 내가 인내심이 부족해 일을 그르쳤구나. 나라의 안위와 불자들의 염원을 듣고 그 학이 노스님으로 변장하여 안국사의 축성을 도우려 했던 것인데……."

인아대사는 후회했다. 그러나 어쩌랴. 휘장이 벗겨진 안국사 극락전은 서산마루에 걸친 석양빛을 받아 웅장하고 아름다운 광채로 눈이 부셨다. 허름한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은 극락전은 마치 극락세계의 궁전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했다.

그런데 학이 있다가 날아간 극락전 뒤편 추녀 밑을 보니 단청을 하다 미처 끝내지 못한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내가 하룻밤만 참았더라면 … "

인아대사는 다시 한번 자신의 경솔함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다. 그 뒤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전국 각지에서 안국사의 단청을 보려고 신도들이 모여들었다. 나라를 수호하는 고찰을 살펴보고 자신들의 염원을 듣고 찾아온 부처님의 자비로운 영험을 겪어 보려는 것이었다.

지금도 안국사 극락전 뒤편 추녀 밑에는 그 때 노스님으로 변신했던 학이 단청을 하다 그친 자리가 남아있어 설화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준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노스님을 학대사(鶴大師)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오고 있다.

(적상면 북창리)

16. 두꺼비의 보은

옛날도 아주 옛날, 가난한 총각 한 사람 살고 있었는데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였다. 결혼할 나이가 된 그는 이웃마을 마음씨 착하고 효성이 지극한 처녀와 혼인을 하게 되었다.

새 색시가 시댁으로 신행을 하던 날, 가마꾼 들이 길가에 가마를 내려놓고 잠깐 쉬고 있는데 난데없이 두꺼비 한 마리가 가마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갑작스런 일에 깜짝 놀란 신부는 두꺼비의 징그러운 등을 보며 어찌할까 망설이다가 시집가는 날 자신에게 뛰어든 두꺼비가 왠지 예사롭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을 쳐다보는 두꺼비의 맑은 눈망울을 보고 그냥 버릴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가마에 태워 시댁으로 갔다.

시댁으로 데려온 두꺼비는 계속 새댁의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심성이 착한 새댁은 아무리 말을 못하는 미물이라도 자신을 그리 따르는데 불쌍하기도 하고 정도 들어 부엌 한쪽에 집을 마련해 주었다.

"두꺼비에겐 무엇을 먹여야 하나?"

새댁은 걱정이었다. 비록 미물이라 해도 생명이 있는 것이니 무엇을 먹여도 먹여야 할 텐데, 두꺼비는 스스로 먹이를 구할 생각은 않고 새댁의 뒤만 따라 다니는 것이었다.

가난한 살림살이라 식구들이 먹을 양식도 모자라는 판에 작은 동물에까지 나눠 줄 음식이 따로 없었으므로 새댁은 할 수 없이 자기 몫의 밥을 절반씩 나눠 먹였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새댁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두꺼비는 오히려 무럭무럭 자라 솥뚜껑만큼 자랐다.

식구들은 사람도 먹지 못하는 양식을 두꺼비에게 준다고 성화였다. 또 마을사람 들도 흉물을 키운다며 손가락질을 했다. 새로운 식구를 맞아들여 입이 하나 더 늘어난

데다, 두꺼비까지 먹여야 하니 시댁은 더욱 곤궁해져 하루 한 두 끼 굶는 일은 예사였다. 게다가 시어머님은 병환이 나서 약도 써보지 못하고 몸 져 앓아 누운 지도 꽤나 오래 되었다.

새 사람이 들어오고 집안에 병자가 생기거나 살림이 줄어들면, 사람 잘못 들였다는 말로 사람들의 입줄에 오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 같았다. 동네사람 들은 심성 착하고 얌전하기만 한 새댁을 트집 잡아 욕하기 시작했다. 새댁이 시집오면서 데리고 온 두꺼비가 틀림없이 집안에 재앙을 몰고 오는 것이라고도 하고, 새댁이 액이 끼어 집안이 망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새댁은 어떠한 소문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두꺼비를 키웠으며 시어머니 병간호도 온 힘을 다했다. 아무리 정성껏 간호를 해도 시어머니의 병세는 자꾸만 악화되었다. 새댁은 약 한 첩 쓸 수 없는 살림살이가 너무 원망스러웠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정월 대보름이 되자 마을사람 들은 서낭당에 제사를 지낸다며 음식을 장만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리고 서낭당에 바칠 젊은 여인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른들은 정신이 없었다.

이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새댁은 은밀히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를 찾아가 자신을 제물로 받아달라며 간청했다. 제물로 바쳐지는 사람은 천 냥의 돈을 받는다는 말 때문이었다.

제주(祭主)는 그렇잖아도 사람을 구하지 못해 걱정을 하고 있는 터에 큰 부담을 덜었다 싶어 쾌히 승낙했다.

"그 대신 보름날까진 절대로 비밀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알겠소. 꼭 약속을 지키지요."

새댁은 천 냥을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돈으로 시어머니의 약도 사고, 논과 밭도 얼마만큼 샀다. 새댁이 죽더라도 시댁은 잘 살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새댁이 정성껏 달인 약을 먹은 시어머니는 차츰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며 따졌지만, 새댁은 친정에서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폐물을 처분한 것이라며, 결코 천 냥에 몸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정월 대보름이 내일로 다가왔다.

마을사람 들은 이번에 제물로 바쳐질 여인이 누구인지 여간 궁금한 것이 아니었다. 이젠 병석에서 완전히 일어난 새댁의 시어머니도 이들과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가마를 맨 사람들이 새댁의 집으로 들어와 새댁을 찾자 집안 식구들이 영문을 몰라 놀라고 있는데, 옷을 깨끗이 갈아입은 새댁이 다소곳이 시어머니에게 하직인사를 올리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며느리가 한 일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앞길이 구만리 같은 네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어미를 살리기 위해 네 목숨을 팔았단 말이냐. 아니 된다. 아가, 안돼."

시어머니는 새댁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통곡하고, 남편은 너무 황당해 입도 벌리지 못하고 있는데, 새댁이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고정하십시오. 어머님은 세상에 한 분 뿐입니다. 며느리는 다시 얻으면 그만이지만 어머님은 제게나 서방님에게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서방님, 방안 장롱 속에 얼마 안 되는 땅과 밭문서가 있습니다. 부디 새 사람 얻어 어머님 모시고 잘 사십시오. 그 동안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말씀 드려야 할 것은 부엌 한 편에 있는 두꺼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새댁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마에 올랐다. 그리고 울부짖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뒤에 두고 떠나려는 순간, 아까까지만 해도 부엌에서 꼼짝 않고 있던 두꺼비가 새댁이 탄 가마에 폴짝 뛰어 오르는 것이었다.

그날 밤이었다. 제사를 마친 마을 사람들은 서낭당 주위에 숨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서낭당 느티나무 위에서 빨간 불덩이가 쏜살같이 내려오자, 이번에는 밑에서 파란 불덩이가 느릿느릿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마치 불덩이끼리 싸움판이라도 벌이는 듯 엎치락뒤치락 얼마 동안을 물고 뜯고 하더니 금방 조용해졌다. 빨간 불덩이는 어디론 가 가버리고 파란 불덩이만 더 파란 색깔을 내며, 그 자리에서 파란 불빛만 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만 무서움에 질려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이튿날이었다. 사람들이 우르르 서낭당으로 몰려갔다. 그런데 마을사람 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는 커다란 지네 한 마리와 두꺼비 한 마리가 쓰러져 죽어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 옆에는 새댁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가까스로 마을 사람들은 새댁을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새댁은 엊저녁 일로 정신이 아찔아찔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시어머니부터 찾았다.

"어머님!"

"오냐, 정신이 좀 드느냐?"

미물인 두꺼비이지만, 자기를 키워준 은공을 갚기 위해 지네와 싸워 함께 죽은 보은의 정신은 어찌 보면 사람보다 더 갸륵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 새댁은 자기를 위해 죽은 두꺼비의 시신을 잘 거두어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그 후로도 새댁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효도와 부덕을 다했다고 전하고 있다.

(적상면 북창리)

17. 무우당(無憂堂)과 옥구슬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입을 것 걱정하지 않고, 살 곳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상 행복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거기에 자식들 걱정하지 않고 건강 걱정하지 않으면 임금님 부럽지 않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복이 많은 사람이 한 사람 살고 있었다. 송씨 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송 부자는 어느 날 아들들을 불러놓고 그 행복에 대한 또 하나의 일을 이야기했다.

"얘들아, 지금 내 나이 육십이 넘도록 내외가 해로하고 너희들 삼형제도 우애 있고, 부모 뜻 거스르지 않고, 귀여운 손자 손녀들 얻어 집안이 다복하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단 한 가지 애비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동네 어귀 언덕 위에 집을 짓고 무우당(無憂堂)이라는 현판을 걸고 오고 가는 사람들과 벗 삼아 사는 것이란다."

"예, 아버지. 그렇게 하시죠."

아들 삼형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곧 사람들을 불러 지체 없이 집을 짓기 시작했다. 대청마루에 앉으면 몇 십리 밖까지 훤히 내다보이는 고대광실 높은 집을 지어 무우당이라 이름하였다.

그 무렵, 임금의 명을 받고 암행어사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고 있었다. 암행어사(억울한 일이나 살고 있는 형편을 살피며 돌아다니는 사람)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려 각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어사는 무우당으로 올라갔다.

“무우당(無憂堂)이라? 근심이 없는 집이라는 뜻 이렸다. 나라를 호령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임금님께서도 근심 걱정이 그칠 날이 없는데 한낱 백성의 처지로 근심이 없다니 무슨 뜻인고?”

어사는 주인 노인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시는 뉘신지요?”

“나는 서울에서 사는 박문수라는 사람이오만 ….”

“서울에 사시는 분이 어찌 이리 시골까지 오셨다는 말씀인지요?”

“이 고을 인심이 하도 좋다 기에 구경할 겸 왔다가 이곳 무우당까지 오게 된 것이오.”

“임금님은 임금님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다 근심거리가 있기 마련인데, 노인께서는 근심할 것이 없다니, 그 연유나 들어 봅시다.”

노인은 어사에게 집안의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다.

“내외가 육십이 넘도록 해로하고 있는 일, 아들 삼형제가 우애 있고 효심 지극한 일, 돈 많아 늙어 죽을 때까지 베풀고 살아도 되는 일, 손주 재롱 보며 사는 일, 이 이상 무엇을 더 바랄 것이요.”

어사는 송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어진 송부자의 모습을 보며 감탄했다.

어사는 다음 갈 곳을 향해 일어섰다.

“아니, 왜 일어나십니까?”

“해도 기울고 갈 길도 바쁘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요. 먼 길을 오셨는데, 내 집에 오셨으니 소찬이라고 들고 가셔야지요.”

극구 말리는 송부자를 뿌리치지 못하고 자리에 눌러앉은 어사는 과연 송부자의 말처럼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지 지켜보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소문대로 송부자는 누구나 친절하게 잘 대접했고, 노자까지도 쥐어 주는 것이 아닌가. 어사는 하룻밤을 송부자 집에서 오랜 친구처럼 편하게 머물고 그곳을 떠났다. 어사는 궁궐로 들어가 임금님에게 삼남지방을 암행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아뢰었다. 그 중에서도 전라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감명 깊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임금은 “그런 사람이 다 있느냐”’며 송부자를 한 번 만나보고 싶어 했다. 어

사는 즉시 송부자를 데려오라는 명을 내렸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송부자는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내 이제 서울로 가면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구나.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구먼……."

가족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송부자가 입을 열자 아내와 아들들이 일제히 아버지를 위로했다.

"평생 좋은 일만 해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시려고요. 아무 염려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마침내 송부자는 임금님 앞으로 나아갔다. 임금님 양 옆으로는 문무백관 들이 줄을 서있었다. 송부자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대가 욕심 없이 살며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소문이 있어 내가 부른 것이오. 그대가 하는 일이 너무 갸륵하여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라는 벼슬을 내리니 일년에 한번씩 입궐하여 과인이 백성들을 위해 어진 임금이 되도록 좋은 이야기를 해주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대 마음이 옥같이 깨끗하여 이 옥구슬을 주는 것이니 일년 뒤에 입궐할 때에는 이 옥구슬을 내놓으면 내 그대가 온 줄 알고 반갑게 맞을 것이오."

갑자기 예문관봉교 라는 벼슬에 옥구슬까지 받은 송부자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다.

한편 임금은 송부자의 복이 하늘이 준 것인지, 자신이 만든 것인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날쌘 병사 몇 사람을 시켜 송부자가 한강 나루에서 배에 오르거든 일부러 싸우는 척 하고 송부자가 가지고 있던 옥구슬을 슬쩍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했다.

이런 것도 모르는 송부자가 한강나루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배에 올랐다. 배가 한강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였다. 아까 우르르 몰려 배에 올랐던 젊은이들이 갑작스럽게 싸움판을 벌이는 바람에 송부자가 조심스럽게 가지고 있던 옥구슬 주머니는 이들 때문에 그만 한강에 빠뜨리고 말았다.

날쌘 병사들은 비록 어명을 받고 한 일이지만 송부자에게 못할 일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송부자는 당장 사색이 다 되어 있었다.

"누가 선물한 옥구슬인데……."

집으로 돌아온 송부자는 무우당으로 가지 않고 옛집으로 가서 안방에 자리보전하고

누워버렸다. 강물에 빠뜨린 옥구슬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가 없었다. 송부자는 무우당을 지은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다. 이렇게 근심이 생길 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송부자의 병은 갈수록 더해갔다. 삼형제가 백방으로 좋은 약을 구하고자 노력했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시골에서는 도저히 신통한 약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삼형제는 서울로 무작정 올라가 약을 구하기로 했다.

아들 삼형제가 한강에 다다르자 나루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다가간 삼형제는 깜짝 놀랐다. 거기엔 사람 크기만 한 잉어가 어부의 그물에 걸려 펄떡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옳지, 저 잉어를 사다가 아버지의 몸보신을 해드려야겠구나."

삼형제는 그 잉어를 사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잉어 뱃속에 아버지가 잃어버렸다는 옥구슬이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아들 삼형제는 옥구슬을 들고 아버지가 몸 져 누워있는 안방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그 옥구슬을 보자 금방 모든 병이 다 나은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했다. 벼슬 이름과 송부자 이름이 뚜렷이 새겨진 옥구슬이 틀림이 없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얘들아, 이제 내 병은 다 나았다. 너희들의 효심이 내 생명을 구했구나."

임금님과 약속한 일년이 되었다. 송부자는 옥구슬을 품에 안고 대궐로 향했다. 옥구슬을 본 임금은 무릎을 탁 쳤다.

"과연 그대는 하늘이 내린 복 받은 자니라."

임금은 하늘이 내린 복을 어떻게 나라가 뺏을 수 있겠는가 하고 송부자를 항상 옆에 두고 그의 언행을 귀감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다.

(무주읍 북리)

18. 두문(斗文)마을과 흥룡사(興龍寺)

옛날 이 마을에 뛰어난 선비 한 사람이 있었다. 언제나 공부만 열심히 하던 선비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학문에만 열중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얼마를 산속으로 들어갔을까. 그 곳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두 노인을 발견하고 잠

깐 바둑 두는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 두 노인들은 신선들이었다. 선비도 딴은 바둑이나 장기를 무척 좋아했던 터라 신선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다.

학문에 열중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모두 허사였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그곳으로 가보니 두 노인은 간데없고, 느닷없이 호랑이 두 마리가 나타나 사납게 으르렁거리며 선비에게 달려들었다.

깜짝 놀란 선비는 마치 자신이 신선이라도 된 듯 호랑이를 꾸짖었다.

"네 이놈들, 어디 감히 신선들이 노는 곳에 호랑이 따위가 나타나 겁을 주는 것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그러나 두 마리의 호랑이는 당장이라도 선비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듯 더욱 무섭게 으르렁거리는 것이었다. 선비는 이제야 죽었구나 싶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학문에 소홀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했다.

얼마를 지났을까, 호랑이는 간데없고 그 자리에 아까 바둑을 두었던 두 사람의 노인이 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학문에 정진 하겠다고 이 산속까지 들어온 놈이 학문에는 뜻이 없고 바둑에만 정신을 쏟고 있느냐. 그래도 되는 것이냐?"

선비는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 움막을 짓고 열심히 학문에 힘을 쏟겠다며 두 노인에게 약속을 했다. 그러자 노인들은 어디론 가 가버리고 말았다.

선비는 자신의 결심을 잊지 않기 위해 그 옆에 지팡이 한 개를 꽂았다.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날 때가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뜻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지팡이에서 싹이 트고 있었다. 그만큼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는 이야기였다.

선비는 그제야 공부가 어느 정도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마을로 내려와 과거시험을 치르러 한양으로 올라갔다. 선비는 물론 장원이었다. 선비는 청렴결백하고 학문이 뛰어나 판서를 거쳐 정승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는 나이가 들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고향으로 내려온 선비는 서당을 짓고 학문을 익히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제자로 맞아들였다. 워낙 선비의 인품과 학식이 뛰어나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선비도 이젠 마음도 몸도 늙어 제자들을 가르칠만한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가르칠 힘이 없느니라. 앞으로 너희들은 벼슬을 하되 교만하지 말고, 재물을 탐내지 말며 항상 충성심과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

느니라. 알겠느냐?”

선비는 제자들에게 그 한 마디를 남기고 홀연히 어디론 가 떠나고 말았다. 그 뒤 사람들은 선비가 지난 날 만났던 신선들과 함께 신선이 되었다고도 하고, 또 일설에 의하면 선비의 인품과 학문의 뛰어남이 하늘에까지 알게 되어 옥황상제가 하늘로 불러 승천했다고도 한다.

어쨌든 그의 제자들은 선비가 처음 움막을 짓고 학문을 익혔던 곳에 스승을 기리기 위한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이 바로 흥룡사(興龍寺)라고 한다. 지금은 절의 모습은 흔적도 없고 이따금 깨어진 기왓장만 그 때를 기억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선비가 신선들과 바둑을 두고 놀았다는 곳을 방선대(芳仙臺)라 하고, 호랑이가 나타났던 산을 아홍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선비가 움막을 짓고 공부하던 곳은 이 마을에서 향약(鄕約)을 집행하던 곳이 되어 두람재(斗覽齋)라는 집이 세워져 있다. 선비가 꽂아두었던 지팡이는 자라 지금은 아름드리 정자나무가 되어 마을사람 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또 선비가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제자들 가르치던 곳을 서당골 이라 부른다. 그리고 마을은 선비가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에게 많은 글을 가르친 곳이라 하여 ‘말글’ 이라는 이름의 두문(斗文)이 되었다고 한다.

(안성면 두문리)

19. 장님총각과 앉은뱅이 처녀

옛날에 장님총각과 앉은뱅이 처녀가 이웃에 살고 있었다. 이들의 몸은 두 사람 모두 불구였으나 부지런하고 성실했으며 마음씨 또한 곱고 아름다웠다.

마을 사람들의 놀림이나 업신여김에도 항상 웃는 얼굴로 대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걷지를 못하여 밖에 나가본 일이 없고, 또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해 혼자 낯선 곳을 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힘을 합해 이웃마을 구경을 가기로 했다. 앉은뱅이 처녀를 총각이 업고 처녀가 일러 주는 대로 길을 가면 어디든 가지 못할 곳이 없을 것 같았다.

총각은 처녀를 업었으나 난생 처음 낯선 길을 제 발로 걸어간다는 기쁨 때문에 힘

든 줄을 몰랐고, 처녀 또한 총각의 신세를 지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았으나 처음으로 마을 밖을 나가본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다.

그 날 따라 날씨가 몹시 무더웠다. 두 사람은 먼 길을 걷느라 온몸이 땀으로 젖고 목이 말라 더 이상 그냥 갈 수가 없어 잠시 쉬며 목이라고 축이고 가기로 하였다. 처녀가 사방을 둘러보니 마침 그 옆에 샘이 하나 있었다. 샘을 발견한 처녀는 총각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곳에서 물을 먹으려고 몸을 구부리던 처녀는 깜짝 놀랐다. 샘물 속에 어찌 된 일인지 황금막대가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다. 처녀는 총각에게 이야기했다.

이는 분명 어떤 사람이 잊어버린 것이 틀림이 없을 것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걱정을 했다. 두 사람은 비록 가난했지만 남의 것을 함부로 가지고 갈 수는 없었다.

그 금만 있으면 두 사람은 평생 돈 걱정 않고 살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대로 놓아두고 가던 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그 때 한 사나이가 나타났다. 보기에도 심술이 많고 장난질이 심할 것 같이 보였다.

“잠깐, 자네는 힘이 아주 센 모양인데 나도 좀 업고 가게나.”

사나이는 분명 두 사람을 골려 주려고 앞을 가로막았다.

“보시다시피 등에 업힌 사람은 걷지를 못하고,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총각과 처녀는 사나이에게 사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야, 업고 가라면 가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총각과 처녀는 이 못된 놈의 행동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다시 한 번 애원했다.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들은 함께 가야 합니다.”

총각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사정했지만 허사였다. 다급해진 처녀가 위기를 모면할 생각으로 말했다.

“저희들이 지금 오면서 저쪽 산길 바로 밑 샘에서 황금막대를 보았는데 남의 물건이라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갖고 싶으면 서둘러 그곳으로 가보십시오.”

황금이라는 소리를 듣자 사나이는 귀가 번쩍 뜨이는 모양이었다.

“뭣이라고, 그게 정말이야?”

“예, 그것만 있으면 당신은 평생 놀고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정말 사실이렷다. 만약 거짓말이라면 그냥 두지 않을 테다."
사나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샘터로 달려갔다. 그러나 사나이가 샘터로 달려갔을 때는 황금 막대기는 없고 누런 구렁이 한 마리만 있었다.
"이크, 이게 뭐야. 구렁이가 아니야. 이것들이 나에게 장난을 해?"
사나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그만 돌멩이를 집어 냅다 구렁이에게 던졌다. 그러자 누런 구렁이가 두 동강이가 나버렸다.
되돌아온 사나이는 앞을 못 보는 총각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마구 해댔다.
"이것들이 나를 속이고 무사할 줄 알았느냐."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분명 저희들이 보았는걸요."
"그래도 이것들이 또 거짓말이야."
사나이는 총각을 실컷 두들겨 패고는 어디론 가 가버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황금막대를 보았는데 도대체 어찌 된 일인가. 두 사람은 사나이에게 당한 것이 너무 분하고 원통하여 다시 그 샘터를 찾아 갔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황금막대가 두 동강이 나 있었다.
"저기 황금막대가 그대로 있어요."
처녀가 그만 깜짝 놀라 총각의 등에서 풀쩍 뛰어내리는 순간 다리가 펴져 일어서지는 것이었다. 또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뛰어내리는 처녀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총각이 "어디?"하고 소리를 지르자 번쩍 눈이 떠지는 것이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날부터 장님 총각은 눈을 뜨게 되었고, 앉은뱅이 처녀는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앞 못 보는 장님 총각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 처녀가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이 샘물을 먹어서 그리 되었다 해서 이곳을 정천(井川)이라고 부른다고 전해오고 있다.

(안성면 덕산리)

20. 임진왜란과 장군바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얼마 전의 일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 어떻게 이 마을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눈이 부리부리 하고 기골이 장대한 젊

은 아들 하나를 데리고 늙은 어머니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학식과 인품이 출중하고 무엇인가 범상치 않은 이 청년은 겨우 나이 열 여섯, 어디를 보아도 귀공자임에 틀림이 없었다. 여기에 비하면 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여염집 여인에 불과했다. 마을에 살고 있긴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모자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다. 그만큼 마을사람 들과는 멀리하고 살아왔다는 얘기다.

청년은 언제나 아침 일찍 어딘가 로 나갔다가 밤이 늦게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그런데 어느 마을 사람의 이야기로는 이 청년이 말 타기와 사냥을 하느라 하루 종일 산과 들을 누비고 다니는 모습을 본 일이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청년이 사라진 것은 무예를 익히거나 말 타기와 사냥을 하러 갔을 것이라고 했다. 청년은 언젠가는 이 나라에 큰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때를 위해 청년은 한 시도 쉴 틈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청년은 수수 한 말 좁쌀 한 말을 자루에 잘 넣어 달라고 했다. 그리고 3개월 안에는 절대로 내가 어디를 갔는지에 대해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하고 그날 밤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다.

이 무렵 조선 침공을 준비 중이던 일본의 풍신수길에게 조선 정벌은 절대 안 된다고 간곡히 청을 한 사람이 있었다. 조선을 침공했다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사람은 풍신수길 밑에서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일본이 조선을 침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데 …. 이제 와서 안 된다니?"

풍신수길은 벌컥 화를 냈다.

"아니 되오. 조선에는 이미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백만대군을 양성하고 있는 무서운 소년 장수가 있습니다."

"소년 장수라니? 그렇다면 그 놈을 먼저 때려잡으면 될 것이 아닌가."

풍신수길은 장수들을 모았다. 만약 조선에 상륙하면 먼저 어느 산골 바위 밑에서 대군을 조련하고 있는 그 소년 장수부터 잡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말았다. 일본의 장수들은 조선을 침공하자마자 부리부리한 눈에 기골이 장대한, 그리고 인물이 범상치 않은 소년 장수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때 무주지방으로 들어온 왜군들이 일본에서 풍신수길에게 전해들은 조선의 소년 장수가 이곳 어느 바위 밑에서 군사를 조련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고, 여러 가지로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 기골이 장대하고 범같이 날쌘 소년이 한 사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소년 장수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몇 달 전에 어디론 가 없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다.

이 사실이 왜장에게 알려지자 즉시 산골 마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년 장수는 찾을 길이 없었다. 결국 왜장은 소년 장수의 어머니를 찾아내 끌고 왔다.

왜놈들은 소년의 어머니에게 아들이 간 곳을 말하라며 위협하고 협박하고 온갖 고통을 주었지만,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고 잡아떼었다.

왜놈들은 만약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마을 처녀들을 한 사람씩 잡아다가 활로 쏘아 죽이겠다고도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까지 나와 잘못하면 마을이 몽땅 저 놈들의 손에 떼죽음을 할 것이라며 가르쳐 주라고 사정을 했다.

그래도 소년 장수의 어머니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을 청년들을 잡아 냇가에 세워 놓고 한 사람씩 잡아 죽였다. 너무 처참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자 소년의 어머니는 기가 막혔다. 왜놈들이야 하나도 무섭지 않았지만 마을 청년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소년의 어머니는 차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드님은 무예도 뛰어나고 힘도 세니 당장 왜놈들이 어쩌지 못할 것이요. 제발 부탁 드려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다. 소년의 어머니는 결국 마을 사람들의 간청에 굴복하고 말았다. 소년 장군이 있다는 곳을 알게 된 왜놈들은 물밀 듯이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바위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위문은 끔쩍 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많은 왜병들이 달려들어도 헛수고였다. 사람의 힘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왜장은 대포를 끌고 오라 했다. 그리고 바위문을 향해 대포를 쏘아대기 시작했다.

드디어 바위문이 열렸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바위 속에는 수만 수천의 군대가 수만 수천 마리의 말에 막 오르려는 순간에 있었다. 소년 장수가 가지고 간

좁쌀은 모두 군대가 되고 수수는 모두 말이 되어가고 있었다. 조금만 있었으면 모두 살아 움직이는 기적이 일어날 순간이었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 막 말에 오르려던 좁쌀 군대는 모두 쓰러져 죽고, 수수 말도 따라서 쓰러져 죽어갔다. 장차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의 위기를 구할 소년 장군의 도술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리고 소년 장수도 죽고 그 어머니도 따라 죽으니 바로 그것이 장군바위에 얽힌 이야기다.

(무주읍 당산리·안성면 명천리)

[집필 : 서재균]

제2절 무주(茂朱)의 시가(詩歌)

1. 개관

무주지방의 시가는 무주에서 자라고 죽은 사람들의 고유한 삶을 기록한 시가는 아니다.

무주지방의 시가는 외국의 시가와 대립적인 개념으로 세계의 시가에 독자적으로 참여하지만 전북지방 혹은 다른 지방의 시가와는 대립적인 개념도 아니고, 그만의 독자성을 갖는 것도 아니다. 다만 주체가 무주지방에 전해오고 있는 시가를 편의적으로 기록한 것이지 결코 학술적인 용어로까지 정의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무주지방의 시가를 알려고 할 때는 먼저 시가의 변천과정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안된다.

한국 고유의 정형시(定型詩)가 시조(時調)라는 명칭으로 문헌상에 처음 나타난 것은 신광수(申光洙)의 석북집(石北集)부터다.

그러나 시조는 한국 최초의 정형시인 신라의 향가(鄕歌)에서 연유를 찾을 수 있다. 거기에서 고려때 장가(長歌)로 분장되어 독립된 이래 조선시대에 와서 전성을 이룬다.

원래 엄격한 의미에서 시조는 문학 장르의 명칭이 아닌 음악 곡조의 명칭이었으나 차츰 문학 형태로도 쓰여지면서 문학상으로는 시조시형(時調詩形)이라는 뜻의 개념이 되고, 음악상으로는 시조창(時調唱)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시조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는 시여(詩餘)·신번(新潘)·장단가(長短歌)·신조(新調)라 했다.

형태적으로는 삼장(三章) 사십오자(四十五字) 내외로 구성되며 음수율(音數律)은 3·4조 또는 4·4조가 기본 운율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 운율에 한 음절(音節) 또는 두 음절 정도의 가감은 가능하나 종장(終章)의 첫 구(句)만은 삼 음절로 고정된다.

아울러 종장 제2구는 5음절 이상이어야 하므로 특징은 종장 1·2구에 있다. 이와 같이 음수율(音數律)과 구수율(句數律)을 갖춘 기본형에 해당하는 시조를 단형시조(短形時調) 또는 평시조(平時調)라 하고 종장의 제1구를 제외한 어느 구 하나만이 길어진

진 것을 중형시조(中型時調) 또는 엇시조, 두 구 이상 길어진 것을 장형시조(長型時調) 또는 사설시조(辭設時調)라 한다. 이 세 종류 가운데 양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평시조 즉 단형시조이며 현재 전하는 작품 중 엇시조나 사설시조는 극소수만 있을 뿐이다. 오늘날 전하는 평시조는 1천여 수로 대개가 조선시대의 작품이며 내용은 인물, 강호, 산천, 백로, 송죽 등이 구조를 이룬다.

이는 체념과 허무 속에서도 현실을 낙관과 관조의 긍정적 태도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유교적인 서정적 문학관의 한 표현이다.

극히 일부 작가들, 기녀(妓女)들은 관념적인 유교이념을 자연이란 소재를 빌려 서정화하는 작법을 배격하고 애정의 세계까지 접근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황진이(黃眞伊)와 이매창(李梅窓) 등이다.

현재까지 문헌에 나타나는 시조 작가의 총수는 270여 명에 1,222여 수가 되는데 이는 지명 작가(知名作家)의 작품 수나 다름없다.

작품을 가장 많이 남긴 작가의 순으로 따지면 해동가요(海東歌謠)의 편찬자인 김수장(金壽長)이 122수로 가장 많고, 다음이 송강(松江) 정철(鄭澈)이 93수, 이정보(李鼎輔) 78수, 윤선도(尹善道) 77수, 김천택(金天澤) 74수, 박인로(朴仁老) 72수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이같이 시조는 임금에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창작된 민족적인 시가로 시가문학의 또 다른 형태인 신라 향가(鄕歌)와 고려의 가요(歌謠), 조선시대의 가사문학(歌辭文學) 등은 일찍이 소멸되었으나 시의 주류를 자유시에 빼앗기면서도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우리 나라 문학의 한 장르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가장 오래된 시가(詩歌)로는 고조선 시대의 가요(歌謠)인 공후인(箜篌引)을 꼽을 수 있다.

일명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로 불리는 이 작품은 고조선 진리(津吏) 곽리자고(藿里子高)의 처 여옥(麗玉)이 지은 노래라 전하고 있는데, 한국의 시가사상 가장 오래된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설화를 해동역사(海東驛史)를 통해 알아보면 재미있다.

<뱃사공인 곽리자고가 어느 날 새벽에 배를 손질하고 있는데, 한 미치광이가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채 술병을 안고 급한 물결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려고 뛰어들었다. 이를 제지하려고 아내가 울며 쫓아왔으나 미처 이르지 못한 채 사나이는 익사하고

말았다. 아내는 통곡하며 울다가 슬피 공후를 타며 노래를 부른 후 자신도 물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곽리자고가 돌아와 아내 여옥에게 이 슬픈 사연을 노래와 함께 전하니 여옥이 슬퍼하며 그 미치광이 아내가 불렀다는 곡에 따라 공후를 타며 노래를 불렀다.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여옥은 이 곡을 이웃집 여인 여용(麗容)에게 전했다. 이것을 일컬어 공후인이라 한다.>

이 가요의 작자에 대하여서는 미치광이의 아내로 보아야 할지, 여옥으로 보아야 할지 의문이나 가사가 시경체(詩經體)인 것으로 보아야 당시 중국에서 성행한 시경체가 우리 나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시의 형식은 한역가(漢譯歌)를 우리말로 바꾸어 보면 고대 우리 사회에 가장 성행했던 4구체임을 알 수 있다.

진(晋)나라 최표(崔豹)의 고금주(古今注)에 한문으로 전하는 시가는 다음과 같다.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公何

임은 물을 건느지 말으시지
임은 물을 건느다
물에 빠져 죽으시니
임은 마침내 어이하리오

이와 같이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애틋한 사랑, 인간의 진실된 삶에 대하여 꾸준히 노래하고, 글을 짓고, 기록하는 데 시조 이상은 없다고 여겨왔다.

무주지방 역시 산세가 아름답고 자연풍광이 너그러워 어느 곳을 가나 감탄이 절로 나올 만한 곳이 많다. 따라서 이러한 지리적 조건에 여행객들은 그 풍치에 감동, 자연적으로 글을 짓게 되고 그것을 후세에 남기는 데 소홀하지 않았다.

◈ 와선당(臥仙堂)[1)]

澤堂 李 植

到府忘山險 逢人說政平 開軒川漲闊 對榻竹陰淸
簪佖終多事 萍蓬各有情 王程不可緩 城角報天明

〔와선당 시 1〕

고을에 다다르니 산이 험준한 것도 잊고
사람을 만나니 바른 정치만 말하네
동헌을 여니 냇물 넘실거리고
탑(榻)상에 오르니 대〔竹〕그늘 맑네
예복 입은 벼슬아치 끝내 일 많고
여행 중에 만난 벗 다른 정 느끼네
나랏일은 늦출 수 없는데
성(城)에서 부는 나팔 하늘 맑다고 알리네

三淵 金 昌 翕

邑風淳古問如何 入境初聞麥穗歌 五柳陰中深着睡 百花圍處始開衙
官橋晩影漁童少 峽水淸波浣女多 寥落松庭如畵裏 客來閒與渚禽過

〔와선당 시 2〕

순박한 고을 옛 풍속 어떤가 물어보며
무주 땅에 첫발 들이니 맥수가(麥秀歌) 들리네
오류(五柳) 그늘 가운데 깊은 잠 이루고
백화(百花)가 둘러싸인 곳에 관아(官衙)가 열려 있네

---

1) 옛날 무주를 다스렸던 관청 이름을 와선당(臥仙堂)이라고 한 것은 이 고을이 아주 고요하고 백성들이 순박하여 누워서도 다스릴 만하고 산수의 빼어남까지 겸했으니 여기서 수령 노릇을 한다는 것은 신선과 다름이 없다는 뜻이다. 그 와선당은 지금의 군청 자리에 있었으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저물어 가는 관교(官橋)에 고기잡는 어린 아동
협수청파(峽水淸派)에 빨래하는 여인들 많네
그림 속 같은 정원의 쓸쓸한 소나무
나그네 한가로이 찾아와 물새들과 지내네

希菴 蔡 彭 胤

萬峰匣處仙州闢 數牒題來訟閣閑 石室晩緣霞頂上 溪樓凉帶雨聲攀
白蓮雲壑千屯口 金矩烟沙二峙間 留謝風流新令尹 三年詩債在名山

〔와선당 시 3〕

만봉(萬峰) 두른 곳에 신선고을 열리고
두어 장 송사문서에 관아는 한가하네
느지막에 적상사고(赤裳史庫)와 인연 되어 노을진 산상에 오르니
계곡의 누각은 서늘한 띠를 두르고 빗소리는 더위를 잡네
백련암(白蓮庵)은 구름 걸린 깊은 골짜기라고 많은 무리 말하고
산 노을 낀 개울가 두 고개 사이가 금궐(金矩)이라네
풍류만 남기고 새 부임지로 떠나는데
삼 년 동안 쓴 시는 명산에 있구나

南 泰 良

朱溪南去水悠悠 無數靑山入茂朱 紫綬晩歸仙閣靜 畵船晴泊睡亭幽
爲官實借觀書地 作吏仍逢減稅秋 了却庭參無一事 僧來已約赤裳遊

〔와선당 시 4〕

주계(朱溪)의 남쪽을 흐르는 물 한가하고
무수한 청산에 무주(茂朱)가 들어 있네
늦게 돌아가니 와선당(臥仙堂)은 고요하고
날 갠 날 화선(畵船)이 정박하니 환수정(喚睡亭)이 고요하네
벼슬을 위해 책 빌려주고 글도 보여주는 곳

관리되어 그대로 만나면 세금 감면 해주네
아무런 일 하나도 없어 정참(庭參)을 모두 물리치고
승려 오면 적상산(赤裳山) 유람하기로 이미 약속했네

朴 師 漢

兩箇淸都一主人 睡仙今作臥仙身 蓬壺畸苑輪流管 不是安期卽洞賓

〔와선당 시 5〕

맑은 두 고을의 한 주인
졸던 신선 이제는 누워 있는 신선 되었네
봉호(蓬壺)[2]와 낭원(畸苑)[3]이 차례대로 관할하니
안기(安期)[4]가 아니라 동빈(洞賓)[5]이로다

李 宜 耆

官是何官邑是何 赤城太守聽芝歌 別時朋友稱仙吏 到後溪山見峽衙
雲鎖洞天閒自在 酒傾樓月睡常多 此身得此其誰賜 魂夢悠悠紫禁過

〔와선당 시 6〕

관직은 무엇이며 읍은 어디인가
적성(赤城)의 태수(太守)는 지가(芝歌)[6]를 듣네
친구와 이별할 때 선리(仙吏)라 했는데
계곡에 도착하여 산을 보니 골짜기에 관아가 있네

---

2) 신선이 살고 있다는 섬.
3) 신선이 살고 있다는 곳.
4) 옛날 신선 이름, 중국 산동성 무래현의 안기산에 수련을 했다고 함.
5) 당나라 말기 저명한 도사(道士). 신선술을 통한 뒤 호상(湖湘)과 악악(鄂岳) 사이에서 늘 유유자적하였다고 함.
6) 지방가(芝房歌), 한(漢) 교사(郊祀)의 노래.

구름 잠긴 동천(洞天)[7]은 한가로이 있고
술잔 기울이는 누각에 걸린 달은 늘 졸음이 많네
이 몸 여기 얻은 것은 그 누가 준 것인가
꿈 속에서 아득히 먼 자금성(紫禁城)[8]을 지나네

沈 能 述

十載湖嶺老奈何 赤城遲日可絃歌 一江水壓仍臺擄 八字山低卽府衙
詩倦那嫌佳句少 俗淳猶見古風多 也知仙窟饒奇事 誰遣白雲屋上過

〔와선당 시 7〕

호령(湖嶺)에서 십년 세월 어찌 늙었는가
적성(赤城)의 긴긴 나날 현가(絃歌)만 읊네
한 강물을 차지한 높은 언덕의 망루는
팔자(八字) 산 밑에 곧 관아라 하네
시(詩) 짓기 권태롭고 싫어서 좋은 글귀는 적지만
순박한 풍속은 오히려 고풍(古風)이 많네
선굴(仙窟)에 기이한 일 많은 것 알 수 있지만
누가 보낸 흰구름 지붕 위로 지나가네

金 龍 根

三載居官做得何 除非病瘢卽歸歌 仙緣綿邈餘空窟 吏牒優閑退早衙
樓近赤裳霞氣濕 灘鳴白石雨聲多 摩抄遺墨蕪然久 杖履當時幾度過

〔와선당 시 8〕

삼년 동안 관직에서 무엇을 했는가
질병과 잠꼬대 말고는 곧 귀향만 노래하네

---

7) 신선이 사는 세계.
8) 북경에 있는 청나라의 궁성, 곧 임금이 있는 곳을 뜻함.

신선과의 인연 아득하여 빈 굴만 남아 있는데
정사(政事)가 여유롭고 한가하여 관청에서 일찍이 물러나네
누각 가까운 적상산(赤裳山)은 노을에 젖고
흰 돌 널린 여울물 소리는 빗소리와 겹치네
유묵(遺墨)을 어루만지며 쓸쓸함에 오래 빠져들기를
노인(老人)이 되어 몇 번이나 지났던가

徐 兢 輔

睡餘詩意正機珊 彈罷瑤琴晝日閒 谷口靈芝春雨採 巖阿叢桂月中攀
白雲邈矣高松侶 綠水依然茗雷閑 到處仙緣知不薄 紅流泉石赤城山

〔와선당 시 9〕

졸고 나니 시의(詩意)는 금방 흩어지고
거문고 타고 나니 한낮이 한가하네
골짜기 입구에 봄비 맞으며 영지(靈芝)를 캐는데
바위 언덕 계수나무는 달빛은 붙잡았네
아득히 먼 흰구름은 높은 소나무와 짝하고
푸른 물은 옛 같은데 두 강은 한가하네
도처마다 신선과 인연인데 머문 곳은 알 수 없고
붉은 빛이 흐르는 수석(水石)은 적성산(赤城山)이라네

洪 配 厚

沿峽周流門幾何 十年南國賦歸歌 閒情剩占神仙窟 淸福還饒太守衙
吏退公庭花落遍 妓登高閣月明多 江山細與人相遇 先我淵翁此地過

〔와선당 시 10〕

골짜기 따라 두루 돌아다니기를 몇 고을이나 되던가
남녘에서 십년 동안 귀향노래만 읊네

한가한 마음 남아 신선굴(神仙窟)을 차지하니
청한(淸閑)한 복 에워싸 관아가 평안하네
관리들 퇴청한 마당엔 떨어진 꽃 즐비하고
기생 오른 누각엔 밝은 달빛 가득하네
강과 산 모두가 사람과 함께 만나니
나보다 먼저 이곳을 연옹(淵翁)[9]이 지나갔네

尹 性 善

名區出宰意如何 瀨把疎琴和壤歌 府吏逢春常在野 村氓到老不知衙
軟風浪靜魚吹細 遲日空庭鳥語多 茶罷梅陰閑睡足 赤城仙鶴夢邊過

〔와선당 시 11〕

명승지 수령으로 나가니 마음 어떠한가
거문고 느리게 타니 격양가(擊壤歌)[10]와 섞이네
관아의 벼슬아치는 봄을 만나 들에만 있고
백성들은 늙도록 관아를 알지 못하네
바람결 부드럽고 물결 고요하니 물고기도 숨 죽이고
햇빛이 늦게 든 뜰엔 새 소리 요란하네
매화 그늘에서 차 마시고 나니 졸음만 한가히 지나치고
적상산성(赤裳山城) 선학(仙鶴)이 꿈 속을 지나가네

李 [illegible]

金陵遊宦客 飛鵲又南遷 峽圻江明野 村深樹積烟
俗淳無健訟 政簡有高眠 只是攝生術 仙鄕得藥泉

9) 조선 말엽 대사헌을 지낸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시호는 문충(文忠).
10)중국 당요(唐堯) 때 늙은 농부가 태평을 즐거워하며 흙덩이를 두드리며 부르던 노래.

〔와선당 시 12〕

금능(金陵)을 떠돌며 벼슬하던 나그네
발길을 또 옮겨 남쪽으로 옮겼네
골짜기 끝의 강과 들은 밝은데
수림(樹林) 싸인 깊은 촌락 노을이 끼네
순박한 풍속 건송(健訟)[11]이 없고
정사(政事)가 간단하여 베개 높여 잠자네
옳은 것은 다만 양생술(養生術)인데
선경(仙境)에서 얻은 것은 약수(藥水)라네

洪 岐 周

卞載竟七侶 坐席未暇暖 此來入閱月 宮閑緣疎懶 吏愿犯科小 民淳投牒罕
愕書課稚子 謀酒約飮伴 余馬又欲東 仙窟緣苦短 回首新梅樹 春深綠葉滿

〔와선당 시 13〕

십년 동안 일곱 군데 관직을 맡아
앉을자리 따뜻할 겨를 없었네
이곳 온 지 여덟 달
관아가 한가하니 게으른 이에게 맞네
벼슬아치 착하니 죄짓는 일 적고
백성들 순박하니 송사(訟事)가 드무네
책 펼쳐 어린 아들 가르치고
마련한 술 마실 친구 약속하네
내 말〔馬〕 또 동으로 가려는데
와선당과 인연 짧음이 괴롭네
머리를 돌려 매화나무 새로 보니
봄은 깊어 푸른 잎새 가득하네

11)하찮은 일에도 소송하기를 좋아함.

閔 述 鎬

南來太守老將何 前路斜陽醉放歌 喚睡亭東文聖廟 寒風樓北臥仙衙
敢忘明主榮恩重 猶恐峽氓怨語多 往事悠悠無間處 閣中諸子幾人過

〔와선당 시 14〕

남쪽으로 온 태수(太守) 장차 늙음을 어찌하리
앞길에 석양이니 취하여 노래나 부르네
환수정(喚睡亭) 동쪽에는 문성묘(文聖廟)가 있고
한풍루(寒風樓) 북쪽에 와선당(臥仙堂)이 관아네
감히 영광스런 임금의 은혜 중함을 잊으리오
오히려 산골 백성들의 원망이 많을까 두렵네
지난 일 까마득하여 물을 곳도 없는데
와선당에 들어온 모든 이 몇 사람이나 지나갔나.

◈ 한풍루(寒風樓)

白湖 林 悌

步虛堂上散仙曺 別起高樓駕巨鰲 靑眼客來逢邂逅 紫霞標啓醉遊磅
月當靜夜氷灘壯 風折寒雲雪岳齊 會待芳菲春暮節 夢隨沙鷗過江皐

〔한풍루 시 1〕

보허당(步虛堂)[12] 위에 신선(神仙) 무리 흩어지고
별나게 걷는 자라는 높은 누각 올라타네
우연히 찾아와 만난 친한 나그네
누각 모습 드러나니 선경에 취해 즐겁게 노네
고요한 밤 달 떠오르니 얼음 덮인 여울 장관 이루고
차가운 바람에 구름 흩어지니 눈 내린 산 조화롭네

12)보허(步虛)는 도사(道士)를 뜻하므로, 곧 도사들이 노니는 곳을 말함.

아름다운 방초(芳草)는 늦봄을 기다리고
꿈속의 갈매기는 모래밭을 따라 강 언덕을 지나가는 구나

觀察使 睦 性 善

嶽勢千里掩 江流一帶平 竹疎山月白 蘭歇渚風淸
未決尋眞計 空懷出世情 他時鳳城夜 歸夢定分明

〔한풍루 시 2〕

산세(山勢)는 천리에 가려 잇고
흐르는 강 일대는 평평하구나
성근 대나무 산에 달빛은 희고
맑은 강바람에 난초가 시드네
신선 될 계획은 결정도 못하고
부질없이 세상으로 나갈 마음만 품네
시절 다른 봉성(鳳城)13)의 밤에
고향 갈 꿈 멈춘 게 분명하고나

奉安使 金 壽 恒

藏去芸編鎖閣門 拜謝歸路獨傷魂 名山永秘千秋跡 窮谷空懷十載思
偏感此身霑雨露 更從何處答乾坤 金箱石室祥雲衛 分付群神效駿奔

〔한풍루 시 3〕

보첩(譜牒)을 간수한 사고(史庫) 문을 닫아걸고
삼가 사례 올리고 돌아가는 길 홀로 마음 상하네
이름난 산에는 긴 세월의 자취 영원토록 감추고 있는데
궁벽한 산골에서 부질없던 10년 세월 생각에 잠기네

크나큰 은혜 입은 이 몸 한 마음뿐인데
어느 곳을 다시 좇아 하늘과 땅에 보답할까
적상산(赤裳山) 사고(史庫)를 꽃구름이 호위하라고
신선(神仙) 무리들이 분부하니 빨리 달려와 나타나네

壺谷 南 龍 翼

月剩秋遲信 山圍地失平 境隨人更勝 詩與夢俱淸
綵服南來興 危樓北望情 有懷仍不寐 官燭爲誰明

〔한풍루 시 4〕

윤달이라 가을 소식은 더디고
산을 에워싼 땅은 평평함을 잃었네
고을의 경계에 따라 사람들도 새로워지고
시(詩)는 꿈과 함께 맑아지네
채복(綵服)은 남쪽으로 내려온 흥취요
누각은 북쪽을 바라보는 정취라네
생각에 잠기느라 잠 이루지 못하는데
관아의 촛불은 누구를 위하여 밝혔는가

淸滾 林 机

瘍玳危樓壓水濱 依然嚴洞武陵眞 重巒北圻群流合 皎月東生萬景新
嬌鳥無猜常送 檻游魚知樂不驚人 紅塵苦被浮名繫 慙愧山靈向我嗔

〔한풍루 시 5〕

아득하게 멀리 있는 누각은 물가에 차지하고
예와 같은 험한 골짜기는 참으로 무릉(武陵)이네
겹겹한 산 북쪽으로 터졌고 많은 물줄기는 모여드는데
동쪽에 솟은 하얀 달은 무수한 경관을 새롭게 하네

난간을 날아다니는 예쁜 새는 언제나 두려움이 없고
헤엄치는 물고기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에겐 놀라지 않네
고통스런 번거로운 세상에서 덧없이 명예에 매달리니
산신이 나를 향해 꾸짖는 듯하여 부끄럽고 창피하네

觀察使 宋 相 琦

翠壁澄江繞縣門 官樓淸絶醒心魂 從知跋涉元王事 更覺磅遊亦聖恩
千里往來爭日月 百年行止任乾坤 遺編一讀還增感 六十光陰逝水奔

〔한풍루 시 6〕

푸른 석벽(石壁) 맑은 강은 현문(縣門)을 둘러싸고
더없이 맑고 깨끗한 관루(官樓)는 본심(本心)을 깨우네
여러 지방 다니는 것은 나랏일의 근본임을 따라 알고
분주한 왕래 역시 임금님 은총임을 다시 깨닫게 하네
천리를 오가는데 세월을 다투고
백년 동안 가고 머무는 것은 천지에 맡기네
선인(先人)들 남긴 글 한번 읽으니 감동 재차 더하고
육십 년 흐른 세월 물처럼 달려 만 가네

老圃 趙 明 鼎

天郎冷冷妤水濱 月欄仙窟坐疑眞 琴鳴畵閣遙山靜 舟拂殘花夜雨新
玉洞爛柯應此地 蘭臺窺史愧非人 三盃浣下塵襟洗 分付沙鷗莫送嗔

〔한풍루 시 7〕

시원하게 스쳐가는 바람소리에 냇물 흔들리고
달 걸린 난간에 앉으니 정말 신선이 사는 곳인가 의심스럽네
아름다운 누각에 거문고 소리 울리니 먼산은 고요하고
스쳐간 배에 시든 꽃은 밤비가 새롭네
세월 가는 줄 모르는 고장이니 이곳이 응당 옥동(玉洞)이요

난대(蘭臺)[14]에서 역사를 엿보니 그 사람 아닌 것이 부끄럽네
휴식하는 동안 술 석 잔으로 속세의 잡념 씻어버리고
늦게 나는 백사장 갈매기 꾸짖지 말라 분부하네

觀察使 兪 得 一

宿居寂晝似僧心 日暮猿啼傷客魂 千里望京知遠襲 一方持節荷殊恩
侵軒月色開淸鏡 到峽灘聲動厚坤 忽有寒風生兩腋 夢中仙鶴共騰奔

〔한풍루 시 8〕

잠자리 고요하니 승려 마음 같고
해질녘 원숭이 울며 나그네 마음 슬프게 하네
천리(千里) 서울 바라보며 먼 앞날 알 수 있고
한 방을 지킨 지조 각별한 은총 입었네
달빛이 동헌을 비추니 맑은 거울같이 열리고
산골짜기에 이른 여울소리 두터운 땅 진동하네
찬바람 홀연히 양쪽 겨드랑이에서 나오더니
꿈속에서 선학(仙鶴)과 함께 바삐 날아오르네

奉安使 趙 明 澤

百尺高樓壓水濱 登臨如可接仙眞 庾公襟韻元非俗 騰閣丹靑再煥新
六月寒風能浜暑 離筵纖唱解留人 塵緣未斷催歸袂 却殃溪山向我嗔

〔한풍루 시 9〕

백척(百尺) 높은 누각 냇가를 차지하고 앉아 있고
높은 곳에 올라 내려다보니 참으로 신선인 것 같네

14)한(漢)나라 제실(帝室)의 문고(文庫).

유공(庾公)[15]의 고상한 품격 본래 풍속 아닌데
등각(騰閣)[16]의 빛나는 단청은 다시 새로워졌네
유월의 찬바람은 능히 더위를 꺾고
이별하는 잔치자리 가냘픈 노랫소리 사람 머물게 하는데
소쩍새 소매 잡아 세속인연 끊지 못하니
계산(溪山)이 나를 향해 꾸짖을까 도리어 두렵네.

◈ 환수정(喚睡亭)

李 書 九

伊昔觀風地 重過問幾春 溪山應識我 簪侶却羞人
樓月渾如夢 汀花不染塵 試招沙祭鶴 知汝是前身

〔환수정 시 1〕

그 옛날 풍속을 드러내던 땅
몇 해가 지나갔는가 다시 묻노라
시내와 산은 응당 나를 알아보는데
사또는 오히려 사람이 부끄럽네
누각에 뜬 둥근 달 꿈과 같고
물가에 핀 꽃은 때묻지 않았네
백사장 가장자리 학이 찾아 부르니
네가 전신(前身)임을 알겠노라.

---

15)진(晉)나라의 정치가 유량(庾亮). 자는 원규(元規). 풍채가 준엄하고 예절에 맞추어 행동하였다고 함. 시호는 문강(文康)
16)당(唐)나라 고조(高祖)의 아들 원이 세운 등왕각(騰王閣)으로 추정됨.

權 橘

千年綠水流如馬 兩岸靑山對若床 勝景端宜淸謙地 眞遊鰊必黑捂鄕
覺來林鳥關關語 吟處茶烟撲撲香 更有這間難畵景 半輪明月照蘭堂

〔환수정 시 2〕

천년 흐른 푸른 물 말처럼 달리고
푸른 산 양쪽 언덕 상처럼 마주하네
별나게 좋은 경치 조촐한 연회 장소로 좋은데
참된 유람은 어찌하고 낮잠 자는 고을이 되었는가
깨어나 보니 숲 속의 새들은 조잘조잘 짖어대고
시 읊는 곳엔 차 끓이는 연기 부드러운 향기 내네
그 당시 경관은 달라져 그림 그리기도 어려운데
조각달은 난당(蘭堂)을 밝게 비추네

觀察使 柳 儼

月輝輕濺綠紋憤 夜檻搖搖宴坐宜 指點沙前雙派水 沈吟板上七言詩
惱時懷引寒風爽 睡處神憑細瀨知 山近且應仙鶴至 誠楷迷眼曉色移

〔환수정 시 3〕

밝은 달빛 물결에 가벼이 비치니 초록빛 잔물결 일고
난간 흔들리는 밤은 잔치자리로 마땅하네
백사장 앞 두 갈래 물줄기 가리키는 곳에는
현판 위의 칠언시(七言詩) 작은 소리로 읊는구나
괴로울 때 찬바람 품속으로 끌어들이니 시원하고
졸리는 마음은 가느다란 물살에 의지할 줄 아네
산이 또한 가까우니 응당 선학(仙鶴)이 내려앉고
글공부에 침침한 눈엔 새벽빛이 들어오네

御使 沈 英 錫

簇簇奇峯淡畵如 長溪一帶逼庭除 蟬將碧樹鳴何壯 牛在平蕪吃有餘
沿峽遍行湖左道 涓埃難報簡中書 此身幸入神仙窟 偸得淸閑數日居

〔환수정 시 4〕

뾰족하고 기이한 봉우리 맑은 그림 같고
기나긴 시냇물 일대는 마당 가까이 흐르네
벽수(碧樹)의 장수매미 우는 소리 어찌 큰가
거치른 평원의 소는 아무리 먹어도 여유 있네
골짜기 따라 호남 좌도(左道)를 두루 다녔는데
죽간(竹簡)에 적은 글은 작은 일도 행하기 어렵네
이 몸 다행히 신선굴에 들어와
탐나던 청한(淸閑)을 얻어 수일 동안 지냈네

觀察使 李 海 朝

遲遲麗日蕩溪光 興倦琴歌醉倚床 雲觀若敎長宿睡 霞標誰識是僊鄕
幽禽每喚晴窓夢 花蝶猶偸蕪褥香 不必遠遊華胥國 捲簾風月滿黃當

〔환수정 시 5〕

한가롭고 화창한 날 출렁이는 시냇물이 빛나고
거문고 소리에 취한 흥도 실증 나 평상에 기대네
만일 운관(雲觀)[17]이 길게 자고 졸기만 한다면
누가 하표(霞標)[18]를 신선 고을이라 알겠는가
깊은 산에 사는 새는 날 개면 언제나 창가에서 짖어 꿈을 깨우는데
꿈에서 변한 나비는 오히려 편안한 침실의 향기를 탐내네.
머나먼 화서국(華胥國)[19]에 유람할 필요 없어
풍류가 가득한 동헌에서 발을 걷어 올리네

17)도원(道阮 : 도사가 거처하는 사원) 곧 도사를 뜻함.
18)운하(雲霞 : 신선이 사는 곳)로 추정됨.
19)황제가 낮잠을 자다가 꿈에 가서 보았다는 태평한 나라.

李 紀 淵

前山雨意夜來濂 春氣流生懋翠微 隔江隱暎樓垥出 霧裡綺羅望依依

〔환수정 시 6〕

앞산에 비 올 기미 밤 되니 세차게 내리고
봄 기운 흘러 생동하니 엷은 남색 초복 우거지네
강 사이엔 드러나지 않게 비치는 누대(樓臺) 나오니
안개 속 고운 나뭇가지 비단처럼 휘늘어졌네

李 魯 益

宿客開窓坐 天時九月凉 澄江涵夜氣 高柳上晨光
畵角吹還斷 紗燈暗自張 依遲山水戀 强半較東鄕

〔환수정 시 7〕

잠잔 나그네 창문 열고 앉으니
때는 구월이라 서늘하네
맑은 강은 밤 기운을 머금고
높은 버들엔 새벽빛 오르네
화각(畵角)[20]은 불다 다시 끊어지고
사등(紗燈)[21]은 어둡더니 저절로 켜지네
머뭇거리는 느린 걸음 산수 생각은
절반 이상 동향(東鄕)[22]과 비교를 하네

---

20)옛날의 군악(軍樂).
21)비단으로 풀을 발라 만든 등.
22)중국의 한(漢)나라와 명(明)나라에서 설치한 현(縣)의 이름.

觀察使 趙 宗 玹

小亭臨水坐如浮 簾外靑山喚客愁 六十光陰眞一夢 三更燈燭此孤舟
筠率尙記童時戱 牙纛今成刺史遊 唯有老婆能話舊 是年是月不曾謀

〔환수정 시 8〕

물가에 앉아 있는 작은 정자 떠 있는 것 같고
발 밖 푸른 산은 나그네 수심 부르네
육십 년 세월은 참으로 한바탕 꿈이요
삼경(三更) 촛불은 외로운 배라네
옛 친구는 아직도 어릴 때 장난 기억하고
이제 아독(牙纛)[23]은 자사(刺史) 놀이 되었네
오직 노파(老婆)만 옛날 이야기 할 줄 아니
시년(是年) 시월(是月)을 일찍이 헤아리지 못했네

沈 敬 澤

一上高亭喚睡醒 斜陽錦纜更雲晴 浮空積翠簾間滴 竟夜流灘枕下鳴
烟雨樓垥開峽府 汀洲楊柳似江城 靑綾思退西淸月 奇絶玆遊不可名

〔환수정 시 9〕

높은 정자에 한번 올라가 졸음 불러 깨우고
석양에 비단 닻줄 내리니 구름 다시 개네
공중에 뜬 청산은 발 사이로 떨어지고
밤새도록 흐르는 여울은 베개 아래에서 우네
누대(樓臺)에 내리는 안개비는 두메 고을을 열고
정주(汀洲)의 버드나무는 강가의 성(城)을 닮았네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겨우 끝나자 맑은 달 서쪽에 뜨는데
비할 데 없이 기묘한 이 유람 이름 붙일 수 없구나

23)상아(象牙)로 장식한 대장군의 기.

奉安使 閔 致 庠

玉蓮洞邃柳堤長 平抱溪聲妃廓床 遊客不嫌成一夢 爲官端合得玆鄕
好招漁歌秋乘月 凝貯仙幡夜燒香 枷露汀洲蕤獨望 伊人如在可迎堂

〔환수정 시 10〕

깊숙한 옥련동(玉蓮洞) 버드나무 제방은 긴데
평원을 안고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침상(寢床)을 두르네
유람하는 나그네 꿈 한번 이루기를 싫어하지 않았는데
관리되어 이 고을을 얻었으니 바로 맞았네
어가(漁歌)의 좋은 초대는 가을에 떠오르는 달이요
선번(仙幡)[24]에 우두커니 멈춘 것은 밤에 피운 향(香)이네
물가 갈대에 내린 이슬은 홀로 고요하게 바라보는데
그 사람 같이 있었다면 당(堂)으로 맞이 했으리

柳山 柳 燾

南來古府擅名州 香積峯前宿雨收 邑俗儉淳眞峽俗 衙樓瘍渺卽仙樓
店婆迎客斟香冽 津吏候官理小舟 枕畔寒流助淸爽 月明今夜夢瀛洲

〔환수정 시 11〕

남쪽의 옛 관아(官衙)에 이르러 이름난 고을 차지하고
향적봉(香積峰) 앞에 이르니 오랜 비 걷히네
검소하고 순박한 고을 풍속 참으로 산골 풍속이요
어렴풋이 보이는 관아(官衙)의 누각(樓閣)은 곧 신선(神仙)이 있는 다락이네
손님 맞는 주점(酒店)노파 좋은 술 따르고
관원(官員)을 기다리는 나루터의 아전(衙前)은 작은 배를 손질하네
베갯머리에 흐르는 차운 시냇물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니
달 밝은 오늘 밤엔 신선(神仙)이 살고 있는 삼신산(三神山)을 꿈꾸네

24)신선의 깃발.

松泉 李 晦 在

萬古靑山入夢長 晴欄盡日據藤床 去仙未遠眞仙窟 不醉無歸卽醉鄕
楊柳陰陰禽語遼 桃花點點水流香 誰能喚我遲遲睡 江月江風滿畵堂

〔환수정 시 12〕

태고(太古)의 청산(靑山)이 꿈속으로 들어간 지 오래 인데
갠 날 난간에서 종일토록 등나무 침상에 기대네
신선굴에 신선 가니 참으로 멀지 않고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으니 곧 취향(醉鄕)이네
늘어진 버들 고요하니 새 소리 멀리 들리고
복숭아꽃 여기저기 떨어지니 흐르는 물 향기롭네
조용히 졸고 있는 나를 누가 부르는가
강물에 비친 달과 강바람이 화당(畵堂)에 가득하네

雲坡 趙 秉 瑜

喚睡亭前柳色黃 綠陰滿地馬蹄凉 孱孫敢繼先人蹟 弊邑空望太守良
財是禍源臨毋苟 民惟邦本視如傷 蒔花種竹非吾事 只願文風振一鄕

〔환수정 시 13〕

환수정(喚睡亭) 앞에 버들빛 노랗고
우거진 나무그늘 땅에 가득하니 말 발굽 서늘하네
잔악한 후손은 감히 선조의 업적을 이어가고
피폐한 고을 백성 부질없이 선량한 수령(守令)을 바라네
재앙의 근원인 재물은 구차히 내려다보지 말고
나라의 근본은 오직 백성이니 아픔과 같이 돌보네
꽃모종하고 대나무 심는 것은 나의 일 아니고
다만 한 고을에 문풍(文風)이 떨치기를 바라노라.

雲坡 河 在 晩

西風詞客倚高樓 映帶烟波滾滾流 萬樹晴蟬來短壑 數聲漁笛向芳洲
古今明月三分夜 上下長天一色秋 醉枕甘甘渾物外 仙鄕把作睡鄕遊

〔환수정 시 14〕

늙을 무렵의 문객(文客) 높은 누각에 기대니
물에 낀 아지랑이 서로 비치고 어울리며 여기저기 흐르네
가까운 골짜기 수많은 나무에 날아온 매미소리 개운한데
어부의 피리 소리 두어 번 아름다운 물가로 향하네
예나 지금이나 밝은 달은 밤을 셋으로 나누고
높고 먼 하늘의 위아래는 가을 빛이 하나네
세상물정 바깥이 흐린 것을 자득(自得)하고 잠에 취하여
꿈나라에서 놀며 비파를 만드니 그곳이 선경(仙境)이네

◈ 십경시(十景詩)

徐 兢 輔

雲連芳草草連堤 堤上人家東復西 好是桃花寒食雨 灘聲一夜漲前溪 朱溪春雨
雪意微茫曉滿天 千峰霽色更堪憐 傍人却殃高聲話 爲是驪龍睡玉淵 玉淵霽雪
永夜空明們碧流 水晶簾冷桂花秋 花欄西畔殘更月 一夢鉢鉢近玉樓 曉樓木月
垂柳陰濃暎綠窓 近人白鷺自雙雙 夕陽無限烟如織 半入晴雲半入江 夕江烟景
宮樣粧成舞一團 錯金雙鋌繡衫單 綺筵思罷蓮花旋 笑整雲瓔倚碧欄 朱欄劒舞
牙檣錦纜翠旗飜 流水桃花漲綠痕 滿載江天明月色 瑤琴一曲酒盈樽 采舫琴樽
北固晴嵐翠幾重 巖泉凉冷草茸茸 客來石榻淸無寐 坐數琳宮五夜鍾 北寺晨鍾
簾畔靑山暮復朝 枯桐彈罷更廖廖 忽成短笛斜陽晩 牛背聲聲柳外橋 西隖曉笛
飯犢今無洗耳巢 牧童橫笛復橫瑟 歸來好放淸溪曲 芳草如煙綠滿郊 烟郊牧牛
軟藍柔綠薄蓑誼 竿竹垂垂柳絮飛 人自忘機魚自樂 一江烟雨下漁磯 石磯觀魚

〔십경시〕

구름은 방초(芳草)에 잇닿고 풀은 제방에 잇닿아 있는데
제방 위의 인가(人家)는 동쪽과 서쪽에 머무르네
한식(寒食)날 비 내려 복사꽃 피어 좋은데
앞 냇물 여울소리 하룻밤 사이 넘치네

<주계(朱溪)의 봄비>

희미한 눈기운 새벽 하늘에 가득하고
천봉(千峰)이 맑게 개이니 또다시 하늘이 어여쁘구나
옆 사람 큰소리로 말하여 두려움 쫓는데
옥연(玉淵)엔 흑룡(흑(黑)룡(龍))이 졸고 있구나

<옥연(玉淵)의 갠 눈>

긴 밤 시냇물에 비친 달 그림자는 출렁거리고
수정(水晶)같이 맑은 물 발이 시린데 계수나무 꽃피는 가을이 왔네
서쪽 강 언덕 아름다운 난간엔 달이 지새우는데
꿈속의 옥루(玉樓)는 훨씬 가깝구나.

<새벽 누각과 나무에 걸린 달>

졸고 있는 버드나무 짙은 그늘은 초록빛을 창에 비추고
백로는 쌍쌍으로 사람 가까이 자유롭게 나네
석양의 연기는 베처럼 끝이 없는데
절반은 구름 갠 하늘로 들어오고 절반은 강으로 들어오네

<석강(夕江)의 노을>

궁궐같이 단장하고 한 무리 춤을 추는데
금 칠한 쇠 창 한 쌍 수 놓은 적삼 하나
화려한 잔치 겨우 끝낸 여인네들 둥글게 돌고
웃으면서 손짓하는 아름다운 낭자들 푸른 난간 의지하네

<주란(朱欄)의 검무(劍舞)>

비단 닻줄 맨 아름다운 배는 푸른 깃발 펄럭이고
복사꽃은 물에 흘러 초록빛 흔적 넘치네
멀리 보이는 강 위의 하늘은 달빛을 가득 싣고
가야감 한 곡종에 술동이 가득하네

<채방(采舫)의 거문고와 술동이>

북고사(北固寺)의 멀리 보이는 아지랑이 몇 겹이나 푸른가
바위 틈에서 솟는 맑고 찬 샘은 풀만 무성하네
돌평상을 찾아온 나그네 잠도 없고 사념(邪念)도 없는데
자리에 앉아서 밤에 치는 절간의 종소리 다섯 번 헤아리네

<북고사(北固寺)의 새벽종>

문발 가에 있는 청산은 저물었다가 다시 아침 되고
거문고를 타다 그만두니 다시 고요해지네
홀연히 들리는 단소(短蕭) 소리에 석양은 지는데
소 등에서 나는 소리, 버드나무 숲 밖 다리에서 들리네

<서교(西橋)의 새벽 피리소리>

송아지 먹이는 일에 지금은 세이소(洗耳巢)[25]가 없으니
피리 불던 목동은 다시 채찍 드네
굽이진 맑은 계곡 좋은 곳에 놓아먹이다가 돌아오니
연기 같은 방초(芳草)는 푸른 들에 가득하네

<연교(煙郊)의 소>

부드러운 대바구니 하늘거리며 푸른 빛 도롱이 가볍게 입고
낚싯대 드리우고 또 드리우니 버들만 날리네
사람은 스스로 욕심을 잊고 고기는 스스로 즐거워하니
한 강(江)가 낚시터에는 안개비가 내리네

<석기(石磯)의 물고기>

◈ 대성전(大成殿)

花山 權 喆 魯

仁爲門也義爲蓋 一辨香爐妥厥成 篆刻珠衡三象燦 扁懸瑤鏡萬機明
薦殷尊爵芬饗芯 對越衣冠嚴肅淸 夙夜宛承庭只降 指南華盖五雲生

25)요(堯)가 허유(許由)에게 천하를 양보한다고 하자, 허유는 못에 가서 귀를 씻었다. 이를 본 소부(巢父)는 그 까닭을 묻고 난 뒤, 자신이 키우는 소의 입을 더럽힌다고 상류(上流)로 끌고 가서 먹였다고 함. 곧 어떤 일을 듣기 싫어한다는 뜻.

〔대성전 시 1〕

인(仁)으로 문을 삼고 의(義)로 빗장 삼으니
향로(香爐) 하나 갖추고 평안함을 이루네
성현(聖賢)의 상(相) 전각(篆刻)하니 삼상(三象)이 찬란하고
현판에 아름다운 거울을 다니 모든 정사(政事) 밝아지네
고귀한 자리의 풍성한 제물 좋은 향내 향기롭고
의관(衣冠)을 차리고 마주 대하니 엄숙하고 깨끗하네
가까운 뜰에 내려가서 아침 저녁으로 굽히어 받들고
북극성을 둘러싼 별들이 남쪽을 가리키니 오색구름 일어나네

凝川 朴 祥 浩

六經爲府道爲蓋 萬世宣尼集大成 廟貌至今如是盛 人文振古燦然明
四師九哲恕崇奉 六子群賢配肅淸 舍菜春秋興禮讓 吾儒亦一魯齊生

〔대성전 시 2〕

육경(六經)은 창고 되고 도(道)는 빗장되니
영원하게 남을 선니(宣尼)[26] 집대성(集大成)하였네
지금의 모습 이처럼 성대하니
옛사람들의 문화 찬란히 밝네
사사(四師)[27]와 구철(九哲)[28] 높이 올려 받들고
육자(六子)[29]와 뭇현인 짝 이루니 엄숙하고 맑네
봄 가을에 바치는 제사 겸손한 예절 일어나니
우리 유생(儒生)들 역시 노제(魯齊)[30]의 유생이네

---

26)공자(孔子)를 말함. 한(漢)나라 선제(宣帝) 때의 시호.
27)문묘(文廟)에 배향된 공자의 제자인 안자(顔子)·증자(曾子)·맹자(孟子), 그리고 자사(子思)를 말함.
28)공자의 문인 아홉 명, 곧 민자건(閔子騫)·염백우(염伯牛)·중궁(仲弓)·재아(宰我)·자고(子고)·염유(염有)·계로(季路)·자유(子遊)·자하(子夏)를 말함.
29)문묘에 배향된 송조육현(宋朝六賢). 곧 주돈이(周敦蓬)·정호(程顥)·정이(程蓬)·장재(張載)·소옹(邵雍)·주희(朱熹)를 말함.
30)노는 주공단(周公旦)을 봉한 나라이며, 제는 태공망(太公望)을 봉한 나라로서 주(周)의 예악이 잘 보존된 나라임.

光山 金 直 鉉

七曜五雲幷上蓋 固天縱聖煥文成 笙簧和奏璜聲遠 玉斗嚴臨道意明
萬像洞然瑤鏡握 一元會適紫泉淸 升堂入室能言禮 東國儒風復魯生

〔대성전 시 3〕

칠요(七曜)와 오색구름이 함께 밝게 오르니
한결같은 공자의 도덕 밝은 문채 이루네
생(笙)[31] 황(簧)[32]이 합친 연주 서옥(瑞玉) 소리 멀어지고
엄숙하게 옥두(玉斗)[33]에 다가서니 도(道)의 뜻 밝네
먼 만상(萬象) 아름다운 거울 속에 잡히고
마침 만물의 근본 만나니 자줏빛 샘 맑네
당(堂)에 올라 방으로 들어가고 말은 예의로우니
우리나라 유풍(儒風)에 제도(制度)와 예악(禮樂) 다시 살아나네

金海 金 容 鶴

感晦軒詩草滿庭 重新廟貌亦堪銘 千年道統相承地 萬國治安古有經
代席壎灰成繪素 拓墟種樹癩春靑 明時政敎基於此 絃誦家家樂歲寧

〔대성전 시 4〕

회헌(晦軒) 선생 시(詩)에 감동되니 봄풀은 뜰에 가득하고
새롭게 중창된 사당 모습 보고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새기네
오랜 세월 전해진 도학(道學)이 서로 이어지는 곳이니
만방(萬邦)을 편안케 하는 것이 옛 경서(經書)에 있네
재〔灰〕가 가득한 자리를 바꾸어 좋은 그림 그려놓고
개척한 빈터에 심은 나무 봄이 오니 푸른 움 돋아나네
평화스런 세상의 정치와 교육은 여기가 터전이라
집집마다 글 읽는 소리에 편안한 세월 즐기네

31)악기 이름. 여와가 만들었다고 함. 아악(雅樂)에 사용함.
32)악기 이름. 여와가 만들었다고 함. 아악(雅樂)에 사용함.
33)옥으로 만든 술 뜨는 국자.

全州 崔 璟 鎬

深恐春來草滿庭 安翁遺句是心銘 風微戶納溪聲活 月白軒通岳色青
倫堂日日同遵禮 雪案時時更讀經 廟貌於今多靜肅 英靈紡藍降丁寧

〔대성전 시 5〕

오는 봄이 두려운데 풀은 뜰에 가득하고
회헌(晦軒) 선생 남긴 시구(詩句) 마음에 새기네
가을바람 은근히 문으로 들어오니 냇물소리 콸콸하고
하얀 달빛 난간을 오고 가니 산 빛이 푸르네
날마다 명륜당(明倫堂)에서 예절 함께 따르고
때때로 고학(苦學)하며 다시 경서(經書)를 읽으니
이제서야 사당 모습 겨우 정숙해져
얽혀 매었던 영령(英靈) 친절하게 내려오시리

晋陽 河 憲 奭

揖讓莽走復拜庭 輝煌篆楣似新銘 斯文萬國同尊聖 吾道千秋獨有經
槿域昏衢方若曙 杏壇春色尙留靑 豆邊修補床爐整 陟降精靈也自寧

〔대성전 시 6〕

분주한 읍양(揖讓) 마치고 뜰에서 다시 절하니
휘황찬란한 현판 새로 새긴 것과 같네
만방(萬邦)의 유학자(儒學者)들 함께 성인(聖人)을 존경하니
먼 미래 성인(聖人)의 길엔 경서(經書)만 홀로 있겠네
우리나라 어두운 길거리에 이제서야 새벽이 올 텐데
봄빛 든 대성전(大成殿)엔 아직도 푸른 빛 남아있네
제사에 쓸 그릇 수리하고 젯상 향로 정돈하니
오르내리는 영령 또한 따라서 편안하시리

◈ 양사재(養士齋)

華南 柳 寅 誠

舊額重懸頌落成 吾鄕從此庶文明 叔端嵐滴千峯色 檻外溪鳴一波聲
夏誦春絃遂載籍 東庠西序顯遺名 拜瞻聖廟因觴詠 賓主何辭各敍情

〔양사재 시 1〕

옛날 현판 또다시 걸고 낙성(落成)을 칭송하니
이후의 고을 온갖 학문 밝아지리
처마 끝에 푸른 빛 물방울 일천 봉우리 물들이고
난간(欄干) 밖의 시냇물 우는 소리 한 갈래 강물 소리로다
봄에 거문고 타고 여름엔 글 읽으니 지닌 책 쌓이고
동편 학교와 서편 학교에 남긴 명성(名聲) 선명하네
대성전(大成殿) 배알(拜謁)하고 술 마시며 시가(詩歌) 읊으니
손님과 주인은 무슨 말로 각자의 정(情) 펼칠까

小石 李 時 玉

到此三遷有數成 儒風更作際文明 翠滴全收群嶽氣 平流遼分大江聲
先輩何年同創建 後生今日亦題名 諸君寮記崔侯化 百世吾鄕不忘情

〔양사재 시 2〕

세 번째 옮겨 이곳에 이른 것은 운수(運數)가 있어 이루어진 것이니
유풍(儒風)이 다시 일어나 이어지는 학문 밝아지고
온전히 거둬들인 푸르른 물방울은 무리 이룬 큰 산의 정기(精氣)요
아득히 당기며 평평하게 흐르는 물은 큰 강물 소리로다
선배들은 어느 해에 함께 창건했던가
후생(後生)들은 오늘 또한 이름을 기록하네
제군(諸君)들이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최부사(崔府使)의 가르침이라
우리 고을 사람들은 영원히 정(情)을 잊지 못하네

晩醉 河 憲 奭

因其舊制又新成 執笏群山忽復明 萬古前賢崇奉處 千秋後學詠歸聲
移來此地關於數 興起斯文養以名 惟我父兄曾所建 冽然登檻不勝情

〔양사재 시 3〕

옛 제도(制度)를 따라 또한 새롭게 이루니
홀(笏) 잡은 산골 선비들 돌연히 다시 밝아지고
오랜 옛적의 예전 현인(賢人)들 높이 받드는 곳에서는
먼 미래의 후학(後學)들 풍류(風流) 즐기는 소리로다
이곳으로 옮겨 온 것은 운수와 관계되어
유도(儒道)가 일어나니 양사재(養士齋)라 이름하였네
오직 우리 부형(父兄)들이 이전에 세운 것이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난간에 오르니 정감을 이길 수 없네

◈ 명륜당(明倫堂)

花山 權 喆 魯

從古衣冠辨華蠻 登堂正正對南山 百家攀戶歸仁護 萬國環膽仰禮閑
學校序庠三代後 君臣父子五倫間 鹿壇舊額懸如日 亦一賢人共所關

〔명륜당 시 1〕

옛날같이 의관(衣冠)에 꽃 장식을 갖추고
바르게 정돈된 마루에 오르니 남산(南山)이 마주하네
백가(百家)의 출입문 매달리다가 어질게 돌보려고 돌아와서
만방을 둘러보니 한가롭게 예절만 우러러보네
국학(國學)과 향학(鄕學)은 삼대(三代) 후인데
군신(君臣)과 부자(父子)는 오륜(五倫) 사이네

녹단(鹿壇)[34]의 옛 간판 해와 같이 걸렸는데
또 한 분 어진 사람과 시위를 함께 당기네

凝川 朴 祥 浩

明倫可用變夷蠻 堂額伐伐仰泰山 物則民彝開戶蓬 國網人紀設防閑
忠良孝悌由斯後 敬義仁慈在此間 衛道晦翁書特揭 詔諸人士入誠關

〔명륜당 시 2〕

쓸 만한 밝은 인륜 오랑캐와 야만인도 달라지니
높고 높은 명륜당 간판 태산(泰山)같이 높네
사물의 법칙과 인간의 도리는 집집마다 창문 열고
나라의 기강과 사람들의 기율 방비하기 한가롭네
충량(忠良)과 효제(孝悌)는 그로 말미암은 뒤요
경의(敬意)와 인자(仁慈)는 그 사이에 있네
도(道)를 보위한 회옹(晦翁)[35]의 글 뛰어나게 나타내어
모든 사람에게 알리니 정성스레 관문으로 들어가네

光山 金 直 鉉

近自中州遠及蠻 存神過化仰如山 夏絃春誦工無倦 西序東庠禮以閑
秀士敎興三代後 隆師道在五常間 諄諄善誘靑襟簇 入德門開此學關

〔명륜당 시 3〕

가깝게는 중화(中華)에서 멀리 야만인까지
성인의 덕화 한량없어 태산같이 우러러보네
여름에는 거문고 봄에는 책 읽어 공부 게을리하지 않고
서쪽 학교와 동쪽 학교가 예절이 바르네

34)산기슭에 쌓은 단.
35)남송(南宋)의 대유학자 주희(朱熹). 자는 원회(元晦). 호는 회암(晦庵).

뛰어난 선비의 일어나는 교화는 삼대(三代) 이후인데
스승이 높은 도(道)는 오륜(五倫) 사이에 있네
정성 다해 가르치며 옳게 권하니 학생들 모여들고
덕(德) 닦는 문 열리니 학문에 이르네

◈ 적상산성(赤裳山城)

三巖 朴 以 謙

摩天揷地鎭東西 藏護雲坮迥莫恕 絶峽常風奔鐵馬 上峯先日唱金鷄
千秋化莠仙瑄秘 幾度來人俗眼迷 試看雲屛幽邃界 龍眼在此畵難題

〔적상산성 시 1〕

하늘만큼 높고 땅만큼 깊게 동서(東西)를 진압하니
사고(史庫) 보호하는 운대(雲臺) 높아서 오를 수 없네
험한 골짜기의 변함없는 바람에 용맹스런 기병 달아나고
산봉우리에 먼저 오른 해는 금계(金鷄)를 부르는구나
오랜 세월에 늙어버린 신선 자취를 감추었고
몇 번을 찾아왔던 나그네 풍속이 어둡네
구름에 가린 고요하고 그윽한 세계 찾아보았더니
그곳에 졸고 있는 용 한 마리 그림으로 그리기가 어렵 도다.

澤堂 李 植

寶閣依峯唆芸編對 日長塵瑄仍水石散 地却衣裳鉛塹平生
累風埃暮境忙何當 從此逝盾鶴與飛翔

〔적상산성 시 2〕

산봉우리에 의지한 사고(史庫)에서 책과 마주하니 향초가 유혹하고
옛사람 발자취를 따르는 기나긴 날에 물은 그대로 흐르는데 돌은 흩어 지누나
예복을 벗어 벼슬을 버리고 문필(文筆)로 평생을 보내니
오랜 풍류에 인간사 늙어가고 조급함에 이르니 어찌 당할꼬
죽음의 신이 따를 것이니 학과 함께 날아 나 갈거나

觀察使 元 斗 杓

秦關百二讓巍巍 兵出山東亦倦歸 海內莫愁夷猾夏 此門金鼓奉天威

〔적상산성 시 3〕

진(秦)나라 요해지(要害地) 크고 웅장함을 꾸짖으니
산동성(山東省)에 나타난 병사들 모두 고달프게 돌아가고
오랑캐가 중국을 어지럽히니 천하가 쓸쓸하고 공허한데
성문(城門)의 종소리와 북소리 임금의 위광(威光) 받들어 모시네

上同

留心袈秘自鴻大 豈獨虛張造化功 何事魯連思蹈海 不知天險在吾東

〔적상산성 시 4〕

마음속에 감추어둔 신비로움 동방(東方)에서 나오는데
어찌 홀로 허세 부려 천지자연의 이치를 공(功)이라 하고
무슨 일로 노련(魯連)[36]은 바다에 빠질 생각을 했던가
자연의 요해지(要害地)가 우리 동방에 있는 줄을 몰랐네

36)중국 전국시대 제(齊)나라의 노중련(魯仲連). 진(秦)이 만일 제(帝)를 칭하게 되면, 자신은 동해(東海)에 빠져 죽겠다고 하였음.

尤庵 宋 時 烈

星斗參差近古樓 陣雲呑壁鬼應愁 時卒不關管防峻 任却中權雪滿頭

〔적상산성 시 5〕

북두(北斗)와 남두(南斗) 가지런하지 않은 별들 옛 누각에 가깝고
전쟁터에 뜬 구름 절벽을 감싸니 귀신도 따라 근심하네
시절이 태평하니 높은 요새 맡은 일 관계하지 않고
중군(中軍)의 자리 물러나니 근방에는 눈만 가득하네

草廬 李 惟 泰

空中樓閣更層鱗 分缺塵埃絶一毫 赤石似裳環立立 淸江如帶去遙遙
眼窮世界三千闊 身在欄干十二高 多小多陽今古恨 靈邊蕭瑟動凉禪
回叩一步一回停 萬壑千峯不盡情 庵隱白雲僧梵寂 路飛黃葉谷風鳴
尋眞自愧無緣業 遯世猶嫌有姓名 吟斷洞天寒日暮 亂山秋色掩愁生

〔적상산성 시 6〕

공중(空中)의 누각(樓閣)은 높은 하늘에 이어지고
날리는 티끌은 가느다란 털 하나를 끊네
붉은 돌은 치마같이 둘러 서 있고
띠 같은 맑은 강은 아득히 멀리 흘러가네
눈 구멍은 막혔어도 삼천(三千)세계 트여 있고
난간에 있는 몸은 십이(十二)층이나 높구나
석양빛이 많고 적음은 예나 지금이나 한(恨)인데
귀밑 털끝에 가을 오니 쓸쓸하게 부는 바람 어지럽네

돌아가는 늙은이 한 번 걷고 한 번 쉬며
만학(萬壑) 천봉(千峰)에 정(情)을 다 주지 못했네
흰구름 속에 숨어 있는 암자 법당 안의 승려 조용한데
길에는 노란 낙엽에 날리고 골짜기엔 바람소리 들리네

학문과 인연 없는 진리를 찾으니 스스로 부끄러워
세상을 등지고 사는데 이름이 있으니 오히려 싫구나
신선 사는 세계 해 저물어 차가운데 시 읊는 소리 그치고
가을빛이 어지러운 산에는 갑작스레 근심만 생기누나

雲坡 河 在 晩

一片朱溪郡孤城 萬棚山天窮滄海 塵外人在白雲間
平時固有隆替地 非設等閒擧頭遙 望美北極衆星環

〔적상산성 시 7〕

주계(朱溪) 고을의 한 조각 외로운 성(城)
바다같이 넓고 커서 만길이나 되는 산은 하늘도 막혀 있네
속세를 떠난 사람 백운(白雲)간에 있고
평상시 단단하던 땅도 성쇠(盛衰)가 있네
무심코 고개 드니 멀리서 주연(酒宴)을 베풀고 있지 아니한가
북극성을 돌고 있는 뭇 별들 바라보니 아름 답 도다.

柳山 柳 燾

維石崔伐萬棚城 更無山岳與齊名 上人護國留孤塔 太史藏書更百楹
奮迅依如超北海 魁奇可以鎭南衡 年年辜負看楓節 空望層崖一逕橫

〔적상산성 시 8〕

높고 높게 매단 돌은 만길 낭떠러지 성(城)
더 이상은 없을 산악(山岳) 이름과 같이 똑같네
스님들 나라 지키던 곳엔 탑만 외로이 서 있고
사관(史官)들 장서(藏書)하던 곳엔 수많은 기둥 서 있네
떨쳐 일어난 성한 기세에 힘 되어 북해(北海)를 뛰어넘을 것 같고

진귀하고 빼어난 형세는 가히 남형(南衡)[37]이라도 누를 수 있겠네
해마다 단풍철을 만나면 허물만 등에 지고
층층바위 언덕엔 가로지른 소롯길 하나 부질없이 보이네

秘書院郎 柳 寅 哲

名山著赤像乎裳 天作高城鎭一方 奇巖如畵環爲障 老暎成陰簇滿岡
聽鍾古廬晴雲過 讀史危欄白日長 猥荷兩銜兼視役 春來秋返路塵香

〔적상산성 시 9〕

붉게 드러난 명산(名山) 치마와 같으니
하늘이 만든 높은 성(城) 한 지방을 지키네
그림같이 기이한 바위 휘장 삼아 둘렀고
그늘 이룬 늙은 겨우살이 대나무 등성이에 가득하네
종소리 들리는 옛집엔 갠 하늘에 구름 지나가고
사서(史書) 읽는 높다란 누각엔 한낮 해 길 고나
외람되게도 두 가지 직함(職銜)을 받고 사무(事務)와 공사를 겸하고
봄에 왔다가 가을에 돌아가니 길에서 나는 먼지도 향기롭네

◈ 청량사(淸凉寺)

雪溪 朴 致 遠

高峯碧殿開 仲夏寒風來 空谷繁陰雨 幽泉細石苔
坐看晴鳥遠 心與孤雲乂 塵外多經濟 移松避署臺

37)남악(南嶽)인 형상(衡山). 곧 중국 호남성(湖南省)에 있는 산으로 오악(五嶽) 가운데 남악임.

〔청량사 시 1〕

높게 솟은 산봉우리에 고운 절간 열리니
한여름에도 찬바람이 찾아오고
텅 빈 골짜기에 음산한 비 무성하게 내리는데
깊은 계곡 샘물은 잔돌에도 이끼를 끼게 하네
앉아서 바라보니 맑은 하늘엔 새만 멀어지는데
내 마음은 외롭게 떠도는 구름과 함께 돌아오고
세상 바깥은 백성 구제할 일 많은데
사람 머무는 곳에 소나무 따라와 더위를 피하게 하는구나.

上同

雙壁濟琳碧蘇濂 古松風雨盡無枝 白雲萬壑藏幽徑 停策盤桓恐失歸

〔청량사 시 2〕

절간의 두 벽에 낀 푸른 이끼 펄펄 날리고
오래된 소나무는 거센 비바람에 가지가 없네
첩첩으로 겹친 산골짜기엔 흰구름에 감추어진 아득한 좁은 길
말채찍 멈추어 망설이니 돌아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네

◈ 덕유산(德裕山)

小松 鄭 海 贊

山程上與九天通 高處憑虛兩腋風 穿林便覺衣汨重 曳杖還忘峽谷中
十年塵世憐衰白 一笑溪山發醉紅 不作他日生面客 憑君瓊什意無窮

〔덕유산 시 1〕

산길 오르면 구천(九千)과 통하고
높은 곳에서 허공을 타니 양 겨드랑에 바람이 이네
숲을 헤집고 나오니 옷이 무거워진 걸 문득 느끼고
도리어 지팡이에 끌려가 골짜기 가운데임을 잊었도다
세속의 오랜 세월 가련하게 늙어 백발인데
산수(山水)에서 온통 웃음에 취하니 붉은 꽃이 만발하네
다른 날에 낯선 손님 되지 않으려고
아름다운 시가(詩歌)는 그대 의지하고 싶은 생각 한량 없도다

淵齋 宋 秉 璿

匡廬秀色聳秋天 轉上崔嵬萬棚前 放眼危飼恢宇宙 晏盲絶壁闢雲烟
高林交暎斜陽外 遙海迷茫積翠邊 勝日聯節曾有約 使君淸致滿樽筵

〔덕유산 시 2〕

아름다운 광려산(匡慮山) 가을 하늘에 우뚝 솟아 있으니
만 길이나 높고 험한 산 앞을 돌아서 오르네
아슬아슬한 산꼭대기에서 멀리 보니 천지사방이 넓고
가슴이 녹아 드는 절벽에는 구름과 안개가 열리는구나
높은 숲은 석양(夕陽)이 바깥에서 서로 비추고
아득하게 보이는 먼 바다는 푸른 산가에 있네
지난날에 같이 늙자고 일찍이 약속했는데
그대 맑은 경치 있는 자리에 술 동이가 가득 하 도다

雲坡 趙 秉 瑜

一峯撑立兩湖天 剩得兒孫滿膝前 滄海入望觀日月 塵漠在底積風烟
人遊雲谷千年後 地接江州萬里邊 只恨山河今昔異 不勝涕淚落樽

〔덕유산 시 3〕

호남(湖南) 호서(湖西) 하늘에 버티고 서 있는 한 봉우리
넉넉한 자손들 무릎 앞에 가득하네
푸른 바다 바라보니 해와 달이 보이고
풍연(風煙)이 모여 있는 티끌 같은 인간세상은 밑에 있구나
오랜 세월 지난 뒤엔 운곡(雲谷)에서 사람들 놀 것인데
땅에 접(接)한 강주(江州)는 만리 끝에 있네
옛과 지금이 달라진 산하(山河)가 한스러울 뿐이라서
술자리에 떨어지는 눈물을 억누를 수가 없구나

◈ 돈세정(遯世亭)*

遯翁　柳　漣

晩年擇地一高亭 閑掃流雲捲戶蓋 專得中間風月美 更兼捿息水山靈
塵心消去酒盈與 物性看來渡臥庭 遯世斯翁人不識 焚香獨寫太羲經

〔돈세정 시 1〕

말년에 터를 잡아 높은 정자 하나 짓고
문을 걷고 한가로이 붓을 휘두르니 구름은 흘러가네
풍월(風月) 중간에서 얻은 것은 오로지 아름다움이라
아름다운 산수(山水)를 번갈며 어우러져 살고 싶네

---

* 서호(西湖)에 있다. 부(府)에서 서쪽으로 40리 밖이다. 단종(端宗) 때 함창(咸昌) 현감이던 도원(桃源) 박인정(朴仁挺)은 사육신(死六臣)이 불행을 당하자, 벼슬을 버리고 주계(朱溪) 서호(西湖)로 들어와 스스로 호(號)를 도원(桃源)이라 하고, 세상을 등지고 살면서 다시는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칠암(漆岩)에다 도원상죽 적벽강산(桃源桑竹赤壁江山)이란 여덟 글자를 써서 돌에 새겼다.

그후 참의(參議) 유연(柳漣)이 박인정(朴仁挺)의 옛정자 터에다 돈세정(遯世亭)을 짓고 자호(自號)를 돈옹(遯翁)이라 하였다. 도원(桃源)의 후손 삼암(三巖) 박이겸(朴以謙), 비암(秘巖) 박이항(朴以恒)과 서로 강론(講論)하며, 시를 짓고 읊었다. 팽다관(烹茶觀)과 구맹포(鷗盟浦)는 모두 그 유적지이다. 지금은 정자(亭子)는 무너져 버렸고 이름만 남아 있다.

속된 마음 없어지니 통에 술 가득차고
만물의 바탕을 살피려 하니 늙음이 찾아와 뜰에 눕는 고나
잠시 세상을 숨어 사는 늙은이 사람들을 알지 못하나
혼자서 향 피우며 역경(易經)을 쓰는 도다

三巖 朴 以 謙

百年此地復孤亭 我思詢然倚半蓋 學士前遊餘月色 遯翁遐乘護山靈
深處烟雲隨杖辜 別區泉石淡門庭 蕙孫仍在家聲繼 短架懸燈夜讀經

〔돈세정 시 2〕

백년 된 이 땅 정자(亭子)는 다시 외롭고
금심스러운 내 마음 반쯤 열린 문에 기대네
지난날 학사(學士)와 놀던 달빛 남아 있고
멀어진 돈옹(돈翁) 자취 산신령이 지켜주네
깊은 곳의 연운(煙雲)은 노인장을 따르고
별구(別區)의 천석(泉石)은 문안에 있는 뜰을 산뜻하게 하네
예대로 있는 총명한 자손 집안 명성(名聲) 계승하니
짧은 시렁에다 등 매달고 글 읽는 소리 밤을 지새 누나

何事西湖一主翁 不求聞達坐如蟄 畝花茶酒春相醉 楊柳橋邊綠暎紅

〔돈세정 시 3〕

서호(西湖)의 한 주인 옹(翁)은 무슨 일이 있기에
세상에 이름 드러내지 않고 벙어리같이 앉아 있네
꽤꼬리와 꽃, 차와 술은 서로 봄에 취하고
다리 옆 버드나무는 초록빛이 비치니 짙붉어지누나.

塵海茫茫一栗身 考槃何處是芳隣 晩隨烟雨鷗同去 湖上濯纓別有人 湖有濯纓石

〔돈세정 시 4〕

한없이 넓은 바다 같은 세상에 좁쌀 같은 몸
은둔(隱遁)하기 좋은 이웃이 어느 곳인가
늘그막에 연우(煙雨) 따라 갈매기와 함께 가니
호수 위에서 갓끈을 씻는 별난 사람 있도다. (호수에 탁영석(濯纓石)이 있다)

◈ 집승정(集勝亭)

遯翁　柳　漣

花階茅屋不相遙 多事主人鋤半腰 萬種蒔來春色色 三時培養露朝朝
敎兒點檢鷄群戢 有客閒眠蝶舞驕 晩覺浮生此中老 一邊開處一邊凋

〔집승정 시 1〕

집승정(集勝亭)과 내가 사는 모옥(茅屋)은 서로 멀지 않으니
일 많은 주인장 허리춤에 호미를 차고
만 가지 씨앗 심고 돌아오니 색색이 봄이요
봄, 여름, 가을까지 길러내니 아침마다 이슬이네
가르치는 아들 점검하니 용렬한 무리들 겁내고
한가로운 나그네 졸고 있는데 춤추는 나비 교만하네
덧없는 인생 가운데 늦게 깨달은 건 늙음이라
한쪽에선 꽃이 피고 한쪽에서는 시드는구나

◈ 비암정(秘岩亭)

秘巖 朴 以 恒

幽秘兼便近 玆邱識者稀 浜荊風路滑 疏澗水紋輝
退默知今服 交遊悟昨非 怡神終順事 度世不期遲

〔비암정 시 1〕

깊숙이 숨었어도 가깝고도 편한 것 겸해 있는데
이 언덕을 아는 사람 드무네
바람에 깎여버린 가시나무길 미끄럽고
산골짜기 흐르는 물 트이니 문채(紋彩) 빛나네
묵묵히 물리치고 이제 할 일을 아는데
벗과 사귀어 놀아보니 어제의 잘못을 깨닫게 되네
마음이 즐거우면 끝내 일이 만족하니
세속(世俗)을 초월하는 일은 우연히 더디네

活溪 李 大 潼

佳境會逢適 深林人跡稀 叔楹存太素 巖澗有餘輝
從象幾虛老 顧初便自非 寧嫌求志晚 歲月此中遲

〔비암정 시 2〕

아름다운 곳에 모여 즐겁게 만나는데
깊은 숲속엔 인적이 드물고나
처마와 기둥엔 꾸밈없는 순박함이 남아 있고
바위와 골짝 물엔 아침 햇살이 남아 있네
문궐(門闕)을 좇느라고 몇 번이나 헛되이 늙었던가
비로소 돌아보니 편한 것부터 잘못이네
뜻을 늦게 찾은 것을 어찌 불만스럽다 하랴
이 가운데서는 세월도 더디네

◈ 비암서당(秘巖書堂)

野心雲性伴沙鷗 千丈危巖七里洲 披籬對竹神逾曠 巡屋觀梅境轉幽
江峽堪憐新寓寄 琴書相憶舊交遊 山開爲有尋源路 隔岸桃花任釣舟

〔비암서당 시 1〕

야심(野心)많은 성품은 모래밭 갈매기와 동무하고
천 길이나 높은 바위 칠리대(七里臺)가 물가에 있네
울타리를 제치고 대나무 만나니 정신이 점점 밝아지는데
집을 돌며 매화꽃 구경하니 주변은 도리어 조용하구나
강 낀 골짜기에 의지한 새로운 생활 가련하게 견디며
거문고 타고 책 읽으며 옛 친구와 사귀던 일 서로 생각하네
산문(山門)을 여니 근원(根源) 찾는 길 있는데
언덕 건너 도화(桃花)는 낚시배가 맡았구나

天默齋 李 尙 馨

老境深盟付白鷗 暫開茅舍對芳洲 湖山日暖梅初動 江谷春回地自幽
南國王孫今日過 濟都公子昔年遊 若爲留待花時暮 桃浪千層泛漁舟

〔비암서당 시 2〕

늙바탕에 깊은 맹세 백구(白鷗)에게 부탁하고
모옥(茅屋)을 잠시 여니 아름다운 강가를 대하네
호산(湖山)에 햇살 따뜻하니 비로소 매화꽃 피고
강곡(江谷)에 봄 돌아오니 땅은 저절로 그윽하네
남쪽 나라 왕손(王孫)은 오늘 지나가고
백제 나라 공자(公子)는 옛날에 유람(遊覽)하였네
만약 꽃필 때를 늦도록 머물러 기다린다면
수 없는 포개는 복숭아꽃 물결에 고깃배 띄우리라.

一菴　柳　蕙

昌平餘學復吾東 言志千年尙有同 竹塢徘徊談水月 梅壇講誦坐春風
門徒六七趨陪後 儀禮三千揖讓中 更續斯門曾氏趣 夕陽歸路我心紅

〔비암서당 시 3〕

창평(昌平)에 남은 학문 우리 나라에 돌아오니
오랜 세월 말한 뜻 반드시 함께 있네
대나무 언덕을 거닐면서 물에 비친 달을 희롱하고
매화나무 뜰에 봄바람이 앉아 강송(講誦)을 하네
예닐곱의 제자들이 서둘러 모신 뒤에
수많은 의례(儀禮) 중에 겸허하고 온화하니
증씨(曾氏)를 향한 유학(儒學) 다시 이어지고
돌아오는 석양(夕陽) 길에 내 마음 붉어지네

◈ 분의정(分宜亭)*

林　机

洛社湖鄕亶去來 生涯無着靈成妙 才微千祿初非願 地僻更身孰見猜
天命奚疑疏記足 幽懷可悅水雲堆 從今永作朱溪老 一夢人間萬念灰

〔분의정 시〕

붕우(朋友)들 모임에 잇닿아 호남(湖南) 땅을 부질없이 오고 가니
생애(生涯)에 집착 없이 귀밑머리만 희었네
벼슬길은 재주 없어 처음부터 원한 건 아닌데
궁벽한 곳이라도 몸은 편하니 누가 시기하겠는가.

---

* 부(府) 서쪽 차산(茶山)마을에 있다. 청구(淸滾) 임담(林机)이 주계(朱溪)에다 지은 별장이다. 지금은 폐허되었다.

변변치 못한 밥도 족한데 어찌 천명(天命)을 의심하랴
즐거움이 그윽한 회포는 물 위에 뜬 구름같이 언덕을 이루고
이제는 영원토록 주계(朱溪)에서 늙으니
한바탕 꿈같은 인간세상 모든 생각 태워 버리네

◈ 초려정(草廬亭)*

李 惟 泰

淨盡浮埃一鑑虛 此心元不死灰如 若將持養工夫在 直到光明更有餘

〔초려정 시〕

떠도는 먼지 깨끗이 없어지니 텅 빈 거울 같고
이 마음의 근본은 꺼지지 않은 재와 같네
만약 가르침에 의지하여 공부를 밝게 살피면 어떠한가
바로 광명(光明)에 이르고 또 여유가 있으리로다.

◈ 서벽정(棲碧亭)

淵齋　宋 秉 璿

幽捿十載志 今日起新亭 流水明如鏡 蒼崖繞作屛
境深何染俗 窓靜可談經 淸福惟君賜 徘徊月滿庭

---

*안성면(安城面) 단지봉(丹芝峰) 아래에 있고 부(府)에서 40리에 있다.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 선생이 산미촌(山味村)에서 살았는데 산미촌은 곧 지금의 상산(上山)이다. 천석(泉石) 위에 서재(書齋)를 짓고 매일 학자(學子)들과 학문을 연구하고 닦으면서 스스로 방황하며 장차 일생을 마치려고 했었다.

〔서벽정 시 1〕

십년 간 쌓은 듯 그윽히 머물다가
오늘에야 새로운 정지 세웠네
흐르는 물은 거울처럼 맑은데
푸른 언덕에 둘러싸여 병풍이 되었네
감추어진 곳이 어찌 세속에 물들겠는가.
창문이 고요하니 떳떳한 이야기할 만한데
임금이 주신 좋은 복 생각하며
배회하는 정원엔 달빛이 가득하네

立齋　宋 近 洙

晩契兼淸福 名區一草亭 飛湍雨後瀑 疊仕畵中屛
自是仙靈秘 何曾俗士經 我將起病懶 遺世共山庭

〔서벽정 시 2〕

늦게 맺은 인연 임금님 은혜 겹쳐
이름난 경승지에 초당(草堂)한 채 섰네
급히 흐르는 여울 비 온 뒤에 폭포되고
겹쳐진 높은 산은 그림 가운데 병풍이네
신비로운 신선은 제 의견만 옳다 하면서
어찌하여 일찍이 세속 선비를 따랐는가
내 장차 병들어 게을러도 떨치고 일어나
세상 사 버리고 산정(山庭)으로 향하리라.

芸窓　朴 性 陽

亭在武溪上 屹如一柱亭 風蒲岳陽墅 蒼玉洞陰屛
雷閃琴三尺 春生酒一經 潾然坐隱廓 松竹繞山庭

〔서벽정 시 3〕

무계(武溪) 위에 정자(亭子) 있으니
일주정(一柱亭)처럼 높네
바람에 나부끼는 초가지붕 악양(岳陽)[38]의 별장이고
옥같이 푸른 경치 동음(洞陰)[39]의 병풍이네
조그마한 거문고 큰소리 잠깐 내고
술 한잔 지나가니 봄이 새롭네
책상에 조용하게 앉으니 얽매임이 없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산정(山庭)을 둘러싸네

沈泉　宋 膺 洙

宛在水中沚 伊人捿此亭 烟霞隨杖辈 猿鳥傍門屛
庫碼隣藏史 筵御侍讀經 山氓相指點 鶴灑往來庭

〔서벽정 시 4〕

물 가운데 조그마한 섬 완연히 있는데
저 사람 이 정자에서 살고 있네
흐릿한 노을은 늙은이를 따르고
원숭이와 새는 문병(門屛) 옆에 있네
향리(鄕里)의 사고(史庫)에 행차한 사관(史官)
자리 권하기를 기다리며 경서(經書)만 읽고
산골 백성들 서로 가리키는 곳으로
선비들이 왕래하는 곳이로구나

心石　宋 秉 珣

香然流水裏 瀟灑數間亭 轉入疑仙境 回看宛隱屛
臨淵心可戰 仰壁足難經 誰識幽捿樂 對床月滿庭

38)산의 양지(陽地). 곧 산의 남쪽을 뜻함.
39)골짜기의 음지(陰地). 골짜기에서 북쪽을 향한 곳.

〔서벽정 시 5〕

아름답게 흘러가는 물 가운데
산뜻하고 깨끗한 두어 칸 정자(亭子)
빙빙 돌아 들어가니 선경(仙境)인가 의심하고
돌아서 바라보니 완연하게 병풍 뒤에 숨었고나
연못을 내려다보는 마음 가히 흔들리고
절벽을 우러러보니 어려운 경서(經書) 많네
깊숙한 곳에 숨어 사는 즐거움을 누가 알까
잠자리를 대하는 정원엔 달빛이 가득하네

知郡　趙 秉 瑜

百里茂朱郡 一間捿碧亭 閒雲隨杖辜 潔月照門屛
憂國空流涕 入山獨抱經 歲寒人不到 松翠滿前庭

〔서벽정 시 6〕

무주(茂朱) 고을에서 백리(百里)에
한 칸짜리 서벽정(棲碧亭)이 있네
한가한 구름은 늙은이를 따르고
깨끗한 달은 문병(門屛)을 비추네
나라를 걱정하여 부질없이 눈물을 흘리며
홀로 산으로 들어가 經書를 안고 있네
추운 겨울이라 사람은 오지 않지만
푸르른 소나무 앞 뜰에 가득하네

◈ 칠리대(七里臺)

遯翁　柳　漣

七里灘淸風 披襟坐石榻 笑問嚴夫子 沙鷗睡不答

〔칠리대 시〕

칠리대(七里臺) 여울 맑은 바람에
옷깃을 젖히고 돌침대에 앉아 있으니
엄부자(嚴夫子)가 웃으면서 물어 보는데
백사장 갈매기는 조느라 대답하지 않는구나

◈ 강선대(降仙臺)

三巖 後孫　朴 聖 麟

先祖何年此地遊 亭名集勝至今留 江山應惜吟詩撤 魚鳥宜悲講道休
峯秀希夷三峀屹 灘分晦老一溪流 坐談不覺還家暮 數領沙鷗己夢洲

〔강선대 시 1〕

우리 조상들은 어느 해에 이 곳에서 놀았던가
정자(亭子) 이름 집승정(集勝亭)은 지금도 남아 있네
시를 읊다 그만두니 강산(江山)이 애석해 하고
도의(道義) 강론하다 쉬니 어조(魚鳥)가 슬퍼하네
빼어난 희이봉(希夷峰) 세 봉우리 우뚝하게 솟고
갈라졌던 여울물 느즈막에 한 냇물로 흐르네
앉아서 이야기하느라 집에 갈 생각 잊고 날은 저문데
백사장 갈매기 두어 마리 물가에서 이미 꿈을 꾸고 있네

美齋 後孫　茶湖 黃 然

臺下淸江臺上山 山光水色兩閒閒 此翁亦是閒閒者 盡日高吟山水間

〔강선대 시 2〕

대(臺) 아래는 맑은 강 대(臺) 위에는 산인데
산 경치와 물 빛깔 둘 다 한가하고 조용하네
이 노인 역시 한가하고 조용한 사람이라서
종일토록 산수(山水)에서 큰 소리로 읊네

◈ 안렴대(按廉臺)*

丹泉　金 商 雨

西風何處客 宇宙一高臺 石丈參詩座 楓靈醉酒盃
夕暉平地在 遠水半天來 眞得江山助 胸懷萬里開

〔안렴대 시〕

가을바람 어느 곳을 지나가나
천지에서 가장 높은 돈대(墩臺)로세
쓸모없는 늙은이 시 읊는 자리에 참석하여
좋은 단풍나무 술잔에 얼근하게 취하게 하네

---

* 적상산성(赤裳山城)의 호국사(護國寺) 서쪽에 있다. 우뚝 솟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면 끝이 없는데, 그 자리에는 큰 석굴(石窟)이 있다. 고적(古蹟)은 고려말(高麗末) 삼도(三道) 안렴사(按廉寺)가 이곳에서 왜구(倭寇)를 피하였고, 인조(仁祖) 15년(1637) 청(淸)나라의 군대가 남쪽으로 침입해 왔을 때, 산성(山城)을 지키던 병사들이 모두 소문을 듣고 흩어졌는데 승장(僧將) 상훈(尙勳)이 사궤(史櫃)를 받들어 석굴에다 감추어 유실(遺失)을 면하였다. 이 때 강화도(江華島)가 함락되어, 정족산사고(鼎足山史庫) 실록(實錄)이 열 가운데 여덟 아홉이 없어졌다. 29년 후인 현종(顯宗) 6년(1665) 사신(史臣) 이상진(李尙眞)과 최후상(崔後尙)이 왕명을 받들고 본부(本府)로 내려와 삼도(三道)에서 유생(儒生) 300명을 선발하고 안국사(安國寺)에 등교청(謄校廳)을 개국(開國)하여, 산성에 보관했던 책을 등서(謄書), 강화사고(江華史庫)실록을 보충하였다.

평지에 있는 석양빛은
하늘 반쪽에 있는 아득한 물에서 오고
강과 산이 도와서 진리를 얻으니
가슴속에 품은 생각 만리까지 열리네

◈ 칠암(漆岩)*

老茶 黃 起 河

影分孤樹倒 聲合二灘高 來水還自去 落花復如回

〔칠암 시 1〕

그림자는 넘어진 나무에서 외로운데
합쳐진 두 여울은 소리가 높네
오는 물이 저절로 돌아가니
떨어진 꽃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구나

安素齋 黃 仁 培

巖粧漆色立千尋 湧出孤根自水深 豫護前身應化此 肯押當日報君心

〔칠암 시 2〕

옻 빛으로 단장한 바위 천 길이나 우뚝 서 있고
외로운 부리 솟아 오르니 저절로 물은 깊네
변신하여 태어난 전세(前世)의 몸 이곳이 미리 지켜 주었으니
임금님 마음 보답하던 바로 그날 즐거움이 넘치네

---

*무주읍(茂朱邑) 북쪽 5리에 있다. 그 빛이 옻과 같고 높이는 수십길이다. 도원(桃源) 박인정(朴仁挺)이 도원상죽적벽강산(桃源桑竹 赤壁江山)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 문암(文巖)*

三巖 朴 三 巖

古老相傳國壽峯 洞門深鎖少塵容 休敎華封辭三祝 聊賦崇呼獻九重
處醴人多窮道瑯 濟艱誰是臥岡龍 天應恕彼無疆域 邦鎭仁王奠岳宗

〔문암 시〕

옛 노인들이 대대로 이어 전(傳)해 온 국수봉(國壽峰)은
동문(洞門)을 깊게 닫아 세상 모습 미미하네
화봉삼축(華封三祝)[40] 마다하여 가르침도 쉬었는데
한갖 구실뿐인 숭호(崇乎)[41] 궁중에 바치네
물이 말라버린 곳에 사람은 많아도 붕어가 나갈 길은 막혔는데
언덕에 누워 있는 용을 누가 어렵게 밀어내겠는가
하늘의 승낙으로 경역(境域) 없는 저곳에 오르니
맹주(盟主)의 사당에는 나라 지킨 어진 임금 받들어 모시네

◈ 사선암(四仙岩)**

石癡 李 海 敎

雙岩對峙號仙何 上有行雲日夕過 滴滴靈泉皆仰飮 人間恕得壽鄕多

---

* 설천면(雪川面) 기곡(基谷) 마을 뒤편으로 2리(里)에 있다. 두 개의 바위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이 문(門)과 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름 붙여졌다. 그 후 처사(處士) 황인배(黃仁培)가 이곳에 은거(隱居)하면서, 바위 하나는 붓과 같고 또 하나는 벼루와 같다고 하여 문암(文巖)으로 고쳤다. 구곡시(九曲詩)가 있다. 그 위에는 국수봉(國壽峰)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삼암(三巖) 박이겸(朴以謙)이 노친(老親)을 모시고 피란(避亂)을 하였다.

40)요(堯)나라 당시 화(華)의 봉인(封人 : 국경을 지키는 사람)이 요를 보고 수(壽)·부(富)·다남자(多男子) 세 가지를 누리도록 축하함. 요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고 함.

41)천자(天子)를 칭송하고 축하하는 말. 호승(呼崇), 산호(山呼).

** 풍남면(豊南面) 철목리(哲目里) 뒤편 5리(里)에 있다. 두 개의 바위가 마주서 있으며 높이가 수십 길이다. 그 위에는 수십 명이 앉을 수 있다. 혹은 여기에서 사선(四仙)이 놀았다고 하나, 사(四)와 사(謝)는 같은 음(音)이라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다. 아래에는 석굴(石窟)이 있고, 중간에는 약천(藥泉)이 있어 마시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 영호남(嶺湖南)의 유상객(遊賞客)들이 기이함을 비길 데 없는 곳이라 하였다.

〔사선암 시〕

마주서 있는 두 바위 어찌 신선이라 부르는가
떠가는 구름 위에 있어 밤낮으로 지나가네
영험한 약수 방울져 떨어지니 모두 고개 쳐들어 마시고
사람들은 다만 오래 사는 마을 차지하러 오르네

◈ 책암(冊岩)*

裕堂　金 直 鉉

軒軒亦立道山南 中有丹書語共堪 上下圓方天秘久 誰能開闔此奇巖

〔책암 시〕

도산서원(陶山書院) 남쪽에 출중한 바위 우뚝하게 서 있고
단서(丹書) 가운데에는 천도(天道)의 말씀이 함께 있네
위와 아래 둥글고 모난 것을 하늘이 감추었으니
누가 이 기이한 바위를 열고 닫는가

◈ 연지(蓮池)**

慈匐 姜 元 澔

因言朱溪池 古來稱瑞蓮 無種輒自生 滿地紅欲燃
玆邑間凋弊 蓮盛戶增編 土人候榮枯 民物與之然

---

* 안성면(安城面) 봉산(蜂山)에 있다. 높이는 열길 남짓하고 온전하게 뚜껑을 덮은 모양과 같다. 세속에서는 그 가운데에 선서(仙書)가 있다 하며, 날이 가물면 그때마다 그 위를 방망이로 때려서 쟁그렁거리는 소리가 나면, 곧 단비가 내린다고 한다.
** 무주읍(茂朱邑) 북쪽 3리 향로산(香爐山) 아래에 있었다. 물의 깊이는 열길이다. 저절로 난 연(蓮)이 가운데에 있는데, 고을 백성들은 무성함과 시듦을 보고 인물(人物)의 성쇠(盛衰)를 점쳤다.

〔연지 시〕

주계(朱溪)의 연못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상서로운 연(蓮)이라고 옛 부터 일컬었네
심지 않아도 번번히 저절로 자라나며
붉게 타고자 하는 욕심 땅에 가득하네
시들어서 넘어졌던 이 고을의 요즈음엔
연(蓮)이 무성하니 호적 올리는 백성들이 늘어나네
성(盛)하고 쇠(衰)함을 살피는 토박이들
백성들의 재물도 이와 함께 그렇다네

◈ 고반재(考槃齋)

德菴　金 璔 漢

十載經營此日成 額楣如畵篆雲生 秋容若洗烟硯淨 天氣初晴水月明
考半寬安惟自適 澗阿幽靜有誰爭 考槃僭號眞堪愧 只是斯翁晩暮情

〔고반재 시 1〕

십년 동안 계획하고 연구한 것 이루어진 이날
그림 같은 현판(懸板)의 전자(篆字)에서 구름이 일어나고
씻은 듯한 가을 모습에 붉은 노을 맑으니
비로소 천기(天氣) 개어 물에 비친 달도 밝네
벼슬 버리고 은거(隱居)하는 선비 느긋하고 편하니
오직 유유자적(悠悠自適)하고
이는 다만 이 늙은이 만년(萬年)의 정(情)이네

夢鉤 河 泰 羲

有子如斯告厥成 衰病於此感懷生 依娶雲樹千重邃 的歷溪山寸幅明
盤有煮葵燒筍趣 門無徵租索錢爭 考槃多少當年事 此日風流萬古情

〔고반재 시 2〕

이처럼 아들이 독차지하여 완성하고 아뢰니
여기서 병들어 쇠약한 사람 감회가 일어나고
어렴풋한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 천 겹이나 깊숙한데
산과 골짜기의 시냇물은 선명하여 한 치〔寸〕 폭(幅)도 환하네
쟁반에 있는 삶은 아욱은 익힌 죽순(竹筍) 맛을 따르고
조세(租稅) 징수하는 자 문전에 없으니 세금으로 다투는 일 없네
많고 적은 고반(考槃)은 그 해의 일이요
이 날 즐기는 풍류(風流)는 오랜 옛적의 정(情)이네

遯汕 尹 正 鉉

仲秋佳節小齋成 萬景森羅入眼生 玉洞松篁當戶碧 沂川水月照窓明
閒情自有琴棋弄 世味但將詩酒爭 也識主翁無限趣 逍遙偃仰淡然情

〔고반재 시 3〕

아름다운 계절 중추(中秋)에 작은 재실(齋室) 세우니
온갖 사물과 모든 경관(景觀) 눈에 들어와 보이고
소나무와 대나무 숲이 옥동(玉洞)의 문에서 푸르름을 마주하니
기천(沂川)의 물에 비친 달은 창을 밝게 비추네
본시부터 지닌 정취가 한가하니 거문고와 바둑이 희롱하고
다만 부질없는 세상 뜻에 술 마시며 시(詩)짓기를 다투네
주인(主人) 옹(翁) 또한 아는 것은 한 없는 취미라서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소요(逍遙)하니 산뜻한 정(情)이 드네

豊溪 崔 圭 燻

積年有志到今成 楣額煌煌瑞彩生 不日矩規修子職 以時陟降感神明
案頭書滿須宜讀 壁上棋懸孰與爭 酒盡樑空來夜月 思君不見獨含情

〔고반재 시 4〕

여러 해 가지고 있던 뜻 이제야 이루어지니
번쩍번쩍한 현판 글씨 상서로운 광채나네
지켜야 할 법도 빨리 이루어 자식 된 직분을 갖추고
때때로 오르고 내리니 신명(神明)이 감동하네
책상머리 책이 가득하니 모름지기 읽는 것이 마땅하고
벽 위에 걸려 있는 바둑 누구와 함께 다툴까
술 다 떨어진 빈 집에 달밤이 오니
볼 수 없는 그대 생각에 홀로 정(情)만 머금네

晋陽 河 千 秀

考槃齋就考槃成 好水佳山度一生 籬竹牽風朝氣爽 庭梅納月夜光明
琴中自有昇平樂 局上多閒勝負爭 非富誇張金富宅 衷心亶慰旅人情

〔고반재 시 5〕

고반재(考槃齋) 이루어 유유자적(悠悠自適)할 곳 갖추고
물 좋고 아름다운 산에서 일생을 보내네
대나무 울타리 바람 거느리니 아침 기운 상쾌하고
정원의 매화가 달빛을 받으니 밤빛이 밝네
본시 지닌 재주로 타는 거문고 소리에 태평한 세상은 즐거운데
빈틈 많은 바둑판 위에는 승부 다툼이 한창이네
부유(富裕)하다고 자랑하며 뽐내지 않는 김부자(金富者) 댁은
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마음으로 풍족하게 위로하니 정(情) 많은 사람일세

安東 權 重 植

碩人去後肯堂成 瑞靄洋雲面面生 上界無塵山太古 方塘如鑑水偏明
林樊幽趣誰能識 魚鳥忘機我獨爭 餘韻綿綿遐乘古 滿庭秋菊摠關情

〔고반재 시 6〕

큰 덕(德)을 갖추었던 사람 떠난 뒤에 그 아들이 계승하여 이루니
상서로운 노을과 고운 구름 여기저기 피어나고
티끌 없는 하늘 위엔 태고(太古)의 산이 있는데
거울같이 반듯한 연못엔 한쪽 물만 밝네
산골에 숨고 싶어하는 취향을 누가 능히 알겠는가
물고기와 새는 세속의 일을 잊고 있는데 어찌 나는 다투는가
끊이지 않는 여운(餘韻)은 먼 옛 자취 되었고
가을국화 뜰에 가득하니 모든 정(情)이 통하네

子 金 斗 華

敦事孜孜肯構成 山川從此瑞輝生 淸風入戶徽琴淨 霽月當窓寶鑑明
騷客來時樽共醉 仙翁到處局相爭 先君奄忽違臨席 感佩諸賢枉顧情

〔고반재 시 7〕

부지런히 힘써 일하여 선친(先親)께서 하시던 일 이어 이루니
그 이후의 산천(山川)엔 상서로운 광채 생기고
문으로 들어오는 맑은 바람 사념(邪念)없이 거문고 타니
비 갠 날 창에 비친 달빛 보감(寶鑑)같이 밝네
문사(文士)들이 올 때면 함께 술에 취하는데
나이 든 신선 이르는 곳에선 바둑이 서로 다투네
문득 떠나신 선친(先親)께서는 자리에 임하지 못하지만
여러 어진 분들 기리는 마음 잊지 않으니 부질없는 정(情) 돌아오네

曾孫 金 東 植

天作高臺石狀眞 勤汨付我協神人 子孫序刻兼佳淚 山水隣盟又好賓
密邇精英如可格 芬芳時物適相因 安得餘年重結屋 不憂風雨逼衣巾

〔고반재 시 8〕

하늘이 만든 높은 돈대(墩臺) 돌 모양 순수하게 생겼고
노(魯)나라 노은공(魯隱公)이 은거하던 곳 나에게 맡기니 사람과 신(神) 한데 모였네
자손들 이름을 순서대로 새기고 훌륭한 사위도 나란히 새겨서
산수와 이웃하기로 맹세하니 손님 또한 좋아하네
정영(精英)과 가까이 하니 가히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고
향기로운 당시의 물건 서로 잇닿아 만나는데
남은 여생(餘生) 어찌하려고 거듭 집을 지으려는가
어지러운 세상 걱정할 일 없으니 예의 바른 풍속이 가까이 다가오네

◈ 수심대(水心臺)

錦南 河 寅 煥

玉洞烟霞別有區 曾從兩隱采眞遊 擬尋靈境通三島 斗覺奇觀擅九州
水素澄淸塵不肋 石無貿爛篆長留 試將水石修吾契 三益交情永世垂

〔수심대 시 1〕

안개와 노을 낀 아름다운 골짜기에 별천지(別天地)가 있고
일찍이 따라온 두 은(隱士) 진정한 유람 가졌네
신비로운 땅을 찾아 향하니 신선사는 삼신산(三神山)과 통하고
갑자기 느낀 기이한 경관은 우리나라에서 으뜸이네
맑고 맑은 깨끗한 물은 속된 세상으로 흐르지 않고
흙을 발라 문드러진 데 없는 돌엔 새겨놓은 글씨 오래 남아 있네

수석(水石)을 함께 찾아보며 우리 계(契)를 닦으니
삼익(三益)[42]으로 사귄 정(情) 영원원한 세월 드리우리

四隱 柳 澤 烈

何幸三翁卜一區 逍遙巾珧任傲遊 臺含水月通三島 洞秘烟霞似十洲
深谷溪聲淸入夢 裕峯嵐氣冷侵詩 登臨別有昇平樂 滌盡胸間萬種愁

〔수심대 시 2〕

세 노인 한 곳을 골랐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소요(逍遙)하는 초야(草野)의 선비들 마음대로 즐기도록 맡기네
물 속에 비친 달 돈대(墩臺)를 머금으니 신선이 사는 삼신산(三神山)과 통하고
안개와 노을 낀 신비한 골짜기는 중국의 십주(十洲)[43]와 흡사하네
깊은 골짜기의 시냇물 소리는 꿈속으로 맑게 들어오고
덕유산봉(德裕山峰)에 가득한 산 기운은 초라한 시(詩)를 깔보네
별천지(別天地)에 올라 내려다보면 태평한 나라가 즐거운데
가슴속에 있는 것 다 씻어 버리니 만 가지 근본이 걱정이네

后隱 吉 文 永

江山南國第名區 佳氣鬱蔥淡靄流 泗水尋芳餘此地 蘭亭修契昔何時
三山蘿月仙無恙 兩岸桃花世不知 三益社中今少一 峨洋舊曲問諸誰

〔수심대 시 3〕

남쪽 강산(江山) 가장 빼어난 명승지(名勝地)에
상서로운 기운 왕성하니 아지랑이도 맑게 모여드네

42)사귐에 있어서 유익한 세 가지 벗. 곧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문견이 많은 사람.
43)바다 가운데 십주(十洲), 곧 조주(祖洲)·영주(瀛州)·현주(玄洲)·염주(炎洲)·장주(長洲)·원주(原洲)·유주(流洲)·생주(生洲)·봉인주(鳳麟洲)·취굴주(聚窟洲)

사수(泗水)[44]에서 찾은 꽃 이 곳에 남아 있는데
난정(蘭亭)[45]에서 만든 계(契)는 옛날 어느 때였던가
삼신산(三神山) 담쟁이덩굴에 걸린 달은 근심 없는 신선(神仙)인데
양쪽 강 언덕에 핀 복숭아꽃은 세상을 알지 못하네
삼익(三益)으로 결성된 단체 가운데 이제 한 사람 모자란데
초(楚)나라 백아(佰牙)가 뜯던 옛 곡조 누구에게 물어볼까

◈ 낙원(樂源)

剛齋　河 千 秀

晩卜溪山好 時時去復還 身同流水潔 心與白雲閒

〔낙원 시 1〕

계곡과 산이 좋아 늦게 잡은 자리
때때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몸은 흐르는 물과 함께 깨끗하고
마음은 흰구름과 더불어 한가하네

茂陵須與武陵通 一樣靈區兩地同 每向溪頭封竹綠 時從谷口綱桃紅
身遊秦政風霜外 心在唐堯兩露中 動止行藏惟意適 一生眞樂也無窮

〔낙원 시 2〕

무릉(茂陵)은 모름지기 무릉(武陵)과 통하니
신비로운 곳 한결같이 양쪽 땅이 똑같네

---

44)사하(泗河)의 다른 이름. 중국 산동성 사수현 동쪽 배미산에서 발원함.
45)중국 절강성 소흥현 서남쪽 난저 위에 있음.

계곡 근방을 매일같이 향하여 푸른 대나무 북돋아주고
골짜기 입구를 때때로 쫓아가 붉은 복숭아 동여매네
진(秦) 시황(始皇)이 몸소 노는 곳은 바람 불고 서리 내리는 바깥이고
요(堯) 임금의 마음 있는 곳은 비 오고 이슬 내리는 가운데네
세상에 나가 도(道)를 행하고 물러나와 숨는 행동 오직 뜻에 맞으니
참으로 즐거운 한평생 또한 끝이 없네

歌

羌遺世而居樂源 風塵不入樂源 肆擧網而收落花 心情豈在落花
恐樂源之有泄而 落花吾能藏之 矩落花之無跡而 樂源人誰知之

세상과 인연하여 고달픔만 남기고 낙원(樂源)에서 사니
풍진(風塵) 세상이라 낙원에 들지 못하네
방자하게 들고 있는 그물로 떨어지는 꽃잎을 거두어들이는데
어떠한 심정(心情)이 낙화(落花)에 있겠는가.
낙원(樂源)이 없어질까 두려워
내가 능히 낙화(落花)를 감추기는 하였는데
비로소 낙화(落花)의 흔적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낙원(樂源)을 알겠는가

山岩銘

世上遙望 白雲靑山 烟塵不到 風月多閒

세상 멀리 바라보는
흰구름 속의 푸른 산엔
戰場(전장)의 연기 이르지 않고
風月(풍월)만 한가롭네

來岩銘

源頭活水 盈科而來 虛明洞澈 光影徘徊

샘 곁에서 흘러 내리는
물 웅덩이를 가득 채우고 내려오니
환하게 텅 빈 골짜기 맑아
빛과 그림자가 맴도네

◈ 나제통도(羅濟通道)

兩國爭雄日 幾經矢石塵 興亡無問處 但見路行人

신라(新羅), 백제(百濟) 두 나라가 자웅(雌雄)을 겨루던 날
화살과 돌 날아다니던 전장(戰場)에서 몇 번이나 지났던가
흥하고 망하는 것 물어볼 곳 없는데
다만 보이는 건 길가는 사람뿐이네

제3장 무주의 언어

본 장은 처음 제3편 제3장 어문학으로 편성되었다. 무주지역을 중심으로 그간 발표된 글을 참조하고, 이왕이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언어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집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긴 까닭이다. 그러나 본래 의도했던 계획이 무산되어 1988년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무주지방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에 수록된 군산대학교 권병로 교수의 '무주군의 언어 고찰'을 그대로 전재하였다. 다만 '어휘목록'은 생략하였다. 그리고 그간 무주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된 성과물의 목록을 글 말미에 추가하였다. [편집자 주]

Ⅰ. 서론

1. 개관

본고는 무주군의 문화재지표 조사의 일환으로 무주 지역의 언어를 조사하여 무주 방언의 특징을 밝히려는 연구 보고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주군에 관한 지리·역사·문화·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하는데, 이미 앞에서 자세히 언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무주군은 지리적으로 보면 전라북도 동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와 인접해 있다. 그러므로 무주군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북도에 소속되어 있으나 방언 구획상으로는 3대 방언권의 접촉지대로서 매우 흥미를 끄는 곳이다.

또한 무주군은 역사적으로 보면 서기 1414년(조선 태종 14년) 무풍현과 주계현이 통합의 과정을 거쳐서 된 군으로 주계는 백제에 속한 현이었고, 무풍은 신라의 한 현이었다. 그래서 무주군은 6개 면으로 이루어 졌지만 이질적인 두 지역으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무풍면이요, 다른 하나는 무풍을 제외한 5개 면이다. 본고에서는 무주 방언

을 중심으로 다루고 두 지역의 방언을 비교하여 그 뿌리와 차이점을 논하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와 교통 면에서도 무주는 대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무풍면은 무주보다 경상북도 김천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통혼(通婚) 경향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무풍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그들이 본래 신라권에 속해 있었고, 언어·풍습도 다르다는 의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무주 사람이 타지에 가면 말씨에 대하여 전라도 사투리를 쓴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는 것도 무주 방언이 전라도 방언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2. 조사방법

무주군 6개 면 중 무주면, 설천면, 무풍면 세 곳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제보자(informant)는 그 고장에서 출생한 60세 이상의 노인층을 중심으로 외지에 나가 오래 거주하지 않고, 무학(無學)이나 한글 해독 정도의 수준이며, 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조사지점은 거의 한 마을이 씨족 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대체로 14, 5대를 살면서 내려온 곳이다.

조사자료는 방언조사 질문지(정신문화연구원, 1980)를 사용하여 채록하였으며, 대개 1,000여 개의 어휘를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뒷면에 나오는 무주 방언은 한국 방언자료집 V(전라북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많은 참고가 되었음을 밝혀둔다.

조 사 지 점	조 사 일 시	제 보 자
목주면	4. 12. 5 ~ 1	조삼복(72)
설천면	88. 10. 5 ~ 9	김분이(63)
무풍면	86. 8. 8 ~ 13	곽윤섭(70)

방언 자료 채취는 주로 질문법을 사용하였으며 자연 채취법도 적용하였다.

참고로 이후에 예시되는 방언들은 주로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은 표준어이며 괄호 앞에 쓰여진 것은 방언형이다.

Ⅱ. 본론

1. 자음 체계

무주 방언도 다른 지역의 경우와 같이 자음의 수와 체계에서 표준어와 일치한다. 무주, 무풍의 두 방언의 공식적인 체계는 다음과 같다.

ㅂp ㄷt ㅈc ㄱk
ㅍph ㅌth ㅊch ㅋkh
ㅃp’ ㄸt’ ㅉc’ ㄲk’
ㅅS ㅎh
ㅆS’
ㅁm ㄴn ㅇŋ
ㄹr

무풍의 경우 경상도 방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ㅆ’를 음소로 가지는 것은 중부방언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경상도 방언에는 ‘살’(肉, 米)로 실현되어 ‘ㅆ’를 음소로 가지지 않는다.

2. 모음체계

무주 방언의 경우 모음 체계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4열3단 체계를 가진다.

ㅣ ㅟ ㅡ ㅜ
ㅔ ㅚ ㅓ ㅗ
ㅐ ㅏ

그런데, 무풍 방언에서는 원순모음 'ㅟ' 'ㅚ'가 극히 드물게 나타나며 'ㅟ'는 'ㅣ'로 'ㅚ'는 'ㅖ'로 대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ㅖ'와 'ㅐ'의 구분이 잘 안되고 있으며, 경상도 방언에서도 마찬가지로 'ㅡ'와 'ㅓ'의 발음 간극이 좁아 음성적으로 구분이 잘 안된다. 필자의 귀에는 '건강'은 오히려 '근강'으로 '금붕어'는 오히려 '검붕어'로 들려 'ㅡ'와 'ㅓ'의 변별력이 상실되어 중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주에서는 충청도 방언에서 볼 수 있는 이중모음 반모음 'j'와 'ㅡ'가 합해진 ' '와 같은 소리인 '  동'(영동) '  새'(열쇠)가 나타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무주 방언은 중부 방언에 기원을 두고 무풍 방언은 경상도 방언에 기원을 둔 것으로 보인다.

3. 운소 체계(韻素 體系)

무주 방언은 운소로서 음장만을 가진다.

눈(目) 말(馬) 배(腹舟)
눈:(雪) 말:(言) 배:(梨)

그런데 무풍 방언은 운소로서 음장과 성조를 가진다. 경상도 방언의 고·중·저 3단계의 성조가 변형된 고·저의 2단계 체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ㄱ) 고조 말(馬) 배(梨) 손(客)
(ㄴ) 저조 말(斗) 배(腹·舟) 수(手)
(ㄷ) 저조 말:(言) 배:(倍) 손:(孫)

위의 예에서 (ㄱ)과 (ㄴ)은 고저의 차이에 의하여 분화되고 (ㄴ)과 (ㄷ)은 음장의 차이에 의하여 각각 변별된다고 보여진다.

억양에 있어서 발화상의 인상은 무주 방언은 전라도와는 거리가 멀고 충청도 방언과도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인상을 준다. 반면 무풍방언은 충청도 사람에게는 경상도 말처럼 들리고, 경상도 사람에게는 충청도 말처럼 들리는 것은 애초에 성조 방

언권에 속해 있던 무풍이 비성조 방언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성조가 약화되어 나타나는 형상으로 보인다.

이 점은 현지 주민들의 의식과도 일치한다. 무주 사람들은 자기네 말이 금산이나 영동(충청도) 말이나 같다면서 전라도 사투리를 쓰지 않는다고 하고, 설천에 가면 말이 조금 달라지고 무풍에 가면 완전히 경상도 말이라고 한다. 반면 무풍 사람은 자기들의 뿌리는 경상도이고 말도 경상도 말을 쓰며 설천부터는 전라도 말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4. 음운, 형태 및 어휘상의 특징

1) 구개음화 현상은 어느 지역에서나 일반적으로 일어나며 무주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그 중 'ㄱ'계 구개음화가 '짐치'(김치) '지둥'(기둥) '재:집, 지아집'(기와집) '질다'(길다) '저드랑'(겨드랑)과 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합성어의 경우 '엿질굼'(엿기름), '들지름'(들기름)과 같이 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데, 두 방언의 경우 '겨'(糠)는 모두 '기'로 실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전광현(1977. P77)에서 분포적인 면과 음운론적 범위의 제약성이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특징은 중부 방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ㅎ'계 구개음화는 '세'(혀) '심'(힘)이 있으나 '효자'와 '형'은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남부 방언보다는 약한 편이다.

2) 어두에 된소리가 나는 현상도 남부 지방에서 일어난 통시적 음운현상인데, 이 두 방언에서도 '깨구리'(개구리) '까지'(가지) '찔겡이'(질경이) '쬐기'(조끼) '쑤시(수수) '쏘내기'(소나기) '뚜끼비'(두꺼비) '또랑'(도랑) '뻔디기'(번데기) '삥아리'(병아리)와 같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 이 두 방언도 다른 방언과 마찬가지로 명사 발음으로 자음군(쌍받침)을 가지지 않는다. '값' '삯' '여덟' '돐' 등은 모음 앞에서도 각각 '갑' '삭' '여덜' '돌'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무주에서는 '닭, 칡, 흙'이 '닥, 칙, 흑'으로 실현되는데, 무

풍에서는 '닑 츸 흙'으로 유기음이 잔재하는 것을 보면, 그 기저형이 발음으로 'ㅋ'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형은 경상도, 김천이나 거창에서 나타난다. 용언의 경우 자음어미 앞에 'ㄹㄱ, ㄹㅁ, ㄹㅂ'의 'ㄹ'이 탈락하고 'ㄹㅌ'의 경우 'ㅌ'이 탈락하여 '익다'(읽다) '막다'(맑다) '넓다'(넓다) '할다'(핥다)로 실현된다.

그리고, 명사 발음으로 유기음 및 'ㅈ'인 것들은 대부분 'ㅅ'내지 평음으로 실현된다. '덫, 꽃, 숯, 윷, 솥, 팥, 짚, 잎' 등이 모음 앞에서 각각 '덧, 꼿, 숫, 윳, 솟, 팟, 집, 입'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무풍에서는 '처격'이나 '대격'이 결합할 때 '소털, 소철'(솥을) '소티다'(솥에다)와 같이 유기음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무주에서도 '앞' '곁' 등은 모음어미 앞에서 유기음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4) 'ㅣ' 모음 역행동화는 널리 알려진 것이고, 남부지방의 경우 형태소 경계까지 확대되어 일어나지만 여기서도 새삼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뚜끼비'(두꺼비) '피래미'(피라미) '되기(독+이) '배비"(밥+이) '냉기다'(남기다) '생키다'(삼키다)와 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무풍의 경우 피동화주가 'ㅗ' 'ㅜ'를 가지면 '묶이다' '볶이다'와 같은 경우 'ㅣ' 모음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것은 무풍방언의 단모음 체계에서 'ㅟ'나 'ㅚ'가 'ㅣ'나 'ㅖ'로 전이되어 빈간으로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5)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경우 두음으로 자음을 취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실현된다. 특히 순음 아래서 이중모음 'ㅕ'가 무주에서는 '베실'(벼슬) '베락'(벼락) '뻬'(뼈)로 실현되나 무풍에서는 각각 '비실' '비락' '삐'로 나타나 경상도 방언과 일치한다.

'ㅣ' 음절 동사 어간에 부사형 어미 'ㅡ어서'가 결합되면 무주에서는 '줘서'(주+어서) '꿔서'(꾸+어서) '쏴서'(쏘+아서) '꽈서'(꼬+아서) '저서'(지+어서) '처서'(치+어서) '첬다'(치었다) '마셨다'(마시었다) 등으로 실현되는데 반해, 무풍에서는 '조서' '꼬서' '쏘서' '꼬서' '지서' '치서' ' 다'젔 '마 다' 싰 등으로 'ㅡ어'가 탈락하면서 보상성 장모음화도 일어나지 않고 실현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 점도 경상도 방언의 한 면이다.

그리고 용언의 2음절 이상의 어사에서 부사형어미 'ㅡ어서'가 결합할 때, 무주에서는 '가꿔서'(가꾸+어서), '녹둬서'(녹후+어서)로 실현되는데, 무풍에서는 '가까서'

‘녹카서’로 실현되어 모음 조화가 1음절의 모음에 의하여 지켜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어간이 2음절이고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버물라서’(버물+어서) ‘부풀라서’(부풀+어서) 등으로 실현되는 기현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ㄹ’이 첨가되는 규칙이 기술되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시기의 어느 단계에서 ‘의’로 표기되던 이중모음은 ‘하니’(한의) ‘내이’(내의) ‘이자’(의자) ‘이심’(의심)과 같이 ‘ㅣ’로 단모음화 하여 실현된다.

6) 소위 변칙 활용에서 ‘ㅅ’ 변칙은 두 방언에서 정칙으로 활용하여 ‘이서라’(잇+어라) ‘나사라’(낫+어라) ‘저서라’(젓어라) 식으로 모음어미 앞에서 활용한다. 그런데 ‘ㅂ’변칙 활용의 경우, 두 방언은 다른 양상을 보여 준다. 무주에서는 표준어와 같이 ‘춥다’ ‘추우니’ ‘추워서’처럼 변칙 활용하나, 무풍에서는 ‘추부니’ ‘추버서’와 같이 정칙으로 활용하여 ‘ㅂ’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것도 경상도 방언의 한 특성이며 물론 젊은 세대들은 학교 교육의 영향으로 점차 변칙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특이한 점으로 무풍에서는 ‘ㅡ거라’ 변칙이 ‘가거라’ 뿐 아니라 ‘씻어라’가 ‘씻거라’로 실현되어 또 하나의 ‘ㅡ거라’ 변칙 단어가 생긴 것이다.

7) 무풍 방언이 경상도 방언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ㅣ’ 모음 앞에 오는 비음 ‘n ŋ’이 탈락하면서 앞에 모음을 비음화시키기도 한다.

달패이(달팽이) 괘(고양이)
마이(많이) 오패이라(오니라)

8) 중세 국어에서 보여 주었던 ‘△’ 이 전라도 방언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데, 두 방언에서 다같이 ‘ㅅ’을 유지하고 있는 어휘들이 상당수 있다.

아시보다(아우보다) 여시(여우)
가새, 가시개(가위) 무시(무우)
구시(구유) 나싱개(냉이)

9) 그런데 중세 국어 순음경 'ㅂ'에 해당하는 방언형은 무주와 무풍 사이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준어	무주	무풍
또아라	따바리	따벵이
입술	입소리	입수부리
벙어리	버버리	버부리
다리(髀)	다루	달비
확	확	호박
졸음	자오름	자부름

위의 예에서 보여 주듯이 무풍이 무주에 비해 중세 국어 당시 순경음 'ㅂ'을 가졌던 어사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무풍이 경상도 방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언어의 개신지역(경주)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잔재지역으로 고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보수적인 경향을 보여 준다.

10)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표준어에서 사역형 파생 접미사로 쓰이는 '히'가 '후'로 나타나는 것이 두드러진다.

익후다(익히다)	삭후다(삭히다)
묵후다(묵히다)	썩후다(썩히다)

또 하나 이 지역에서 흥미를 끄는 것은 형용사의 경우인데 표준어 '짜다, 쓰다, 차다'가 각각 '짭다, 썹다, 찹다'로 실현되어 'ㅂ'을 발음으로 더 가지는 특징을 보인다. 동사에서 '뚫어'가 '뚤비'로 실현되어 'ㅂ'이 첨가되는 현상도 보인다.

단어 구성에서 보면 표준어의 '매달다'가 무주에서는 '달아매다'로 그 순서가 바뀌어서 나타나며, 무풍에서는 '과줄'이 '줄과'로 '딸꾹질'이 '깔딱질'로 음운도치가 되어 실현된다. 그리고 두 방언에서 동물의 수효를 셀 때 '마리'보다' '바리'를 쓰며, '키운다'와 '기른다'가 달리 쓰여 가축의 사육은 '키운다'로 쓰고, '콩나물'의 재배는

'질군다'로 쓴다. 그 또 하나의 예는 '엿기름'을 '엿질굼'이라고 한다. 그리고 '정지'는 부엌이라는 공간을 의미하지만 '부석'은 아궁이를 의미한다. 어린이를 데리고 노는 유희 중의 하나인 '곤지곤지'는 무주에서 '지깡지깡' 무풍에서는 '진진'이라 하고, '엄살떤다'는 말은 무주에서 '숭물떤다' 무풍에서는 '엉구적씬다'로 쓴다.

'밑싣개'(그네 받침)는 무주에서는 '군디붙이'로 무풍에서는 전라도에서 많이 쓰는 '안질깨'로 나타나는 재미있는 경우도 있다. 무풍에서는 '진달래'를 '참꽃' '철쭉'은 '개꽃'이라 한다. 동사에서 '빻는다'는 무주에서 '빠신다' 무풍에서 '빠순다'고 써 'ㅅ'이 첨가되어 나타나는 경우다.

사물과 명칭에서 두 지역 사이에 서로 바뀌어 쓰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표 준 어	무 주	무 풍
도토리	도토리	굴밤
떡갈나무	도토리나무	쏙소리나무
상수리	떡굴밤	부춤

무주방언에서 볼 수 없는 '파구'(파) '씨카리'(서캐) '돌비이'(독) '남바리'(잠자리) 등이 무풍 방언에 나타난다.

Ⅲ. 결론

본고는 전라북도 동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무주군의 언어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특징을 기술하였다. 무주군은 역사적으로 두 개의 부족국가 안의 다른 행정구역이 통합해서 이루어진 군으로 언어에 있어서도 이질적인 두 방언권으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무풍면이요 다른 하나는 이를 제외한 5개면이다.

무주군이 행정 구역상으로는 전라북도이지만 언어에 있어서는 중부방언권에 소속될 가능성이 사회학적 입장에서 입증되어 왔다. 즉 언어 외적인 면, 경제·교통·진학·통혼권에서도 무주는 충남 대전권에 무풍은 경북 김천쪽으로 끌리고 있는 점이다.

여기에 드러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볼 때도 무주방언이 여타의 전라북도 방언과 다

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무풍방언은 경상도 방언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점을 볼 때, 무주방언은 중부방언권에 속하고 무풍은 경상도 방언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살펴온 무주와 무풍방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음운체계의 측면에서 보면 자음체계는 두 지역이 중부방언과 일치하고 모음체계는 단모음의 경우
   무주는 'ㅣ, ㅖ, ㅐ, ㅟ, ㅚ, ㅡ, ㅓ, ㅏ, ㅜ, ㅇ' 10개의 모음을, 무풍은 'ㅣ, ㅖ, ㅓ, ㅏ, ㅜ, ㅇ' 6개의 모
   음 가진 것으로 본다. 운소로서는 무주는 음장만을 가지고 무풍은 음장과 고·저조 2단계의 성조를 가
   진다.
2. 구개음화 현상은 잘 일어나나 'ㅎ'계가 비교적 적다. 그리고 어두의 된소리화도 두 지역에서 활발하
   게 실현된다.
3. 명사 발음이 쌍받침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없다. 용언의 경우 자음 어미 앞에서 'ㄹㄱ, ㄹㅁ, ㄹㅂ'의
   'ㄹ'이 탈락하고, 'ㄹㅌ'의 경우 'ㅌ'이 탈락한다.
4. 명사 말음으로 유기음 및 'ㅈ'이 올 경우 대개 'ㅅ'내지 평음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무풍에서는 처격
   이나 대격 앞에서 유기음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5. 'ㅣ' 모음 역행동화도 두 지역 다 활발하게 일어나나 무풍방언에서는 피동화주가 'ㅜ' 'ㅗ'일 때는 동
   화를 거부한다.
6. 이중모음의 단모음화는 자음을 두음으로 취했을 때 무주보다는 무풍에서 더 활발하며, 과도음(j, w)
   의 탈락은 무주에서는 치찰음을 제외하고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무풍에서는 활음을 형성하지 못하
   고 접사 '一어'가 탈락하여 이중모음을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경상도 방언의 한 특징이다.
7. 무주 방언에는 'ㅅ'변칙이 없는데 무풍방언은 'ㅅ'변칙 뿐 아니라 'ㅂ'변칙도 없다.
8. 중세 국어에서 존재했던 '△'과 '붕'의 흔적이 남아 'ㅅ'과 'ㅂ'으로 실현되는 것도 두 지역 다 공통적이
   나 무풍방언에서 훨씬 많은 어사가 남아 있는 것은 무풍방언이 경상도 방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언어의 개신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잔재지역으로 고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보수적인 경향
   을 보여준다.
9. 'ㅣ' 모음 앞에서 배음 'ㅁ' 'ㅇ'이 탈락하는 현상은 무풍에서만 일어나는데 이 또한 경상도 방언의 한
   특징이다.

이상의 것을 종합해 볼 때 역사적인 배경도 다르고, 음운현상이나 어휘를 비교해 보아도 무주군의 언어는 무주와 무풍 두 방언권으로 나누어진다. 무주군은 행정구역은 전라북도이지만 무주는 충청도 방언권에 속한다고 보며, 무풍은 경상도 방언권에 속한다는 결론을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두 방언 사이에 공통적인 요소보다 이질적인 요소가 두드러져 무주와 무풍 사이에 두꺼운 등어선(等語線)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1)]

최락철(1968), 무주군사, 어문각.
이익섭(1968), 충청 경상도 접경의 전라북도 방언연구, 문교부 학술연구 보고서.
이병근(1969), 황간지역어의 음운, 논문집 Ⅰ, 서울대 교양과정부 Ⅰ.
이익섭(1970), 전라북도 동북부 지역의 언어분화, 어학연구 6-1, 서울대.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 출판부.
최학근(1978), 한국 방언사전, 현문사.
권병로(1979), 무풍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차균(1980), 경상도 방언의 성조체계, 과학사.
전광현(1983), 영동·무주 접촉지역어의 음운론적 고찰, 동양학 13,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 한국방언자료집Ⅴ, 전라북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익섭, <전라북도 동북부 지역의 언어분화> - 특히 그 언어의 외적 요인과 관련 하여- 어학연구 6-1, 서울대 어학연구소, 1970.
권병로, <무주방언의 Umulaut 현상>, ≪군산대논문집≫6, 1983.
권병로, <무주방언의 二重母音>, ≪어학연구≫4, 군산대학교 어학연구소, 1985.
권병로, <무풍방언의 음운 변화에 관한 연구>, ≪어학연구≫6, 군산대학교 어학연구소, 1987.

1) 본래 권병로 선생의 글에 참조문헌이 있었는데, 편집자가 추가하였다.

정경용, <설천지역의 언어분화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권병로, <무주군의 언어조사>, ≪전주대박물관보고서≫, 1988.
권병로, <전라·경상 接觸地域語의 음운현상(1)>, ≪어학연구≫8, 군산대학교 어학연구소, 1989.
권병로, <전라·경상 접촉지역어의 음운현상(2)>, ≪이규창박사정년기념논총≫, 1992.
이윤구, <무주 안성지역어의 의문형 어미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이윤구, <무주지역어의 청유형 어미 연구>, ≪대구어문논총≫5, 대구어문학회. 1987.
이윤구, <무주지역어의 명령형 어미 연구>, ≪대구어문논총≫6, 대구어문학회. 1988.
이윤구, <무주지역어 '-이'의 활용적 기능에 대하여>, ≪대구어문논총≫13, 대구어문학회. 1995.
이윤구, <반말어미의 형태 분석(Ⅰ)> - 무주지역어를 중심으로 -≪대구어문논총≫14, 대구어문학회,
1996.
이윤구, <반말어미의 형태 분석(Ⅱ)>-무주 지역어를 중심으로 -≪대구어문논총≫15, 대구어문학회,
1997.
이윤구, ≪무주방언 종결어미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제3편 읍·면 마을



제3편 읍·면 마을

제1장 읍·면 마을 변천 개요

제1절 행정구역의 변천

1. 개요

오늘날 무주군의 영역에 사람이 주거지역을 형성하면서 무리를 지어 살기 시작한 것은 청동기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그것은 이 지역에서 출토된 고인돌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무주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금강 최상류의 진안군 정천면 '진그늘 유적'에서 중기 구석기시대부터 후기 구석기시대에 걸친 대규모의 유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향후 무주지역의 역사는 중기구석기 시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금강 중류지역의 대전 용호동·노은동, 공주 석장리 유적에서 다양한 구석기시대의 유구와 유물이 발견된 점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예이다.[1)]

선사시대 이후 무주군 관내 취락의 형성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의 무주군 영역을 포함하는 행정지명에 대해서 문헌을 통해 확인하면, 삼한시대에는 현재의 무풍면(茂豊面)을 중심으로 한 무산(茂山)은 변진국(弁辰國)[2)]에 속했고, 현재의 무주읍(茂朱邑)을 중심으로 한 주계(朱溪)는 마한국(馬韓國)[3)]

---

1) 김승옥, <선사시대>≪무주군지≫(상), 무주군지편찬위원회, 2003, 178쪽.
2) 한반도 중부 이남 지역에 분포한 삼한(三韓) 중의 하나로 변한(弁韓)이라고도 한다. 대체로 기원 전후부터 4세기경까지 지금의 김해·마산 지역에 분포한 정치 집단을 가리킨다.
3) 한반도 중부 이남 지역에 분포한 삼한(三韓) 중의 하나이다. 대체로 BC 1세기~AD 3세기에 경기·충청·전라도 지방에 분포한 54개의 소국(小國)을 가리킨다.

에 속하였다는 점 등이 확인된다.

이후 삼국시대부터 조선 태종 14년(1414), 무산과 주계가 통폐합되어 무풍의 '무(茂)'와 주계의 '주(朱)'를 따서 '무주'라는 새로운 지명이 탄생될 때까지 지명의 변천과 영역의 변화를 겪게 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지명의 탄생과 소멸, 특히 마을의 역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것은 무주군의 지리적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무주군은 우리나라 군(郡) 중에서 바다와 가장 멀리 떨어진 내륙지방, 즉 백두대간(白頭大幹)의 등줄기인 소백산맥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임야가 83%를 차지하는 산악지대로 옛적부터 사람이 마을을 형성하고 살기에는 적합한 지역이 아니었던 것이다.

삼국시대, 주계와 무산은 양국의 국경 지대였던 관계로 치열한 전쟁터를 이루고, 다른 한편으로 인적·물적 교류의 장소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산악 지역일 뿐 아니라 국경 지대였던 까닭에 취락을 형성하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는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다. 따라서 평야지대와는 달리 소수의 집단이 마을을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역사적 사실 역시 기록으로 남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를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또한 환경의 변화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이주 성향이 강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무주가 적상산사고(赤裳山史庫)의 설치(1614년)와 운영을 계기로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어 인근의 여러 고을에 앞서 발전의 기회를 가졌지만, 뚜렷한 발전과 문화적 유산을 남기지 못한 것 역시 지리적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무주군의 읍·면사 또는 마을사에 대해 그나마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기는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일부가 확인된다.

무주군에서 구전되거나 기록으로 전해진 전설(傳說) 등을 보면,[4] 대체적으로 임진왜란(壬辰倭亂)을 전후하여 마을의 형성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즉 임진왜란 이전에는 마을의 형성과 발전 등 마을 역사에 관한 구체적인 문헌이나 자료를 접할 수 없음에 비해, 이 시기를 전후해서는 몇몇 문중의 이주와 정착 등이 기록을 통해 확인되고, 구전되어 온 몇몇 마을의 시작이 이 시기를 전후하여 희자되고 있는 것이다.

---

4) 무주군, ≪내 고장 전설집≫, 무주군, 1992.

2. 시대적 변천

맨 처음 무주군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은 적상면 사천리와 길왕리의 지석묘, 그리고 최근에 확인된 설천면 소천리 하평지마을의 지석묘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청동기시대 유적들은 마을이나 읍·면의 형성과 변천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전하지는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나마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무주지역의 마을사는 임진왜란을 전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 이전 시기에서는 행정단위의 변천을 확인할 수 있다.

삼한시대 무주군 관내 마을사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행정지명을 중심으로 앞서 언급한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선 중기까지 이어지는데, 그나마 행정지명을 중심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삼국시대에는 신라 조분왕(助賁王) 2년(231) 석우로(昔于老)에 의해 감문국이 신라에 병합된 후 현재의 무풍지역이 무산(茂山)으로 명명(命名)되었고, 경덕왕(景德王) 때에 이르러 무풍(茂豊)으로 개명(改名)되었다.[5] 그 후 진흥왕 11년(557) 청주(靑州)의 무산현이 되었고, 문무왕 원년(661)에는 감문군(甘文郡)의 무산현이 되었다.

주계는 백제 근초고왕(近肖古王, 346~375)이 마한의 모든 세력을 통일한 시기(369년)를 전후(前後)하여 백제에 속했을 것으로 여겨지며, 그 당시 지명은 적천(赤川)이었다.[6] 그 후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지명의 변동없이 지속되었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이른바 '남·북국시대'에 이르면, 주계가 신라의 영토로 편입된 구체적인 시기를 확인할 자료는 없으나, 백제가 멸망하기 전에 신라에 병합되었을 가능성이 크며,[7] 실질적인 통치력의 행사는 신라가 당나라 군사마저 물리치고 난 후로 보인다.

이 시기 적천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없는데, 경덕왕 16년(757)에 이르러 적천이 단천(丹川)으로 개명되었고, 전주 진례현의 속현이 되었다. 그 때 무산이 속했던 감문군은 개녕군(開寧郡)으로 개명되었고, 동시에 무산현이 무풍현으로 바뀌면서 상주(尙州)에 속하게 되었다.

---

5) … 茂豊縣 本茂山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三國史記≫ 卷第34(雜誌 第3) 地理誌 開寧郡條.

6) ≪東國與地勝覽≫茂朱條 참조.

7) 박노석, <고대사회의 무주>, ≪무주군지≫(상), 무주군지편찬위원회, 2003, 194쪽.

고려 왕건 23년(940)에 이르러 주·군·현(州郡縣)의 지명을 개정하면서[8] 진례현에 속한 단천현의 이름이 주계현(朱溪縣)으로 개명되었다. 반면에 개녕군에 속한 무풍현의 지명은 그대로 사용되었다. 성종 14년(995)에 지방제도를 개편했는데, 이 때에 이르러 주계와 무풍은 처음으로 같은 행정 구역인 강남도(江南道) 남원부(南原府) 진례현의 속현으로 편제되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각기 다른 현이었다. 현종 9년(1018)에 이르러 주계와 무풍은 전라도에 속하게 되었으며, 명종 2년(1172) 감무제(監務制)[9]를 실시하면서 주계와 무풍 2개의 현을 1인의 감무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였다. 그 당시 무풍의 감무가 주계까지 관할하였는데, 공양왕 3년(1391)까지 같은 행정체제에 병합(倂合)되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태종은 1414년 전국을 8도제로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을 하였다. 그 때 앞서 언급한대로 '무주(茂朱)'라는 새로운 지명이 탄생되었고, 이 때에 이르러 비로소 무주라는 단일 행정구역으로 편제되었다.

그 후 광해군 6년(1614), 본 군의 적상산에 사고(史庫)가 설치되어 평안도 묘향산(妙香山)에 있던 ≪조선왕조실록≫이 이안(移安)된 뒤, 인조 19년(1641)에는 선원각(璿源閣)이 건립되어 완전한 사고지(史庫地)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현종 15년(1674) 2월 무주현이 무주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었다. 그 때 금산군에 속하던 안성과 구천동·덕지리 지역이었던 횡천이 본군에 편입되었다.

고종 32년(1895) 지방관제를 개편하여 23부(府) 331군(郡을) 두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무주도호부가 폐지되고 '무주군'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시기에 잠시 전라도 남원부에 속했으나, 이듬해인 고종 33년(1896) 전라도가 남(南)·북(北)도로 나뉘게 되면서

---

8) … 春三月 以慶州 爲大都督府 改諸州郡號(≪高麗史節要≫ 卷之一 太祖神聖大王 庚子 二十三年)

9) 고려 전기 지방제도는 현종 때 일단락되었으나, 실제로는 수령을 파견하지 못한 속군현(屬郡縣)이 많이 존재하였다. 이에 1106년(예종 1) 중앙에서 정식으로 관리를 설치하지 못했던 속군현과 향(鄕)·소(所)·부곡(部曲)·장(莊)·처(處) 등에 감무를 파견하였다. 설치 목적은 주현[主縣 : 통상 지방관이 파견된 곳은 주현(主縣 : 主邑),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은 속현(屬縣 : 屬邑)이라 하였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속군현의 유망민을 안정시켜 조세와 역을 효과적으로 수취하면서 중앙집권책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감무는 과거급제자를 파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문종 때 7품 이상인 현령보다 한 품계 낮게 하였다. 그 뒤 1353년(공민왕 2) 경관(京官) 7품 이하로 삼았다가 1359년 현령과 함께 안집별감(安集別監)으로 고쳤으며, 창왕 때 다시 현령 감무로 바꾸면서 5~6품으로 하였다. 1413년(태종 13) 군현제를 정비하면서 현감으로 개칭하였다.

전라북도 전주부 무주군(全羅北道 全州府 茂朱郡)으로 개편되었다.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로 우리나라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었고, 일제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 때까지 본군에서 관할하던 12개 면(面)[10]과 금산군에 속하던 부남면(富南面)을 본군에 편입시킨 뒤 통폐합하고 6개 면으로 개편하였는데, 행정지명은 전라북도 무주군 이었다.

그 후 해방과 한국전쟁 등을 겪으면서도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그런데 1963년 5월 '면출장소설치' 조례가 공포되면서 동년 6월 적상면(赤裳面) 상곡출장소(裳谷出張所)와 설천면(雪川面) 구천출장소(九千出張所)가 개소되었다. 1975년 4월에는 부남면(富南面) 가정출장소(柯亭出張所)가 설치되었다. 1979년 5월 1일에는 전국의 군청 소재지의 면이 읍(邑)으로 승격됨에 따라 종전의 무주면이 무주읍으로 승격되었다. 그 당시 무주군의 행정구역은 1읍, 5면, 3출장소, 48里였다. 그러나 1998년 11월, 출장소가 폐지되어 2003년 8월 현재 본 군의 행정구역은 1읍 5면이다.

제2절 행정지명과 자연지명의 변천

1. 조선시대

무주군의 행정구역을 면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무주부읍지(茂朱府邑誌)'[11]이다. 그 당시 무주군의 행정구역은 동쪽에 신동면(新東面)·풍동면(豊東面)·풍남면(豊南面)·풍서면(豊西面)·횡천면(橫川面) 등 5개 면이 있었고, 남쪽에는 상곡면(裳谷面)·유가면(柳加面)·이안면(二安面)·일안면(一安面) 등 4개 면, 그리고 서쪽에는 서북면(西北面)이 있었으며, 무주군 관내 중앙에 읍내면(邑內面)이 있어 총 11개 면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그 당시 총호수는 5,405호이었으며 남자 7,309명, 여자 5,886명으로 모두 13,195명이었다.[12] 그러나 아쉽게도 자연마을 단위의 지

10)부내(府內)·신풍(新豊)·풍서(豊西)·풍동(豊東)·풍남(豊南)·횡천(橫川)·상곡(裳谷)·유가(柳加)·이안(二安)·일안(一安)·서(西)·북(北). [≪적성지≫(天), 33쪽]

11)영조 35년(1759) '을묘장적(乙卯帳籍)'을 기초로 하여 편찬되었다.

12)김경석 편저, 향토사료 제5집≪茂朱誌≫, 무주문화원, 2001, 115~117쪽.

명 이나 인구 분포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표1-1]과 같다.

[표1-1]

구분		가구수	인구수			비고	구분		가구수	인구수			비고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신동	333	450	364	814	70리		상곡	499	831	642	1,473	30리
	풍동	358	350	390	840	70리		유가	612	721	615	1,336	40리
동	풍남	393	602	479	1,081	70리	남	이안	536	699	603	1,302	40리
	풍서	328	526	298	824	40리		일안	602	805	803	1,608	50리
	횡천	421	508	416	924	70리							
서	서북	439	630	532	1,162	10리	중앙	부내	884	1,087	724	1,811	
							계	11	5,405	7,309	5,886	13,195	

그 후 고종 35년(1898) 간행된 ≪적성지(赤城誌)≫에 의하면, 무주군은 3개 군[13] 6개 현[14]에 접하고, 종전의 서북면(西北面)이 서면과 북면으로 분리되어 모두 12개 면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124개의 행정리(里)와 전체 3,957호에 남자 8,812명과 여자 6,540명 총 15,352명이었다. 1759년과 비교해 볼 때, 전체 호수는 1,448호가 감소된 반면에, 전체 인구는 2,157명이 증가하였다. 이 때의 기록을 구체적으로 보면 [표 1-2]와 같다.[15]

이 때의 이르러 행정 구역상 면 아래로 오늘날 행정리에 해당하는 리 단위의 명칭이 나오지만, 면과 리에 대한 구체적인 형성시기나 변천과정, 그리고 자연마을 단위의 명칭이나 그 유래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간혹 마을의 형성 등에 관해서 인물을 기록할 때 언급되는 사례가 있지만, 이 역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

13)거창군, 금산군, 옥천군.
14)지례·안의·장수·용담·영동·황간현.
15)김경석 편저, 국역 ≪적성지≫(天), 무주문화원, 2001, 31~33쪽.

[표 1-2]

구 분			가구수	인 구 수			비 고
				남자	여자	계	
동	신풍면	상장·하장·기곡·신촌·지전·하엽·청량·비례·무주목·진평	221	564	428	992	관아에서 70리
	풍동면	원촌·서동·거문평·응방·지동·부등·지산·금척·탄방·마곡·계당·부평	254	800	620	1,420	관아에서 70리
	풍남면	철목·석항·사동·증산·속동·은고·한치·오산·지경	291	928	684	1,612	관아에서 70리
	풍서면	설천·나니·불대·북동·이남·덕곡·미천	237	538	419	957	관아에서 40리
	횡천면	상두·하두·벌한·와석·심곡·마전·배방·월곡·삼공·오정동·덕동	274	538	373	911	관아에서 70리
서	서면	대촌·용포·가옥·주동·소이진·잠두	249	439	330	769	관아에서 10리
	북면	후도·신의곡·내동·굴천	91	191	169	360	
	상곡면	초리·북창·포내·중리·괴목정·치목·상조·하조·마산·사교·사전·구교	431	733	651	1,384	관아에서 30리
	유가면	길왕·내사·외사·용담가·여울리·상가·중가·하가·이동·유등원·상류·하류·성지·오동·진원리·훌리·도치	560	1,230	875	2,105	관아에서 40리
남	이안면	구항·죽전·이목리·이화동·하산·중산·상산·정천·수락·덕곡·궁대·두문·안기·도촌	394	733	549	1,282	관아에서 40리
	일안면	내외신당·용추·장내·사탄·통안·봉산·비아·무수·명천·갈마·평장·죽장·공진동·마암·주고·신월	486	914	695	1,609	관아에서 50리
중앙	부내면	오산·왕정·당산·차산·율속동·유속동	469	1,020	756	1,776	
계	12	124	3,957	8,812	6,540	15,352	

※ 신풍면은 이전의 신동면

2. 일제 강점기

1910년 조선을 강제로 병탄(倂呑)한 일제는 그들이 원하는 식민통치를 위해 동년 9월 30일 '조선총독부지방관제'(칙령 제357호)를 공포하였다. 이에 따르면, 도의 하부행정구역으로 부·군·면을 재확인하였는데, 면에는 판임관(判任官) 대우의 면장을 두도록 규정하였다. 동년 10월 1일에는 '부·군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제7호를 공포하였다. 그 당시 지방행정구역은 13도 12부 317군 4,322면이었다.

이와 함께 '면에 관한 규정'이 제8호로 공포되었다. 이 때까지 우리나라 지방행정제도에서 보면, 면에는 지방관이 배치되지 않았다. 대신 면 단위 규모의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관의 일정한 통제를 받는 면임 등이 존재했었다.

일제는 1913년 10월 부제(府制)를 공포하고 다음해인 1914년 3월과 4월에 걸쳐 부·군·면을 통폐합하는 등 행정구역 개편을 시행하였다. 그 당시 무주군에는 금산군의 부남면 5개 리와 부동면의 전도리가 편입되었고, 종전의 12개 면과 통폐합되어 6개 면으로 개편되었다. 그 후 1917년 6월에 공포된 면제(面制)와 동시행규칙이 동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제 강점기하의 지방제도가 확립되었다.

1914년 당시 개편된 무주군 행정구역과 명칭은 [표 1-3]과 같다.[16)]

[표1-3]

개편후	개편전	동·리(개편전)	리(개편 후)
무주면 (무주읍)	부내면	오산, 왕정, 당산, 율곡동, 유속동	읍내리, 당산리, 오산리
	신풍면	상장, 하장	장백리
	서면	대촌, 용포, 가옥, 주동, 소이진, 잠두	대차리, 용포리, 가옥리
	북면	후도, 산의곡, 내동, 굴천	
	(금산군) 부동면	전도	내도리
무풍면	풍동면	원촌, 거문평, 고도, 응방, 지동, 조동, 부등, 지산, 금척, 탄방, 마곡, 계당, 부평	현내리, 지성리, 금평리
	풍남면	철목, 석항, 사동, 증산, 속동, 은고, 한치, 오산	철목리, 증산리, 은산리
	횡천면	오정동, 덕동	거리, 덕지리
설천면	신풍면	기곡, 신촌, 지전, 하엽, 청량, 비례, 무주목, 진평	기곡리, 길산리, 청량리
	풍서면	설천(소천), 나리, 불대, 북동, 이남, 덕곡, 미천	소천리, 대불리, 장덕리, 미천리
	횡천면	상두, 하두, 벌한, 와석, 심곡, 마전, 배방, 월곡, 삼공	두길리, 심곡리, 삼공리
적상면	상곡면	초리, 북창, 포내, 중리, 괴목정, 치목, 상조, 하조, 마산	북창리, 포내리, 괴목리
	유가면	길왕, 내사, 외사, 용담가, 여울, 상가, 중가, 하가, 이동, 유등원, 상류, 하류, 성지	사천리, 사산리, 삼가리, 삼유리, 방이리
	이안면	구항, 죽전, 이목리, 이화동, 하산, 중산, 상산, 정산, 수락, 덕곡, 궁대, 두문, 안기, 도촌	장기리, 덕산리, 금평리
안성면	일안면	내외신당, 용추, 장내, 사탄, 통안, 봉산, 비아, 무수, 명천, 갈마, 평장, 죽장, 공진, 마암, 주고, 신월	공정리, 항진리, 죽천리
	유가면	오동, 진원, 홀리, 도치	진도리
	상곡면	사교, 사전, 구교	사전리
부남면	금산군 (부동면)	평당, 대치, 대소, 도소, 대곡	굴암리, 가당리, 대유리, 대소리, 고창리, 장안리
6개 面	14개 면	129개 리	48개 里

16)무주군지편찬위원회, ≪무주군지≫, 무주군, 1990, 451～452쪽.

3. 1945년 이후

1914년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한 지방행정제도 개편 이후 무주군은 6개면 48리(里)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여타 지방자치단체가 변화를 겪은 반면, 무주군은 현재까지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편이다.

다만, 무주군이 평지와 달리 산악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과거의 행정과는 달리 주민 편의의 행정을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961년 9월 1일자 법률 제707호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공포에따라 동년 10월 1일 군 단위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1963년 5월 1일 무주군 조례 제43조 면 출장소 설치 조례가 공포되었고 동년 6월 12일 적상면 상곡출장소, 동년 6월 18일 설천면 구천동 출장소가 개소되었다. 그리고 1975년 2월 20일 동조례 제377호 면출장소 개정조례가 공포되어 동년 4월 1일 부남면 가정출장소가 설치되었다.[17)]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13호의 단서 규정이 공포되기 전에는 인구 2만 이상이 되어야만 읍으로 승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공포·시행되면서 군청 소재지의 면이 읍으로 승격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9년 5월 1일 대통령령 제9409호가 시행되어 무주면이 무주읍으로 승격되었다. 그리하여 무주군의 행정구역은 1998년까지 1읍, 5면, 3출장소, 48리로 구획되었다.

반면, 행정분리(行政分里)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다. 1957년에 발간된 김철수저 ≪적성지≫(人)에 따르면, 무주면 22리, 무풍면 14리, 설천면 17리, 적상면 12리, 안성면 17리, 부남면 15리 등 모두 97개의 분리로 나눈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1961년 10월 1일 제정 공포된 무주군 조례 제2호 무주군 이장정원조례(里長定員條例)에 의하면, 무주군의 행정분리는 106리로 늘어났다. 이 때부터 말단 행정 수요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행정분리의 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되었다. 1972년 136리, 1981년 147리, 1986년 148리, 1989년 149리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4년 12월 26일 장수군 계북면 일부가 무주군에 편입되고, 무주군 안성면 일부가 장수군에 편입되는 행정구역 조정이 있었다. 이후 행정구역은 고착상태에 이르면서 2003년 8월 현재 48개의 법정리에 149개 행정리, 그리고 515개 반에 267개 자연마을이 있다.

1957년 이후 2003년까지 읍·면별 행정구역 변천은 [표 1-4]와 같다.(읍·면은 2003년 8월 현재 통계임)

---

17)3곳의 출장소는 1998년 폐지되었다.

[표 1-4]

읍면별	면적(㎢)	읍	면	출장소	법정리	행정리	마을	반	비고
				2					적성지(인)1957년
1957	629.15		6	3	48	97	189	629	군조례 제2호(61. 10. 1)
1961	629.15		6	3	48	106	206	559	군조례 제284호(92. 1. 4)
1972	624.83		6	3	48	136	239	559	군조례 제640호(81. 1.
1981	642.40		5	3	48	147	239	460	24)
1988	642.09	1	5	3	48	148	267	516	군조례 제957호(86. 4.
1989	642.16	1	5	3	48	149	267	515	12)
1994	631.89	1	5	3	48	149	267	515	제35회 무주군 통계연보
1998	631.76	1	5		48	149	267	515	제35회 무주군 통계연보
1999	631.76	1	5		48	149	267	515	제41회 무주군 통계연보
		1							제42회 무주군 통계연보
2003	631.68	1	5	0	48	149	267	515	
무주읍	79.42	1			8	30	34	152	
무풍면	91.23		1		8	17	43	55	
설천면	157.88		1		10	25	52	75	
적상면	135.90		1		8	25	54	75	
안성면	97.27		1		8	36	61	115	
부남면	69.98		1		6	16	23	43	

4. 현재의 행정분리와 지명

2003년 9월 현재 읍·면과 법정리·행정리·자연마을을 읍·면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무주읍 (2003년도 무주군 통계자료)

법정리	행정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행정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행정분리	자연마을
읍내	사정 교동 다양 한수 향산 운교 남천 죽산 대교	상리 " 북리 " " 중리 " 하리 "	내도	산의 내동 굴천 후도 전도	산의 지내 내동 거리대 굴천 아랫담 웃담 전도	용포	공정 추동 요대 잠두	원용포 공정 추동 늘목 외요대 내요대 잠두
당산	당산 유속	원당산 내유속 외유속	장백	상장백 하장백	상장백 하장백	가옥	평촌 가림 주동	평촌 가림 산지촌 주도
오산	오산 왕정 율속	원오산 왕정 율속	대차	서면 차산	서면 오리골 차산			

□ 무풍면 (2003년도 무주군 통계자료)

법정리	행정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행정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행정분리	자연마을
현내	원평	원평	금평	금척	금척	덕지	하덕	안실
		문평			백학			덕동
	고도	두평			탄방			내갈
		고도		마곡	마곡		상덕	외갈
		신촌			덕평			북수
		지동		계부	계당			부흥
	상하	상하리			부평			도마
	북리	북리						
지성	지일	서동	철목	철목	원철목	증산	미향	서항
		부동			신기			원증산
		지산			온월			
	율오	율평			우평		사동	사동
		오동			묘암			
은산	은일	속동	삼거	삼거	원삼거			
		온고			상오정			
	오방	한치			독가촌			
		오산						
		방곡						

□ 설천면 (2003년도 무주군 통계자료)

법정리	행정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행정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행정분리	자연마을
청량	원청	원청량	소천	내양지	양지	두길	하두	하두
		무항			하그동		신두	신동
	남청	하엽		외양지	양지			양지담
		비례			제궁			정착지
	진평	진평		하평지	평지		구산	구산
		온평		상평지	평지			방재
					나림			벌한
				이남	이남		월현	월현
					신촌			와석
					이미			마전
심곡	심곡	원심곡	길산	신길	하길산	대불	외북	외북
		대평			정착지			내북
	배방	외배방			신계		내북	중현
		내배방		상길	지전			불대
	관서	관동						
		만선						
		듬방						
기곡	기곡	원기곡	미천	미천	하미	장덕	장덕	수한
		문암			장자동			장영
					중미			
삼공	보안	보안						
	삼공	원삼공						
	덕유	월곡						
		인월담						

☐ 적상면 (2003년도 무주군 통계자료)

법정리	행정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행정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행정분리	자연마을
사산	마산	내동 평촌 양지촌 대촌 독가촌	삼유	하유	하비 상비 박대 성도 도유	삼가	하가	정착농원 하가
	사내	내사내 외사내 상사내 용담거리		성도 중유 사유	성도 평촌 신촌 상유		중가 상가	내동 외동 대촌 중촌 상촌
북창	내창	내창 외창	포내	개안	개안 옥소	괴목	치목	주막동 원괴목 하치목 상치목
	초리	자하동 초리 운평		중리	하중리 중중리 상중리		하조 상조	하조 상조
사천	구억 성내 신대	구억 낙안 내서창 외서창 신대	방이	고방 이동	고방 본동 거문동 내동 임수동			
	길왕	길왕						

☐ 부남면 (2003년도 무주군 통계자료)

법정리	행정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행정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행정분리	자연마을
굴암	율소	율소 조항	대유	대티 유동	대티 유동 봉길	장안	식암	시목 식암
	상굴암 하굴암	상굴암 하굴암 신대					교동 장안 상대	교동 당곡 장안 상대곡
가당	가당 하평당 상평당	가정 하평당 상평당	대소	대소 도소 유평	대소 도소 유평	고창	고창	고창 건너들 방곡

□ 안성면 (2003년도 무주군 통계연보)

법정리	행정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행정분리	자연마을	법정리	행정분리	자연마을
장기	신촌	신촌	공정	통안	통안	사전	사교	사교
	시장	시장		용추	용추			모종안
		비들목			대섶피			신기
	하이목	하이목		사탄	사탄		사전	상촌
	상이목	상이목		장내	장내			양촌
		홍문안		내당	내당			평촌
		하부대		외당	돈당			동촌
	중산	중산			외당		하산	교동
		골곡		봉산	봉산			대정내
								효자촌
공진	공진	공진	덕산	덕곡	덕곡	진도	도치	도치
		신촌		수락	수락			효자촌
	주고	주고		정천	정천		진원	신촌
		신월		상산	상산			회호
		보안촌						별묘
	마암	마암					오천	산촌
							오동	오천
								상오동
								하오동
								장항
								산촌
죽천	명천	음촌	금평	금평	금평			
		양촌		궁대	궁대			
	신무	신평		두문	두문			
		신무		안기	안기			
	갈마	갈마		도촌	도촌			
	죽장	죽장						
	평장	평장						

［집필 : 최범호］

제2장 읍·면 마을사

제1절 무주읍

1. 개요

무주읍은 옛적에 마한에 속했으며 후에 백제의 적천현(赤川縣), 통일신라 경덕왕 때에는 단천현(丹川縣), 고려 때에는 주계현(朱溪縣)에 속하였다. 조선 태종 14년(1414), 무풍현과 통합되어 '무주현(茂朱縣)'이 되었고, 치소(治所)가 주계성에 설치됨으로 무주현의 중심지가 되었다.

현종 15년(1674) 적상산성 사고(史庫)와 관련하여 무주현이 무주도호부(茂朱都護府)로 승격되는데, 무주읍은 관아(官衙)가 설치된 지방행정의 중심지였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 이전까지 무주읍에 해당하는 지역은 부내면(府內面),[1] 북면(北面),[2] 서면(西面),[3] 신풍면(新豊面)[4] 등이었다.

1914년 지방제도 개편이 단행되었다. 그 때 자하동(紫霞洞)을 적상면(赤裳面)에 넘겨주는 동시에 부내면의 7개 동리,[5] 서면의 6개 동리[6]와 북면의 4개 동리,[7] 그리고 신풍면(新豊面)의 2개 동리,[8] 금산군(錦山郡) 부동면(富東面)의 금회(錦零)를 병합하여 8개 리[9]로 개편하고 무주군 무주면(茂朱面)이라 하였다. 그 후 1979년 5월, 대통령령

---

1) 현재의 읍내리·오산리·대차리의 다산 등으로 상리, 남리, 북리, 중리, 하리, 차산리, 당산리, 오산리, 왕정리, 율속동, 유속동.
2) 앞섬을 제외한 내도리 일대로 후도리, 내동, 산의곡리, 굴천리.
3) 차산을 제외한 대차리·용포리·가옥리 등으로 대촌, 추동, 잠두리, 용포동, 소이진, 가옥리, 주동, 가림동.
4) 장백리의 하장리, 상장리.
5) 부내(府內), 오산(鰲山山), 왕정(旺亭), 당산(堂山), 차산(車山), 율속동(栗俗洞), 유속동(柳屬洞).
6) 대촌(大村), 용포(龍浦), 소이진(召爾津), 잠두(蠶頭), 가옥(加玉), 주동(珠洞).
7) 내동(內洞), 산의곡(山義谷), 굴천(屈川), 후도(後島).
8) 상장(上長), 하장(下長).
9) 읍내(邑內), 당산(堂山), 대차(大車), 용포(龍浦), 가옥(佳玉), 내도(內島), 오산(吾山), 장백(長白).

제94호에 의해 전국의 군청소재지가 있는 면(面)이 읍(邑)으로 승격되면서 무주읍(茂朱邑)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3년 현재, 무주읍의 행정구역은 8개 법정리(法定里),[10] 행정상 30개 리, 152개 반(班), 34개 자연마을으로 구획되어 있다.

2. 무주읍 가옥리(佳玉里)

무주읍의 최남단에 위치한 가옥리는 본래 서면에 속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가림(佳林)·가옥(加玉)·주동(珠洞)이 병합되어 가림(가림·산지촌)·주동·평촌을 행정리로 한 법정리가 되었다.

그 후 가옥리는 가옥1리[평촌·주동]와 가옥2리[가림]로 나뉘었는데, 1961년 평촌이 가옥1리로, 주동이 가옥2리로 분리되면서 가림이 가옥3리로 조정되었고, 1972년 이후에는 평촌, 주동, 가림 등의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가옥이라는 지명은 옛적에 '가랑개골'로 불리던 가림동의 '가'와 더옥골이던 가옥의 '옥'를 따서 만들었다고 한다.

가옥리의 동북은 당산리와 인접하고, 남쪽은 시루봉을 경계로 적상면과 면계(面界)를 이룬다. 북서쪽은 마향산(馬香山)을 깃점으로 용포리(龍浦里)와 인접하며, 읍내에서 충남 금산과 전북 남원방향으로 갈리는 삼거리가 위치하고 있다.

가림(佳林)마을

가옥동 남쪽에 있는 마을로 본래 '가랑개골'로 불리었는데 숲이 울창하고 아름다운 곳이라 하여 '가림동'이라 했다고 한다.

동네어귀에 '주막담'과 '산지촌(山芝村)' 등의 자연마을이 자리하고 있는데, 산지촌(山芝村)은 더욱골 남쪽에 있는 마을로 향로봉 밑에 있으며, 지초(芝草)가 많았다고 한다. 주막거리 또는 주막담은 삼거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옛적에는 주막이 있었다고 한다.

---

10)읍내, 당산, 오산, 장백, 내도, 대차, 용포, 가옥.

주동(珠洞)마을

본래 '사직골' 또는 '사자골(獅子谷)'로 불리웠다. 마을의 뒷산 무월봉(舞月峰)이 마치 사자의 머리와 같이 생겼다 하여 '사자골'로 불렀다고 하는데, 무월봉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린 골짜기에 자리잡은 마을이 사자꼬리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사직골'로 불렀다고도 한다.

그런데, 마을 서쪽에 우뚝 솟아있는 마향산(馬香山)에서 흘러내린 능선이 마을을 좌우로 싸 안고 있어 마치 조개 속의 진주와 같은 형세를 이루고 있다 하여 '주동'이라 개칭하였다고 한다.

평촌(平村)마을

옛적에는 '더옥골'로 불리던 마을로 옥(玉)이 겹쳐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가옥'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기도 했으나, 따뜻하고 평평한 곳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더우골'로 부르다가 평촌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1961년 주동마을과 분리되었고, 1972년 리의 명칭이 자연마을 명칭으로 바뀌게 되어 평촌마을 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 외에 가옥동 동쪽에 1955년 정부 보조로 정착 농원을 이룬 가옥 농원이 있고, 가옥동 북쪽에 있는 마을로 무주에서 장수와 충남 금산으로 갈리는 세 갈래 길목이 되는 삼거리(三巨里), 산지촌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새터'를 가리키는 신기(新基)가 있다.

3. 무주읍 내도리(內島里)

내도(內島)는 내륙(內陸)속의 섬이라는 뜻으로, 금강천이 마을을 휘어 감고 돌아 나감으로써 마치 섬같이 보인다 해서 붙인 지명이다.

조선시대에는 무주군 북면(北面)지역으로 무주군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금강 상류를 끼고 있다. 이 지역에 속하는 전도(前島·앞섬)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금산군 부동면(富東面)에 속했던 금회(錦零)마을이었다. 반면에 전도마을의 뒤편인 북쪽의 금강천 건너에 위치한 후도(後島·뒷섬)마을과 산의(山義)마을 등은 무주부 북면에 속한 마을이었다. 그런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모두가 무주군 무주면에 편제되면서 내도리(內島里)에 포함되었다.

1914년 이후 내도1리[11]와 내도2리,[12] 그리고 내도3리[13] 등으로 나뉘었으며, 1972년 이후에는 산의(산의실·방죽안), 내동(內洞·안골), 굴천(屈川), 후도(뒷섬), 전도(앞섬) 등의 5개 분리로 조정되었다.

내도리 동쪽은 충북 영동군과 도계(道界)를 이루고, 남쪽은 앞섬 앞으로 흐르는 금강을 사이에 두고 읍내리와 인접하며, 서쪽은 충남 금산군과 도계를 이룬다. 또한 북쪽의 성주산(城主山)을 깃점으로 남쪽으로 뻗어 내린 삼도봉(三道峰)은 충북 영동군 학산면, 충남 금산군 부리면, 그리고 전북 무주군이 서로 만나 삼도(三道)가 경계를 이룬다.

굴천(屈川)마을

산의실 서남쪽에 있으며, '굴천'은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산의 계곡에 있는 암굴(岩窟)에서 흐르는 물(川)이 마르지 않고 개울을 이룬다 하여 지어진 지명이다.

조선시대에는 개울이 동네 가운데로 흘렀는데, 동쪽은 무주, 서쪽은 금산으로 갈라져 무주 굴천과 금산 굴천으로 불리웠다고 한다.[14] 조선후기 무주 굴천으로 통합해 부르고 있는데, 지금은 안굴천과 바깥굴천 으로 나뉜다.

내동(內洞)마을

산의실(山義谷)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동네라 하여 '안골'로 불리어 온 데서 연유한 내동마을은 일대의 골짜기에서는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본래 서북면 또는 북면에 속했던 마을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면에 속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안골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삼거리가 되는 거리대(巨里垈)와 거리대 동쪽에 새로 생긴 새터(新基)마을이 있다.

---

11)산의실(산의곡리)·방죽안·굴천·안골(內洞).
12)뒷섬(後島).
13)앞섬(前島).
14)마을 유래비(초안).

산의실[山義谷]마을

안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무주군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충남·북과 인접, 3도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서북면 또는 북면에 속한 마을이었는데, 1914년 이후 방죽안·굴천·안골 등과 함께 내도1리에 편제되었고, 1972년 자연마을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서 내동·굴천과 분리되고 방죽안과 함께 산의마을로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마한(馬韓) 때부터 전해오는 민속행사 중 솟대, 즉 짐대를 세워놓고 매년 정초에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동제(洞祭)를 올리고 있다. 마을의 서북쪽 산에 있는 노고성(老姑城)은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나간 자식들의 무운(武運)을 기원하기 위해 늙은 어머니들이 치마폭으로 돌을 날라 단(壇)을 쌓았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예전에는 김씨와 조씨가 산전의 잡곡을 증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산의실 동북쪽에 가뭄을 막기 위해 못을 팠는데, 그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방죽안(池內里)마을이 있다.

전도(前島)마을(앞섬·內島·錦零里)

본래 금산군 부동면에 속했던 '금회(錦零)'마을로 내도리 중 대표적인 섬마을이다. 금산군 방우리에서 흘러 들어온 금강의 물줄기가 마을을 휘어감고 돌아나간다 하여 금회라 불렀으며, 동네의 모양이 마치 섬과 같다고 하여 육지 속의 섬이라는 뜻으로 내도리(內島里)라는 지명을 붙였다.

곡류하는 강변을 따라 늘어선 기암절벽이 아름답기 그지없으며, 강변을 따라 펼쳐진 금모래밭과 조약돌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다고 한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금강상류 어름치의 서식지로 유명하며, 1976년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나룻배가 전복되어 통학생 18명의 인명을 앗아간 비극의 현장이기도 하다. 나룻배 전복 참사 후 통학의 다리로 내도교(內島橋)가 옛 선착장 부근에 건설되어 읍내까지 차량의 통행이 가능해졌고 또한 뒷섬으로 건너가는 후도교(後島橋)가 질마바위 쪽으로 가설되었다.[15] 마을에는 1973년 개교된 무주초등학교 전도분교장이 있었으나 1991년 폐교되었다.

---

15)2002년 내도교와 후도교 모두 새로운 공법을 사용한 교량으로 대체되었다.

후도(後島. 뒷섬)마을

후도는 뒤에 있는 섬이라는 뜻으로 본래 '뒷섬'으로 불리웠다. 마을 앞으로 흐르는 강 건너에 앞섬마을이 있기에 뒷섬, 즉 후도라는 지명을 붙였다. 한 때 내도2리로 편제되기도 했으나, 1972년 이후 후도마을로 불리우고 있다. 마을은 아랫담과 웃담(벌땀)으로 나뉘어 있다.

4. 무주읍 당산리(堂山里)

읍내리의 남대천 건너 남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당산리는 조선시대에는 부내면에 속했다. 옛적부터 화산(華山)으로 불리웠는데, 동네를 에워싸며 서쪽으로 뻗어 내린 남산의 서쪽 끝에 당미산(堂尾山)으로 부르는 당뫼(堂山)가 있어 당산리로 지명을 삼았다고 한다.

현재의 당미산은 본래 당뫼, 즉 당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당묘(堂廟) 즉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는 산이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데, 후에 발음이 변하여 당미산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산 위에는 옛날의 건물지로 보이는 유구(遺構)가 남아있고, ≪적성지(赤城誌)≫의 '무주관아도(茂朱官附圖)'에는 산왕당(山王堂)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보아 당산이라는 지명도 당뫼나 당묘에서 연유된 것으로 여겨진다.

옛적에는 적상산사고를 찾는 중앙의 관료들이 읍내의 남교(南橋)를 건너고 이 곳을 거쳐서 오르는 길목이었기에 '건너마을'이라고도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유속동과 당산을 병합하여 무주면 당산리라 하였고, 그 후 당산1리[16]와 당산2리[17]로 리명(里名)을 붙였는데, 1972년 자연마을 이름을 붙이면서 당산과 유속 등의 마을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당산(堂山)마을[元堂山·건네(너)마을]

남대천(南大川) 건너 마을로 옛적부터 '건너마을'로 불렸던 원당산마을이다. 본래 이름은 '화산(華山)'인데, 한 때는 '오류촌(五柳村)' 또는 '오류정(五柳亭)'으로 불리웠다.

16)원당산.
17)상유속(上柳屬)·외유속·내유속.

오류촌이라는 지명은 조선 선조 때의 무신(武臣) 장의현(張義賢) 장군이 이 곳에 머물러 살면서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고 본인의 호를 오류정(五柳亭)이라 지은 데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마을 동구에는 아름드리 버드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 '숲거리'라 부른다. 또한 지금의 '버드속골', 즉 유속(柳屬)마을도 오류촌에 속했던 마을이라는 데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진다.

적상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마을의 북쪽으로 흘러 '압수골'과 '모수골'을 이루고 남대천으로 유입되어 흐르면서 옛적에 삼농사를 경작하던 '마(麻)들'과 '성밑들(城底坪)'을 이룬다. 또한 남대천변을 따라 광활하게 펼쳐진 벙구들이 강선대에 닿는다.

조선시대 동헌(東軒) 앞 냇가에 위치하던 한풍루(寒風樓)가 우여곡절 끝에 1971년 이 지역으로 옮겨졌으며, 그 옆에는 공설운동장과 지남공원이 있고, 2002년 11월 준공된 무주예체문화관 등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한풍루 어울터 공원이 조성되는 등 무주군민의 문화예술체육의 중심지이면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동네 어귀 숲거리에는 효자 유경제(柳景堤)와 열녀 창녕성씨(昌寧成氏) 정려각(旌閭閣)이 있고, 마을 동편 언덕 위에는 농업기술센터와 2002년 신축하여 이전한 무주경찰서가 위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너마을 냇가 부근에 있는 갱변땀, 건너마을 골짜기 부분이 되는 골땀, 건너마을 옆에 있는 큰 마을인 큰땀 등이 있다.

유속(柳屬)마을

본래 '버드속골'이라 불리웠는데, '버드나무골'에 딸린 마을이라는 뜻이다. 당산 동쪽에 있는 마을로 유씨들의 마을이었다고도 한다. 당산마을의 옛 이름이 오류촌이라 불리웠을 때, 오류촌에 속한 마을이이라는 뜻에서 유속동으로 불리웠는데, 윗버드속골(上柳屬)과 바깥버드속골(外柳屬), 안버드속골(內柳屬) 등 3개의 자연마을로 나누어져 있다.[18)]

한편 우림수골(牛鳴洞)은 당산 남쪽에 있는 마을인데, 전에 소를 놓아 기르던 골짜기라 하며 와우형(臥牛形)이라고도 한다.

---

18)2002년 내도교와 후도교 모두 새로운 공법을 사용한 교량으로 대체되었다.

5. 무주읍 대차리(大車里)

대차리는 읍내리의 서쪽에 위치한 옛 주계고성지(朱溪古城址)인 성안에서부터 금강 천변까지 이어지는 곳으로 조선시대 서면소재지였던 대촌(大村)과 부내면에 속했던 차산(車山)마을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합해진 법정리이다. 이에 따라 지명도 대촌의 '대(大)'와 차산의 '차(車)'자를 따서 대차리라 하였다.

그 후 대차1리와 대차2리로 나누고 차산(車山)마을은 차산(茶山)으로 개칭하면서 대차3리로 하였다. 그런데 1961년 대차1리와 2리를 합해 대차1리로 하고, 차산마을을 대차2리로 다시 조정하였다가 1972년 대차1리인 종전의 대차마을을 '서면'마을로 개칭하고, 대차2리는 옛 지명인 '차산'마을이라 하였다.

대차리는 동으로 성안에서 읍내리와 인접하고 남쪽으로는 남대천을 사이에 두고 용포리와 인접하며, 서쪽과 북쪽은 금강을 경계로 충남 금산군과 도계를 이룬다.

서면(西面·大村)마을

대차리 서쪽 금강가에 자리한 강변마을로 옛적부터 '서호(西湖)'라 불리웠는데, 단일 마을로 인근에서 가장 큰 마을이라 하여 '대촌(大村)'이라 불리웠다. 본래 무주부 서면의 소재지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면에 편입되면서 종전 부내면의 차산과 함께 대차리에 편제되었다.

그 후 대차1리로 구획되었는데, 1972년 행정분리의 명칭을 자연마을 명칭으로 바꾸면서 서면이라 했다. 서면은 본래 무주부 시절 면의 명칭이고, 그 당시 서면의 소재지였다 하여 '서면'을 지명으로 삼았다고 한다.

마을에는 옛적에 선비들이 소요하던 집승정(集勝亭), 돈세정(遁世亭), 비암정(秘巖亭) 등의 정각이 있고, 무주부에서 금산으로 가는 대로와 연결되는 소이진(召爾津) 나루가 있었으며, 나루에 따른 소이원(召爾院)이 있었고, 망풍루(望風樓) 등의 명소가 있었던 유서 깊은 고장이다.

일제 강점기 때 무주에서 금산으로 가는 신작로가 이 곳을 중심으로 개설되었는데, 용포교가 가설되기 전까지 버스를 배에 싣고 건넜다고 한다.

마을에는 1960년 설립된 무주초등학교 대차분교장이 동네 어귀를 지키고 있었는데, 현재는 폐교되었다.

차산(車山·차살·茶山·오리골)마을

조선시대에는 부내면에 속했던 마을로 본래 지명은 차산(車山)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서면의 대촌마을과 함께 무주면 대차리로 편제되었고, 그 후 지명을 차산(茶山)으로 바꾸고 대차3리라 하였다. 1961년 대차2리로 조정되었다가 1972년 다시 차산마을이 되었다.

백제 때부터 관아가 설치되었던 읍성(邑城)이 소재한 마을로, 조선 초기 주계성(朱溪城)이 존재하여 우리 고장을 지키는 보루(堡壘)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조선 인조 때의 명신 임담이 우거하며 분의정(分宜亭)을 짓고 말년을 보낸 곳인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무주에서 금산으로 가는 신작로를 내면서 옛 주계성을 헐게 되어 귀중한 문화유산이 손실되고 말았다.

6. 무주읍 오산리(吾山里)

읍내리 동쪽에 있는 법정리로 본래는 오산(鰲山)인데, 1914년부터 오산(吾山)이라고 한다. 지명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이야기가 전한다. 하나는 마을을 끼고 흐르는 남대천에 자라가 많아 붙였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고 하여 붙였다는 것이다.

오산리는 본래 신풍면과 북면의 접계 지역인데, 1914년 부내면의 오산과 왕정, 율속동을 병합하여 오산리라 했으며, 한 때 오산1리[19]와 오산2리[20]로 불리 우다가 1972년부터 다시 옛 지명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 후 1981년 왕정마을에 속하던 밤숙골이 율속마을과 분리되었다.

동쪽은 장백리와 인접하고 남쪽은 남대천을 사이에 두고 당산리와 인접하며, 서쪽은 읍내리와 인접한다. 북쪽은 백하산(白霞山)을 경계로 충북 영동군과 도계를 이룬다.

오산(吾山·鰲山·吾茂)마을

임진왜란 전후 피난민이 정착하여 형성된 마을로 전해지고 있다. 장백리 쪽에서 내려오는 남대천이 마을의 동편을 끼고 남쪽으로 흐르다가 서쪽으로 크게 곡류(曲流)

19)원오산(元吾山).
20)율속(栗俗)·왕정(旺亭).

하여 ‘오무들’을 이루고, 다시 북쪽으로 휘돌아 오산삼거리에서 칠리대(七里台)를 지나 읍내로 들어간다.

본래 산의 모양이 큰 자라와 같다고 하여 ‘오산(鰲山)’, 산봉우리 다섯 개가 모여 있는 곳이라 하여 ‘오산(五山)’,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동네라 하여 ‘오무(吾茂)’라 했는데, 지금도 마을을 지나는 남대천변에 위치한 들을 ‘오무들’이라 부르고 있다.

마을에서 장백리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용고개가 있는데, 여기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날들은 옛적부터 울창한 숲을 이루어 한 동안 황새떼들이 둥지를 틀고 살아 장관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전쟁 이후 황새 떼가 자취를 감추면서 차츰 빈촌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마을에는 1966년 설립되었다가 폐교된 무주 동초등학교가 있으며, 1970년대에 전북제사무주공장(全北製絲茂朱工場)이 설립되어 멀리 강원도에서까지 취업차 온 사람들로 붐볐으나 시대의 흐름에 밀려 공장 문을 닫아 현재는 건물만 남아 있다.

왕정(旺亭)마을

오산 북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 성종 때부터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되었다고 전한다. 마을 어귀에 정자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는데, 숲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 옛적에 스님 한 분이 마을 입구에 있는 용고개 마루턱을 오르다가 잠시 쉬면서 마을의 지세를 살폈다. 그는 부촌(富村)이 될 좋은 마을이라며,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게 한 후 마을 이름을 왕정(旺亭)이라 지어 주었다는 것이다.

마을에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암석인 구상화강편마암(球狀花崗片麻岩)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데, 암석의 표면이 마치 호랑이 무늬처럼 생겨 호랑이 바위라 불리기도 한다. 또한 암석을 집에 갖다 놓으면 부자가 된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다. 오무 동북쪽에는 1955년 정부 보조로 정착한 왕정농원(旺亭農園)이 있었다.

율속(밤속골·밤수골·栗俗洞)마을

오무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밤나무가 많아 ‘밤속골(밤숲골)’로 불리 웠으며, 구읍지

(舊邑誌)에는 부내면 율속동(府內面 栗俗洞)으로 기록되어 있다. 1914년 왕정마을과 함께 오산2리에 편제되었는데, 1981년 왕정마을에서 분리되면서 옛 지명인 율속(栗俗)으로 부르게 되었다.

7. 무주읍 용포리(龍浦里)

용포라는 지명은 부남을 거쳐 내려오는 금강물이 용처럼 꿈틀거리며 흐르는 곳으로 옛적에는 금산으로 건너가던 나루가 있던 곳이라 하여 지었다고 전한다.

용포리는 무주읍의 서남쪽에 위치한 법정리로 조선시대에는 서면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면에 편입되었다. 그 당시 용포[21]·공정(公正)·추동(楸洞)[22]·잠두(蠶頭)와 요대(要垈)를 병합하여 용포리라 하였다.

그 후 용포1리[23]와 용포2리[24]로 편제되었는데, 1972년 용포1리의 원용포와 공정을 합해 공정마을이라 하면서 종전의 가래골을 추동마을로 이름하여 분리하고, 용포2리의 요대와 잠두를 각각 분리시켰다. 그 결과 용포리에 속한 행정분리는 공정과 추동, 그리고 요대와 잠두 등 4개 리로 나뉘게 되었다.

마을 동쪽은 가옥리와 인접하고 남쪽은 마향산을 경계로 적상면과 면계(面界)를 이루며, 서쪽은 금강을 사이에 두고 부남면과 면계를, 북쪽은 요대 뒷산에서 충남 금산군과 도계를 이룬다.

공정(公正)마을

용포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용포라는 지명을 가진 원용포마을과 공정골이 합병된 마을로 본래는 서면에 속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면 용포리에 편제된 후 원용포·가래골(楸洞)과 함께 용포1리에 속하였고, 1972년 가래골과 분리되면서 원용포는 공정골과 함께 공정마을이 되었다. 원용포는 조선시대까지 지역의 중심지로, 본래 용포라는 지명을 가졌던 마을이다.

---

21)후에 원용포(元龍浦).
22)늘목·가래골.
23)원용포·추동·공정.
24)요대·잠두.

요대(要垈)마을

가래골 서쪽에 있는 마을로 옛적부터 본 군에 속하면서도 유일하게 금강 건너편에 위치하였다. 1914년 이후에는 잠두와 함께 무주면 용포2리에, 1972년 이후에는 잠두마을과 분리되어 요대마을로 불리우고 있다.

마을은 북쪽의 뒷산을 경계로 충남 금산군과 도계를 이루는데, 동·서·남쪽의 삼면이 모두 금강에 둘러싸인 특이한 지형으로 얼핏 보면 고립된 마을처럼 보인다.

그러나 옛적에는 '늘목' 나루와 '소이진' 나루가 모두 이 마을에 닿아 있었고,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서 큰물이 내려와도 금산을 왕래하던 행인들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었던 요긴한 땅이었다고 하여 요대라는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

가래골 동북쪽에는 늘어진 목이라는 의미를 갖는 늘목마을이 있고, 늘목 동쪽에는 옹기점이 있었다는 옹기점터가 있다.

잠두(蠶頭)마을

황새목 북쪽에 있는 마을로 뒷산인 조항산(鳥項山)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이 일곱 개의 봉(峰)을 이루며 마치 누에 모양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25) 본래 무주에 속하면서 금산군과 경계를 이루었는데, 1914년 이후 요대마을과 함께 용포2리에 편제되었고, 1972년 요대마을과 분리되어 잠두로 개칭되었다.

마을은 본래 빈촌 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부촌으로 탈바꿈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지형과 뗄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있는 셈이다.

추동(楸洞)마을

용포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본래 '추자' 즉 '가래나무'가 많은 동네라 하여 '가래골'로 불리웠다. 조선시대에는 서면에 속했고, 1914년 이후에는 용포1리에, 1972년 이후에는 추동라는 지명으로 불리우고 있다.

마을 동구인 늘목 옆에는 부남을 돌아 나온 금강이 서쪽에서 흘러나와 북쪽으로 곡류하며 서면마을쪽으로 흘러간다. 일제 강점기 때 늘목에서 요대를 건너는 교량을 가설하여 용포교(龍浦橋)라 하였다. 다리가 가설되어 금산으로 연결되는 대로(大路)

가 됨으로써 옛적에 서면으로 다니던 도로가 없어졌다.

마을에는 1947년 무주초등학교 용포분교장이 설립된 후 용포초등학교로 승격되었으나 현재는 폐교되었다. 가래골 서쪽이 되는 마을로 '내건너'가 있고, 가래골 동쪽이 되는 음지땀이 있다.

8. 무주읍 읍내리(邑內里)

현재 무주군의 소재지로 백제 때부터 치소(治所)가 설치된 무주군의 행정중심지이다. 읍내리와 대차리의 경계를 이루는 성안은 본래 백제 때부터 관아(官衙)가 설치된 곳으로 오랜 세월 행정중심지 역할을 해 왔다.

성안의 읍성은 고려 때의 지명인 주계를 붙여 주계성(朱溪城)이라 불렀는데, 조선시대 무주현이 된 후 현재의 군청 자리인 읍내리로 관아가 옮겨졌으며, 이후 무주도호부로 승격되었을 때에도 부사(府使)가 머물던 유서 깊은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부내면 읍내로 불렸으며, 1914년 당시 부내면을 무주면으로 고치고 북리(北里)·상리(上里)·중리(中里)·하리(下里)로 병합하여 읍내리라는 명칭을 붙여 법정리로 하였다. 그 뒤 읍내1리,[26] 읍내2리,[27] 읍내3리,[28] 읍내4리,[29] 읍내5리,[30] 읍내6리[31] 등 6개 행정분리로 편제되었다.

1961년 다시 옛적의 읍내1리에서 4리까지 4개 행정분리로 조정되었다가 1972년 8개 행정분리[32]로 나뉘었는데, 1990년 다양리에서 한수리(寒水里)가 분리되어 9개 행정분리가 되었다.

동쪽은 향로산에서 남으로 뻗어 내린 능선을 따라 오산리와 경계를 이루고, 남쪽은 동쪽에서 읍내리 앞을 지나 서쪽으로 흐르는 남대천을 사이에 두고 당산리와 경계를 이룬다. 서쪽은 옛 주계읍성인 성안을 경계로 대차리와 인접하고, 북쪽은 진산(鎭山)인 향로산 너머 금강을 따라 내도리와 경계를 이룬다.

---

26)종전 상리.
27)종전 상리 일부.
28)종전 북리와 중리 일부.
29)종전 북리 일부.
30)중전 중리 일부.
31)종전 하리.
32)사정(射亭), 교동(校洞), 다양(多陽), 향산(香山), 운교(雲橋), 남천(南川), 죽산(竹山), 대교(大橋).

교동(校洞)마을

본래 웃말, 즉 상리(上里)에 속했던 마을인데, 1972년 행정분리 시행 때 교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교동은 마을에 향교(鄕校)가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무주향교는 본래 무주부 관아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호환(虎患)이 심하여 지금의 한수리(寒水里)로 옮겼다. 그런데 이 곳의 땅이 너무나 습하다하여 현재의 장소로 옮기게 되었다. 그 후 1909년 무주향교에 사립(私立) 무주명륜학교(茂朱明倫學校)가 설립되어 오늘날 무주초등학교 전신(前身)이 되었다.

현재 마을에는 무주향교 이외에 1946년 설립된 무주중학교가 위치해 있고, 농산물검사소(農産物檢查所)와 농수산통계사무소(農水産統計事務所), 무주상수도사업소 정수장, 반딧불 아파트가 소재하며, 1938년 개설된 한전출장소가 있었으나 이전하고 없다. 읍내리 가장 위쪽에 있는 마을로 상동니(우마을·上里)가 있다.

남천(南川)마을

남천은 읍내 앞을 흐르는 남대천변에 위치한 마을로, 옛적에는 남리를 비롯한 중리 일부와 북리 일부에 해당하는 마을이었다. 그리고 남대천변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해서 남천마을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남천마을에는 관아였던 동헌(東軒) 앞에 한풍루(寒風樓)가 있었고, 그 아래에 환수정(喚睡亭)이 위치하고 있어 풍류를 즐기던 율객(律客)과 묵객(墨客)들이 자주 오르던 명소였는데 언제인지 모르게 훼철(毁撤)되었고, 한풍루는 남대천 건너편에 복원되었다. 현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주지사, 무주농협지소, 무주새마을금고 등이 위치하고 있다.

다양(多陽)마을

햇빛이 잘 드는 양지바른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본래 읍내리의 북리에 해당하였으나 1972년 다양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마을은 향로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서쪽으로 뻗어내린 언덕에 위치하며 무주 시가지가 강(江)이었던 옛적에는 낚시를 드리웠다는 '바우백이' 등의 지명이 전해오고 있다. 1990년 본래 마을에 속해 있던 한수골이 한수(寒水)라는 지명으로 분리되었다.

다양에는 무주읍사무소(茂朱邑事務所)를 비롯하여 1916년 개설된 등기소(登記所), 1922년 설립된 엽연초생산조합(葉煙草生産組合) 등을 비롯하여 1957년 건립된 무주천주교회(茂朱天主敎會), 1972년 옮겨 온 무주군교육청(茂朱郡敎育廳) 등의 주요 기관이 소재하고 있으며, 한전 아파트 등이 있다.

대교(大橋)마을

읍내리에 있는 마을 중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어 '아랫말' 또는 '하리(下里)'로 불렸다. 마을에는 조선시대부터 '적천(남대천)'을 건너던 '대천교(大川橋)'가 가설되었는데, 일제 식민지 때 신작로를 개설하면서 대천교 위에 콘크리트 교량을 가설하고 '무주교(茂朱橋)'라 하였다. 지역민들은 이 다리를 '공굴다리' 또는 '큰 다리'로 불렀다. 이런 연유로 1972년 지명을 대교라 하게 되었다.

현재 마을에는 인접 시·군과 교역을 이루는 5일장(五日場·市場)이 운영되고 있는데, '무주장터'는 한국전쟁 이후 운교마을에서 이설 된 것으로, 2002년 시장 현대화 사업에 따라 현대식으로 확장하고 이름도 '반딧불 장터'로 바꾸었다.

이 곳은 조선시대 군사들의 사열과 훈련을 받던 '장대(將台)' 즉 '열무대(閱武台)'가 위치했던 곳이라 전해지고 있는데, 상록 아파트 등 주거 지역의 역할도 크다. 읍내리에서 맨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하동니(하리)라 하였다.

사정(射亭)마을

읍내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며, 옛적에는 동구(洞口)에 서낭당이 있었고, 마을 가운데 행길 가에 서낭신을 모신 큰 정자나무가 서 있다. 읍내에서 가장 위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웃말' 또는 '상리(上里)'로 통하며,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이 무예를 닦던 활터, 즉 '사정(射亭)' 혹은 '사청(射廳)'이 있던 곳이라 하여 '새청거리'로 불리 웠다. 이런 연유로 1972년 사정마을이라 하였다.

마을에는 옛적부터 그릇을 굽던 옹기굴(옹기가마)과 기와를 굽던 기와굴(기와가마)이 있었으며,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칠리대(七里台)가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 때 설치된 영림서(營林署) 무주출장소를 비롯하여 1962년 설립되어 1973년 이 곳으로 이전해 온 무주군 산림조합(茂朱郡山林組合)이 있고, 당산리로 가는 무주대교(茂朱大橋)가 남대천 위에 놓여 있다.

운교(雲橋)마을

읍내리 중앙에 위치하며 옛적의 중리(中里)에 해당된다. 운교라는 지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남대천을 건너던 남교(南橋)가 있던 자리 근처에, 일제 강점기 때 동서를 관통하는 신작로가 개설되었다. 그 당시 마을로 흐르던 개울에 콘크리트 다리를 가설했는데 사람들은 '구름다리'라 부르고, 구름다리에서 남대천으로 나가는 골목을 '구름다리 고샅'이라 불렀다. 이런 연유로 구름 '운(雲)'자와 다리 '교(橋)'자를 붙여 운교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한 때는 상리와 하리 사이에 있다고 하여 중동니(중리)라 하였다.

마을이 읍내의 한 복판에 위치한 관계로 군청(郡廳), 우체국(郵遞局), 농협(農協) 등 주요기관이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전쟁 당시 불타 버린 무주면사무소 자리가 있었고, 한국전쟁 이전에는 무주장터의 장옥(場屋)이 늘어서 있었다. 무주장터는 1919년 3·1만세운동 때 독립만세를 외치던 역사의 현장이다. 현재 무주군청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터는 객사(客舍)가 있던 곳으로 무주경찰서가 위치해 있었다.

죽산(竹山)마을

본래 아랫말의 뒷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로 종전에는 '잿말'(향산리)과 같은 동네에 속했던 마을이다. 본래 대나무가 많았던 동산이었다 하여 1972년 죽산(竹山)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마을에는 옛날 대나무 밭에서 억울하게 죽은 어느 여인의 한을 풀어주었다는 무주부사와 얽힌 전설이 있고, 천재지변이 있을 때마다 제(祭)를 올리던 사직묘(社稷廟)가 있었으며, 1971년 설립된 KBS 방송 중계소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 고장에 전기를 공급해 주던 한전무주변전소 등이 위치한다.

한수(寒水)마을

본래 읍내 북동리(北洞里)인 다양마을에 속했는데 인구의 증가에 따라 1990년 분리되었다. 찬물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 하여 한수골(寒水谷)로 불린 까닭에 '한수'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마을 뒷산 향로산에는 조선시대 설치된 봉화대(烽火台)터가 있고, 골짜기에는 성황

신(城隍神)을 모셨던 성황묘(城隍廟)가 있었다. 또한 가뭄과 질병 등의 재앙이 있을 때마다 성황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여제단(羈祭壇)이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여제단 자리에 신사(神社)를 세우고 일본 황실의 조상에게 참배를 강요하던 굴욕의 현장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초기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이 고장의 지세(地勢)를 보고 난 후 북쪽이 허(虛)하다고 하여 탑(塔)을 세우고 절을 짓게 하여 건립되었다는 북고사(北固寺)가 있으며, 1692년 이건 되어 1834년까지 존속된 무주향교가 있었던 곳이다.

옛 향교 터에는 1981년 새로 건립된 무주고등학교가 있고, 옆에는 1967년 건립된 무주중앙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옛 여제단 앞에는 1909년 무주향교의 명륜학교를 전신으로 설립된 무주초등학교가 있고, 그 옆에는 1988년에 세워진 무주 공공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 외 1985년 건립되어 지역의 의료사업을 도맡아 했던 무주군 보건소(茂朱郡保健所)가 2002년 당산리로 이전한 후 무주군 사회 단체들이 입주하였다.

향산(香山)마을

본래 동네 중간에서 앞섬으로 가는 길에 재가 있어 '잿말[북동니·북리 : 골안(고을 안) 북쪽에 있는 마을로 절이 있었는데, 불에 타고 재만 남았다고 함]'로 통하던 마을인데, 1972년 향산마을로 지명을 붙였다. 옛적에는 북리 일부와 하리 일부에 속하였다.

향산이라는 지명은 읍내리의 진산(鎭山)인 향로산(香爐山)의 맥을 따라 서남으로 흘러내린 언덕에 자리하고 있으며, 향산사(香山寺)라는 절이 소재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곳에는 1918년 포교당(布敎堂)으로 시작된 향산사가 있으며,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신앙의 뿌리를 내린 무주읍교회(長老敎), 한국전쟁 이후 전파된 통일교회(統一敎會)가 위치하고 있으며, 1921년 연초원(煙草院) 무주영업소(茂朱營業所)로 개설된 이후 1931년 연초판매소, 1946년 무주전매서(茂朱專賣署) 등으로 개칭되었다가 1989년 명칭이 바뀐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오랜 세월 마을을 지키고 있다.

9. 무주읍 장백리(長白里)

장백리는 동쪽에서 흘러 내려오는 남대천이 마을을 관류하는데, 이로 인해 천변에 하얀 돌밭이 길게 늘어서는 광경을 보고 장백(長白)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남대천을 사이에 두고 상류에 있는 상장(上長)마을과 하류에 있는 하장(下長)마을을 합하여 형성된 곳으로, 장박리(長朴里)라 하였다고 한다.

본래 신동면(新東面. 一名 身東面) 또는 신풍면(新豊面) 지역으로 1914년 상장과 하장을 병합하고 상하 장백의 이름을 따서 장백리라 하였다. 그 후 장백1리(하장백)와 장백2리(상장백)로 불리어오다가 1972년 하장과 상장으로 지명을 바꾸게 되었다.

상장백(上長白·上長·웃장백)마을

하장마을의 위쪽에 위치하여 '웃장백'이라고도 하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무주면에 편제된 후 장백2리로 불리다가 1972년 행정분리 시행 때 상장마을로 지명을 바꾸어 부르고 있다.

하장백(下長白·下長]마을

'아랫 장백' 즉 하장백이라 불리며, 마을 앞으로 남대천이 흐르는 천변마을이다. 남대천의 맑은 물과 고운 조약돌이 길게 깔린 천변과 마을 어귀에 가설된 장백교(長白橋) 아래는 여름철 천렵꾼이 즐겨 찾는 곳이다.

마을에는 1947년 무주초등학교에서 개설한 장백분교장(長白分敎場)이 있었으나 학생수가 감소되어 폐교되었다.

제2절 무풍면

1. 개요

삼한시대에는 변진의 감문국, 삼국시대에는 신라 무산현(茂山縣), 경덕왕 때 개칭된 무풍현(茂豊縣)의 치소(治所)였다. 고려 성종 때에는 영남권에서 호남권으로 편제되어 강남도 남원부 진례현의 속현(屬縣)이 되었다.

조선 태종 14년(1414), 무풍과 주계가 통폐합되어 '무주(茂朱)'가 되면서 무주현에 딸린 면(面)단위의 행정구역이 되었다. 무풍의 행정구역은 풍동면(豊東面)[33]과 풍남면(豊南面)[34]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다시 옛 이름을 되찾게 된다. 즉 무주군이 6개 면으로 통폐합되면서 무풍은 풍동과 풍남을 합하고 종전의 횡천면(橫川面)[35]에 속해 있던 덕동과 오정동을 편입시켜 '무풍면'이 된 것이다. 1414년 무풍현이 폐지된 후 500년만에 옛 지명을 되찾게 된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참위설(讖緯說)과 풍수지리설이 널리 유포되었다. 이를 신봉하는 술가(術家)들에 의하면, 무풍은 '십승지지(十勝之地)'[36]의 하나이다. 특히 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은 임진왜란(壬辰倭亂) 이전에 나온 것으로, 임진왜란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풍으로 찾아와 난리를 피하고 정착하였다. 한편 현내리에는 구한말 당시 민병석(閔丙奭)에 의해 명례궁(明禮宮)이 건립되었던 곳으로 술가(術家)들이 복지(卜地)로 선망하던 곳이다.

2003년 현재, 무풍면의 행정구역은 8개 법정리(法定里),[37] 행정상 17개 리, 55반(班), 43개 자연마을으로 구획되어 있다.

---

33)현재의 현내리·지성리·금평리.
34)현재의 철목리·증산리·은산리.
35)지금의 구천동·덕지리 지역.
36)풍기 금계촌(金鷄村), 안동 춘양면(春陽面), 보은 속리산(俗離山), 운봉 두류산(頭流山), 예천 금당동(金堂洞), 공주 유구(維鳩)·마곡(麻谷), 영월 정동상류(正東上流), 부안 변산(邊山), 성주의 만수동(萬壽洞).
37)현내·금평·지성·철목·증산·은산·덕지·삼거.

2. 무풍면 금평리(金坪里)

조선시대에는 현내리(縣內里)·지성리(池城里)와 함께 풍동면에 속했으며, 1914년 숙병(炭坊)이·부평(浮坪)·계당(桂堂)·쇠재(金尺)·마실(馬谷) 등이 한데 묶여 금평리라는 새로운 법정리로 편제되었다. 그 후 금평1리[38]와 금평2리[39]로 분리되었다.

금평이라는 지명은 옛적에 '쇠재' 또는 '쇠자'라 부르던 금척마을의 '금'자와 개울 건너편 높은 지대에 위치한 '뜬들' 즉, 부평의 '평'자를 따서 금평리라 하였다.

1972년 군조례 개편 때 금평1리를 금척으로 하고, 금척2리였던 마곡과 덕평을 합해 마덕(馬德)으로, 계당과 부평을 합해 계부(桂富)라 하고 분리시켰다.

금평리 북쪽에 있는 부항령(釜項嶺) 골짜기는 임진왜란과 구한말 등 국난이 있을 때마다 지역의 청년들이 의병(義兵)으로 일어나 목숨을 바치며 구국항쟁(救國抗爭)을 벌인 역사의 현장이다.

남쪽으로 우뚝한 대덕산(大德山)을 경계로 동편은 경상북도 김천시와 도계를 이루고, 서남쪽은 지성리·증산리와 인접하며, 북쪽은 숙병이(탄방) 골짜기로 오르는 부항령을 깃점으로 현내리와 인접하고 있다.

계부(桂富)마을

지명의 유래는 계당(桂堂)과 부평(浮坪, 후에 富坪)을 합치면서 계당의 '계'자와 부평의 '부'자를 따서 만들었다. 계당은 대덕산 아래 위치한 마을로 진귀한 나무들이 많았던 곳이라 하여 이름했으며, 부평은 높은 곳에 펼쳐진 평원이 마치 떠있는 들과 같다 하여 붙여진 지명인데, 일제강점기 때 부자 '부(富)'로 바뀌었다.

계부마을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풍면 금평리로 편제되었고, 금평리가 2개 분리로 나뉠 때 마곡과 함께 금평2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군조례 개정 때 마덕과 분리되면서 계당과 부평이 같은 행정분리가 되었다.

금척(金尺)마을

본래 '쇠자' 또는 '쇠재'로 불리웠는데 한문으로 표기하면서 금척이 되었다. 마을

38)금척(金尺)·탄방(炭坊)·백학(白鶴·산디).
39)마곡(馬谷)·부평·덕평(德坪).

뒷산 옥녀봉(玉女峰)에서 길게 뻗어 내린 능선이 마치 금(金)으로 만든 자(尺)처럼 생겼다고 하여 쇠자 또는 쇠재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옥녀직금형(玉女織金形)의 명당이 있다고 한다.

마을에는 금척혈(金尺穴)에 얽힌 전설이 전한다. 옛날 하늘에서 내려온 예쁜 선녀가 금으로 만든 잣대로 비단을 재어 옷을 해 입고 살았는데, 비단을 재던 금자는 신통력이 있어 죽어 가는 사람도 세 번만 재면 살아났다고 한다. 이에 소문을 듣고 찾아드는 사람이 구름같이 몰려오게 되었다. 이에 사람들이 생명의 귀함을 모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깨달은 선녀는 금자를 지금의 옥녀봉인 금척혈(金尺穴)에 묻어 버렸다는 것이다.

금척은 조선시대까지 풍동면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풍면 금평리로 편제되었으며, 속칭 숙병이로 부르던 숫구지마을과 산디로 부르던 백학을 같은 행정구역으로 묶어 금평1리가 되었다. 그 후 1972년 행정분리의 명칭을 자연마을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금척으로 부르게 되었다.

금척마을 중 백학(白鶴)은 본래 금척마을의 산 뒤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산디'로 통용되었는데, 옛적부터 소나무가 많아 백학(白鶴)이 서식하는 곳이라 하여 백학으로 개칭되었다. 탄방(炭坊)은 숯을 굽던 곳이라 하여 '숫구지' 또는 '숙병이(쑥뱅이)'로 불렀는데, 한문식 표기를 하면서 탄방이 되었다고 한다.

이 외에 쇠재를 중심으로 남쪽에 걸땀, 동남쪽에 안땀, 가운데 양지쪽에 해당하는 곳에 위치한 양지땀, 서쪽의 평지에 있는 평지촌 등이 있다.

마덕(馬德)마을

마덕은 마실(馬谷)과 큰들(德坪)을 합치면서 마곡의 '마'자와 덕평의 '덕'자를 따서 만든 지명이다. 마곡은 본래 경상도와 전라도를 오가는 행인을 위해 말을 기르던 곳이었다고 하며, 혹은 이곳의 지세가 마치 말의 형상이라 '마실'이라 불렀다고 한다. 덕평은 대덕산 북쪽의 넓은 평원에 위치하며, 큰들을 이루는 지역이라 덕평이라 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풍동면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금평리로 편제된 후 계당·부평과 함께 금평2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군조례 개정 때, 마덕이라는 새로운 지명을 붙이게 되었다.

3. 무풍면 덕지리(德地里)

본래 금산군에 속했는데, 1674년 무주현이 도호부로 승격될 때 본 군에 편입되고 횡천면에 편제 되었다. 1914년 이전까지 대덕산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남대천을 경계로 하여 서남쪽에 자리잡은 덕동(德洞) 일대는 종전의 횡천면 구역이었고, 동북쪽의 대덕산 기슭에 위치한 지역은 풍남면에 속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덕지리로 구획되었다. 덕지리 라는 지명은 덕동의 '덕'자와 지경리(地境里)의 '지'자를 따서 만든 지명이라고 한다.

그 후 덕지1리[40]와 덕지2리[41]로 나뉘었는데, 1972년 하덕(下德)[42]과 상덕(上德)[43]마을로 바뀌었다.

이 곳은 대덕산 남록(南麓)에 위치하며 동남으로는 경남 거창군으로 넘어가는 생초령(省草嶺)을 경계로 경남과 도계를 이룬다. 서쪽은 은산리(銀山里)와 삼거리(三巨里), 북쪽은 증산리(曾山里)와 인접한다.

상덕(上德)마을

상덕은 '웃덕지리' 즉 '상덕지(上德地)'라는 뜻으로 붙인 지명으로, 남대천 최상류를 사이에 두고 구획되었으며, 옛적에는 서로 다른 군(郡) 또는 서로 다른 면(面)으로 분리되었던 마을끼리 병합되었다.

개울의 남쪽에 있는 부흥(富興)마을은 본래 금산군에 속했는데, 1674년 구천동과 함께 횡천면에 속했고, 대덕산 기슭에 위치한 북수동(北首洞·北首谷)과 도마(道馬·倒馬)는 옛적부터 무풍에 속하면서 조선시대에 이르러 풍남면으로 편제되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풍면 덕지리로 편입된 뒤 덕지2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군조례 개정에 따라 상덕이라는 지명을 붙이게 되었다.

부흥은 뒷산인 삼봉산(三峰山)의 지세가 부(富)를 일으킬 형국이라 하여 붙여졌다고 전하며, 부흥마을 건너편인 북수와 도마는 생초령과 연관된 지명유래를 갖고 있다. 선조 31년(1598) 왜적이 전라도를 공격하기 위해 생초령(省草嶺)을 넘으려 할 때, 이

---

40)덕동·안실(內谷)·내갈마(內葛馬)·외갈마(外葛馬).
41)부흥동(富興洞)·북수동(北首洞)·도마(道馬).
42)덕동·안실·내갈·외갈.
43)북수·부흥·도마.

곳에 매복하고 있던 우리 군사들이 협공을 하자, 기세에 눌린 왜장이 먼저 도망하였고 부하들마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 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달아날 '배(北)'자와 우두머리 '수(首)'자를 붙여 북수동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영조 4년(1728)에는 '이인좌(李麟佐)의 란(亂)에 동조하여 안의(安義)에서 일어난 정희량(鄭希亮)을 맞아 물리친 역사의 현장이다.

하덕(下德)마을

하덕은 아랫 덕지리, 즉 하덕지(下德地)라는 뜻인데, 본래 금산군 횡천면에 속했던 지역으로 중심지는 덕동이었다. 1674년 무주현이 도호부로 승격될 때 무주부에 편입되었다. 본래 금산군 횡천면은 덕유산을 경계로 동쪽 지역인 오정동(五井洞)에서부터 두길리(斗吉里)에 이르는 구천동 일대와 대덕산 남서쪽 골짜기의 덕동(德洞)에서 도계 마을인 부흥동(富興洞)까지 광범위한 면적이었다.

그 후 1914년 현재의 삼거리인 오정동 일대와 현 덕지리 남부지역인 덕동 일대를 무풍면으로 편입하고, 덕지라는 지명을 붙여 법정리로 하였다. 이후 덕지는 2개의 행정분리로 나뉘게 되는데, 덕동은 안실·갈마와 함께 덕지1리가 되었고, 1972년 하덕으로 개칭되었다.

덕동은 대덕산 아래 안실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안실(安實)은 계곡 안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안골(內谷)'이었는데 한문으로 옮기면서 안실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갈마(葛馬)는 마초봉 밑에 있는 마을로 뒷산이 갈마음수혈(渴馬飮水穴), 즉 목마른 말이 물을 먹는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인데, 후에 목마른 갈(渴)자가 칡 갈(葛)자로 바꾸어진 것이라고 한다. 갈마는 안갈마(內葛)과 바같갈마(外葛)로 나뉘어졌다. 갈마 남쪽에 송촌(松村·烏頭村), 북수골 동쪽에 지경리(地境里)가 있었다.

4. 무풍면 삼거리(三巨里)

삼거리는 무풍면 최남단 구천동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남 거창군과 도계를 이룬다. 본래 금산군에 속했는데 1674년 무주부에 편입되어 횡천면에 편제되었고, 1914년 횡천면에 속한 마을 중 유일하게 무풍면에 속하게 되었다.

동남쪽에 위치한 삼봉산(三峰山)에서 발원한 물이 세 갈래의 골짜기를 이루면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오도치(五道峙)' 큰골에서 나온 물과 남쪽의 '모도막골'에서 흘러나온 물과 합류하여 원당천(元唐川)을 이루며 삼공리(三公里)를 향해 흘러간다. 본래 다섯 줄기의 원천(源泉)을 이루는 발원지(發源地)가 있는 곳이라 하여 오정동(五井洞. 후에 吾亭洞 또는 五亭洞)이라는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

그런데 1914년 상오정(上吾亭)으로 개칭되었고, 구천동과 무풍으로 갈리는 지역에 위치한 원삼거리가 같은 행정구역에 묶이면서 삼거리라는 법정리가 만들어졌다.

이 곳은 조선 인조 때 병자호란(丙子胡亂)을 피해 들어온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데, 한국전쟁 이후 '큰골' 입구와 '빼재(秀嶺)' 아래로 정착민 들이 들어와 살면서 독가촌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삼거리는 구천동에서 거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된 동쪽의 삼봉산과 남쪽의 빼재를 경계로 경남과 도계를 이루고, 서쪽은 투구봉으로 부르는 흔들산을 사이에 두고 설천면과 면계를 이룬다. 북쪽은 오도재 넘어 덕지리와 인접한데, 1966년 구천초등학교 분교장(分校場)으로 오정분교장(五亭分校場)이 위치하였다.

삼거리에는 상오정 북쪽에 자리한 기곡(基谷·텃골), 원삼거리 동남쪽의 꺼먹바우(鷲洞), 상오정 동쪽의 독가촌, 상오정 남쪽의 독가출, 원삼거리 서남쪽에 있으며 한국전쟁 때 소실된 후 복구된 두문골(斗文洞·말거리), 원삼거리 남쪽 골짜기에 이루어진 모도막골, 빼재 밑에 위치한 빼재(秀嶺), 원삼거리 동남쪽에 위치하며 삼거리에서 가장 크고 전에 오정폭포라는 명승지가 있던 상오정(上五亭), 말거리 동쪽에 있으며 물줄기가 양 골짜기로 갈라져서 흐르는 쌍골(雙谷), 오두재 밑에 있는 오두재(烏頭峙), 원삼거리 서쪽 음지를 이루고 있는 음지들(陰地坪), 상오정 밑 서쪽에 있는 중오정(中五亭), 말거리 동쪽에 있으며 크고 넓은 골짜기가 있는 큰골 등의 자연마을이 생성하였다.

5. 무풍면 은산리(銀山里)

조선시대에는 풍남면에 속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속골(俗洞), 은구뱅이(銀庫), 한재(寒峙), 오무실(吾山), 방곡(芳谷) 등이 한데 묶여 은산리로 편제되었다.

지명은 은고(銀庫)와 오산(吾山)에서 한자씩 땄다고 한다. 그 후 은산1리[44]와 은산2리[45]로 구획되었는데, 1972년 무주군 조례 개정 때 은산1리는 은일(銀一)로, 은산2리는 오산과 방곡 두 마을의 첫 글자를 취해 '오방(吾芳)'이라는 새로운 지명으로 개칭되었다.

이 곳은 조선시대까지 횡천면의 덕동과 면계를 이루었으며, 동쪽은 시루봉을 깃점으로 동북은 증산, 동남은 덕지, 서남은 삼거리와 인접하고, 서쪽은 사선암(四仙巖) 동맥(東脈)을 경계로 설천면과 면계를 이루며 북쪽은 철목리와 인접한다.

오방(吾芳)마을

1914년 무풍면 은산리로 편제 되었고, 후에 은산2리로 구획되었다. 1972년 행정분리 때 오무실로 부르던 오산의 '오'자와 방곡의 '방'자를 따서 오방으로 개칭되었다.

망덕산(望德山)과 비래봉(飛來峰) 사이의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오무실'은 산골속에 마당같이 넓은 땅이 있어 '마당말'이라 불리 웠는데,[46] 옛적부터 마을에는 공부하는 선비들이 많아 글 읽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산골이라 하여 응얼거리며 글 읽는 오(吾)자를 붙여 오산(吾山) 또는 오무실이라 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망덕산을 중심으로 높은 봉(高峰)·마초봉(馬超峰)·비래봉·시루봉(甑山峰) 등 다섯 개의 봉우리로 둘러 쌓인 마을이라 오산(五山), 오동나무가 많았다고 하여 오동실(梧山)이라 부른다고 한다.

은일(銀一)마을

1914년 무풍면 은산리로 편입된 후 속동·은고·한치마을과 함께 은산1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은산1리에 속했다는 연유로 은일마을로 개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은고(銀庫. 坊·隱古方)는 본래 은고(銀古)라 했는데, 옛적에 선인(仙人)들이 많이 살던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은고(銀庫)'로 개칭하게 되는데, 그 당시 어느 풍수지리가(風水地理家)가 이 곳을 지나다가 지세를 보고, '거대한 은맥(銀脈)이 묻힌 곳'이라 하며 은고(銀庫)라 했다고 한다. 또한 이 곳

---

44)속동·은고·한치.

45)오산·방곡.

46)마당말리라고도 하며, 한재 동쪽에 있는 마을로 평평한 곳인데, 말에게 풀을 먹이던 곳이라 함.

의 지형이 마치 늙은 개의 등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노구지리(老狗之里)'라 부른다고 전한다.

은고마을 북쪽에는 '속골'로 불리던 속동(俗洞)이 있고, 남쪽에는 오정동으로 넘나들던 큰 고개인 한재(寒峙)가 있다. 한치는 아무리 무더운 여름철에도 이 곳에 오르면 차가운 바람이 몸에 닿아 추위를 느끼는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 하고, 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한치라는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 이와 함께 은고 북쪽 양지에 있는 양지뜸, 은고 남쪽 편편한 곳에 있는 평지골이 있다.

한치마을에는 조선 순조 때의 학자 정관재(靜觀齋) 박문건(朴文建)의 유지(遺址)인 한천사(寒泉祠)와 경모재(景慕齋)가 있는데, 한국전쟁 때 소실된 것을 2002년에 복원하였다.

6. 무풍면 증산리(曾山里)

조선시대에는 풍남면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풍면에 편입되면서 실미(甑山)·돌메기(石項)·삭골(沙洞) 등을 병합, 증산리라 하고 법정리가 되었다.

본래의 증산은 망덕산 북록(北麓)에 시루같이 우뚝한 시루봉(甑峰) 안골짜기에 위치하여 '실미'라는 지명으로 불리웠다. 실미란 시루(甑)와 뫼(山)가 변형된 지명으로, 한문으로 표기하면 '증산(甑山)'이 된다. 그런데, 1914년 증산(曾山)으로 바뀌었는데, 증산이란 중국의 영산(靈山)인 곤륜산(崑崙山)에 있던 증성(曾城)과 같이 중첩한 골짜기에 있어 태제(太帝)라도 거성(居城)할 수 있는 복지(卜地)를 뜻하는 지명이라고 한다.

1961년 증산1리48)와 증산2리49)로 나뉘었으며, 1972년에는 증산1리가 '미항(美項)'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실미의 '미(美)'자와 석항의 '항(項)'자를 따서 붙인 것이다. 그리고 증산2리의 사동은 그대로 사용되었다.

마을 동쪽의 대덕산을 깃점으로 동편은 금평리와 인접하고, 동남쪽은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그리고 경상남도가 경계를 이루는 삼도(三道)의 접경지이다. 남서쪽은 덕지와 은산이 이웃하고, 북쪽은 지성리가 인접한다.

---

47)들 안쪽에 있다하여 붙인 이름.
48)석항·원증산.
49)사동.

미항(美項)마을

미항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풍면에 편입되었고, 원증산·석항·사동마을과 함께 증산리에 구획되었다. 그 후 1961년 증산리가 2개 분리로 나뉠 때 사동과 분리되었고, 원증산은 석항과 함께 증산1리가 되었다. 그리고 1972년 원증산의 옛지명인 실미의 '미'를 아름다울 미(美)로 하고, 석항의 '항'자를 취해 '미항'이라는 새로운 지명이 되었다.

본래 마을 앞에 시루봉(甑峰)이 있는 원증산(元曾山)은 '시루뫼'에서 '실미'로 변형되었다. 석항(石項)은 실미 동북쪽에 있는데, 옛적부터 돌이 많고 또한 마을 어귀에 커다란 거석(巨石)이 있어서 '돌목' 또는 '돌메기'로 불리 웠는데, 한자로 표기하면서 석항 이라 했다고 한다.

사동(沙洞)마을

1914년 미항과 함께 무풍면 증산리로 편제 되었다. 그 후 1961년 증산2리에 구획되었고, 1972년 옛지명인 사동으로 부르게 되었다.

사동이란 '모래골'이라는 뜻이다. 대덕산을 마주보고 있는 산이라는 뜻을 가진 망덕산(望德山) 아래에 연못이 있었는데, 여기부터 월해평(月海坪)까지 모두 모래땅이어서 '사골'로 부르던 것이 '삭골'로 변형되었으며, 한문으로 표기하면서 사동이 되었다고 한다.

마을은 영산(靈山)으로 불리 우는 대덕산의 정기를 받아 옛적부터 부촌(富村)을 이루며 큰 인물이 많이 나온 곳이라 한다. 그런데 일제 강점기 때, 무풍면사무소를 짓기 위해 마을에 있는 거목 한 그루를 베었다. 그러자 나무에서 큰 구렁이 두 마리가 나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그 후부터 마을은 점차 빈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7. 무풍면 지성리(池城里)

조선시대에는 현내리·금평리와 함께 풍동면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모산(池山)·불내(汾川)·서수골(鋤洞)·밤들(栗坪)·까마귀디미(烏洞) 등 다섯 마을을 같은 행정구역으로 하여 무풍면 지성리로 법정리가 되었다.

이 곳의 안 골짜기에는 연못이 있던 곳이라 하여 못산(池山)으로 부르는 마을이 있고, 마을의 북쪽에는 왜적을 막기 위해 쌓았다는 성재(城峴)가 있다. 이런 연유로 지산의 '지(池)'자와 성재의 '성(城)'자를 따서 지성리라 했다고 한다.

그 후 지성1리[50]와 지성2리[51]로 구획되었는데, 1972년 지성1리는 지성의 지(池)와 일리의 일(一)자를 따서 지일(池一)로 개칭되고, 지성2리의 율평과 오동은 첫 글자를 따서 율오(栗烏)가 되었다.

지성리 동쪽은 금평리와 인접하고, 남북으로는 증산리, 서쪽은 철목리와 인접하며, 북쪽은 성재를 경계로 현내리와 인접한다.

율오(栗烏)마을

1914년 무풍면 지성리로 편제 된 후 율평과 오동마을을 같은 구역으로 묶어 지성2리라 불렀는데, 1972년 군조례 개정 때 율평의 '율(栗)'자와 오동의 '오(烏)'자를 따서 율오(栗烏)라는 새로운 지명을 붙이게 되었다.

율평(栗坪)은 불내 동쪽에 있는데, 옛적부터 밤나무가 많은 들이라는 의미로 '밤불'이라 했다고 한다. 오동(烏洞) 뒷산에는 바위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까마귀와 관련된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바위 무더기를 '까마귀더미'라 불렀는데 '까마귀디미'로 변형되었으며, 이런 연유로 '까마귀마을'이라는 뜻을 갖는 오동(烏洞)이 되었다고 한다.

지일(池一)마을

1914년 무풍면 지성리로 편제 된 후 지성1리가 되었다가 1972년 지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모산(池山)은 마을에 못이 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불내'는 부등(扶等)으로 불리웠는데 물이 굽이치며 흐르는 곳이라 하여 한 때는 '분천(汾川)'으로 불리웠다. 불내는 곧 분내(汾川)를 발음 그대로 적은 것이다. 그런데 1981년 다시 옛 지명인 부등으로 바꾸게 되었다. 부등이란 마을의 지형이 서로 무리를 이루며 의지해 있는 형

50)불내(汾川)·모산(池山)·서동(鋤洞).
51)율평(栗坪)·오동(烏洞).

국이라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지일마을에는 1943년 건립된 숭모사(崇慕祠)와 1971년 건립된 분양정사(汾陽精舍)가 있는데, 명칭은 분천(汾川)과 연유된다.

옛적에 '서수골'로 불리운 서동(鋤洞)은 '쥐골'이라 하여 '서동(鼠洞)'이었던 것을 후에 호미 '서(鋤)'로 개칭한 것이라 한다. 마을 건너 동네인 철목리에는 '괘바우', 즉 '묘암(猫岩)'이라 부르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는 고양이마을과 쥐마을에 얽힌 전설이 담겨 있다. 불내 동북쪽에 새로 생긴 새터, 불내 가운데가 되는 양지땀이 있다.

8. 무풍면 철목리(哲木里)

조선시대에는 풍남면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원철목(元哲木)·원들애(溫月)·괘바우(猫岩)·소들(牛坪) 등이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여 무풍면 철목리가 되면서 법정리가 되었다.

동쪽은 지성리와 인접하고 남쪽은 은산리, 서쪽은 신라 때 화랑 4명이 소요했다는 사선암(四仙巖)을 경계로 설천면과 경계를 이루고, 북쪽은 현내리와 인접해 있다.

묘암(猫岩)마을

원철목 남쪽 행길가에 위치하며 지성리의 서동마을과 마주 보고 있는데, 속칭 '괘바우'라 부르며 '고양이 바위'라는 뜻을 가진다. 마을 뒷산에 마치 고양이를 닮은 바위가 있는데, 지성리의 서동마을과 얽힌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신기(新基)마을

옛적에 장터가 있었던 원철목 안담으로 새로 생겨 '새터'라 부르며, 원주이씨 문중의 5현(賢)을 모시기 위해 인종(仁祖) 10년(1632)에 건립한 세덕사(世德祠)와 조선 말기 고종 때의 학자 덕암(德菴) 김진한(金瑨漢)의 유지(遺址)인 고반재(考槃齋)가 있다.

온월(溫月)마을

원철목의 북쪽 너머에 위치하며 '원들애'로 불리는데, 동녘에서 달이 떠올라 밝은 빛을 내면 온 동네가 달빛으로 꽉 차 달빛마저도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원철목 건너들은 옛적부터 소를 키우던 들 또는 뒷산의 지형이 소와 같다고 하여 '소들'로 불리웠는데, 한문으로 표기하면 '우평(牛坪·소마실)'이 되고, '소마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한다.

원철목(元哲木)마을

본래 지명은 '철목(哲目)'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무 '목(木)'으로 바뀌어 철목(哲木)이 되었다. 마을의 앞이 확 트인 데다가 넓은 들이 펼쳐져 있어 멀리 있는 사물도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곳이라 하여 붙인 지명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옛적에 마을의 선비들이 모여 미풍양속(美風良俗)을 지키기 위해 향약(鄕約)을 만들고 이를 제대로 행하기 위해 풍호정(風乎亭)이라는 정각을 건립하고 이 곳에 모였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철사(哲士)들이 모이는 장소라 하여 철목(哲目)이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풍호정은 퇴락해 허물어졌고, 지금은 옛날에 심었던 노거수(老巨樹) 한 그루가 서 있다.

철목리에서 으뜸가는 마을로 1966년까지 무풍장이 마을 앞 새터에 섰다고 하며, 조선 태종 때 무풍현의 마지막 현감(縣監)을 지낸 최영보(崔永甫)의 가족이 머물러 살게 되면서 마을이 번창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의 후손인 죽헌(竹軒) 최활(崔活)의 위패를 모신 죽림사(竹林祠)가 있고, 원앞 정문거리에는 고종 25년(1888) 세운 충신(忠臣) 이만번(李晩蕃)과 효자(孝子) 이만경(李晩景) 형제 정려각(旌閭閣)과 열녀(烈女) 옥산장씨(玉山張氏) 정려각(旌閭閣) 등이 서 있다.

9. 무풍면 현내리(縣內里)

현내리는 현재도 무풍면의 행정중심지로 옛적에는 무산성(茂山城)이 위치했던 곳이다. 신라 이후 조선 초기까지 무산현(茂山縣), 무풍현(茂豊縣) 등의 치소(治所), 즉 읍성(邑城)이 설치되었던 곳이라 하여 현내리라는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풍동면 지역에 속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원촌(院村)·멧골(池洞)·응방(鷹坊)·거문평(巨文坪)·고도(古島)·지동(池洞) 등의 마을을 무풍면 현내리에 편제하고 법정리로 삼았다. '못골'이라 불리는 지동이 옛적에 무풍현의 소재지였다고 하여 이 곳에 면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한다.

그 후 현내1리[52]와 현내2리,[53] 그리고 현내3리[54]로 구획되었다. 1972년 현내1리는 원평으로, 현내2리는 고도로, 현내3리는 상북(上北)으로 개칭되었다. 1981년 상북이 상하(上下)와 북리(北里)로 나뉘게 되어, 모두 4개 행정분리로 나뉘어져 있다.

이 곳은 대덕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가는 남대천을 끼고 있으며, 동쪽은 임진왜란 때의 격정장이던 부항령(釜項嶺)을 경계로 경북 김천시(金川市)와 도계를 이루고, 서북쪽은 '두둘기'라고 부르는 두평(斗坪)마을 뒷산에서 설천면과 면계를 이루며, 남쪽은 철목리와 금평리에 인접해 있다.

고도(古島)마을

고도는 현내리의 한복판에 위치하여 지형상 섬과 같이 생긴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옛적에는 사방이 냇물로 둘러 쌓여 마치 섬을 이룬 것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1914년 무풍면 현내리로 편입된 후 옛 '무풍현터'로 전해오는 못골(池洞)과 새로 생긴 새터(新村)와 합해 현내2리가 되었다. 그 후 1972년 행정분리의 명칭이 자연마을 이름으로 바뀌게 되면서 고도라 부르게 되었다. 이와 함께 고도 동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창고가 있었다는 시장(市場·장터·창터), 고도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원집이 있었다는 원앞(院村)이 있었다.

마을에는 오래 전부터 영남과 문물을 교역하던 무풍장(茂豊場)이 위치하고 있으며, 치안을 맡고 있는 무풍파출소와 무주농협이 있고, 금평천(金坪川) 개울 건너 성재 아래에는 1922년 무창보통학교로 시작했다는 무풍초등학교와 1952년 설립된 무풍중학교, 1985년 무풍중학교와 병설된 무풍고등학교가 위치하여 교육의 요람이 되고 있다.

북리(北里)마을

본래 현내의 웃말(上里), 아랫말(下里)과 함께 풍동면 응방(鷹坊)에 속했던 마을인데, 1914년 무풍면 현내리로 편제된 후 현내3리로 구획되고 종전의 응방(鷹坊)이 상하리(上下里)와 북리(北里)로 나뉘면서 자연마을의 이름이 되었다. 그 후 1972년 '상북

52)원촌·거문들(후에 文坪)·두둘기(斗坪).

53)고도·지동.

54)응방.

(上北)'으로 개칭되었는데, 1981년 다시 '상하'와 '북리'로 분리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내의 북쪽에 위치해 '북리'라 부르는데, '뒷땀'이라고도 한다. 또한 북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산두(山斗·산디)가 있다.

마을에는 조선 순조(純祖) 21년(1821)에 건립된 백산서원(柏山書院)이 있고, 서원의 타진사(妥眞祠)에는 세종 때 삼정승(三政丞)을 두루 거친 문효공(文孝公) 하연(河演)과 그 부인 성산이씨(星山李氏)의 영정(影幀)이 봉안되어 있다.

상하(上下)마을

현내리 가운데 있으며, 본래 '응방(鷹坊)'의 '웃말'과 '아랫말'을 통칭한 지명이다. 응방은 마을의 지세가 마치 큰 매 한 마리가 앉아있는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또한 상하리 북쪽에 새로 생긴 마을로 새터(신촌)가 있다.

원평(院坪)마을

전라도와 경상도를 넘나들던 관원(官員)들의 숙소였던 무제원(茂梯院)이 설치된 곳이라 하여 '원(院)앞' 또는 '원촌(院村)' 등으로 불리워 왔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풍면 현내리로 편입된 후 현내1리가 되었고, 1972년 행정분리의 명칭이 자연마을 명칭으로 바뀌게 되면서 원평이 되었다.

마을에 있는 '거문들(巨文坪)'은 본래 '검은 돌'이라는 뜻의 '흑석(黑石)'이라 했는데, 언젠가 '거문들'로 변했고, 한문표기를 할 때 '거문평(巨文坪)'으로 쓰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거문들을 '문평(文坪)'으로, 두들기(斗洞)를 '두평(斗坪)으로 고치고 자연마을로 삼았다고 한다.

원평마을에는 조선시대 설치된 무제원 외에 헌종(憲宗) 15년(1849), 마을에 살던 흥양이씨 문중에서 자손들의 교육을 위해 건립했다는 육영재(育英齋)가 있다. 육영재는 현재의 무풍초등학교의 전신(前身)이 된다. 즉, 1922년 이 고장 젊은이들의 교육을 위해 개설된 사립(私立) 무창보통학교(茂昌普通學校)가 공립학교(公立學校)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의 무풍초등학교로 발전하는데, 육영재를 근간으로 한 것이다.

제3절 설천면(雪川面)

1. 개요

설천면은 본래 마한의 변진, 백제의 적천현에 속했다.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었다고 하는 '라제통문(羅濟通門)' 아래로 흐르는 개울은 양국의 군사들이 싸우다가 숨진 시체들로 온 개울을 메웠고, 피비린내를 맡고 모여든 파리 떼들이 들끓었던 곳이라 하여 '파리소'라 부른다는 전설이 전한다.

설천면은 통일신라 때에는 단천현, 고려 때는 주계현에 속하면서 전주(全州)와 청주(靑州) 또는 상주(尙州)에 속하였다. 조선 초에는 주계현에 소속되어 무풍현 또는 금산군에 속하던 횡천면과 경계를 이루었다.

조선 태종 14년 무풍현과 주계현이 통폐합되면서 설천은 '무주현'에 소속되어 풍서면(豊西面)[55]이 되었다. 그 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종전의 신동면(新東面·身洞面)이던 신풍면(新豊面)의 기곡리(基谷里)·길산리(吉山里)·청량리(淸凉里)와 종전의 금산군에 속했던 구천동 지역, 즉 횡천면의 삼공리(三公里)·심곡리(深谷里)·두길리(斗吉里)가 통폐합되어 설천면으로 편제되었다.

그 후 1963년 면 출장소 설치조례(面出張所設置條例)가 공포되어 삼공리(三公里)에 구천출장소가 설치되는데, 1998년 11월 6일 폐지되었다. 2003년 현재, 설천면의 행정구역은 10개 법정리(法定里),[56] 행정상 25개 리(分里), 75반(班), 52개 자연마을로 구획되어 있다.

설천면의 지명 유래는 2가지 설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선 영조 때의 문관(文官) 이봉상(李鳳祥)이 이 곳에 살면서 자신의 호를 설천(雪川)이라 한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이 고장에 9천명의 승려들이 모여 수도하였는데, 이들의 밥을 짓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쌀을 씻던 하얀 쌀뜨물이 계곡을 따라 온통 눈과 같이 하얗게 흘러내렸다 하여 '설천'이라는 지명이 생겼다는 것이다.

---

55)지금의 소천리(所川里)·대불리(大佛里)·미천리(美川里)·장덕리(長德里).
56)기곡·길산·청량·소천·대불·미천·장덕·두길·심곡·삼공.

2. 설천면 기곡리(基谷里)

조선시대에는 신풍면(新豊面·新東面·身東面)의 소재지였다. 지역에서는 가장 좋은 터라 하여 '터일'이라 불리 웠는데, 후에 기산촌(基山村)이라 불리 웠다.

신풍면은 옛적에 무주부(茂朱府) 관아(官衙)의 동편에 새로 생긴 고을이라 하여 신동면(新東面 또는 身東面)이라 하여 붙인 지명이라고 한다. 후에 신풍면으로 개칭되었고, 1914년 장백리를 제외한 종전의 신풍면 일원이 설천면으로 편제되는데, 그 때 기곡은 '문바우'로 부르던 문암(門岩)마을과 함께 같은 행정 구역인 기곡리(基谷里)로 편제 되었다.

기곡리는 동북쪽에서 흘러오는 남대천이 마을 앞을 지나 서북쪽으로 곡류한 후 무주쪽으로 흘러가는 천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제원찰방(濟原察訪)'에 속한 '소천역(所川驛)'과 연결되는 '승장원(勝長院)'이 설치되었다.

처음 이 곳에 들어와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한 사람은 학자로 이름이 높았던 삼암(三巖) 박이겸(朴以謙)으로 전해 오는데,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는 밀양박씨 동족마을이다. 기곡마을 앞을 흐르는 남대천 건너 삼전산(森田山) 남록(南麓)에는 순조 12년(1812)에 건립된 박씨효열오정각(朴氏孝烈五旌閣)이 있다.

기곡 동쪽 계곡에 위치한 문필봉(文筆峰) 계곡에는 옛적부터 '문바우'라 부르는 문암마을이 있다. 마을 동구에 마치 문(門)같이 생긴 2개의 커다란 바위가 있어 '문암(門巖)'이라 불렀는데, 처사 황인배(黃仁培)가 바위 중 하나는 붓같이 생겼고 다른 하나는 벼루를 닮았다고 한 뒤부터 '문암(文巖)'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터일 가운데를 이루는 마을로 삼암(三岩), 문바우 동쪽에 새로 생긴 마을로 신촌(新村·정착지)이 있다.

기곡리 동쪽은 길산리와 인접하고 남서쪽은 무주읍과 경계를 이루며, 북쪽은 남대천 건너 삼전산 너머로 충북 영동군과 도계를 이룬다. 여기에는 1939년 설천공립심상소학교(雪川公立尋常小學校) 간이학교(簡易學校)로 설립된 후 1944년 초등학교로 승격된 기곡초등학교(基谷初等學校)가 있었다.

3. 설천면 길산리(吉山里)

흙이 너무 질므로 '질번지' 또는 '길산리'라 하는데, '길산'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에 높은 산이 별로 없고 야산(野山)과 들로 이루어진 길한 땅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신풍면에 속했고, 1914년 설천면으로 편제되면서 종전까지 신촌(莘村)에 속하던 '질번지'와 '주막담' 그리고 '지전(芝田)'마을을 같은 행정구역으로 하여 길산리라 하고 법정리로 삼았다. 그 때 질번지는 하길산(下吉山)으로, 주막담은 상길산(上吉山)으로 개칭되었으며 지전마을과 함께 3개의 자연마을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행정분리 명칭을 자연마을 단위로 바꾸게 되면서 '길산'이라 했는데, 1981년에는 하길산과 정착지를 신길(新吉)마을로 구획하고, 상길산과 지전을 상길(上吉)로 구획하여 2개의 행정분리로 나뉘게 되었다. 그 때 상길마을의 상길산(上吉山)은 신계(新溪)라는 새로운 자연마을 지명으로 부르게 되었다.

길산리 동쪽은 무주목을 경계로 청량리와 경계를 이루고, 남쪽은 청량산 너머로 적상면과 면계를 이룬다. 서쪽은 기곡리와 인접하는데, 북쪽은 남대천을 사이에 두고 충북 영동군과 도계를 이룬다.

상길(上吉)마을

길산리에서 위에 있고 하여 상길이라 하며, 옛적에는 '신촌(莘村)'으로 '주막담'이라 불리던 상길산(上吉山)과 지전(芝田)이 합해진 마을이다.

1914년 설천면 길산리로 편제 되었으며, 1972년 행정분리의 명칭을 자연마을 단위로 바꿀 때 '길산'으로 부르다가 1982년 군조례 개정으로 신길과 분리되면서 상길이라는 지명의 행정분리가 되었다.

그 때 상길산[57]은 마을 뒷산에서 발원하여 흘러내리는 개울물이 계곡을 이루고 있는 마을이라 하여 신계(新溪)로 개칭되었고, 지전(芝田)은 옛적부터 지초(芝草)가 많이 나던 곳이라 한다.

---

57)주막담·신기(新基)·층골(層谷). 새터(신기·주막땀·층골·층곡)은 하길산 서쪽에 있는 마을로 한국전쟁 후 정착민이 새로 이루었는데, 전에 북쪽에 주막땀이 있었고, 남쪽에 층골 또는 층곡이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 한 마을이 되었다.[지명총람]

신길(新吉)마을

신길은 옛적에 '질번지'로 부르던 하길산(下吉山), 질번지의 남쪽 산록에 정착하면서 이루어진 '정착촌(지)'과 같은 행정구역으로 구획된 마을이다. 질번지는 조선시대에는 신풍면의 신촌에 속했던 마을로 지전마을을 돌아 나온 남대천이 마을에 닿아 감돌아 나가면서 질펀하게 너른 땅을 이루고 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신길은 상길산의 아랫 마을이라 하여 '하길산'이라 불리웠는데, 1981년 상길과 분리되면서 '신길(新吉)'이라는 새로운 지명을 붙이게 되었다.

4. 설천면 대불리(大佛里)

대불리는 설천면의 최북단에 위치한 해발 1,242m의 민주지산(岷周之山)을 사이에 두고 충청북도와 도계를 이루는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풍서면(豊西面)에 속했는데, 1914년 설천면 대불리로 편제된 후 대불1리[북동(北洞)에 속했던 외북(外北)마을)와 대불2리[내북(內北)과 불대(佛垈)]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대불1리를 외북으로 개칭하고, 대불2리는 내북으로 개칭하였다.

대불리에는 옛적부터 불교와 관계되는 불대(佛垈), 불당골(佛堂谷), 중고개(中峴)와 같은 지명이 전해오는데, 계곡 어딘가 알 수 없는 땅속에 묻혀있는 부처님이 땅위로 나올 때는 극락정토(極樂淨土)가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대불리라는 지명도 이에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대불리 동쪽은 미천리(美川里)와 인접하고, 남쪽은 장덕(長德), 서쪽은 소천리와 이웃하며, 북쪽은 민주지산 능선을 따라 충북 영동군과 도계를 이룬다.

내북(內北)마을

내북은 본래 '불대(佛垈)'와 전에 북동(北洞)에 속했던 '내북동(內北洞)', 그리고 중고개인 '중현(中峴)'이 합해진 마을이다. 1914년 설천면 대불리로 편제된 후 대불2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내북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내북에 있는 불대와 불당골(佛堂谷)에는 옛적에 사찰이 있었던 곳이라 전해오는데, 불대마을 서쪽 계곡의 불당골에는 절터로 보이는 건물지의 기단석과 주초석, 그리고 탑신(塔身)·옥개석(屋蓋石)·와편(瓦片) 등이 출토되어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었음

을 보여 준다. 내북동 안골짜기 중고개 정상에는 시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삼두(三頭) 형상을 하고 있는 마애불상(磨崖佛像)이 석기봉(石奇峰) 석벽(石壁)에 새겨져 있다.

마을 뒷산인 민주지산은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소백산맥의 관문으로 충북과 전북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어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계곡을 이루고, 곳곳에 아름다운 담(潭)과 소(沼)를 만들고 있다. 계곡의 물은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미천리에서 내려오는 미대천(美大川)에 유입된 후 서쪽으로 흘러 남대천에 합류한다.

이와 함께 안북동 남쪽 냇가에 있는 들땀, 중고개 북쪽을 이루는 상중현(上中峴·웃중고개), 안북동 북쪽 산밑을 이루는 양지땀, 안북동 동남쪽에 있으며 비탈진 벌판이 길고 넓은 진벌(陣野·長坪) 등이 있다.

외북(外北)마을

본래 설천의 북쪽에 있다 하여 북동(北洞) 또는 북리(北里)로 불리웠는데, 1914년 설천면 대불리로 편제된 후 내북동(內北洞)과 분리되면서 외북이라 했는데, 뒤에 대불1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옛 지명인 외북으로 바뀌었다. 외북 남쪽에 새로 된 마을로 새터가 있다.

5. 설천면 두길리(斗吉里)

두길리는 본래 구천동의 심곡과 삼공리 그리고 무풍면의 삼거리·덕지리와 함께 금산군 횡천소(橫川所)에 속했는데, 1674년 무주가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면서 무주부(茂朱府)로 편입되었다. 그 뒤 1914년 설천면 두길리로 편제되었는데, 그 때 두길1리[58]와 두길2리,[59] 그리고 두길3리[60]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두길1리는 '하두(下斗)'로, 두길2리의 벌한·구산·방재(芳峙)는 '구산(龜山)'으로, 두길3리는 마전과 월현 그리고 두길2리에 속했던 와석을 합하여 '월현(月峴)'으로 개칭되었다. 그런데 1981년 하두마을 중 개울 건너에 있는 신동(新洞)·정착촌(定着地)·양지담을 합해 신두(新斗)로 분리시킴으로써 두길리에 속한

58)상두(上斗)·하두(下斗).
59)벌한(伐寒)·구산(龜山)·와석(臥石).
60)마전(麻田)·월현(月峴).

행정분리는 모두 4개 마을이 되었다.

두길리라는 지명은, 동쪽의 거칠봉(居七峰)에서 나제통문(羅濟通門)이 있는 석연산(石泯山)에 이르기까지 북으로 뻗어 내린 능선과 서쪽의 성지산(聖芝山)에서 백운산(白雲山)을 거쳐 라제통문으로 뻗어내린 능선이 마치 곡식을 담는 거대한 말(斗)과 같이 생긴 길한 땅이라고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61)]

두길리는 덕유산(德裕山) 국립공원의 관문으로 구천동에서 내려오는 맑고 찬물이 관류하고 있어 아름다운 경승(景勝)을 이루고 있는데, 이 곳에는 구천동 33경 중 제1경인 나제통문을 비롯하여 은구암(隱龜岩), 청금대(聽琴台), 와룡담(臥龍潭), 학소대(鶴巢台), 일사대(一士台), 함벽소(涵碧沼), 가의암(可意岩), 추월담(秋月潭), 만조탄(晩釣灘) 등 10개소나 되는 명소(名所)가 절경을 이루고 있다.

두길리 동쪽은 사선암(四仙岩) 능선을 따라 무풍면과 면계를 이루고, 남쪽은 거칠봉에서 심곡리와 인접하며, 서쪽은 성지산 능선으로 적상면과 경계를 이룬다. 북쪽은 백운산과 석견산을 사이에 두고 청량(淸凉)·소천(所川)·장덕리(長德里)와 인접한다.

구산(龜山)마을

구천동에서 흘러 내려오는 원당천(元唐川)이 마을을 휘어 감고 돌아 나가면서 마치 거북과 같은 형국을 이룬다고 하여 옛적부터 구산이라 불렀다고 한다. 또한 구산마을 뒷산이 마치 큰 거북과 같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하는데, 마을 뒤편 개울가에는 숨어있는 거북과 같은 형상의 바위가 있어 '은구암(隱龜巖)'이라 부른다.

1914년 설천면 두길리로 편제된 후 벌한·방재·와석과 함께 두길2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행정분리의 명칭을 자연마을 명칭으로 바꾸게 되어 구산이라 부르게 되었다. 1981년 군조례가 개정되면서 전에 같은 마을에 속했던 와석이 월현마을로 분리되어 3개의 자연마을로 구획되어 있다.

구산의 동남쪽 깊은 계곡에 자리한 벌한(伐寒)은 신라 때의 화랑 4명이 소요하던 곳이라 전해오는 사선암(四仙巖)의 서록(西麓)에 위치하고 있는데,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일곱 개의 산봉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워 찬사를 아낄 수 없는 곳이라 하여 칠찬(七讚)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이 북향국(北向局)이라 겨울철에는 강한 서북

61)본래 금산군의 횡천면 지역으로 두 갈래의 길이 있으므로 두길이라 하였는데, …[지명총람]

풍이 불어오는 추운 곳인데도 추위를 이겨내며 사람들이 살고 있으므로 추위를 물리친다는 뜻에서 벌한(伐寒)이라 했다고 한다. 벌한마을 서쪽에 위치한 거칠봉(居七峰)은 일곱 신선이 있는 곳이라 해서 붙인 이름이라 하며, 동쪽의 청룡한(靑龍寒)은 벌한마을 왼편에 위치하여 좌청룡(左靑龍)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벌한과 구산마을 중간에 있는 방재(芳峙)는 본래 무풍을 넘어 다니던 방재라는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 밑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산 서북쪽에 새로 생긴 새터(新基)가 있다.

신두(新斗)마을

신두는 라제통문이 위치한 마을로 본래 하두(下斗)마을에서 분리되었으며, 1914년 설천면 두길로 편제되었고, 뒤에 하두마을과 함께 두길1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다시 하두마을이라 하였는데, 1982년 군조례 개정 때 하두마을에서 분리되어 신두라는 새로운 지명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 때 신두마을에 구획된 자연마을은 백운산 기슭에 자리잡아 새로 형성된 신동(新洞), 그리고 양지담과 1954년 정착민으로 신설된 정착지(定着地) 등 3개 마을이다. 정착지는 라제통문에서 구천동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다.

월현(月峴)마을

월현은 본래 '다르재'라 부르던 월현과 '눈들' 또는 '눈돌'이라 부르던 와석(臥石), 그리고 삼바실로 부르던 마전(麻田)마을로 구획되었다.

1914년 설천면 두길리로 편제 된 후 마전과 함께 두길3리로 구획되었고, 그 뒤 1972년 월현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월현과 마전마을 뿐이었다. 그런데 1981년 군조례 개정으로 종전의 구산마을에 속하던 와석이 편입되어 3개의 자연마을로 늘어나게 되었다.

월현은 달이 넘어가는 고개, 즉 '달재'라는 뜻의 '다르재'로 불렀는데, 한문으로 표기하면서 월현(月峴)이 되었다. 와석(臥石)은 누워있는 돌이라는 뜻인데 옛적부터 돌이 많기로 유명한 마을에는 무수한 돌들이 모두 누워 있어 '눈돌'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옛적부터 '삼바실'로 부르던 마전(麻田)은 삼(大麻) 농사를 짓던 삼밭이 있었

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삼바실 서북쪽에 자리한 산막실, 산막실 서북쪽에 자리한 외야미 등이 있다.

월현에는 구천동 33경 중 일명 수성대(水城台)라 부르는 일사대(一士台)가 유명하고, 용이 누워있는 형상을 한 와룡담(臥龍潭), 학들이 춤을 추는 학소대(鶴巢台), 석벽에 잠긴 함벽소(涵碧沼), 바위가 반반하여 쉬기 좋은 가의암(可意岩), 가을달도 물에 잠긴다는 추월담(秋月潭), 낚시를 드리우면 해진 줄도 모른다는 만조탄(晩釣灘) 등이 있는데 이곳은 구천동에 있는 구천명의 승려들이 밥을 짓기 위해 씻던 쌀뜨물이 이곳까지 흘러왔다고 하여 일명 '뜨물재'라고도 부른다.

하두(下斗)마을

라제통문이 위치한 신두(新斗)마을과 함께 구천동 관문을 지키던 마을로 1914년까지는 횡천면에 속했고, 그 후 설천면 두길리에 편제되어 신두마을과 함께 두길1리에 속하였다. 1972년 다시 하두마을로 개칭되었고, 1981년에 개울 건너편의 신두마을과 분리되었다. 하두라는 지명은 횡천면에 속할 당시, 상두(上斗)의 아랫 마을이라 하여 붙였다고 한다.

하두에는 눈들 서남쪽에 위치하며 고사미(너삼)가 많이 난다는 고사미골, 구산 북쪽에 위치하여 고지(곶)로 되어 있는 고지(공지담), 수성대 남쪽에 있는 마을로 광무 원년(1897)에 연재 송병선이 근처 경치를 보고 무이구곡(武夷九曲)이라 했다 하여 붙여진 무르내(무이), 무르내 북쪽에 있으며 계류가 폭포처럼 절경을 이루고 있다는 수성대(水城臺), 공지담 북(양지)쪽에 있는 양지편(陽地便) 등이 있다.

6. 설천면 미천리(美川里)

미천리는 설천면의 최동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상·전라·충청도를 나누는 삼도(三道)의 분기점인 삼도봉(三道峰)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삼도봉은 고종 33년(1896) 전국의 8도를 13도로 개편할 때, 충북 영동군, 경북 금릉군(현 김천시), 전북 무주군의 경계를 이루게 되었다.

이 지역은 옛적부터 피난지로 이름이 난 곳으로 국난이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정착하면서 동네를 이루었다고 전한다. 사람들은 이 곳의 산림(山林)이 울창

하고 흐르는 계곡의 물이 너무나도 맑고 아름다워 미래(美崍)라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름다운 내(川)가 흐르는 곳이라 하여 '미내(美川)', 즉 미천이라 개칭했다고 한다.

다른 한편 이 곳에 '불대(佛垈)'나 '불당골(佛堂谷)'과 같은 지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곳의 지형이 마치 미륵(彌勒)의 형상을 하고 있어 언젠가는 미륵이 올 땅이라 하여 '미래(彌來)'라 했다고 한다. 또한 미래라 부르는 마을 뒤 골짜기에는 '보살골'이라 부르는 '보사골(保沙洞)'이 있다.

미천리에는 자연마을로 아랫미래(下美), 웃미래(上美·中美), 그리고 '보사골' 외에 석기봉(石奇峰) 아래 깊은 계곡에 위치한 '안골'(內洞·도토마리[62]골·上美)이 있고, 아랫미래 남쪽에는 '장자터'로 부르던 '장자촌[長子洞·壯子洞·村)'이 있으며, 이곳에서 무풍으로 넘어가는 골짜기의 재 밑에 있다는 뜻으로 '잿말'이라 부르는 옹기점이 있었던 '점말'(店村)이 위치하고 있다.

해발 1,176m의 삼도봉 기슭에 위치한 미천리의 동쪽은 경북, 북쪽은 충북과 도계를 이루며, 남쪽은 무풍면과 경계를 이룬다. 서쪽은 대불리와 장덕리가 이웃 한다.

7. 설천면 삼공리(三公里)

삼공리는 설천면의 최남단에 위치하며 경남과 도계를 이루는데, 본래 '구천동(九千洞)'으로 더욱 유명하다. 삼공이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전해지는 바 없으나, 동남쪽의 삼봉산(三峰山)에서 발원하고 상오정(上吾井)을 거쳐 나온 원당천(元唐川) 계곡과 서남쪽의 향적봉(香積峰)에서 발원하여 흘러나온 구천동천(九千洞川)이 합류하여 배방쪽으로 흘러가면서 땅이 세(三) 곳으로 공변(公)되므로 삼공(三公)이라 했다고 한다. 다른 한편 '곰살미'[63]라고도 한다.

조선시대 금산군에 속할 때에는 횡천소(橫川所)[64]에 편제되었으며, 1674년 이후에는 무주도호부 횡천면으로 편제되어 중심지가 되었다. 그 당시 횡천소나 횡천면의 관할구역은 덕유산 향적봉 동편의 구천동 일대와 동남쪽 삼봉산 서북쪽의 상오정과 덕지

62)베를 짤 때 날실을 감는 틀. 베틀 앞다리 너머의 채머리 위에 얹어 둔다.

63)곰살미 : 곰이 살았으므로 '곰살미'라고도 한다.

64)따라서 이 곳에는 오늘날의 동(洞)이나 리(里)에 해당되는 방(坊)이라는 행정구역이 설정되어 헌방(南犬坊), 배방(培坊), 등방(登坊), 등 삼방(三坊) 있었다고 전해 오는데, 그 중에서 이 지역은 헌방에 속했다고 한다.

리 일대, 그리고 북쪽의 나제통문까지 방대한 면적이었다고 한다.

1914년에는 설천면 삼공리로 편제 되었는데, 그 당시 이 곳에는 '삼공(三公)'과 '당골(月谷)'마을 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1908년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공포된 삼림법(森林法)에 의해 총독부 관할이 되었고, 1912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북해도(北海道) 제국대학(帝國大學)의 연습림(練習林)으로 사용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다.

1960년 구천동이 관광지로 개발되고, 1975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급격한 성장을 보여 1981년 삼공리는 '원삼공(元三公)'과 '보안(保安)'마을로 나뉘게 되었다. 그 후 1986년 군조례 개정으로 원삼공마을에 속했던 관광단지를 '덕유(德裕)'라는 지명을 붙여 분리, 현재의 삼공리는 3개의 행정분리로 나누어져 있다.

옛적 불교 전성기 때에는 골짜기에 무려 14개의 사암(寺庵)이 있었고, 불도를 닦는 성불공자(成佛功者)가 구천명이나 되어 '구천둔(九千屯)'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구천동(九千洞)'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 곳의 동쪽은 무풍면과 경계를 이루고, 남쪽은 뭇봉(池峰)을 사이에 두고 경남 거창군과 도계를 이룬다. 서쪽은 향적봉 능선을 따라 안성면과 면계를 이루고, 북쪽은 심곡리와 인접해 있다.

덕유(德裕)마을

설천면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덕유산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덕유'라는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 본래 삼공리 중에서 '당골'이라 부르던 월곡(月谷)과 함께 취락이 형성된 곳이나 국립공원 승격 후 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마을로 형성되었다. 이 곳에는 월곡, 인월담, 신대(新垈) 등의 자연마을이 있는데, 월곡(당골·월골)은 삼공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지대가 높아 달이 뜬 것을 제일 먼저 본다고 한다.

1914년 설천면 삼공리로 편제 되었고, 원삼공마을과 함께 단일 행정 분리인 삼공마을에 구획되었다. 한국전쟁 때에는 전쟁의 쓰라린 상처를 입었던 곳이나 이후 구천동의 절경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관광지로 개발되었다. 1975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취락인구가 늘어났고, 1981년 군조례 개정으로 보안과 원삼공으로 나뉘었는데, 그 때 덕유는 삼공마을에 속한 인월담(印月潭)으로 불렸고, 1986년 원삼공에서 분리되어 덕유마을이 되었다.

마을은 구천동 33경 중 월하탄(月下灘), 인월담(印月潭), 사자담(獅子潭), 청류동(淸

流洞), 비파담(琵琶潭), 다연대(茶煙台), 구월담(九月潭), 금포탄(琴浦灘), 호탄암(虎灘岩), 청류계(淸流溪), 안심대(安心台), 신양담(新陽潭), 구천폭(九千瀑), 백련담(白蓮潭), 연화폭(蓮花瀑), 이속대(離俗台), 백련사(白蓮寺), 덕유산(德裕山)에 이르는 19경의 명소가 어우러진 천혜(天惠)의 명승지이다.

덕유마을의 백련사 골짜기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백련사지(白蓮寺址) 등이 있고, 해발 1,614m의 덕유산 정상인 향적봉 주변에는 주목군총(朱木郡叢)이 장관을 이룬다. 또한 칠봉산(七峰山) 아래는 덕유대야영장(德裕台野營場)이 있고, 그 아래 관광단지에는 덕유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을 비롯한 구천동 우체국, 주차시설 등이 자리하고 있다.

보안(保安)마을

본래 마을 건너편에 있는 들의 농사를 위해서 막은 보(洑)의 안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보안(洑內)'이라 했는데, 1981년 군조례 개정 때 한문으로 표기하면서 '보안(保安)'으로 개칭되었다.

이 곳은 옛적에 향교(鄕校)가 있던 곳이라 하여 '향교골'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향교골로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천연기념물 반송이 위치하고 있다. 반송은 구천동을 상징하는 나무라 하여 '구천송(九千松)'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을에는 1934년 설천공립보통학교(雪川公立普通學校) 부설(附設) 심곡간이학교(深谷簡易學校)로 개설되었다가 1939년 초등학교로 승격된 구천초등학교가 위치한다. 그 옆 길가에는 구한말 일본군과 싸우다가 잡혀 옥고를 치르다 숨진 의병대장(義兵大將) 문태서(文泰瑞) 장군의 순국비(殉國碑)가 건립되어 있다.

삼공(三公)마을

삼공은 마을 이름보다 구천동으로 더욱 유명하다. 옛적에는 국가의 특수 행정구역인 횡천소(橫川所)가 설치되어 있던 행정의 중심지였다. 1914년 설천면 삼공리로 편제되어 단일 행정분리가 되었고, 1981년 군조례 개정 때 보안마을과 분리되었으며, 1986년에는 구천동의 관광단지인 덕유마을과 분리되었다.

이 지역은 삼거리에서 내려오는 원당천과 구천동 계곡에서 나오는 구천동천이 합

류하면서 땅을 세(三) 곳으로 공변(公)하여 삼공이라는 지명을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삼공에는 금포정이 골 밑에 있는 마을로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을 이루는 금포정이(琴抱亭), 삼공 동북쪽에 있으며 전에 군사(軍士) 5명이 나왔다는 오절리(五切里), 삼공 북쪽에 있었던 헌방 등이 있다.

구천동 33경 중 거울처럼 맑은 물이 담긴 수경대(水鏡台)가 위치한 곳으로 1963년 설치되었다가 1998년 폐지된 설천면 구천출장소(九千出張所)와 보건진료소 등의 기관이 있었다.

8. 설천면 소천리(所川里)

현재 설천면소재지로 본래 지명은 '삼촌(三村)'인데, 제원찰방(濟原察訪)에 속했던 소천역(所川驛)이 있던 곳이라 하여 '소천(所川)'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설천(雪川)' 또는 '역말(驛村)'로 더 불리웠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덕유산에서 발원한 원당천(元唐川)과 대덕산에서 발원한 남대천이 합류하고, 동북쪽의 삼도봉과 민주지산에서 발원한 미대천이 합류하면서 큰 내를 이루고, 서쪽으로 곡류(曲流)하는 냇가에 위치하여 내(川)가 있는 고을이라 하여 소천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풍서면(豊西面)[65]에 속했는데, 1914년 라니와 이남을 같은 행정구역으로 하는 설천면 소천리로 구획되면서 면소재지가 되었다. 그 후 소천1리[66]와 소천2리,[67] 그리고 소천3리[68]로 구획되었다. 1972년 자연마을 명칭으로 바뀌게 되어 양지와 평지, 그리고 이남으로 개칭되었는데, 1981년 양지가 내양지와 외양지로 나뉘고 평지는 상평지와 하평지로 나뉘어 이남마을과 함께 5개의 행정분리로 나뉘게 되었다.

이 곳에는 조선시대 공문서를 지방관서로 전달할 때, 또는 중앙관리들의 공무수행을 위한 여행, 그리고 지방 관리들의 부임 등에 필요한 마필(馬匹)을 구비해 두었던 소천역이 있었다. 소천역에는 역리(驛吏) 60인, 노(奴) 5인, 비(婢) 4인, 말(馬) 10필 등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여행자 숙소로 이용되던 원(院)으로 풍동면(豊東面)[69]의

---

65)설천(雪川), 라니(羅泥), 불대(佛垈), 북동(北洞), 이남(伊南), 덕곡(德谷), 미천(美川).
66)석연산(石泯山)=나제통문. 이남(伊南).
67)양지(陽地).
68)평지(平地)·라니(羅泥).
69)현 무풍면 현내리 원촌(院村).

무제원(茂悌院), 신풍면[70]의 승장원(勝長院), 서면[71]의 소이원(召爾院), 유가면[72]의 유등원(柳等院), 부남면[73]의 기평원(岐平院) 등으로 이어져 금산의 제원찰방으로 연결되었다.

소천리의 동쪽은 대불리와 인접하고, 남쪽은 라제통문에서 장덕리와 두길리가, 그리고 서쪽은 청량리와 인접하며, 북쪽은 남대천과 오봉산 능선을 따라 충북 영동군과 도계를 이룬다.

내양지(內陽地)마을

1914년 설천면 소천리로 편제된 후 외양지마을과 함께 소천2리로 구획되었다. 그 뒤 1972년 행정분리의 명칭을 자연마을 이름으로 바꾸게 되어 양지라는 지명을 붙였다. 양지란 양지편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인데, 1981년 외양지와 내양지로 나뉘게 되었다. 그 때 양지말(陽地村) 안담과 하그재 넘어 하그동(鶴於峙)을 같은 행정구역으로 구획하고, 내양지라는 지명을 붙여 사용하였다. 양지말 동남쪽에 새로 생긴 마을로 새말(新村)이 있다.

마을에는 조선 영조 때의 학자 설계(雪溪) 박치원(朴致遠)과 문중의 효자 운곡(雲谷) 박권(朴權), 운촌(雲村) 박삼(朴森) 형제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설호사(雪湖祠)가 있는데, 사당은 철종 11년(1860) 그 후손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외양지(外陽地)마을

외양지는 양지말(陽地) 중 바깥에 해당된다. 1914년 설천면 소천리로 편제된 후 내양지마을과 함께 소천2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양지편이라는 뜻의 양지였는데, 1981년 내양지와 외양지로 나뉘게 되었다. 그 때 두길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재궁(齋宮)과 함께 같은 마을로 구획되었다.

외양지는 설천면의 행정 중심권으로 일제 강점기 이후 새롭게 형성된 시가지를 한 몸에 안고 있어 설천면사무소를 비롯하여 설천파출소와 우체국, 농협 등 주요 행정관

70)현 설천면 기곡리.
71)현 무주읍 대차리.
72)현 적상면 방이리 고방.
73)현 부남면 가당리 가정.

서와 1922년 설립된 설천초등학교, 1938년 포교당으로 시작한 관음사(觀音寺) 등이 자리하고 있다.

마을은 조선시대 제원찰방에 속한 소천역이 있던 지역으로, 옛적에 이 곳을 지나던 행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떡전거리'가 지명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마을 어귀에는 고종 28년(1891)에 건립한 효자 박권·박삼 형제와 열녀 김해김씨의 효열각이 현존한다.

이남(伊南)마을

이남은 라제통문이 있는 석견산(石帽山)을 가운데 두고 동서로 위치한 마을이다. 본래 라제통문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니미' 또는 '게너머'라고 불러왔는데, 저 산 너머 동네 또는 이 너머 마을이라는 뜻으로 부르게 된 것인데 한자로 표기하면서 이남으로 쓰게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설천에서 볼 때, 저 산 넘어 남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지형이 게의 형국이라 하여 게네미라 했다고 하며, 앞산의 모양이 잉어 꼬리와 같다고 하여 이미리(鯉尾里·伊南)라 불렀다고 한다.[74)]

석견산을 사이에 두고 동쪽의 기니미와 서쪽의 '새말(新村)'이 같은 마을에 속해 있으면서도 동서(東西)의 언어가 달라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의 국경을 이루던 곳임을 증명하고 있으며, 여기부터 국립공원덕유산공원 구역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양지말 동북쪽에 있으며 주위의 숲이 좋다는 나림이(나리미·羅林·羅伊味), 새말 뒤쪽에 있는 뒤잿금(後峙坪) 등이 있다.

구천동 33경 중 제1경(第一境)에 속하는 라제통문 아래로 흐르는 원당천이 잠시 멈추며 소(沼)을 이룬다. 이 곳은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의 군사들이 싸우다가 죽은 시체들이 쌓여 파리들이 들끓었던 곳이라 하여 파리소(蠅沼)라 부르는데, 조선 영조 때의 효자 이만경(李晩景)이 추운 겨울철에 물고기를 구하고자 애를 태우고 있을 때 얼었던 냇물이 깨지며 잉어가 뛰어나와 부모에게 효를 다하게 되었다는 빙어약소(氷魚躍所)의 전설이 전한다.

상평지(上坪地)마을

본래 평지말(平地)로, 평지마을 중 웃마을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

74)지명총람.

이다. 1914년 설천면 소천리로 편제된 후 '나림'이라 부르는 라니마을과 함께 소천3리로 구획되었다. 그 뒤 1972년 '평지(平地)'로 지명을 붙이게 되었는데, 이는 넓은 들이라는 뜻이다. 1982년 평지말을 웃말과 아랫마을로 분리하게 되는데, 그 때 나림(羅泥)과 함께 상평지로 구획되었다.

미대천이 마을의 동편에 흐르고 나림마을에서부터 남대천 위에 놓인 평촌교(坪村橋)까지 천연기념물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로 지정되었으나, 2002년 해제되었다. 나림은 본래 이토질(泥土質) 땅으로 진흙이 많은 곳이라 하여 라니(羅泥)라는 지명을 붙였는데, 언젠가 부터 나림으로 변형되었다.

하평지(下平地)마을

설천면 소재지 중에서 최동북단에 위치한 마을로, 영호남(嶺湖南)을 넘나들며 문물(文物)교환으로 애환을 달래던 설천 장터가 위치한 마을이다. 하평지마을은 평지말 중에서 아랫마을이라는 뜻에서 붙여졌다.

1914년 설천면 소천리로 편제된 후 '나리미'로 부르는 라니, 그리고 상평지마을과 함께 소천3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평지라는 지명을 붙였는데, 1981년 평지말을 상평지와 하평지라는 새로운 지명을 붙여 분리시켰다.

9. 설천면 심곡리(深谷里)

심곡리는 설천면 중에서 가장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다 하여 옛적부터 '깊은 골'(지픈골·지푼골·深谷)이라 불렀다.

금산군의 횡천소에서 무주도호부 횡천면으로 이어져 왔는데, 1914년 설천면 심곡리로 편제되었고, 후에 심곡1리[75]와 심곡2리[76]로 구획되었다. 1972년 심곡1리를 원심곡으로 하고 심곡2리는 배방(培芳)으로 하였는데, 1981년 배방마을에서 관동(冠洞)·만선(滿仙)·등방(登坊)을 한 마을로 묶어 관서(冠西)라는 새로운 행정분리를 만들었다. 이에 심곡리는 3개의 행정분리가 되었다.

심곡리는 구천동 계곡의 중앙에 위치하여 구천동 33경 중 파회(巴零), 수심대(水心

75)원심곡(元深谷)·큰번덕(大坪).
76)배방이(培坊).

台), 세심대(洗心台) 등 빼어난 명소가 있으며, 덕유산의 북록(北麓)에 위치한 옛 등방 땅의 만선동에는 국제 규모의 스키장을 갖춘 전천후 휴양레져 시설인 무주리조트가 개설되었다.

심곡리 동쪽은 삼공리와 인접하고, 남쪽은 향적봉을 사이에 두고 안성면과 면계를 이루며, 서쪽은 치마재(馳馬峙) 너머로 적상면과 면계를 이룬다. 북쪽은 마전재에서 두길리와 인접한다.

관서(冠西)마을

관동(冠洞)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지명이다. 본래 관동은 뒷산인 김해산(金海山)을 마을의 진산(鎭山)으로 삼고 동향국(東向局)을 이루는 마을로, 지형이 마치 유자(儒者)들이 쓰는 정자관(程子冠)과 같은 형국이라서 갓 '관(冠)'을 붙여 지은 지명이라고 한다.

1914년 설천면 심곡리로 편제 된 후 배방과 함께 심곡2리로 구획되었다. 그 뒤 1972년까지만 해도 배방에 속한 자연마을이었는데, 1981년 배방에서 분리되었다. 그 때 마을의 명칭을 관서라 하였다. 그 당시 관서는 관동을 비롯하여 옛날 구천동 삼방(三坊) 중의 하나인 등방(登坊)을 포함하고 있었다. 등방[77]은 옛적에 안성(安城)을 오가던 검령(劍嶺)으로 올라가는 높은 지대에 위치한 동네라 하여 이름하였는데, 행정구역 개편 때 방(坊)를 꽃 방(芳)으로 고쳤다고 한다.

만선동(滿仙洞)은 덕유산 정상에서 북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고원(高原)을 이루는 곳에 위치한 마을로 마친 신선(神仙)이 웅거(雄據)하고 있는 것 같은 형국이라 하며, 도를 닦는 사람이 많았던 곳으로 언제부터인가 만선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만선동은 한국전쟁 때 폐허가 되었는데, 덕유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점차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특히 1990년 스키 시설을 갖춘 무주리조트가 건설되면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관동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주막담(酒幕-·酒幕洞)이 있다.

---

77)배방 서남쪽에 위치.

배방(培芳)마을

옛날 횡천소에 속하던 구천동 삼방(三坊) 중의 하나로 작은 언덕배기 위에 위치한 마을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 때 꽃향기 방(芳)자를 붙였다.

옛날 무주를 오갈 때 넘나들던 치마재(馳馬峙) 아래 위치한 마을로 1914년 설천면 심곡리에 편제되었다. 그 후 지금의 관서마을과 함께 심곡2리로 구획되었고, 1972년 배방이라는 옛 지명을 되찾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1년 관서마을이 분리되었고, 지금은 마을 바깥 도로변에 위치한 외배방(外培芳)과 내배방(內培芳)으로로 구획되어 있다.

배방마을에는 옛적에 안성과 검령, 그리고 상곡(裳谷)을 넘어 다니던 치마재로 오르는 길목에 행인을 위한 주막(酒幕)이 있었다고 하여 '주막담'이라 부르던 행길가 계곡에 위치한 세심대가 있다. 세심대는 옛적 불교 융성기 때 불공을 드리러 찾아오던 신도들의 마음까지 씻어 주었다는 사연을 갖고 있다. 세심대 아래에는 우거진 노송(老松) 사이의 바위에서 동녘으로 떠오르는 달을 맞이한다는 영월대(迎月台)가 있고, 이 곳에서 길을 따라 구천동으로 오르는 길에는 마치 소의 머리와 같은 바위가 있는 곳이라 하여 '소머리고개'라 부르던 고개가 있었다. 그러나 소머리 고개는 도로 확포장 때 깍아내 버려 고개는 없어지고 소머리 바위만 남아있다.

심곡(深谷)마을

심곡은 '깊은 골'이란 뜻인데, 1914년 설천면 심곡리로 편제되었다. 한 때 대평(大坪)마을과 함께 심곡1리에 속했으나, 1972년 이후 옛 지명인 심곡으로 부르고 있다.

배방 동북쪽 지푼골 서남쪽 버덩에 있는 마을로 큰 들이 있는 원심곡(元深谷·깊은골·큰번덕)은 임진왜란 때 피난 온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되었다고 하는데, 동네 어귀의 개울가에는 그 때 들어온 사람들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심었다는 400년이 넘는 음나무가 있었다. 음나무는 잡귀를 물리친다는 전설이 담긴 노거수로, 둘레만 해도 3m가 넘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되었는데, 원인모를 이유로 죽게 되어 해제되었다. 또한 매년 정초,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수호신으로 삼고 동제(洞祭)를 지냈다고 한다.

심곡마을은 옛적부터 워낙 깊은 계곡으로 울창한 숲에 가려 길을 가던 행인들도 햇빛을 보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그런데, 마을을 지나면 하늘이 훤히 열리면서 덕유산 정상이 한 눈에 들어오는 넓은 들이 펼쳐지는데, 바로 대평(大坪)마을이다. 대평은 좁은 골짜기만 연속되다가 넓은 들을 이룬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평마을 어귀의 송림(松林) 속에는 마치 호랑이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대한 암석 하나가 마을을 바라보면서 웅크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매산이 어머니의 애절한 사연이 담긴 매산이 바위가 범바위 모퉁이 산등성이에서 마을을 지키고 있다.

이 곳은 구천동 계곡 중 3대 경승(景勝)의 하나로 비경(秘境)을 이루는 계곡이다. 파회에는 노송 한 그루를 머리에 이고 있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서 있는데, 신라 때 일지대사(一枝大師)가 이 곳을 구경하고 가던 길에 소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 바위 위에 꽂아 놓은 것이 오늘날까지 살아 있다고 하여 천송암(千松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북쪽으로 휘어 오르다 보면, 절벽산이 물 위에 떠 있는 병풍처럼 펼쳐 있어마치 금강산(金剛山) 같은 절경을 이루고 있다고 하여 일명 소금강산(小金剛山)으로 부르는 수심대가 있다. 수심대는, 물이 돌아나가는 곳이라고 하여 수회(水回)라고도 하는 파회를 구경하고 산에 올랐던 일지대사가 절벽산 아래 맑은 물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 도를 깨우친 곳이라고 하여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10. 설천면 장덕리(長德里)

장덕리는 설천면과 무풍면의 면계(面界)를 이루며, 삼국시대에는 백제와 신라의 국경을, 통일신라 이후에는 주계현과 무풍현의 경계를 이루던 곳이었다고 전한다.

조선시대에는 풍서면에 속했는데, 1914년 설천면에 속하면서 장덕리라 하였다. '장덕'이라는 지명은 '진들'이라 부르는 장평(長坪)마을의 '장'자와 옛 지명이던 '덕곡(德谷)'의 '덕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장덕리의 수한(水寒)마을은 본래 마을 건너 '물찬이(물차니)'라는 계곡에 위치하여 '물찬디'라 부르던 마을인데, 후에 개울 건너 양지편으로 이주하여 '양지담'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한 때는 큰 계곡이 위치한다고 하여 '덕골(德谷)'이라 했는데, 행정구역 개편 때 옛 지명인 수한으로 다시 바뀌었다.

수한마을의 상류, 무풍과 면계를 이루고 있는 장평(長坪)마을은 들이 길쭉하게 생겼다고 하여 '진들'이라 부르다가 후에 장평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양지담 북쪽에 새로 형성된 새땀(새터·신기), 물찬이 안쪽을 이루고 있는 마을로 새터의 동쪽이 되는 안땀, 진들 서북쪽 내 건너 양지쪽에 있는 양지담(陽地村), 양지담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옹기점이 있었다는 옹기점 등이 있다.

장덕리의 남쪽은 무풍면과 면계를 이루고, 서쪽은 소천(所川), 북쪽은 미천(美川)과 대불리가 인접한 마을로 옛적부터 효열(孝烈)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도로변에 위치한 수한마을에는 효자 남양제갈공근환지비(南陽諸葛公根煥之碑)와 학생경주최공영익배유인진양하씨 효열비(學生慶州崔公榮翼配孺人晉陽河氏 孝烈碑)가 있다.

11. 설천면 청량리(淸凉里)

청량리는 백제와 신라의 국경, 또는 주계현과 무풍현의 경계를 이룬 곳이었다고 하여 무주목(茂朱項)이라 불렸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신풍면에 속했고, 1914년 설천면 청량리로 편제된 후 청량1리[78]와 청량2리[79]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청량1리를 진평, 청량2리는 청량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1981년 청량이 원청량(元淸凉)과 남청량(南淸凉)으로 나뉘게 되었다.

청량의 뒷산인 청량산(淸凉山)에는 청량사(淸凉寺)라는 사찰이 있어 청량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전한다. 그러나 덕유산과 대덕산(大德山)에서 발원한 맑고 찬 냇물이 청량리로 흘러 들어와 넓은 강폭을 이루며 흐르고 있어 사람들의 마음까지 시원스럽게 씻어준다고 하여 청량(淸凉)이라 하였다고 한다.

옛 절터만 남아 있는 청량사는 언제 폐허가 되었는지 알 수 없고, 청량이라는 지명을 갖게 한 남대천은 천연기념물 '무주 일원의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았으나, 2002년 1월 해제되었다.

남청(南淸)마을

남청은 본래 청량에서 분리된 마을로 남대천변에 위치한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으

78)개금벌·진평(榛坪).
79)무주목(茂朱項)·청량(淸凉)·하엽(荷葉)·비례미(備禮味).

로, 1914년 설천면 청량리로 편입된 후 지금의 원청량과 함께 청량2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청량으로 불렸는데, 1981년 원청량과 분리되면서 남청이라는 새로운 지명을 갖게 되었다.

청량 북쪽에 있으며 옛적부터 '비례미(備禮味)'라 부르던 비례(備禮)가 남대천변에 위치해 있고, 청량재 북록(北麓)에는 하엽(荷葉)마을이 있다. 연화혈(蓮花穴)이 있다는 하엽은 지형이 마치 연꽃잎과도 같은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하며, 옛날에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고, 연꽃이 많이 피어 인근 마을까지 향기를 풍겼다고 한다. 본래 연꽃은 무거운 것을 올려놓으면 살 수 없다고 하여, 마을에는 옛적부터 기와집을 지으면 망한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따라서 기와집이 없는 동네로 알려져 있다. 또한 비례미 동쪽에 있는 마을로 소나무가 많은 솔티(松峴)가 있다.

원청(元淸)마을

원청은 본래 청량마을로 옛적에 무주목이던 무항(茂項)마을[80]과 같은 행정구역으로 구획된 마을이다. 1914년 설천면 청량리로 편입된 후 지금의 남청과 함께 청량2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청량으로 지명이 바뀌었는데, 1981년 남청과 분리되면서 원청으로 개칭되었다.

진평(榛坪)마을

본래 개금(개암)나무가 많은 곳이라 하여 '개금벌'로 부르던 마을로 1914년 설천면 청량리로 편제된 후 '온팽이'로 부르던 온평(溫坪)마을과 함께 청량1리로 구획되었다. 그 뒤 1972년 옛 지명인 진평으로 다시 마을 이름을 갖게 되었다.

청량산 계곡의 언덕배기에 자리한 진평마을에는 정상의 백운산 깃대봉에서 발원하여 흘러내리는 '절골폭포'라 부르는 청량폭포(淸凉瀑布)와 큰 무지개를 그리며 쏟아지는 대홍폭포(大虹瀑布)가 계곡을 이루면서 개금벌을 가르며 흘러내려 남대천에 유입된다. 마을의 상류에 위치한 온평마을은 남북이 막혀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땅이 얼지 않아 온평이라는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

---

80)茂朱幕·무주목·茂項. 청량 북쪽에 있는 마을로 충북 영동군 용화면과 경계를 이루며, 양 도민이 항상 만날 수 있는 곳이라 함.[지명총람]

제4절 적상면(赤裳面)

1. 개요

예로부터 주계(朱溪)에 속한 지역으로 무주읍(茂朱邑)과 동일한 변천과정을 겪어 왔는데, 조선 태종 이후에는 유가면(柳加面)[81]과 상곡면(裳谷面)[82]으로 나뉘었다.

1914년 유가면과 상곡면이 통폐합되어 적상면이라는 이름을 새로 갖게 되었으며, 용담거리(龍潭街)에 면사무소가 설치되었다. 그 때 유가면에 딸렸던 진도리와 상곡면에 속했던 사전리는 안성면으로 편입되었다.[83]

적상면의 지명은 관내에 있는 적상산(赤裳山)에서 유래한다. 즉 여인의 붉은 치마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산의 이름을 그대로 면의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적상'이라는 지명의 유래가 되는 적상산에 대해서 ≪동국여지승람(東國與地勝覽)≫에서는 상산(裳山)으로 소개하면서 "이 산은 속칭 상성산(裳城山)이라 부르는데, 사면에 절벽이 층층이 있어 마치 사람의 치마와 같음으로 상산이라 이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적상산은 최영 장군과 얽힌 문헌(文獻)이 전해지고 있으며, 적상산성은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기 위한 사고(史庫)가 설치되는 조건이 되었고, 무주현이 무주도호부로 승격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1963년 면출장소설치조례(面出張所設置條例)가 공포되고 포내리(浦內里)에 '적상출장소'가 설치되어 종전의 상곡면 지역을 관할하다가 1998년 11월 6일 폐지되었다. 2003년 현재, 적상면의 행정구역은 8개 법정리,[84] 행정상 25개 리, 75반, 54개 자연마을로 구획되어 있다.

2. 적상면 괴목리(槐木里·괴목정)

조선시대에는 상곡면(裳谷面)에 편제되었는데, 현재의 북창(北倉)과 포내(浦內), 그

81)현재의 사천리와 사산리(마산 제외), 삼유리와 방이리, 그리고 안성면 진도리.
82)현재의 북창리·괴목리, 사산리의 마산 마을과 안성면의 사전리.
83)≪내 고장 전설집≫, 414~415쪽.
84)북창·포내·괴목·사산·사천·삼가·삼유·방이.

리고 괴목(槐木) 일원과 사산리(斜山里) 중 마산(馬山)마을, 안성면의 하산(下山)을 제외한 사전리(沙田里) 일원으로 구획되어 있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적상면에 편제 되었고, 괴목정(槐木亭)·치목(致木)·상조(上鳥)·하조(下鳥) 등이 하나로 묶여 법정리인 괴목리(槐木里)가 되었다. 그 후 괴목1리[85]와 괴목2리[86]로 구획되었는데, 1961년 원괴목이 괴목1리, 치목이 괴목2리, 하조가 괴목3리, 그리고 상조가 괴목4리로 조정되었고, 1972년에는 괴목, 치목, 하조, 상조의 옛 지명으로 개칭되었다.

옛적에 이 지역을 상곡이라 한 것은, 산의 형상에 따라 '치마산(裳山)'이라 부르던 적상산의 아래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붙였다고 한다. 괴목은 본래 괴목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였다고 하는데, 임진왜란 당시 장렬하게 전사한 장지현(張智賢)의 정려각(旌閭閣)을 세울 때 그의 호가 삼괴(三槐)인 연유로 괴목나무 세 그루를 심어 놓은 것이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고 전해온다.

괴목리는 적상면의 최동남단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쪽은 성지산(聖芝山)에서 김해산(金海山)으로 이어지며 설천면과 면계를 이룬다. 남쪽은 두문산(斗文山)을 깃점으로 안성면과 설천면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서쪽은 치목재(致木峙)를 사이에 두고 사산리와 인접하며, 북쪽은 포내리(浦內里)와 이웃한다.

괴목(槐木)마을

1914년 적상면 괴목리로 편제 된 뒤 치목마을과 함께 괴목1리로 구획되었는데, 1961년 치목과 분리되었으며, 1972년 옛 지명인 괴목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본래 괴목나무가 많아 괴목이라 하는데, 임진왜란 때 추풍령(秋風嶺) 전투에서 왜군과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삼괴(三槐) 장지현(張智賢)과 인연이 깊다.

그는 본래 무주읍 당산리 사람으로 국가에서 충신(忠臣)의 정려(旌閭)를 내림에 따라 고향인 당산리에 홍문(紅門)을 세우게 되었다. 그런데 뒤에 후손들이 이 곳으로 이주하여 정려각을 세우면서 그의 호 삼괴에 맞추어 괴목나무 세 그루를 심었다고 한다. 그 때부터 마을을 '괴목'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장지현의 묘는 서

85)원괴목(元槐木)·치목(致木).
86)상조·하조.

창(西倉)마을에 있다. 괴목리는 적상면 내에서 들이 제일 넓고 살기가 좋은 곳으로 손꼽힌다.

상조(上鳥)마을

1914년 적상면 괴목리에 편제된 후 하조마을과 함께 괴목2리로 구획되었는데, 1961년 하조와 분리되면서 괴목4리가 되었다. 그 후 1972년 옛 지명인 상조를 되찾게 되었다.

본래 '웃새재·윗새재'(上鳥里)라 불리웠으며, 옛적에는 조령(鳥嶺)이라 불렸다고 한다. 마을의 뒷산 김해산에는 옛적부터 구천동의 만선동으로 넘나드는 재가 있었다. 그런데 재가 너무나 가파르고 어찌나 높은지 날으는 새도 쉬어야만 넘을 수 있었다고 하여 새재(鳥嶺)라는 지명이 붙게 되었는데, 이것이 마을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상조는 새재마을 중 웃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지명이며, 500여 년전 함안조씨(咸安趙氏)가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새치-골(조기동) 그리고 윗새재 동쪽에 있는 마을로 뒷고개에서 새가 많이 운다는 새치골(조기동)과 윗새재 남쪽에 있는 마을로 장씨가 살기 시작했다고 하여 장자동이라 부르는 마을이 있다.

하조(下鳥)마을

1914년 적상면 괴목리로 편제된 후 웃새재인 상조마을과 함께 괴목2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61년 상조마을과 분리되면서 괴목3리가 되었는데, 1972년 옛 지명인 하조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른다.

하조는 구천동 배방(培芳)마을로 넘어 다니던 치마재(致馬峙) 아래 마을로 본래 새재(鳥嶺)라 부르던 상조(上鳥)의 아랫마을이라서 아래 새재라는 뜻으로 하조(下鳥)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래새재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돌과 바위가 많으며, 돌아가는 목이 되는 돌목(石項)이 있다.

치목(致木)마을

1914년 적상면 괴목리로 편제된 후 원괴목과 함께 괴목1리로 구획되었다. 1961년 원괴목과 분리되면서 괴목2리가 되었는데, 1972년 옛 지명인 치목으로 다시 고쳐 오늘

에 이르고 있다.

적상산 동남쪽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하며 적상산성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데, 마을 남쪽으로 우뚝 솟은 단지봉과 주변의 울창한 수림이 풍치를 이룬다 하여 치목(致木)이라 했다고 한다.

치목마을 뒷산 깊은 계곡에 위치한 송대폭포(松台瀑布)를 지나 양수발전소 상부댐에 오르면, 조선실록(朝鮮實錄)을 봉안(奉安)했던 적상산사고(赤裳山史庫)가 복원되어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본래 사고지 수호를 위해 건립되었다가 1949년 여순사건(麗順事件)의 병화로 불타버려 흔적만 남은 호국사지(護國寺址)에 안국사(安國寺)가 이건되어 있다.

3. 적상면 방이리(芳梨里)

적상면의 서북단 끝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날의 유등원(柳等院)과 이동(梨洞)마을이 같이 편제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가면(柳加面)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적상면 방이리로 편제되었으며, 1961년 고방(高芳)은 방이1리로 이동(梨洞)은 방이2리로 구획되었는데, 1972년 고방과 방이로 다시 고쳐 부르게 되었다. 방이는 고방의 '방'자와 이동의 '이'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이 지역이 유가면이었을 당시에는 버들뫼(上柳)에 사는 유감역(柳監役)을 찾아오는 관리나 선비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해 '유등원(柳等院)'이 설치되었다고 한다.

방이리 남쪽은 버들뫼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삼유천(三柳川)이 관류하고 있으며, 동쪽은 느티골 넘어 사천리(斜川里)와 인접하고, 남쪽은 삼유리와 경계를 이룬다. 서쪽은 조항산(鳥項山)에서 부남면, 북쪽은 마향산(馬香山)에서 무주읍과 경계를 이룬다.

고방(高芳)마을

동쪽의 '구리골산'과 서쪽의 '큰변득산' 사이의 계곡에 위치한다. 본래는 서쪽 높은 산 위에 위치하여 '큰고방' 뿐이었는데, 뒤에 아래 계곡으로 이주하여 현재의 고방마을이 되었다. '고방'이란 높은 곳에 있는 동네라는 뜻으로 본래 고방(高坊)이라 했는데, 언젠가부터 꽃향기 방(芳)으로 고쳐 사용하고 있다. 또한 방이리의 북쪽 산기

슭에 위치하며 그릇을 굽던 마을이라 사기정(沙器亭)이라 불렸고, 한 때는 닥나무를 심어 한지를 만드는 지소(紙所)를 운영했다고 한다.

유가면에 속했을 적에는 관원(官員)이나 행인들의 숙소로 이용하던 유등원(柳等院)이 설치되었는데, 1914년 적상면 방이리에 속하게 되었다. 그 후 1961년 이동(梨洞)마을과 분리되면서 방이1리로 구획되었고, 1972년 고방으로 개칭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50여년 전 김씨(金氏), 이씨(李氏), 임씨(林氏) 성을 가진 세 사람이 사기그릇을 굽기 위해 보다 좋은 흙을 찾으러 다니던 중, 이 곳의 흙이 사기그릇을 굽기에 좋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머물러 살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도 한다.

60여년 전만 해도 마을에서는 사기그릇을 구웠는데, 시세에 밀려 점차 사기그릇의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마을 사람들이 닥나무를 심고 한지공장을 세워 창호지(문종이)를 생산하였다고 한다. 마을 주변에는 30여 개의 기묘한 바위가 있다.

한국전쟁 당시 대전전투에서 행방 불명 된 미군 제24사단장 제임스 딘 소장(少將)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 주민들이 도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한 내력이 있다.

이동(梨洞)마을

방이리의 가운데에 있는 마을로 본래 배나무가 많아 '배나무골' 또는 '배골(梨谷)'로 불리던 마을이다.

1914년 적상면 방이리로 편제된 뒤 고방마을과 함께 단일 행정분리로 구획되었다. 1961년 고방마을과 나뉘면서 방이2리가 되었는데, 1972년 이동마을로 고쳐 오늘에 이른다.

이 곳에는 조항산(鳥項山) 동쪽 기슭에 위치한 거문동(巨門洞·거문뜨기)·문수동·임수동 등의 마을과 마향산(馬香山) 남록에 위치한 '안골(內洞)'[87]·'바깥안골'·'난전(蘭田)'[88] 등의 자연 마을이 산재해 있다.

이와 함께 배골 북서쪽 조항산 밑에 있는 마을로 지초(芝草)가 많은 분주골(粉珠洞), 분주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뒷산의 숲이 우거진 임수동(林樹洞), 거문뜨기 서쪽에 있는 마을로 새목산 동남쪽 기슭이 되며 지대가 높은 웃터 등이 있다.

---

87)배골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배골의 안쪽이 되며, 구리골산의 북쪽 기슭이 됨.
88)바깥안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난초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구한말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 체결 이후 스스로 의병(義兵)이 되어 구국항일전쟁(救國抗日戰爭)의 대열에 서서 일본군과 싸우다 순국한 김원일(金元日) 등 이름없이 죽어간 젊은이들이 많았던 애국의 고장이다.

4. 적상면 북창리(北倉里)

적상산에는 사고가 있었고, 사고를 수직(守直)하던 군사들이 먹을 군량미(軍糧米)를 보관하던 창고(倉庫)가 있었다. 산성의 서쪽에 있는 창고를 서창(西倉), 북쪽에 있는 창고는 북창(北倉)이라 하였다. 그리고 무주도호부 승격 뒤에는 성내(城內)에 창고를 두어 성창(城倉)이라 하였다. 이런 연유로 마을 이름을 북창이라 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상곡면에 속했고, 1914년 이후에는 적상면 북창리로 편제되어 초리와 함께 단일 행정구역으로 이어져 왔다. 1961년 이후 한 때 북창1리[89]와 북창2리[90]라는 행정지명을 사용했으나, 1972년 이후 북창1리는 내창(內倉)으로 개칭되고 북창2리는 초리라는 옛 지명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곳에는 적상산성과 안국사, 조선왕조실록를 보관했던 사고지 등 문화유적이 있다. 북창리 남쪽은 포내리, 괴목리, 사산리 등과 인접하고, 서북쪽은 오동재에서 자하동을 지나 비둘기바위 쪽으로 흘러내리면서 무주읍과 경계를 이룬다.

내창(內倉)마을

내창은 본래 북창마을 이었으나 마을 입구에 생긴 마을을 바같북창(外倉·새터·신기)이라 부르면서 안북창(내북창)으로 부르게 되어 내창(內倉)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1914년 적상면 북창리로 편제된 후 초리마을과 함께 같은 행정구역으로 구획되었는데, 1961년 초리와 나뉘어지면서 자골로 부르던 자하동, 바깥북창인 외창마을과 함께 북창1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내창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른다.

내창에는 적상산성, 적상산 북문(一名 무주문), 안국사, 적상산사고, 무주양수발전소 상부댐, 천일폭포 등이 있다.

---

89)북창, '잣골'로 부르던 자하동(紫霞洞).
90)초리(初里).

초리(初里)마을

1914년 적상면 북창리로 편제된 후 내창마을과 함께 같은 행정분리로 구획되었다. 1961년 내창마을과 나뉘어지면서 북창2리로 구획되었는데, 1972년 옛 지명인 초리로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초리라는 지명은 상곡(裳谷)골짜기에 가장 먼저 생긴 마을이라 해서 붙여진 지명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옛적에 무주읍에서 상곡면으로 들어가는 길목의 첫 동네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하며, 마을의 윗동네는 그 중간에 있는 동네라 하여 중리(中里)라는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

마을에서 괴목리로 들어가다 보면, 형세가 마치 구름이 깔려 있는 형국이라 옛적부터 '구름들'이라 부르는 운평(雲坪)이 있다. 이와 함께 초리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해가 넘어갈 때 붉은 빛이 비친다는 자하골(紫霞洞·잣골)과 초리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운중반월형(雲中半月形)을 이루는 운평이 있다.

5. 적상면 사산리(斜山里)

사산리는 조선시대 서로 다른 행정구역이던 유가면(柳加面)과 상곡면(裳谷面)의 일부가 병합되어 법정리로 구획되었다. 사산리에 속한 용담거리(龍潭街)와 바깥새내(外斜), 안새내(內斜)는 유가면에, 가장 남쪽에 위치한 마산(馬山)은 상곡면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1914년 군·면 통합의 행정구역 개편 때 적상면 사산리로 편제된 후 종전의 유가면에 딸렸던 사내와 용담거리는 사산1리, 상곡면에 속했던 마산마을은 사산2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사산1리를 사내(斜內), 사산2리를 옛 지명인 마산으로 하였다. 사산이라는 지명은 행정구역 개편 때 사내의 '사'자와 마산의 '산'자를 붙여 만든 지명이라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용담거리가 적상면의 중앙에 위치한다고 하여 면사무소(面事務所), 경찰주재소(警察駐在所), 보통학교 등의 기관을 두었는데, 한국전쟁 중 병화(兵火)로 폐허가 되어 학교를 제외한 각종 행정기관이 지금의 면 소재지인 사천리 성내(城內)마을로 옮기게 되었다.

한 때 적상면 소재지였던 이 곳은 동쪽의 치목재를 사이에 두고 괴목리와 경계를 이루고, 남쪽은 노전봉(蘆田峰)에서 안성면과 면계를 이루며, 서쪽은 삼가리(三加里), 북쪽은 사천리와 경계를 이룬다.

마산(馬山)마을

산세는 말머리와 같고, 골짜기는 '말구시'와 같으며, 그 아래 등성이는 마치 말꼬리와 같이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형국이라 마산이라는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 1914년 적상면 사산리로 편제된 후 사산1리로 편제되었으나 1972년 옛 지명인 마산으로 개칭되었다.

이 곳에는 본래 노고봉(老姑峰)의 매미재 동쪽 기슭에 위치한 큰말(큰땀) 즉 대촌(大村)뿐이었는데, 옛적에 안성으로 넘나들던 노전재(蘆田峙) 아래 행길가의 평지들에 평촌(坪村)이, 단지봉 서쪽의 깊은 계곡에 마산안골이라 부르는 내동(內洞)이, 치목재(峙木峙) 아래 양지편의 양지촌(陽地村·양지땀), 그리고 탕건바위 아래 계곡에는 독가촌, 마산리 가운데에 새로 생긴 새땀 등이 자리잡고 있다.

안성면과 면계를 이루는 오도산(吾道山) 북쪽의 놋쇠솟골 계곡에는 종유석(鐘乳石)의 천연석회동굴(天然洞窟)인 마산동굴이 생성되어 전라북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사내(斜內)마을

사내는 적상산 서록의 양지바른 경사면에 위치하여 '새내'라 불려오는 마을로 안새내(內斜), 바깥새내(外斜)와 새로 생긴 신사내(新斜內)가 있고, 옛적에 무주에서 용담(龍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용담으로 향하는 분기점을 표시하는 이름을 가진 용담거리(龍潭巨里·龍潭街)가 있다.

1914년 적상면 사산리에 편제된 후 사산2리로 구획되었는데, 그 때 용담거리에 면사무소가 설치되어 행정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때 면사무소와 경찰지서 등이 병화(兵禍)로 폐허가 되어, 지금은 사천리 성내마을로 면소재지가 옮겨졌다. 1972년 다시 사내로 개칭되었다.

용담거리에는 1922년 안성공립보통학교(安城公立普通學校) 부설 적상육성학교(赤裳育成學校)가 설립된 이듬해인 1923년 보통학교로 승격된 적상초등학교가 위치하며, 아래에는 1969년 무주중학교(茂朱中學校) 분교장(分敎場)으로 설립된 후 1970년 승격된 적상중학교(赤裳中學校)가 있다.

6. 적상면 사천리(斜川里)

적상산의 서록에 자리한 사천리는 현재 적상면의 행정 중심지로 면사무소 등 주요 기관들이 위치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유가면(柳加面)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적상면에 편입되면서 길왕(吉旺)과 내사(內斜)·구억(九億)마을을 합해 법정리가 되었다. 그 후 1961년 구억이 사천1리로, 길왕이 사천2리로 구획되었는데, 1972년 사천1리가 구억으로 사천2리의 길왕이 신대(新垈)와 분리되어 3개의 행정분리로 나뉘게 되었다. 그런데 1981년 구억에 속했던 낙안(樂安)을 성내(城內)라는 지명을 붙여 분리, 모두 4개의 행정분리가 되었다.

옛적에는 '구석들'로 불리던 구억과 '지랭이'로 부르던 길왕 뿐이었는데, 뒤에 마을이 늘어나면서 발전한 것이다. 지금의 면사무소도 일제 강점기 때에는 현재의 사산리 구역인 용담거리에 있었는데, 한국전쟁 때 모두 소실되어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것이고, 이에 따라 인가(人家)가 들어서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곳에서는 선사시대의 유물인 지석묘(支石墓)가 출토되어 무주의 역사를 선사시대로 끌어 올렸다는 의미를 갖는다.

마을의 동쪽은 적상산 정상에서 북창리와 경계를 이루고, 남쪽은 삼가리, 서쪽은 방이리, 북쪽은 무주읍과 경계를 이룬다.

구억(九億)마을

현재 면소재지인 성내마을 서쪽으로 흐르는 적상천(赤裳川) 개울 건너 한쪽 구석에 위치하여 옛적부터 '구석들'로 부르던 마을로 한자표기의 지명을 만들면서 구억이 되었다.

1914년 적상면 사천리로 편제된 뒤 길왕마을과 함께 같은 행정분리로 구획되었고, 1961년 길왕마을과 나뉘면서 낙안으로 부르던 성내마을과 함께 사천1리로 편제되었으며, 1972년에 옛 지명인 구억으로 다시 고쳐 부르게 되었다. 1981년 성내마을과 분리되었다.

길왕(吉旺)마을

사천리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로 적상산 서록에 위치하며 산수가 아름답고 땅이 비옥하여 살기 좋은 길지(吉地)라 하여 길왕이라는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91)]

1914년 적상면 사천리로 편제된 뒤 구억마을과 함께 단일 행정분리로 구획되었는데, 1961년 구억과 분리되면서 사천2리가 되었다. 그런데 1972년 신대마을과 분리되면서 길왕마을이 되었다.

마을 앞을 흘러가는 적상 천변에는 선사시대 유물인 지석묘 군락(群落)이 발견되어 거석문화가 일찍이 발달된 곳으로 확인되었으며, 무주군에서는 가장 오래된 인간의 자취를 남기는 마을이다.

성내(城內)마을

사천리의 가운데 있으며, 1952년 용담거리에 있던 면사무소가 옮겨지면서 새로 형성되었으며,[92)] 마을의 지세(地勢)가 마치 넓은 모래밭 위에 기러기가 내려앉는 형국의 명당이라고 하여 평사낙안(平沙落雁)이라 하는데, 옛적부터 명당을 찾는 풍수가(風水家)들이 자주 찾아오던 곳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평사낙안의 글귀에서 낙안(落雁)이라는 말을 취해 '낙안동(落雁洞. 난들번득)'이라 불러왔는데, 후에 마을 이름을 '낙안(樂安)'으로 변형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낙안을 말로 할 때는 나간 동네, 즉 밖으로 나가는 동네로 들린다고 하여 성내(城內)로 개칭하였다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적상산성을 중심으로 적상면의 행정 중심지라는 뜻에서 성내라는 새로운 지명을 붙였다고도 한다.

1914년 적상면 사천리로 편제 된 후 1961년 구억마을과 함께 사천1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구억으로 사용되었는데, 1981년 구억마을과 분리되어 종전에 낙안으로 부르던 것을 성내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마을 북쪽 논 가운데에는 1982년 가을, 선사시대 유물인 지석묘와 함께 마제석검(磨製石劍), 마제석촉(磨製石觸)이 출토되었다. 이로 보아 적어도 5천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임을 알 수 있다.

---

91)지소땀 북쪽에 있는 마을로 길(吉)씨가 마을을 이루었다고 한다.[지명총람]
92)[지명총람].

신대(新垈)마을

신대란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이며, 1914년 적상면 사천리로 편제된 후 1961년 서창마을과 함께 길왕마을에 속한 사천2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길왕마을과 분리되면서 신대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한편, 신대마을은 본래 길왕마을에 속했는데, 옛적에 적상산성으로 오르는 길목에 위치하여 지소담(紙所)으로 부르던 바깥 서창과 본래 서창(西倉)이던 안서창마을 등 3개의 작은 마을을 합쳐 행정상 신대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93] 그리고 신대 서쪽에 있는 마을로 입구에 오래 된 느티나무가 있는 괴목동(塊木洞·느트골)이 있다.

옛적에 적상산사고의 수직군사들이 먹을 군량미(軍糧米)를 보관하던 창고(倉庫)가 2개소 있었는데, 그 중 서쪽에 있는 창고라 서창이라 했다고 한다. 또한 서창은 옛날 용담문(龍潭門)이라 부르던 적상산성 서문(西門)의 아래 마을로 이곳을 거쳐 적상산을 오르다 보면, 최영 장군과 관련된 장도바위(將刀岩)를 만나게 된다. 마을 어귀에는 임진왜란 때 추풍령(秋風嶺)전투에서 최후의 일각까지 혈전을 벌이다가 장렬하게 순국한 충신(忠臣) 장지현(張智賢) 장군의 묘가 있다.

7. 적상면 삼가리(三加里)

삼가리는 본래 '가치리'라 하여 세 개의 마을로 나뉘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윗 마을을 상가치리(上加·상땀·큰땀)라 부르고 중간에 위치한 마을을 중가치리(中加·중땀), 그리고 가장 아래 마을을 하가치리(下加)로 불러왔다.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모두가 같은 법정리로 구획되면서 삼가(三加)라는 지명을 붙이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가면(柳加面)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적상면 삼가리로 편제되면서 옛적에 가치리였던 상가와 중가 그리고 하가마을이 삼가1리로 구획되고, '늘갓'으로 부르던 '여올(汝兀)'과 '안늘갓'으로 부르던 '광포(廣浦)'가 삼가2리로 구획되었다. 그 때 한자음으로 적으면서 여올이 여원(汝元)으로 바꾸게 되었다.

그 후 1961년 삼가1리였던 중가와 상가가 삼가2리로 분리되고, 종전의 삼가2리였던 여원(汝元)이 삼가3리로, 그리고 광포가 삼가4리로 분리되었다. 그런데, 1972년 삼가2

93)적상면사무소 검토 자료.

리에 속하던 상가와 중가가 분리되면서 삼가리는 상가, 중가, 하가, 여원, 광포 등 5개의 행정분리가 되었다.

마을의 동쪽은 노고봉(老姑峰)을 사이에 두고 사산리와 인접하고, 남쪽은 봉화산(奉化山)을 경계로 안성면과 면계를 이루며, 서쪽은 버드산(柳山) 너머로 삼유리와 이웃한다. 또한 북쪽은 구리골산을 사이에 두고 방이리(芳梨里)와 용담거리에서는 사산리와 인접한다.

광포(廣浦)마을

광포는 본래 '안늘갓'으로 불렀는데, 남쪽의 봉화산 정상에서 동서로 갈라지며 북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이 마을을 싸안고 있어 넓은 호수(湖水)안에 떠 있는 배와 같은 형국을 하고 있어 광포라 했다고 한다.

1914년 적상면 삼가리로 편제 된 후 늘갓으로 부르던 여올(汝兀)과 함께 삼가2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61년 여원(汝元. 여올)과 분리되면서 삼가4리가 되었는데, 1972년 다시 광포로 부르게 되었다.

상가(上加)마을

상가는 가치리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마을로 옛적부터 '상가치리'(재밑·상땀·웃상가리)로 불렀다고 한다. 옛적에는 장(場)을 따라 오가던 장꾼들이 어각재(魚角峙)를 넘을 때마다 마을을 거쳐가며 애환을 달랬는데, 1930년대 오도재(吾道峙)를 넘는 차도(車道)가 개설된 이후 재를 넘는 길손의 발길이 그치고 말았다.

어각재는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물리친 곳이며, 동학농민혁명 때에는 동학농민군이 모여 혁명의 길을 재촉했던 곳이다. 한국전쟁 때에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동족상잔(同族相殘)의 피를 뿌리기도 했던 역사의 현장이다.

1914년 적상면 삼가리로 편제 된 후 하가치리(下加), 중가치리(中加)와 함께 삼가1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61년 삼가1리에 같이 속했던 하가마을과 분리되면서 중가마을과 함께 삼가2리가 되었는데, 1972년 중가마을과 분리되었고, 행정분리의 명칭이 자연마을로 바뀌게 되면서 상가가 되었다.

여원(汝元)마을

여원은 본래 '늘갓'이라 부르다가 여올(汝兀)로 바뀌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한자음으로 바뀌면서 여원(汝元)이 되었다.

1914년 적상면 삼가리로 편제된 후 옛적에 안늘갓으로 부르던 광포와 함께 삼가2리로 구획되었고, 1961년 광포와 분리되면서 삼가3리가 되었으며, 1972년 여원으로 개칭되었다.

여원은 일찍이 개신교(改新敎)가 전파되어 신앙의 뿌리가 내렸으며, 마을 청년들이 항일운동에 앞장서 무주지역의 3·1운동을 주도하였다. 당시 여올교회의 전일봉(全日奉)은 그 해 4월 1일 무주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벌인 후 일본 헌병에게 잡혀 옥고를 치루었다.

마을 앞으로 흐르는 개울가에는 옛날에 한지(韓紙)를 만들던 지소(紙所)가 있었고, 구리골산 남록(南麓)에는 사기그릇을 굽던 사기점(沙器店)골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골짜기에는 마치 가래와 같은 지형을 하고 있어 '가래골'로 부르는 마을이 있고, 하가치리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사산리의 용담거리 서쪽이 되고 뒷골짜기에 칡이 많은 갈골(葛谷)이 있다.

중가(中加)마을

중가는 본래 가치리 중에서 가운데에 위치한 마을로 중가치리라 부르는데, 1914년 적상면 삼가리로 편제된 후 상가치리, 하가치리와 함께 삼가1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61년 하가치리와 분리되면서 상가치리와 함께 삼가2리가 되었는데, 1972년 상가마을과 분리되면서 중가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이와 함께 중가치리의 북쪽을 이루고 있는 마을로 북쪽에는 하가치리가 있고 남쪽으로 안땀에 닿는 바깥땀이 있고, 중가치리 남쪽을 이루고 있는 마을로 북쪽의 바깥땀에 닿는 안땀이 있다.

하가(下加)마을

하가는 본래 가치리 중에서 가장 아래 있다고 하여 옛적부터 하가치리라 불렀다고 한다. 마을의 동쪽에는 정착농원[94]이 있고, 서북쪽에는 늘갓, 동남쪽에는 중가치리가 있다.

---

94)노루고개라 하며, 하가치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뒷산의 조그만 고개에 노루가 많다고 한다.[지명총람]

1914년 적상면 삼가리로 편제 된 후 상가·중가마을과 함께 삼가1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61년 상가와 중가마을이 분리되어 나갔고, 1972년 하가로 개칭하게 되었다.

8. 적상면 삼유리(三柳里)

옛적부터 '버들뫼'로 불렀으며 위에서부터 상유(上柳), 중유(中柳), 하유(下柳) 등 3개 마을로 구획된 행정구역이라 삼유(三柳)라는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유야면(柳野面) 또는 유가면(柳加面)으로 불리웠는데, 유가면의 '유(柳)'자와 여올재(汝兀峙) 너머 가치리라 부르던 가치(加峙)의 '가'자를 따서 유가(柳加)라는 지명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적상면 삼유리로 편제되면서 삼유1리[95]와 삼유2리[96]로 구획되었는데, 1972년 삼유1리가 하유(下柳)로 개칭되고, 삼유2리의 버들뫼는 상유로, 평지말은 중유로 개칭되었다. 그러다 1981년 하유마을에 속한 성지골[97]과 중유마을에 속한 되재골[도유(陶柳)·되자골·도유(道柳)]이 같은 행정분리로 구획되면서 성도라는 지명을 붙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삼유리는 상유, 중유, 하유, 성도 등 4개 행정분리로 나뉘게 되었다.

삼유리는 적상면의 최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봉화산의 되재와 마분재(馬噴峙)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르는 삼유천(三柳川)이 마을을 관류하고 비리실을 지나 방이리(芳梨里)로 흘러간다. 조선 태종 때 영의정을 지낸 유정현(柳廷顯)의 후손들이 사육신(死六臣)과 연루되었다고 하여 귀양살이를 하다 이 곳으로 들어와 정착하게 되면서 유야면(柳野面), 유리(柳里), 유산(柳山) 등의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조선말기에 문장가로 알려진 유도(柳燾)가 살았고, 그의 호가 '유산(柳山)'이었다고 하여 '버들뫼'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마을의 동쪽은 버드산을 사이에 두고 삼가리와 경계를 이루고, 남쪽은 봉화산에서 안성면과 서쪽은 불당산(佛堂山)에서 부남면과 경계를 이루며, 북쪽은 아래 비리실을 지나 방이리와 이웃하고 있다.

---

95)성지골(聖智洞), 비리실(飛谷).
96)버들뫼(上柳), 평지말(坪村).
97)후에 성도(聖陶).

상유(上柳)마을

상유는 본래 '버들뫼'라 불리웠으며, 옛적부터 학행과 덕행을 겸비한 유씨(柳氏) 일가가 누대(累代)에 걸쳐 살아온 마을이라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적상면 삼유리로 편제된 후 평지말로 부르던 평촌(坪村)과 함께 삼유2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평지말과 되재골이 중유(中柳)라는 지명으로 분리되는데, 그 때 버들뫼는 상유로 행정분리가 되었다.

옛적부터 이름난 학자(學者)와 효자(孝子), 열녀(烈女)가 많은 곳으로 본군에서는 명문가(名文家)로 명성이 높았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주연정사(朱淵精舍)라는 사숙(私塾)을 건립하여 후학들을 양성했으며, 마을 어귀에는 효부 현풍곽씨(玄風郭氏)의 홍문(紅門)을 비롯하여 효자 유봉증(柳鳳增)·유홍증(柳鴻增) 형제와 효부 풍천임씨(豊川任氏) 등 4인의 효열을 기리기 위해 건립한 문유사정(文柳四旌)의 정려각(旌閭閣)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유씨들이 전성(全盛)을 이룰 때에는 유명한 문사(文士)나 묵객(墨客)들 그리고 중앙이나 지방의 관료들이 자주 찾아왔는데, 이들의 편의를 위해 지금의 고방(高芳)마을에 유등원(柳等院)을 설치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유씨 종가(宗家)는 99간짜리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여인네들이 사용하던 도장(閨房)이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도장이 있던 곳을 '도장골'이라 부른다고 한다.

성도(聖陶)마을

지명은 옛적에 '성지골(聖智洞)'로 부르던 성유(聖柳)와 '되재골'로 부르던 도유(陶柳·道柳·되자골)가 같은 행정분리로 구획되면서 성유의 '성'자와 도유의 '도'자를 취해서 생겼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적상면 삼유리로 편제된 후 비리실(飛谷)과 함께 삼유1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하유에 속한 자연마을이 되었는데, 1981년 군조례 개정 때 하유와 분리되면서 중유에 속하게 되었고, 되재골로 불리던 도유와 같은 행정분리로 구획되어 성도마을이 되었다.

마을은 비리실에서 버들뫼로 올라가다가 안성으로 넘어가는 되재와 연결되는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도유(陶柳)는 옛날에 버들뫼의 유씨들이 사용하던 그릇을 굽던 곳

이라 하여 붙였다고 전해오며, 되재골은 안성을 넘던 되재(道峙)의 아래 골짜기에 있다고 하여 붙인 지명이다. 또한 버드산(柳山) 기슭에 위치한 성지골에 대한 지명 유래는 전하는 바가 없어 알 수 없으나, 성인의 슬기가 가득한 곳이라는 뜻의 성지동(聖智洞)으로 불리웠다고 한다.

중유(中柳)마을

중유는 불당산(佛堂山) 동쪽의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다 하여 '양지편'으로 부르던 평촌(平村)과 그 북쪽 개울가에 새로 생긴 신촌(新村)이 같은 행정구역으로 구획되면서 붙여진 지명이다.

1914년 적상면 삼유리로 편제된 후 버들뫼, 되재골과 함께 삼유2리로 구획되었는데, 1972년 군조례 개정으로 종전의 삼유2리의 상유와 분리되면서 평촌(平村),[98] 신촌(新村·새땅), 도유가 같은 행정분리로 구획되면서 중유라는 지명을 붙이게 되었다. 그 뒤 1981년 되재골의 도유가 하유의 성유마을과 합치면서 성도마을로 분리됨으로써 현재의 중유마을은 평촌과 신촌으로 구획되어 있다.

마을 양지편에 위치한 평촌마을에는 옛날 어느 정성이 지극했던 노인 부부에게 훌륭한 아들을 점지해 주었다는 미륵바위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하유(下柳)마을

본래 '비리실(飛谷)'로 불렸으며, 지형이 비룡등공형(飛龍騰空形)이라 하여 마치 나르는 용이 하늘로 오르는 형국과 같다고 한다. 이에 옛적부터 비곡(飛谷)이라 하였고, 비리실이라 불러왔다.

1914년 적상면 삼유리로 편제된 후 박대골(博大谷)과 승지골(聖智洞)이 같은 행정분리로 구획된 삼유1리가 되었다. 그 뒤 1972년 하유라 했는데, 1981년 군조례 개정 때 승지골을 성도로 개칭하고 분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하유에는 아래 비리실(下飛)[99]과 웃 비리실(上飛),[100] 그리고 박대골(博大谷)로 구획되었다. 승지골 남서쪽에 있는 마을로 한쪽 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구억말(九億-·구석들)과 구억말 서남쪽에

98) 양지편 또는 중류리라 하며, 새땅 남쪽에 있는 마을로 삼유리에서 가운데가 됨.[지명총람]
99) 웃비리실 북쪽에 있는 마을로 꾀꼬리가 아래로 날아 내려가는 형국임.[지명총람)]
100) 박대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꾀꼬리가 위로 날아가는 형국이라 함. 삼유리에서 가장 아래쪽이 됨.[지명총람]

있는 마을로 도장이 있었다는 되장골(道場)이 있다.[101)]

마을은 남쪽의 마분재(馬噴峙)와 되재(道峙)에서 발원하고 흘러내리는 천변에 위치하여 계곡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1949년 적상초등학교 분교장으로 개설되었다가 1953년 초등학교로 승격된 삼방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무주에서 전주로 연결되는 국도가 지나간다.

9. 적상면 포내리(浦內里)

조선시대에는 상곡면에 속해 행정의 중심지였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적상면 포내리로 편제된 후 1961년 개안(浦內)이 포내1리로, 중리(中里)가 포내2리로 구획되었다. 그 뒤 1972년 포내1리의 개안이 개안(開安)으로 개칭되고 포내2리는 옛 지명인 중리가 되었다.

마을 앞 적상산의 지세가 마치 물 속에 잠긴 배와 같고, 마을이 갯(浦) 안(內)과 같은 형국이라 하여 개안이라 불러 왔던 것을 후에 한자로 표기하면서 포내(浦內)라 했다고 한다. 따라서 개안과 포내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

포내리 동쪽은 성지산(聖芝山) 능선을 따라 설천면과 경계를 이루고, 남쪽은 괴목리와 인접하며, 서쪽은 옛날 상산으로 부르던 적상산에서 북창리와 이웃하는데 북쪽은 청량재(淸凉峙)를 사이에 두고 설천면 청량리와 면계를 이룬다.

개안(開安)마을

지명은 본래 우리나라 말로 물안, 즉 갯안(浦內)이라는 뜻인데, 근래에 와서 마을 명칭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본래의 뜻에서 벗어난 개안(開安)으로 변형되었다. 마을이 형성된 시기는 임진왜란을 피해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적상면 포내리로 편제 된 후 1961년 포내1리로 구획되었고, 1972년 개안(開安)이라는 한자명의 지명을 붙이게 되었다.

본래의 개안은 양수발전소의 건설로 현재는 물에 잠기게 되어 지명 그대로 물안, 즉 개안(浦內)이 실현되어 선인들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101) [지명총람].

또한 개안마을 뒤에 우뚝한 백운산(白雲山)은 호수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에 덮여 마치 하얀 구름 위에 떠 있는 산처럼 보인다.

그리고 '옥소골(玉沼洞)'은 청량산(淸凉山)에서 발원한 맑은 물이 서남쪽 계곡을 따라 흐르면서 용소(龍沼)와 각시소 등 옥(玉)같이 아름다운 소(沼)를 이루는 곳이라서 옥소(玉沼)라는 지명을 붙였는데, 이후 개안마을이 물 속에 잠기게 되어 옥소마을만 남게 되었다. 이와 함께 옥소골 동쪽에 있는 마을로 넓은 바위가 있다는 마당바우와 옥소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청량재의 입구가 되는 청량골 등이 있었다.

중리(中里)마을

본래 중리라는 지명은 상곡 중에서 중간에 있는 동네라는 뜻이다. 옛적에 상곡에는 초리(初里), 중리(中里), 괴목리(槐木亭), 새재(鳥嶺) 등이 있었는데, 그 당시 무주읍에서 상곡에 갈 때 만나는 첫 동네를 초리(初里)라 하고, 다음 중간에 있는 마을을 중리[102]라 불렀다고 한다. 중리 다음으로 동네가 늘어나면서 아래 중리(下中里),[103] 중중리(中中里), 상중리(上中里),[104] 신촌(新村·새땀) 등의 지명이 생겨났다. 그리고 포내리에 있는 마을로 절터였는데, 구씨가 집을 짓고 한가히 살았다는 한사(閑寺·한절골)가 있었다.

1914년 적상면 포내리로 편제된 뒤 개안마을과 함께 단일 행정분리로 구획되었는데, 1961년 개안과 분리되면서 포내2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옛 지명인 중리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은 현재 지역의 행정 중심지로 발전하였다. 1963년 적상면상곡출장소(赤裳面裳谷出張所)가 개설되어 북창리(北倉里), 포내리(浦內里), 괴목리(槐木里) 주민의 민원을 관장하였는데, 1998년 폐쇄되었다. 또한 1934년 청소년 교육을 위한 간이학교(簡易學校)로 설립된 후 1943년 초등학교로 승격된 괴목초등학교(槐木初等學校)가 위치하고 있으며, 1973년에는 무주중학교(茂朱中學校) 분교장(分敎場)이 설립되기도 하였다. 그 외 무주경찰서 괴목지서와 적상농협분소(赤裳農協分所) 등의 기관들이 위치한다.

---

102) 개안 남쪽에 있는 마을로 북쪽 부분은 아래 중리, 가운데 부분은 윗 중리, 남쪽 부분은 새땀이 됨.[지명총람]

103) 아래-중리. 중리 북쪽, 지대가 낮은 부분을 이루고 있는 마을로 포내리의 가운데가 됨,[지명총람]

104) 윗중리라고도 하며, 중리 남쪽, 지대가 높은 부분을 이루고 있는 마을로 상곡출장소가 있었음.[지명총람]

제5절 안성면(安城面)

1. 개요

안성면은 본래 금산군의 대곡소(大谷所)·횡천소(橫川所)와 함께 부리현(富利縣)에 속한 안성소(安城所)였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백제 때에는 진내군(進乃郡), 통일신라 때는 진례군(進禮郡), 고려 때는 금주군(錦州郡) 또는 부리현에 속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금산군(錦山郡)에 속했으며, 현종 15년(1674) 적상산사고와 관련하여 무주현이 무주도호부로 승격되면서 횡천면과 함께 무주도호부에 소속되어, 일안면(一安面)[105]과 이안면(二安面),[106] 그리고 횡천면으로 개편되었다.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유가면(柳加面)의 진원(眞源), 오동(梧桐), 도치(道峙)의 3개 리와 상곡면(裳谷面)의 사교(沙郊), 사전(沙田), 구교(鳩嬌)의 3개 리, 그리고 장수군 계북면(溪北面)의 당저리 일부를 병합, 옛 안성소의 이름에 따라 안성면이라 하고, 8개 리[107]로 개편되었다.

2003년 현재, 안성면의 행정구역은 8개 법정리, 행정상 36개 리, 115반, 61개 자연마을로 구획되어 있다.

안성이라는 지명은 덕유산의 품에 안겨 언제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고장이라 하여 붙여졌다고 전한다.

2. 안성면 공정리(公正里)

덕유산(德裕山) 서록(西麓)에 위치한 공정리는 본래 금산군에 속했으나 1674년 무주현이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될 때 이안면(二安面)으로 편제되었다. 1914년 군·면을 통폐합하는 행정구역 개편 때 내외신당(內·外莘堂)을 비롯하여 용추(龍湫)·장내(墻內)·사시랏(沙灘)·통안(通安)·봉산(峰山) 등을 같은 행정구역 하여 법정리

105) 현재의 공정리(公正里), 죽천리(竹川里), 공진리(貢進里).
106) 지금의 장기리(場基里), 덕산리(德山里), 금평리(琴坪里).
107) 공정·죽천·공진·사전·금평·덕산·장기·진도.

가 되었다. 그 뒤 공정1리[108]와 공정2리[109]로 나뉘었으며, 1961년에는 공정1리[110]와 공정2리,[111] 그리고 공정3리[112]로 조정되었다.

그 후 1972년 통안, 사탄, 용추, 장내(봉산 포함), 내당, 외당, 돈당 등으로 나뉘었는데, 1981년 장내마을에 속했던 봉산이 분리되고 돈당이 외당에 합병되었다. 그리하여 공정리는 통안, 용추, 사탄, 장내, 내당, 외당, 봉산 등 7개 행정분리로 조정되어 안성면 지역에서는 행정분리가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다.

공정리는 안성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옛적에는 특수행정기관인 안성소(安城所)가 설치된 곳이며, 금산군에 딸렸던 작은 현(縣)의 중심지였다고 전해 온다.

공정리 동쪽의 동엽령(冬葉領)을 경계로 경상남도와 도계를 이루며, 향적봉(香積峰)을 경계로 설천면과 경계를 이룬다. 남쪽은 죽천리(竹川里), 서쪽은 장기리와 인접한다. 그리고 북쪽은 망봉(望峰)을 사이에 두고 덕산리(德山里)와 경계를 이룬다.

내당(內堂)마을

내당과 외당, 그리고 돈당은 본래 신당(莘堂)이라 불렀는데, 내당은 덕유산의 서록에 위치한 신당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1914년 안성면 공정리로 편제된 후 외당·돈당(종전 신당)과 함께 공정2리로 구획되었으며, 1961년 봉산마을이 공정1리에서 분리되어 공정2리가 되면서 공정3리로 바뀌었다. 그 후 1972년 외당, 돈당 마을과 분리되면서 내당이 되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당은 옛적에 읍지(邑址)가 있었던 마을로 전해오는데, 마을에는 관아(官衙)터, 매당(梅堂)터, 기당(技堂)터, 옥(獄)터 등으로 불리는 곳이 있고, '탑논'이라 부르는 곳에서는 백제 양식의 석탑(石塔)이 출토되었으며, 옛 것으로 보이는 유물(遺物)이 많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또한 기우제를 지내는 산제당이 있었다고 한다.[113]

---

108) 통안·사탄·용추·장내·봉산.
109) 내당·외당·돈당(敦堂).
110) 통안·사탄·용추.
111) 장내·봉산.
112) 내당·외당·돈당.
113) [지명총람].

마을의 형성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이주환(李柱煥)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살면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옛적 중국의 고사(古事) 중에 유신지야경이윤(有莘之野耕利潤)이 있는데, 그 뜻은 재상 중에 덕망이 높은 이윤이라는 사람이 몸이 늙자 벼슬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살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처음 이 고장에 들어와 살게 된 동기와 같은 이야기여서 고사 중에서 신자를 취하여 신당이라 했다고 한다.

따라서 처음 지명은 신당이었고, 점차 취락인구가 늘고 마을이 형성되면서 안에 있는 동네를 안신댕이(內堂), 바깥에 있는 동네를 바깥신댕이(外堂), 동구 밖에 새로 생긴 동네를 신당(新堂)이라 했는데, 신당은 후에 돈당(敦堂)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내당의 동쪽을 이루고 있는 마을로 골짜기 안에 있는 골땀, 내당 동남쪽에 새로 생긴 새땀, 내당 동쪽의 샘골, 내당 양지쪽의 양지땀, 내당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언덕진 곳에 있는 잿들 등이 있다.

외당(外堂)마을

내당마을과 함께 신당(莘堂)으로 불려왔는데, 신당의 바깥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외당이라는 지명을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1914년 안성면 공정리로 편제된 뒤 공정2리(내당·신당)에 속하게 되었다. 그 후 1961년 공정3리가 되었고, 1972년 공정3리에 속한 세 마을이 모두 분리되어 외당으로 불리웠는데, 1981년 돈당과 다시 합병되었다.

봉산(峰山)마을

통칭 '벌통말'이라 부르는데, 마을 뒷산의 형세가 마치 벌통과 같은 형국이라 붙여진 지명이라고 전한다.

1914년 안성면 공정리로 편제 되었으며, 뒤에 통안·용추·사탄·장내마을과 함께 공정1리로 구획되었는데, 1961년 장내마을과 함께 분리되어 공정2리가 되었고, 1972년에는 장내마을에 속한 자연마을이 되었다. 그런데, 1981년 장내마을과 분리되어 옛 지명인 봉산으로 다시 바뀌었다.

사탄(沙灘)마을

칠연계곡에서 흘러나와 서북쪽으로 흐르는 통안천을 사이에 두고 용추마을과 마주 바라보는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일안면에 속했고, 1914년 안성면 공정리로 편제된 후 공정1리로 구획되었는데, 1972년 옛 지명인 사탄으로 개칭되었다.

지명은 본래 마을의 토질이 모래밭으로 되어 있어 '모래여울(사시랏)'이라는 뜻으로 불리워진데서 유래한다. 칠연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냇물이 옛적에는 사탄으로 흘렀다고 한다.

옛적에 마을 앞에는 못된 부자(富者) 노랭이 영감이 살고 있었는데, 어떤 도사가 영감을 혼내 주려고 도술(道術)을 부려 노랭이 영감집으로 물길을 돌려 소(沼)를 만들어 지금의 용추폭포가 되었다는 전설이 전한다. 이에 따라 냇물이 용추마을 쪽으로 돌아나가게 됨으로써 마을은 모래여울이 되었고, 후에 마을이 형성되면서 사탄마을로 지명을 붙였다고 전한다.

용추(龍湫)마을(대섶피)

용추는 폭포가 떨어지는 바로 밑의 웅덩이, 즉 '용소(龍沼)'를 말한다. 덕유산 동엽령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물이 칠연계곡을 빠져 나와 통안(通安)마을 앞을 지나고, 도술담(道術潭)을 거쳐 용추에 쏟아내어 용소를 만들면서 서북쪽으로 곡류하며 '구리향천(일명 九良川)'으로 빨려든다. 용추폭포와 관련하여 전설이 전해지고 있으며, 지명은 용추폭포가 있는 마을이라서 용추라는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안성면 공정리에 편제된 후 공정1리로 구획되었는데, 1972년 옛 지명인 용추로 개칭되었고, 동쪽에는 대나무가 많은 대숲이 있다.

장내(墻內)마을

마을은 옛적부터 돌이 많아 집집마다 돌로 담장을 쌓아 마치 제주도를 연상케 한다. 비교적 양지바른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비나 바람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편이 못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 재해를 막을 방책으로 각 가정과 마을의 주변에 인위적인 돌담장을 치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장내(墻內)'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즉, 담장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담안'이라 불리 운 것이다.

1914년 안성면 공정리로 편제 된 후 통안·용추·사탄·봉산과 함께 공정1리에 속했으며, 1961년 봉산마을과 함께 공정2리가 되었는데, 1972년 장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 그 뒤 1981년 봉산마을이 분리됨으로써 단일 마을로 독립된 행정분리가 되었다.

통안(通安)

통안은 풍수지리설에서 말하는 삼재불입지지(三災不入之地)로, 모든 재앙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므로 누구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땅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1914년 안성면 공정리로 편입된 후 공정1리로 구획되었는데, 1972년 옛 지명인 통안으로 개칭되었다.

덕유산 동엽령에서 발원한 통안천이 마을의 서쪽으로 흐르면서 계곡을 이루는 칠연계곡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일대는 구한말(舊韓末) 나라를 빼기지 않겠다는 젊은이들이 일본군과 맞서며 구국항일전쟁(救國抗日戰爭)을 벌이던 역사의 현장이다.

칠연계곡의 송정이골(松亭谷)에는 1908년 봄, 일본군과 치열한 전쟁을 치르다가 장열하게 산화한 의병장(義兵將) 신명선(申明善)과 부대원 150여 명의 넋이 고이 잠든 칠연의총(七淵義塚)이 있으며, 계곡의 위에는 의병들의 거점이던 병막골(兵幕谷)이 있다.

칠연계곡에 있는 칠연폭포는 못(淵)이 일곱 개라서 칠연(七淵)으로 불렀다고 하는데, 일곱 개의 크고 작은 폭포가 연달아 있다고 하여 한 때는 칠연폭포(七連瀑布)로 부르기도 하였다. 폭포는 옛적에 어떤 도사(道士)가 신선이 되기 위해서 7년간 수도하던 곳으로 전해 오기도 하는데, 전설과 연관되는 도술담(道術潭), 문덕소(問德沼), 명제소(命帝沼), 선녀탕(仙女湯), 신선바위(神仙岩) 등의 명소가 자리한다. 안성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칠연계곡은 1975년 국립공원덕유산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덕암처사(德巖處士) 김영열(金永烈)의 효행비가 마을 어귀를 지키고 있으며, 1986년 건립한 전라북도 자연학습원(自然學習園)이 있는데, 2002년부터 원불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이 외에 통안에 딸린 마을로 우리골이 있으며, 반장들 서쪽에는 탑거리가 있다. 탑거리에는 전에 탑이 있었는데, 탑은 현재 면사무소로 옮겨져 있다.

3. 안성면 공진리(貢進里)

무주군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래 금산군에 속한 공진말(貢進洞)로 고려 때의 명신(名臣) 김신(金侁)의 고향으로 그와 관계된 지명이 여러 곳 있다. 즉, 평장동(平章洞), 참정들(參政坪) 같은 지명이다. 공진(貢進)이라는 지명도 김신이 왕의 추천(貢)으로 원나라에 나아가(進) 큰 벼슬을 얻었다는 뜻으로 생겼다고 한다. 다른 일설에는 국가에서 땅을 내려주고 지방민이 국가에 바칠 공물(貢物)을 김신의 후손에게 바치게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김신은 고려 고종(高宗) 때 사람으로 원나라와의 국교에 많은 공헌을 남겼다고 한다. 이에 충렬왕(忠烈王) 31년(1304) 김신의 고향인 진례현(進禮縣)을 금주군(錦州郡)으로 승격시키고 지금주사(知錦州事)로 임명했다고 한다. 그 때 공진동(貢進洞)은 금산에 속했던 관계로 그에 대한 모든 기록은 모두 금산인(錦山人)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김신과 관련된 지명은 지금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공진리는 1674년 무주부에 편입되어 일안면에 편제되었고, 1914년 안성면 공진리로 구획된 뒤 공진1리[114]와 공진2리[115]로 나뉘게 되었다. 그 후 1972년 공진1리의 공진과 마암이 각각 분리되었고, 주고와 신월이 같은 마을로 묶이어 주고로 개칭되었다.

공진리 동북은 죽천, 서북은 진도리와 인접하고, 남쪽은 장수군, 서쪽은 진안군과 경계를 이룬다.

공진(貢進)마을

본래의 공진동과 도로변에 새로 생긴 신촌(新村)마을로 형성된 마을이다. 고려 때의 명신(名臣) 김신의 고향으로 그의 초혼장지(招魂葬地)가 있고, 오래 전부터 김신의 후손들이 살면서 건립한 영모재(永慕齋)가 있다. 김신의 묘소는 일제 강점기 때인 1924년 장수에서 무주 구간의 신작로(新作路)를 낼 때, 묘비와 유품들이 나와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때 유물들을 다시 수습하고 성분(成墳)한 후 묘역을 정리했다고 전한다.

김신의 묘와 관련하여 다음과 전설이 전한다. 김신은 임금의 천거로 원나라가 들어

114) 공진동, 마암(馬岩).
115) 주고(酒庫), 신월(新月).

가 공을 세우고 요양행성참정(遼陽行省參政)에 이른 후 고국에 돌아왔다. 그 때 우리나라는 왜구(倭寇)의 침입으로 혼란에 빠졌는데, 그의 어머니가 왜구에게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에 김신은 모친의 유해를 찾으려 했지만, 그 당시 희생당한 시신이 너무나 많아 유골을 분간조차 할 수 없었다. 이에 김신은 쌓여있는 유골들 앞에 제단을 쌓은 후 7일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늘을 향해 통곡하며, "이 많은 유골들 중에 모친의 유해가 있다면 색깔이라도 변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자 갑자기 청천 하늘에서 뇌성벽력과 함께 억수같은 비가 쏟아지고, 유해 한 구가 파란빛으로 변하며, '고려국대효자김신지모골야(高麗國大孝子金侁之母骨也)'라는 글씨가 나타났다. 이에 김신은 모친의 유골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르고, 원수를 갚고자 결심하였다. 그는 다시 원나라에 들어가 황제에게 간청하여 정동군(征東軍)에 참여한 후 일기도(一岐島)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노도와 같은 풍랑을 만나 군사들이 탄 배가 침몰하려 하자,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 파도를 잠재우고 군사들이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김신의 시신을 수습할 수 없어서 그의 혼이라도 달래기 위해 고향 공진동 양지바른 언덕에 장지를 마련하고, 혼백을 묻어 초혼장(招魂葬)을 치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금산의 성곡서원(星谷書院)과 황풍사(皇風祠), 그리고 안성의 죽계서원(竹溪書院)에 김신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1914년 안성면 공진리로 편제된 후 마암마을과 함께 공진1리가 되었는데, 1972년 마암과 분리되면서 옛 지명인 공진마을이 되었다. 이 외에 공진 서쪽 큰 길가를 이루는 새땀과 양지땀, 음지땀 등이 있다.

마암(馬岩)마을

마을의 뒷산에 마치 말발자국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큰 바위가 있어서 '말바우'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말바우를 한문으로 표기하면서 마암(馬岩)이라 하게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성면 공진리로 편제된 후 원공진마을과 함께 공진1리로 구획되었는데, 1972년 공진마을과 분리되면서 마암이라 하였다.

주고(舟庫)마을

본래 지명은 주고(酒庫)로 '숙고지(수꾸지)'라 불리웠다. 숙고지는 '술고지'가 변형된 것으로 '술창고' 또는 '술도가'를 뜻한다.

조선시대에는 마을과 군계(郡界)를 이루는 장수군(長水郡) 계북면(溪北面) 원촌(院村)마을에 관원(官員)의 숙소로 사용한 완경원(翫景院)이 있었는데, 그 당시 완경원을 찾아오는 관원이나 귀한 손님에게 쓰일 술을 담가서 보관하기 위한 도가(都家)가 있던 곳이라 주고(酒庫)라는 지명을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1914년 안성면 공진리로 편제된 후 신월(新月)마을과 함께 공진2리로 구획되었고, 1972년 주고마을로 개칭하게 되었다. 그런데 덕유산 토옥동(土玉洞)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양악(陽岳)과 원촌(院村)을 돌아 나와 서북쪽으로 흐르는 냇가에 위치하고, 마을 가운데에 자리한 우뚝한 동산이 마치 돛대와 같아 마을의 형국이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고 하여 주고(舟庫)라는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

주고는 무주군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안촌(保安村)[116]과 신월(新月·鶴仙里)[117] 등 자연마을이 있다.

4. 안성면 금평리(琴坪里)

안성면의 최동북단에 있는 두문산(斗文山)의 서록 양지바른 언덕에 있는 고원(高原)의 평야로, 마치 신선이 거문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뜯는 형국이라 하여 금평(琴坪)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118]

또한 본래 이 곳은 인가(人家)가 없던 평원이었는데, 고산(高山)의 화평(花坪), 금구(金溝)의 월평(月坪)과 함께 무주의 금평을 승지삼평(勝地三坪)이라 하며, 아름답고 살기 좋은 땅을 찾아온 사람들이 우거(寓居)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금산군에 속했는데, 1674년 무주도호부 이안면(二安面)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 궁대(弓垈)·상두(上斗)·두문(斗文)·안기(安基)·도촌(島村)·금평(琴坪)·장구(長久)와 상곡면의 사교(沙郊) 일부를 병합하여 금평리가 되었다. 그 후 금

116) 보안땀이라 하며, 술고지 동남쪽을 이루는 마을로 보(洑)의 안쪽이 됨.[지명총람]
117) 공진 서북쪽에 새로 생긴 마을로 지형이 학의 모양이라고 함.[지명총람]
118) 큰 들 가운데가 됨으로 금평이라 하였는데, … [지명총람].

평1리[119]와 금평2리[120]로 구획되었는데, 1972년 금평, 궁대, 두문, 안기, 도촌 등 5개 행정분리로 나뉘게 되었다.

금평리의 동쪽은 두문산을 깃점으로 검령(劍嶺)까지는 설천면, 노전봉까지는 적상면과 면계를 이룬다. 남서쪽은 덕산리와 인접하며, 북쪽은 옛날의 상곡면과 경계를 이루던 사전천(沙田川)을 사이에 두고 사전리와 이웃 한다.

궁대(弓垈)마을

옛적에 안성현(安城縣)의 병사들이 훈련하던 활터가 있던 곳이라 전해지는데, 지형이 마치 활 궁(弓)자처럼 휘어져 있어 궁대(弓垈)라는 지명을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성면 금평리로 편제된 후 원금평마을과 함께 금평1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원금평마을과 분리되면서 궁대를 행정지명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금평(琴坪)마을

금평은 안성지역의 고원평지(高原平地)로 밑에서 올려다보면, 마치 높은 산같이 보이나 막상 그 위를 올라가 보면 널따란 평지가 광활하게 펼쳐진다.

옛사람들은 형세가 마치 거문고와 같다고 하여 금평(琴坪)이라 했으며, 승지삼평(勝地三坪) 중의 하나라고 하여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동네가 형성된 복지(卜地)라고 한다.

1914년 안성면 금평리로 편제된 뒤 궁대마을과 함께 금평1리로 구획되었고, 1972년 궁대마을과 분리되어 금평마을이 되었다.

도촌(島村)마을

마을의 앞뒤로 냇물이 흘러 마치 섬같이 보인 까닭에 옛적부터 '섬말'이라 불러 왔는데,[121] 한문으로 표기하면서 도촌(島村)이 되었다고 한다.

---

119) 원금평·궁대.
120) 두문·안기·도촌.
121) 안터 북쪽에 있는 마을로 사방이 전답이어서 마을이 섬같이 보인다고 함.[지명총람]

조선시대에는 이안면에 속해 상곡면과 면계를 이루었는데, 1914년 안성면 금평리로 편제 된 후 이웃 마을인 두문(斗文), 안기(安基)와 함께 금평2리로 구획되었다. 그 뒤 1972년 두문·안기마을과 분리되어 도촌마을이 되었다.

두문(斗文)마을

두문산의 서쪽 언덕에 위치한 마을로 '말글'이란 뜻을 가진 '말그리' 또는 '말거리' 등으로 불리어 왔다. 옛적부터 집집마다 글 읽는 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고, 문장이 뛰어난 훌륭한 선비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이에 되글(升文)로 배워서 말글(斗文)로 사용한다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때부터 마을 이름을 '말글'이라 부르게 되어 지명이 되었고, 말글을 한문으로 표기하면서 '두문'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두문산도 마을의 지명과 연관된다고 한다.

고종 9년(1872)에 학문과 덕망이 높은 마을의 선비들이 모여 문란한 세태를 바로잡기 위해 향약(鄕約)을 만들고, 두람재(斗藍齋)를 건립하였다. 또한 1948년에는 반남박씨 종중 재각(齋閣)에 중학강습소(中學講習所)를 설립했는데, 훗날 이를 기반으로 안성중·고등학교(安城中高等學校)가 설립되었다. 마을 동구에는 여말선초(麗末鮮初) 시기에 불사이군(不事二君)으로 충절을 지킨 박힐(朴詰), 단종애사(端宗哀史) 때 절의를 지킨 박인(朴麟)과 그의 아들 박희권(朴希權)의 충절을 기리는 삼세충의비(三世忠義碑)가 있다.

1914년 안성면 금평리로 편제된 뒤 도촌·안기마을과 함께 금평2리에 구획되었고, 1972년 도촌·안기와 분리되면서 옛 지명인 두문으로 행정분리의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

안기(安基)마을

사방이 산으로 둘러 쌓인 깊숙한 곳에 위치하여 옛적부터 '안터'라 불러왔던 곳인데, 한자로 표기하면서 안기가 되었다.

두문산 서록에 위치하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성면 금평리로 편제 된 뒤 궁대·도촌마을과 함께 금평2리에 구획되었고, 1972년 금평2리에서 분리되어 옛 지명인 안기로 행정분리의 명칭을 삼았다.

옛적에 참봉(參奉)벼슬을 하던 김연(金淵)이 벼슬을 버리고 산수(山水)와 벗하고자 이 곳으로 들어와 양지바른 곳에 터를 잡고 살게 되어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김연의 아들 김경준(金景俊)은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통덕랑(通德郞)에 올랐으며 문행(文行)이 탁월하여 명성이 높았다고 한다. 그가 관직을 그만두고 향리인 안기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배우려는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왔다. 그 때 무주부사(茂朱府使)가 도촌마을 앞에 양청당(兩淸堂)이라는 정사(精舍)를 지어 주고 후학을 양성토록 권장하여 많은 선비를 배출했다고 한다. 지금도 안기에서 도촌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양청당 고개라 부르고 있는데, 양청당은 김경준의 호(號)다.

5. 안성면 덕산리(德山里)

덕유산 향적봉 서록에 위치한 산골 지역으로 덕유산의 '덕'자를 따서 덕산이라는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

본래 금산군에 속했는데 1674년 무주도호부 이안면으로 편제 되었으며, 1914년 덕곡(德谷)·수락(水落. 후에 壽落)·정천(井川)·상산(上山)마을과 같은 행정구역으로 구획되면서 덕산리라는 지명으로 법정리가 되었다. 그 후 덕산1리[122]와 덕산2리[123]로 나뉘었는데, 1972년 덕곡과 수락, 그리고 정천과 상산 등 4개 행정분리로 나뉘게 되었다.

향적봉에서 발원하여 흐르는 계곡물이 덕곡(德谷) 저수지에서 잠시 머물다가 서쪽으로 흘러 상산(上山)마을 앞에 이르러 칠연계곡에서 빠져 나온 통안천과 어울리며, 구리향천을 이룬 후 서북쪽으로 곡류하며 흘러간다.

덕곡(德谷)마을

덕곡(황거를)은 덕산리에서 가장 깊은 계곡에 위치한 마을로 덕유산에서 발원하는 구리향천(一名 九良川)의 최상류 지점이다.

1914년 안성면 덕산리로 편제된 후 수락마을과 함께 덕산1리로 구획되었는데, 1972년 수락마을과 분리되면서 옛 지명인 덕곡으로 하여 행정분리가 되었다.

마을의 동편에 있는 황골(黃谷)에는 옛적부터 마을의 수호신으로 삼고 있는 풍암

122) 덕곡·수락.
123) 정천·상산.

(風岩)이 있어 매년 정초가 되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풍암제(風岩祭)를 지낸다. 옛적부터 미풍양속을 중요시한 마을로 선비들의 모임체인 관선계(觀善契)에서 향약 등을 논의하기 위해 건립했던 만벽정(晩碧亭)이 있었다.

상산(上山)마을

본래 '미말' 또는 '묏밭'으로 불리웠는데, 묏밭은 산옆에 있는 마을 또는 산마을이라는 뜻이다. 옛적부터 산은 '뫼'로 불리웠고, '말'이나 '밭'은 마을을 뜻한다. 그러므로 '미말' 또는 '묏밭'은 산촌(山村)이라는 뜻이다. 미말촌을 중심으로 상산(上山. 양지묏밭·양지면맛·면맛), 중산(中山. 음지묏밭), 하산(下山) 등의 지명이 있는데, 미말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상산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본래 미말은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피해를 입고 폐허가 되었다고 하는데, 후에 위쪽 양지편에 터를 잡고 정착하게 된 양지묏밭이 바로 상산마을이 되었고, 건너편 음지쪽에 자리잡은 음지묏밭은 중산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중산·하산마을과 함께 일안면에 속했고, 1914년 안성면으로 편제되면서 덕산리에 속하게 되었는데, 중산마을은 장기리로, 하산마을은 사전리로 각각 분리되었다. 그 후 덕산리를 2개 분리로 나눌 때 정천마을과 함께 덕산2리로 구획되었고, 1972년 정천마을과 분리되면서 상산이 되었다.

수락(水落)마을

덕유산 깊은 계곡에서 흘러나온 개울이 덕곡마을을 돌아 나오며 흐르는데, 마을 웃머리에서부터 땅속으로 스며드는 관계로 개천은 항상 돌맹이만 들어 나는 수락석출(水落石出)의 현상을 나타낸다고 하여 수락이라는 지명이 붙었다고 한다. 그런데, 아랫 마을부터는 다시 개천 바닥에서 물이 솟아 나온다 하여 정천(井川)이라 부른다. 따라서 수락마을은 덕곡 저수지의 남쪽 망봉 골짜기에 소류지(小流池)를 막아 가뭄을 대비한다.

또한 옛적부터 장수(長壽)하는 사람이 많고, 어른 공경을 즐거움으로 삼는 마을이라고 하여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수락(壽落)'이라는 지명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1972년 옛 지명인 수락(水落·水驛·수래기)으로 개칭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성면 덕산리로 편제 되고, 덕곡마을과 함께 덕산1리로 구획되었는데, 1972년 덕곡마을과 분리되어 수락이 되었다.

마을에는 조선말기의 선비 강지형(姜芝馨)이 후학들을 위해 건립한 강수정(講樹亭)이 있었고, 농은정기인효행비(農隱鄭基仁孝行碑)와 효부의성정씨행적비(孝婦義城丁氏行績碑)가 동구 행 길가에 서 있다.

정천(井川)마을

1914년 안성면 덕산리로 편제 된 후 상산마을과 함께 덕산2리로 구획되었고, 뒤에 상산마을과 분리되면서 다시 옛 지명인 정천으로 부른다.

마을에는 마음씨 착한 앉은뱅이 처녀와 장님 총각의 전설을 담고 있는 우물이 있었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샘물이 마르지 않고 언제나 맑고 찬물이 풍성하게 솟아 주민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웃마을인 수락은 조금만 가물어도 샘물이 떨어져 정천까지 내려와 물을 길어다 먹어야 했다고 한다. 그것은 덕유산 황골에서부터 흘러오던 냇물이 수락마을에서는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정천마을에 이르러 맑은 찬물로 솟아 나와 내를 이룬 때문인데, 이런 연유로 정천(井川·새암내)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전한다.

6. 안성면 사전리(沙田里)

사전리는 본래 안성면과는 다른 행정구역에 속했다. 안성면이 1674년 무주현(茂朱縣)의 도호부(都護府) 승격 때 무주부로 편입되어 같은 군(郡)에 속했으나, 사전리는 상곡면에 구획된 것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기존의 일안면과 이안면 그리고 상곡면 일부와 유가면 일부가 통폐합되어 지금의 안성면으로 구획됨으로써 비로소 안성면에 편입되었는데, 사교(沙郊)·사전(沙田)·구교(鳩郊)마을을 같은 행정구역으로 묶어 법정리인 사전리가 되었다. 그리고 사전1리[124]와 사전2리[125]로 구획되었는데, 1972년 행정분리가 조정되면서 사교, 사전, 하산마을로 분리되어 3개의 행정분리가 되었다.

---

124) 사교, 신기(新基·바랑말).

125) 사전·하산·도촌.

사전리라는 지명은 모래땅이 많은 곳이라 하여 옛적부터 '모래터'라고 불러 온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마을 동쪽은 금평, 남쪽은 장기리와 인접하고, 서쪽은 진도리와 이웃하는데 북쪽은 어각재(魚角峙), 오도재(吾道峙), 마산재(馬山峙)를 사이에 두고 적상면과 면계를 이룬다.

사교(沙郊)마을

두문산에서 발원하여 내를 이루고 진도리(眞道里)로 흘러가는 사전천(沙田川) 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모래땅이 많아 옛적부터 '모래터'로 불리우던 사전(沙田)마을의 외각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사교(沙郊. 앵밑)라 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상곡면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성면 사전리로 편입된 뒤 종전의 바랑말로 불리던 새터와 함께 사전1리로 구획되었고, 1972년 사교로 다시 고쳐 부르고 있다.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터(바랑말)' 또는 신기(新基)라는 지명을 갖는 바랑말은 지형이 마치 스님들이 메고 다니는 바랑과 같다고 하여 '바랑말' 또는 '바랑마을'로 불리웠다고 한다.

사교마을 북쪽 계곡인 오도산(吾道山) 남록 양지바른 곳에는 순조 13년(1813) 건립한 도산서원(道山書院)이 있다. 서원은 순종 2년(1908) 광산김씨 문중에서 도산여학당(道山女學堂)을 세워 사립학교로 운영하면서 지역의 후학 양성에 힘을 기울이다가 신안성초등학교(新安城初等學校)의 전신(前身)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도산서원은 이시애난(李施愛亂) 때 공을 세워 공신(功臣)에 올랐던 김여석(金礪石)과 단종복위(端宗復位)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평생 동안 절의로 일생을 마친 박희권(朴希權)의 위패를 모시고 있고, 신기마을 어귀에는 효부밀양박씨행적비(孝婦密陽朴氏行績碑)와 열부유인대구갈씨행적비(烈婦儒人大邱葛氏行績碑)가 있다.

마을 동편 두문마을 입구에는 신안성초등학교 금리분교장(琴里分敎場)으로 개설된 후 1967년 초등학교로 승격된 금사초등학교(琴沙初等學校)가 있었으나 폐교되었다. 학교 이름을 금사로 한 것은 학구(學區)가 금평리와 사전리이기 때문에 마을 이름의 첫 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사전(沙田)마을

조선시대에는 상곡면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성면 사전리로 편제된 뒤 이안면에 속했던 하산마을과 함께 사전2리로 구획되었으며, 1972년 하산마을과 분리되어 옛 지명인 사전이 되었다.

지질이 모래땅이기 때문에 '모래터(모래실)'라 불려 마을 이름을 사전(평지땀)이라 했으며, 웃말(上村)·양지말(陽村)·평지말(平村)과 종전에 도촌(屠村)으로 부르던 동촌(東村) 등 4개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사전마을은 임진왜란을 피해 덕유산으로 들어온 광산부원군(光山府院君) 김여석(金礪石)의 후손이 우거(寓居)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동구에는 순조 13년(1813) 건립한 광산부원군김여석신도비(光山府院君金礪石神道碑)가 있고, 그 앞에는 집안의 고부효열사적비(姑婦孝烈事蹟碑)가 있다.

하산(下山)마을

하산은 본래 금산군에 속했는데, 1674년 무주도호부 이안면에 편제된 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성면 사전리에 편입되면서 종전의 상곡면에 속하던 사전마을과 함께 사전2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사전마을과 분리되면서 교동(橋洞·橋村·屠村)126)·대정내(大井)·효자촌(孝子村)을 자연마을로 삼아 옛 지명인 하산으로 행정분리의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

효자촌은 본래 안성장(安城場)에서 무주로 넘어가던 어각재(魚角峙) 길목에 있는 마을로, 종전에는 계곡을 경계로 하여 진도리 지역에만 마을이 있어서 진도리 효자촌 뿐이었으나, 후에 계곡의 동편인 사전리 구역에도 마을이 늘어나 같은 효자촌으로 부른다. 따라서 서편은 진도리 효자촌, 동편은 사전리 효자촌으로 갈리었다. 그 때 효자촌은 하산마을에 속한 자연 마을이었다.

1948년 금평리 두문마을에서 중학강습소로 시작한 뒤 1952년 설립인가를 받아 세운 안성중학교(安城中學校)와 1965년에 설립된 안성고등학교(安城高等學校)가 위치한다.

---

126) 다릿말이라 하며, 사전 서쪽에 있는 마을로 도부장수(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며 물건을 파는 장수)가 집단을 이루었다고 함.[지명총람]

7. 안성면 장기리(場基里)

장기리는 안성면소재지로 옛적부터 장터가 있어 진안(鎭安), 장수(長水), 함양(咸陽) 등지의 장꾼들이 문물을 교역하던 곳이다.

본래 금산군에 속했는데 1674년 무주도호부 승격 때 무주에 편입되어 이안면에 속했으며, 1914년 안성면의 소재지가 되었다. 그 당시 장기리에는 산미촌(中山), 비들목(鳩項), 대밭골(竹田), 배냉기(梨木), 이화동(梨花洞) 등이 속했다.

장기라는 지명을 붙이게 된 안성 장터는 현재 하천으로 변해버린 효자촌(孝子村) 앞 개울건너에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1917년 대홍수를 당해서 안성 장터는 모두 떠내려가는 참상을 당했고, 장터는 하천으로 변해버려 쓸모 없는 땅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황무지였던 비들목 건너편 빈들(廓坪)에 면사무소를 비롯하여 각급 기관을 신축하고 장옥(場屋)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고 인가(人家)가 생기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오늘날의 신촌(新村)과 시장(市場)이 되었다고 한다.

그 후 장기리는 장기1리127)와 장기2리128)로 구획되었는데, 1961년 장기1리에 속하던 중산을 분리하여 장기2리로 하고, 종전의 장기2리였던 이목은 장기3리가 되었다. 1972년에는 종전의 3개 리에서 신촌, 시장(비들목 포함), 중산, 하이목(下梨木), 상이목(上梨木) 등 5개 리로 분리되었다.

장기리는 안성면의 중앙지역을 점유하고 있으며, 동쪽은 덕산과 공정리가 인접하고, 남쪽은 죽천리, 서쪽은 진도리와 인접한다. 북쪽은 구리향천을 사이에 두고 사전리와 인접한다.

상이목(上梨木)마을

상이목은 '웃배냉기', 즉 옛적의 '배냉기(梨木)' 중 '웃마을'이라는 뜻이며, 이화낙지형(梨花落地形)이라 한다.129) 조선시대에는 '이목(梨木)' 또는 '이화동(梨花洞)'으로 불리며 이안면에 속했는데, 1914년 안성면 장기리로 편제된 뒤 하이목과 함께 장기2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61년 장기2리에서 장기3리로 바뀌었는데, 1972년 하이목

127) 신촌·비들목(鳩項)·시장·중산.
128) 배냉기·이화동.
129) [지명총람]

과 분리되면서 웃배냉기라는 뜻으로 상이목이라는 지명을 붙이게 되었다.

마을은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丁酉再亂) 때 충무공(忠武公) 이순신의 휘하에서 많은 공을 세우고, 광해군 때 여진족 정벌에 나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이유길(李有吉)의 후손이 살았던 곳으로, 숙종 10년(1684) 정려(旌閭)를 내림에 따라 홍문(紅門)을 세우게 되어 홍문안이라 부르기도 한다.

시장(市場)마을

1917년 대홍수 이후 새롭게 장옥(場屋)을 세우면서 형성된 마을로 옛적에는 '빈들(廓坪)'로 불리던 황무지였는데, 면사무소 등의 기관이 세워지면서 신촌마을과 더불어 발전하였다.

그 이전 안성 장터는 비들목이라 부르던 구항(鳩項)마을과 효자촌 사이에 있었는데, 1917년 홍수 때 모두 유실되고 지금은 하천으로 변해 버렸다. 시장마을과 같은 행정분리에 속한 비들목(鳩項)은 지세가 마치 비둘기와 같은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라고 하는데,[130] 비들목의 외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구교(鳩郊)라 했다고도 한다.

본래 금산군에 속했고, 1674년 무주도호부 승격 때 편입되어 무주부 이안면에 속했으며, 1914년 안성면 장기리로 편제된 뒤 신촌마을과 함께 장기1리로 구획되었고, 1972년 신촌마을과 분리되면서 시장(市場·安城場)의 지명을 붙이게 되었다.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 장옥(場屋)이 모두 불타 새로 복구되었고, 현재 5일장(5일과 10일)이 열리고 있는데, 면 소재지의 중심지로 우체국과 한전출장소 등이 위치한다.

신촌(新村)마을

동남쪽에 우뚝 솟은 단지봉(丹芝峰)을 뒤에 두고 자리한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이안면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성면으로 편입되면서 장기리에 속한 뒤에는 시장·중산마을과 함께 장기1리로 편제 되었다. 그 후 1961년 중산마을과 분리되었고, 1972년에는 시장마을과 분리되면서 행정분리의 명칭이 바뀌게 되어 신촌마을이 되었다.

본래 빈들(廓坪)로 불리던 황무지였는데, 1917년 대홍수 이후 개척된 마을로 안성시장과 같이 시가지를 형성하면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안성면의 행정 중심지로 안성면

130) 안성장 서쪽에 있는 마을로 비둘기가 많이 앉음.[지명총람]

사무소(安城面事務所)를 비롯하여 신안성초등학교(新安城初等學校), 안성농협(安城農協), 무주경찰서 안성지서 등 각급 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중산(中山)마을

안성면 소재지에서 칠연계곡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이안면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성면 장기리로 편입되었다. 그 뒤 신촌?시장마을과 함께 장기1리로 구획되었고, 1961년 장기1리에서 분리되어 장기2리가 된 후 1972년 옛 지명인 중산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래 지명은 '산미촌(山味村)' 또는 '음지멧맡(음지면맛)'으로 불러 왔는데, 옛적에는 마을 건너편 양지바른 곳에 '미말촌'이라 부르던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미말촌은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피해를 입고 없어졌다가 후에 다시 정착하면서 '양지멧맡'로 불렸는데 현재는 '상산(上山)'이라 부르고 있다.

미말촌, 미말, 멧맡, 묏맡이 등은 뫼마을 즉, 산 옆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양지멧말은 산의 양지쪽에 있는 마을을 나타내고, 음지멧맡은 산의 음지쪽에 있는 마을을 지칭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멧맡은 덕유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구리향천 상류에 3개 마을이 있는데, 최상류의 양지편에 있는 마을이 상산(上山)이라 부르는 양지멧맡이고, 개울 건너 음지편에 있는 마을이 중간에 위치한다고 하여 중산(中山)이라 불리는 음지멧맡이다. 그리고 하류에 위치한 마을이 지금의 사전리에 속한 하산(下山)이다.

마을에는 조선 인조 때의 예학자(禮學者) 초려(草麗) 이유태(李惟泰)가 효종 7년(1656), 벼슬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덕유산 아래 산미촌에 터를 잡고 산수와 더불어 벗하면서 후학(後學)을 양성했다는 유허비(遺虛碑)가 있다.

또한 중산마을의 뒷마을 골고리(骨古里·골곡)에는 옛적에 어떤 도사가 신선이 되기 위해 선서(仙書)를 읽었다는 책바위의 전설이 전한다.

하이목(下梨木)마을

이목리(梨木里) 중 아랫마을이라는 뜻이고, 본래 지명은 이목(梨木)으로 '배냉기', 즉 '배나무골'이라고 하여 배나무가 많았던 동네라 하며, 배나무와 어느 선비에 얽힌

전설이 전해 온다.

조선시대에는 이안면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성면 장기리로 편제된 후 상이목과 함께 장기2리로 구획되었는데, 1961년 장기3리로 조정되었다. 그 뒤 1972년 상이목과 분리되면서 아랫마을이라 하여 하이목이라는 지명을 붙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목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이화(梨花), 이목리 남쪽에 있는 마을로 주점이 있었던 화류대(花裡垈)가 있다.

8. 안성면 죽천리(竹川里)

옛적부터 대나무가 많아 '대밭이', '대밭(竹場)'이라 했으며, 본래는 금산군에 속했다. 1674년 무주도호부에 편입되면서 공진동·공정과 함께 일안면에 편제 되었고, 1914년 안성면에 속하면서 명천(鳴川)·무수동(舞袖洞)·비아(飛鴉)·평장동(平章洞)·죽장(竹場)·갈마(渴馬) 등을 포함하는 법정리가 되었다. 그 때 죽천이란 지명은, 죽장(竹場·대밭이)과 명천을 합하면서 죽장의 '죽(竹)'자와 명천의 '천(川)'자를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붙어졌다고 한다.

그 후 죽천1리131)와 죽천2리132)로 나뉘었는데, 그 때 명천(鳴川)을 명천(明川)으로, 무수동과 비아를 합해 신무(新舞)로, 평장(平場)은 평장(坪場)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1972년에 명천, 신무, 갈마, 죽장, 평장 등 5개 행정분리로 나뉘게 되었다.

죽천리는 경상북도와 도계를 이루고 있는 무룡산(舞龍山) 정상에서부터 서북쪽으로 길게 뻗어 내리며 명천 안산, 망봉, 매내미산, 매방재산 등을 두루 지나 진도리 회호(回好)마을 앞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 동북쪽은 공정·장기리와 인접하고, 남쪽은 장수군과 군계를 이루며, 서쪽은 공진, 북쪽은 진도리와 인접해 있다.

갈마(渴馬)마을

마을의 남쪽에 우뚝한 매내미산 정상에서 동북쪽의 무수동마을로 휜 능선과 마을 의 서쪽으로 휜 능선으로 감싸안은 형세가 마치 갈증을 느낀 말이 물을 찾는 형국과 같다고 하여 갈마(渴馬)라는 지명을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

131) 명천·무수·비아.

132) 죽장·평장·갈마.

또한 매내미산 북록계곡에 위치한 마을로 계곡의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 항상 메말라 생활용수마저 부족했기 때문에 마을 위에 연못을 팠다고 한다. 이에 마을의 뒷산 '매내미'라는 지명도 묻혀버린(埋) 내(川)가 있는 뫼(山)를 뜻하여 매내미로 붙인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성면 죽천리로 편제 된 뒤 죽장·평장마을과 함께 죽천2리로 구획되었고, 1972년 죽천2리에서 분리되면서 옛 지명인 갈마를 사용하게 되었다.

명천(明川)마을

덕유산 정상의 남쪽에 위치한 무룡산(舞龍山)과 서남쪽의 삿갓봉에서 발원한 맑고 시원한 물이 서북쪽으로 흐르다가 원통사(園通寺) 계곡에서 만나 명천마을을 가르며 배냉기(梨木) 쪽으로 흐른다. 이처럼 맑고 깨끗한 개울물과 이름 모를 산새들의 소리가 어루러지는 곳이라 하여 옛 선인들은 명천(鳴川)이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명천(明川)으로 바뀌어 불리고 있다.133) 한편 명천리 동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쇠점이 있었던 양수골(점터)가 있다.134)

1914년 안성면 죽천리로 편입되면서 종전의 지명인 명천(鳴川)을 명천(明川)으로 개칭되었고, 아래마을인 무수동과 비아마을을 같은 행정구역으로 묶어 죽천1리로 구획되었는데, 1972년 죽천1리에서 분리되면서 명천이라 하였다.

마을은 진산(鎭山)인 명천안산 북록에 위치한 음촌(陰村·음지땀)과 개울 건너편 양지쪽의 양촌(陽村·양지땀)으로 나뉘어 있는데, 동남쪽의 두룡산 계곡으로 오르다 양지쪽 망봉 기슭을 거슬러 오르면 신라 때의 고찰 원통사가 있다. 원통사는 국난(國難)이 있을 때마다 호국의 의지로 구국대열에 나선 의병(義兵)들이 활동 근거지로 삼았던 유서 깊은 곳이다.

신무(新舞)마을

본래 무수동(舞袖洞)과 비아(飛鴉)가 합해진 마을로 1914년 안성면 죽천리로 편입

133) 명천리(鳴川里·明川里·鳴井里). 신평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는 냇물이 운다 하여 명천리(鳴川里), 지금은 냇물이 맑다 해서 명천리(明川里)라 함.[지명총람]

134) [지명총람]

된 뒤 명천과 함께 죽천1리로 구획되었다. 그 때 종전의 무수동과 비아를 같은 행정분리로 하면서 신무라는 새로운 지명을 갖게 된 것인데, 1972년 명천과 분리되면서 오늘날의 신무가 되었다.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선인무수(仙人舞袖), 즉 선인봉(仙人峰) 준령 밑에 신선이 춤을 추는 형국이라 하여 무수동이라 했으며, 무수동의 개울 건너 비아들(飛鴉坪·비앗들·新坪里)은 마치 까마귀가 하늘을 나는 형국 즉 비아부벽형(飛蛾咐壁形)이라 하여 붙인 지명이라고 한다. 두 마을을 합치면서 새로울 신(新)자를 붙여 신무라 부르는데, 무수와 비아 그리고 새로 생긴 신평(新坪) 등 3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어 있다.

죽장(竹場)마을

본래 '대맡이'라 불려왔던 마을로 옛적부터 대나무밭이 많은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성면 죽천리로 편제 된 뒤 갈마·평장마을과 함께 죽천2리로 구획되었고, 1972년 죽천2리에서 분리되면서 옛 지명인 죽장으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평장(平場)마을

고려 때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낙천재(樂天齋) 김신(金侁)의 출생지라 하여 평장동(平章洞·平章里)이라 한다. 마을의 서쪽에 우뚝 선 매방재산(梅芳齋山) 동록에는 숙종 39년(1713)에 건립한 죽계서원(竹溪書院)이 있는데, 고려 때의 명신(名臣) 김신, 조선 때의 무신(武臣) 장필무(張弼武)와 그의 아들 형제 장의현(張義賢)과 장지현(張智賢)이 배향되어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지닌 평장동(平章洞)이 언제 어떤 이유인지도 모른 채 평장(平場)으로 개칭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성면 죽천리로 편제 된 뒤 죽장·갈마마을과 함께 죽천2리로 구획되었고, 죽천2리에서 분리되면서 평장이 되었다.

9. 안성면 진도리(眞道里)

본래부터 무주에 속한 진도리는 백제의 적천현, 신라의 단천현, 고려의 주계현에 속했다. 조선시대에는 무주현(茂朱縣)의 유야면(柳野面) 또는 유가면(柳加面)에 속했으며, 안성과는 군계(郡界) 또는 면계(面界)를 이루었다. 1914년 안성면으로 편입되면서 도치(道峙)·홀리(笏里)·진원(眞源)·오동(梧桐)마을과 같은 행정구역으로 구획되어 법정리인 진도리가 되었다. 진도리는 진원의 '진(眞)'자와 도치의 '도(道)'자를 따서 지명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후 진도리는 진도1리[135]와 진도2리,[136] 그리고 진도3리[137]로 나뉘었는데, 1972년 도치, 진원, 오동, 오천(梧川) 등 4개 행정분리로 나뉘었다.

진도리는 덕유산에서 발원하여 흘러나온 명천과 통안천, 그리고 사전천이 도치마을 앞에서 합류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구리향천을 끼고 있다.

도치(道峙)마을

봉화산 남록에 자리한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유가면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성면 진도리로 편제된 뒤 효자촌과 함께 진도1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옛 지명인 도치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도치는 본래 '되재'라 불렀는데, 마을에서 삼유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되재이다. 되재는 사람들이 삼유리를 가다가 재가 너무 높아 되돌아 왔다고 하여 붙인 이름으로 후에 도치(道峙)로 변형되었다. 이와 관계되는 명칭으로 삼유리의 되재골 등이 있다.

효자촌(孝子村)은 옛날에 호랑이와 얽힌 사연을 간직한 어린 소년의 거룩한 효행이 알려지면서 부르게 되었는데, 당시의 효행을 기록했던 기념비가 1917년 대홍수 때 유실되어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게 되었다.

오동(梧桐)마을

조선시대에는 유가면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성면 진도리로 편제 된

---

135) 도치(道峙)·효자촌(孝子村).

136) 홀리(笏里)·회효[(回孝) 후에 회호(回好)]·진원(眞源)·별묘(別廟).

137) 상오동(上梧桐)·하오동(下梧桐)·장항(獐項·노루목).

뒤 상오동(上梧桐)·하오동(下梧桐)마을과 함께 진도3리로 구획되었으며, 1972년 자연마을 단위로 행정분리가 조정되면서 오동이 되었다.

지명은 동네의 지세가 마치 오동잎과 같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하는데, 처음 이 곳으로 들어와 살게 된 사람이 오동나무 2그루를 심고 살게 되어 오동(梧桐)이라 했다고도 한다.

이 곳에는 봉림산(鳳林山) 남록에 위치한 상오동(上梧桐·웃머구재)과 진안과 군계를 이루는 하오동(下梧桐·아래머구재)마을이 있다. 그리고 하오동마을에서 부남면을 넘나드는 노루고개[노루목고개·獐項峙, 주장봉망(走獐逢網)이라고도 함] 중간에 있는 장항(獐項)마을이 있는데, 노루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노루목'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오동마을에서 적상면 삼유리로 넘어가는 마분재(馬噴峙) 중간 깊은 계곡에는 산 속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산촌(山村)이라 부르는 마을이 있는데, 산촌 위에는 재가 너무나 높아 오르던 말도 재채기를 하던 고개라 하여 마분재(馬噴峙)라 부른다. 웃머구재 북쪽에 있는 마을로 광대정이산막이 있었다.[138]

오천(梧川)마을

진원마을 앞으로 흐르는 구리향천 건너편에 우뚝한 매방재산 북록에 위치하며, '여우내'로 부르던 마을이다. 진도리의 대부분은 구리향천 북쪽에 자리하여 그 옛날 유가면 지역인데, 이 곳만 유일하게 구리향천 남쪽에 위치하여 옛날의 안성 땅인 일안면 구역에 위치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성면 진도리로 편제된 뒤 회효·진원·별묘와 함께 진도2리로 구획되었으며, 1972년 진도2리에서 분리되어 오천마을이 되었다.

마을의 본래 명칭인 여우내에 대해서는 전하는 바가 없으나, 마을의 지형이 마치 여우와 같은 형국이고, 동네가 계곡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 여우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새로운 지명인 오천(梧川)은, 오동마을과 경계를 이루는 하천을 끼고 있는 마을이라 하여 내 천(川)를 붙여 오천마을이 되었다고 한다.

1961년 신안성초등학교 분교장으로 설립된 후 1966년 승격된 진도초등학교(眞道初等學校)가 위치해 있었다.

---

138) [지명총람]

진원(眞源)마을

진도리에서 가장 먼저 생긴 근원지(根源地)라는 뜻에서 붙여진 지명으로 원래는 지금의 별묘(別廟)마을이 생기기 전부터 별묘마을 뒷산록에 위치했으나, 어느 해 풍수해로 폐허가 되어 지금의 회호(回好)마을 옆으로 옮겨 신촌(新村)을 이루었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안성면 진도리로 편제된 뒤 회호·진원·별묘 등과 함께 진도2리로 구획되었고, 1972년 진원이라는 행정분리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진원에는 신촌(新村·신진원), 회호, 별묘, 산촌(山村) 등이 있는데, 신촌은 본래 별묘마을 뒤에 있던 진원마을이 산사태로 폐허가 된 뒤 지금의 회호마을 옆 행길가에 터를 잡고 이거 해 오면서 생긴 마을이다. 여우내 동쪽에 자리하며 마을 앞 내가 휙 돌아서 흐른다는 회호는 마을의 지형이 마치 옛날 조정의 관원들이 오른손으로 들고 다니던 홀(笏)과 같이 생겼다고 하여 홀리(笏里. 홀출이·回孝里·孝里)로 불렀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회효(回孝)로 부르다가 뒤에 다시 회호로 개칭된 것이다. 그리고 진원리 북쪽에 있는 진원이산막과 회호리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앞으로 구량천이 흐르는 다리골(橋洞)이 있다.

또한 진원마을에서 가장 아래쪽 여우내 서북쪽에 자리잡은 별묘(別廟)는 고종 2년(1865) 하남정씨(河南程氏)의 후손들이 그들 선대인 정태중(程太中) 3부자를 모시기 위해 건립한 도남사(道南祠)를 별묘라 부른데서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도남사에는 중국 송(宋)나라 때 명현(名賢) 정태중과 정명도(程明道) 그리고 정이천(程伊川)의 초상이 모셔져 있다.

제6절 부남면(富南面)

부남면의 본래 지명은 대곡소(大谷所)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 <고적조(古跡條)>를 보면, 고려 때는 안성소(安城所)[139]·횡천소(橫川所)[140]와 함께 금산군(錦山郡)에 속한 특수기관인 소(所)가 설치된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당시 대곡

139) 현재의 안성면.
140) 현재의 구천동.

소가 위치했을 곳으로 추정되는 장안리(長安里)에는 지금도 상대곡(上大谷)과 하대곡(下大谷)의 지명이 있고, 옛적에는 향교가 있었다고 하는 교동(校洞)마을 등이 있다. 또한 대곡(大谷)에는 시장이 섰던 장터가 있었다고 전해온다.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삼국시대에는 백제의 영역에 속하면서 두시이현(豆尸伊縣) 후에는 부시이현(富尸伊縣)으로 편제되었다. 통일신라 때에는 종전의 진내군(進乃郡)에 폐합되면서 진례현(進禮縣)으로 개칭된 지금의 금산에 속하게 되었다. 그 후 진례군 이성현으로 개편되어 고려 초기까지 이어 내려왔다.

고려 때에는 안성 출신 김신(金侁)의 공헌으로 진례현(進禮縣)이 금주군(錦州郡)으로 승격되어 금주군의 속현(屬縣)인 부리현(富利縣)에 소속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금주(錦州)가 금산(錦山)으로 바뀌었고, 부리현은 부동(富東)·부서(富西)·부북(富北)·부남(富南) 등 4개 면으로 나뉘었다. 그 때 대곡은 부남이 되었고 소재지를 대소리(大所里)에 설치하게 되었다. 현재 이 지역의 대소리, 대유리(大柳里) 등에 쓰이는 큰 대(大)자도 옛 지명인 대곡의 대자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1914년 행정개편에 따라 부남면은 부동면(富東面)의 전도리(前島里)와 함께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편입되었는데, 전도리는 무주면에 편입되었다. 그 당시 평당(平堂), 대티(大峙), 대소(大所), 대곡(大谷), 도소(島所) 등을 가당리(柯當里),[141] 굴암리(屈岩利),[142] 대유리(大柳里),[143] 대소리(大所里),[144] 고창리(高昌里),[145] 장안리(長安里)[146] 등 6개 법정리로 편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부남은 본래 부리현을 4개의 면으로 나눌 때, 부리의 남쪽에 있었다고 하여 부리의 '부'자와 남쪽 '남'자를 따서 만들었다고 한다. 다른 한편 금산의 남쪽에 있는 고을이라 하여 부남면(附南面)이라 불렀다고도 한다.

그 이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는데, 1975년 면 출장소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된 후 가당리(柯堂里)와 굴암리 등 오지 사람들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가정출장소'가 설치되었는데, 1998년 폐지되었다.

---

141) 종전 평당리(平堂里) 일부.
142) 종전 평당리 일부.
143) 종전 대티리.
144) 종전 대소리와 도소리.
145) 종전 대곡리 일부.
146) 종전 대곡리 일부.

250여 년전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면 행해진 방앗거리 놀이는 대소·대티·가정마을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무주군내에서 유일하게 계승발전시켜 온 전통민속놀이이다. 부남면에는 강변유원지·조항산과 자장산·문암계곡 등의 관광명소가 있는데, 자연환경을 이용한 비지정 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다.

2003년 10월 현재, 6개 법정리와 16개 분리, 43개 반, 23개의 자연마을으로 구획되어 있다.

1. 부남면 가당리(柯堂里)

조선시대까지는 금산군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군 부남면으로 편입되면서 종전의 가정자(柯亭子)와 평당(平堂)을 같은 행정구역으로 편제하여 법정리가 되었다. 가당이라는 지명은 가정자의 '가'자와 평당의 '당'자를 취하여 만든 지명이라고 한다.

그 후 가당1리[147]와 가당2리,[148] 그리고 가당3리[149] 등 3개 분리로 나뉘었는데, 1972년 군조례 개정 때 가정, 하평당, 상평당으로 부르게 되었다.

가당리에는 백제 진례현의 외각성이던 지삼치성(芝三峙城)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제원찰방(濟原察訪)에 딸렸던 기평원(岐平院)이 있었다. 가당리 동쪽은 굴암리, 남쪽은 대유리와 인접하고, 서북쪽은 덕기봉(德基峰)을 깃점으로 금산군 남일면(南一面)과 부리면(富利面)에 닿아 충청남도와 도계를 이룬다.

가정(柯亭)마을

금산군과 경계를 이루는 지참치(芝三峙)고개 밑에 위치한 마을로 조선시대까지는 '가정자' 또는 '개경자'라는 지명으로 금산군에 속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본군에 편입되었다. 그 후 가당1리가 되었는데, 1972년 군조례 개정 때 가정마을로 개칭되었다.

동북쪽의 갈선봉(葛仙峰)과 북쪽의 수로봉(水路峰) 사이의 지삼치는 금산군의 외각

147) 가정.
148) 아래 평당, 즉 하평당.
149) 웃 평당 즉 상평당.

성이던 지삼치성지(芝三峙城址)로 후백제와 고려가 패권을 다투던 격전장이었고, 지삼치 아래 가정자에는 조선시대 제원찰방에 속했던 기평원이 위치하고 있어 무주와 금산을 왕래하던 관원들의 휴식공간이 되었으며, 동학농민군(東學農民軍)의 이동 경로가 된 역사의 현장이다.

또한 마을에는 조선 단종 때의 충신 김문기(金文起)를 모시기 위해 건립한 백촌사(白村祠)가 있고, 1940년 부남제일공립심삼소학교(富南第一公立尋常小學校) 부설(附設) 가당간이학교(柯堂簡易學校)로 개설되었다가 1944년 초등학교로 승격된 부당초등학교(富堂初等學校)가 있으며, 1975년 지역 주민의 민원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부남면가정출장소(富南面柯亭出張所)가 설치되었으나 1998년 폐지되었다. 마을에는 가나무(모밀잣밤나무)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가정자 동남쪽, 기하봉 밑에 있는 개대(開垈·개티·機下臺), 가정자 바깥쪽을 이루고 있는 바깥땀, 가정자 안쪽을 이루고 있는 안땀 등의 마을이 있었다.

상평당(上坪堂)마을

본래 평당(平堂)이라 불렀고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한 때는 '신촌(新村)'으로 불려왔는데, 후에 평당마을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상평당(上平堂)이라 부르게 되었다. 평당(平堂)이란 본래 마당같이 평평한 땅 위에 있는 동네라는 뜻인데, 후에 들 가운데 있는 동네라는 뜻으로 바뀌어 평당(坪堂)으로 개칭했다고 한다.

조선시대까지는 금산군에 속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군 부남면으로 편입되어 가정·하평당마을과 함께 가당리로 편제 된 후 가당3리가 되었다가 1972년 상평당으로 행정분리가 되었다.

하평당(下坪堂)마을

본래 '평댕이'라고 불렀는데, 한자로 표기할 때 평당(平堂)으로 써오던 것을 근래에 와서 들 평(坪)자로 고쳐 써오고 있다. 조선시대까지는 금산군에 속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군 부남면으로 편입된 뒤 가당2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하평당(아래평당)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하평당이라 한 것은 상평당 아래 마을이라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본래의 '평댕이'는 깊은 산골에 위치하면서도 넓고 평평한 땅이라 하여 평당(平堂)으로 했던 것인데, 후에 들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들 평(坪)자를 붙여 하평당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아래 평당의 양지쪽을 이루는 양지땀과 음지쪽을 이루고 있는 음지땀이 있었다.

2. 부남면 고창리(高昌里)

본래 금산군 부남방(富南坊) 5개리 중 대곡(大谷)에 딸렸던 법정리로, 동쪽의 구왕산(九王山)에서 북쪽의 조항산(鳥項山)에 이르기까지 길다란 능선을 이루고, 서쪽은 지장산(智藏山)을 깃점으로 남쪽의 쌍교봉(雙轎峰)과 북쪽의 지소산(智小山)이 연결되어 동서가 가로막힌 깊은 협곡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 올려다 보이는 것은 높은 산이요 짙푸른 숲이다. 그러기에 옛적부터 고창곡(高昌谷)이라 불러 왔고, 지명도 고창리라 했다고 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군 부남면으로 편입되면서 고창리라는 지명을 붙이고 법정리가 되었다.

마을은 조선 중엽 심씨(沈氏)와 문씨(文氏)가 들어와 정착하면서 형성되었다고 한다. 심씨들이 처음 정착했던 곳을 '심배나무골(深梨木谷)'이라 부르고, 문씨들이 정착했던 곳은 '문던더골 또는 문덤바위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고창리는 다른 곳과는 달리 단일 행정분리로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분리의 명칭도 고창마을로 사용되고 있다. 고창리에 딸린 자연마을은 고창 외에 마을 앞으로 흐르는 고창천(高昌川) 건너편에 있는 '건너들(건네들)'과 '방곡(芳谷)'[150]이 있고, 본 마을 뒷골짜기에는 '심배나무골(심리목골·沈梨木谷)'과 '안골(덕골·兌山)'이 있다. 그리고 고창 가운데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땀, 고창 서쪽을 이루고 있는 아랫땀, 고창 동쪽을 이루고 있는 양지땀, 고창 음지쪽을 이루고 있는 음지땀 등이 있었다.[151]

고창곡은 1908년 문태서(文泰瑞)·신명선(申明善) 등의 의병부대가 옥녀봉(玉女峰) 골짜기를 중심으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전공(戰功)을 세운 항일 투쟁지이다. 또한 3·1독립만세운동 후에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서 마을 한가

150) 방골(房谷). 고창 남쪽에 있는 마을로 방씨가 이루었다고 함.[지명총람]
151) [지명총람]

운데에 버드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 '독립나무'라 이름했다고 한다.

마을 동쪽은 고방재를 경계로 적상면과 면계를 이루고, 남쪽은 장안리와 인접하며, 서쪽은 지장산에서 진안군과 군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북쪽은 옥녀봉에서 대소리와 인접한다.

1962년 부장초등학교(富長初等學校) 분교장(分敎場)으로 설립된 후 1988년 부남초등학교로 조정된 부창분교장(富昌分敎場)이 위치했었다.

3. 부남면 굴암리(屈岩里)

굴암리(굴바·굴바우·窟岩)는 조선시대까지 금산군과 무주군의 경계를 이루던 금강천변(錦江川邊)에 위치한 마을로 가정자마을과 함께 금산군에 속했다. 그런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군 부남면으로 편제되면서 밤소(栗所), 새목(鳥項), 상굴암(上屈岩), 하굴암(下屈岩), 개대(浦垈), 새터(新垈) 등을 같은 행정구역으로 구획되고 법정리인 굴암리가 되었다.

그 뒤 굴암1리[152]와 굴암2리[153]로 나뉘었는데, 1972년 군조례 개정 때 율소(栗所, 새목 포함), 상굴암, 하굴암 등 3개 분리로 나뉘었다.

굴암이라 부르게 된 것은 다음과 같다. 옛적에 상굴암과 하굴암 사이를 왕래하던 행길가에, 부러진 뼈를 맞출 때 접골재(接骨材)로 사용하는 '산골'이라고 하는 자연동(自然銅)이 박힌 바위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산골을 캐기 위해 바위를 뚫어 굴을 판 것이 연유되어 '굴바우(屈岩)'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굴암리 동쪽은 베틀봉에서 남으로 흘러내려 금강에 닿고 황새목으로 거슬러 올라 가면서 무주읍과 경계를 이루며, 남쪽은 조항산에서 서북쪽으로 흘러내린 능선을 따라 봉길(鳳吉) 앞에서 금강에 닿아 각씨바위 주변의 깊은 곳에서 대소리와 인접한다. 또한 서쪽은 금강에서 물뿌리재를 넘어 갈선봉까지 선을 그으며 대유리와 가당리를 스치고, 동북쪽은 베틀봉에서 갈선봉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충청남도 금산군과 도계를 이룬다.

---

152) 상굴암·하굴암·신대(개대 포함).
153) 밤소(栗所)·새목(鳥項).

상굴암(上屈岩)마을

상굴암(웃글바)은 굴암마을 중 윗동네라는 뜻으로, 대유리(大柳里)를 돌아 나온 금강천변에 위치한다. 한편 강 건너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새목(鳥項)입구에서부터 이루어진 '절벽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마을 앞으로 흐르는 강물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다. 이 강물이 바로 금강인데, '감동(甘同)'을 돌아온 강이라고 하여 '감동강(甘同江·금강)'이라 불렀다고 한다.

조선시대까지는 금산군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군 부남면으로 편입되면서 하굴암·율소마을과 함께 굴암리로 편제된 뒤 하굴암마을과 함께 굴암1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하굴암마을과 분리됨에 따라 상굴암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에는 효자(孝子) 송계원(宋桂元)에 얽힌 이야기가 전하며, 효자각(孝子閣)이 세워져 있다.

율소(栗所)마을

조선시대까지는 금산군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군 부남면으로 편입되면서 상굴암·하굴암마을과 함께 굴암리로 편제 되었다. 후에 행정분리로 나뉘어지면서 새목과 함께 굴암2리가 되었다. 그 뒤 1972년 옛 지명인 율소를 행정분리로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래 대소리에 속했으나 후에 굴암리로 편입되었으며, 또한 '밤소'라 불렀는데 한문으로 표기하면서 율소(栗所)가 되었다고 한다. 마을의 지세가 마치 밤송이 속에 들어있는 알밤과 같은 형국이라 하여 밤소가 되었다고도 한다. 더러는 이 지방에 대곡소(大谷所)가 설치되어 있을 때, 밤나무가 많아 생율(生栗)을 생산하던 곳이라고 하여 밤소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한다.

밤소의 동편에 우뚝한 조항산(鳥項山) 북쪽으로 길게 뻗어 내린 능선이 마치 황새 모가지처럼 생겼다고 하여 '황새목'으로 부르는 재가 있고, 밤소에서 골짜기를 따라 오르다 보면 새목(鳥項)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산의 명칭도 새목산(鳥項山)이라 부르고 있다. 그리고 새목 서쪽에 있는 마을로 샛등이가 있는데, 지형이 비조탁목형(飛鳥啄木形)이라고 한다.

또한 조항산 깊은 계곡에는 태조 이성계가 중병이 들었을 때 새목 위에 있는 약수터에서 목욕을 하고 완쾌되었다 하여 '왕바위골'이라 부른다는 전설이 전한다.

하굴암(下屈岩)마을

상굴암 아래 마을이라 하여 하굴암(아래굴바)이라 하며, 상굴암마을 아랫 여울에서부터 무주읍과 경계를 이루는 베틀봉 아래 벼랑 모퉁이까지 이어지고, 덕기봉(德基峰)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흐르는 가당천(柯堂川)이 금강에 유입되면서 갯마을을 이루는 갯터(浦垈, 일명 개대)에서 샛등이로 부르는 신대(新垈)까지 속한다.

조선시대까지 가정자로 부르던 가정마을과 함께 금산군에 속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군 부남면으로 편입된 후 상굴암·밤소마을과 함께 굴암리로 편제되었고, 뒤에 상굴암마을과 같은 구역인 굴암1리가 되었다. 그 뒤 1972년 상굴암마을과 분리되면서 하굴암이라는 행정분리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곳에는 샛등이, 새터(新垈), 개대(일명 갯터) 등의 자연마을이 있는데, 샛등이는 대유리로 넘어다니던 '샛등이재'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신대(新垈)는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터'로 부르다가 후에 샛등이와 함께 같은 마을이 되면서 신대라는 지명으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또한 가정자에서 흘러나온 가당천(柯堂川)이 금강에 닿으며 삼각지를 이루는 '개대'는 옛날 금산과 무주를 오가던 행인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잠시 쉬던 주막이 있어서 '주막담'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강변에 붙어있는 갯마을이라 하여 갯터(浦垈) 또는 개대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새터 동북쪽 버덩에 있는 마을로 번덕땀이 있었다.

4. 부남면 대소리(大所里)

부남면의 행정중심지로 면사무소(面事務所)가 소재한다. 대소라는 지명에 대한 유래는 전해오는 바가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고려 때 장안리(長安里) 지역에 국가의 특수기관인 대곡소(大谷所)가 설치되었고, 이러한 관계로 대소(大所), 도소(島所), 율소(栗所), 목소(木所), 지소(紙所) 등의 지명을 갖는 마을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마을이라 하여 대소라는 지명을 붙인 이 곳은 대곡소가 폐소(廢所)된 이후 부남면의 행정 중심지로 변했고 후에는 면소재지로 발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금산군에 속해 있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군으로 편입되면서 부남면의 소재지가 되었고, 도소(島所)·유평(柳坪)·대소(大所) 등의 마을을 같은 행정구역으로 묶어 대소라는 지명을 붙여 법정리로 삼았다. 그 후 대소를 대소1리로, 도소를 대소2리, 유평을 대소3리로 나누었는데, 1972년 군조례 개정 때 대소, 도소, 유평으로 개칭되었다.

대소리 동쪽은 조항산을 경계로 적상면과 경계를 이루고, 남쪽은 고창리와 인접하며, 서쪽은 지소산(智小山)을 경계로 진안군과 군계를 이룬다. 북쪽은 옛적에 감동강(甘同江)이라 부르던 금강을 사이에 두고 대유리와 인접하며, 북동쪽은 봉길(鳳吉)마을 강 건너 깊은골에서 굴암리와 인접한다.

대소(大所)마을(大水)

본래 지금의 마을 아래쪽인 '넙선들'에 있었으나 몇 차례의 화재로 마을이 전소(全燒)되어 현재의 자리로 옮겨왔다고 하며, 지역에서 가장 큰 마을이라 하여 '대소'라 했다고 한다. 조선시대까지 금산군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군 부남면으로 편입되어 대소1리가 되었는데, 1972년 다시 대소마을로 개칭되었다.

한 때 무주군에서도 교통이 가장 불편한 오지로 알려졌는데, 다른 한편으로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산수(山水)가 아름답고 순박한 성향을 가진 살기 좋은 고장이다. 1990년부터 도로가 확장되어 교통의 오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1914년 이후 설치된 면사무소 이외에 1922년 설립된 부남초등학교(富南初等學校)를 비롯하여 무주경찰서 부남지서, 부남우체국, 농협지소, 보건지소 등의 기관이 위치하고 있다.

개-안(開眼) : 대소 동쪽에 있는 마을. 금강 상류 안쪽에 있음.

문-암(門岩) : 대소 동남쪽에 있는 마을. 마을 뒤에 대문바우가 있음.

도소(島所)마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군 부남면으로 편입된 뒤 대소·유평마을과 함께 대소리로 편제 되었고, 후에 분리로 나뉘어지면서 대소2리가 되었다. 1972년 도소라 하고 행정분리로 삼았다.

도소는 진안 땅을 거쳐 무주군으로 흘러오는 금강 최상류 지점에 위치한 마을이다. 금강은 진안의 감동을 돌아 나와 마을의 북쪽을 안고 크게 돌아 섬소(島所) 앞에 이르러서는 점차 넓어지며 강폭이 두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섬을 만들고, 다시 한줄기로 모여 동남으로 흐르다가 유평(柳坪)마을 남단에서 안창천(安昌川)과 합류하고 동북으로 곡류하며 북쪽으로 흘러간다.

이 강을 옛날에는 감동에서 흘러 온다고 하여 감동강(甘同江)이라 불렀는데, 강으로 둘러싸여 섬을 이루는 마을인 까닭에 옛적부터 '섬소'라 불러왔고, 한자로 표기하면서 도소(島所)가 되었다.

마을에 명당(名堂)자리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이름난 풍수지리가들이 자주 찾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명당을 찾으려면 이 고장에서 만덕(萬德)을 베풀어야만 찾을 수 있다는 전설이 담긴 '만덕거리'가 있다. 그리고 섬소 북쪽에 있는 마을로 앞에 바위가 많다는 질바우(路岩), 섬소 서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순찰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항상 편했다는 뜻을 가진 안죽동(安竹洞)이 있었다.

유평(柳坪)마을

대소리 가운데에 있는 마을로 진안의 감동에서 돌아 나와 섬소(島所)를 만들고 곡류(曲流)해 온 금강천변에 위치한다. 옛적부터 버드나무가 많고 비교적 넓은 들이 있어 유평(柳坪)이라 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금산군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군 부남면으로 편입된 뒤 대소?도소 마을과 함께 대소리에 편제 되었다. 그 후 대소3리로 구획되었는데, 1972년 군조례의 개정으로 옛 지명인 유평으로 개칭되었다.

마을에는 효열부강릉유씨기적비(孝烈婦江陵劉氏紀蹟碑)와 장수황공태우배경주이씨절행비각(長水黃公泰宇配慶州李氏節行碑閣)이 위치해 있다.

5. 부남면 대유리(大柳里)

옛적부터 금산군에 속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군 부남면으로 편입되면서 법정리인 대유리(大柳里)가 되었다. 지명은 같은 행정구역으로 구획된 대티(大峙)의 '대(大)'자와 유동의 '유(柳)'자를 따서 붙인 명칭이다.

그 후 대티를 대유1리로 하고, 유동과 봉길을 대유2리로 나누었는데, 1972년 군조례 개정 때 대티와 유동으로 각각 옛 지명으로 개칭되었다.

대소리에서 빠져나온 금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은 굴암리, 남쪽은 대소리와 인접하고, 서쪽은 구봉(鉤峰)을 기점으로 남쪽은 진안군과 군계를 이루고, 북쪽은 목사리재 능선을 따라 가면서 충청남도 금산군과 도계를 이룬다. 한편 북쪽은 한티(大峙)재 너머로 가당리와 이웃하고 있다.

대티(大峙)마을

임진왜란 때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사는 대티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군 부남면으로 편입된 뒤 유동·봉길마을과 함께 대유리에 편제 되었다. 그 후 대유1리가 되었는데, 1972년 다시 대티마을로 바뀌어 오늘에 이른다.

옛적부터 마을에는 평당(平堂)으로 넘나들던 큰 고개가 하나 있는데, '한재' 또는 '한티재', '대티재' 등으로 불렸다. 한재는 '큰 재'라는 뜻으로 한문으로 표기하면 대티(大峙)가 된다. 즉 우리의 말로 한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고, 티나 치는 재나 고개 등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한티나 대티, 또는 한재는 모두가 큰 재(大峙)라는 뜻으로 통할 수 있다. 따라서 한티재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대티라 하게 되었다.

마을에는 먼 옛날 마을에 살던 처녀 총각이 사랑을 하다가 가문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끝내는 강물에 몸을 던져 죽은 후에 한 쌍의 하얀 기러기(白鷗)가 되어 지금도 살고 있다는 상사바위 전설이 전해온다. 또한 열녀김해김씨(烈女金海金氏)의 열녀비가 동구 밖 언덕 위에 서있고, 한국전쟁 전에 반공의 대열에 섰다가 좌익세력에게 희생당한 청년들을 기리는 반공청년추모비(反共青年追慕碑)가 마을 어귀의 '숲거리'에 조성되어 있다.

1948년 건립된 부남초등학교 대유분교장(大柳分敎場)이 지역의 교육을 위해 존재했으나 폐교되었다.

유동(柳洞)마을

본래 버드나무가 많아 유동(柳洞)[154]이라 했으며, 조선시대까지는 금산군에 속했는

154) 공소말·공수촌(空水村)·공수말이라 하며 대류리에서 으뜸가는 마을이다. 그런데 마을에 우물이 없고, 사소(대소·섬소·봉소·밤소) 사이에 비어 있으며, 버드나무가 있었다고 한다.[지명총람]

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군 부남면으로 편입되었다. 그 뒤 봉길마을과 함께 대유2리로 구획되었고, 1972년 군 조례 개정으로 옛 지명인 유동을 사용하게 되었다.

대소리를 거쳐 흘러 내려온 금강이 유동마을 앞에서 크게 곡류(曲流)하며 동남쪽으로 흐르다가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면서 섬 마을을 이루는데, 지형이 마치 봉의 부리와 같이 생겼다고 하여 '봉황혈(鳳凰穴)'이라고 한다. 이러한 풍수지리설에 사람들은 길한 땅으로 여기고 정착하면서 봉길(鳳吉·봉소)이라는 지명을 붙였다고 한다. 그리고 공수말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골짜기가 많은 돼기(斗億이), 공수말 서남쪽에 있는 마을로 큰 나무가 많은 목소골(木沙·木所谷)이 있다.

또한 마을에는 옛날 천상(天上)에서 내려온 선녀(仙女)가 목욕을 하고 올라가려다가 천의(天衣)를 잃어버리고 오르지 못하자, 인간세계에 남아 결혼하여 아들 셋을 낳았는데, 후에 선녀가 천의(天衣)를 찾아 입고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에서 내린 벼락을 맞고 떨어져 바위가 되어 버렸다는 '각씨소'의 전설이 내려온다.

6. 부남면 장안리(長安里)

부남면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적에는 지삼치(芝三峙)를 넘어 가정자(柯亭子)에서부터 평당(平堂), 대티(大峙), 대소(大所), 도소(島所), 대곡(大谷)에 이르기까지 부남방(富南坊) 전지역의 행정을 관장한 곳이었다. 그 당시 장안리는 '큰 골짜기'라는 뜻으로 '한실'이라 불렸는데, 한실을 한문으로 고치면 곧 대곡(大谷)이 된다.

고려시대 국가의 특수행정지역인 소(所)가 설치되었던 곳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금산군편(錦山郡篇) 고적조(古跡條)를 보면, "대곡소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로 보아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될 때에는 이미 대곡소는 폐소 되었고, 부남방이나 부남면 소재지로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조선말기까지 금산군에 속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군 부남면으로 편입되었고, 면 소재지를 대소리로 옮기면서 장안리(長安里)라는 새로운 지명의 법정리가 되었다.[155]

지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본래 장안이란 오랜 세월을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복지(卜地)라는 뜻이 있어 서울의 성안을 나타내는 말인데, 옛적에 이 지역을 관할하던

155) 한실장터 안쪽이 되므로 장안리라 했다고 함.[지명총람]

대곡소와 부남방을 관장하던 행정의 중심지였다는 뜻에서 붙여진 지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옛날 이곳에 대곡장(大谷場)이 있던 곳이라서 장안(場安)으로 부르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장안(長安)으로 변했다고 한다.

장안리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뒤 장안1리[156]와 장안2리,[157] 그리고 장안3리[158]와 장안4리[159]로 구획되어 4개의 행정분리로 나뉘었다. 그 후 1972년 군조례 개정 때 장안1리는 식암(息岩), 장안2리는 교동(校洞), 장안3리였던 하대곡(下大谷)은 장안(長安), 장안4리였던 상대곡(上大谷)은 상대(上大)로 개칭되었다.

장안리 동쪽은 버들뫼에서 구왕산(九王山)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적상면과 면계를 이루고, 남쪽은 노루고개에서 안성면과 인접하며, 노루고개 서편인 형제봉과 쌍교봉 능선을 따라 진안군과 군계를 이룬다. 또한 북쪽은 방골재 밑으로 고창리와 이웃하고 있다.

교동(校洞)마을

대곡소나 부남방의 소재지였을 때 향교(鄕校)가 있던 곳이라고 하여 교동(校洞·생기말)이라 했다고 한다. 조선시대까지는 금산군에 속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군 부남면으로 편입되면서 식암·장안·상대마을과 함께 장안리로 편제된 후 당골(堂谷)과 함께 장안2리에 구획되었다. 1972년에는 군조례 개정으로 다시 교동으로 개칭되었다.

마을에는 조선 순조 때의 열녀 강릉유씨정려각(烈女江陵柳氏旌閭閣)이 있고, 또한 옛적에는 향교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1935년 장안간이학교(長安簡易學校)로 개설되었다가 1940년 초등학교로 승격한 부장초등학교(富長初等學校)가 있었다.

마을은 무주와 진안간의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부남면 소재지와 노루고개를 넘어가는 길이 교차되는 지점이다. 그리고 생기말 서쪽에 있는 마을로 불당이 있었다는 당곡(堂谷·당골), 생기말 동쪽이 되는 마을로 삼거리에 주막이 있었다고 하여 이름한 주막땀 등이 있었다.

---

156) 시목(柿木)·지소(紙所)·식암(息岩).
157) 교동(校洞)·당골(堂谷).
158) 하대곡(下大谷).
159) 상대곡(上大谷).

상대(上大)마을

본래 대곡(大谷) 웃마을이던 상대곡(上大谷)을 행정분리의 명칭으로 개칭하면서 붙인 지명이다. 상대곡이란 하대곡의 윗마을이라는 뜻인데 대곡이란 '한실', 즉 '큰 골짜기'라는 뜻으로 옛적부터 부르던 지명이다.

이 지역은 고려 때 특수기관 이었던 대곡소가 위치했던 곳으로 한 때는 부남지역 의 행정중심지로 조선시대에는 부남방 또는 부남면의 소재지였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금산군에 속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군 부남면으로 편입되었고, 식암·교동·장안마을과 함께 장안리로 편제 된 뒤 장안4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상대곡을 상대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의 형성과정은 다음과 같다. 조선 초기, 불심(佛心)이 아주 깊은 불자 한 사람이 벼슬을 버리고 전국의 명산을 찾아 다녔다. 그런데, 이곳을 둘러본 후 복지(卜地)임을 알고 머물러 살게 되면서 마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전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알 수 없으나 적상면과 경계를 이루는 마을 동쪽에 '불당산(佛堂山)'이 있다. 그리고 웃한실 동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길고 오래된 돌다리가 동북쪽에 있다는 깊은다리가 있다.[160]

식암(息岩)마을

대소리에서 장안리로 올라가는 길목의 개울가에 위치한 마을로, 평평하고 넓다란 바위가 있어서 그 옛날 대곡장(大谷場)을 오가던 행인들이 쉬어가던 곳이었다고 하여 쉴바우(息岩)이라 이름했다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금산군에 속했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로 편입된 시목·지소와 함께 장안1리로 구획되었다. 그 후 1972년 다시 옛 지명인 식암으로 이름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자연마을은 옛날 대곡소(大谷所)가 설치될 때부터 종이를 만들던 '지소담'과 '지소골(紙所谷)'이 있고, 옛적부터 감나무가 많아 곶감을 생산하던 시목(柿木·감나무골)이 있다. 시목마을은 지금도 감나무가 많아 유명하다.

마을 동쪽은 구왕산을 경계로 적상면과 면계를 이루고, 남쪽은 장안·교동마을과 인접하며, 서쪽은 방골재에서 진안군과 군계를 이룬다. 한편 북쪽은 고창리와 이웃한다.

---

160) [지명총람]

장안(長安)마을

장안말(마을)은 옛날 '한실장' 으로 부르던 대곡장(大谷場)이 있었다는 곳으로 시장 안동네(場安)가 변하여 장안(長安)이 되었다고 전해오기도 한다. 그러나 장안이란 본래 서울의 성안이라는 뜻이므로 옛날 대곡소가 설치되었을 때, 어떤 관아(官衙)같은 기관이 있던 행정의 중심지였다는 뜻으로 붙인 지명으로 여겨진다. 한편 고무골 중간에 있는 마을로 고무골산막(熊洞)이 있었다. 장안마을 관한 전설에 따르면, 옛날 금산이 금계군(錦溪郡)이었을 당시, 한 동안 마을을 금계군의 소재지로 삼았는데, 어느 해 열 두 살 된 어린 소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하여 이를 불길한 흉사(凶事)라 여기고 치소(治所)를 금산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마을의 본래 이름은 대곡인데 윗 골짜기의 마을을 상대곡(上垈谷)으로 부르게 되면서 하대곡(下垈谷)이라는 지명을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까지는 금산군에 속했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무주군으로 편입된 후 부남면 장안리로 편제되었고, 장안3리로 구획되었다. 그런데 1972년 군조례 개정 때 종전의 하대곡을 장안으로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옛날에는 이 곳을 '한실(大谷·垈谷·한실장터)'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큰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순수한 우리 말이다. 즉 '한'은 큰 것을 뜻하고 '실'이란 골짜기 또는 동네를 뜻함으로, 한실을 한문으로 표기하면 곧 대곡(大谷)이 되는 것이다.

[집필 : 박노석]

[참조자료]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11(전북편·상), 한글학회, 1981.
무주군, ≪덕유산의 정기≫, 무주군, 1983.
한글학회, ≪한국 땅이름 큰사전≫, 한글학회, 1991.
무주군, ≪내 고장 전설집≫, 무주군, 1992.
유재영, ≪전북전래지명총람≫, 민음사, 1993.
무주군, ≪통계연보≫(제42회. 2002), 무주군, 2002.
한글학회, ≪우리 토박이말 사전≫, 어문각, 2002.

제3장 무주의 성씨

제1절 한국의 성씨

1. 성씨(姓氏)의 역사

성씨'는 출생의 혈통을 나타내거나 한 혈통을 잇는 겨레붙이의 칭호로, 일정한 인물을 시조로 하여 대대로 이어 내려오는 단계혈연집단(單系血緣集團)의 한 명칭이다.

성씨는 복잡하고도 지속적인 분화과정을 거친다. 이 때문에 같은 조상이면서 성을 달리하기도 하며, 같은 성이면서 조상을 달리하기도 한다. '본'은 본관(本貫), 본향(本鄕), 관향(貫鄕), 관적(貫籍), 선향(先鄕) 등으로 부르며, 시조의 출생지나 정착지 등으로 본을 삼았다.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부터 한자로 된 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삼국사기》,《삼국유사》등에 의하면, 고구려의 건국 시조 주몽은 국호를 고구려라고 하였기 때문에 고(高)씨라 하였다 한다. 그러나 중국 한서(漢書)의 인명 기록을 보면, 고구려 장수왕 이름에 처음으로 고(高)씨 성을 기록하였다.

백제는 '부여(扶餘)'씨, '여(餘)'씨 등을 썼으며, 신라는 박(朴), 석(昔), 김(金) 삼성(三姓)의 전설이 전해 오며, 유리왕 9년(32)에 육부(六部)의 촌장에게 각각 이(李), 정(鄭), 손(孫), 최(崔), 배(裵), 설(薛)씨의 성을 사성(賜姓)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삼국시대에는 성을 쓴 사람보다 성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았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성씨의 체계가 확립되었는데, 고려의 태조 왕건은 개국 공신들과 지방 토호세력들을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전국의 군·현 개편작업과 함께 성을 하사하여 귀족 관료들은 거의 성을 쓰게 되었다.

조선초기 성은 양민에게까지 보편화되었으나 노비와 천민계급 등은 조선 후기까지도 성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나, 1909년 새로운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 어느 누구라도 성과 본을 가지도록 법제화되면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성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성씨의 수를 문헌을 통해 확인하면,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적인 성씨 관계자료인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전체 250여성(姓) 가운데에는 이미 소멸된 망성(忘姓)이 포함되어 있다. 1486년(성종 17)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세종 이후에 귀화한 성과 ≪세종실록지리지≫ 소재 성씨(망성 포함)를 모두 수록한 결과 277성이나 포함되어 있다. 영조 때 이의현(李宜顯)이 편찬한 ≪도곡총설(陶谷叢說)≫에는 298성이 수록되어 있으며, 고종 때 발간된 ≪증보문헌비고≫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존재했던 고문헌에 있는 것을 거의 망라하였기 때문에 무려 496성이나 수록되어 있는데, 고유명자(固有名字)와 이미 소멸된 역대의 망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고려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후대까지 존속된 성의 숫자는 15세기 지리지 소개 성수대로 대략 250성 내외였다.

그렇지만 송나라 소사(邵思)의 ≪성해(姓解)≫에 의하면, 한자성의 종주국인 중국은 2,568성이 있고, 우리의 성에 해당되는 일본의 씨(氏)는 그 종류가 10만에 가깝다 하니, 중일 양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성은 많은 편이 아니다. 더구나 250여성 가운데 김·이·박·최·정씨 등 5대성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씨에 대한 전체 조사가 최초로 실시된 시기는 1930년인데 이때 전국에 250성이 있음이 밝혀졌다. 8·15광복 후 최초의 성씨조사는 1960년도 인구센서스의 부대조사로 실시되었는데, 30년 전의 조사보다 8종이 많은 258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정부수립 이후의 조사는 북한지역이 제외된 남한만의 조사라는 데서 1930년도의 조사 결과와는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없다. 남북분단에 따른 대규모의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남북한의 성씨 구성에도 변동이 컸다. 남한지역에만 사는 성씨가 있는가 하면 북한에만 있는 성씨도 있다.

1985년 11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면서 성씨와 본관을 조사한 결과 1975년도의 247성에 비하여 25성이 새로 추가되어 272성에 본관은 3,435개로 나타났다.

이때 나타난 인구 100명 미만의 희귀성씨 40여 개는 호적 기재 착오로 인한 경우와 고아출신이 입적하거나 외국인의 귀화 때 생겨나는 등 최근에 만들어졌다.

이 조사에서 나타난 10대 성씨의 본관 수를 보면 김씨가 285, 이씨 241, 박씨 128, 최씨 127, 정씨 122, 강씨 33, 조(趙)씨 56, 윤씨 44, 장(張)씨 63, 임(林)씨 60개로 각각 집계된다

2. 2000년 11월 한국의 성씨

현행 민법에서 자식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제781조), 성이 오칭(誤稱)되거나 하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성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2003년 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성씨 및 본관 집계 결과'를 보면, 2000년 11월 현재 우리나라 성씨는 모두 286개(귀화인 제외)였으며, 본관은 4,179개였다. 이 가운데 김(金)씨가 전체 인구의 21.6%인 992만6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씨 다음으로는 이(李)씨 6,795천명(14.8%)와 박(朴)씨 3,895천명(8.5%)이었으며, 김씨 이씨 박씨 이들 3개 성씨 인구만 전체 인구의 44.9%이었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성씨는 이들 3개 성씨를 포함해 최(崔), 정(鄭), 강(姜) 등 6개였다.

한편, 성씨 통계와 별도로 우리나라에 귀화한 외국인들의 성씨를 집계한 결과 모두 442개였으며, 필리핀계 145개, 일본계 139개, 중국계 83개 등이었다. 귀화한 외국인은 혼인으로 인한 귀화가 96.2%이고, 이중 여자가 87.3%를 차지하였다.

제2절 사료를 통해 본 무주의 성씨

1. 세종실록지리지

무주지역에 세거(世居)한 성씨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이다. 이에 따르면, 그 당시 무주현의 호수는 170호이고 인구는 715명이었다.[2] 세거 성씨를 보면, 무풍에 심(沈), 박(朴), 하(河), 전(田), 주(朱), 황(黃) 등 여섯 성씨가 있었고, 주계지역에는 양(梁), 박(朴), 하(河), 주(朱), 최(崔), 호(扈) 등의 여성 성씨가 있는데, 이들 중 박, 하, 주 등 세 성씨는 같은 성씨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책 [전라도 전주부 금산군]을 보면, 대곡(大谷)에는 하(河), 석(石), 정

---

1) 卷151 地理誌 全羅道[全羅道 南原都護府 茂朱縣]

2) 현재의 안성면과 부남면, 그리고 구천동 일대의 횡천소가 제외된 숫자이다.

(鄭), 유(柳), 안(安), 황(黃), 박(朴)씨 등 8성과 속성(屬姓)인 정(丁)씨 등 합 9성이, 안성에는 최(崔), 송(宋), 양(梁), 이(李)씨 등 4성이, 횡천(橫川)에는 손(孫), 김(金) 등 2성이 있었다.

따라서 무주지역에 세거하는 모든 성씨는 27성씨가 된다. 그러나 무풍과 주계 양 지역에 박, 하, 주씨가 공통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안성에 거주하는 최, 양씨가 주계와 중복된다. 그리고 대곡에 거주하는 하, 박, 황씨가 중복된다. 따라서 본과 관계없이 각 성으로 구분할 경우 18성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박, 하, 주, 최, 양, 황씨 등 다섯 성씨가 본이 같은 성씨였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나타난 성씨

	성 씨	비 고
주계	양(梁), 박(朴), 하(河), 주(朱), 최(崔), 호(扈)	6
무풍	심(沈), 박(朴), 하(河), 전(田), 주(朱), 황(黃)	6
횡천	손(孫), 김(金)	2
안성	최(崔), 송(宋), 양(梁), 이(李)	4
대곡	하(河), 석(石), 정(鄭), 유(柳), 안(安), 황(黃), 박(朴), 속성(屬姓) 정(丁)	9
각성	김, 박, 석, 손, 송, 심, 안, 양, 유, 이, 전, 정(鄭), 정(丁), 주, 최, 하, 호, 황	18

1897년에 발간된 ≪적성지(赤城誌)≫ 천(天)과 지(地)를 통해 확인해 보면, 박씨의 경우에는 밀양과 반남박씨가 세거한 것으로 되어 있어 무풍과 주계 그리고 대곡에 세거하는 박씨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하씨는 진주(晉州=晋陽) 한 곳 뿐임으로 무풍과 주계 그리고 대곡에 세거하는 하씨를 진주하씨로 보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주씨는 ≪세종실록지리지≫ 이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도 무풍과 주계에 세거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1759년 편찬된 ≪무주부읍지≫에 나타나지 않고, 이후 ≪적성지≫에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주에서는 일단 사라진 것으로 여겨진다.

2.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 다음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료는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이다. 이에 따르면, 무풍에는 심(沈), 박(朴), 하(河), 전(田), 주(朱), 황(黃) 등 여섯 성씨가 있고, 주계에는 양(梁), 박(朴), 하(河), 주(朱), 최(崔), 호(扈), 손(孫), 이(李), 한(韓) 등 여덟 성씨가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책 [금산군]편을 보면, 안성에 최(崔), 송(宋), 양(梁), 이(李) 등 4성, 횡천(橫川)에 손(孫), 김(金) 등 2성, 그리고 대곡에 하(河), 석(石), 정(鄭), 유(柳), 안(安), 황(黃), 박(朴), 정(丁) 등 여덟 성씨가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나타난 성씨

	성 씨	비 고
주계	양(梁), 박(朴), 하(河), 주(朱), 최(崔), 호(扈), 손(孫), 이(李), 한(韓)	9
무풍	심(沈), 박(朴), 하(河), 전(田), 주(朱), 황(黃)	6
횡천	손(孫), 김(金)	2
안성	최(崔), 송(宋), 양(梁), 이(李)	4
대곡	하(河), 석(石), 정(鄭), 유(柳), 안(安), 황(黃), 박(朴), 속성(屬姓) 정(丁)	9
각성	김, 박, 석, 손, 송, 심, 안, 양, 유, 이, 전, 정(鄭), 정(丁), 주, 최, 하, 호, 황,	18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과 큰 차이점은 없으나, 주계 지역에 손, 이, 한씨가 추가로 기록되고 있다. 이씨는 안성에 거주하던 인물이 주계로 이거(移居)하거나 같은 본을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손씨 역시 횡천의 손씨가 이거하거나 같은 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한씨는 새로 추가되는 성씨이다. 따라서 20성씨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인물에는 명환(名宦)으로 이최(李嘶), 이계수(李桂遂), 이언(李偃)이 기록되어 있는데, 본관이 모두 같은지 아닌지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열녀(烈女)로 양씨(梁氏)가 있다.

3. 무주부읍지와 적성지

1759년 간행된 것으로 여겨지는 ≪무주부읍지(茂朱府邑誌)≫에 의하면, 그 당시 무주도호부는 11개 면에 5,405호, 남자 7,309명, 여자 5,886명 합 13,195명의 인구가 있었다.

성씨는 하(晋州), 김(光山), 이(原州), 최(完山), 양(南原), 한(淸州), 박(密陽), 권(安東), 안(順興), 황(昌原), 송(恩津), 신(平山), 서(達成), 기(幸州), 김(金寧) 등 모두 15성씨를 기록하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비교해 볼 때 권(權), 안(安), 신(申), 서(徐), 기(奇)씨 등 다섯 성씨가 추가되었고, 대신에 석(石), 전(田), 손(孫), 심(沈), 유(柳), 정(鄭), 정(丁), 주(朱), 호(扈)씨 등 아홉 성씨가 빠지게 되어 15성씨가 존재하였다. 그런데, 인물편에서 장필무(張弼武)와 장지현(張知賢)을 소개하면서 장(求禮)씨를 성씨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누락된 성씨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효자로 최만억(崔萬億)과 이귀생(李貴生), 그리고 열녀 양씨(梁氏)와 한소사(韓召史)가 있는데, 본관을 명시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1897년에 발간된 ≪적성지(赤城誌)≫(天)의 성씨(姓氏)를 보면, 각성의 본(本)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역별 세거 성씨는 확인할 수 없다. ≪무주부읍지≫(1759)에 실린 하(晋州), 김(光山), 이(原州), 최(完山), 양(南原), 한(淸州), 박(密陽), 권(安東), 안(順興), 황(昌原), 송(恩津), 신(平山), 서(達成), 기(幸州), 김(金寧) 15성이 구지(舊誌)에 실려있었음을 명기하고, 이(興陽), 박(潘南), 유(文化) 3성을 신증(新增)이라 하여 추가하였다. 따라서 모두 18성씨가 무주에 세거해 왔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방리(坊里)를 설명하면서 부내면(府內面)[3] 당산(堂山)에는 유(柳)씨가 대대로 살고 있으며, 차산(車山)은 옛 다산(茶山)으로 황(黃)씨가 대대로 살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풍면(新豊面)[4] 기곡(基谷)에는 박(朴)씨가 세거하고, 풍동면(豊東面)[5] 원촌(院村)에는 이(李)씨가, 현내(縣內)에는 하(河)씨가, 서동(鋤洞)과 부등(扶等)에는 서(徐)씨가 대대로 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풍남면(豊南面)[6] 철목(哲目)에는 최(崔)씨, 이(李)씨, 권(權)씨, 안(安)씨가 대대로 살고 있으며, 상곡면

3) 현 무주군 읍내리
4) 현 설천면.
5) 현 무풍면.
6) 현 무풍면.

(裳谷面)7) 마산(馬山)과 사교(沙郊)에는 박(朴)씨가, 사전(沙田)에는 김(金)씨가 대대로 살고 있으며, 이안면(二安面)8) 두문(斗文)에는 박(朴)씨가 대대로 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성씨 란에는 18성씨가 나오지만, 방리를 설명하는 중에 나오는 성씨는 유, 황, 박, 이, 하, 서, 최, 이, 권, 안, 박, 김, 박 등 모두 13성씨이다. 이 중 박씨는 신풍면 기곡과 상곡면 마산과 사교 그리고 이안면 두문에서, 이씨는 풍동면 원촌과 풍남면 철목에서 세거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기곡의 박씨는 밀양, 두문의 박씨는 반남으로 구분되며, 앞선 기록을 통해 볼 때 무주지역에 세거하는 박씨가 밀양과 반남을 본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밀양과 반남박씨로 보아 틀림이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씨는 원주와 흥양, 유씨는 문화, 황씨는 창원, 하씨는 진양, 서씨는 달성, 최씨는 완산(전주), 권씨는 안동, 안씨는 순흥, 김씨는 광산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양, 한, 송, 신, 기씨 등 다섯 성씨가 제외되는데, 이는 이들이 무주지역에서 떠난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대신 과환(科宦)을 보면, 원주이씨, 밀양박씨, 진양하씨, 광산김씨, 안동권씨, 반남박씨, 완산(전주)최씨, 순흥안씨, 문화유씨, 창원황씨, 김해김씨, 해주오씨, 달성서씨, 평산신씨, 동래정씨, 탐진최씨, 전주이씨, 함창김씨, 나주진씨 등 모두 19성씨를 기록하고 있는데, 김해김씨, 해주오씨, 동래정씨, 탐진최씨, 전주이씨, 함창김씨, 나주진씨 등 7성씨는 처음 등장한다.

그런데 1957년 발간된 ≪적성지≫(地)의 학교(學校·鄕校)에는 향안성씨(鄕案姓氏)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진주), 김(광산), 이(원주), 최(완산), 박(밀양), 권(안동), 안(순흥)씨 등 7성씨는 구지(舊誌)에서, 이(흥양), 박(반남), 유(문화) 등 3성씨는 신증(新增)에서, 김(김해), 황(창원), 서(달성), 신(평산)씨 등 4성씨는 재증(再增)에서, 전(옥천), 배(성산), 박(밀양), 권(안동), 이(경주), 김(김해)씨 등 6성씨는 삼증(三增)에서, 김(김녕), 김(김해)씨 등 2성은 사증(四增)에서, 권(안동)씨는 오증(五增)에서 취했음을 밝히고 있다.

즉, 23개의 성씨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 중 김해김씨와 안동권씨가 3번 중복되고, 밀양박씨가 2번 중복된다. 따라서 각성별로 정리하면 모두 18성씨가 되는데, 이는

7) 현 적상면.
8) 현 안성면.

1897년에 발간된 ≪적성지(赤城誌)≫(天)과 비교해 볼 때 각성에 있어서 18성씨는 동일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르다. 즉 ≪적성지≫(天)에 나오는 성씨 중 양(南原), 한(淸州), 송(恩津), 기(幸州)씨 등 4성이 누락되고, 옥천전씨, 성산배씨, 경주이씨, 김해김씨가 추가되어 있다.

4. ≪무주군사≫와 ≪무주군지≫

1967년 발간된 ≪무주군사≫는 선구적인 업적으로 그 당시 처음으로 시도된 군사(郡史)의 체계를 띠고 있으나 최낙철(崔洛哲) 선생 혼자 집필한 관계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이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무주의 성씨에 대한 조사나 정리였다. 따라서 무주군사에서는 무주의 성씨가 확인되지 않는다.

1990년 무주군지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무주군지≫는 따로 지리편(地理篇)에서 무주입성(茂朱入姓) 16성(姓)과 60위 한국성씨 중 무주군 관내의 분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적성지≫를 통해 나타난 무주입성 성씨들을 정리하여 일람표를 만들었으며, 1985년 행정관서에서 조사한 60위의 한국성씨 중 무주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무주군에서 세거하였지만 당시 조사에서 60위에 해당되지 않아 누락된 성씨가 있음도 밝히고 있다.

그 당시 무주군의 인구는 총 10,813가구에 47,314명이었는데, 조사된 본관은 166본이었다. 그러나 본관을 확인할 수 없는 418가구가 있었다. 가장 많은 분포율을 갖고 있는 성씨는 김씨로 2,664가구에 11,403명으로 전체의 24.6%이었고, 그 중 김해김씨가 1,495가구 6,512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이었다. 그 다음이 밀양박씨로 853가구에 3,719명으로 7.9%, 전주이씨가 523가구 2,311명으로 4.9%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적은 성씨는 파주염씨(坡州廉氏)로 2가구 12명이었다.

성씨 중 가장 많은 본관을 갖고 있는 성씨는 이씨로 21본[9]이었고 그 다음이 김씨로 18본[10]이며, 나머지 성씨는 6본 이하로 정리되었다. 그 당시 조사된 무주군 거주 각성을 인구수로 보면, 김, 이, 박, 최, 정, 강(姜), 임(林), 한, 황, 신(申), 서, 전(全), 장, 권,

9) 全州, 慶州, 星州, 廣州, 延安, 韓山, 全義, 陜川, 永川, 碧珍, 高城, 星山, 驪州, 仁川, 眞寶, 原州, 善山, 興陽, 鳳山, 完山, 河陰

10)金海, 慶州, 光山, 金寧, 安東, 義城, 江陵, 善山, 淸豊, 延安, 淸道, 商山, 全州, 扶安, 咸昌, 靈山, 高城, 錦山.

송, 하, 조, 양, 오, 배, 유(柳), 백, 윤, 문, 유(劉), 주, 안, 곽, 홍, 나, 손, 고, 성, 허, 정, 심, 조, 구, 엄, 노, 원, 현, 우, 신(辛), 천, 진, 유(兪), 임(任), 남, 지, 차, 민, 복, 함, 전(田), 방, 채, 양, 강(康), 염씨 등이었다.

5. 사료를 통해 본 각성의 무주입성

◇ 안동권씨(安東權氏)

안동권씨로 처음 무주에 이주한 인물은 구봉군(九封君) 권보(權溥)의 6세손인 권칭(權稱)이다. 그는 벼슬이 사직(司直)에 이르렀으나 둔세(遁世)의 뜻을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와 무풍면 철목리로 내려와 살게 되었는데, 자손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다.

◇ 행주기씨(幸州奇氏)

행주기씨로 무주에 처음 이주한 인물은 참봉(參奉)[11]을 지낸 기우(奇遇)이다. 그는 좌승지(左承旨) 기축(奇軸)의 손자로 광주(光州)에서 살다가 무풍으로 이주하였고, 자손이 대대로 살고 있다.

◇ 광산김씨(光山金氏)

광산김씨로 무주에 처음 정착한 인물은 충목공(忠穆公) 김여석(金礪石)의 현손인 김경조(金敬祖)이다. 그는 학문이 박식하고 덕행이 훌륭하였는데, 익위사(翊衛司) 세마(洗馬)[12]에 올랐다. 그런데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해 임금과 동행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와 무주의 안성(安城) 산중을 거쳐 덕유산 백운암(白雲菴)에 머물렀다. 그 뒤 왜란이 종결된 후 이안면(二安面)[13] 사전리(沙田里)에 터를 잡고 정착하였으며, 자손이 대대로 살고 있다. 후손으로 효행이 뛰어난 김상이(金尙蓬)가 있다.

◇ 김해김씨(金海金氏)

김해김씨로 무주에 처음 이주한 인물은 문민공(文愍公) 탁영(濯纓) 김일손(金馹孫)

---

11)종9품 관직으로 여러 관청에 두었다.
12)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의 정9품 관직. 좌우세마 각 1명이 있었다.
13)현 안성면.

의 현손인 계은(溪隱) 김동경(金棟慶)이다. 그는 음직(蔭職)으로 벼슬에 나가 군자감(軍資監)[14] 정(正)[15]에 이르렀는데, 연산군 때 기묘사화(己卯士禍)을 당하여 경상도 청도(淸道)에서 살다가 풍서면(豊西面)[16] 두길리(斗吉里) 옮겨 살게 되었다. 그의 아들 김영(金瑩)은 판결사(判決事)[17]을 역임했는데, 효성이 극진하고 행함이 성실하고 극진하여 일찍이 향리(鄕里)에 이름이 널리 알려졌었다. 자손이 대대로 살고 있다.

◇ 밀양박씨(密陽朴氏)

고려말 목은(牧隱) 이색(李穡)과 상촌(桑村) 김자수(金自粹)에 견주어 결코 손색이 없었다는 국당(菊堂) 박흥생(朴興生)의 둘째 아들인 박인정(朴仁挺)은 함창현감(咸昌縣監)으로 있을 때 단종복위(端宗復位) 운동과 관련하여 관직을 그만두고 주계(朱溪)의 서호(西湖)[18]에 은거(隱居)했으며, 손자 박광선(朴光瑄)은 주계읍 향로산(香爐山) 아래에 터를 잡고 살았는데, 후에 자손들은 신풍면(新豊面)[19] 기곡리(基谷里)에 대대로 살고 있다.

박인정의 종제(從弟)인 서호(西湖) 박계우(朴季遇)은 형을 따라 주계의 서호에 터를 잡고 별장을 짓고 살면서 호를 서호라 했는데, 단종 1년(1453)에 일어난 계유정난(癸酉靖難)의 화를 입고 그 이듬해 죽음을 당하였다. 박인정의 후손으로 학문이 높고 덕행과 효행이 뛰어난 삼암(三巖) 박이겸(朴以謙)과 비암(秘巖) 박이항(朴以恒)이 있고, 삼암의 아들 이봉(伊峰) 박붕령(朴鵬齡) 역시 효도와 가족간의 우애가 깊었다.

◇ 반남박씨(潘南朴氏)

반남박씨로 처음 무주에 들어 온 인물은 임회당(臨淮堂) 박희권(朴希權)의 증손인 박수증(朴壽惺)으로 관직은 군자감(軍資監) 첨정(僉正)[20]에 이르렀으며, 후에 호조참

14)조선시대 관청으로 군수품(軍需品)의 저장과 출납을 맡아보았다.
15)군자감의 으뜸 벼슬로 품계는 정3품이었다.
16)현 설천면.
17)장례원(掌隷院) 소속 정3품 당상관. 장례원의 장관이며, 노비송사에 대한 판결책임관이다.
18)현 무주읍 대차리.
19)현 설천면.
20)조선시대의 돈녕부(敦寧府)·봉상시 등 정3품 당하아문(堂下衙門) 중에서 시(寺)·원(院)·감(監) 등이 붙은 관아에 소속된 종4품직.

판(戶曹參判)에 증직 되었다. 금산(錦山)에서 살다가 이안면21) 두문리(斗文里) 사교(沙郊)로 이사하여 자손이 대대로 살고 있다.

◇ 성산배씨(星山裵氏)

성산배씨의 시조는 고려의 개국공신인 무열공(武烈公) 배현경(裵玄慶)의 후손으로 고려 때 성산군(星山君)에 봉해진 천룡(天龍)을 파조(派祖)로 하고 있다.

성산배씨 중 무주로 처음 이주한 인물은 용양위 부호군(龍蚊衛副護軍)에 증직(贈職)된 한천재(寒泉齋) 배치무(裵莘武)이다. 그는 지례(知禮)에서 설천면 두길리 벌한(伐寒)으로 들어와 정착하였다.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즐겨 읽으면서 자손들을 가르쳤는데, 한 마을에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았다고 한다.

◇ 달성서씨(達城徐氏)

달성서씨로 무주에 처음 이주한 인물은 자(字)가 계광(季光)인 서효재(徐孝載)이다. 그는 선조 18년(1585) 사마(司馬)에 합격하였는데, 문장과 덕행이 뛰어났고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었다. 대구에서 살다가 선조 23년(1590) 풍동면 부등(扶等)으로 이주하여 살았는데,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마을 사람들과 함께 대덕산(大德山)으로 들어가 띠집을 짓고 살면서 한 동네 사람들 모두를 살렸다. 그 뒤 자손이 대대로 살고 있다.

◇ 은진송씨(恩津宋氏)

은진송씨로 처음 무주로 이주한 인물은 송봉수(宋鳳壽)로 관직이 자의(恣意)22)에 이르렀으나 벼슬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였다. 임진왜란 때 무풍으로 이주하여 살았으며, 자손이 지역 내에 흩어져 살고 있다.

◇ 평산신씨(平山申氏)

평산신씨로 처음 무주로 이주한 인물은 문희공(文僖公) 신개(申槪)의 증손인 노암

---

21)현 안성군.

22)조선후기의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소속되었던 관직으로 참하관(參下官) 정7품이다.

(老巖) 신세령(申世寧)이다. 그는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음사(蔭仕)로 충순위(忠順衛)의 승의부위(勝儀副尉)23)에 올랐으나 나가지 않았다. 아버지 신숙빈(申叔彬)이 거창(居昌) 현감으로 있을 때 풍남면 석항(石項)에 들렸다가 이주할 뜻을 가지게 되었다. 그 뒤 기묘사화(己卯士禍) 이후 세상일에 뜻을 버리고 석항리(石項里)로 들어와 살게 되었고, 자손이 대대로 살고 있다.

◇ 순흥안씨(順興安氏)

순흥안씨로 무주에 처음 들어와 생활한 인물은 문성공(文成公) 회헌(晦軒) 안유(安裕)의 9세손으로 주부(主簿)24)을 역임한 안호(安豪)이다. 그는 선조 11년(1578) 충청도 옥천에서 무풍면 철목리로 들어와 살았다.

◇ 문화유씨(文化柳氏)

호가 성곡(醒谷)으로 문성부원군(文城府院君) 충경공(忠敬公) 유량(柳亮)의 손자인 유약(柳約)은 관직이 이조판서(吏曹判書) 이르렀으나 자존심이 높아 남에게 굽힐 줄 모르는 성품으로 중종 때 기묘사화(己卯士禍)와 인종 때 을사사화(乙巳士禍)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었다. 뒤에 조정에서 기덕(耆德)25)으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주계 서호(西湖) 금리(錦里)로 들어와 참소(讒訴)당함을 홀로 깨달았다 하여 성곡이라 호를 붙이고, 서호(西湖)에 살면서 스스로 편하게 지냈다 한다.

사복시(司僕侍)26) 첨정을 지낸 손자 둔옹(遯翁) 유연(柳漣) 역시 관직을 사임하고 낙향하여 서호 금리에 둔세정(遯世亭)이라는 정각을 짓고 살았는데, 자손들이 당산리에 살고 있다.

◇ 원주이씨(原州李氏)

원주이씨로 무주에 처음 이주한 인물은 이여공(李汝恭)이다. 그는 대제학 이이(李蓬)의 5세손으로 세종 30년(1448) 함길도(咸吉道)에 종군(從軍)하여 높은 뜻을 세우

---

23)조선시대 무산계의 하나로 정8품의 관계명(官階名)이다.
24)조선시대 각 아문(衙門)의 문서와 부적(符籍 : 災厄을 쫓는 神符)을 주관하던 종6품 관직.
25)덕(德)이 높은 노인.
26)고려시대 여마(與馬)·구목(廐牧) 등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인데,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고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올랐다. 그런데, 뜻한 바 있어 벼슬을 그만두고 두 아들과 함께 무주로 들어왔다. 큰아들은 진잠현감이었고, 작은 아들은 도사(都事)[27]였다. 자손들은 풍남면 철목리에서 대대로 살고 있다.

◇ 전주이씨(全州李氏)

무풍정(茂豊正)이라 불리는 이총(李摠)의 자는 백원(百源), 자호(自號)는 구로주인(鷗鷺主人)이다. 주계의 서호(西湖)에 집을 짓고 고기잡이 배를 만들어, 항상 시인과 문사들을 초대하고 즐기면서 천여 편에 이르는 시를 지었다. 토지가 비옥하였는데, 이곳은 하사받은 별서(別墅)[28]였다고 한다.

◇ 완산이씨(完山李氏)

충문공(忠文公) 소재(疏齋) 이이명(李蓬命)의 손자인 설천(雪川) 이봉상(李鳳祥)이 신임사화(辛壬士禍. 1722)로 조부(祖父)가 사사(賜死)당하자 본군(本郡) 풍서면(豊西面) 설천(雪川)으로 몰래 들어와 덕행을 쌓으며 은거하였다. 산수(山水)을 좋아하여 호(號)를 설천이라 하였는데, 이로 인해 현재의 설천면의 지명이 유래하였다고도 전한다.

◇ 흥양이씨(興陽李氏)

흥양이씨로 무주에 처음 들어와 정착한 인물은 이맹훤(李孟暄)이다. 그는 조선 성종 때 함길도 병마초토사(兵馬招討使)가 되어 외적을 물리쳐 공을 세웠다. 그러나 싸움터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연산군이 등극하여 시국이 날로 어지러워지고 있었다. 이에 관직을 버리고 무풍으로 내려와 세상을 등지고 숨어살았다. 자손이 대대로 살고 있다. 후손으로 영조 때 정희량(鄭希亮)의 진압에 공을 세우고 병조참의(兵曹參議)에 증직된 두천(斗川) 이만번(李晩蕃)이 있고, 이만번의 동생으로 효행이 높았던 두촌(斗村) 이만경(李晩景)이 있다.

---

27)처음에는 사무를 보았으나, 뒤에 관리의 감찰과 규찰을 맡아보았다. 지방의 각 도에 1명씩 두었으며, 종5품으로 지방관리의 불법을 규찰하고 과시(科試)를 맡아보다가 1882년(고종 19) 폐지되었다.

28)농장이나 들에 따로 지은 집. 전원(田園)의 농막.

◇ 구례장씨(求禮張氏)

구례장씨의 무주 정착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군(本郡) 죽계서원(竹 溪書院)과 영동(永同) 화암서원(花巖書院)에 향사(享祀)되고 있는 백야(栢冶) 장필무(張弼武)가 만포첨사(滿浦僉使)를 지냈고, 그의 큰아들 오류정(五柳亭) 장의현(張義賢)이 "나이 70세에 벼슬에서 물러나 본군(本郡) 당산(堂山)에 살면서 문앞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고 살면서 호를 오류정이라 하였다"29)라는 기록을 볼 때, 장의현이 본군에 정착했음을 알 수 있으나, 장필무가 언제 어디에 세거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따라서 구례장씨는 임진왜란 이후 장의현이 무주읍 당산리에 거주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임진왜란 당시 장의현의 초기 의병활동이 본군(本郡)의 부항령(釜項嶺)30)이었음을 놓고 볼 때, 본군에 거주하거나 본군의 인근 지역에 거주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장필무의 둘째 아들 삼괴(三槐) 장지현(張智賢)은 임진왜란 때 추풍령(秋風嶺)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였는데, 묘지는 적상면 서창에 있으며 정려각(旌閭閣)은 적상면 괴목리에 있다.

◇ 전주최씨(全州崔氏)

전주최씨 중 무주에 처음 이주한 인물은 무풍현감(茂豊縣監)을 지낸 최영보(崔永甫)이다. 그는 산수를 좋아하는 성품으로 관직을 퇴임한 뒤 떠나지 않고 풍남면(豊南面)31) 철목리(哲目里)에 살게 되었고,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후손으로 효성이 뛰어난 선비로 존경받아 죽림사(竹林祠)에 배향된 죽헌(竹軒) 최활(崔活)이 있고, 최활의 6세손으로 영조 때 정희량(鄭希亮)의 난(亂)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운 채포(蔡圃) 최봉래(崔鳳來)가 있다.

◇ 진주하씨(晉州河氏)

진주하씨 중 무주에 처음 이주한 인물은 호군(護軍)을 지낸 사양재(四養齋) 하위국(河衛國)이다. 그는 문효공(文孝公) 하연(河演)의 10세손으로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두

29)… 公以年七十致仕退居本郡堂山植五柳於門前因以爲號亭 …
30)무풍면 금평리 북쪽 골짜기.
31)현 무풍면

어 죽헌(竹軒) 최활(崔活)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등과 교유(交遊)하였으며, 같은 고을의 박이항(朴以恒)·이응배(李應培)·최이덕(崔爾德)·이확(李確) 등과 함께 도의계(道義契)을 맺고 향교에서 생활하였다.

임진왜란 때 가족과 함께 백운산(白雲山)에서 피난했으며, 뒤에 무풍 현내리(縣內里)에 정착하였고, 자손이 대대로 살고 있다. 그의 네 아들 수용(睡弁) 하징도(河徵道), 서악(西岳) 하정도(河呈道), 취은(醉隱) 하형도(河亨道), 모정(茅亭) 하현도(河顯道)는 학문과 효행이 뛰어났다.

◇ 창원황씨(昌原黃氏)

창원황씨로 무주에 처음 이주한 인물은 미재(美齋) 황힐(黃蛙)이다. 그는 개국좌명공신(開國佐命功臣) 의원군(義原君) 황거정(黃居正)의 5대손이며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의 제자로 학문에 열중하였고, 벼슬길에 나가 군자감 봉사(奉事)32)에 올랐다. 그런데 기묘사화(己卯士禍)을 겪으면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낙향하여 주계 다산(茶山)에 터를 잡고 판사(判事)였던 사위 박광선(朴光瑄)과 더불어 집승정(集勝亭)을 짓고 은일(隱逸)했는데, 후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이 외에 김녕김씨, 남원양씨, 청주한씨, 회진(나주)임씨 등이 있으나 사료의 부족으로 서술하지 못하였다.

[집필 : 허인욱]

■ 참고문헌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무주부읍지
무주군사
무주군지
적성지(천·지)
www.burimhong.pe.kr

32) 조선시대 돈녕부와 각 시(寺)·사(司)·서(署)·원(院)·감(監)·창(倉)·고(庫) 등에 설치된 종8품의 동반(東班) 문관직.

◇ 무주입성 일람표(적성지 天·地)

성명	본관	생존시기	연고지	비고
金 佐		고려(～1274)	안성면 평장동	죽계서원. 금산군 일안면
李 蓬	원주 原州	조선초(태종)	무풍면 철목리	풍남면 철목리에 원주이씨 三代의 사당이 있음.
朴天貴	밀양 密陽	〃	주계(朱溪) 서호(西湖)	손자 박인정(朴仁挺)이 무주읍 대차리에 은거하고, 현손 박광선(朴光瑄)은 주계읍에서 세거(世居)함.
河 演	진주 晉州	〃	무풍	무풍면 소재 백산서원. 진주의 옛이름은 진양으로 진양하씨라고도 함.
金礪石	광산 光山	세조～성종	이안면(二安面) 사전리	현손인 김경조(金敬祖)가 임진왜란 종결 후 안성면 사전리(沙田里)에 터를 잡고 정착, 이후 자손들이 세거함. 1603년 이안면 미륵암으로 이장됨.
李深源	전주 全州	태종의 玄孫	주계	태종의 현손이며 채읍(采邑)으로 주계를 하사(下賜)받음. 주계군(朱溪君)으로 불리웠으며, 점필재(僉畢齋) 김종직(金宗直) 문인(文人)
李 摠	전주 全州		서호(西湖)	무풍정(茂豊正)이라 불리운 것은 하사받은 별서(別墅)가 무풍인 때문으로 여겨짐.
朴希權	반남 潘南	세조 代	이안면 두문리	점필재 김종직 문인으로 단종 폐위 후 금산(錦山)에 은거하며 절의를 지킴. 증손인 박수증(朴壽惺)이 안성면 두문리(斗文里) 사교(沙郊)로 이사하여 자손들이 대대로 살게 됨.
柳 約	문화 文化	인종 代	주계 서호 금리(錦里)	을사사화(乙巳士禍) 후 무주읍 대차리에 정착.
張弼武	구례 求禮	임진왜란 전후	무주읍 당산리	아들 의현이 임진왜란 후 무주읍 당산리로 들어와 세거.
林 机	회진 會津	효종 代	주계 서호	회진은 지금의 나주. 시호는 충익공(忠翼公)

寓居

성명	본관	생존시기	연고지	비고
崔永甫	전주全州	세종 代	무풍 철목리	무풍현감 퇴임 후 정착. 조부 등 확인할 것.
朴仁挺	밀양密陽	세조 代	주계	향로산 아래 후손들이 설천면 기곡리로 이거. 박천귀의 후손
李汝恭	원주原州	세종 代	무풍 철목리	조선초기 철목리에 자리한 李蓬의 5세손
李孟暄	흥양興陽	성종 代	무풍	함길도 병마초토사. 興陽君 李吉의 玄孫
金敬祖	광산光山	선조 代	안성(이안)면 사전리	김여석의 현손으로 임진왜란 때 피난. 왜란 후 정착.
權 稱	안동安東		무풍 철목리	九封君 菊齋 권보(權溥)의 6세손.
河衛國	진주晉州	선조 代	무풍 현내리	하연의 10세손.
安 豪	순흥順興	선조 代	무풍 철목리	文成公 晦軒 安裕의 9세손
朴壽惺	반남潘南		안성(이안)면	두문리 沙郊 박희권의 증손.
柳 漣	문화文化	선조 代	무주읍 당산리	유약의 손자. 돈세정. 西湖 大村에 유허비와 비각이 있음.

성명	본관	생존시기	연고지	비고
黃 蛙	昌原	중종 代	朱溪 茶山(무주읍 차산리)	吏曹參判 黃俊源 子. 기묘사화 후 낙향. 集勝亭 건립.
徐孝載	達城	선조 代(1590)	豊東面 扶等	達城君 徐熤의 9세손. 崇慕祠에 배향되어 있음.
奇 遇	幸州		무풍	左承旨 奇軸의 손자.
金棟慶	金海	중종 代	豊西面 斗吉里	金馹孫의 玄孫으로 기묘사화 때 경북 淸道에서 이거.
申世寧	平山	중종 代	豊南面 石項里	기묘사화 후 은거.
宋鳳壽	恩津	임진왜란	무풍	雙淸堂 宋愉의 5세손.
權 春	安東	임진왜란		忠愍公 權悰의 子.
裵莘武	星山		설천 伐寒의 四仙岩	武烈公 裵玄慶의 후손.
全義遠	沃川		赤裳山 아래	옥천에서 적상산 아래로 이거. 忠簡公 沙西 全湜의 후손.
賓奉希	達城	인조 代	안성 莘堂	文成公 賓宇光의 10세손. 扈聖功臣 賓인의 子. 서울에서 안성으로 이거.
金 淵	樂安		안성 安基 - 島村	호조판서 金麗光의 子. 옥천에서 이거.
金舜壽	金海	임진왜란 후	적상면 斜川里	安敬公 金永貞 후손. 임진난 때 신의주 동행, 忠義錄 하사 받음.
金 河	金海		부남면 屈岩里	金馹孫의 후손으로 경남 山淸에서 이거.
李崇禮	慶州	임진왜란	무주 대덕산 아래 富坪洞	檢校左政承 李誠中의 7세손으로 尙州에서 이거.
姜 潭	晉州		부남면 大所里	博士公 姜啓庸의 후손.
葛天一	南陽	임진왜란	무주 吾山里	愚隱公 葛成龍의 8세손으로 大邱 花園에서 이거.
金逸福	金寧		西面 大村	白村 金文起의 10대손. 祖父는 설천면 三公里에 살았음.
朴世厚	密陽		무주 佳玉里	秘巖公 朴以恒의 후손.
崔斗權	全州	1789년대	안성 沙田里 玉山洞	경남 固城에서 이거. 향로산 아래로 향교 이건 때 참여.
徐得一	達城	1700년대 전후	안성 斗文	三南均田制處使 龜溪 徐沈의 후손. 경북 宜寧에서 이거.
李 孫	慶州		무주 大車里	이손의 12대손 李泰洪이 무주 대차리 거주.

성명	본관	생존시기	연고지	비고
孔淪世	曲阜	임진왜란	안성 安基	壽樂, 道峙 馬岩과 장수군 외림, 연화리, 양악 등지. 昌寧 智谷에서 이거.
黃鍾壽	長水		부남 柳坪里	府使公 黃瓘의 후손.
姜應溥	晉州		안성 上山	文良公 姜希孟의 후손으로 경기도 漣川에서 이거.
朴永云	密陽		안성 沙灘과 龍湫	大提學 朴陟의 17세손으로 서울에서 금산으로 이주 후 안성으로 이거.
李伯煥	全州		안성 德谷	임진왜란 당시 忠臣 李宗仁의 10세손으로 전남 창평에서 이거.
李圭鐸	慶州	1865년	안성 沙田里	活溪 李大유의 9세손으로 南原 梯谷에서 이거.
朴思齡	密陽		적상 致木. 梨洞	菊堂公 朴興生(박천귀의 子)의 11세손으로 충북 永同에서 이거.
郁齡	密陽		무주	孫軸의 9세손으로 論山에서 이거.
金國允	金海	고종 代	무주	김일손의 후손, 경북 청도 → 함양 → 무주
趙相龜	咸安		설천 新村	貞節公 漁溪 趙旅의 11세손. 경남 함안에서 이거.
李厚德	娘西		무주 大德山 아래	孤隱 李智活의 후손으로 거창에서 이거.
李希元	慶州		무풍 金坪里	대대로 知禮에서 살다가 赤裳山史庫 參奉으로 역임되어 이거.
金時河	義城		무주 基谷	文敬公 茅齋 金安國 후손으로 懷德에서 이거.
權龜悅	安東		안성 壽樂	太師公 權幸의 후손이며 梅軒公 權遇의 13세손으로 泰仁에서 이거.
趙龍植	白川		안성 眞道里	重峰 趙憲의 9세손으로 금산에서 이거.
郭 璟	玄風		무풍 池洞	警庵公 郭鎭邦의 후손으로 지례 관덕에서 이거.
金奎榮	善山		안성 龍湫	省庵 金孝元의 8세손으로 서울에서 이거.
洪執淳	南陽		안성 井川	南陽府院君 莊簡公 洪戎의 15세손으로 경남 함안에서 이거.
姜在圭	晉州	고종 代	안성 竹場	姜希孟의 13세손으로 淵齋 宋秉璿 문하에서 수학. 옥천에서 이거
成必鴻	昌寧		무풍	弘文館 太學史 成萬庸의 후손으로 창녕에서 이거.
朴達浩	密陽	고종 代	안성 德谷	吏曹判書 密山君 朴仲孫의 15세손으로 진주 梧坊에서 이거.

성명	본관	생존시기	연고지	비고
李重榮	月城		안성 德谷	경남 山淸 車黃面 傅洞에서 이거.
劉載權	江陵		안성 眞道里	文僖公 劉敞의 21세손으로 전남 長城에서 이거.
章現華	居昌		안성 德谷	東湖公 章萬里의 10세손으로 경남 거창에서 이거.
金斗泰	咸昌		무주읍	咸寧君 金饒의 후손으로 충남 沃川에서 이거.
河舜朝	晉州		무풍 金坪里	參判公 河孝明의 후손으로 大德에서 이거.
玄禹喆	延州		무풍 銀山里	禮曹判書 玄獄亮의 13세손으로 경남 居昌에서 이거.
朴熙永	咸陽		무풍 德坪	禮曹參議 박구(朴矩)의 후손으로 경북 星州에서 이거.
金溶光	金寧		무풍	白村 金文起의 후손으로 咸陽에서 이거. 함양향교의 교임 역임.
吉民極	海平		적상 吉旺里	冶隱 吉再의 16세손으로 善山에서 이거.
崔應肇	聞慶		설천 방재(芳峙)	武愍公 崔塋의 22세손으로 平安道 龜城에서 이거.
金洪鎭	安東		무풍 大德山 아래	吏曹判書를 지낸 寶白堂 김계행(金繫行)의 후손.
林鳳植	平澤		안성 沙郊	忠愍公 林慶業의 후손으로 충북 忠州에서 이거.
金昌洙	金海		무풍	三適堂 金遇明의 후손으로 沃川 竹項에서 이거.
李孟燁	陜川	고종 代	안성 德谷	文質公 이예(李芮)의 19세손으로 경남 山淸에서 이거.
徐萬泰	利川	壬午年	무주 明川洞	戶曹參判 徐光錫의 증손.
李秉善	星州		무풍 池山	娘西郡公에 追封된 李長庚의 20세손으로 거창 茅谷에서 이거.
鄭煥哲	河東		안성 莘堂	정여창의 동생 정여관의 13세손으로 咸陽에서 이거.
吳仁泳	海州		무주읍	貞武公 吳定邦의 후손.
李志浩	星州		무풍	星山府院君 亨齋 李稷의 18세손으로 嶺南에서 이거.
崔鉉瑛	慶州		적상 沙山里	觀稼亭 崔淸의 후손으로 창녕에서 이거.
鄭榮煥	晉州		적상 馬山리	忠莊公 鄭梁의 후손으로 安義에서 이거.
金今復	金寧	1782년	적상 上鳥리	白村 金文起의 16세손으로 鎭安에서 이거.





제4편 무주의 역사인물



제4편 무주의 역사인물

제1절 무주에 들어와 정착한 인물

○ 갈천일(葛天一)

갈천일의 본관은 남양(南陽)이며 와룡(臥龍) 제갈량(諸葛亮)의 후손(後孫)으로 갈언회(葛彦饒)의 아들이다. 그의 8대조 우은(愚隱) 갈성룡(諸葛成龍)은 고려 때 우림장군(羽林將軍)을 역임하고 대광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의 벼슬에 올랐고, 조선의 태조(太祖) 이성계와 더불어 황산전(荒山戰)에 참여하여 아지발도(阿只技都)가 이끄는 왜구를 물리친 공으로 영의정(領議政)에 증직 되었다.

갈천일은 임진왜란을 당하여 자손들을 데리고 대구 화원에서 무주읍 오산리로 옮겨와 농사짓고 글을 읽으면서 살다가 여생을 마쳤다.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그대로 살게 되었는데, 그의 6세손인 운포(雲圃) 갈춘재(葛春裁)는 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의 문인(門人)으로 용양위 부호군(龍?衛副護軍)을 지냈다. 『적성지(地)』

○ 강 담(姜 潭)

강담은 본관이 진주(晉州)로 박사(博士) 강계용(姜啓庸)의 후손(後孫)이며 강윤원(姜允元)의 아들이다. 일찍이 고산군수(高山都守)로 나아갔다가 바로 사직하고 부남면 대소리로 들어와 농사와 후진 양성에 힘쓰며 살았다. 그로 인하여 이 곳에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강응보(姜應溥)

강응보는 본관이 진주(晉州)로 호는 국포(菊關)이며, 벼슬은 오위장(五衛將)을 하

였다. 문량공(文良公) 강희맹(姜希孟)의 후손으로 진사(進士) 강석하(姜錫夏)의 아들이다. 대대로 연천(涎川)에서 살다가 안성면 상산으로 들어와 살았다.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그의 손자인 강공환(姜公煥)은 호가 지봉(芝峰)으로 통훈대부(通訓大夫) 사복시정(司僕寺正)의 벼슬을 하였다. 『적성지(地)』

○ 강재규(姜在圭)

강재규는 본관이 진주(晉州)로 호는 죽헌(竹軒)이며, 문량공(文良公) 강희맹(姜希孟)의 13세손으로 임진왜란 때 중봉(重峰) 조헌(趙憲)을 따라 금산(錦山)에서 순절(殉節)한 칠백의사(七百義士) 중 한 사람인 강난복(姜蘭福)의 10세손이다.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의 문하에서 공부하였고, 벼슬은 돈령부도정(敦寧府都正)을 역임하였다. 그는 옥천에서 살다가 재종제(再從弟) 강재두(姜在斗)와 함께 안성면 죽장으로 이사하여 살았고, 그로 인해 자손들이 이곳에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공륜세(孔淪世)

공륜세의 본관은 곡부(曲阜)이며, 고려 때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를 지낸 회원군(檜原君) 공소(孔紹)의 15세손이며,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과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지낸 공종주(孔宗周)의 10세손인 공인의(孔仁儀)의 아들로 벼슬은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이르렀다.

창녕(昌寧) 지곡(智谷)에서 살고 있다가 임진왜란 때 아들 공논희(孔論希)·공응희(孔應希)·공학남(孔學南)을 데리고 안성의 안기로 이사하여 살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수락·도치·마암과 장수군 외림·연화리·양악 등지에 나뉘어져 살고 있다. 『적성지(地)』

○ 곽 경(郭 璟)

곽경은 본관이 현풍(玄風)으로 호는 덕은(德殷)이며, 경암공(警庵) 곽진방(郭鎭邦)의 후손이다. 그는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독서와 어초로 생활하였다. 풍월과 산수를 좋아하여 지례 관덕에서 무풍면 지동으로 이사하여 은거하였다.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권 춘(權 春)

권춘은 본관이 안동(安東)으로 호는 어초(漁樵)이며, 충민공(忠愍公) 권종(權悰)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 권종(權悰)은 임진왜란 때 금산군수로서 금산 닥실(저곡) 나루에서 금산으로 침입하는 왜적과 싸우다가 순국(殉國)하였다. 그는 경기도 연천에서 안성면 덕산리로 이주하였고 그로 인해 그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권 칭(權 稱)

권칭의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중량(仲量)이다. 진사 권숭조(權崇祖)의 아들이고, 대사간(大司諫)을 지낸 권추(權錘)의 손자로, 삼중대광찬성사(三重大匡贊成事) 권준(權準)의 5세손이며, 구봉군(九封君) 국재(菊齋) 권부(權溥)의 6세손이다. 사직(司直)의 벼슬에 이르렀으나, 세상을 등지고 살고 싶어 서울에서 무풍면 철목리로 들어와 살았으며, 그로 인해 자손들이 이 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다. 『적성지(天)』

○ 권귀열(權龜悅)

권귀열은 본관이 안동(安東)으로 태사공(太師公) 권행(權幸)의 후손이며 매헌(梅軒) 권우(權遇)의 13세손이다. 학문에 힘을 쓰며 자신이 처해있는 본분에 만족하며 살았다. 산수(山水)를 좋아하여 태인에서 안성면 수락으로 이사하여 살았는데, 효행으로 판관(判官)의 벼슬에 증직 되었다. 그로 인하여 그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기 우(奇 遇)

기우의 본관은 행주(幸州)인데, 습독첨정(習讀僉正) 기조(奇稠)의 아들이며, 좌승지(左承旨) 기축(奇軸)의 손자로 관직은 참봉(參奉)을 지냈다. 광주(光州)에서 살다가 무풍으로 이주하여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天)』

○ 길민극(吉民極)

길민극의 본관은 해평(海平)이며 호는 사암(斜岩)으로 야은(治隱) 길재(吉再)의 16세손이며, 임피현령(臨破縣令)을 지낸 길인종(吉仁種)의 13세 손이다. 효행이 남달랐

고 학문이 깊었다. 그는 경북 선산에서 살다가 적상면 길왕리로 들어와 살게 되어 그 자손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김경조(金敬祖)

김경조의 본관은 광산(光山)이고, 자는 성보(聖輔)이다.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낸 충목공(忠穆公) 김여석(金礪石)의 현손으로 학문이 박식(博識)하고 덕행이 훌륭하였다. 익위사(翊衛司) 세마(洗馬)의 벼슬에 올랐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선조 임금이 파천하자, 남쪽으로 내려와 무주의 안성 산중으로 들어와 며칠 머물다가 다시 덕유산 백운암(白雲菴)으로 들어갔다. 병란이 잠잠해 지자 사전리(沙田里)에 터를 잡고 정착하여 그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天)』

○ 김국윤(金國允)

김국윤은 본관이 김해(金海)로 호는 일재(一齋)이며, 탁영(濯纓) 김일손(金馹孫)의 후손이다. 그는 청도에서 살다가 함양으로 옮겨 살았는데, 만년에 무주에 터를 잡고 거문고를 타며 책 읽는 풍류를 즐기며 살았다. 그는 고종 27년(1890)에 통정대부 호조참의(通政大夫戶曹參議)에 증직되었다. 『적성지(地)』

○ 김규영(金奎榮)

김규영은 본관이 선산(善山)으로 호는 쌍낙재(雙樂齋)이며, 병조좌랑(兵曹左郞)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 등을 역임하고 이조판서(吏曹判書)로 추증된 성암(省庵) 김효원(金孝元)의 8세손이다. 그는 서울에서 덕유산으로 들어와 안성면 용추에 살면서 산수를 즐겼는데, 문장으로 이름을 크게 떨쳤고 학행이 남달리 뛰어났다. 그의 증손(曾孫) 김호상(金鎬翔)·김호열(金鎬列)·김호면(金鎬冕)은 모두 글로 이름을 날렸다. 『적성지(地)』

○ 김금복(金今復)

김금복은 본관이 김녕(金寧)으로 충의공(忠毅公)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의 16세손이다. 그는 영조(英祖) 4년(1782)에 일어난 무신난(戊申亂) 때 진안에서 무주 적

상면 상조리로 이사하여 살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와주었다. 노모를 효성으로 섬겨 인근의 고을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었으며, 면(面)과 이(里)에서 효행을 포상(褒賞)받았다.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 『적성지(地)』

○ 김동경(金棟慶)

김동경의 본관은 김해(金海)이며, 자는 도여(道餘)이고 호는 계은(溪隱)이다. 진사 김치삼(金致三)의 아들로 현감 김대장(金大壯)의 증손이며, 문민공(文愍公) 탁영(濯纓) 김일손(金馹孫)의 현손인데, 벼슬은 음직(蔭職)으로 군자감(軍資監) 정(正)에 이르렀다.

청도(淸道)에서 살다가 기묘사화 (己卯士禍)를 당하여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斗吉里)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 그의 아들 김영(金塋)은 자(字)가 논세(論世)로 판결사(判決事)의 벼슬에 올랐는데, 어버이를 섬김에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옳음을 행함에 성실하고 극진하여 일찍이 향리(鄕里)에 이름이 알려졌다. 그 자손들이 대대로 이곳에 살고 있다. 『적성지(天)』

○ 김두태(金斗泰)

김두태는 본관이 함창(成昌)이며 호는 남계(南溪)인데, 고려 때 삼사좌윤(三司左尹)을 지냈으며 홍건적(紅巾賊) 침입 때 왕을 호종(扈從)하여 일등공신(一等功臣)으로 삼중대광(三重大匡) 찬성사(贊成事)에 올라 함녕군(咸寧君)에 봉해진 김요(金饒)의 후손이다. 성균진사(成均進士) 출신으로 벼슬은 음직(陰職)을 받아 통사랑 남부참봉(通仕郞南部參奉)을 지냈다. 그는 옥천에서 살다가 만년에 무주읍으로 들어와 살았다.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김순수(金舜壽)

김순수의 본관은 김해(金海)이며, 안경공(安敬公) 김영정(金永貞)의 후손이다. 임진왜란 때 의주로 임금을 수행하여 호성공신(扈聖功臣)에 올라 가선대부(嘉善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증직(增職)되었고, 충의록(忠義錄)을 하사 받았다. 만년에 적상면 사천리로 물러나와 살게 되어, 자손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

손자(孫子) 김재겸(金載謙)은 정조 8년(1784) 절충장군(折衝將軍)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에 올랐는데, 전주 중군(全州中軍)으로 있을 때는 백성들을 잘 다스려 포상을 받았다. 또한 그 동생 김재태(金載泰)는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참의(戶費參議)와 중군(中軍)을 지냈으며, 그의 증손 김삼식(金三植)은 호가 남당(南堂)인데 무관(武官)이 되어 사과(司果)의 벼슬을 하였다. 『적성지(地)』

○ 김시하(金時河)

김시하는 본관이 의성(義城)으로 문경공(文敬公) 모재(茅齋) 김안국(金安國)의 후손이다. 그는 어려서 부터 재능을 갖추었으나 과거(科擧)에 뜻을 두지 않고 시(詩)와 예(禮)를 즐기며 연구하였다. 산수(山水) 좋아하여 회덕에서 무주 설천의 기곡으로 이사하여 은거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손들이 여기에서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김 신(金 侁)

김신은 고려 후기의 관인으로 금산 김씨의 시조가 되는 인물이다. 그는 지금의 안성에 해당하는 진례인으로 낭장 벼슬을 지낸 왕연(王涓)의 사위이다. 고려 충렬왕(忠烈王) 때 원(元)나라에 들어가 요양행성 참정(遼陽行省參政)벼슬을 하여 고려에 공이 있었으므로, 고향인 진례현이 금주(錦州)로 승격되었다. 그의 어머니가 왜적에게 살해되었는데, 그가 돌아와서 많은 시체 가운데서 유해를 찾으려 했으나 시신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어 구별할 수 없어 하늘을 향하여 통곡하며 말하기를 “만일 이것이 나의 어머니 뼈라면 곧 색깔이 변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큰비가 내려 먼지를 씻어 내리자 푸른색으로 변하여 모친의 유해를 수습하였다고 한다. 원나라의 일본 정벌에 참전하여 일기도(一岐島)싸움에서 왜병을 크게 무찔렀으나 배가 파손되어 전사하고 말았다. 지금의 안성면 평장동(平章洞)은 그의 출신지로 그의 벼슬이 평장사(平章事)에 이르렀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안성면(安城面)의 죽계서원(竹溪書院)과 금산(錦山) 성곡서원(星谷書院)에 배향되었다.(『高麗史』, 『高麗史節要』, 『新增東國輿地勝覽』. 『적성지(天)』

○ 김 연(金 淵)

김연의 본관은 낙안(樂安)이며, 호는 은산(隱山)이다. 양혜공(襄惠公) 죽강(竹岡) 김빈길(金贇吉)의 후손이며 호조판서(戶曹判書) 김여광(金麗光)의 아들이다. 일찍이 건원릉(健元陵) 참봉(參奉)을 지냈는데, 벼슬의 뜻을 버리고 고향 땅 옥천(沃川)으로 물러 나와 살다가 다시 안성면 안기로 옮겨 살면서 자 호를 은산(隱山)이라 하였다.

그의 아들 김경준(金景俊)은 호가 양청당(兩淸堂)으로 통덕랑(通德郞) 벼슬을 하였는데, 학문과 덕행으로 이름이 있었다. 도촌 마을 앞에 정사를 짓고, 일상생활을 하는 곳으로 삼았으며 그의 호에 따라 정사의 이름을 양청당(兩淸堂)이라고 붙였다. 그로 인해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김용광(金溶光)

김용광은 본관이 김녕(金寧)으로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의 후손이다. 그는 함양에서 살다가 무풍으로 옮겨와 살았는데, 당시 고향인 함양의 향교(鄕校) 교임(校任)을 맡아 왕래하기도 하고, 집에서 서생(書生)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런 연유로 자손들이 여기에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김일복(金逸福)

김일복은 본관이 김녕(金寧)으로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의 10대 손이다. 그의 선대는 설천면 삼공리에서 살았다. 그는 아들 김필연(金弼延)으로 하여금 지금의 무주읍 대차리 서호에 살게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후손들이 대촌에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김창수(金昌洙)

김창수는 본관이 김해(金海)로 삼적당(三適堂) 김우명(金遇明)의 후손이며 김종석(金鍾石)의 아들이다. 그는 충북 옥천 죽항에서 무풍으로 이사하여 살았는데,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여기에서 대대로 살고 있다. 부제학(副提學)을 지낸 이병관(李炳觀)이 지은 묘갈명(墓碣銘)이 전한다. 『적성지(地)』

○ 김 하(金 河)

김하의 본관은 김해(金海)이며 문민공(文愍公) 탁영(濯纓) 김일손(金馹系)의 후손으로 김서경(金瑞慶)의 아들이다. 경남(慶南) 산청에서 두 아들을 데리고 무주 부남면 굴암리로 들어와 살게되어 자손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김홍진(金洪鎭)

김홍진은 본관이 안동(安東)으로 호는 두남(斗南)인데,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낸 보백당(寶白堂) 김계행(金繫行)의 후손이며 김갑균(金甲均)의 아들이다. 그는 과거에 뜻을 두고 공부하다가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동생 김욱진 (金旭鎭)과 함께 무풍 대덕산 아래로 이사하여 살면서 자제들의 교육에 전념하였다.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이곳에서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박달호(朴達浩)

박달호는 본관이 밀양(密陽)이며 호는 유은(裕隱)으로, 이조판서(吏曹判書) 밀산군(密山君) 박중손(朴仲孫)의 15세손이며, 부제학(副提學)과 황해감사(黃海監司)를 역임한 박소영(朴召榮)의 13세손이다. 그는 진주 오방에서 안성면 덕곡으로 이사하여 살면서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덕유산 속에 숨어살면서 의로움을 행한다는 뜻을 취하여 '유은(裕隱)'이라는 두 글자를 서당에다 편액(扁額)하였는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유은 선생(裕隱先生)이라고 칭하였다.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이곳에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박사령(朴思齡)

박사령은 본관이 밀양(密陽)이며 호는 췌헌(萃軒)으로, 국당공(菊堂公) 박흥생(朴興生)의 10세손인 박수인(朴秀仁)의 아들이다. 그는 학문이 출중하였고, 의(義)와 효행을 겸비한 선비였다. 그는 영동(永同)에서 살다가 적상면 치목으로 이사하여 살았는데,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여기에서 살게 되었다. 그의 6세손인 박건하(朴健夏)는 호가 운암(雲菴)으로 벼슬은 헌릉 참봉(獻陵參奉)을 하였는데, 장수(長壽)하여 수직(壽職)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의 벼슬을 받았다.

고종이 병중에 있을 때 입궐하여 문안하고 임금에게서 열성왕(列聖王)의 어필(倒筆) 한 책을 하사 받았다. 현재는 그의 자손들이 적상면 이동에 살고 있다. 『적성지(地)』

○ 박세후(朴世厚)

박세후는 본관이 밀양(密陽)이며, 호는 운천(雲泉)으로 비암(秘嚴) 박이항(朴以桓)의 후손이다. 그는 무주읍 가옥리에 터를 잡아 산수를 벗삼아 시가를 즐기면서 지냈는데,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박수증(朴壽惺)

박수중의 본관은 반남(潘南)이며, 임회당(臨淮堂) 박희권(朴希權)의 증손으로 관직은 군자감(軍資監) 첨정(僉正)에 이르렀으며, 후에 호조참판(戶曺參判)에 증직되었다. 금산에서 살다가 안성면 두문리 사교(沙郊)로 이사하여 자손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天)』

○ 박영운(朴永云)

박영운은 본관이 밀양(密陽)으로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박척(朴陟)의 17세손이다. 성품이 매우 청렴하고 고결하였으며,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다. 서울에서 살다가 한 때 금산에 이르러 살다가 덕유산의 산수를 좋아하여 안성면 공정리 사탄과 용추로 이사하여 살았는데,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박인정(朴仁挺)

박인정의 본관은 밀양(密陽)이며, 자는 정지(挺之), 호는 도원(挑源)이다. 국당(菊堂) 박흥생(朴興生)의 둘째 아들로 세종 20년(1438)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덕행과 문학이 훌륭하였다. 그가 함창 현감(咸昌縣監)으로 있을 때 한림(翰林)이던 사촌 동생 박계우 (朴季愚)가 사육신(死六臣)과 관련되어 화(禍)를 당하게 되자, 마침내 관직을 떠나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

농사와 고기잡이를 하며 주계(朱溪)에서 살면서 벼슬에 뜻을 끊고 스스로 도원(桃源)의 일민(逸民)이 되었다. 손자 박광선(朴光瑄)은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있다가 그

만 두고 향로산 아래에다 터를 잡고 살았다. 그 후에 자손들은 기곡리에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天)』

○ 박희영(朴熙永)

박희영은 본관이 함양(咸陽)으로 예조참의(禮曹參議)를 지낸 박구(朴矩)의 후손이며, 박내식(朴來植)의 아들이다. 경북 성주에서 살다가 무풍면 덕평으로 이사하여 살았다. 그리하여 이 곳에 그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배치무(裵莘武)

배치무의 본관은 성산(星山)으로 고려 태조 때의 장군인 무열공(武烈公) 배현경(裵玄慶)의 후손이며, 호는 한천재(寒泉齋)로 용양위 부호군(龍蚊衛 副護軍)에 증직되었다. 그는 지례(知禮)에서 설천 두길리 벌한으로 들어와 사선암(四仙岩) 아래 한천(寒泉) 위에다 집을 짓고 살며,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즐겨 읽으면서 후학을 가르쳤는데,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빈봉희(賓奉希)

빈봉희의 본관은 달성(達城)이고 호는 송강(松岡)이다. 문성공(文成公) 빈우광(賓宇光)의 10세손이며, 인조(仁祖) 때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훈록(勳錄)된 빈인(賓絪)의 아들이다. 그는 호조참의(戶曹參議)에 증직되어 대사헌(大司憲)의 벼슬에 올랐는데, 당시 혼탁한 시국에서 생기는 붕당(朋黨)의 폐단을 우려하여 상소를 올렸다가, 임금이 윤허(允許)하지 않자 벼슬을 버리고 서울에서 안성면 공정리 신당(薪堂)으로 들어와 살게 되어 그 자손들이 살고 있다. 『적성지(地)』

○ 서득일(徐得一)

서득일은 본관이 달성(達城)으로 자(字)는 흥부(興夫)이고 호는 금헌(琴軒)으로 삼남균전제처사(三南均田制處使) 귀계(龜溪) 서침(徐沈)의 후손이며, 성균진사(成均進士) 돈재(遯齋) 서석련(徐錫連)의 9세손이다. 그는 현종(顯宗) 13년(1672)에 태어나 의령에서 살다가 안성면의 두문으로 이사하여 살게 되었다. 수직(壽職)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의 벼슬을 받았다. 『적성지(地)』

○ 서만태(徐萬泰)

서만태의 본관은 이천(利川)으로 신라 때 아간대부(阿干大夫)를 지낸 서신일 (徐神逸)의 후손이며, 가선대부 호조참판(嘉善大夫 戶費參判) 서광석(徐光錫)의 증손(曾孫)이다. 무주로 들어와 안성면 죽천리 명천동에서 살았다. 성품이 정직하고 문장이 넉넉하였다. 낮에는 고기잡고 나무하면서 밤에는 어린 선비들을 가르쳤다. 그로 인하여 자손이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 『적성지(地)』

○ 서효재(徐孝載)

서효재의 본관은 달성(達城)이며, 자는 계광(季光)이다.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달성군(達城君) 서영(徐嶸)의 9세손이며 삼남균전제처사(三南均田制處使) 귀계(龜溪) 서침(徐沈)의 7세손으로, 선조 18년(1585)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천성이 순수하고 과묵하며 인물은 온화하고 조용하여 효로써 몸을 닦는 근본으로 삼았으며, 문장과 덕행이 세상에 뛰어났고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있었다.

선조 23년(1590) 대구에서 살다가 무풍면 부등(扶等)으로 이주하여 살았는데, 임진왜란을 당하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대덕산(大德山)으로 들어가 띠 집을 짓고 살아 한 동네 사람들 모두를 살렸다. 분양서원의 숭모사(崇慕祠)에 배향되었으며,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天)』

○ 성필홍(成必鴻)

성필홍은 본관이 창녕(昌寧)이며, 홍문관(弘文館) 태학사(太學史)를 지낸 성만용(成萬庸)의 후손이다. 그는 타고난 재능이 뛰어나고 총명하였으며 글읽기를 좋아하였다. 창녕(昌寧)에서 무풍으로 거처를 옮겨 우거진 숲과 전답(田畓) 속에 자취를 감추고 살았다. 이로 인해 자손들이 이곳에서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손욱령(孫郁覼)

손욱령의 본관은 밀양(密陽)으로 성종(成宗) 때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의 벼슬을 지낸 손축(孫軸)의 9세손이며, 통훈대부 장예원 판결사 행전설사 별제(通訓大夫掌隷院判決事行典設司別提)의 벼슬을 한 손승효(孫承孝)의 현손

(玄孫)이다. 그는 논산에서 살다가 세상을 피하여 무주로 이사하여 살았는데,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송봉수(宋鳳壽)

송봉수의 본관은 은진(恩律)이며, 자는 인수(仁馬)이다. 현감 송세펑(宋世平)의 아들로 생원 송여려(宋汝礪)의 손자이고, 쌍청당(雙淸堂) 송유(宋愉)의 5세손이다. 관직은 자의(諮議)에 이르렀으나 벼슬에 나가기를 싫어하였다. 임진왜란 때 무풍으로 이주하여 살았는데, 그 자손들이 지역 내에 흩어져 살고 있다. 『적성지(地)』

○ 신세령(申世寧)

신세령의 본관은 평산(平山)이고, 자는 안경(安卿)이며, 호는 노암(老巖)이다. 문희공(文僖公) 신개(申勘)의 증손으로 현감 신숙빈(申叔彬)의 아들이다.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고 음사(蔭仕)로 충순위(忠順衛)의 승의부위(承儀副尉)에 올랐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천성이 효우(孝友)하였다.

그의 아버지가 거창(居昌) 현감으로 있을 때 무풍면 석항(石項)을 들렸는데, 이곳에 터를 잡고 이주하고자 하였다. 그 후 기묘사화(己卯士禍)를 당하여 종형인 신명인(申命仁)과 함께 성균관(成均館) 유생들을 거느리고 궁궐에서 통곡하며 상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세상일에 뜻을 버리고 석항리로 돌아와 은거하여 이곳에 그 자손들이 대대로 살게 되었다. 『적성지(天)』

○ 안 호(安 豪)

안호의 본관은 순흥(順興)이며, 자는 성학(聖學)이다. 문성공(文成公) 회헌(晦軒) 안유(安裕)의 9세손으로 관직은 주부(主簿)에 이르렀다. 선조 11년(1578) 충청도 옥천(沃川)에서 살다가 무풍면 철목리로 들어와 살았다. 『적성지(天)』

○ 오인영(吳仁泳)

오인영은 본관이 해주(海州)로 정무공(貞武公) 오정방(吳定邦)의 후손이며, 공조참판(工曹參判)을 지낸 오수선(吳秀善)의 아들이다. 그는 과거에 나아가 행종사랑(行從

仕郞)의 벼슬에 올랐으나 세태(世態)가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내려와 무주읍에 터를 잡아 살았다.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여기에 살게 되었다. 『적성지(地)』

○ 유 연(柳 漣)

본관은 문화(文化)이며, 자는 덕원(德源)이고 호는 둔옹(遯翁)이다. 충경공(忠景公) 유양(柳亮)의 현손이며, 이조판서(吏曹判書) 유약(柳約)의 손자로 관직은 사복시(司僕侍) 첨정(僉正)에 이르렀다. 그가 관직에 있을 때 외척(外戚)들의 세도가 심하여지자 관직을 사임하고 귀향하여 서호(西湖)의 금리(錦里)에서 숨어살았다. 의를 행함이 매우 고상하고 산수를 좋아하여 둔세정(遯世享) 이라는 정각을 짓고 호로 삼았다. 유일(遺逸)로써 인조 때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증직되었고 자손들이 무주읍 당산리에 살고 있다. 『적성지(天)』

○ 유재권(劉載權

유재권은 본관이 강릉(江隆)으로 문희공(文僖公) 유창(劉敞)의 21세손이며, 가선대부(嘉善大夫) 유득렬(劉得烈)의 아들이다. 그는 전남 장성에서 무주 안성면 진도리로 이사하여 살았는데,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이곳에서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이규탁(李圭鐸)

이규탁은 본관이 경주(慶州)로 호가 향사(香沙)인데, 활계(活溪) 이대병(李大潾)의 9세손이다. 당시 과거(科擧)의 폐단이 심하여 지자 벼슬에 뜻을 버리고 경서(經書)를 안고 산 속으로 들어가 은거하였다. 고종 2년(1865)에 사촌 형제의 아들 이종표(李鍾杓)와 함께 남원 제곡에서 안성면 사전리로 들어와 살게 되었다. 『적성지(地)』

○ 이맹엽(李孟燁)

이맹엽은 본관이 합천(陜川)으로 고려 때 판도판서(版圖判書)를 지낸 문질공(文質公) 이예(李芮)의 19세손이며, 군수(郡守)를 지낸 이경륜(李經綸)의 14세손이다. 그의 선대는 원래 경남(慶南) 산청(山淸)에서 대대로 살았다. 그는 집안 동생 이맹기(李孟基)와 함께 안성면 덕곡으로 이사하여 살았는데, 그런 연유로 자손들이 여기에서 대

대로 살고 있다. 그의 아들 이종희(李鍾熙)는 호가 운암(雲庵)으로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의 문인이다. 『적성지(地)』

○ 이맹훤(李孟暄)

이맹훤의 본관은 흥양(興陽)으로 자는 중호(仲浩)이다. 봉상판사(奉常判事)를 지낸 이계삼(李繼參)의 아들이며, 직제학(直提學)을 지낸 이균(李均)의 손자이고, 의정부(議政府) 좌찬성(左贊成)을 지낸 이서원(李舒原)의 증손이며, 흥양군(興陽君) 이길(李吉)의 현손이다.

성종 때 해적(海賊)이 회령에 침입하여 만호(萬戶)를 살해하고 그 성(城)을 점령하여 노략질하자, 함길도(咸吉道) 병마초토사(兵馬招討使) 직을 제수받고 나아가 정벌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 당시는 연산군(燕山君)의 제위 시절로 시국이 날로 어지러워지자, 마침내 관직을 버리고 무풍으로 내려와 세상을 등지고 숨어살았다.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天)』

○ 이백환(李伯煥)

이백환은 본관이 전주(全州)이다. 그의 10세조인 이종인(李宗仁)은 임진왜란 때 김해부사(金海府使)를 역임하다가 진주성(晉州城)으로 군사를 이끌고 들어가 끝까지 싸우다가 남강(南江)에 이르러 적을 양쪽 겨드랑이에다 하나씩 끼고 물에 뛰어들어 자결하였다. 이에 자헌대부(資憲大夫) 호조판서 겸 지의금부사 종정경(戶曹判書兼知義禁府事宗正卿)에 증직되고, 진주 충민사(忠愍祠)에 제향(祭享)되었다.

이백환은 전남 창평에서 살다가 안성면 덕산리 덕곡으로 이사하여 살았다.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여기에서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이병선(李秉善)

이병선의 본관은 성주(星州)이며 호는 농운(娘雲)으로, 고려 때 호장(戶長)을 지냈고 훗날 농서군공(娘西郡公)에 추봉(追封)된 이장경(李長庚)의 20세손인 이기환(李基煥)의 아들이다. 거창 모곡에서 무풍면 지성리 지산으로 이사하여 살았다.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여기에서 살게 되었다. 『적성지(地)』

○ 이 손(李 蓀)

이손은 본관이 경주(慶州)로 정순공(靖順公) 이성중(李誠中)의 후손이다. 무과(武科)에 합격하여 훈련원 봉사(訓練院奉事)의 벼슬을 하였다. 그는 병자호란 때 의주에서 적과 싸우다가 순절(殉節)하였는데, 그 뒤 그가 타던 말이 혼자 집으로 돌아와 슬피 울며 주인의 정충(精忠)을 알리자 가족들이 의주로 달려가 시신을 찾아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여 남아있던 의관(衣冠)으로 초혼장(招塊葬)을 지냈다. 그는 훗날 좌찬성(左贊成)에 증직 되었다. 『적성지(地)』

○ 이숭례(李崇禮)

이숭례의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호는 덕은(德隱)으로, 고려 말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보문각(寶文閣) 대제학(大提學)을 지내고, 조선 초에 검교좌정승(檢校左政承)에 이른 이성중(李誠中)의 7세손이다. 재주가 많고 학식과 견문이 높고 밝았으며, 벼슬은 찬성(贊成)을 하였다.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관직을 버리고 시골로 돌아왔다가 임진왜란을 당하여 상주에서 무주 대덕산 아래 무풍면 금평리 부평동으로 이사하여 노년을 마쳤다.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살고 있다. 『적성지(地)』

○ 이여공(李汝恭)

이여공의 본관은 원주(原州)이며,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지낸 이천익(李天翊)의 증손이고, 대제학(大提學) 이이(李蓬)의 5세손이다. 세종 30년(1448) 함길도(咸吉道)에 종군(從軍)하여 높은 공을 세우고 병조참의(兵曺參議)에 올랐다. 몇 해 동안 관직에 머물다가 벼슬을 그만두고 두 아들과 함께 무주(茂朱)로 들어왔다. 큰아들 이성로(李成路)는 진잠현감(鎭岑縣監)을 지냈고, 작은 아들 이성도(李成道)는 도사(都事)를 지냈다. 그 자손들은 무풍면 철목리(哲目里)에서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天)』

○ 이중영(李重榮)

이중영은 본관이 월성(月城)이며 호는 덕음(德陰)인데, 수돈령부도정 용양위 부호군(壽敦寧府都正龍蚊衛副護軍)을 지낸 퇴휴당(退休堂)의 14세손이다. 그는 경남 산청군 차황면 부동에서 살다가 동생 이문용(李汶龍)·이경영(李景榮)과 함께 무주 안성면 덕곡으로 이사하여 살았다.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이지호(李志浩)

이지호는 본관이 성주(星州), 호는 덕은(德隱)으로 고려 말에 예문제학(藝文提學)을 지내고 조선 초에 영의정(領議政)에 올랐던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 형재(亨齋) 이직(李稷)의 18세손이다. 본래 영남의 명문 집안이었지만 세태가 어려워지자 십승지(十勝地)를 택하여 가족을 거느리고 무풍으로 들어와 살았다. 『적성지(地)』

○ 이후덕(李厚德)

이후덕의 본관은 농서(娘西 : 성주)로 호는 덕초(德樵)이며, 고은(孤隱) 이지활(李智活)의 후손이다. 그는 학문이 뛰어나고 재능이 있었으나,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거창에서 무주 대덕산 아래로 이사하여 시서(詩書)를 벗삼으며 자질(子姪) 교육에 종사하였다. 그의 후손인 이교후(李敎厚)는 효우로 이름이 있었다. 『적성지(地)』

○ 이희원(李希元)

이희원은 본관이 경주(慶州)로 재정공(齋亭公) 이달충(李達表)의 후손인 이용재(李龍在)의 아들이다. 그는 지례에서 살다가 적상산성(赤裳山城) 사고 참봉(史庫參奉)을 역임하게 된 연고로 무풍면 금평리로 이사하여 산수에 흥미를 붙이고 살게 되어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임봉식(林鳳植)

임봉식은 본관이 평택(平澤)으로 호는 삼성(三成)인데,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의 공신인 충민공(忠愍公) 임경업(林慶業) 장군의 후손이다. 충북 충주에서 살다가 무주 안성면 사교에 터를 잡아 살았는데, 그로 인하여 그 자손들이 여기에서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장현화(章現華)

장현화는 본관이 거창(居昌)으로 임진왜란 중에 임금을 의주(義州)까지 호종(扈從)한 공을 세워 원종공신(原從功臣)에 책록된 동호공(東湖) 장만리(章萬里)의 10세손이며, 정략장군 행용양위부사과(定略將軍行龍蚊衛副司果)를 역임하고 훗날 좌승지(左承

旨)에 증직된 장일남(章逸男)의 9세손이다. 그는 거창에서 대대로 살다가 안성면 덕곡으로 들어와 살았다.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여기에서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전의원(全義遠)

전의원의 본관은 옥천(沃川)이며 호는 송암(松岩)으로 충간공(忠簡公) 사서(沙西) 전식(全湜)의 후손이다. 벼슬은 전력부위(展力副尉)를 거쳐 사복시정(司僕寺正)에 이르렀다. 만년에 옥천에서 적상산 아래 적상면 사천리 길왕마을로 옮겨와서 살았다.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살고 있다. 『적성지(地)』

○ 정영환(鄭榮煥)

정영환은 본관이 진주(晉州)로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충장공(忠莊公) 정본(鄭本)의 후손이다. 그의 선조(先祖)인 성균진사(成均進士) 만월당(滿月堂) 정윤호(鄭允浩)가 진주에서 살다가 안의의 북상으로 이사하여 살았는데, 그는 고종 31년(1894) 동학농민전쟁 때 적상면 마산리로 은거하여 만년을 한가로이 지냈다. 그런 연유로 자손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 『적성지(地)』

○ 정환철(鄭煥哲)

정환철은 본관이 하동(河東)이며 호는 돈암(遯菴)으로, 일두(一亘) 정여창(鄭汝昌)의 동생인 참봉(參奉) 정여관(鄭汝寬)의 13세손이다. 그는 가문 전통을 이어받아 학문과 효행이 뛰어났다. 함양에서 안성면 공정리 신당으로 이사하여 살았다.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조상귀(趙相龜)

조상귀는 본관이 함안(咸安)이며 호가 용암(龍巖)으로 통덕랑(通德郎)의 벼슬을 하였고 장수(長壽)하여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의 수직(壽職)을 받았다. 그는 단종 때 생육신의 한 사람인 정절공(貞節公) 어계(漁溪) 조여(趙旅)의 11세손이다. 함안에서 살다가 설천면 신촌에 터를 잡고 살았다.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살고 있다. 『적성지(地)』

○ 조용석(趙龍煩)

조용석은 본관이 배천(白川)으로 증가선대부 병조참판(贈嘉善大夫兵曹參判) 중봉(重峰) 조헌(趙憲)의 9세손이다. 그는 금산에서 안성면 진도리로 들어와 살았는데,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 그의 아들인 조병옥(趙炳玉)은 행장릉참봉(行莊陵參奉)을 하였고, 손자 조관수(趙琯壽)는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박사(博士)의 벼슬에 올랐다. 『적성지(地)』

○ 최두권(崔斗權)

박세후의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호는 농은(農隱)이다. 경상도 고성으로부터 안성면 사전리 옥산동으로 들어와서 향로산 아래에 터를 잡고 살았는데, 그로 인해 자손이 여기에 살고 있다. 그는 학문에 조예가 깊었으며, 도봉(道峯) 김속(金涑) 함께 교유하며 무주향교 이건에 공헌하였다. 『적성지(地)』

○ 최영보(崔永甫)

최영보는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문성공(文成公) 최아(崔阿)의 후손이다. 보성군사(寶城郡事) 최혼(崔渾)의 아들이며 감사(監司) 최한경(崔漢卿)의 손자이다. 관직은 무풍 현감(茂豊縣監)을 지냈다. 성품이 산수를 좋아하여 관직을 퇴임한 뒤에도 떠나지 않고 무풍면 철목리에서 살았고,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이곳에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최응조(崔應肇)

최응조는 본관이 문경(聞慶)이며 호는 남포(南圃)인데, 고려 때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역임한 팔도도통사(八道都統使) 무민공(武愍公) 최영(崔瑩)의 22세손이다. 그는 학문이 깊었으며 문장이 뛰어났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고, 평안도 구성에서 설천면 방재의 산골로 들어와 유유자적하며 살았다. 그런 연유로 그 후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최현영(崔鉉瑛)

최현영의 본관은 경주(慶州)이며 호는 호암(豪菴)으로, 고려 말 감무(監務)의 벼슬하다가 고려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관가정(觀稼亭) 최청(崔淸)의 후손이며, 최기규(崔基規)의 아들이다. 창녕에서 살다가 적상면 사산리로 이사하여 살았다. 그는 농상(農商)을 부지런히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 주었다. 그런 인연으로 그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하순조(河舜朝)

하순조는 본관이 진주(晉州)인데, 참판(參判) 하효명(河孝明)의 후손으로 하석춘(河碩春)의 아들이다. 대덕에서 살다가 무풍면 금평리로 이사하여 살았다.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하위국(河衛國)

하위국의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자는 미부(美夫)이고, 호는 사양재(四養齋)이다. 참봉 하억령(河億齡)의 아들로 경재(敬齋) 문효공(文孝公) 하연(河演)의 10세손으로 관직은 호군(護軍)에 이르렀다.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두어 죽헌(竹軒) 최활(崔活)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모계(茅溪) 문위(文緯)의 가문으로 장가들었다.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오봉(五峰) 이호민(李好民) 등과 같이 교유하며 도의를 강론하고, 같은 고을의 박이항(朴以桓)·이응배(李應培)·최이덕(崔爾德)·이확(李確) 등과 함께 도의계(道義契)를 맺고 향교에서 생활하였다.

임진왜란을 당하자, 집으로 돌아와 부모를 모시고 처자와 함께 백운산(白雲山) 돌다리 사이에서 난을 피하였다. 아들 넷을 두었는데 모두 효행과 학문이 뛰어났다. 후에 무풍 현내리에 정착하여,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天)』

○ 현우철(玄禹喆)

현우철은 본관이 연주(延州)로, 고려 때 병부상서(兵部尙書)에 이른 현덕수(玄德秀)의 후손이며, 조선 태조(太祖) 때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라 판전의시사(判典議

寺事)와 예조판서(禮曹判書)를 역임한 현옥량(玄獄亮)의 13세손이다. 경남 거창군 북상에서 무풍면 은산리로 이사하여 살았다. 이로 인하여 자손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 『적성지(地)』

○ 홍집순(洪執淳)

홍집순은 본관이 남양(南陽)으로 호는 어계(漁溪)이며, 남양부원군(南陽府院君) 장간공(莊簡公) 홍융(洪戎)의 15세손이다. 그는 학문 연마에 노력하였으나 뜻을 얻지 못하고, 동생 통정대부(通政大夫) 홍맹순(洪孟淳)과 함께 경남 함안에서 덕유산의 산수를 찾아 안성면 정천으로 들어와 살았는데, 이로 인하여 그 자손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황 힐(黃 蛙)

황힐의 본관은 창원(昌原)으로 자는 철여(澈汝)이며, 호는 미재(美齋)이다. 이조참판(吏曹參判)를 지낸 황준원(黃浚源)의 아들이며, 정국공신(靖國功臣) 증이조판서(贈吏曹判書) 황징(黃燈)의 손자이고, 개국좌명공신(開國左命功臣) 의원군(義原君) 황거정(黃居正)의 5세손이다.

그는 체구가 크고 훤칠하며 모습이 훌륭하였다. 문무(文武)를 겸비하였던 인물로 조광조(趙光祖) 문하에서 수학하여 훌륭한 문장가가 되었고, 벼슬길에 올라 군자감(軍資監) 봉사(奉仕)에 올랐다. 중종(中宗) 때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자, 세상사에 뜻을 버리고 벼슬을 사임한 후 낙향하여 주계(朱溪) 다산(茶山)에 터를 잡고 판사(判事)였던 사위 박광선(朴光瑄)과 더불어 집승정(集勝享)이라는 정각을 짓고, 산수와 함께 금서(琴書)를 즐기며 살았는데, 그로 인해 그 후손들이 이 곳에 대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天)』

○ 황종수(黃鍾壽)

황종수의 본관은 장수(長水)인데 부사(府使)를 지낸 황관(黃瓘)의 후손인 황용(黃鏞)의 아들이다. 보은(報恩)에서 살다가 부남면 유평리로 이사하여 살았다. 그로 인하여 자손들이 살고 있다. 『적성지(地)』

제2절 무주의 학자·교육자

○ 강지형(姜芝馨)

강지형은 본관이 진주(晉州)이며, 호는 우당(愚堂)으로 통계(通溪) 강회중(姜淮仲)의 후손이다. 그는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심석(心石) 송병순(宋秉珣)·고심당(古心堂) 이희일(李喜壹) 등 여러 훌륭한 선비들과 더불어 서벽정(棲碧亭) 강학(講學)에 필요한 비용을 준비하였고, 관선계(觀善契)를 조직하여 매년 봄과 가을에 많은 유생(儒生)들을 위한 강회(講會)를 열었다. 『적성지(地)』

○ 권규진(權圭鎭)

권규진은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호는 한석(漢石)으로 고려말에 길창부원군(吉昌府院君)에 봉해진 송재(松齋) 권준(權準)의 후손이다. 그는 재능이 있고 총명하여 뜻이 높았던 인물로 글읽기를 좋아하였다. 한말 세태가 어지러워지자 선비를 모으고, 김규식(金奎植) 박사와 뜻을 같이하여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학문에 전념하며 여생을 보냈다. 『적성지(地)』

○ 권대형(權大衡)

권대형은 본관이 안동(安東)이고 호는 죽파(竹坡)로 고려 때의 학자 문정공(文正公) 권부(權溥)의 후손으로 권상균(權尙均)의 아들이다. 재지(才知)와 기량(器量)이 출중하였으며, 경전(經典)을 깊이 연구하고 여러 학자들의 저서를 옆에 두고 공부하였다. 그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면서 예것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것을 권장하면서 학문을 일으켰는데, 많은 선비들이 그를 본받아 배웠다. 벼슬은 통정대부(通政大夫) 공조참의(工曹參議)에 올랐다. 『적성지(地)』

○ 권철규(權喆奎)

권철규는 본관이 안동(安東)이며 호는 구재(懼齋)로 공(文正公) 권부(權溥)의 후손이다. 그는 본성이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났다. 어버이를 극진한 효도로 섬겼으며, 공부를 함에 있어서 순서를 뛰어넘지 않고, 글의 깊은 뜻을 생각하고 찾아 실제적인

것을 살피는데 힘을 썼다. 같은 일가 권철로(權喆魯)와 권대형(權大衡)과 함께 연구하고 닦는 도의(道義)를 따라서 쫓고 학문과 기예를 서로 의지하였다.

그는 명리를 버리고 학문을 연구하였는데, 일찍이 『잘되고 못 되는 것은 운명에 달려있고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은 하늘로부터 타고난 것인데 선비로서 몸과 마음을 닦아 도덕을 익히고 살면서 학문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 어찌 명예와 이익(利益)속에서만 빈번하게 왕래하겠는가』라는 말을 남겼다. 『적성지(地)』

○ 권철로(權喆魯)

권철로는 본관이 안동(安東)으로 호는 오포(午圃)이며 문정공(文正公) 권부(權溥)의 후손인 권사도(權思道)의 아들이다. 그는 성품과 기상이 엄숙하고 시문이 뛰어났으며, 많은 영재들을 길러내었다. 백남(柏南) 하현(河鉉)·석치(石痴) 이해교(李海敎)·운파(雲坡) 하재만(河在晩) 등과 더불어 사선암(四仙岩)에 올라 도의(道義)로 교우하였는데, 후인(後人)들이 그들의 덕(德)을 우러러 받들고 본받겠다는 구실을 붙여 계(契)를 만들고 그 사실을 사선암에 새겨 두었다. 『적성지(地)』

○ 김동진(金東振)

김동진은 본관이 김해(金海)로 김덕수(金德洙)의 아들이다. 그는 성품이 너그럽고 생각이 깊었으며 풍채가 단정하였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는 문장(文章)과 필법(筆法)이 빼어났으며, 유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였다. 철종 3년(1852)에 관찰사(觀察使)의 추천으로 성균관 강사(成均館講士)에 올랐다. 『적성지(地)』

○ 김영규(金永圭)

김영규는 본관이 광산(光山)이며 호는 연심당(淵心堂)으로 충목공(忠穆公) 김여석(金礪石)의 후손이며 김계현(金啓鉉)의 아들이다. 어려서 부터 가정의 학문을 이어 받아 일찌기 문장(文章)을 이루었다. 그는 젊어서 과거에 뜻을 두고 공부하였으나 벼슬을 얻지 못하자, 향리로 은거하여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의 문하에서 경서(經書)를 공부하였다.

그는 후진들의 교육에 노력하였으며, 말년에 덕유산(德裕山) 아래 칠연폭포(七淵瀑

布)에서 동생 김영구(金永龜)외 동지(同志) 5명과 더불어 칠연선행계(七淵善行契)를 조직하고 봄과 가을에 술 마시며 시가를 읊으며 미풍양속을 지키고자 하였다. 『적성지(地)』

○ 김영조(金永祚)

김영조는 본관이 광산(光山)으로 호는 사재(思齋)이며 충목공(忠穆公) 김여석(金礪石)의 후손이다. 그는 이른 나이에 학문에 뜻을 두어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의 문하에 들어가 공부하여 학문이 깊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는 심석(心石) 송병순(宋秉珣)·우당(愚堂) 강지형(姜芝馨) 등과 더불어 교유하면서 간선계(看善契)를 만들어 서벽정(棲碧亭) 강회(講會)에 사용될 자금을 조성하는 등 후진 양성과 유도(儒道) 진흥에 힘을 기울였다. 『적성지(地)』

○ 김직현(金直鉉)

김직현은 본관이 광산(光山)이며 호는 유당(裕堂)으로 충목공(忠穆公) 김여석(金礪石)의 후손이다. 그는 심성(心性)과 이기(理氣)에 대한 책을 주로 읽으며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으며, 덕행(德行)이 남다르고 문장력(文章力)이 넓고 풍부하였다.

그는 고종(高宗)때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지낸 문헌공(文獻公) 경대(經臺) 김상현(金尙鉉)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동학농민혁명 때에는 신하로써 도리를 지키자는 수의회(守義會)를 만들어 활동하였고, 을미사변(乙未事變)때에는 같은 고을 사람인 박중호(朴重浩)·하태홍(河泰洪)과 함께 궁궐(宮闕)로 올라가 일본(日本)을 물리쳐야 한다는 소(疎)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하자 마침내 오도산(吾道山)의 농막에 숨어서 신진(新進)들을 가르치며 지냈다.

그의 아들 김영교(金永敎)는 경학(經學)과 법학(法學)을 공부하여 학부(學府)의 교관(敎官) 벼슬을 하다가 세상일이 날로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물러 나와 거문고 타며 글 읽는 것을 낙으로 삼았으며 고을 주민들을 교화(敎化)하는 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적성지(地)』

○ 김창신(金昌信)

김창신은 본관이 김해(金海)로 호는 조은(釣隱)이며, 탁영(濯纓) 김일손(金馹孫)의 후손으로 김국윤(金國允)의 아들이다. 그는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깊이 연구하였으나, 부귀(富貴)를 뜬구름처럼 여기며 향촌에 묻혀 살았다. 학부대신(學部大臣)을 지낸 한산(韓山) 이용직 (李容稙)이 비명(碑銘)을 지었다. 『적성지(地)』

○ 김창현(金昌鉉)

김창현은 본관이 광산(光山人)이며 호는 청파(靑城)로 충목공(忠穆公) 김여석(金礪石)의 후손이다. 그는 일찍이 학문에 뜻을 두고 이(理)와 의(義)를 깊이 연구하여 세상의 사물과 명리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무주향교의 대성전(大成殿)을 보수하는데 간여하기도 하고, 후진(後進)들을 가르쳤으며, 말년에는 젊은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세우기도 하였다. 『적성지(地)』

○ 박기홍(朴紀洪)

박기홍은 본관이 밀양(密陽)이며 호는 우봉(愚峰)으로 관일당(貫一堂) 박문건(朴文健)의 손자다. 그는 독서를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삼재록(三才錄)』을 저술하였다. 그는 유일준(柳一濬)·하재만(河在晩)·이우식(李愚植)·신병찬(申炳瓚) 등의 덕망있는 선비들과 교유 하였으며, 그 사실이 『조선문행록(朝鮮文行錄)』에 실려있다. 『적성지(地)』

○ 박난석(朴蘭錫)

박난석은 본관이 밀양(密陽)이며, 호는 학산(鶴山)으로 국당(菊堂) 박흥생(朴興生)의 후손이다. 그는 어려서 부터 총명하였고 재능이 남보다 뛰어났다. 문사(文詞)에 능하여 일찍이 『용학강의(庸學講義)』를 저술(著述)하였다. 그는 서울을 드나들면서 벼슬을 하고자 하였으나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시골집으로 물러나와 쉬면서 경전을 공부하며 후학들을 교육하여 많은 선비를 배출하였다. 원근의 수령들 중에서 그와 교유 하고자 찾는 자들이 많았다. 『적성지(地)』

○ 박래준(朴來俊)

박래준은 본관이 밀양(密陽)이며 호는 모암(帽菴)으로 국당(菊堂) 박흥생(朴興生)의 15세손이다. 그는 백운산(白雲山) 아래에서 가문의 교훈을 계승하고 선조(先祖)의 덕(德)을 마음에 새기며 은거하면서 선비들을 길러냈다. 그를 기리는 모암대(帽菴臺)가 있다. 『적성지(地)』

○ 박문건(朴文健)

박문건은 본관이 밀양(密陽)이며 자는 이환(而煥)이고 호가 관일(貫一)인데, 송은(松隱) 박익(朴翊)의 후손이다. 그는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겼으며 죽을 때까지 영모(永慕)하여 『읍선군편(泣先君篇)』을 저술하고, 「사천은시(謝天恩詩)」·「사북음(思北吟)」을 지었다. 경학(經學)을 마음속에 두어 천(天)·지(地)·인(人)·심(心)·성(性)·정(情)의 「육잠(六箴)」과 「양심명(養心銘)」을 지어 스스로를 깨우치는 지침으로 삼으면서, 널리 예설(禮說)을 수집하여 상례(喪禮)의 해설을 증보(增補) 정리하였으며, 역학(易學)을 깊이 연구하여 연의(演義) 일부를 저술하였는데, 판서(判書) 이돈우(李敦宇)가 서문(序文)을 쓰고, 운창(芸窓) 박성양(朴性陽)이 발문(拔文)을 썼다. 또한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이 그의 「행록(行錄)」을 썼다. 『적성지(天)』

○ 박붕령(朴鵬齡)

박봉령은 본관이 밀양(密陽)으로 자는 운익(雲翼)이며 호는 이봉(伊峰)으로 삼암(三巖) 박이겸(朴以謙)의 후손이다. 그는 겸손하고 검소하였으며 스스로를 수학하여 예학(禮學)에 밝고 부모에 대한 효도와 동기간의 우애가 깊었다. 그는 정이천(程伊川)을 사모하여 호를 이봉(伊峰)이라 하였다. 이산(伊山)의 양지바른 곳에다 서당을 열었으며, 현인(賢人)들을 존경하면서 인재를 양성하고 선비들을 중하게 여겼다. 고종(高宗) 15년(1878) 안렴사(按廉使) 심동신(沈東信)의 상계(上啓)로, 집의(執義)의 벼슬에 증직되었고, 판서(判書) 조강하(趙康夏)가 묘비문(墓碑文)을 지었다. 『적성지(天)』

○ 박상호(朴祥浩)

박상호의 본관은 밀양(密陽)으로 국당(菊堂) 박흥생(朴興生)의 후손이다. 그는 돈

령부도정(敦寧府都正)의 벼슬을 지내다가 향리로 물러나와 생활하며, 향교에 출입하면서 영재(英才)들을 가르쳐 효제(孝悌)의 교화(敎化)와 겸양(謙讓)의 바람을 일으켰다. 『적성지(地)』

○ 박성린(朴聖麟)

박성린은 본관이 밀양(密陽)으로 자는 운서(雲瑞)이고 호는 관물재(觀物齋)이며, 삼암(三巖) 박이겸(朴以謙)의 후손이다. 그는 지극한 효성으로 홀로 된 어머니를 섬겼으며, 부모 상(喪)에 당하여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일시 소생케 했으며, 상중에는 3년 동안 상복을 벗지 않았으며 초하루 마다 전(奠)을 올리며 슬퍼하였다.

그는 정주서(程朱書)·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을 강구(講究)하여 몸소 실천을 두텁게 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소학(小學)을 강(講)하고, 당송(唐宋)의 『여문정선(儷文精選)』 5권을 번역하여 후생(後生)들이 기본으로 삼아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가 되도록 가르쳤다.

참판(參判) 김무석(金武錫)이 관물(觀物)이란 호를 지어 주면서, 「안처선 낙순리(安處善 樂順理 : 선을 편안히 행하고 도리에 따름을 즐거이 하라)」라는 6자(字)를 쓰고 거듭 힘쓰도록 하였다. 부사(府使) 조시순(趙時淳)이 행의(行義)를 논하고 감사(道司)에게 추천하여 세초(歲抄)에 올렸다. 『적성지(天)』

○ 박승규(朴勝奎)

박승규는 본관이 반남(潘南)으로 호는 회운(淮雲)인데, 임회당(臨淮堂) 박희권(朴希權)의 후손으로 박우양(朴禹陽)의 아들이다. 그는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그는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섬겼으며, 양친부모의 상중에는 장례(葬禮)에 따른 제사(祭祀) 의식을 주례에 따라 한결같이 시행하였다.

그는 청렴함과 검소함을 바탕으로 학문 연구와 후학 교육에 힘을 기울이며, 백록동규(白麗洞規)를 익히고 남전향약(藍田鄕約)을 본떠 효제충신(孝悌忠信) 네 글자를 근본으로 두문리(斗文里)의 위·아랫마을에 향약을 실시하니 많은 선비들이 따랐다.『적성지(地)』

○ 박이겸(朴以謙)

박이겸은 본관이 밀양(密陽)으로 자는 덕후(德厚)이며 호는 삼암(三巖)인데, 국당(菊堂) 박흥생(朴興生)의 후손인 증(贈) 이조참의(吏曹參議) 박충현(朴忠賢)의 아들이다. 읍청(揖淸) 박사종(朴嗣宗) 문하에서 수업(受業)하였고, 일찍이 중봉(重峰) 조헌(趙憲)·한강(寒岡) 정구(鄭逑) 등과 함께 학문을 토론하였다.

그는 어버이를 극진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겼으며, 임진왜란 중에 상을 당하여서는 죽을 먹으면서도 여묘(廬墓)살이를 하면서 나라일을 걱정하였다. 또한 백록동규(白鹿洞規)와 남전향약(藍田鄕約)을 익히고, 활계(活溪) 이대유(李大潼) 등 동지(同志) 13인과 함께 덕업계(德業契)를 만들었고, 「선천심학도(先天心學圖)」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후에 추천에 의하여 정릉참봉(貞陵參奉)에 제수(除授)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는 정조(正祖) 13년(1789) 국헌(菊軒) 임옥산(林玉山)과 함께 장수(長水) 압계사(鴨溪祠)에 배향되었고, 순조(純祖) 12년(18l2) 감사(監司)의 추천으로 대사헌(大司憲)으로 증직(贈職)되면서 명정(命旌)되어 설천면 기곡리에 정려각(旌閭閣)이 세워졌다. 『적성지(地)』

○ 박이항(朴以恒)

박이항은 본관이 밀양으로 자는 덕구(德久)이며 호는 비암(秘巖)으로 삼암(三巖) 박이겸의 동생이다. 형 박이겸(朴以謙)과 함께 읍청(揖淸) 박사종(朴嗣宗)에게 수업(受業)하여 그 덕행과 학문이 하남(河南)의 정명도(程明道)·정이천(程伊川) 형제와 비교되기도 하였다. 또한 극진한 예로서 여묘(廬墓)살이를 하는 등 효우(孝友)가 남달랐다.

그는 당파를 싫어하여 벼슬에 나가지 않았고 오랫동안 학문을 닦아 역리학(易理學)에 능했으며, 활계(活溪) 이대유(李大유)·천묵(天默) 이상형(李尙馨)과 함께 교우하며 학문을 연구하여 「대학입덕문가(大學入德門歌)」를 저술하였다.

그는 정조(正祖) 13년(1789) 형 박이겸(朴以謙)과 함께 압계사(鴨溪祠)에 배향(配享)되었다가 순조(純祖) 12년(1812) 감사(監司)의 추천으로 집의(執義)의 벼슬이 증직 되면서 형제가 나란히 정려(旌閭)되었다. 『적성지(天)』

○ 박일표(朴日杓)

박일표는 본관이 밀양(密陽)으로 호는 송헌(松軒)이며 국당(菊堂) 박흥생(朴興生)의 후손이다. 어려서 부터 총명하여 문장을 빨리 익혔고,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겼다. 그는 설호사(雪湖祠)를 창건(創建)하여 설계(雪溪) 박치원(朴致袁)의 위패(位牌)를 봉안하였다. 『적성지(地)』

○ 박중호(朴重浩)

박중호는 본관이 밀양(密陽)으로 국당(菊堂) 박흥생(朴興生)의 후손이다. 그는 지식이 높고 재주가 많았으며, 올바른 행실은 고귀하고 정중하였으며,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였다. 그는 일찍이 과거(科擧)에 합격하여 사천(泗川)현감으로 나아가 훌륭한 치적(治績)을 쌓았고, 후에는 고을 향교(鄕校)를 출입하면서 후진(後進)을 지도하고 풍속(風俗)과 교화(敎化)를 권장(勸奬)하였다. 『적성지(地)』

○ 박치원(朴致遠)

박치원은 본관이 밀양(密陽)으로 자는 근보(近甫)이며 호는 설계(雪溪)이다. 그는 재주가 있고 기상이 높았으며 서경(書經)을 좋아하였다. 그는 스승의 도움이 없이도 백가(百家)의 뜻을 꿰뚫었는데, 학문의 뜻을 과거 공부에 두지 않고 유도(儒道)를 닦고 자기 몸을 수양하여 사람들을 교화하는 데 두었다.

당시 찬선(贊善) 벼슬로 임금에게 도의(道義)를 강(講)하던 역천(饑川) 송명흠(宋明欽)이 책 보따리를 짊어지고 찾아와 대학장구(大學章句) 수장(首章)의 강론을 듣은 뒤 그를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인재라고 평가한 바 있다. 후에 송명흠이 다시 설천(雪川)을 방문하여 강론(講論)하며 한 달을 지낸 뒤에 돌아간 것을 계기로 서울 등 외지에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그는 토실(土室)을 짓고 『무성(無聲)』이라 편액(扁額)하면서 현판을 붙이고, 세상사에 뜻을 끊고 숨어살면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여 황왕제백(皇王帝伯)의 도리(道理)와 예약형정(禮樂刑政)의 구비(具備) 치란안위(治亂安危)의 기미(機微)와 성심정의(誠心正意)와 수신제가(修身齊家)의 요지 등을 깊게 섭렵(涉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비록 이단(異端)인 도가(道家)나 불가(佛家) 그리고 헌기(軒岐)의 의술(醫術) 같은

것도 조예가 깊어 문장(文章)으로 나타내어 약간의 책을 저술하였는데 이것이 곧 『설계수록(雪溪隨錄)』이다. 참찬(參贊) 안광직(安光直)이 그의 행장을 썼다. 『적성지(天)』

○ 박태서(朴台緖)

박태서의 본관은 반남인(潘南人)이며, 호 두산(斗山)으로 임회당(臨淮堂) 박희권(朴希權)의 16세손이며 통정대부(通政大夫) 박승창(朴承昌)의 아들이다. 그는 어려서 부터 뛰어나게 총명하였으며, 수많은 장서(藏書)를 읽어 학문에 조예가 깊은 선비가 되어 후진 양성에 노력하였다. 우당(愚堂) 강지형(姜芝馨)이 만사(挽詞)를 지어 그를 칭송하였다. 『적성지(地)』

○ 배정모(裵正模)

배정모는 본관이 성산(星山)이며 호는 문암(文岩)으로 화당(花堂) 배팔규(裵八規)의 후예다. 그는 마을 앞 바위에다 만취대(曉翠臺)라는 글을 새겨놓고 자손들을 가르치는 데 노력하였다. 『적성지(地)』

○ 배학능(裵學能)

배학능은 본관이 성산(星山)으로 화당(花堂) 배규(裵規)의 후손이다.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에 심취하였으며, 문암(文岩)에서 농사짓고 글을 읽으며 효성으로 부모를 섬기며 살았다. 그의 아들 배상식(裵相植)은 호가 석천(石泉)으로 역시 효행으로 이름이 있었다. 『적성지(地)』

○ 배학우(裵學禹)

배학우는 본관이 성산(星山)이며 호는 석호(石湖)로 화당공(花堂) 배규(裵規)의 후손이다. 그는 일찌기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탐독하였으며, 말년에는 만취암(晩翠庵)에서 세상을 피해 살면서 자제들을 가르쳤다. 그에게 배운 자제들이 계(契)를 조직하고 석벽(石壁)에다 「석호장구지소(石湖杖履之所)」라는 글자를 새겼다. 『적성지(地)』

○ 서병해(徐內海)

서병해는 본관이 달성(達城)으로 호는 무본당(務本堂)이며, 귀계(龜溪) 서침(徐沈)의 후손으로 서상우(徐相禹)의 아들이다. 그는 경서(經書)를 연구하여 학문에 조예가 깊었으며 예절(禮節)에 관한 설(說)에 밝았다. 그는 명리에 관여하지 않고 시골에 은거하며 의를 행하였다. 『적성지(地)』

○ 서상익(徐相翌)

서상익은 본관이 달성(達城)으로 호는 효계(曉溪)며, 귀계(龜溪) 서침(徐沈)의 후손으로 서인순(徐麟淳)의 아들이다. 초암(蕉庵) 김병규(金秉圭)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뜻을 세웠으며, 또한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과 임재(臨齋) 서찬규(徐贊奎)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을사조약(乙巳條約) 이후 산골로 들어가 은거하여 자제 교육에만 노력하였다. 중용(中庸)에 관한 문답(問答)과 성리설(性理說)에 관한 것을 쓴 유고(遺稿)가 있다. 『적성지(地)』

○ 서필순(徐弼淳)

서필순은 본관이 달성(達城)으로 호는 유초(遊初)이며 귀계(龜溪) 서침(徐沈)의 후손으로 서석근(徐錫根)의 아들이다. 그는 세상사에 뜻을 두지 않고 자연 속에서 소요하면서 초연한 마음으로 학문을 연마하였다. 그는 『경학강의록(經學講義錄)』 1권과 유고(遺稿) 70편을 저술하여 집안에 간직하고 있다. 『적성지(地)』

○ 성건원(成建源)

성건원의 본관은 창녕(昌寧)이며 호는 회석(晦石)인데, 문효공(文孝公) 성사달(成士達)의 후손으로 송헌(松軒) 성석현(成錫賢)의 아들이다. 어려서 부터 총명하여 나이 20세가 되기도 전에 문장력(文章力)이 뛰어났다. 부모를 극진한 효성으로 섬겼으며 상을 당하여서도 극진한 예로서 장례를 치렀다.

그는 원래 영동(永同)의 양산(楊山)에서 살다가 무주(茂朱) 삼도봉(三道峰) 아래로 이사하여 민주지산(岷周之山) 남쪽에다 서실(書室)을 지어 인재들을 길러내는 데 노력하였는데, 그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문하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는 특히 배우고자 하는 뜻이 있으나 학자금(學資金)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쌀과 종이와 붓을 마련해 주는 덕행을 베풀어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다. 은진(恩律) 임석종(林碩鍾)이 비문을 지었다. 『적성지(地)』

○ 안정순(安廷淳)

안정순은 본관이 순흥(順興)으로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의 후손인 안사형(安思亨)의 아들이다. 그는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면서 틈나는 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그는 온갖 사물과 명리(名利)를 끊고 시서(詩書)를 좋아하여 여러 학자(學者)들의 책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였고, 일상의 행동과 자제들의 교육을 법도 있게 하였다. 『적성지(地)』

○ 안정호(安廷浩)

안정호는 본관이 순흥(順興)이며 고려시대 명신(名臣)이면서 학자였던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의 후손인 안사눌(安思訥)의 아들이다. 그는 효성과 우애가 남달리 깊었으며, 책 읽기를 좋아하였다.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어 문장(文章)이 훌륭하였다. 『적성지(地)』

○ 유기익(柳基翼)

유기익은 본관이 문화(文化)로 호는 경념재(敬念齋)인데, 조선 초 우의정(右議政)을 지낸 충경공(忠敬公) 유양(柳亮)의 후손이며 동몽교관(童蒙敎官) 유경제(柳景堤)의 아들이다. 그는 수종재(守宗齋) 송달수(宋達洙)의 문인(門人)으로 효성이 깊고 재능이 훌륭하였다.

그는 여러 학자들이 쓴 책을 사방에서 구하여 힘써 읽으며 연구하면서 문생(門生)들을 가르치는 것을 평생 사업으로 삼았다. 또한 그는 무주향교를 중수(重修)하여 유풍(儒風)을 크게 펼쳤고, 거문고를 타며 책 읽는 것을 스스로 즐겼다. 『적성지(地)』

○ 유 도(柳 燾)

유도는 본관이 문화(文化)이고 호는 유산(柳山)으로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지낸 유

최영(柳最榮)의 아들이다. 그는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겼으며, 상(喪)중에는 예(禮)의 법도에 따라 장례를 지냈으며 3년간의 여묘(廬墓)살이를 하면서 조석(朝夕)으로 곡배(曲拜)하여 무릎이 닿는 곳이 파여 구덩이가 되었다. 일찍이 사마시에 합격하고, 벼슬은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에 이르렀다.

고종(高宗)때 그의 효행을 암행어사와 도관찰사가 임금께 아뢰어 훌륭하다는 임금의 비답(批答)을 받았다. 그는 문장(文章) 솜씨가 좋았고 성리학(性理學)에 밝았던 유학자(儒學者)였다. 그는 유산집·만고 등 60여권의 문집을 남겼다. 『적성지(地)』

○ 유인성(柳寅誠)

유인성은 본관이 문화(文化)이며 호는 화은(華隱)으로, 충경공(忠景公) 유양(柳亮)의 후손이며 유기찬(柳基燦)의 아들이다.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였다. 산골에 은거하면서 후진(後進)들을 가르치면서 어버이에게 효도하며 일생을 보냈다. 특히 효성이 지극하여 이웃들로부터 칭송을 들었다. 『적성지(地)』

○ 유인성(柳仁性)

유인성은 본관이 문화(文化)이며 호는 우석(愚石)으로 생원(生員) 유휴(柳烋)의 손자다.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의 문인(門人)으로 『사복록(思服錄)』에 실려 있다. 그는 명리(名利)에 얽메이지 않고 산수에 묻혀 살면서 경전(經傳)을 연구하였는데, 당시 사우(士友)들로부터 『평범한 한 남자를 스승이라 한 것은 곧 이 사람이로다』라는 칭송을 들었다. 『적성지(地)』

○ 유인후(柳寅厚)

유인후는 본관이 문화(文化)으로 호는 우당(愚堂)이며, 충경공(忠敬公) 유양(柳亮)의 후손으로 그의 아버지는 유기형(柳基衡)이다. 그는 우정(又亭) 하재윤(河在允)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식견이 높았다. 그는 세상의 명리에 흔들리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살았는데, 조상과 어버이를 받드는 효성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었다. 『적성지(地)』

○ 이봉상(李鳳祥)

이봉상은 본관이 완산(完山)으로 자는 의소(儀韶)이며 호는 설천(雪川)이고 시호는 문경(文敬)인데, 충문공(忠文公) 소재(疏齋) 이이명(李蓬命)의 손자이며, 일암(一菴) 이기지(李器之)의 아들이다.

그는 경종(景宗) 2년(1722) 신임사화(辛任士禍)로 할아버지가 사사(陽死)를 당하자 본군(本郡) 설천(雪川)으로 몰래 들어와 은거하여 덕행을 쌓았다. 그는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나 고금(古今)의 서적들을 모두 암기하고 마음속에 새겼다. 특히 정명도(程明道)·정이천(程伊}||)·장횡거(張橫渠)·주희(朱熹) 등 사현(四賢)의 경사(經史)를 익숙하도록 읽어 『독서기의(讀書記疑)』 18권과 『설천초(雪川抄)』 12권을 남겼다. 효성이 지극하여 여러 차례 효자로 정려(旌閭)하려 했으나 극구 사양하였다.

철종(哲宗) 9년(1858) 대신들의 추천으로 대사헌(大司憲)겸 좨주(祭酒)의 벼슬에 증직되었고, 문경(文敬)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그는 고종(高宗) 7년(1870) 설천사(雪川祠)에 주향(主享)하였다. 『적성지(天)』

○ 이상곤(李尙坤)

이상곤은 본관이 흥양(興陽)이며 호는 우재(愚齋)로 두촌(斗村) 이만경(李晩景)의 후손이며 사복시정(司僕寺正)의 벼슬을 받았던 이양환(李陽煥)의 아들이다. 그는 선대의 가문의 학통을 이어받아 시문(詩文)에 능하였고, 중용(中庸)·서경(書經)·역경(易經)·성리(性理)와 수학(數學)·예서(禮書) 등 유학에 능통하였다. 그는 일상 생활에서 예의와 법도를 지키며 집안 자제를 가르치며 조용히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그는 훗날 통정대부(通政大夫) 좌승지(左承旨)의 벼슬에 증직(贈職)되었다.

그의 손자인 운초(雲樵) 이재인(李在寅)은 총명함이 출중하여 일찍이 학업을 성취하여, 예절이 아니면 보고 듣지도 말고 말과 행동도 하지 말라는 사물(四勿)의 잠언(箴言)과 논어(論語) 계씨편(季氏篇)의 아홉 가지 사물에 관하여 생각하는 구사(九思)와 신체 아홉 부분의 몸가짐을 하는 구용(九容)을 외우면서 실천하고자 하였으나, 그 재능을 펴지 못하고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적성지(地)』

○ 이석종(李碩鍾)

이석종은 본관이 원주(原州)이며 호는 유헌(裕軒)으로, 회당공(晦堂公) 이여공(李汝恭)의 13세손이며 가선대부(嘉善大夫)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이수복(李壽福)의 증손(曾孫)이다. 그는 정호(程顥), 정이(程蓬)와 주희(朱熹)를 본받아 학문에 힘쓰고, 조상을 받들고 부모에 효도하며, 세상의 명리에 대한 생각을 끊고 은거하며 자제 교육에 노력하였다. 『적성지(地)』

○ 이시린(李時麟)

이시린은 본관이 흥양(興陽)이며 호는 학포(鶴圃)로 찬성사(贊成事) 이서원(李舒原)의 후손이다. 그는 성품이 순수하고 강직하였으며, 높은 식견과 밝은 지혜를 가진 학자(學者)였으나 시골에다 자취를 감추고 오직 학문만을 즐기면서 살았다.

그는 효도와 우애가 돈독하였으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의를 다함으로써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사림(士林)들이 그를 위하여 계(契)를 조직하여 재물을 늘려 경산재(景山齋)를 세워 책을 읽고 학문을 탐구하는 장소로 삼았다. 그가 생전에 거닐며 다니던 강학대(講學臺)에 그의 장구지소(杖履之所)라는 글자를 새겨 두었다. 그의 유고(遺稿) 2권이 있다. 『적성지(地)』

○ 이시목(李時睦)

이시목은 본관이 원주(原州)로 호는 은와(隱窩)인데,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지낸 이천익(李天翊)의 후손인 이술환(李述煥)의 아들이다. 그는 어릴때부터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났으며,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그는 학문을 좋아하여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그리고 자집(子集)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언제나 의관(衣冠)을 단정하게 하고 무릎을 꿇고 정좌(正坐)하여 자신의 형체를 잊은 채 마음을 태연하게 하였으며 바깥 세계의 온갖 사물과 명리에 동요되지 않는 덕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는 효우(孝友)의 행실과 충신(忠信)의 도의(道義)에 힘써 사람들 가르치니, 배우고자 책을 짊어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문전에 넘침으로써 퇴폐했던 풍속이 일으켜 세워지고, 유학자(儒學者)들이 떨쳐 일어나게 되었다. 『적성지(地)』

○ 이시발(李時發)

이시발의 행적은 무주 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이시옥(李時玉)

이시옥은 본관이 흥양(興陽)이며, 호는 소석(小石)으로 두촌(斗村) 이만경(李晩景)의 6세손이며 석치(石痴) 이해교(李海敎)의 아들이다. 어려서 부터 가정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학문에 뜻을 두고 여러 사서(史書)를 섭렵하여 통달하였고, 문장(文章)이 훌륭하였다.

그는 명리에 관계하지 않았으며 향촌에 살면서 후학의 교육과 독서를 낙으로 삼고, 시(詩)와 예(禮)의 교훈으로 효우(孝友)하며 덕행을 쌓았다. 그는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겨 여러 차례 고을에서 추천하였으나 표창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는 말년에 『주서절요(朱書節要)』·『이정전서(二程全書)』·『성리대전(性理大全)』을 좋아하여 성리학(性理學)의 연구에 노력하였다. 『적성지(地)』

○ 이시욱(李時郁)

이시욱은 본관이 흥양(興陽)이며 호는 기천(紀泉)으로, 두촌(斗村) 이만경(李晩景)의 6세손이며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이인교(李仁敎)의 아들이다. 선대의 학문을 이어받아 문장이 훌륭하고 학문의 폭이 넓었으며, 사미헌(四未軒) 장복추(張福樞)·만구(晩求) 이종기(李種紀) 두 선생과 더불어 교유(交遊)하며 학문을 닦았다. 관직에 뜻을 두고 공부하였으나 등용되지 못하자 초야에 묻혀 스스로 학문을 닦았다.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여 양친이 80세를 넘게 살았다. 유고(遺稿) 1권이 간행되어 세상에 전한다. 『적성지(地)』

○ 이시형(李時馨)

이시형은 본관이 흥양(興陽)이며 호는 덕초(德樵)로 두촌(斗村) 이만경(李晩景)의 6세손이며 이선교(李善敎)의 아들이다. 그는 문학(文學)에 뜻을 두고 산골에 은거하면서 조상을 받들고 후손을 위해 노력하여 살았다. 『적성지(地)』

○ 이용우(李用雨)

이용우는 본관이 경주(慶州)이며 호는 경산(耕山)이며, 활계(活溪) 이대유(李大潼)의 후손으로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또한 간재(艮齋) 전우(田愚)와 담재(澹齋) 김진명(金振明) 등으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았다.

그는 평소 글 읽기를 무척 좋아했으며, 만사(晩沙) 장병조(張炳祚) 박사(博士)와 후암(後菴) 송증헌(宋曾憲)과 교유하며 학문을 더욱 연구하였는데 이기(理氣)와 예학(禮學)에 깊은 조예가 있었다. 그는 용재(龍齋) 박승희(朴勝熹) 등 십 수명과 함께 서로 의논하여 옛 향약을 손질하여 새로운 향약안(鄕約案)을 만들어 시행하여 이 지방의 습속(習俗)이 순후(淳厚)해졌다고 한다. 『적성지(地)』

○ 이유태(李惟泰)

이유태는 본관이 경주(慶州)로 자는 태지(泰之)이며 호는 초려(草廬)로 증참판(贈參判) 이서(李曙)의 아들이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에게 나아가 학문을 닦았으며,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을 따라 상례비요(喪禮備要)를 교정하기도 하였다.

인조(仁祖) 12년(1634) 대신(大臣)들의 추천으로 벼슬에 나아가 침랑(寢郞)을 시작으로 자의(諮議)와 찬선(贊善)을 거쳐 삼조(三曹)의 아전(亞銓)에 이르렀다. 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과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등과 함께 왕의 부름이 자주 있어 등대(等對)하는 일이 많았다.

효종(孝宗) 7년(1656) 당(黨)의 폐단과 그 이듬해 서원(書院) 폐단의 논쟁이 있은 후 세상사(世上事)에 뜻이 없어 가족들을 데리고 덕유산(德裕山) 아래 산미촌(山味村)으로 들어와 집을 짓고 수석간(水石間)에서 학자들과 함께 도의를 닦으며 평생을 보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숙종(肅宗) l년(l675) 복상(腹喪) 사건에서 대사헌(大司憲) 윤휴(尹鑴)의 예론을 지지하였다가 영변(寧邊)으로 유배 되었다. 사면되어 돌아온 후는 동학사(東鶴寺)와 서대산(西臺山) 등지에서 동지들과 모여 향약을 만들었으며, 틈나는 대로 『경서변의(經書辨疑)』·『예집람(禮輯覽)』 등의 교정을 끝내고, 전원(田園)에 숨어 옛날 책 분전(墳典)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며 학문을 넓히고 후학(後學)을 양성하는데 힘을 썼다. 숙종(肅宗) 20년(1694) 경연에서 대신들의 건의로 이조판서(吏曹判書)에 증직(贈職) 되었고, 문경(文敬)의 시호를 받았다. 『적성지(天)』

○ 이재영(李在英)

이재영은 본관이 흥양(興陽)이며 호는 초은(樵隱)으로, 두촌(斗村) 이만경(李晩景)의 현손(玄孫)이며 참판(參判) 이기덕(李基德)의 아들이다. 어려서 부터 글읽기를 좋아하였는데, 성장하면서 학문에 전념하여 일찍이 문장가(文章家)의 경지에 이르렀다.

어릴 때부터 과거에 뜻을 두고 공부하였으나 당시 세상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그 뜻을 버리고 경학(經學)을 연구하고 자제들의 교육에 전념하며 노년을 마쳤다. 그가 장수(長壽)하여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의 수직(壽職)을 받게 됨으로 가문에 삼대(三代)가 추증(追贈)의 벼슬을 받았다. 『적성지(地)』

○ 이종기(李鍾璣)

이종기는 본관이 흥양(興陽)이며 호는 만각재(晩覺齋)로 두촌(斗村) 이만경(李晩景)의 7세손이다. 산골에 은거하면서 종적을 드러내지 않고 농사짓고 낚시질하며 세월을 보냈다. 정성으로 조상을 받들고 가정을 법도 있게 다스려 고을의 모범이 되었다. 『적성지(地)』

○ 이종로(李鍾老)

이종로는 본관이 경주(慶州)이며 호는 초재(蕉齋)로 활계(活溪) 이대유(李大潼)의 후손이다. 그는 학문을 어려서 부터 스승의 가르침을 많은 공부를 하였고, 스스로 노력하여 학문의 깊이 더했다. 그는 경서(經書)를 안고 산속으로 들어가 남들이 덕행(德行)을 알지 못하도록 감추고 의(義)를 행하면서 유당(裕堂) 김직현(金直鉉)·우당(愚塘) 강지형(姜芝馨) 등과 도의(道義)로써 벗을 맺고 교유하였다. 그는 문장력이 좋아 많은 사람들이 글을 받으러 오기도 하였다. 『적성지(地)』

○ 이팽로(李彭老)

이팽로는 본관이 원주(原州)이고 자는 태수(台馬)이다.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과 노봉(老峰) 민정중(閔鼎重)에게서 학문을 닦고,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와 도의(道義)로 교유(交遊)하면서 화양서원(華陽書院)을 출입하며 강론하고 토의하였다.

숙종(肅宗) 때 세자 책봉 문제로 귀양간 스승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을 신원(伸寃)하기 위하여 이사안(李師顔)과 함께 상소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이 항상 남방의 훌륭한 선비라고 칭찬하였다. 『적성지(天)』

○ 이해교(李海敎)

이해교는 본관이 흥양(興陽)이며 호는 석치(石痴)로, 두촌(斗村) 이만경(李晩景)의 5세손이며 이재수(李在秀)의 아들이다. 그는 오포(午圃) 권철로(權喆魯)·백남(柏南) 하현(河鉉)·운파(雲坡) 하재만(河在晩) 등과 함께 계(契)를 조직하여 도봉재 (道峰齋)를 짓고 책을 읽고 학문 연구에 노력하였는데, 문장이 특히 능하였다. 무주의 읍지(邑誌)인 적성지(赤城誌) 속편(續篇)을 편찬(編纂)하였으며, 영재(英才) 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고종(高宗) 33년(1896)에 도(道)와 군(郡)에서 추천하여 훈장(訓長)으로 활동하였고, 무주군수(茂朱郡守) 조병유(趙秉瑜)의 추천으로 전라북도(全羅北道) 도훈장(都訓長)에 임명되어 각 군(郡)을 순회하면서 군훈장(郡訓長)들과 더불어 경서(經書)를 강론하며 후학을 배출하였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초종(初終)을 치르는 법도와 장례(葬禮)를 지내는 모든 절차를 사림(士林)에서 맡아 행하면서 향선생(鄕先生)의 예(禮)에 따라 전(奠)을 올리며 장사(葬事)를 지냈다. 철목리(哲目里) 뒷산 기슭의 사선암(四仙巖)에는 네 사람의 장구지대(杖履之臺)를 나란히 각자(刻字)하였다. 그의 유고(遺稿) 2권이 있다. 『적성지(地)』

○ 최광준(崔光濬)

최광준은 본관이 전주(全州)이며 호는 송은(松隱)으로, 죽헌(竹軒) 최활(崔活의 10세손이며 최승항(崔承恒)의 아들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면서도 학업에 충실하여 경서(經書)와 사기(史記)와 자집(子集)을 깊이 연구하였다. 학문이 깊어지자 매일같이 향교를 출입하며 후학을 가르쳤으며, 주자(朱子)의 경재잠(敬齊箴)과 숙야잠(夙夜箴)을 써서 벽 위에 다 걸어놓고 몸소 실천하였다. 『적성지(地)』

○ 최규동(崔圭東)

최규동은 본관이 전주(全州)이며 호는 초은(樵隱)으로 죽오(竹塢) 최호(崔浩)의 후손이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였으며, 장성해서는 과거공부에는 뜻을 두지 않고, 경의(經義)의 뜻을 찾아 여러 학자들의 모든 사서(史書)를 숙독하여 학문과 식견을 넓혔다. 그는 노년에 대덕산(大德山) 아래에서 은거하면서 「일민가(逸民歌)」를 지었다. 『적성지(地)』

○ 최장호(崔璋鎬)

최장호는 본관이 전주(全州)이며 호는 덕남(德南)으로 문성공(文成公) 최아(崔阿)의 후손이다. 그는 돈암(遯庵) 이준식(李濬植)의 문하에 들어가 공부하여 참된 도리를 깊이 연구하는 학문을 닦았다. 그는 산속에 묻혀 평생 독서만 하면서 신진을 가르치며 살았다. 『적성지(地)』

○ 최호(崔 浩)

최호는 본관이 전주(全州)이며 호는 죽오(竹塢)로 문성공(文成公) 최아(崔阿)의 후손이다. 그는 타고난 기품이 고명(高明)하고 학문이 순수하였다. 항상 겸손(謙遜)함과 온화하고 단정하게 자신의 몸을 닦았으며, 후손들에게 학문을 권장하였다. 그는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깊이 연구하여 스스로 깨우침을 얻어 사우(師友)와 고을에서 존경을 받았다.

그는 기묘명현으로 불리는 노천(老泉) 김식(金湜)과 도의(道義)로 사귀었는데, 김식은 그의 행장을 지었으며, 후에 집안 후손(後孫)인 최병심(崔秉心)은 유허비문(遺墟碑文)을, 그리고 이운(怡雲) 하달호(河達鎬)는 묘갈명(墓碣銘)을 지어 그를 칭송하였다.

그의 아들 최몽현(崔夢譽)은 재주가 출륭하고 문장(文章)이 화려하면서도 그 내용이 풍부하였고 효우(孝友)로써 이름을 얻었다. 『적성지(地)』

○ 최 활(崔 活)

최활은 본관이 전주(全州)이고 자는 청원(淸源)청원이며 호는 죽헌(竹軒)으로 현감 최영보(崔永甫)의 후손이다. 그는 효성(孝誠)이 지극하여 어버이를 정성으로 섬겼으

며, 전후로 부모 상(喪)을 당하여 여묘(廬墓)살이를 하였다. 본래 성품이 청렴 검소하여 산업(産業)을 일삼지 않고, 평생 심경(心經)과 근사록(近思錄) 등을 깊이 연구하는 한편, 사람들에게 소학(小學)을 가르치고 권장하여 많은 선비를 진출 시켰다.

백곡(柏谷) 정곤수(鄭崑壽)가 쓴 찬장(贊狀)에는 『학문은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에 뜻을 두었고, 효행은 동노(董老)를 기약하였네. 우리 유풍(儒風)떨치니 추로(鄒魯)의 풍속이로다』라고 칭송하였다. 『적성지(地)』

○ 하경수(河景秀)

하경수는 본관이 진양(晉陽)으로 호는 백농(栢鉤)이며, 문효공(文孝公) 하연(河演)의 후손으로 하태운(河泰運)의 아들이다. 그는 부모를 극진한 효성으로 섬겼으며, 학문에 힘쓰며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많이 읽어 식견과 행실이 높았다.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자연을 벗 삼아 시가(詩歌)를 읊으며 살았다. 『적성지(地)』

○ 하계청(河啓淸)

하계청은 본관이 진주(晉州)로 호는 우산(于山)이며 원정공(元正公) 하즙(河楫)의 후손인 하성일(河晟馹)의 아들이다. 그는 순조(純祖) 30년(1830) 진주(晉州) 옛 집에서 태어났다. 그는 천성이 순수하고 기개(氣槪)와 도량이 높았으며 학식이 넓고 덕망이 높았다.

그는 고종(高宗)때 그의 사촌동생 심와(審窩) 하회청(河會淸)과 함께 무풍(成豊)으로 이사하여 살면서 세상에 이름나기를 바라지 않고 어버이에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고 진심으로 거짓 없이 살면서, 오로지 성리학(性理學)을 연구하며 경서(經書)의 뜻을 밝히고 예설(禮說)을 연구하니 원근에서 그를 찾아와 배우려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되어 새로 지은 서당(書堂)에 모두 수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가 죽은 뒤 그에게 친히 가르침을 받았거나 그를 스승으로 삼아 자신의 학문을 닦았던 여러 유림(儒林)들이 존귀하고 현명한 도(道)를 지키려는 뜻으로 유계(儒契)를 창설하고 그 사적을 기록한 비석을 깎아 현내리(縣內里) 옛 터에다 유허비(遺墟碑)를 세웠다. 또한 고종(高宗)때 내부대신(內部大臣)을 지낸 시남(詩南) 민병석(閔丙奭)이 비명(碑銘)을 지었다. 『적성지(地)』

○ 하달호(河達鎬)

하달호는 본관이 진양(晉陽)이며 호는 이운(怡雲)으로 문효공(文孝公) 하연(河演)의 후손이다. 그의 증조부(曾祖父)인 하일홍(河一洪)은 성리학에 정통했던 입재(立齋) 정종로(鄭宗魯)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아 품격이 높고 재능이 많았으며 기상(氣像)이 엄숙하고 기량이 활달하였는데, 무주 향교의 이건 상량문(移建上樑文)을 지었다.

하달호는 경서(經書)와 사서(史書)와 자집(子集)을 깊이 연구하여 정통(精通)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일찌기 과장(科場)에 나아가 종사랑(從仕郞)의 벼슬을 하다가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물러나 향촌에서 후학의 교육에 전념하여 많은 제자를 길러내었다. 유집(遺集)이 있다. 『적성지(地)』

○ 하상호(河象鎬)

하상호는 본관이 진양(晉陽)으로 호 만송(晩松)이며 모정(孝亭) 하현도(河顯道의 후손으로 하재관(河在觀)의 아들이다. 그는 선대로 부터 배운 학문과 덕행이 있었고, 문사가 매우 훌륭하였다. 그는 후진 교육에 힘써 문하에서 많은 제자를 길러내었다.『적성지(地)』

○ 하성즙(河聖戢)

하성즙은 본관이 진주(晉州)로 자는 제중(濟衆)이며 호는 죽탄(竹灘)으로 취은(醉隱) 하형도(河亨道)의 현손이다. 천성이 학문을 좋아하여 성리학(性理學)에 관한 책을 깊이 연구하였으나, 과거에는 뜻이 없어 산골에 묻혀 살면서 덕을 쌓았다. 유고(遺稿) 2권이 남아 있다. 손자 하경조(河慶朝)는 자가 달지(達之) 호는 만은(晩隱)인데 타고 난 재능이 뛰어나게 총명하며 문장이 화려하고 여유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호남시조(湖南詩祖)라 하였다. 『적성지(天)』

○ 하재관(河在觀)

하재관은 본관이 진양(晉陽)이고 호는 풍산(豊山)으로 모정공(茅亨公) 하현도(河顯道)의 후손이다. 그는 타고난 성품이 너그럽고 바르면서 재주가 뛰어났고 뜻이 굳었다. 경전(經典)과 자집(子集)을 깊이 연구하였다. 『적성지(地)』

○ 하재만(河在晩)

하재만은 본관이 진양(晉陽)으로 호는 운파(雲坡)로 문효공(文孝公) 하연(河演)의 후손이며 하진규(河鎭圭)의 아들이다. 그는 성품이 곧고 굳었으며 재능과 도량이 있었다. 어버이에게 효성이 깊었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었다.

왕희지(王羲之)의 시서(詩序)를 본받아 서법에 능하였고, 주돈이(朱敦蓬)와 정호(程顥), 정이(程蓬)의 정주학(程朱學)을 계승하여 학문이 깊었다. 그는 많은 선비들을 가르쳐 유교문화(儒敎文化)를 일으켰다. 그는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내주어 인명을 구제해 주기도 하였다. 그는 고을의 추천에 의하여 종이품(從二品) 가선대부(嘉善大夫)의 벼슬을 받기도 하였다. 그가 생전에 남긴 문집(文集) 2권이 있다. 『적성지(地)』

○ 하재윤(河在允)

하재윤은 본관이 진양(晉陽)으로 호는 우정(又亭)이며 문효공(文孝公) 하연(河演)의 후손인 하달용(河達容)의 아들이다. 그는 사미헌(四未軒) 장복추(張福樞)의 문하에 들어가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의 분별과 바른 도리(道理)를 말하는 의리(義理), 천성(天性)과 천명(天命)의 근원을 힘써 탐구하여 훌륭한 학문을 이루었다. 말년에는 향리에서 심신(心身)을 수양하며 몰려드는 문생들을 가르쳤다.

그의 부인 서씨(徐氏)도 천성이 맑고 깨끗하였으며 언제나 남편에 대한 내조(內助)가 많았다. 시어머니가 혹독한 학질(俺疾)에 걸려 숨이 끊어지려 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국을 끓여 먹여 병을 낫게 하였다.

그의 아들 하창호(河昌鎬) 역시 어버이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봉양하였는데 어버이의 병환을 당해서는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입안에다 흘려 넣어 3일간을 더 살게 하는 등 효행이 있었다. 『적성지(地)』

○ 하정도(河呈道)

하정도는 본관이 진주(晉州)로 자는 경서(景瑞)이며 호 서악(西岳)인데, 하징도(河徵道)의 동생이다. 그는 인조(仁祖) 13년(1635)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인조(仁祖) 24년(1646)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벼슬에 올라 춘추관기사겸 경연사이조좌랑(春秋館記事兼 經筵事吏曹左郞)에 이르렀다가 옥구현감(沃溝縣監)을 제수받았으나 부임

하지 않았고, 또 후에 지례현감 (知禮縣監)에 제수 되지만 친상(親喪)을 당하여 부임하지 않았다. 네 형제가 각자 틈틈이 쓴 글을 모아 『영모록(永慕錄)』으로 명명(命名)하고 간행하여 세상에 전하였다. 『적성지(天)』

○ 하징도(河徵道)

하징도의 본관은 진주(晉州)로 자는 문서(文瑞)이며 호는 수용(睡弇)인데, 사양재(四養齋) 하위국(河衛國)의 아들이다. 그는 어려서 부터 남달리 영리하여 5세에 육갑(六甲)을 외우고 10세에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대학(大學), 효경(孝經)에 통달하였다.

삼형제 모두가 오봉(五峰) 이호민(李好民)·서애(西涯) 유성룡(柳成龍)에게 학문을 배워, 성리학(性理學)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서당(書堂)을 건립하고 강학(講學)의 자리를 열어 후진들을 가르쳤다 그의 4형제는 노서(魯西) 윤선거(尹宣擧)·회곡(晦谷) 조한영(曹漢英)·서계(西溪) 박세당(朴世堂)·명재(明齋) 윤증(尹拯)과 함께 대덕산(大德山)·덕유산(德裕山)등을 등반하면서 교유하였다.

그가 죽은 뒤 후학(後學)들이 구현(九賢)의 모임을 경모(景慕)하여 무풍(茂豊)에다 서원(書院)을 세웠는데, 이곳이 곧 대덕사(大德祠)였다. 후에 죽계서원(竹溪書院)에다 연향(聯享)하였다. 그의 행장(行狀)은 진사 전재만(全在萬)·참판 채홍리(蔡弘履), 민흥례(閔興禮)·현감 최주하(崔柱夏)등이 함께 지었다. 현종(顯宗) 15년(1674) 백산(柏山)서쪽 기슭 아래에 유허비(遺墟碑)를 세웠다. 『적성지(天)』

○ 하태홍(河泰洪)

하태홍은 본관이 진양(晉陽)이며 호는 백고(栢皐)로 문효공(文孝公) 하연(河演)의 후손이다. 그의 조부(祖父) 하재황(河在璜)은 양사재(養士齋)를 세워서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 규약(規約)과 남전향약(藍田鄕約)을 강구(講究)하여 고을을 교화하였고, 사창의 운영 책임을 맡고 있을 때 흉년이 들었는데, 위로부터 환곡을 거두라는 명령이 있자 농민들을 생각하여 쭉정이를 거두어들였다가 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의 아버지 하대호(河大鎬)는 고종(高宗) 3년(1866)의 병인양요(丙寅洋擾)때 유림(儒林)의 장로(長老)로써 전주(全州)로 달려가 태인(泰仁) 사람 김종만(金鍾萬)과 더불어 흥의소(興義所)를 창의(倡義)했었다.

그는 풍채가 남달리 뛰어났고 재능이 출륭했으며, 학문 닦기를 힘써 노력하여 경전(經傳)을 연구하고 모든 학자들의 책을 곁에 두고 공부하였다. 또한 그는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봉양하였으며, 선조(先祖)를 공경하고 일가 친척간에 우애를 돈독케 하는데 그 정성을 다하였다. 그는 과거(科擧)에 급제하여 종사랑(從仕郞)의 벼슬을 지내다가 곧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을미사변 때 박중호(朴重浩)·김직현(金直鉉)과 더불어 대궐에 나아가 상소(上疎)를 올리다가 승지(承旨)로부터 저지당하자, 향리로 돌아와 무주향교에 출입을 하면서 대성전(大成殿)과 동무(東黌)·서무(西黌)를 보수하였고 후진(後進)들의 교육에 공적을 남겼다. 『적성지(地)』

○ 하태희(河泰羲)

하태희는 본관이 진양(晉陽)이며, 호는 몽농(夢鉤)으로 문효공(文孝公) 하연(河演)의 후손이며, 취은(醉隱) 하형도(河亨道)의 9세손이다. 그는 수신제가(修身齊家)의 도(道)로써 계(契)를 조직하여 고을의 규범을 만들어 행하게 하고, 학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경사(經史)와 자집(子集) 등의 전적과 지필묵(紙筆墨)등 문구(文具)를 준비하여 대주면서 집안 자제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진 교육에 노력하였다. 『적성지(地)』

○ 하필수(河秘秀)

하필수는 본관은 진양(晉陽)으로 취은(醉隱) 하형도(河亨道)의 후손이며 하태희(河泰羲)의 아들이다. 그는 독서에 심취하여 학문을 깊이 연구하여 문장(文章)이 화려하고 필법(筆法)이 뛰어났다. 『적성지(地)』

○ 하 현(河 鉉)

하현은 본관이 진양(晉陽)이며 호는 백남(柏南)으로, 문효공(文孝公) 하연(河演)의 후손이며 취은(醉隱) 하형도(河亨道)의 8세손이다. 그는 높은 기상과 맑은 정신을 가졌던 선비로 과거(科擧)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에 심취하여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책과 한당(漢唐)의 시(詩)를 즐겨 읽었다. 그는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주희(朱熹)의 경재잠(敬齋箴)과 숙야잠(夙夜箴)을 중심으로 후학들을 가르쳐 많은 문생(門生)들을 배출하였다. 그가 생전에 남긴 문집(文集)이 있다. 『적성지(地)』

○ 하현도(河顯道)

하현도는 본관은 진주이며, 자는 휘서(輝瑞), 호는 모정(茅亨)으로 하형도(河亨道)·하징도(河徵道)·하정도(河呈道) 형제의 동생이다. 그는 부친과 형들에게 가르침을 받아 효우(孝友)의 행실을 이어나갔다. 선조(先祖)인 목옹(木翁)과 경재(敬齋) 두 분을 추모하여, 운산(雲山)의 양지 바른 곳에다 소박한 정자를 짓고, 원근의 선비들과 함께 경사(經史)를 연구하며 강론(講論)도 하고 도의(道義)를 닦으면서 기거하며 늙어 생을 마칠 곳으로 삼고 모정(茅亭)이라 불렀고, 후인들이 그 유지(遺址)를 모정펑(茅亭坪)이라고 명명(命名)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도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봉양하였고, 상(喪)을 당하여서는 도를 넘게 슬퍼하여 몸이 지탱할 수 없도록 야위었었다. 그는 동계(桐溪) 정온(鄭蘊)·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 등과 교유 하였다. 하정도(河呈道), 하형도(河亨道), 하현도(河顯道) 세 형제의 행장(行狀)이 이유태(李惟泰)가 쓴 수용실기(睡?實記)에 실려 있다. 『적성지(天)』

○ 하형도(河亨道)

하형도는 본관이 진주(晉州)로 자는 명서(明瑞)요 호 취은(醉隱)으로 하징도(河徵道)·하정도(河呈道)의 동생이며, 하현도(河顯道)의 형이다. 그는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공양하였고, 상중에 삼년 동안 여묘살이를 했는데, 효성에 감동한 호랑이가 밤중에 그를 지켜주었다는 이야기가 『무주부읍지(茂朱府邑誌)』에 실려 전해온다.

그는 선조(宣祖) 39년(1606) 태어나 73세 되던 해인 숙종(肅宗) 4년(l678) 3월 1일에 별세하여, 무풍면 마전치(馬轉峙) 간좌(良坐)의 언덕에다 장사를 지냈다. 파산(坡山) 윤광안(尹光顔)이 찬한 묘비명이 전해온다. 『적성지(天)』

○ 하회청(河會淸)

하회청은 본관이 진주(晉州)인데 호는 심와(審窩)로 원정공(元正公) 하즙(河楫)의 후손인 하성규(河晟奎)의 아들이다. 어려서 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요순(堯舜)시대와 하(夏)·은(殷)·주(周) 세 왕조시대의 책을 깊이 연구하였다. 그는 모든 현인들의 학설(學說)을 수집하여 육경(六經)의 오묘한 이치를 연구하고 오직 성리학(性理學) 한가지 만을 닦으며 효(孝)로써 어버이를 섬기고 친족에게도 어질게 처신하였으며

가정생활에서도 법도가 있어 고을 사람들의 규범이 되었다.

고종(高宗)때 사촌 형인 우산(于山) 하계청(河啓淸)과 함께 무풍(茂豊)으로 이사하여 숲 속에다 풍채(風采)를 감추고 유도(儒道)를 일으키면서 학문을 권장하며 풍속의 나쁜 점을 고쳐서 부지런히 힘쓰도록 하여 유도(儒道) 진흥에 큰 업적을 남겼다.

그가 죽은 뒤에 그의 문하에 출입했던 많은 선비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의 도(道)를 지켜 나가겠다는 뜻으로 유계(儒契)를 창설하고, 비석을 깎아 공적을 기록한 유허비(遺墟碑)를 옛터인 현내리(縣內里)에다 세우고 매년 한 차례씩 서당(書堂)에 모여 옛 스승의 고상한 인품(人品)을 추모하면서 학문의 본원(本源)을 깊이 연구하였다. 고종(高宗)때 내부대신(內部大臣)을 지낸 시남(詩南) 민병석(閔丙奭)이 비명(碑銘)을 썼다. 『적성지(地)』

○ 황인배(黃仁培)

황인배는 본관이 우주(紆州)이며 자는 중여(重汝)이고 호는 문암(文巖)인데, 한림(翰林)을 지낸 황맹수(黃孟粹)의 후손이다. 문사(文辭)를 좋아하던 그는 당시 혼란한 세태에 강개(慷慨)한 뜻을 갖으며 『좌씨춘추전(左氏春秋傳)』을 읽고 대의(大義)에 감탄하면서 나라에서 일어나는 사화(事禍)를 비탄해 하기도 하고, 병자호란(丙子胡亂)을 분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시(詩)로 지어 읊기도 하였다.

그는 무이구곡(武夷九曲)의 도가(櫂歌)를 모방하여 문암구곡(文巖九曲)의 시를 지었으며, 주서(朱書)와 역학(易學)을 깊이 알고, 관물옹(觀物翁) 박성린(朴聖麟)과 교우하면서 학문을 연마하였다. 부사 이영소(李英紹)와 심능술(沈能述)이 찾아와 예우(禮遇)하였으나, 편지를 통하여 사절하고 관아에는 한번도 나가지 않았다. 『적성지(天)』

○ 황철수(黃哲秀)

황철수는 본관이 창원(昌原)으로 호는 향산(香山)이며, 고려 때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에 이르렀던 의원군(義原君) 황거정(黃居正)의 후손으로 지산(芝山) 황화연(黃華淵)의 아들이다. 그는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하고 학문을 깊이 연구하였고 후진들의 교육에 힘을 기울였으며,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였다.

그는 고심당(古心堂) 이희일(李喜壹)과 사재(沙齋) 김영조(金永祚) 등 여러 선비들과 더불어 관선계(觀善肋)를 만들고 봄과 가을로 강회(講會)를 열었다. 경전(經傳)을 연구하여 학식이 넓고 보고 들은 것이 많아 재능과 덕을 다 갖춘 훌륭한 선비라는 평가를 들었다. 『적성지(地)』

○ 황화연(黃莞淵)

황화연은 본관이 창원(昌原)이며 호는 지산(芝山)인데, 고려때 참지문하부사(參知門下府事)를 지낸 의원군(義原君) 황거정(黃居正)의 후손이며 황종각(黃鍾珏)의 아들이다. 그는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인성(人性)과 천명(天命)의 근원과 이(理)와 기(氣)를 분별하는 성리학을 연구하고 그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는 후진의 교육에 노력하였으며, 특히 집안이 가난하여 취학(就學)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그의 가르침을 받고 교화(敎化)된 문학자(文學者)들이 많았다.

그는 우당(愚堂) 강지형(姜芝馨)·유당(裕堂) 김직현(金直鉉)과 더불어 교유하며, 구로회(九老會)를 결성하고 책 읽고 학문에 힘쓰는 장소로 삼았다. 『적성지(地)』

제3절 무주의 충신·애국지사

○ 강무경(姜武景)

강무경의 행적은 무주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 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김동신(金東臣)

김동신의 행적은 무주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 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김동학(金東鶴)

김동학의 행적은 무주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 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김원일(金元日)

김원일의 행적은 무주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 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김준민(金俊民)

김준민(金俊民)은 임진왜란 때 무계현(茂溪縣)에서 왜병(倭兵)을 패배시킨 의병장이다. 왜적들은 금산(錦山)에서 조헌(趙憲) 등 의병(義兵)들의 순절에 의해 세력이 꺾이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다. 김준민은 관군(官軍)을 의병(義兵)으로 꾸며 적(賊)들을 현혹시키며 공격하니, 무주(茂朱), 옥천(沃川)에 주둔했던 왜병(倭兵)들이 병영(兵營)을 불사르고 밤을 이용해 도망가버려 호남(湖南)은 다시 수복(收復)하게 되었다. 『적성지(地)』

○ 김판두(金判斗)

김판두의 행적은 무주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6장 일제강점기의 무주 제2절 항일민족운동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김환태(金煥泰)

김환태의 행적은 무주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6장 일제강점기의 무주 제2절 항일민족운동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문태서(文泰瑞)

문태서의 행적은 무주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 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박계우(朴季愚)

박계우의 본관은 밀양(密陽)이며 호는 서호(西湖)로 문헌공(文獻公) 난계(蘭溪) 박연(朴堧)의 아들이다. 그는 세종(世宗) 말기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벼슬에 올라 집현전학사(集賢殿學士)가 되어, 충정공(忠正公) 박팽년(朴彭年)·문충공(文忠公) 성삼문(成三問) 등과 같은 동배(同輩)로 명성과 덕망이 있었다.

그는 단종(端宗) 초기에 일어난 일들을 한탄하고 종형인 현감(縣監) 박인정(朴仁挺)을 따라 주계(朱溪)로 들어와 서호(西湖)에다 터를 잡아 별장을 짓고 살면서 호를 서호(西湖)라 하였다. 단종(端宗) 1년(1453)에 일어난 계유정난(癸酉靖難)의 화(禍)를 입고 그 이듬해 죽음을 당하였는데, 그의 동배(同輩) 박팽년(朴彭年) 등 육신(六臣)들은 세조(世祖) 2년(1456) 정란(靖難)의 옥사(獄事)로 처형되었다.

그후 세조(世祖)의 명령으로 공주(公州) 동학사(東鶴寺) 초혼각(招塊閣)에 유식(侑食)되었다. 숙종(肅宗)때 이조참판(吏曹參判)으로 증직(贈職)되었으며, 단종(端宗)의 정단(正壇)에 배향(配享)되었다. 정조(正祖) 15년(1791) 영동(永同) 화암서원(花巖書院)에 배향(配享)되었다. 『적성지(天)』

○ 박수문(朴守文)

박수문의 행적은 무주 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박춘실(朴春實)

박춘실의 행적은 무주 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신명선(申明善)

신명선의 행적은 무주 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유붕증

유붕증의 행적은 무주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 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유완무(柳完茂)

유완무의 행적은 무주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제3절 무주인의 항일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유종환(劉鍾煥)

유종환의 행적은 무주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 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이만번(李晩蕃)

이만번의 행적은 무주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4장 조선시대의 무주 제4절 이인좌의 난과 무주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이병렬(李秉烈)

이병렬의 행적은 무주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 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이용이(李用伊)

이용이의 행적은 무주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 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이유길(李有吉)

이유길은 본관이 연안(延安)이며 자는 유지(有之)로 문정공(文靖公)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의 손자이다. 아버지 이선경(李善慶)이 왜구(倭寇)에게 살해되어 원수를 갚고자 하였는데,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그는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을 따라 명량(鳴

梁) 해전에 출전하여 왜적을 죽이고 설분을 풀었다.

광해(光海) 10년(1618)에 그는 영유현령(永柔縣令)으로 도원수(都元帥) 강홍립(姜弘立), 좌영장(左營將) 김응하(金應河)와 더불어 우영장(右營將)으로서 건주로에 출전하였다가 전사하였다. 소식을 전해들은 가족들이 고향인 파주(坡州)에다 초혼장(招魂葬)으로 장례를 치렀다.

숙종(肅宗) 때 이조참판(吏曹參判)을 증직(贈職)하며 명정(命旌)하였다. 순조(純祖) 때 영의정(領議政)을 추증(追贈)하면서, 충의(忠毅)로 시호를 내렸으며, 부조묘(不逝廟)를 세우게 하였다. 『적성지(天)』

○ 이종갑(李鍾甲)

이종갑의 행적은 무주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제3절 무주인의 항일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이종복(李鍾卜)

이종복의 행적은 무주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이종성(李鍾誠)

이종성의 행적은 무주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이팔문(李八文)

이팔문의 행적은 무주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이형택(李馨澤)

이형택의 행적은 무주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4장 조선시대의 무주 제1절 동학농민혁명과 무주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임익상(林翊相)

임익상의 행적은 무주 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장광옥(張光玉)

장광옥의 행적은 무주 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장군선(張君先)

장군선의 행적은 무주 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장지현(張智賢)

장지현의 행적은 무주 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4장 조선시대의 무주 제4절 임진왜란과 무주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전성범(全聖範)

전성범의 행적은 무주 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전일봉(全日奉)

전일봉의 행적은 무주 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6장 일제강점기의 무주 제2절 항일민족운동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최낙철(崔洛哲)

최낙철의 행적은 무주 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6장 일제강점기의 무주 제2절 항일민족운동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최봉래(崔鳳來)

최봉래는 본관이 전주(全州)이며 자는 성서(聖瑞)로 호는 채포(蔡圃)이며 죽헌(竹軒) 최활(崔活)의 6세손이다. 그는 어려서 부터 몸집이 좋은 거인(巨人)이었다. 일찍이 찾아 경사(經史)를 두루 탐구하면서 무예를 열심히 닦았다.

영조(英祖) 4년(1728) 영남(嶺南)에서 이인좌의 난에 응하여 정희량(鄭希亮)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본군 부사(府使) 조유수(趙裕壽)가 적상산성(山城)을 수호하러 들어가고 본 군을 지킬 장수가 없게 되자, 선비 이만번(李晩蕃)과 함께 창의(倡義)하여 의병과 관군을 거느리고 생초령(省草嶺)으로 나아가 진을 치고 요지를 차단하고 의병(疑兵)을 여러 곳에다 설치하여 적들이 넘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적성지(天)』

○ 최충길(崔忠吉)

최충길의 행적은 무주 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한진수(韓鎭壽)

한진수의 행적은 무주 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허경민(許景敏)

허경민의 행적은 무주 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제2절 무주인의 민족·애국운동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황대연(黃大淵)

황대연의 행적은 무주 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황덕화(黃德化)

황덕화의 행적은 무주 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황이만

황이만의 행적은 무주 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5장 민족의 시련과 구국항일 투쟁 3절 무주인의 항일투쟁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제4절 무주의 효자

○ 갈근환(葛根煥)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2. 효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강남대(姜南大)

강남대는 본관이 진주(晉州)로 공목공(恭穆公) 강시(姜蓍)의 후손이며, 강방수(姜芳秀)의 아들이다. 그는 평생 어버이를 공경하며 지극한 효성으로 모시었다. 모친이 별세한 뒤에는 고금(古今)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 드림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쓸쓸하지 않고 기쁘게 해드렸다. 모친과 부친의 상(喪)에 3일간 씩을 먹지 않았다가 후에 비로소 죽을 먹었으며, 3년(喪)을 치르는 동안 곡소리를 그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책을 읽어 학식과 견문이 풍부하고 넓었으며 유집(遺集)을 남겼다. 『적성지(地)』

○ 곽연채(郭然采)

곽연채는 본관이 현풍(玄風)으로 경암공(警庵) 곽진방(郭鎭邦)의 후손이며 곽태식(郭台植)의 아들이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집안이 가난하여 부지런히 농사에 힘썼고 모친을 극진한 효행으로 봉양하였다. 그의 모친이 학질(俺疾)에 걸려 7년 동안

고생하며 추어탕(鰍魚湯)이 아니면 음식을 먹지 못하므로 사시사철 미꾸라지를 구해 지성으로 공양하였다. 모친상을 당했을 때는 남의 집 품팔이를 하면서도 형 곽연수(郭然修)와 더불어 새벽과 해질녘에 성묘(省墓)를 하며 곡을 하였다. 『적성지(地)』

○ 권득중(權得中)

권득중은 본관이 안동(安東)이며 자 평중(平仲)으로 호는 둔재(遯齋)이다. 어려서 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가 병으로 막 운명하려 하자, 손가락을 깨물어 어머니 입에다 피를 흘려 넣어 소생시켰다. 그는 성장하면서 산에서 나물을 캐고 물에서 고기를 잡아 있는 힘을 다하여 공양하였다. 아버지가 공부할 것을 권유하였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연로한 부모님을 받드는 효친이 우선이라고 하여 취학하지 아니하였다.

어버이가 연로(年老)하여 걷지 못하자, 어버이를 등에 업고 전날 놀면서 구경하던 곳을 날마다 돌아다니며 어버이의 마음먹은 대로 시중을 들었다. 양친(兩親)의 상(喪)을 당하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장제(葬祭)는 예(禮)로써 행하되 죽은 이를 산 사람같이 대하였다. 여러 차례 세초(歲妙)에 들었으나 정려는 되지 않았다. 『적성지(天)』

○ 권중희(權重熙)

권중희는 본관이 안동(安東)이며 자는 휘경(輝卿)으로 호는 춘당(春堂)이며 문정공(文正公) 권부(權溥)의 후손이다. 효성이 천성(天性)으로 타고나 아버지가 이름 모를 병으로 점점 위독해지자, 변맛을 보며 병세를 살피며, 버드나무 참버섯이 좋다는 의원의 말을 듣고 한겨울에도 불구하고 지성으로 찾아 구해서 병을 낫게 하였다.

그 이듬 해 또 다른 고질병에 걸려 증세가 깊어지자 손가락을 잘라 주혈(注血)하여 며칠간을 더 살게 하였고, 친상(親喪)을 당하여 장례를 치를 때는 고례(古禮)에 따라 효를 다하였다. 어머니 또한 연령이 높고 질병이 잦아 두 눈이 모두 어두어져 사물을 볼 수 없게 되자 항상 등에 업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모친의 뜻을 맞추어 주었다. 또한 어머니가 병이 들어 초겨울에 흑류자(黑襫子) 먹기를 원하자 또한 지성으로 찾아 구해드렸고, 수명 다하고 돌아가시자 몸이 상하도록 슬퍼하면서 예(禮)를 다하기를 생시와 같이 하였으며, 여묘(廬墓)살이로 삼년상(三年喪)을 마쳤다.

정조(正祖) 18년(1794) 은복(恩復)을 받았고, 희암(希菴) 채팽윤(蔡彭胤)이, 버섯을 따고 유자(襚子)를 따며 장례를 치르고 여막(廬幕)에 거처하는 그림을 그렸다. 순조(純祖) 27년(1827)죽림사(竹林祠)에 제향(祭享)하였다. 『적성지(天)』

○ 김근탁(金根鐸)

김근탁은 본관이 김영(金寧)으로 대사성(大司成)을 지낸 김지(金智)의 후손이며 김치석(金致錫)의 아들이다.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울면서 슬퍼함이 너무나 극진하였고 매일 같이 성묘(省墓)를 하였다. 어머니가 병이 들자 지성으로 약시중을 들었고, 매일 지성으로 빌었으며, 상중(喪中)에는 예제(禮制)에 따라 장례를 지내고 3년 동안 찬 없는 거친밥을 먹으면서 날마다 산소에 나아가 곡을 하였다. 그의 부인 함안 조씨(咸安趙氏)도 지성으로 시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받들었다. 그의 아들 김계홍(金啓洪)도 가풍(家風)을 이어받아 효행을 하였다. 『적성지(地)』

○ 김달규(金達圭)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2. 효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김명규(金明圭)

김명규는 본관이 김녕(金寧)이며 호는 육재(育齋)로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의 17세손이다. 그는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봉양하였는데, 그는 모친이 병을 얻고 눈이 어두워지자 온갖 정성과 힘을 다하여 보살펴 드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들었다.『적성지(地)』

○ 김병두(金炳斗)

김병두는 본관이 김해(金海)이며 탁영(濯纓) 김일손(金馹孫)의 후손인 김창신(金昌信)의 아들이다. 그는 천성이 순수하였고 부모에게 지극한 효성으로 봉양하였다. 그는 어버이의 병이 깊어지자 약 시중을 들면서 변맛을 보며 병세를 살폈고, 마침내 병을 고치기가 어렵게 되자 손가락을 찢어 피를 내어 환자의 입에 흘려 넣어 회생시켜 3

일간을 더 살게 하였으며, 상중(喪中)에는 슬퍼함이 한계에 이르도록 예제(禮制)를 다하여 장례를 치렀다.

그는 의지할 곳이 없이 가난하게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예사로 하였는데, 임인(壬寅)년(1902) 봄에는 많은 재물을 내어 한 군(郡) 전체의 백성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자선을 베풀기도 하였다. 이 사실이 국가에 알려져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의 벼슬을 받았다. 이에 군민들이 그를 찬양하여 군(郡)내의 각 면(面)의 여러 곳에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 『적성지(地)』

○ 김상이(金尙蓬)

김상이의 본관은 광산(光山)으로 자는 양지(養之)이며 충목공(忠穆公) 김여석(金礪石)의 후손이다. 가난한 살림이지만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봉양하였으며, 그의 아버지가 학질로 여러 달 고생하고 있을 때 탕약(湯藥)을 올렸으나 효험이 없자, 왼쪽 허벅다리 살을 베어서 구워 드려 병을 낫게 하였으며, 발병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국에 섞어 먹여 다시 낫게 하였다. 부사(府使) 조시순(趙時淳)이 감영에 효행을 알리고 포상을 추천하였다. 『적성지(天)』

○ 김수명(金壽明)

김수명은 본관이 김녕(金寧)으로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선생의 후손이며 김진원(金鎭源)의 아들이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여 자식된 도리를 다하여 어버이의 뜻을 받들어 편안하게 해 주었다. 그는 아버지가 노환(老患)으로 7년 간이나 오래토록 앓고 있으며 망령스런 언행을 하더라도 늘 옆에 모시고 뜻을 받들었다. 사람들이 그를 하늘이 내린 효자라고 칭송하였다. 『적성지(地)』

○ 김영희(金永熙)

김영희는 본관이 경주(慶州)로 판도사판서(判圖司判書)를 지낸 김장유(金將有)의 19대손인 김수철(金秀哲)의 아들이다. 그는 일상 생활의 예절을 소학(小學)의 가르침과 같이 하였으며, 극진한 정성으로 어머니를 보살펴 드렸다. 어머니가 8년 동안 유종(乳腫)을 앓아 고통을 받았으나 약으로도 효험이 없자,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내어 낫

게 하였다. 또한 모친이 중풍(中風)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백 여리나 되는 눈길을 왕래하며 어려움을 무릅쓰고 약을 구해와 시중하였고, 때때로 등에 업고 원하는 곳을 다니며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상(喪)을 당해서는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면서 술과 고기를 가까이하지 않았다. 『적성지(地)』

○ 김용은(金容殷)

김용은 본관이 김해(金海)이며 탁영(濯纓) 김일손(金馹孫)의 후손으로 치산(痴山) 김찬두(金瓚斗)의 아들이다. 그는 선대의 효행을 이어받아 어버이를 지극한 정성으로 받들어 모셨으며, 양친(兩親)의 병중에는 손가락을 모두 잘라 피를 먹여 더 살게 하였는데, 그의 부인 하음 이씨(河陰李氏)도 역시 남편을 따라 손가락을 잘랐다. 그는 부모의 상을 치르는 동안에 조석으로 성묘하며 곡(哭)을 하였는데, 비록 강풍이 불고 폭설이 내려도 한번도 중단하는 일이 없었고, 잠을 자거나 변소를 가는 일이 아니면 상복(喪服)을 벗지 않았다.

부친의 분부를 지켜 선조(先祖)이신 탁영(濯纓의 연보(年譜)를 판각(板刻)하였고, 이어서 유천사(裕川祠)를 완성하여 탁영(濯纓) 김일손(金馹孫)·도연정(道淵享) 김치삼(金致三)·남호(南湖) 김형(金瀅) 세 분을 봉안하고 서원(書院)의 관습으로 제사를 행하였다. 그는 또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한 마을의 호세(戶稅)를 대신 납부해 주기도 하였다. 송계(松溪) 김제흥(金濟興)이 그에 대한 세효록(世孝錄)을 지었다. 『적성지(地)』

○ 김윤권(金潤權)

김윤권은 본관이 김녕(金寧)으로 충의공(忠毅公)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의 후손이다. 그는 7대조 김철동(金哲東)·고조(高祖) 김흥수(金興壽)·김흥종(金興鍾) 등으로 이어지는 선대의 가풍을 이어받아 동생 김연권(金連權)과 더불어 두 형제가 한 마음으로 효행을 같이 하였다. 『적성지(地)』

○ 김찬두(金瓚斗)

김찬두는 본관이 김해(金海)로 탁영(濯纓) 김일손(金馹孫)의 후손이며, 농포(農圃) 김창선(金昌鮮)의 아들이다. 김찬두의 8대조 남호(南湖) 김형(金瀅)은 중봉(重峰) 조

헌(趙憲)의 문하로 학문이 넓고 경전(經典)의 이치를 통달하여 사성칠정지도(四性七情之圖)를 저술하였으며, 주자의례(朱子儀禮)를 가정규범으로 삼았고, 병든 부모에게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입에 흘려 넣어 3년을 더 살게 하는 등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섬겼으며, 상중(喪中)에는 여묘(廬墓)살이를 하였다. 김찬두의 아버지인 김창선(金昌鮮) 역시 어버이가 병환 중에 있을 때 흑질사(黑質蛇)가 가장 영험하다는 의원의 말을 듣고, 얼음이 어는 몹시 추운 겨울에 그것을 구해다가 약을 해드리는 등 효행을 하였다.

김찬두 또한 지극한 정성으로 부모를 섬겼으며, 어머니가 병환으로 위급했을 때는 손가락을 잘라 주혈 (注血)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였고, 아버지 병환에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여 지초(芝草)를 캐다가 봉양하여 10년을 더 살게 하였다. 상중(喪中)에는 백리가 넘게 떨어진 곳에 있는 묘소를 열흘마다 한 번씩 찾아가 성묘하였다. 또한 각처의 선대 묘소를 치장하고 유천사(裕川祠)를 창건하였다.

그의 부인(夫人) 진양 강씨(晉陽姜氏)는 남편이 병들자 하늘에다 대신 죽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렸고, 남편이 죽자 3년 동안 네 번이나 목을 매었는데 주위사람의 만류로 이루지 못했다. 『적성지(地)』

○ 김필수(金珌洙)

김필수는 본관이 광산(光山)으로 충목공(忠穆公) 김여석(金礪石)의 후손이며 김영훈(金永勛)의 아들이다. 그는 어려서 부터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받들고 섬겼으며, 후에는 정자를 한 채를 지어 연로(年老)한 부친이 생활할 곳으로 삼게 하였다. 『적성지(地)』

○ 김형대(金炯大)

김형대는 본관이 김녕(金寧)이며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의 후손으로 김윤권(金潤權)의 아들이다. 그는 동생 김형세(金炯世)와 더불어 지극한 정성으로 어버이 섬겼다. 그의 부친이 병이 들어서 갑자기 대변이 막히어 배가 붓고 숨이 막히자, 형제 둘이서 두 달 동안이나 죽통(竹筒)으로 번갈아 빨아내어 부어 오르는 배를 가라앉히고 숨이 막히는 것을 그치게 하였다. 상중(喪中)에 있을 때는 날마다 성묘를 하고 상복

(喪服)을 벗지 않았으며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다. 송계(松溪) 김제흥(金濟興)이 지은 「쌍효록(雙孝錄)」이 있다. 『적성지(地)』

○ 박 권(朴 權)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2. 효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박병현(朴秉鉉)

박병현은 본관이 밀양(密陽)으로 호는 청계(淸溪)이며 관일당(貫一堂) 박문건(朴文健)의 증손이고 우봉(愚峰) 박기홍(朴紀洪)의 아들이다. 그는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받들어 모시고 즐겁게 해드렸다. 또, 그는 한천사(寒泉祠)를 창건하고 유림(儒林)의 논의에 따라 관일당(貴一堂) 박문건(朴文健)을 봉안(奉安)하여 향사(享祀)의 의례(儀禮)를 갖추었으며, 집안 자제들을 열심히 가르쳤다. 『적성지(地)』

○ 박사흠(朴士欽)

박사흠은 본관이 밀양(密陽)으로 자는 양오(養吾)이며 호 가헌(稼軒)으로 이봉(伊峰) 박붕령(朴鵬齡)의 증손이다. 부모님이 일찍이 돌아가신 것을 한탄하면서 숙부(叔父)를 친아버지처럼 봉양하였으며, 종제(從弟)들을 친 형제 자매처럼 돌보아 주었다. 친상(親喪) 이후 평생 명주옷을 삼가고, 모친의 제사 때는 어머니가 생존시에 좋아하던 술과 감주(甘酒) 큰 잔으로 올려 효성을 나타내었다. 나라에서 감찰(監察)을 증직 하였다. 『적성지(天)』

○ 박승재(朴昇在)

박승재는 본관이 함양(威陽)으로 참의(參議) 박구(朴矩)의 후손이며 박희영(朴熙永)의 아들이다. 그는 일찍부터 어버이를 지극한 정성으로 섬겼으며, 상을 당하여서는 애통함이 극에 이르도록 거애하였다. 그는 일하는 틈에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행실을 닦아 행동에 모두 법도가 있었다. 마을과 이웃에서 감화(感化)된 사람들이 많았다. 『적성지(地)』

○ 박예환(朴禮煥)

박예환은 본관이 밀양(密陽)이며 국당(菊堂) 박흥생(朴興生)의 후손으로 진사(進士) 박권(朴權)의 아들이다. 가문 대대로 이어온 효행(孝行)을 계승하였고,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을 항상 가까이 하여 가도(家道)를 바르게 하였다. 또한 고을의 풍속이 해이해지는 것을 걱정하여, 백운산(白雲山) 아래에다 집을 짓고 예(禮)를 강론(講論)하였다. 고종 29년(1892) 그의 효행(孝行) 사실이 알려져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 좌승지(承政院左承旨)의 벼슬이 증직(贈職)되었다. 『적성지(地)』

○ 박장흠(朴章欽)

박장흠은 본관이 밀양(密陽)으로 자는 전여(典汝)이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농사를 지으면서 할머니와 홀로된 어머니 섬기기를 정성을 다하여 효도하였다. 상중에는 예(禮)를 다하여 장례를 치렀고, 3년 동안 추위와 더위를 가리지 않고 여묘(廬墓)살이를 하였다. 그는 효행으로 동몽교관(童蒙敎官)에 증직 되었다. 『적성지(天)』

○ 박재희(朴載熙)

박재희는 본관이 밀양(密陽)이며 호는 개곡(開谷)으로 관일당(貫一堂) 박문건(朴文健)의 아들이다. 그는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기면서 예법(禮法)에 따라 행하였는데, 어버이에게 조석으로 문안을 여쭙는 일을 어김이 없이 행하였고 3년상(喪)을 지나는 동안 여묘(廬墓)살이를 하였다. 고을 부사(府使)의 추천으로 도(道) 감사(監司)가 조정(朝廷)에 보고하여 통정대부(通政大夫) 봉조하(奉朝賀)의 벼슬을 받았다. 공조판서(工曹判書)를 역임한 신게(薪憩) 이돈우(李敦宇)가 기문(記文)을 지었으며, 그의 행장(行狀)이 「헌하록(獻賀錄)」에 실려 있다. 『적성지(地)』

○ 박춘성(朴春成)

박춘성은 본관이 밀양(密陽)이며 자는 사문(士文)으로 삼암(三巖) 박이겸(朴以謙)의 후손이다. 어머니 병환에 얼음 속에서 잉어를 구하고 눈 속에서 꿩을 구하여 봉양하였고, 등창의 피고름을 3년 동안 입으로 빨아내어 치료하였고, 병세가 더욱 위급해지자 변맛을 보며 증세를 살피고 간호하였다. 상(喪)중에는 장제(葬祭)의 모든 예제

(禮制)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결같이 행하여 고을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다. 고종(高宗) 26년(1889) 동몽교관(童蒙敎官)으로 증직되었다. 『적성지(天)』

○ 박한동(朴漢東)

박한동은 본관이 밀양(密陽)으로 호는 모산(慕山)이며 관일당(貫一堂) 박문건(朴文健)의 현손(玄孫)이다. 그는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수신록(修身錄)」·「가규잠(家規箴)」·「맹자의의(孟子疑義)」를 저술하였다. 그의 효심이 깊어 선산(先山) 부근에다 암장(暗葬)해 놓은 묘를 옮기고 정리하는 일에 정성을 다했다. 『적성지(地)』

○ 배홍기(裵洪基)

배홍기는 본관이 성산(星山)으로 정절공(貞節公) 배극렴(裵克廉)의 후손이며 배승렬(裵承烈)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가 술을 매우 좋아하였는데, 그는 가난한 살림에 나무를 하거나 품팔이를 해서라도 부친을 위하여 항상 술과 고기를 마련하여 드렸고, 밖에 멀리 나가 만취된 부친을 업고 돌아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적성지(地)』

○ 서상우(徐相禹)

서상우는 본관이 달성(達城)이며 호는 덕은(德殷)으로 귀계(龜溪) 서침(徐沈)의 후손이다. 나이 겨우 일곱 살 때부터 어버이 섬기는 도리를 알아 극진한 정성으로 부모님을 섬겼다. 그의 어머니가 질병으로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하여 소생하게 하였고,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여러 달 동안 환자의 대변의 맛 보며 보살폈으나, 세상을 떠나자 그 슬퍼함이 극도에 이르렀으며, 상례는 예제(禮制)의 도를 넘었다. 이웃 사람들이 모두 효자라 일컬었으며, 선비들의 포상 추천이 있었다. 『적성지(地)』

○ 서영엽(徐榮燁)

서영엽은 본관이 달성(達城)으로 자는 자홍(子洪)이다. 그는 가정이 가난하여 마을에서 품팔이로 살아 가면서도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겼다. 그는 아버지가 기이한 병에 걸려 정성을 다하였으나 백약(百藥)이 효험이 없었는데, 흑질사(黑質蛇)가

특효라는 의원의 말을 듣고,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그 뱀을 잡아서 약을 해드려 병을 곧 낫게 하였다.

또한 그의 어머니가 이질에 걸려 위독해지자 변 맛을 보며 증세를 살피는 등 정성을 다하였고 의복이 더러워지면 남에게 대신 시키지 않고 손수 빨았으며, 상(喪)을 당해서는 극도로 슬퍼하며 예제(禮制)에 따라 정성을 다하여 장례를 치루었다. 『적성지(地)』

○ 서인주(徐仁周)

서인주는 본관이 달성(達城)으로 귀계(龜溪) 서침(徐沈)의 후손이다. 그는 효성이 극진하여 부모를 효성으로 섬겼으며, 부친상을 당하여 상중에 모든 절차를 예도(禮道)에 따라 거행하였다. 부친의 삼우제 날 산소에서 얻은 임자 없는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잇달아 낳아 삼상(三祥)의 제수(祭需)로 사용하였는데, 사람들이 이를 두고 효성에 대한 감동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칭찬하였다.

그는 큰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어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인명을 구제하였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정성껏 돌봐주어 사람들이 그를 효자이면서도 선인(善人)이라고 하였다. 후에 자헌대부(資憲大夫)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증직 되었으며, 정조(正祖) 1년(1777) 세덕사 (世德祠)에 제향(祭享)하였다. 『적성지(天)』

○ 송연수(宋延壽)

송연수는 본관이 연안(延安)으로 효성이 지극하였다. 어버이가 학질에 걸려 고생하자 허벅지 살을 베어서 약으로 만들어 드려 즉시 효험을 보았다. 부사(府使) 유한갈(兪漢葛)이 쌀과 고기를 내려 주었고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었으며 효자전(孝子傳)을 지었다. 『적성지(天)』

○ 송영기(宋永基)

송영기는 본관이 신평(新平)으로 예문관수찬 첨지문원사(藝文館修撰僉知文院事)를 지낸 노송당(老松堂) 송희경(宋希璟)의 후손인 송규현(宋圭鉉)의 아들이다. 그는 천성적인 효성(孝誠)으로 부모를 편안하게 섬겼으며, 또한 어버이가 병이 들어 백약이 무효하자, 먼저 무명지(無名指)를 잘라 피를 내어 환자의 입에 흘려 넣고 재차 중무

지(中拇指)를 잘라 피를 흘러 넣어 소생케 하여 세상에서 팔지효자(八指孝子)라는 칭송을 들었다.
그의 손자인 북촌(北村) 송환국(宋煥國) 역시 그를 본받아 어버이를 정성을 다해 봉양하였으며, 어버이의 병이 위급해지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환자의 입안에다 흘려 넣는 효행을 하였다. 이에 유생(儒生)들이 그의 조부(祖父) 송규현(宋圭鉉)과 함께 추천하였다. 무풍(茂豊) 현내리(縣內里)로 이사하여 살았다. 『적성지(地)』

○ 신 권(申 權)

신권은 본관이 평산(平山)으로 호는 각천재(覺天齋)이며, 세종때 좌의정(左議政)에 이르렀던 문희공(文僖公) 신개(申槪)의 후손이다. 그는 효성이 지극하여 오직 어버이를 섬기는 효도를 다 하면서 학문(學問)을 닦는 일에 남은 힘을 썼다. 뒤에는 무주(茂朱) 칠봉산(七封山) 아래에서 세상을 피해 숨어 살면서 집을 짓고 벽에다 공자(孔子)의 가르침인 사물잠(四勿箴)을 걸어놓고는 도(道)를 논하며 학문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많은 선비들을 가르쳐 학문을 성취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장수(長壽)하여 고을의 추천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戶費參判) 벼슬을 수직(壽職)으로 받았다. 『적성지(地)』

○ 신현태(申鉉泰)

신현태의 본관은 평산(平山)으로 문희공(文僖公) 신개(申槪)의 후손이며 신종균(申琮均)의 아들이다. 그는 평소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섬겼으며, 아버지가 천식(喘息)에 걸려 여러 해 동안 기침으로 신음하여 백방(百方)으로 치료할 길을 찾다가 족제비 기름이 특효가 있다는 의원의 말을 듣고 눈보라 치는 겨울 산을 헤메며 마침내 족제비를 잡아 부친의 병환을 낫게 하였다. 상을 당하여는 예제(禮制)를 따름이 정도를 넘어 섰다. 『적성지(地)』

○ 유경제(柳景堤)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2. 효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유근두(柳根斗)

유근두는 본관이 문화(文化)이며 호는 무성(茂城)으로 충경공(忠景公) 유양(柳亮)의 후손이며, 유인영(柳寅永)의 아들이다. 그는 일곱살 때 아버지를 잃고 편모 슬하에서 성장하였는데, 정성과 공경으로 모친을 따르고 섬겼다. 그의 어머니가 풍증(風症)에 걸려 사지(四肢)를 움직이지 못하자, 그는 밤낮으로 옆에서 모시고 보살펴 드렸으며, 하루에 미음(米飮)을 열 번씩 끓여 드리는 정성으로 공양했다. 상(喪)을 당하여서는 슬픔이 예제(禮制)의 한도를 넘었으며 삼년 동안 눈·비를 피하지 않고 지성으로 성묘하였다. 『적성지(地)』

○ 유문징(柳文徵)

유문징은 본관이 문화(文化)이며 호는 방화재(訪花齋)로 충경공(忠景公) 유양(柳亮)의 후손이며, 유덕신(柳德信)의 아들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효성으로 양친을 봉양하였으며, 그의 부친이 노병(老病)으로 두어 달 동안 계속 심하게 앓다가 차츰 위급하게 되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입안에다 흘려 넣어 3년 간을 더 살게 하였으며, 그 뒤 모친의 병환에도 그러하였다. 그의 8대조(代祖)의 무덤 옆에다 권력있는 아전(衙前)이 몰래 장사(葬事)를 치루어 파낼 수 없는 형편이 되자 그가 혈서(血書)로 소장(訴狀)을 올려 옮겨가게 하였다. 고종 15년(1878) 심한 수해와 고종 16년(1879) 전염병 확산으로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는 부자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

그의 큰아들 유광석(柳光錫)도 효성이 지극하여 그가 병이 들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주혈(注血)하는 효행을 하였으나 불행히 일찍 죽었고, 작은 아들 유광승(柳光昇)도 지극한 효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부친이 죽자 3년간 시묘(侍墓)살이를 한 효자이다. 『적성지(地)』

○ 유봉증(柳鳳增)

행적이 무주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2. 효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유재현(柳在顯)

유재현은 본관이 문화(文化)로 충경공(忠景公) 유양(柳亮)의 후손이며 유광로(柳光魯)의 아들이다. 그는 효성이 극진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어버이를 봉양하며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의 효성에 감복한 고을 사람들이 표창하고자 하였으나 대구 등지로 피하면서 사양하였다. 그는 부모의 상(喪)을 당해서도 살아있는 사람을 섬기듯 효성을 다하여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케 하였다. 그는 비록 가정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만년(晩年)에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 주었다. 『적성지(地)』

○ 유최영(柳最榮)

유최영은 본관이 문화(文化)이며 호는 후재(后齋)로 정숙공(貞肅公) 유정현(柳廷顯)의 후손으로 좌승지(左承旨)에 증직된 유한태(柳漢泰)의 아들이다. 그는 어버이를 효성으로 섬겨, 철종때 효행(孝行)으로 동몽교관(童蒙敎官)의 벼슬에 증직(贈職)되었고, 고종 18년(1881)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증직(贈職)되었다. 『적성지(地)』

○ 유한복(柳漢復)

유한복은 본관이 문화(文化)이며, 호는 미재(微齋)로 정숙공(貞肅公) 유정현(柳廷顯)의 14세손이다. 그는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자신을 돌보지 않으며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어머니의 병환에 대변 맛을 보며 간호하였고, 밤중에도 허리띠를 풀지 않았다. 상(喪)중에는 반찬 없는 밥을 먹으며 예제(禮制)를 지켰고, 매번 돌아오는 기일(忌日)에는 한결같이 상중(喪中)의 복식을 하였다. 그는 「효제가(孝悌歌)」 한편을 지었으며, 철종(哲宗) 13년(1862)에 효행(孝行)으로 동몽교관(童蒙敎官) 벼슬이 증직(贈職)되었다. 『적성지(地)』

○ 유한태(柳漢泰)

유한태는 본관이 문화(文化)이며 호는 겸재(謙齋)로 정숙공(貞肅公) 유정현(柳廷顯)의 14세손이며,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증직받은 효자 유한복(柳漢復)의 동생이다. 글방에 나갔다가 부모에게 문안을 하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돌아올 정도로 효성이 지극하였다. 철종(哲宗)때 효행(孝行)으로 동몽교관(童蒙敎官)의 벼슬을 증직(贈職) 받았고,

고종(高宗) 18년(1881) 좌승지(左承旨)로 증직(贈職)되었다. 옥천(沃川)에서 적상면(赤裳面) 상유리(上柳里)로 들어와 살게 되어 자손들이 그대로 살고 있다. 『적성지(地)』

○ 유홍증(柳鴻增)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2. 효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이광식(李光植)

이광식은 본관은 원주(原州)이다. 그는 소학에 의거하여 부모를 효성으로 섬겼으며, 부친이 병들자 5년 동안을 하루같이 시탕약(侍湯藥)에 정성을 다하였고, 변 맛을 보고 병세를 살피며 간병하였다. 임종(臨終)을 당해서는 손가락을 찔라 피를 내어 입에다 넣어 드렸으며, 부모의 상중에는 묘 옆에 여묘를 차려놓고 시묘하며 삼년상을 치르는 효행을 하였다. 도백(道伯)이 여러 차례 추천하여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벼슬을 받았다. 또한 그의 아버지 이문욱(李文郁)도 효행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증직되었으며, 할아버지 이차안(李次安) 역시 효행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증직되었다. 『적성지(天)』

○ 이귀생(李貴生)

이귀생은 호랑이가 집안으로 들어와 아버지를 덮치려하자, 호랑이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귀를 물어 뜯어 아버지를 살렸다. 그 사실이 알려져 정려(旌閭)하였다. 정려는 옛날 적성관(赤城館) 앞에 있었다. 『적성지(天)』

○ 이기덕(李基德)

이기덕은 본관이 흥양(興陽)이며 호는 일은(逸隱)으로 두촌(斗村) 이만경(李晩景)의 증손이다. 일가친족과 화목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냈으며, 조상(祖上)과 부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상(喪)을 당해서는 예도(禮道)를 넘어서 장례를 치렀으며, 기일(忌日)에는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받들었다. 그는 효성으로 조상을 받드는 모범을 보여주니 자질들은 물로 이웃 사람들도 따라서 실천에 옮겼다고 한다. 그의 아들

이재영(李在英)은 가선대부(嘉善大夫) 호조참판 겸오위도총부부총관(戶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官)에 추증(追贈)되었다. 『적성지(地)』

○ 이기룡(李琪龍)

이기룡은 본관이 경주(慶州)이며 정순공(靖順公) 이성중(李誠中)의 후손이며 이종직(李鍾直)의 아들이다. 그는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공경하면 섬겼다. 그의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져 정신이 혼미해지고 망령기가 생겼는데, 8년 동안 약시중을 드는 일과 모든 뒷바라지 일들을 정성으로 한결같이 받들었다. 『적성지(地)』

○ 이만경(李晩景)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2. 효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이시호(李時鎬)

이시호는 본관이 원주(原州)이며 호는 송암(松庵)으로 현감(縣監) 이성로(李成路)의 후손이다. 그는 지극한 정성으로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였고, 역대(歷代) 조상(祖上)들의 묘에 석물(石物)을 갖추고 위토답(位土畓)을 장만하는 등 조상을 받드는 일에도 있는 힘을 다하였다. 『적성지(地)』

○ 이재문(李在文)

이재문은 본관이 원주(原州)로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지낸 만포(晩圃) 이천익(李天翊)의 후손 이연규(李淵奎)의 아들이다. 그는 어려서 부터 효성이 지극하여 어버이를 정성껏 모시며 기쁘게 해드렸다. 자식의 도리를 다하여 어버이의 안부를 묻고 보살피는 예절과 맛있는 음식을 극진히 장만하여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다. 고을과 이웃 사람들이 마음이 순진하고 곧은 진실된 효자라고 칭찬하였다. 『적성지(地)』

○ 이종욱(李鍾郁)

이종욱은 본관이 흥양(興陽)으로 고려 때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를 지낸 정신공(貞愼公) 이서원(李舒原)의 후손으로 이시홍(李時鴻)의 아들이다. 그는 어려서 부터 어버이를 극진한 정성으로 모시며 공양하였다. 그의 부친이 깊은 병에 들어 위독해 지자 백방(百方)으로 다니며 약을 구하여 돌보아 드렸다. 어느 겨울날 부친이 꿩국을 먹고 싶다고 하여 눈 쌓인 산을 헤메며 꿩을 찾고 있을 때 꿩 한마리가 품안으로 날아들어 즉시 음식을 만들어 드려 부친의 병을 낫게 하였다. 또한 그의 부친이 술을 좋아하여 항상 취하였는데, 그 때마다 따라 다니면서 등에 업고 돌아오곤 하였다. 이웃 마을 사람들이 감탄하고 여러 사람들이 본받도록 포창(褒彰)해 달라고 여러 차례 추천하였다. 『적성지(地)』

○ 이창로(李昌老)

이창로는 본관이 원주(原州)로 자는 현수(顯馬)이며 호는 추재(秋齋)로, 일찍이 과거에 뜻을 버리고 수암(遂菴) 권상하(權尙夏)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닦았다. 어머니 병환이 위급하자 손가락을 짓이겨 피를 내어 입에 넣어드려 하루 동안 소생케 하였고, 아버지 병환에는 약을 다려 드리면서 대변 맛으로 증세보며 간호하였으며, 임종(臨終)에 이르러서는 역시 손가락을 찢어 피를 흘려 넣어 반나절 동안 소생케 하였다. 나이 70세가 되도록 부모를 영원히 사모하여 부모가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은 종신토록 먹지 않았다. 여러 차례 도천(道薦)에 들었으나 정려는 되지 않았다.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가 행장을 짓고, 부사 유한갈(兪漢葛)이 찬시(贊詩)를 지었다. 『적성지(天)』

○ 이충우(李忠雨)

이충우는 본관이 경주(慶州)이며 정순공(靖順公) 이성중(李誠中)의 후손으로 이종술(李鍾述)의 아들이다. 그는 중풍(中風)에 걸린 부친을 10년 동안이나 지성으로 돌보며 봉양하였고, 때때로 부친을 등에 업고 친지를 방문하여 찾아 뵙도록 하였으며 들판으로 나아가 논밭 두둑을 다니면서 경치 좋은 곳을 구경 시키며 부친을 즐겁게 해드렸다. 『적성지(地)』

○ 이태종(李泰鍾)

이태종은 본관이 경주(慶州)이며 자는 군첨(君瞻)으로 정순공(靖順公) 이성중(李誠中)의 후손이다. 그의 아버지가 이질에 걸리자, 변 맛을 보며 증세를 살폈고, 병세가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주혈(注血)로 소생케 했으며, 상(喪)중에는 날마다 지성으로 산소를 찾아 성묘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학질에 걸렸을 때는 손가락을 잘라 국을 끓여 약으로 먹이며 효양하다가 어머니가 별세하자 부친 상(喪)과 같이 모든 예(禮)를 갖추어 효행을 다 하였다. 그는 후에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에 증직되었다. 『적성지(天)』

○ 임성봉(林聖鳳)

임성봉은 본관이 평택(平澤)으로 고려 말 삼사 우사(三司右使)의 벼슬에 이르렀던 충간공(忠簡公) 임성미(林成味)의 후손이며 임종호(林宗鎬)의 아들로, 어버이를 봉양하는 범절과 효성이 극진하였다. 그는 모친이 병을 얻어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입 안에다 흘려 넣어 더 오래 살게 하였다. 『적성지(地)』

○ 전정호(全正鎬)

전정호는 본관이 옥천(沃川)으로 인조(仁祖)때 대사헌(大司憲)을 지내고 좌찬성(左贊成)에 추증(追贈)되었던 충간공(忠簡公) 사서(沙西) 전식(全湜)의 후손인 전재규(全載奎)의 아들이다. 그는 일곱 살 때 어머니를 잃고 할머니와 계모(繼母) 밑에서 자랐으면서도 지극한 효성을 보였다. 그의 부친이 풍증(風症)에 걸려 10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을 때 온갖 정성으로 보살펴드리고, 변맛을 보면서 상태를 살피고 종기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 내었으며, 부친의 병환이 몹시 위급해지자 손가락을 찢어 피를 내어 입에 흘려 넣어 3일간을 더 살게 하였다. 상(喪)을 당하여 다른 사람의 땅에 묘를 쓰게 되었는데, 완강히 반대하는 산주(山主)를 지극한 정성으로 감동시켜 허락을 받아 장사를 지냈다. 그는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틈을 타 학문에 전념하여 여러 현인(賢人)들의 책을 많이 읽어 지식이 해박하였다. 『적성지(地)』

○ 정기인(鄭基仁)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2. 효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정환철(鄭煥哲)

정환철은 본관이 하동(河東)이며 호는 둔암(遯庵)으로, 일두(一亘) 정여창(鄭汝昌)의 동생인 참봉(參奉) 정여관(鄭汝寬)의 후손이다. 그는 함양(咸陽)으로 부터 안성면(安城面) 신당(莘堂)으로 들어와 살았는데, 그는 어버이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상(喪)을 당해서는 도를 넘었고, 장사(葬事)를 지내는 일과 상중(喪中)의 모든 절차는 예제(禮制)에 따라 행하였다.

그는 아들이 없는 계부(季父)를 20여년을 한결같이 친아버지처럼 효성으로 모시고 받들었다. 그의 아들 넷도 부친의 효행을 본받아 모두 남다른 행적을 남겨 이들 행실이 「삼강록(三綱錄)」에 실려있다.『적성지(地)』

○ 최경호(崔璟鎬)

최경호는 본관이 전주(全州)이며 고려때 문하시중(門下待中)을 지낸 문성공(文成公) 최아(崔阿)의 후손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최규년(崔圭年)의 아들이다. 어머니가 병환으로 위독하자, 손가락을 찢어 피를 내어 입안으로 흘려 마시게 하였고, 아버지가 노환(老患)으로 오줌이 나오지 않고 배가 차오르는 어려움에 이르자 입으로 오줌을 빨아내고 변 맛을 보면서 병세를 살피는 등 효행을 하였고, 부모의 상을 당하여 너무나 슬퍼한 나머지 몸이 다 상하도록 슬퍼하였고, 장례를 치르는 예제(禮制)가 너무 극진하여 도(度)를 넘었다. 『적성지(地)』

○ 최만억(崔萬億)

최만억은 부모가 병으로 위독할 때 두 차례나 손가락을 짤라 주혈(注血)하여 모두 5·6년씩 더 살게 한 효자다. 나라에서 정려(旌閭)를 명하였다. 『적성지(天)』

○ 최익붕(崔翼鵬)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2. 효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최흥종(崔興宗)

최흥종은 본관이 전주(全州)로 고려 때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지낸 문성공(文成公) 최아(崔阿)의 후손이며,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낸 강은(岡隱) 최세대(崔世大)의 아들이다. 그는 본래 학문과 덕행이 있었고, 가난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봉양하였다. 부모가 병들었을 때 병세를 살피기 위해 변맛을 보기도 하였는데, 자신이 우연히 질병에 걸리자 그의 아들 최치로(崔致魯)와 최치헌(崔致헌)을 불러 조부모를 섬기도록 부탁하고 세상을 떠났다.

두 아들이 빈렴(殯殮)과 상장(喪葬)을 모든 예제(禮制)에 따라 행하고 죽만 먹으면서 여묘(廬墓)살이를 하고 조부모 모시니, 세상에서는 양대(兩大)의 삼효자(三孝子)라 칭찬하였고, 사림(士林)들이 미덕(美德)을 칭송하여 정첩(呈牒)을 올렸다. 양세 삼효비(兩世三孝碑)가 무풍면 호봉평에 세워졌다. 『적성지(地)』

○ 하귀호(河貴鎬)

하귀호는 본관이 진양(晉陽)으로 자(子)는 귀영(貴榮)이며, 문효공(文孝公) 하연(河演)의 후손으로 하재석 (河在錫)의 아들이다. 그는 천성이 온화하고 착하였으며, 지극한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기며 뜻을 어기지 않았다. 어버이 병중에 지극한 정성을 보였고, 상중(喪中)에는 지극히 슬퍼하였으며 제사를 지낼 때는 지극히 엄격한 법도를 지켰다. 『적성지(地)』

○ 하재인(河在仁)

하재인은 본관이 진양(晉陽)으로 문효공(文孝公) 경재(敬齋) 하연(河演)의 후손이며 하태용(河台容)의 아들이다. 그는 여덟 살 때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숨이 끊어지려하는 어머니를 다시 살아나게 하였으며, 늙어서까지도 한결같이 지극한 효성을 보였다. 『적성지(地)』

○ 허 극(許 極)

허극은 본관이 김해(金海)로 문헌공(文憲公) 허백기(許伯琦)의 후손이다. 그는 아버지가 학질에 걸리자 허벅지 살을 베어 약을 해 드려 낫게 하였으며, 상(喪)중에는 3년 동안 여묘(廬墓)살이로 효행을 다하여 나라로부터 동몽교관(童蒙敎官)을 증직받았다.

또한 그의 아내 완산 김씨(完山金氏)도 시부모를 섬김에 정성을 다하였는데 그의 시어머니가 병에 들어 위독해지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주혈(注血)로써 소생시킨 효부였다. 이에 나라에서 정려(旌閭)를 내려 주어 남편과 함께 연정(聯旌)되었다. 『적성지(天)』

○ 현필희(玄弼喜)

현필희의 본관은 연주(延州)로 조선 태조때 통헌대부(通敵大夫)에 올라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를 지낸 현옥량(玄玉亮)의 후손이며,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라 오위장(五衛將)을 지낸 현우철(玄禹喆)의 아들이다. 부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으며, 집안이 가난하여 소금장사를 하고 객지를 돌아다가 맛있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드렸으며, 형과 더불어 우애가 돈독하였다. 『적성지(地)』

제5절 무주의 열녀

○ 강일은금(姜日隱金)의 처 한소사(韓召史)

부인은 남편 강일은금이 산중에서 나무를 베다가 나무에 깔려 죽었는데, 이에 한씨부인은 3일간 슬피 울면서 장례를 마친 후 스스로 목을 매어 남편을 따라 죽었다. 이에 나라에서 정려(燒間)하였다. 『적성지(天)』

○ 강종회(姜鍾會)의 처 제주고씨(濟州高氏)

부인은 본관이 진주인 강종회의 아내이다. 부인은 효성으로 시부모를 받들어 모시고 예를 다하여 남편을 섬기다가 남편이 병이 들어 위독하자 손가락을 찢어 피를 내

어 먹여 다시 깨어나게 하여 4년 동안을 더 살게 하니, 향리(鄕里)에서 모두 효열(孝烈)이라고 일컬었다.

호조판서(戶曹判書)의 벼슬을 받았던 부인의 아들 운봉(雲峰) 강영규(姜永珪) 역시 부모에 대한 효(孝)가 극진하였고 동기간에 우애가 돈독하였다. 그의 처 김해김씨(金海金氏)도 남편의 병환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 병을 고치려고 하였으나 목숨이 끊어지기에 이르자, 손가락을 찢어 피를 내어 입안에다 흘려 넣어 다시 살려 4일 간을 더 살다가 마침내는 숨을 거두어 버리니 남편을 따라 죽기로 맹세하였지만, 늙으신 시어머니의 봉양을 부탁할 곳이 없어서 마음을 바꾸고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에 있는 힘을 다 하였다.

양자(養子) 강정수(姜正秀)도 할머니 고씨(高氏)가 병으로 위독하자, 겨우 열세살 나이에도 자신이 대신 죽게 해 달라고 하늘에 빌었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입안에다 흘려 넣어 다시 깨어나 6년 간을 더 살게 하였으며, 정성을 다하여 어머니를 봉양하고, 상(喪)을 당하여서는 예제(禮制)에 따라 장례를 치렀다. 『적성지(地)』

○ 구길생(具吉生)의 처 양씨(梁氏)

부인은 구길생의 아내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올라 있는 열녀이다. 남편이 죽었는데, 집안이 가난하여 거적으로 싸서 장사를 지냈다. 양씨는 조석으로 친히 전(奠)을 올리면서 가슴을 치고 슬피 울어 목소리까지 잃었다. 하루는 아침 전을 올린 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자 부모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찾아 나섰더니, 부인은 남편 묘소를 파헤쳐 관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있었다. 이에 부모들이 부축하여 돌아오는 중에 부인은 장마비로 넘치는 앞 냇물에 빠져 죽으려고 몸을 물에 던졌으나 그의 시동생이 발견하고 건져 내었다. 그러나 수개월을 살다가 스스로 목을 매어 남편을 따라 죽었다. 이에 나라에서 정려(旌閭)하였다. 『적성지(天)』

○ 권영유(權永裕)의 처 보성오씨(寶城吳氏)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3. 열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김복규(金復圭)의 처 창원황씨(昌原黃氏)

부인은 김복규의 아내로 시아버지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기다가 병으로 위독하여 운명(殞命)하려 하자, 손가락을 찢어 피를 마시게 하여 곧 소생케 하였다. 그 뒤 그의 남편이 병들어 갑자기 죽게 되자 그날 음독하여 남편을 따라 죽으니, 세상 사람들이 효열을 겸비하였다고 칭송하였다. 『적성지(天)』

○ 김성식(金盛植)의 처 안동권씨(安東權氏)

부인은 본관이 김해인 김성식의 아내이다. 부인은 남편이 병에 걸려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10여 년간 탕약(場藥)을 바치는 일에 예도(禮道)를 지키면서 하늘에다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일에 밤낮으로 게을리 하지 않았다. 남편의 병세가 아주 위태로움에 이르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입안으로 흘려 넣고 소생시켜 3일간을 더 살다가 마침내 숨을 거두자 부인도 즉시 따라 죽으려 하였는데 위로는 늙으신 시아버지가 계시고 아래로는 어린 자식이 있어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남편의 삼년상을 다 마친 이튿날 남편을 따라 죽었다. 『적성지(地)』

○ 김세기(金世紀)의 처 일선김씨(一善金氏)

부인은 본관이 광산인 김세기의 아내이다. 부인은 남편이 난치병에 걸려 몇 달 동안 고통을 받자 온갖 정성을 다하여 약을 해 먹였으나 효험도 없이 세상을 떠나자, 이에 부인도 같은 날 남편을 따라 죽었다. 『적성지(天)』

○ 김세평(金世平)의 처 창원황씨(昌原黃氏)

부인은 본관이 김해인 김세평의 아내이다. 부인은 살림살이가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으로 시집와서도 변함없이 살면서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을 받들어 섬기다가 부인의 나이 겨우 20세에 갑자기 남편을 잃게 되었다. 당시 임신중이였던 부인이 곧 아이를 낳자 아이를 길러서 남편의 제사를 받들게 할 것을 맹세하고 시부모를 잘 섬기고 어린 자식을 사랑으로 기르면서 집안 일에 부지런하였다. 부인의 아들 김충장(金充長)도 역시 효행으로 이름이 있었다. 『적성지(地)』

○ 김순업(金順業)의 처 제주고씨(濟州高氏)

부인은 본관이 김녕인 김순업의 아내이다. 부인은 나이 겨우 26세 때 갑자기 남편이 숨을 거두는 슬픔을 당하였다. 가세(家勢)가 너무나 가난한 데다가 위로는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있었고, 아래로는 세 명의 어린 아들이 있었다. 이에 부인은 연로(年老)하신 시어머니를 받들어 모시고, 아비 잃은 어린 자식을 가르치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깨닫고, 시어머니를 효성으로 봉양하면서 어린 자식을 정성으로 잘 길러 집안을 점점 풍요롭게 만들었다. 『적성지(地)』

○ 김영희(金永喜)의 처 진주강씨(晉州姜氏)

부인은 본관이 광산인 김영희의 아내이다. 부인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받드는 일에 뜻을 길러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공양하였으며 남편을 섬기는 일에는 천명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 남편이 병으로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입안에 흘려 넣어 다시 깨어나게 하여 3일 간을 더 살다가 마침내는 숨을 거두는 불행을 당하자, 부인도 당일에 남편을 따라 죽었다. 『적성지(地)』

○ 김유성(金有聲)의 처 성산이씨(星山李氏)

부인은 본관이 김녕인 김유성의 아내이다. 부인은 남편의 병이 위독하여 장차 운명(殞命)하려고 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수개월을 소생 시켰다. 그러나 곧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부인은 슬픔을 머금고 아픔을 참으면서 시아버지를 위로하며 상례를 치르고, 탈상(脫喪)하는 날에 이르러 조석(朝夕) 전(奠)을 한결 같이 예(禮)에 따라 올린 뒤 그 날 밤 조용히 남편을 따라 죽었다. 『적성지(天)』

○ 김의제(金義濟)의 처 경주이씨(慶州金氏)

부인은 본관이 경주인 김의제의 아내이다. 부인은 나이 24세 때에 남편이 병에 걸려 위독해지자 변을 맛보면서 병세를 살피는 등 정성을 바쳐 치료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부인은 남편을 따라 죽고자 하였으나 시부모의 간곡한 만류로 뜻을 바꾸어 예제(禮制)에 따라 상(喪)을 마치고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린 아이를 길렀다. 일찍이 시어머니가 미친 개에 물려 독이 퍼져 음식을 먹어도 넘어가지 않고 위독함에 이르자 밤낮으로 옆에 모시고 갖은 방법을 다 찾아 치료하여 다시 평상으

로 돌아오게 하였다. 부인의 아들 김동선(金東善)도 조상(祖上)들의 제사를 받드는 일과 손님을 맞는 일에 정성스런 마음과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을 다하여 고을에서 칭찬을 받았다. 『적성지(地)』

○ 김정길(金正吉)의 처 합천이씨(陜川李氏)

부인은 본관이 김녕인 김정길의 아내이다. 부인은 시아버지를 섬기면서 뜻에 따르고 입맛에 맞는 음식으로 공양하여 사람들이 효부라고 하였다. 그의 남편이 불행하게도 일찍 죽자, 초상(初喪)을 치르는 모든 절차를 예(禮) 갖추어 정성으로 마치고 3년 동안 고통을 참고 슬픔을 견디며 시부모를 위로하면서 종상(終喪)에 이르렀다. 그날은 조석(朝夕) 전(奠)의 예(禮)를 다 갖추어 봉행(奉行)한 후 시부모의 옷을 손수 만들어 장롱 속에 넣어두고, 침실로 들어가 음독하여 남편을 따라 죽었다. 세상 사람들이 그녀를 효열(孝烈)을 온전하게 겸비하였다고 칭송하였다. 『적성지(天)』

○ 김종의(金鍾儀)의 처 경주김씨(慶州金氏)

부인은 본관이 김해인 김종의의 아내이다. 부인은 남편을 공경하고,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며, 선대(先代)의 제사를 정성껏 받들어 가정을 화목하게 하였다. 부인은 남편이 병이 들자 약이 되는 음식을 장만하여 힘을 다하여 시탕(侍湯)하였고, 위태로운 상태에 이르자 손가락을 찢어 피를 내어 입안에다 흘려 넣기도 하였으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에 부인은 남편의 뒤를 따라 죽어 절의를 다하려고 했는데, 죽은 남편이 남긴 유명(遺命)에 따라 마음을 바꾸어 예절로써 집안을 다스리고 법도로써 아들을 가르쳐 가정을 일으켜 세웠다. 『적성지(地)』

○ 김천우(金天佑)의 처 해주오씨(海州吳氏)

부인은 김해 김씨 김천우에게 시집와서 나이 27세에 아들 김치룡(金致龍)을 낳았는데, 불행히도 다음 해에 남편이 운명하자 극도로 슬퍼하였다. 장례를 치르고 빈소를 마련한 후에는 아픈 마음을 억누르고 시부모를 위로하면서 어린 자식을 키웠다. 부인은 개가를 권하는 친정 식구들의 권유를 뿌리치고 살다가 아들의 나이가 6세가 되던 해의 남편 생일날에 남편을 따라 죽었다. 『적성지(天)』

○ 김치목(金致穆)의 처 성산이씨(星山李氏)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3. 열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김현복(金顯福)의 처 경주김씨(慶州金氏)

부인은 본관이 경주인 김현복의 아내이다. 부인은 가난한 집안에 시집와서 남의 집 빨래와 바느질로 품팔이를 하여 시부모를 섬기면서 살았다. 남편이 지독한 병에 걸리자 약이 될만한 음식을 부지런히 마련하여 시탕(侍湯)하면서 정성껏 돌보았으나 끝내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입안에다 흘려 넣어 3일 간을 더 살게 했다. 부인은 조상(祖上)의 제사를 받드는 일과 시부모 섬기는 일을 생각하여 남편을 따라 죽지도 못하였지만, 집안의 명성을 확고하게 이르켜 세웠다. 『적성지(地)』

○ 김흥옥(金興玉)의 처 은진송씨(恩津宋氏)

부인은 본관이 김해인 김흥옥의 아내이다. 부인은 결혼하여 시부모에게 효(孝)를 다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다가 불행하게도 일찍이 과부가 되었는데, 남편이 남긴 유명(遺命)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 부인은 정성을 다하여 조상을 받들고 시부모를 섬겼으며, 아버지를 잃은 아들을 잘 가르치고 길러서 집안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마침내는 그 아들이 부인에게 효성으로 봉양함으로써 편안함을 누렸다. 『적성지(地)』

○ 박경호(朴景鎬)의 처 김해김씨(金海金씨)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2. 효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박만령(朴萬齡)의 처 양주조씨(楊州趙氏)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2. 효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박사흠(朴士欽)의 처 흥양이씨(興陽李氏)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2. 효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박석하(朴碩夏)의 처 옥천전씨(沃川全氏)

부인은 밀양 박씨(密陽朴氏) 가문의 박석하와 결혼하여 시부모와 시조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하고 남편을 받들며 살았다. 남편이 위태로운 병에 걸리자, 부인은 정성을 다하여 약을 마련하여 시탕(侍湯)하였고, 위급할 때는 손가락을 찢어 피를 내어 입안에다 흘려 넣었다. 부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따라 죽고자 하였으나, 가정을 보존하고 후사(後嗣)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부인은 슬픔과 고통을 참으면서 부지런하고 검소한 생활로 생업(生業)에 종사하면서 양자 (養子)를 들여 훌륭하게 길러 거의 끊어질 뻔했던 집안을 다시 일으켰다. 『적성지(地)』

○ 박승조(朴勝錯)의 처 광산김씨(光山金氏)

부인은 본관이 반남인 박승조의 아내이다. 부인은 조상을 받드는 일에 효성을 다하였고 남편을 공경하며 순종하였다. 6·25 때 흉악한 무리들이 남편을 죽이려 하자, 부인이 남편을 대신하여 적에게 대항하여 남편을 살리고 자신은 처참한 화(禍)를 입고 죽었다. 이웃에서 감탄하여 비석을 세우고 열행(烈行)을 기록하였다. 『적성지(地)』

○ 박영희(朴永禧)의 처 경주이씨(慶州李氏)

부인은 본관이 밀양인 박영희의 아내이다. 부인은 16세 때에 밀양 박씨 가문의 박영희와 결혼하였는데, 본시 집안이 너무나 가난하여 삯바느질과 삯방아를 찧는 품팔이를 하면서도 시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하였다. 1946년 돌림병이 유행할 때 남편이 괴질(怪疾)에 걸려 죽자, 부인도 따라 죽기로 맹세하고 7일 동안 단식(斷食)을 하다가 시부모의 간곡한 만류로 생각을 바꾸어 시부모에게 효성으로 봉양하며 살아갔다. 그 후 조카 박일표(朴日杓)를 후사(後嗣)로 들여 집안의 명성을 이어 나가게 하였다. 『적성지(地)』

○ 박이항(朴以桓)의 처 전주원씨(全州元氏)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2. 효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배철제(裵喆齊)의 처 밀양박씨(密陽朴氏)

부인은 본관이 성산인 배철제의 아내이다. 부인은 혼인한 지 3년 만에 불행하게도 남편과 사별(死別)하게 되었는데 이때 부인의 나이 겨우 20세로 슬퍼함이 너무나 애절하여 예제(禮制)를 넘었다. 부인은 연로한 시부모가 계셨는데 봉양할 사람이 없음을 생각하여 남편을 따라 죽지도 못하고, 남의 집 빨래와 바느질로 품팔이를 하여 시부모 봉양에 정성을 다하였고 유복자(遺腹子)를 낳아 양육하여 집안을 확고하게 세웠다. 『적성지(地)』

○ 신환균(申煥均)의 처 남원양씨(南原梁氏)

부인은 본관이 평산인 신환균의 아내이다. 부인은 불행하게도 나이 28세에 남편이 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치료를 해보고 약을 써봐도 효험이 없었다. 남편의 병이 점점 위급해지자 부인은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입안에다 흘려 넣는 정성을 다 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끝내 세상을 떠나자, 예도(禮道)에 넘치도록 슬퍼하여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났다. 장사(葬事)지내는 일과 상중(喪中)에 하는 모든 예(禮)와, 상(喪)을 마칠 때까지의 모든 예제(禮制)를 한결같이 따랐다. 부인은 자식들을 덕의(德義)에 알맞도록 가르쳐 가문의 법도(法道)를 일으켰다. 『적성지(地)』

○ 양원철(梁元喆)의 처 흥양이씨(興陽李氏)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3. 열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유풍렬(柳豊烈)의 처 창령성씨(昌寧成氏)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3. 열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이기윤(李基允)의 처 아산장씨(牙山蔣氏)

부인은 겨우 16세의 나이에 합천 이씨(陜川李氏) 가문의 이기윤(李基允)과 결혼하였는데, 1년이 되기도 전에 남편이 난치병(難治病)에 걸렸다. 부인은 여러 해 동안 약이 되는 음식을 마련하고 시탕(侍湯)하면서 직접 대소변을 받아 내는 등 남편을 정성을 다하여 치료하였으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따라 죽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오히려 의지할 곳 없는 시부모와 어린 시동생들 생각으로 마음이 흔들려 본래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부인은 바느질을 하고, 빨래를 하면서 집안 일을 부지런하게 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부모를 섬기고 어린 시동생들을 돌보아 주었다. 『적성지(地)』

○ 이기주(李基周)의 처 김해김씨(金海金氏)

부인은 18세에 여주 이씨(驪州李氏) 가문의 이기주(李基周)와 결혼하여, 남편이 깊은 병에 걸려 위독한 상태에 이르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안에다 흘려 넣기도 하고,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화약(和藥)을 만들어 먹이기도 하였는데도 깨어나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았다. 부인은 남편의 장사(葬事)를 예제(禮制)에 따라 치른 후 남편을 따라 죽으려고 하였지만, 90세의 늙으신 시할머니를 봉양할 사람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을 참으며 집안 일에 열중하였다. 종시숙(從媤叔)을 차양자(次養子)로 삼았으나 역시 불행하게 죽자, 부인은 시조모에게 더욱 효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조상(祖上)의 제사를 받들며 살았다. 부인은 뒤에 집안의 종질(從姪)인 이영균(李榮鈞)을 양자(養子)로 맞아들여 집안의 명성을 일으켜 세웠고, 선대(先代)의 무덤에 딸린 많은 위토전(位土田)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적성지(地)』

○ 이내진(李乃珍)의 처 하남정씨(河南程氏)

부인은 본관이 전주인 이내진의 아내이다. 부인은 나이 겨우 14세에 결혼을 하였는데, 집안이 너무나 가난한 데다가 남편이 원인 모를 이상한 병에 걸려 가정의 즐거움이 없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부인은 시부모를 효성으로 받들어 모시면서 남편을 잘 섬겼고, 집안 살림살이에 관한 모든 일을 잘 다스렸으며, 양아들을 들여 잘 키워서 선조(先祖)와 남편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적성지(地)』

○ 이덕문(李德文)의 처 진양강씨(晉陽姜氏)

부인은 본관이 전주인 이덕문의 아내이다. 부인은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모든 예제(禮制)를 갖추어 장사를 치르고, 강보에 쌓인 어린 아들을 잘 길러 끊어질 뻔 하던 시가(媤家)의 가계(家系)를 이어 조상(祖上)과 남편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 『적성지(地)』

○ 이상덕(李相德)의 처 밀양박씨(密陽朴氏)

부인은 본관이 경주인 이상덕의 아내이다. 부인은 결혼한 뒤 나이 많은 시어머니에게 효(孝)를 다하여 봉양하면서 남편을 받들어 섬기니 이웃에서 미덕(美德)을 칭찬하였다. 남편이 혹독한 질병에 걸려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이고 변 맛을 보며 병세를 살피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물가에 나아가 비는 등 남편을 살리기 위해 하지 않은 일이 없었는데도 끝내는 남편이 세상을 버렸다. 이때 부인의 나이 겨우 22세로 한 살짜리 딸을 두고 있었는데도 남편을 따라 죽기로 굳게 마음먹었으나 늙으신 시어머니가 강력하게 만류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부인은 남편의 장사(葬事)를 지낸 뒤 15일째 되던 날 시부모들이 외출한 틈을 타 마침내 목을 매어 죽었다. 『적성지(地)』

○ 이시만(李時萬)의 처 밀양박씨(密陽朴氏)

부인은 본관이 흥양인 이시만의 아내이다. 부인은 1946년에 남편이 돌림병인 괴질(怪疾)에 걸리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입안에 흘려 넣고 허벅지 살을 떼 내어 다려서 화약(和藥)을 해드려 3일간을 더 살게 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소생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자, 부인은 남편의 허리띠를 가지고 뒷뜰에서 몰래 목을 매어 목숨을 끊고자 하였으나 식구들이 발견하여 말려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후 부인은 자식들을 잘 길러서 집안의 뿌리를 확고하게 세웠다. 『적성지(地)』

○ 이시필(李時弼)의 처 안동김씨(安東金氏)

부인은 본관이 원주인 이시필의 아내이다. 부인은 효성을 다하여 시부모를 받들어 모셨고 예(禮)를 다하여 남편을 섬겼다. 남편이 우연히 병에 걸리자 손가락을 찢어 피를 내어 먹였고 자신이 대신 죽게 해 달라고 하늘에 빌었다. 마침내 남편이 죽게

되었는데 이때가 부인의 나이 겨우 27세로 남편을 따라 죽고자 하였으나 시부모의 간곡한 만류로 마음을 바꾸어 낮에는 나무를 하고 밤에는 길쌈을 하면서 시부모를 오래도록 효성으로 봉양하였고, 자식들을 덕의(德義)에 알맞은 교훈으로 가르쳤다. 부인의 행실이 삼강록(三綱錄)에 실려 있으며, 부인의 아들 이석종(李碩鍾)·이경종(李璟鍾)도 역시 효행으로 명성이 있었다. 『적성지(地)』

○ 이시호(李時皓)의 처 전주최씨(全州崔氏)

부인은 본관이 흥양인 이시호의 아내이다. 부인은 19세에 흥양 이씨 가문으로 시집을 왔는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병에 걸려 끝내는 병을 고치지 못하여 사별(死別)하고 말았다. 부인은 초종(初終)에서부터 상제(祥祭)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제(禮制)에 어긋남이 없게 하였고, 시부모를 섬기는 일에 성력(誠力)을 다하여 일생(一生)을 하루와 같이 하였다. 조카 최종출(崔鍾出)을 후사(後嗣)로 들여 세우고 집안을 확고하게 세웠다. 『적성지(地)』

○ 이영하(李榮夏)의 처 경주김씨(慶州金氏)

부인은 전주 이씨(全州李氏) 가문의 이영하와 결혼하여, 남편의 병든 7년 동안 울음을 삼키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먹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부인은 목을 매어 한 무덤에 묻힐 것을 굳게 마음먹고 죽으려 하였으나 집안 사람들이 살려 내었다. 부인은 가문과 어린 아들을 위하여 뜻을 굽혀 여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만을 행하며 살았다. 『적성지(地)』

○ 이이옥(李以汶)의 처 의성정씨(義城丁氏)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2. 효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이종엽(李鍾燁)의 처 경주김씨(慶州金氏)

부인은 본관이 흥양인 이종엽의 아내이다. 부인은 남편이 괴상한 병에 걸려 백약에도 효험이 없었으나, 꿈에 노인의 현몽으로 윗 마을에 사는 황씨(黃氏)로부터 흑사

(黑蛇) 한 마리를 구하여 남편을 치료하였다. 그 후 남편이 집을 나가 종적(踪跡)이 없어져 살길이 막연하였으나, 남의 집 빨래와 삯바느질을 하며 셋방살이를 하면서도 늘 선대(先代)의 제사를 정성껏 받들었다. 부인 밤마다 정화수(井華水)를 떠 다 놓고 남편이 돌아오게 해 달라고 하늘에 빌었는데,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뒤 남편과 다시 상봉하게 되었다. 『적성지(地)』

○ 이철구(李喆龜)의 처 옥산장씨(玉山張氏)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3. 열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정군현(鄭君賢)의 처 반남박씨(潘南朴氏)

부인은 본관이 하동인 정군현의 아내이다. 부인은 나이 겨우 17세에 결혼하였는데, 얼마 되어 앓아 부인의 남편이 병에 걸려 2년 동안 약시중을 들었으나 아무런 효험을 보지 못하고 끝내 숨을 거두려는 하자 손가락을 찢어 피를 내어 입안에다 흘려 넣는 등 지극한 정성으로 간호하였지만 효험이 없이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죽음에 이르러 시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있었기에 남편을 따라 죽지도 못하고 장례를 치른 뒤 시부모를 지성으로 섬기고 나이 어린 여러 시동생들을 진심으로 돌보아 주었다. 『적성지(地)』

○ 조남규(趙南奎)의 처 신창표씨(新昌表氏)

부인은 본관이 함안인 조남규의 아내이다. 부인은 남편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상한 돌림병에 걸려 약의 효험도 없이 여러 해 동안 앓아 누어 병이 깊어져 위독하게 되자 손가락의 피를 내어 입안에다 흘려 넣기도 하였으나 죽음에 이르고 말았다. 이에 부인은 즉시 남편을 따라 죽으려고 하였으나 늙으신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생각하여 마음을 바꾸고, 장례를 예제(禮制)에 따라 마친 후 가도 (家道)를 바르게 세웠다. 효성이 지극하여 흉년에도 밤낮으로 부지런히 노력하여 노모(老母)의 밥상에 맛있는 음식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적성지(地)』

○ 최낙길(崔洛吉)의 처 진양하씨(晉陽河氏)

부인은 본관이 전주인 최낙길의 아내이다. 부인은 시부모를 효성으로 받들고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집안을 화목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불행히 남편이 병에 걸리게 되자 정성을 다하여 약을 마련하여 시탕(侍湯)하였고, 남편의 병이 위태로움에 이르자 손가락을 찢어 피를 내어 입에다 흘려 넣었다. 그러나 남편이 끝내 깨어나지 못하고 운명해 버리니, 부인의 슬퍼함이 너무나 애절하여 예도(禮道)를 넘었다. 그 뒤 부인은 몸소 살림살이를 맡아 효(孝)로서 시부모를 봉양하면서 선대(先代)의 제사를 받들어 모시는 일과 손님을 접대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여 가세를 일으켰다. 『적성지(地)』

○ 하성즙(河成楫)의 처 광산김씨(光山金氏)

부인은 본관이 진양인 하성즙의 아내이다. 부인은 남편의 집안이 너무나 가난하여 친정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괴질에 걸려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하여도 효험이 없이 숨을 거두자 곧 이어 따라 죽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한 살 된 아이가 있어 조상(祖上)들의 제사를 받들게 하기 위해서 잘 키워야 한다고 맹세하고 손과 발이 얼어터지도록 부지런히 살림살이를 하였다. 어느 눈 내리고 추운 겨울날 불량배의 위협을 피해 시족에게 의지하기 위해 아이를 업고 눈 내리는 겨울 밤의 캄캄한 험한 잿길을 넘어가니 얼어터진 발에서는 피가 흘러 얼음조각이 되어 묵묵 떨어지는데 호랑이가 앞장서서 부인을 안내하여 마을에 다다르게 되었다고 한다. 『적성지(地)』

○ 하을환(河乙煥)의 처 인천이씨(仁川李氏)

부인은 본관이 진양인 하을환의 아내이다. 부인은 시부모를 효성으로 받들어 모시고 남편을 공경하며 살았다. 부인은 남편이 병이 들자 환자의 몸을 매만지며 약 숟가락을 들고 보살피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서도 천지신명께 기도를 올리고 손가락을 찢어 환자의 입안에다 피를 흘려 넣기도 하였으나 끝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부인은 즉시 남편의 뒤를 따라 죽으려고 음독을 하거나 목을 맨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는데 집안 사람들의 저지로 본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가 상(喪)을 마치던 날, 몰래 옆방으로 들어가 독약을 마시고 남편을 따라 죽었다. 『적성지(地)』

○ 하장원(河檣遠)의 처 인천이씨(仁川李氏)

부인은 본관이 진양인 하장원의 아내이다. 부인은 시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모시면서 남편에게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겼다. 하씨(河氏) 가문으로 시집온 지 얼마 안되어 남편이 병들어 위태로운 상태에 이르자 부인은 자신의 허벅지 살을 떼어 화약(和藥)을 지어 시탕(侍湯)하였고 손가락을 잘라 흘리는 피를 입안에다 흘려 넣어 수개월간의 수명을 근근히 연장케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남편을 따라 죽고자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집안 사람들의 저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부인은 상중의 예절을 법도에 넘게 지켰으며, 홀로 계신 시아버지를 지극한 효성으로 봉양하였다. 『적성지(地)』

○ 하재곤(河在崑)의 처 전주최씨(全州崔氏)

부인은 본관이 진양인 하재곤의 아내이다. 부인은 겨우 24세의 나이에 남편이 죽고 과부(寡婦)가 되었는데, 남편을 따라 죽고 싶었으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 남편을 따라 죽어 후사(後嗣)를 끊는 것보다 남아(男兒)를 낳아 교육을 잘 시켜 선조(先祖)들의 제사를 받들며 가도(家道)를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참고 살았다. 후에 아들을 낳아 양육하여 집안의 명성을 세웠다. 『적성지(地)』

○ 하재복(河在復)의 처 전주최씨(全州崔氏)

부인은 본관이 진양인 하재복의 아내이다. 부인은 조상을 받들고 시부모를 섬기는 일과 남편을 받들어 모시는 일에 정성이 극진하였다. 남편이 원인 모를 이상한 병에 걸리자 백방으로 약을 구하여 치료하였으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부인은 세차례나 남편의 빈소에 들어가 목을 매어 목숨을 끊고자 하였으나 집안 사람들이 발견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부인은 어린 아들을 잘 길러서 선조들의 제사를 받들게 하여야 한다는 책임을 스스로 깨닫고는 슬픔을 참으면서 한 집안의 명성을 바로 세웠다.

부인의 아들 하창호(河昌鎬)도 어머니의 말씀을 받들어 어머니에게 효성이 극진하여,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3년간의 추복(追服)을 입었으며 어머니가 병들어 숨이 끊어지려 할 때는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입안에다 흘려 넣는 효성을 다하였다. 그의 아내 박씨(朴氏) 역시 남편의 효를 따라 손가락을 찢어 피를 내어 주혈(注血)로써 3일간을 더 살게 하였다. 『적성지(地)』

○ 하재익(河在翼)의 처 안동권씨(安東權氏)

부인은 본관이 진주인 하재익의 아내이다. 부인은 어려서 부터 검소하고 예의 바르게 자라서 효행이 있고 온순하며 온화하게 따르는 부덕(婦德)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의 남편이 병으로 위독하자 6년을 하루같이 산에다 빌고 하늘에 기도하며 정성을 다 하였으나 끝내 효험을 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 이에 손수 염습(殮襲)을 마치고 빈소를 마련한 뒤, 전실(前室) 아들 하장호(河章鎬)에게 선조의 봉제사(奉祭祀)와 할머니의 봉양을 당부하고 단식(斷食) 7일만에 목숨을 끊어 남편을 따랐다. 『적성지(天)』

○ 하태학(河泰學)의 처 연안이씨(延安李氏)

부인은 본관이 진양인 하태학의 아내이다. 부인은 나이 겨우 18세 때 남편이 병에 걸려 약도 효험이 없자, 계속하여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내어 마시게 하였으나 마침내는 운명하게 되자, 장례(葬禮)에서부터 상(喪)을 마칠 때까지의 모든 일을 예제(禮制)에 따라 하였고, 효성을 다하여 시부모를 봉양하면서 양아들을 데리고 길러 오랫동안 어려웠던 가세(家勢)를 일으켰다. 『적성지(地)』

○ 홍용이(洪龍伊)의 처 밀양박씨(密陽朴氏)

부인은 본관이 남양인 홍용이의 아내이다. 부인은 시부모를 모시고 효(孝)를 하면서 남편을 공경하며 섬기다가 나이 겨우 25세 때 불행하게도 남편과 사별(死別)하게 되었다. 부인은 남편을 따라 죽고자 하였으나, 위로는 칠순(七旬)의 연로(年老)하신 시부모가 있었고 아래로는 아비 잃은 한 살 난 어린 자식이 있었으며 곁에는 나이 어린 시동생이 있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집안 일을 맡아 시부모를 받들고 공양하는 일과 어린 자식과 시동생을 돌보면서 길러내어 마침내는 가계(家系)를 일으켰다. 『적성지(地)』

○ 황종각(黃鍾珏)의 처 김해허씨(金海許氏)

부인은 본관이 창원인 황종각의 아내이다. 부인은 남편이 위태로운 병에 걸리자,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입안에다 흘려 넣는 정성을 드렸는데도 마침내는 남편과 사별(死別)하는 일을 당하여 따라 죽고자 하였으나, 홀로된 시어머니와 어린 아들 때

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불행히 시어머니가 병에 걸려 6년 동안을 신음하게 되자 부인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허벅지 살을 떼어 약을 해드려 다행스럽게도 기운을 차리게 되었다. 또한 시어머니가 위태로운 병중에 생배와 물고기를 먹고 싶어하자 정성으로 기도하여 하늘에다 기도를 하였더니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가르쳐준 곳에서 배 두 개와 황쏘가리 한 마리를 구하여 공양(供養)하였다.

그 후에 또 다시 병이 위급해지자 손가락의 피를 내어 먹이고 자신의 살을 베어 화약(和藥)을 해 드리면서 눈물로 하늘에 비는 효를 다하였으나 끝내는 죽음을 면치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에 부인은 예제(禮制)에 따라 장례를 치루고 복(服)을 마친 뒤, 죽은 남편의 제사 파제(罷祭)날 새벽에 의(義)를 따라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적성지(地)』

제6절 무주의 효부(孝婦)

○ 권태선(權泰善)의 처 성산배씨(星山裵氏)

부인은 본관이 안동(安東)인 권태선(權泰善)의 아내다. 부인은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시부모를 효성을 다해 받들어 봉양하였으며, 시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즐겁해 해드렸다. 『적성지(地)』

○ 김만호(金萬鎬)의 처 해평길씨(海平吉氏)

부인은 본관이 의성(義城)인 김만호(金萬鎬)의 아내다. 부인은 결혼한 지 얼마 안되어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몸이 쇠약해지도록 애통해 하면서 예제(禮制)를 다 갖추어 상(喪)을 치루었다. 또한 여든 살이 넘은 시할머니 송씨(宋氏)가 병석(病席)에 눕게 되자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아 드렸으며, 시아버지와 시어른들을 극진히 봉양하였고, 상(喪)을 당해서는 예제(禮制)에 따라 장례를 마치고 아침 저녁으로 전(奠)을 올리며 곡읍(哭泣)하는 예절을 다하였다. 『적성지(地)』

○ 김영태(金永泰)의 처 전주최씨(全州崔氏)

부인은 본관이 경주(慶州)인 김영태(金永泰)의 아내다. 부인은 일찍이 남편을 잃고도 시가의 양친 부모를 효성으로 받들어 모셨으며, 시고모와 같은 집에서 함께 살면서도 집안이 화목하였다. 부인은 집안 일에 부지런하였으며, 어려운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들을 기르면서 학업에 힘쓰게 하였다. 『적성지(地)』

○ 박래준(朴來俊)의 처 김해김씨(金海金氏)

부인은 본관이 밀양(密陽)인 박래준(朴來俊)의 아내다. 부인은 19세에 결혼하여 시부모를 극진한 효성으로 섬겼고, 남편을 정중하게 받들어 주위에서 부덕을 갖추었다고 칭찬하였다. 불행히 부인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적성지(地)』

○ 박인하(朴寅夏)의 처 평산신씨(平山申氏)

부인은 본관이 밀양(密陽)인 박인하(朴寅夏)의 아내다. 부인은 시할아버지가 구순(九旬)이 될 때까지 30여 년을 받들어 모셨고, 시부모가 병으로 위독하자, 정성을 다하여 하늘에 기도하고 약을 구하여 병시중을 들었다. 상(喪)을 당했을 때는 애통해 하여 피눈물을 흘렸고, 옛제도에 따라 아침 저녁으로 제전(祭奠)을 올렸다. 『적성지(地)』

○ 박희룡(朴喜龍)의 처 함안조씨(咸安趙氏)

부인은 본관이 밀양(密陽)인 박희룡(朴喜龍)과 결혼한 지 얼마 안되어 남편이 객지로 나아간 후 종적을 알 길이 없었다. 부인은 지극히 가난한 집 안에 살림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져 고생하시는 시할머니를 9년 동안 정성을 다하여 보살펴 드렸으며, 시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장사(葬事)지내는 일과 상중(喪中)에 하는 모든 예절을 예제(禮制)에 따라 극진히 하였고 3년을 하루같이 매일 성묘를 하였다. 『적성지(地)』

○ 배준식(裵俊植)의 처 안동권씨(安東權氏)

부인은 본관이 성산(星山)인 배준식(裵俊植)의 아내다. 부인은 지극한 효성으로 시부모를 섬기면서 즐겁게 해드렸다. 『적성지(地)』

○ 서석희(徐錫禧)의 처 밀양박씨(密陽朴氏)

부인은 본관이 달성(達城)인 서석희의 아내다. 부인은 가난한 가정 생활 속에서도 시부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섬겼다. 시아버지가 죽어 인척 관계되는 집안의 묘 옆에 장사(葬事)를 지냈는데, 산주(山主)가 찾아와 묘를 파내라고 요구하며 7일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있으니, 부인도 역시 7일간을 먹지 않고 간절하게 하소연하는 정성을 보이자, 여기에 감동한 산주도 감탄하여 묘 쓰는 것을 허락하고 돌아갔다. 『적성지(地)』

○ 안술현(安述鉉)의 처 진양하씨(晉陽河氏)

부인은 본관이 순흥(順興)인 안술현(安述鉉)의 아내다. 부인은 가정 형편이 극히 어려운 집안으로 결혼하여 정성을 다하여 조상을 받들고 극진한 효성으로 시부모를 섬기고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원인 모를 이상한 병에 걸려 고생하던 시아버지를 10년 동안 하루같이 정성으로 시중을 들었다. 『적성지(地)』

○ 유최영(柳最榮)의 처 풍천임씨(豊川任氏)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2. 효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유한태(柳漢泰)의 처 현풍곽씨(玄風郭氏)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2. 효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이규삼(李圭三)의 처 경주최씨(慶州崔氏)

부인은 본관이 경주(慶州)인 이규삼(李圭三)의 아내다. 부인은 남편과 더불어 효성으로 어버이를 섬기면서 기쁜 낯빛과 즐거운 목소리로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에 뜻을 두었었다. 집안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맛있는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고 의복과 이부자리를 깨끗하게 해 드렸다. 조상(祖上)의 제사를 받드는 일에 정성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히 하여 자식된 직분을 다하였고 시동생을 기르면서도 예절을 갖추어 가르치기를 시종(始終) 한결같이 하였다. 『적성지(地)』

○ 이석종(李碩鍾)의 처 전주이씨(全州李氏)

부인은 본관이 원주(原州)인 이석종(李碩鍾)의 아내다. 부인은 오직 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을 공경하며 섬겼다. 부인은 기이한 병에 걸려 고생하는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약시중을 들면서 온갖 정성으로 받들어 모셨다. 부인의 아들 신포(莘圃) 이연준(李淵駿)은 학문이 훌륭하였으나 일찍이 죽었는데, 며느리 광산김씨(光山金氏)도 남편을 따라 죽으려고 마음 먹었으나 뱃속에 태어나지 않은 남편의 자식이 있어 차마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전실(前室)자식을 길러 집안을 이루고 효성으로 시부모를 섬기면서 여생을 마쳤다. 『적성지(地)』

○ 이종대(李鍾大)의 처 곡부공씨(曲阜孔氏)

부인은 본관이 경주(慶州)인 이종대(李鍾大)의 아내다. 부인은 그의 남편과 더불어 함께 효도하여 집안을 화목하게 하였다. 부인이 출산(出産)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 시아버지가 다른 마을을 나갔다가 눈이 쌓여있는 재에서 혹한(醒寒)에 못이겨 비명(非命)에 죽어 가고 있었다.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금방 낳은 애기가 자리에 누어있는 것도 잊은 채 문을 나서서 고개를 넘어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애기는 이미 죽어 버렸다. 시아버지의 다섯 손가락이 동상으로 떨어져 나가 붓고 진물이 나고 하였는데, 부인은 남편과 함께 번갈아서 입으로 피를 빨아내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적성지(地)』

○ 이종문(李鍾文)의 처 옥산장씨(玉山張氏)

부인은 본관이 경주(慶州)인 이종문(李鍾文)의 아내다. 부인은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부지런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시부모를 공경하며 기쁘게 해드렸다. 흉년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굶주리게 되었을 때에도 쌀독에 곡식을 간수해 두었다가 시부모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여 드리고, 자신과 나머지 식구들은 나물로 끼니를 때웠다. 『적성지(地)』

○ 최영익(崔榮翼)의 처 진양하씨(晉陽河氏)

행적이 무주 군지 중권 제3장 향토문화유적 제5절 충·효·열행 3. 열행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현우섭(玄雨涉)의 처 밀양박씨(密陽朴氏)

부인은 본관이 연주(延州)인 현우섭(玄雨涉)의 아내다. 부인이 결혼하여 처음 시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시부모에게 효성을 다하여 봉양하였다. 또한 어릴 때 양친부모를 다 잃은 남편의 사촌의 아들 하나를 자기가 난 아들처럼 정성을 다해 길렀다. 또한 망령기가 들은 시아버지를 정성으로 받들어 모셨다. 『적성지(地)』

○ 현필희(玄弼喜)의 처 경주김씨(慶州金氏)

부인은 본관이 연주(延州)인 효자 현필희(玄弼喜)의 아내다. 부인은 남편을 따라 지극한 효성으로 시부모를 잘 섬겼다. 시부모가 부스럼 병으로 고생할 때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어 낫게 했으며, 시부모가 식사를 할 때 힘들어 하면 숟가락질을 대신 해 드리고, 머리를 대신 빗겨 드렸으며, 음식을 시부모의 입맛에 맞춰 드리면서 따뜻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것도 시부모의 몸에 알맞도록 해 드렸다. 『적성지(地)』

제7절 무주의 자선가(慈善家)

○ 강동석(姜東錫)

강동석은 본관이 진주(晉州)이며 호은 덕은(德隱)으로 문량공(文良公) 강희맹(姜希孟)의 후손인 강신회(姜信會)의 아들이다. 그는 천성이 순박하고 인정이 두터웠다. 그는 일생동안 공부하는 여가에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곡식을 쌓아 두지 않고 곤궁한 사람들을 구휼(救恤)하였다. 그는 어려서 고아가 되어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나, 의탁할 곳 없는 홀아비 과부들을 수시로 구제하여 주었고, 흉년이 들면 원근의 어려운 이웃에게 두루 은혜를 베풀어 도와 주었다. 이에 지역 인사(人士)들이 안성면(安城面) 이목리(梨木里)에 비석을 세워 그 공덕을 기록하고 칭송하였다. 『적성지(地)』

○ 김영귀(金永龜)

김영귀는 본관이 광산(光山)으로 자(字)는 낙선(洛善)이며 호는 연서(淵西)이고, 충목공(忠穆公) 김여석(金礪石)의 후손으로 김필(金泌)의 증손이며 김계현(金啓鉉)의 아들이다. 그는 부지런하고 검소하여 가정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그는 성품이 인자(仁慈)하여 어렵게 사는 친구나 가난한 일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춘궁기(春窮期)에 이르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해 주고, 집집마다 내야 하는 세금을 대납(代納)해 주기도 하였다. 마을과 이웃이 안성면(安城面) 중산리(中山里)에 송덕비(頌德碑)를 세워 그 덕행을 기리고 칭송하였다. 『적성지(地)』

○ 김영훈(金永勛)

김영훈은 본관이 광산(光山)으로 자(字)는 응선(應善)이며 호는 사헌(沙軒)으로 충목공(忠穆公) 김여석(金礪石)의 후손인 김필(金泌)의 증손이자 김계현(金啓鉉)의 아들이다. 그는 천성이 너그럽고 인자하였으며 자선(慈善)에 뜻을 가져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돈이나 곡식을 주어 생업(生業)의 밑천을 삼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 덕택으로 어려운 일을 버티어 나간 사람들이 많았다. 『적성지(地)』

○ 김용승(金容昇)

김용승은 본관이 김해(金海)이며 탁영(濯纓) 김일손(金馹孫의 후손인 김병두(金炳斗)의 아들이다. 그는 성품이 활달하고 마음이 인자(仁慈)하였다. 어버이의 뜻을 이어받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넓게 베풀어 여러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그는 스스로 재정을 맡아 무너져 가던 무주향교를 보수하였고, 또한 부성(府城) 아래의 위험한 길과, 후도리(後島里)로 통하는 험악한 길을 고쳐 다니기에 편리하게 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그의 덕행을 기리는 기념대를 만들었다.

○ 박철호(朴澈浩)

박철호는 본관이 밀양(密陽)이며 호 농와(聾窩)로 국당공(菊堂公) 박흥생(朴興生)의 후손인 박진흠(朴鎭欽)의 아들이다. 그는 본성이 너그럽고 인자하였으며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베풀기를 좋아하여 일가 친척이나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어려울 때

는 때때로 구제를 해 주었으며 큰 흉년을 당했을 때는 혼자서 면내(面內) 세금을 부담하여 한 마을 사람들이 마음 놓고 살게 하였다. 고을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 그 덕행을 기리고 칭송하였다. 『적성지(地)』

○ 정봉학(鄭奉學)

정봉학은 본관이 경주(慶州)인데, 원래 집안이 지극히 가난하였으나, 배고픔을 달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여 부유하게 되었다. 그는 널리 베푸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그가 살고 있는 용포리(龍浦里) 앞에 큰 냇물이 있는데도 다리 놓기가 어려워 행인(行人)들이 건너 다니기가 극히 곤란하였다. 이에 그가 많은 금액의 비용을 혼자 부담하여 배를 만들어 건너 다니기 편리하게 하였다. 이에 고을 사람들이 나루터에다 송덕비(頌德碑)를 세웠다. 『적성지(地)』

제8절 무주의 기예인(技藝人)

○ 신 민(信 敏)

신민은 숙종 때 화원승(畵員僧)으로 그에 대한 속성은 전하는 바가 없다. 그는 원래 떠돌아 다니던 무뢰배(無賴輩)였는데, 승려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배우기를 간청하였으나 모두 거절을 당했다. 이에 그는 혼자서 절간의 방에 들어가서 불상(佛像)을 가지고 그림을 연구하여 후에 훌륭한 화공(畵工)이 되었다.

그의 화법(畵法)은 당시의 어떤 승려들보다도 기법에 훌륭하여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에는 무주의 적상산성의 괘불탱(掛佛撐)이 신민의 작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무주인물지』

○ 최북(崔北)

최북의 초명(初名)은 최식(崔埴)이고 자(字)는 성기(聖器) 또는 유용(有用)인데, 후에 이름을 북(北), 자(字)는 칠칠(七七)이라 고쳤다. 그는 호를 성재(星齋), 또는 기암

(箕庵), 기재(其齋)라고도 하였으며 늦게는 호생(毫生)이라 불렀는데, 그것은 붓털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그는 무주 출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족계(族系)나 관향(貫鄕)을 알 수가 없고, 그의 자호인 칠칠(七七)은 이름인 '북(北)'자를 두 자로 파자(破字)하여 지은 것이라고 한다.

그는 주객(酒客)으로 알려져 있고 화가(畵家)라고도 알려진 인물이다. 최북(崔北)은 하루에 5·6되의 술을 마실 정도로 술을 좋아하였다. 또한, 그는 서상기(西廂記)와 수호지(水湖誌) 등 모든 책 읽기를 좋아하였고, 시(詩)도 역시 잘하여 모르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그림을 잘 그렸는데, 한쪽 눈이 멀어서 항상 반쪽 안경을 쓰고 화첩(畵帖)에 본뜨거나 모방하여 그림을 그리며 술을 즐겨하고 나아가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였다.

그의 그림이 날로 세상에 알려지자 세상에서는 최산수(崔山水)라 불렀다. 그는 꽃과 풀, 새깃과 짐승털, 괴석과 고목 등을 부드럽게 흘려 쓰는 초서(草書)와 같이 거침없이 그려가면서도 미리 생각해 둔 구상에 골몰하여 작품을 내놓았다.

그의 작품으로는 국립박물관과 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추경산수도와 수하관폭도, 공강조어도가 유명하며, 그 밖에도 숙각산수도, 공산무인도, 풍설야귀인도, 표훈사도 등이 전해오고 있다. 그 중에도 영조 33년(1757) 남종화풍으로 그린 추경서산수도는 보기드문 걸작으로 우리나라 국보급에 해당한다고 한다. 최북은 서울에서 죽었는데 그의 나이가 49세였다고 한다. 『적성지(地)』

○ 황종혁(黃鍾赫)

황종혁은 본관이 창원이고 조선 순조 때 예인으로 호는 신석이다. 그는 어려서 부터 영리하여 글씨와 그림, 그리고 가야금, 거문고 등에 이르는 악기까지도 뛰어난 솜씨를 가지고 있었고, 공부도 열심히 하여 벼슬길에 올라 감찰(監察)에 이르렀던 인물이다.

당시 다재 다능한 그의 예능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어 더러는 조정(朝廷)의 부름으로 입궐하여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로 청중을 매료시켰고, 그로 인해 서울을 왕래하면서 조정의 현관(顯官)들과도 교우하며 일평생을 오로지 예술에만 심취하였던 예인 이었다. 『무주인물지』

제9절 명신(名臣)으로서 무주와 관련이 있는 인물

○ 권 종(權 悰)

권종은 본관이 안동(安東)이며 자(字)는 희안(希顔)으로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후손이다. 그는 음직(陰職)으로 벼슬길에 올라 군현(郡縣) 수령(守令)으로 여러 차례 나아갔는데 가는 곳마다 모두 명성과 공적이 있었고, 선조(宣祖) 25년(l592) 3월에는 금산(錦山) 군수(郡守)로 부임하였다. 그러나 부임한 달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임금이 파천하고 도성이 함락되자, 고을의 아전(衙前)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의병(義兵)을 일으켰다. 그의 종제(從弟)로 권율(擁標)도 역시 당시 광주목사(光州牧使)로 있으면서 급함을 알리는 서신을 띄우고 전주(全州)에서 서로 만나 적을 무찌르기로 약속했었다.

그 해 6월 왜군은 도성과 조선 7도를 유린하고 전라도를 점령하기 위해 충청도로부터 전라도를 공격하고자 하여 옥천(沃川)·영동을 점령하고 금산군 경내로 공격하여 들어왔다. 이에 그는 금산(錦山) 동쪽 천내(川內) 저곡(닥실) 언덕에다 (陣)을 치고 제원찰방(濟原察訪) 이길강(李吉網) 함께 적군과 교전(交戰)하였다. 6월 22일 적군이 강을 몰래 건너와 군영(軍營)을 습격하자, 권종은 의군을 거느리고 종일토록 혈전(血戰)을 벌여 많은 무리들을 살상 (殺傷)하였으나, 다음 날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패전하고 그의 아들 권준(權睃)과 함께 전사하였다. 그의 장자(長子) 권현(權晛)이 그와 권준(權睃)의 시체를 찾아 포천(抱川)으로 돌아가 선영(先塋)아래에다 장사를 지냈다.(『국역 적성지』 지, 무주문화원, 000)

○ 김여석(金礪石)

김여석은 본관이 광산(光山)으로 자는 은경(殷卿)이며 시호는 충목(忠穆)이다. 점필재(僉畢齋) 김종직(金宗直)에게 학문을 닦고 21세 때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다. 그 해 세조(世祖)의 친책(親策)에 나아가 2등으로 합격하여 임금의 총애와 예우를 받았는데, 좌찬성(左贊成) 최항(崔恒)에게 명하여 『무기욕(毋嗜欲) 무기음(毋嗜飮) 무교긍(毋驕矜) ; 욕망을 즐기지 말며, 술 마시기를 즐기지 말며, 교만하고 자랑하

지 말라』라는 9자를 쓰게 하고 어압(御押)하여 하사(下陽)하였다.

명(明)나라 헌종의 명령으로 군사를 일으켜 건주위(建州衛)를 공격할 때, 그는 윤필상(尹弼商)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출전하여 군자보급을 맡아 민첩하고 임기응변으로 행동하며 맡은 바 임무를 소홀함 없이 수행하고 개선하였다. 이에 명나라 헌종(憲宗)이 가상(嘉尙)하게 여기고 포상하였다.

그는 예조판서(禮曹判書)를 거쳐 이조판서(更曹判書)에 올랐다. 허백(虛白) 홍귀달(洪貴達)이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지었다. 순조 13년(1813) 본군(本郡) 도산서원(道山書院)에 제향(蔡享)하였고, 좨주(祭酒) 송래희(宋來熙)가 기문(記文)을 지었다. 그의 묘소가 안성면의 미륵암(彌勒菴)에 있다. 『적성지(天)』

○ 박천귀(朴天貴)

박천귀는 본관이 밀양(密陽)으로 대제학(大提學) 문간공(文簡公) 박시용(朴時庸)의 아들이다. 어머니를 섬김에 효성이 지극했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선(善)을 즐기고 예(禮)를 좋아하였으며, 명리(名利)에 뜻이 없어 관직에 나아가지 않았다. 태종 16년(1416) 임금이 등극하기 전에 맺었던 교분으로 불러서 손수 쓴 직첩(職牒)인 왕지(王旨)를 내려 주었다.

박천귀의 아들 박흥생(朴興生)은 호가 국당(菊堂)으로 덕행과 문장이 목은(收隱) 이색(李穡)과 상촌(桑村) 김자수(金自粹)에 못지 않았고, 손자 박인정(朴仁挺)은 함창(咸昌) 현감으로 있다가 주계(朱溪) 서호(西湖)에서 은거(隱居)하였고, 현손 박광선(朴光瑄)부터 주계읍(朱溪邑)에서 대대로 살면서 왕지(王旨)의 직첩을 대대로 지켰다. 고종(高宗) 33년(1896) 고당(高塘)묘 아래에다 어서각(御書閣)을 건립했다. 『적성지(天)』

○ 박희권(朴希權)

박희권은 본관이 반남(潘南)으로 호는 임회당(臨淮堂)이며 직장(直長) 박상경(朴尙製)의 5대손이다. 점필재(僧畢齋) 김종직(金宗直)의 문인(門人)으로 성리학(性理學)을 전수받고 효행과 덕행이 극진하였다.

단종이 영월(寧越)로 유배되자 진산군수를 지내던 부친에게 함께 영월로 갈 것을 청하였으나 9순의 할머니가 계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 뒤 금산(錦山)으로 물러

나 자기집 뒷뜰에다 제단(察壇)을 쌓고 매년 단종(端宗)의 휘일(諱日)이 되면 분향하고 망곡(望哭)을 하며, 단종이 지은 어제(御製) 자규시(子規詩)를 읊었다

그는 효성이 극진하여 부친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넣어 드렸고, 3년 동안 죽만 먹으며 여막(廬幕)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또한 흉년이 크게 들었던 해에 사방에서 화적(火賊)이 일어났는데도 그가 사는 마을에는 서로 경계하여 들어오지 않았으니 마치 황건적(黃巾賊)이 임자(任子)를 피해 간 것과 같아, 고을 사람들은 그가 사는 고을을 효자촌(孝子村)이라 일컬었다.

동몽교관(童蒙敎官)으로 증직(贈職)되어 본군(本郡) 도산서원(道山書院)에 모셨으며, 초려(草廬) 이유태(李惟泰)와 동곡(桐谷) 송래희(宋來熙)가 행장(行狀)을 썼다. 『적성지(天)』

○ 유 약(柳 約)

유약은 본관이 문화(文化)이며 호는 성곡(醒谷)으로 문성부원군(文城府院君) 충경공(忠敬公) 유량(柳亮)의 손자다. 관직은 숭록대부(崇祿大夫) 이조판서 겸 지경연 춘추관 성균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吏曹判書兼知經筵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官)을 지냈다.

그는 남에게 굽힐 줄 모르는 강직한 성품을 지녔는데, 중종(中宗)때 기묘사화(己卯士禍)로 좌천 되었고, 인종 1년(1545) 을사사화(乙巳士禍)에 또 다시 종손(從孫) 유관(柳灌)과 같이 연좌(連坐)되자,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충암(沖菴) 권발(權撥)등이 힘을 써 구제하려 했으나 풀리지 않았으며, 율곡(栗谷) 이이(李珥)와 휴암(休菴) 백인걸(白仁傑)이 열 번이나 상소하며 그를 변론하였다.

후에 조정에서 기덕(耆德)으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주계(朱溪)의 금리(錦里)로 들어가, 성곡(醒谷)이라 호를 붙이고 서호(西湖)에서 살면서 스스로 편하게 지냈다. 『적성지(天)』

○ 이심원(李深源)

이심원은 본관이 전주(全州)로 자는 백연(伯淵)이며 호는 성광(醒狂)인데 또 다른 호는 묵재(默齋)로 불리며 태종의 현손이다. 점필재(僉畢齋)·김종직(金宗直)의 문인(門

人)으로 경서(經書)에 밝고 행실이 훌륭하며 의술(醫術)에도 통달하였다. 성품은 충효하고 무술(巫術)과 불교를 싫어했으며, 평소 관복을 입고 손에서는 책을 놓지 않았다.

전강(殿講)에 나아가 사서(四書)와 오경(五經)을 익혔으며 25세때 명선대부(明善大夫) 행주계부정(行朱溪副正)에 이르렀다. 무릇 전후 다섯 번이나 왕께 글을 올려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에 대하여 논하였다. 산수가 아름다운 명승지인 이곳을 채읍(采邑)으로 하사(下陽) 받았다. 연산군 10년(1504) 갑자사화 때 임사홍의 모함을 받아 아들 형제와 함께 피살 당하고 말았다. 중종 때에 이르러 그 충의를 훌륭히 여겨 주계군(朱溪君)의 작위(爵位)를 내리고 정려(旌閭)하였다. 『적성지(天)』

○ 이 이(李 蓬)

이이(李蓬)의 본관은 원주(原州)로 자는 안지(安之)이며 호는 송우(松愚)인데, 영의정(領議政) 경원군(慶原君) 반계(攀桂)의 아들이다. 벼슬은 고려시대 대제학(大提學)을 지냈다. 포은(圖隱) 정몽주(鄭夢周)에게 수학(受學)하여 학문이 최상에 이르렀으며, 절의(節義)을 숭상하였다. 조선 태종이 등극(登極)하기 전부터 사귐을 인연으로 등용하고자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가지 않았다. 임금이 직접 여러 차례 찾아 갔어도 정성껏 나아가 인사만 할 뿐 신하로서의 극진한 예(禮)를 갖추지 아니하였다. 그의 손자 이천익(李天翊)은 자가 거원(擧遠)이며 호는 만포(晩圖)로 효성이 극진하였고 학문은 당대에 뛰어났다. 태종 11년(1411)에 문과(文科)에 합격하여 병조판서(兵曹判書)에 올랐다. 삼대(三代)의 사당이 무풍면 철목리(哲目里)에 남아 있다. 『적성지(天)』

○ 이 총(李 摠)

이총은 본관이 전주로 자는 백원(百源)이며 자호(自號)는 구로주인(鷗鷺主人)이라 하였는데, 탕건(宕巾)이 더러워지는 것에 구애받지 않고 마치 진(晋) 나라시대 풍류를 지녀 사학(史學)과 시문(詩文)을 읽으며 음률(音律)에 능하여 그 오묘(奧妙)함이 극치를 이루었다.

무풍정(茂豊正)에 봉해져 토지가 비옥한 서호(西湖)에 별서(別墅)를 하사 받아, 이 곳에서 항상 시인(詩人)과 문사(文士)들을 초대하고, 날로 좋은 시를 지어 무려 천여 편이나 이르렀다. 그는 연산 10년(1504)에 죽었다. 『적성지(天)』

○ 임 담(林 机)

임담(1596～1652)의 본관은 회진(會律)이며 자는 재숙(載叔)이며 호는 청구(淸滾)이며 시호는 충익공(忠翼公)으로, 관찰사를 지낸 임서(林淚)의 아들이다. 그는 인조 13년(1635)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올랐으며, 뒤에 호남지방의 민란을 평정한 공으로 가선대부(嘉善大夫) 평안감사에 오른 뒤에 참판(參判)과 도승지를 거쳐 이조판서(吏曹判書)를 역임했다. 비록 지위도 높고 이름도 널리 알려진 인물이지만, 산수를 좋아하여 시가(詩歌)를 읊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그는 주계(朱溪)의 서호(西湖)로 들어와 별장을 짓고 분의당(分宜堂)이라 편액 (扁額)하였다. 효종 때 사신이 되어 중국 연경(燕京)을 세 차례나 다녀왔고 청(淸)나라 사신의 반사(伴使)로 아홉 차례나 만로(灣路)에 나갔는데 끝내는 가산(嘉山)에서 죽었다. 효종(孝宗)이 부음(訃音)을 듣고 놀라 애도하면서 영의정(領議政)을 증직(贈職)하였다. 『적성지(天)』

○ 장의현(張義賢)

장의현의 행적은 무주 군지 상권 제2편 역사 제4장 조선시대의 무주 제4절 임진왜란과 무주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므로 기술을 생략한다.

○ 장필무(張弼武)

장필무(1510～1574)는 본관이 구례(求禮)로 자는 무부(武夫)이고 호는 백야(栢冶)이며 시호는 양정(襄貞)이다. 그는 중종 38년(1543) 무과에 급제하고, 종사관으로 연경(燕京)에 다녀왔으며, 온성판관(穩을城判官)을 지내면서 변방을 지켰다.

명종 22년(1567) 그가 만포첨사(滿浦僉使)로 있을 때 중국의 오랑캐가 반란을 일으켜 우리 변방을 침입했을 때, 그는 용맹한 군사 백 여명을 매복(埋伏)시켰다가 적을 공격하여 수 백명을 사로잡아 중국으로 보냈다. 명(明) 나라 목종(穆宗)은 그를 즉시 녹훈(錄勳)하라 명하고, 장필무(張弼武)의 이름을 새긴 은 3근에다 「황제문안(皇帝問安)」이라는 네 글자를 새겨 내려 보냈고, 이어 우리나라에 조칙(詔勅)을 내려 그를 찾도록 하였다. 이에 명종(明宗)은 그를 불러 명(明) 황제의 부름에 응하도록 하고 명(明)나라에서 하사한 주은(鑄銀) 한쪽에는 「청백장군 장필무(淸白將軍 張弼武)」라는 글씨를 써

서 어찰과 함께 하사하였다. 그는 후에 절도사(節度使)에 이르렀다. 죽계서원(竹溪書院)과 영동(永同) 화암서원(花巖書院)에서 향사(享祀)하고 있다. 『적성지(天)』

○ 하 연(河 演)

하연은 본관이 진주(晋州)이며 자는 연량(淵亮)이고 호는 경재(敬齋)이며 시호는 문효(文孝)로 두문동 (柱門洞)에 숨어 살던 목옹(木翁) 하자종(河自宗)의 아들이다. 고향은 청풍(淸風)으로 포은(圃隱)·정몽주(鄭夢周)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고, 21세때 사마(司馬)의 양시(兩試)에 합격하고 문과(文科)에 장원으로 합격하였다.

세종때 태종을 상왕(上王)으로 높여 모시고 헌수(獻壽)할 때, 그가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연석(宴席)에 참여하여 어제에 연구(聯句)를 지었다. 전라감사(全羅監司)에 임명되어 치적을 남겨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 대사헌(大司憲)에 임명되었을 때는 불교(佛敎)를 배척하는 소(統)를 올렸으며, 경암(敬菴) 허조(許稠)와 함께 오례의(五禮儀)를 편찬하였다.

문종 초기에 입신(立身)하여 영의정(領議政)이 되어 새로운 정치를 보필하였다. 재상(宰相)은 서로 자리를 전해주는 일이 있는데, 그는 익성공(翼成公) 황희(黃喜)와 문경공(文敬公) 허조(許稠)로부터 재상 자리를 물려 받아 정사를 보좌하여 치적을 남기고, 문희공(文僖公) 신석조(辛碩祖)에게 그 자리를 전해 주게 되었다. 78세에 정침(正寢)에서 운명하니 부음(訃音)을 들은 왕은 놀라고 슬퍼하면서 3일 동안 조회를 보지 않았고, 부의(賻儀)와 제물을 내리며, 관리들에게 관장(官葬)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명령하였다. 좌의정 남지(南智)가 신도비문(神道碑文)을 짓고, 진산군(晋山君) 강희맹(姜希孟)이 행장(行狀)을 지었다. 문종묘(文宗廟)에 배향(配享)되었으며, 그의 영정이 무풍의 백산사(栢山祠)에 봉안(奉安)되어 있다. 『적성지(天)』

〔집필 : 하태규〕